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76-01
협동연구서 2020-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Ⅱ

정해식
김성아 · 고혜진 · 여유진 · 권지성 · 정선욱 · 김지원 · 이정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지성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정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협동연구기관 연구진】
전영섭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석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윤주 계명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교수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수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구서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연구생
이수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Cassandra Gutierrez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유승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손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석사과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76-01
협동연구 2020-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II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현대아트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22-1 933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76-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여유진 선임연구위원 고혜진 부연구위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권지성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지원 연구원 이정윤 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전영섭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권석만 심리학과 교수 김석호 사회학과 교수 박윤주 계명대학교 교수 신혜란 지리학과 교수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수홍 인류학과 교수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 구서정 연구원 이수진 연구원 Cassandra Gutierrez 연구원 유승우 연구원 손민지 연구원

발|간|사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소득 감소 또는 단절은 삶의 질 논의의 중심을 다시 기본권적 차원으로 돌려놓았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삶의 질과 행복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측정된 행복도를 설명하는 요인을 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부패인식도, 삶의 선택에서의 낮은 자유, 낮은 관대성이 낮은 행복도의 원인으로 제시된 지가 오래되었다. 우리의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경제·사회적인 제약이 없도록 하는 사회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역시 시민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돕고 관리 조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GDP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수준에서의 성취 외에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다룬 종합 연구를 시작하며,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복 인식을 살펴보았다. 2020년에는 행복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확인하였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갖출 때도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은 북유럽 2개 국가 국민의 행복 인식의 특징을 파악한 2019년에 이어 올해에는 중남미 2개 국가 국민의 행복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국외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족과 사회에서 자유로운 결정권을 확보한다면 일정 정도의 불합리한 현실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리의 행복도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팀의 협동 연구로 추진되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해식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여유진 선임연구위원, 고혜진 부연구위원,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조사 및 연구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이정윤 연구원, 김지원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서 연구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한

엠브레인퍼블릭과 조사에 참여해주신 응답자들께 감사드린다. 또 중남미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에 함께 해주신 서울대학교 전영섭 교수를 포함한 행복연구팀과 이세희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차

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1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3

제2장 생애주기와 행복 ····· 21

제1절 문제 제기 ····· 2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4

제3절 생애주기별 가치와 행복 ····· 26

제4절 소결 ····· 54

제3장 노인의 일상생활 경험과 행복 ····· 57

제1절 문제 제기 ····· 5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60

제3절 분석 결과 ····· 65

제4절 소결 ····· 81

제4장 한국 사회의 행복 ····· 87

제1절 문제 제기 ····· 89

제2절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행복 ····· 90

제3절 한국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 ····· 95

제4절 소결 ····· 106

제5장 행복 측정에서 풍요지수(FI)의 탐색적 적용 ····· 109

제1절 문제 제기 ····· 111

제2절 분석 방법 ····· 112

제3절 영역별 · 요인별 풍요지수(FI)의 수준 ····· 113

제4절 풍요지수(FI)의 결정 요인 ····· 126

제5절 소결 ····· 131

제6장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 133

제1절 문제제기 ····· 135

제2절 연구 방법 ····· 136

제3절 연구 결과 ····· 139

제4절 소결 ····· 195

제7장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 199

제1절 문제 제기 ····· 201

제2절 중남미 국가 행복 연구 동향 ····· 202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 211

제4절 질적 연구 결과 ····· 217

제5절 소결 ····· 267

제8장 결론 ····· 273

제1절 요약 ····· 275

제2절 정책 제안 ····· 277

참고문헌 ····· 281

부록 ····· 295

부록1.「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표본설계보고서 ····· 295

부록2.「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조사표 ····· 326

부록3.「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기초통계표 ····· 347

부록4.「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질문지 ····· 450

부록5.「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동의서 ····· 453

부록6.「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연령집단별 면접 결과 귀납적 주제 분석 결과표 ····· 459

부록7.「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질문지 ····· 485

부록8.「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동의서 ····· 500

표 목차

〈표 1-1〉「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 15
〈표 1-2〉 응답자 분포 ····· 16
〈표 1-3〉「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안) ····· 17
〈표 1-4〉 국내 질적 연구 면접 대상자 선정 원칙 ····· 19
〈표 2-1〉 행복 결정요인 분석 ····· 27
〈표 2-2〉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와 행복의 상관관계 ····· 30
〈표 2-3〉 삶의 질 각 영역의 중요도와 만족도 기술통계량 ····· 32
〈표 2-4-1〉 가치의 충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8점 이상 기준) ····· 33
〈표 2-4-2〉 가치의 충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9점 이상 기준) ····· 35
〈표 2-5〉 연령별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 순위 ····· 38
〈표 2-6〉 영역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 40
〈표 2-7〉 연령별 영역별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단계별 회귀분석) ····· 43
〈표 2-8〉 연령별 정책 수요가 높은 제도 순위별 정책 수혜 경험과 충족도 ····· 47
〈표 2-9〉 제도별 수혜 경험과 행복의 상관관계 ····· 49
〈표 2-10〉 정책 수혜 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50
〈표 3-1〉 일상재구성법과 경험표집법 비교 ····· 62
〈표 3-2〉 일상재구성법 응답 시간대 분포 ····· 66
〈표 3-3〉 일상재구성법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6
〈표 3-4〉 활동별 응답률과 소요시간 ····· 70
〈표 3-5〉 활동별 정서적 경험 ····· 72
〈표 3-6〉 정서적 경험에 대한 활동 종류의 영향 ····· 74
〈표 3-7〉 혼자였다는 응답률과 소요시간 ····· 75
〈표 3-8〉 혼자였을 때 정서적 경험 ····· 76
〈표 3-9〉 정서적 경험에 대한 혼자였음의 영향 ····· 77
〈표 3-10〉 함께 있는 누군가의 응답률과 소요시간 ····· 78
〈표 3-11〉 함께 있는 누군가와 정서적 경험 ····· 79
〈표 3-12〉 정서적 경험에 대한 함께 있는 누군가의 영향 ····· 81
〈표 4-1〉 국가간 행복점수에 대한 회귀설명모델 ····· 92
〈표 4-2〉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안녕 ····· 96
〈표 4-3〉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충분성에 대한 응답 집단별 특성 ····· 97
〈표 4-4〉 행복 조건의 충분성 판단 집단별 더 행복할 조건- 1순위, 2순위 ····· 99

〈표 4-5〉 행복할 조건의 충족 여부별 행복 저해 요소- 1순위, 2순위 ····· 101
〈표 4-6〉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행복 점수 ····· 103
〈표 4-7〉 응답값 차이별 집단 특징 ····· 103
〈표 5-1〉 풍요지수(FI)의 영역 및 항목 구성 ····· 113
〈표 5-2〉 풍요지수(FI)의 영역별, 항목별 점수와 안정풍요지수(SFI)와의 상관관계(Correlation) ····· 115
〈표 5-3〉 지역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16
〈표 5-4〉 가구 및 개인 특성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18
〈표 5-5〉 경제적 지위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3
〈표 5-6〉 행복지수, 지표의 결정 요인 비교 ····· 127
〈표 5-7〉 연령대별 풍요지수(FI)의 결정 요인 비교 ····· 130
〈표 6-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 136
〈표 6-2〉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참여자 특성 ····· 137
〈표 6-3〉 세대별 관심사(걱정)와 국가 역할 ····· 183
〈표 7-1〉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 – 면접 대상자 요약 ····· 213
〈표 7-2〉 개인적 수준에서 본 행복 – 면접 대상자 요약 ····· 216

부표 목차

〈부표 1-1〉 2019년 기준 모집단의 집계구, 가구 및 인구 규모 ····· 295
〈부표 1-2〉 지역별 집계구 분포 ····· 296
〈부표 1-3〉 거처유형별 거처 수 ····· 297
〈부표 1-4〉 세대별 가구 수 ····· 298
〈부표 1-5〉 지역별 연령별 인구수* ····· 299
〈부표 1-6〉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수 ····· 300
〈부표 1-7〉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수준에 따른 표본크기 ····· 302
〈부표 1-8〉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에 따른 신뢰도 기준 ····· 304
〈부표 1-9〉 캐나다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에 따른 신뢰도 기준 ····· 304
〈부표 1-10〉 지역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비례배분 결과(인구비례) ····· 305
〈부표 1-11〉 비례배분에 따른 지역별 집계구 및 가구 배분 결과 ····· 306
〈부표 1-12〉 지역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네이만 배분 결과 ····· 307
〈부표 1-13〉 네이만 배분에 따른 지역별 집계구 및 가구 배분 결과 ····· 308
〈부표 1-14〉 지역별*연령별*성별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 결과 ····· 309
〈부표 1-15〉 제곱근비례 배분에 따른 지역별 집계구 및 가구 배분 결과 ····· 310
〈부표 1-16〉 지역별*연령별*성별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 결과 ····· 311
〈부표 1-17〉 제곱근비례 배분과 강제 배분 후 지역별 집계구 및 가구 배분 결과 ····· 312
〈부표 1-18〉 집계구 가중치 분포 ····· 318
〈부표 1-19〉 조정된 집계구 가중치 분포 ····· 319
〈부표 1-20〉 집계구 및 응답 가중치가 부여된 가구 기본가중치 분포 ····· 320
〈부표 1-21〉 가구 기본가중치와 조정계수 ····· 320
〈부표 1-22〉 사후 조정된 가구가중치 분포 ····· 321
〈부표 1-23〉 절단 가중치 적용 가구가중치 분포 ····· 322
〈부표 1-24〉 가구 기본가중치와 조정계수 ····· 323
〈부표 1-25〉 래킹비 조정후 개인가중치 분포 ····· 324
〈부표 1-26〉 절단 가중치 적용후 개인가중치 분포 ····· 325
〈부표 3-1〉 응답자 분포 ····· 348
〈부표 3-2〉 캔트릴 사다리: 삶의 평가 ····· 349
〈부표 3-3〉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 평균 생활비 ····· 350
〈부표 3-4〉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 351
〈부표 3-5〉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평균 가구소득 ····· 352

〈부표 3-6〉 거주 주택가격(2020.5.31. 기준) ····· 353
〈부표 3-7〉 부채 총액(2020.5.31. 기준) ····· 354
〈부표 3-8〉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 ····· 355
〈부표 3-9〉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 356
〈부표 3-10〉 [경제활동 참여자]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 357
〈부표 3-11〉 [경제활동 참여자] 평일 기준 출퇴근 시간(왕복) ····· 358
〈부표 3-12〉 [경제활동 참여자] 지난 1년간 일에 대한 경험 :
1) 나는 해야할 집안일을 하기 힘들만큼 너무 지쳐서 퇴근한다. ····· 359
〈부표 3-13〉 [경제활동 참여자] 지난 1년간 일에 대한 경험 :
2) 나는 일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가족의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웠다. ····· 360
〈부표 3-14〉 [경제활동 참여자] 지난 1년간 일에 대한 경험 :
3) 나는 나의 가족 책임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 361
〈부표 3-15〉 [경제활동 참여자] 정규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현재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 362
〈부표 3-16〉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응답자] 소득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지 여부 ····· 363
〈부표 3-17〉 [근로시간 감소 응답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감소 비율 ····· 364
〈부표 3-18〉 [근로시간 감소 응답자] 전체 근로소득 대비 감소 비율 ····· 365
〈부표 3-19〉 [근로시간이 너무 짧다 응답자] 소득이 늘어날 경우,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은지 여부 ····· 366
〈부표 3-20〉 [근로시간 증가 응답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증가 비율 ····· 367
〈부표 3-21〉 [근로시간 증가 응답자] 전체 근로소득 대비 증가 비율 ····· 368
〈부표 3-22〉 [경제활동 참여자] 정기적인 휴무일 지정 여부 ····· 369
〈부표 3-23〉 [경제활동 참여자] 일자리를 그만두었을 때 비슷한 급여나 소득의
일자리로의 재취업 가능성 ····· 370
〈부표 3-24〉 지난 5년(2015년~현재) 동안 원치 않은 일자리를 잃은 경험 ····· 371
〈부표 3-25〉 삶의 만족 ····· 372
〈부표 3-26〉 어제 행복 정도 ····· 373
〈부표 3-27〉 어제 우울 정도 ····· 374
〈부표 3-28〉 삶의 가치 : 에우다이모니아 ····· 375
〈부표 3-29〉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선택 가능 정도 ····· 376
〈부표 3-30〉 신체적 건강 상태 ····· 377
〈부표 3-31〉 정신적 건강 상태 ····· 378
〈부표 3-32〉 생활비 조달에 대한 걱정 정도 ····· 379

〈부표 3-33〉 안전과 식생활 주거에 대한 걱정 정도 ····· 380
〈부표 3-34〉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 381
〈부표 3-35〉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의 노력 정도 ····· 382
〈부표 3-36〉 향후 더 큰 행복을 위한 현재의 행복 포기 가능성 ····· 383
〈부표 3-37〉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384
〈부표 3-38〉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월평균 최소 소득 ····· 385
〈부표 3-39〉 생활영역 만족 : 생활수준 ····· 386
〈부표 3-40〉 생활영역 만족 : 건강 ····· 387
〈부표 3-41〉 생활영역 만족 : 삶에서 성취한 것 ····· 388
〈부표 3-42〉 생활영역 만족 : 가족 관계 ····· 389
〈부표 3-43〉 생활영역 만족 : 사회적 친분 관계 ····· 390
〈부표 3-44〉 생활영역 만족 : 안전 ····· 391
〈부표 3-45〉 생활영역 만족 : 안정성 ····· 392
〈부표 3-46〉 생활영역 만족 :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 393
〈부표 3-47〉 생활영역 만족 : 지역사회 환경 질 ····· 394
〈부표 3-48〉 생활영역 만족 : 하는 일 ····· 395
〈부표 3-49〉 생활영역 중요도 : 1순위 ····· 396
〈부표 3-50〉 생활영역 중요도 : 2순위 ····· 397
〈부표 3-51〉 생활영역 중요도 : 3순위 ····· 398
〈부표 3-52〉 생활영역 중요 : 생활수준 ····· 399
〈부표 3-53〉 생활영역 중요 : 건강 ····· 400
〈부표 3-54〉 생활영역 중요 : 삶에서 성취한 것 ····· 401
〈부표 3-55〉 생활영역 중요 : 가족 관계 ····· 402
〈부표 3-56〉 생활영역 중요 : 사회적 친분 관계 ····· 403
〈부표 3-57〉 생활영역 중요 : 안전 ····· 404
〈부표 3-58〉 생활영역 중요 : 안정성 ····· 405
〈부표 3-59〉 생활영역 중요 :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 406
〈부표 3-60〉 생활영역 중요 : 지역사회 환경 질 ····· 407
〈부표 3-61〉 생활영역 중요 : 하는 일 ····· 408
〈부표 3-62〉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충분성 ····· 409
〈부표 3-63〉 행복할 수 있는 조건 : 1순위 ····· 410

〈부표 3-64〉 행복할 수 있는 조건 : 2순위 ····· 411
〈부표 3-65〉 행복 저해 요소 : 1순위 ····· 412
〈부표 3-66〉 행복 저해 요소 : 2순위 ····· 413
〈부표 3-67〉 우리 사회 행복 수준 ····· 414
〈부표 3-68〉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15
〈부표 3-69〉 캔트릴 사다리: 삶의 평가(코로나19 이전) ····· 416
〈부표 3-70〉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육아휴직급여 ····· 417
〈부표 3-71〉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아동수당 ····· 418
〈부표 3-7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아동돌봄 및 교육지원 ····· 419
〈부표 3-73〉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아동보육서비스 지원 ····· 420
〈부표 3-74〉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421
〈부표 3-75〉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대학생등록금지원 ····· 422
〈부표 3-76〉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 ····· 423
〈부표 3-77〉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주택 등을 위한 각종 공공대출, 융자 ····· 424
〈부표 3-78〉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 425
〈부표 3-79〉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실업급여 ····· 426
〈부표 3-80〉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 427
〈부표 3-81〉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생계비/의료비 지원 ····· 428
〈부표 3-8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국민연금 ····· 429
〈부표 3-83〉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기초연금 ····· 430
〈부표 3-84〉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 431
〈부표 3-85〉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장애인 활동지원 ····· 432
〈부표 3-86〉 우리 사회 믿음에 대한 인식 ····· 433
〈부표 3-87〉 우리 사회 부패 수준 : 정치영역 ····· 434
〈부표 3-88〉 우리 사회 부패 수준 : 경제영역 ····· 435
〈부표 3-89〉 우리 사회 인식 :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 436
〈부표 3-90〉 우리 사회 인식 :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 437
〈부표 3-91〉 우리 사회 인식 :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 ····· 438
〈부표 3-92〉 우리 사회 인식 :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 439
〈부표 3-93〉 우리 사회 인식 :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 440

〈부표 3-94〉 우리 사회 인식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 441
〈부표 3-95〉 우리 사회 인식 :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 442
〈부표 3-96〉 주관적 소득계층 ····· 443
〈부표 3-97〉 사회 이동 : 15세 무렵에 비해 계층 변화 ····· 444
〈부표 3-98〉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 445
〈부표 3-99〉 향후 10년 이내 생활수준 변화 기대 ····· 446
〈부표 3-100〉 우리 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 447
〈부표 3-101〉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 448
〈부표 3-102〉 이념적 성향 ····· 449

그림 목차

[그림 1-1] 연차별 연구주제 ····· 13
[그림 1-2] 2020년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 14
[그림 1-3]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복 수준(2018년) ····· 20
[그림 2-1] 연령별 행복의 실제 값과 기댓값 비교 ····· 28
[그림 2-2] 연령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 정도 ····· 30
[그림 2-3] 연령별 행복 점수 ····· 31
[그림 2-4] 연령별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 ····· 37
[그림 2-5] 영역별 만족도 실제 값과 기댓값의 차이 ····· 42
[그림 2-6] 연령별 행복 저해 요인 ····· 46
[그림 2-7] 국민연금 수혜자의 행복도 (60대 이상) ····· 53
[그림 2-8] 기초연금 수혜자의 행복도 (60대 이상) ····· 53
[그림 3-1] 60세 이상의 시간대별 정서 ····· 67
[그림 3-2] 활동별 정서적 경험 ····· 71
[그림 3-3] 혼자였을 때 정서적 경험 ····· 76
[그림 3-4] 함께 있는 누군가와 정서적 경험 ····· 78
[그림 4-1] 주요국의 행복점수와 요인별 설명력 ····· 91
[그림 4-2] 각국의 1인당 GDP와 행복점수 ····· 93
[그림 4-3]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2010년대 후반) ····· 94
[그림 4-4] 행복 조건의 충분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 96
[그림 4-5]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행복 조건의 충분성 인식 ····· 98
[그림 4-6] 주요 특징 집단의 더 행복할 조건- 1순위 ····· 100
[그림 4-7]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행복 점수 분포 ····· 102
[그림 4-8] 연령대별 우리 사회의 행복과 삶의 만족 평균 점수 ····· 104
[그림 4-9] 우리 사회의 행복 저해 요소 응답 분포-행복할 조건의 충족 여부 집단별 ····· 105
[그림 4-10] 우리 사회의 행복 저해 요소 응답 분포-연령 집단별 ····· 106
[그림 5-1] 지역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16
[그림 5-2] 가구규모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0
[그림 5-3] 가구주 여부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0
[그림 5-4] 성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0
[그림 5-5] 연령대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1
[그림 5-6] 학력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1

[그림 5-7] 배우자유무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1
[그림 5-8] 경제활동 상태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2
[그림 5-9]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4
[그림 5-10] 소득 계층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4
[그림 5-11] 주관적 계층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4
[그림 5-12] 재산 계층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 125
[그림 6-1] 청년, 남성, 가의 행복의 맥락 ····· 142
[그림 6-2] 청년, 남성, 나의 행복의 맥락 ····· 142
[그림 6-3] 청년, 남성, 다의 행복의 맥락 ····· 143
[그림 6-4] 청년, 여성, 가의 행복의 맥락 ····· 143
[그림 6-5] 청년, 여성, 나의 행복의 맥락 ····· 144
[그림 6-6] 청년, 여성, 다의 행복의 맥락 ····· 144
[그림 6-7] 장년, 남성, 가의 행복의 맥락 ····· 148
[그림 6-8] 장년, 남성, 나의 행복의 맥락 ····· 149
[그림 6-9] 장년, 남성, 다의 행복의 맥락 ····· 149
[그림 6-10] 장년, 여성, 가의 행복의 맥락 ····· 150
[그림 6-11] 장년, 여성, 나의 행복의 맥락 ····· 150
[그림 6-12] 장년, 여성, 다의 행복의 맥락 ····· 151
[그림 6-13] 중년, 남성, 가의 행복의 맥락 ····· 154
[그림 6-14] 중년, 남성, 나의 행복의 맥락 ····· 155
[그림 6-15] 중년, 남성, 다의 행복의 맥락 ····· 155
[그림 6-16] 중년, 여성, 가의 행복의 맥락 ····· 156
[그림 6-17] 중년, 여성, 나의 행복의 맥락 ····· 156
[그림 6-18] 중년, 여성, 다의 행복의 맥락 ····· 157
[그림 6-19] 노년, 남성, 가의 행복의 맥락 ····· 161
[그림 6-20] 노년, 남성, 나의 행복의 맥락 ····· 161
[그림 6-21] 노년, 남성, 다의 행복의 맥락 ····· 162
[그림 6-22] 노년, 여성, 가의 행복의 맥락 ····· 162
[그림 6-23] 노년, 여성, 나의 행복의 맥락 ····· 163
[그림 6-24] 노년, 여성, 다의 행복의 맥락 ····· 163
[그림 6-25] 한국인들이 경험한 국가와 행복의 맥락 ····· 164

Abstract

A Comprehensive Study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II)

Project Head: Jung, Hae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ns. In 2020, the second year of this 3-year research project, we analyze the effects of life-cycle experiences and the response of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on happiness.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promoting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ulfillment of needs, un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happiness.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 three ways. First, the 2020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Survey of Korean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ception and actual condition of people'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The survey following the 2019 survey added questions about the conditions and importance of happiness, the fulfillment of need, the balance of work and life, the use of time for the elderly, and the flourishing. Seco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o grasp the path of risk experience and the effect of institutional response on individual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eople in two Latin American countries so that we could compare and analyze the quality of hap-

---

Co-Researchers: Kim, Seonga., Ko, Hyejin., Yeo, Eugene., Kwon, Jisung., Jeong, Sunwook., Kim, jiwon., Lee, Jungyoon.
Co-Research Team: Research team on Happiness at College of Social Sciences in SNU

piness i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people. Following a 2019 study of two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he population of two Latin American countries (Mexico, Costa Rica) was surveyed in 202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Koreans identified as important for happiness varied across the life cycle. Second, a survey using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for the elderly confirmed that the more isolated older adults become, the less happy they are. Third, we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happiness in our country. The low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is accompanied by a negative assessment of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happiness as they grow older. Fourth, we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Flourishing Index (FI) could be used for happiness research, as it has an edge over the life satisfaction scale when it comes to the concept of multidimensional happiness. Fifth, in order to promote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expand welfare, and to more accurately respond to people's various needs. Sixth, happiness is not only based on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t is closely related to socio-cultural composition, and expectations for society's role in satisfying happiness are growing in our socie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deal analysis,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promoting happiness in Korean society. In Korean society, the need to respond through the welfare system is increasing. Ensuring a minimum level of these needs selectively is unlikely to result in an increase in happiness. When welfare is expanded to a level that guarantees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the happiness of our society will increase.

*Keywords: Happiness, Policy Beneficiary Experience,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Flourishing Index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질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인 행복 인식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왜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된 3개년 연구이다.

2020년 연구는 종합 연구의 2년 차에 해당하며, 생애주기별 경험과 이에 대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삶의 질 개선,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욕구의 충족, 미충족과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년 차 연구가 한국인의 행복 인식을 두루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2년 차 연구는 누가 '부족', '풍요'를 느끼는가,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행복은 어떠한가와 같은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생애주기별 욕구 경험에 따른 행복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 이어 실시한 조사에는 행복의 조건과 중요도, 행복할 조건의 충족과 더 행복할 조건, 일과 삶의 균형,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 풍요로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2019년 조사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형태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2020년의 조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주기 주요 과업을 수행하는데 경험한 위험(risk)과 이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개인의 행복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였다. 각각의 생애주기 과업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의 4개 연령 집단의 남녀 각 3명씩 모두 2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셋째, 우리 국민의 인식 속에서 확인되는 행복의 질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의 행복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중남미 2개국(코스타리카, 멕시코) 국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였다. 2020년 인터뷰에서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를 인터뷰 대상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과 개인적 수준에서의 행복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즉, 조사 참여자들은 자국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행복하다고 판단하는지 평가하는 집단과 본인 행복의 특징을 설명하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두 나라에서 모두 34명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제약으로 온라인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 및 관련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주요 결과이다.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생애주기 과업의 하나하나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우리 국민의 행복 증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수혜 경험과 행복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때는 더 명확한 정책 방향이 확인된다. 정책수혜 경험 자체는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경험에서의 충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욕구의 해결이 행복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사회보장제도가 대응하는 욕구와 그 대상자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선별의 경험과 행복 간의 관계가 확인된다. 보편적인 집단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경험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재구성법을 적용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이 고립되는 상황에 놓일수록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배우자, 연인,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은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낮추는 것으로, 그리고 친구와 동료와 어울리는 시간은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혼자 있는 노인에게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긍정적 정서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또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참여의 의미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노인의 행복 증진에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행복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제 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행

복도의 원인은 관대성이 낮고, 부패인식이 높으며, 삶에서의 선택의 자유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제약하는 요소를 줄이고,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는 삶, 서로에게 공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노인의 낮은 삶의 만족도가 특징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집단은 고연령이고, 미혼,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고, 대졸 이상 학력은 적고, 가구소득이 낮다. 이렇게 행복할 조건의 충분함에 대한 평가 차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에서의 변화가 한 축을 차지한다. 다른 하나의 축은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관련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업자의 경우에는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훨씬 높았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 대상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 것이 한국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를 통해 시험적으로 측정한 풍요지수(FI)는 행복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치로서 삶에 대한 평가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에 비해 다차원적인 행복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합된 지수로서 풍요지수(FI), 안정풍요지수(SFI)뿐 아니라 지수의 하위 영역인 행복과 삶의 만족도,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사회관계,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의 6개 영역이 가지는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2019년 1차 연도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다양한 문항을 각종 조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풍요로움'을 행복의 한 요소로 보고 측정할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

다음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에 대한 필요와 행복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복지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요'를 복지를 행하는 기준으로 볼 때 청년 세대는 이러한 '필요'를 더 확장된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욕구 충족에 있어 국가의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 복지의 확대, 더 정확하게는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국가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결과이다.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물질적 조건은 열악하나 행복도가 높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국민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이다. 두 나라는 국가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현실적인 어

려움이 존재하지만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코스타리카,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달리 순조롭지 않은 삶 사이에서 종교적 관념과 실천으로 이를 극복하는 멕시코로 크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 행복은 정치·경제적 현실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행복의 물질적 토대와 문화적 구성이 개인의 인식에 결합하는 양상과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자신과 가족, 관계망의 상태를 행복의 조건으로 하는 우리의 행복 인식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행복을 개인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대에서 사회가 행복을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로 교체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회문화적 구성은 바뀌어 가는 중이며, 이에 따라 행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구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의 2년 차 연구결과로서 이 보고서는 행복의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를 포함한다. 우리 사회의 다가올 변화를 고려한 행복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령별 행복 정도를 고려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 전체의 행복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고령자가 생애 후반기를 경제적, 신체적,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준비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사회활동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풍요로움'을 행복의 요소로 볼 때 확인되는 지역별, 연령별 차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부적 측정에 기반하여 지역 단위의 행복 증진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행복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점차 우리 사회에서 복지제도가 대응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필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필요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즉, 선별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복지가 아니라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형태로 복지가 확장될 때 우리 사회의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다.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할 때 결핍, 박탈 상태의 최소화라는 접

근에서 ‘풍요로움’의 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요로움’에 대한 측정방법의 하나로 제시한 풍요지수(FI)의 활용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행복, 정책수혜 경험, 자유로운 선택, 풍요지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문재인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 20). 소득 보장, 건강 보장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며, 재난과 환경오염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노동을 존중하며 성 평등을 구현하는 공정한 노동 사회를 만들고, 문화적으로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국정목표를 구체화하는 계획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2018년 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은 '지체된 삶의 질을 개선하여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미래의 기술혁명에 대비하여 계층·성·세대간 통합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시대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8, p. 10). 2019년 말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을 발표하였는데, 소득보장·건강보장·사회지출투자를 통해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젠더 평등 및 문화적 공존을 도모하여 차별 없는 사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글로벌소프트파워를 발휘,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신활력의 역량 사회를 만드는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구성하는 것을 4대 전략의 첫째로 제시하였다(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p. 26). 사회부총리가 주관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국민 전 생애를 기본생활보장 관점에서 재구조화하여 삶의 영역과 생활 기반에서 취약함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천 지표를 통해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 이러한 계획의 수립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그간 이뤄왔던 경제적 발전의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설계된 사회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선택적 발전과정을 거쳤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함을 해

소하지 못하여 혁신의 기반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놓여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을 대상 관점에서는 보다 포용적(inclusive)으로 확대하고, 제공 서비스 관점에서는 포괄적이고(comprehensive), 적절한(adequate) 수준으로 확대해야만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삶의 질을 보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료에서 확인된다. 정해식, 강신욱, 김동진, 김성아, 강미나, 김지혜, … 김종호(2018, p. 27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삶의 질의 특징이 취약한 영역과 양호한 영역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 특히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 일과 삶의 조화에서 취약점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개발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매년 발간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156개국 중에서 57위에 올랐으며(Helliwell, Layard, & Sachs, 2018), 2019년 5.895점으로 156개국 중 54위(Helliwell, Layard, & Sachs, 2019), 2020년에는 5.872점으로 153개국 중 61위를 보였다(Helliwell, Layard, Sachs, De Neve, Aknin, Huang, & Wang, 2020).[1] 행복지수와 순위의 등락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비하면 주관적 행복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 국민의 낮은 행복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2] 주관적 안녕과 객관적 삶의 조건 사이의 일치와 불일치, 열망과 기대수준에 비해 미충족된 욕구,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만약 행복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주관적 행복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보다는 각종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모두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최소기준으로써의 삶의 조건의 미비함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행복 추진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다.

---

1) 「세계행복보고서」는 주관적 행복도를 묻는 각 연도별 문항의 최근 3년 평균값으로 행복지수를 계산한다. 각 연도별 주관적 행복도 값은 2015년 5.780점, 2016년 5.971점, 2017년 5.874점, 2018년 5.840점, 2019년 5.903점이다(Helliwell et al., 2020). 주관적 행복도가 특히 낮았던 2015년의 값이 제외된 2019년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

2) 이 연구는 2019년에 이은 2차연도 연구로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배경에 대한 소개는 1차연도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 . . 유지수, 2019).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차별 연구 내용

행복은 개인 삶의 심리적 경험인 동시에 삶의 환경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두 3년간의 협동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2020년 연구는 2년 차 연구에 해당한다. 3년간의 연차별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정해식 외, 2019, p. 19).

•1년 차(2019):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위계적, 결합적 특성을 집단(성별, 연령 집단, 지역, 소득 계층 등)별로 파악하여, 대상별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

•2년 차(2020): 생애주기별 위험 경험과 이에 대응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복지제도의 체계적 대응 필요를 확인

•3년 차(2021): 객관적 삶의 질(미시적, 거시적)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여, 비교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

[그림 1-1] 연차별 연구주제



자료: 각 연차별 계획을 기본으로 저자가 작성함.

2019년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주관적 인식의 구성 형태를 확인하였다(정해식 외, 2019). 2019년 연구에서는 복합적 개념으로서 행복을 측정하고자 다양한 행복 척도를 적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연령대, 가구의 경제적 지

위, 거주지역 등에 따른 행복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의 성격 요소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 등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행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차원적임을 밝히고 특히 행복을 채우는 데 있어 부족한 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누가, 어떤 요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행복과 삶의 질의 요소에서 부족함을 느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2020년 연구는 생애주기별 위험 경험과 이에 대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을 고려한다. 이러한 위험 경험은 욕구와 필요에 대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 설정은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더 가깝지만, 그렇다고 하여 삶의 질의 어떤 요소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덜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년 차 연구로서 이 보고서는 욕구를 충족한 경험, 충족한 방식의 경험을 통해 '풍요'한 사람의 행복, 누가 '풍요'를 느끼는가와 같은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가진다.

마지막으로 2021년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계획이다.

2. 2020년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2020년 연구주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애주기별 위험 경험과 정책 대응, 일상생활 방식의 특징과 행복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모두 3개의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1-2〕 2020년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자료: 각 연차별 계획을 기본으로 저자가 작성함.

먼저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양적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조사에는 풍요로움, 행복의 조건, 일과 삶 균형 등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애주기별로 욕구와 욕구에 대응하였던 방식에서의 차이, 즉 개인이 스스로 이러한 욕구를 해결했었는지 아니면 사회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욕구를 해결해나갔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가 행복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이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의미와 조건 탐색을 위해 국외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중남미 2개 국가(코스타리카, 멕시코) 국민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객관적 삶의 질은 양호하지 않지만 행복도가 높은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수행한 국외 질적 연구는 2020년 연구주제인 생애주기 경험과 연구주제에 맞춰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3년 계획으로 설계된 종합 연구를 위한 자료 축적 및 해석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1년에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2020년 연구 수행을 위해 실시한 세 가지 연구방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3)]

〈표 1-1〉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만 80세 미만 성인 남녀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2001년 4월 1일 이전 출생) ~ 만 80세 미만(1940년 3월 31일 이후 출생) 남녀 * 제주도를 제외한 섬 지역 거주자는 제외
표본 단위	가구 내 개인 1인(가구 방문 후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선정된 가구원)
표본 크기	전국 505개 집계구 내 5,050명 *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인구수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 배분 후 추출률을 고려한 강제 배분
표본 추출	집계구 활용 조사 - 표본 집계구 505개에서 10가구를 계통 추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 기간	2020년 6월 23일~7월 21일
조사 내용	가구 구성 및 경제상태, 응답자 일반사항, 행복과 심리적 정서, 심리적 역량, 사회 및 계층 인식, 일상재구성(만 60세 이상)
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자료: 저자 작성.

3)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는 표집 및 조사표를 포함한 연구방법과 연구자료의 활용에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제2020-28호(2020.6.22.)]의 승인을 받았다.

〈표 1-2〉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개인가중치 적용안함		개인가중치 적용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전체		5,050	100.00	5,050	100.00
성별	남성	2,523	49.96	2,556	50.61
	여성	2,527	50.04	2,494	49.39
연령대	20대 이하	876	17.35	916	18.14
	30대	861	17.05	872	17.27
	40대	925	18.32	1,004	19.88
	50대	959	18.99	1,039	20.58
	60대	834	16.51	784	15.52
	70대	595	11.78	435	8.61
지역	수도권	1,390	27.52	2,558	50.65
	비수도권	3,660	72.48	2,492	49.35
	대도시	2,080	41.19	2,178	43.13
	중소도시	2,560	50.69	2,544	50.38
	농어촌	410	8.12	328	6.5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21	10.32	491	9.72
	중하층	1,870	37.03	1,949	38.59
	중간층	2,334	46.22	2,258	44.72
	중상층(상층)	325	6.44	352	6.9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64	30.97	1,323	26.20
	200만 원대	2,135	42.28	2,120	41.98
	300만 원대	981	19.43	1,066	21.12
	400만 원대	264	5.23	381	7.55
	500만 원 이상	106	2.10	160	3.16
학력	중졸 이하	738	14.61	568	11.24
	고졸	2,122	42.02	2,089	41.37
	대졸 이상	2,190	43.37	2,393	47.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69	38.99	2,093	41.4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45	12.77	623	12.34
	고용주·자영자	968	19.16	950	18.82
	무급가족 종사자	54	1.07	37	0.73
	실업자	117	2.32	133	2.63
	비경제활동인구	1,297	25.68	1,214	24.04
직업 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86	71.12	2,718	73.41
	비정규직	1,050	28.88	985	26.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55	26.83	1,360	26.93
	중도적	2,260	44.75	2,185	43.27
	진보적	1,435	28.42	1,505	29.80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과 적용한 값을 구분하여 제시함.
2) 직업 안정성은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여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1-3〉「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안)

구분	영역		내용	참고 자료
종속변수	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삶의 가치	"___님께서는 _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ntril (1965); Gallup (2014); Helliwell, Layard, and Sachs (2019); 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and Stone (2004); OECD (2013);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박이택, 김성아 (2017)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전반적인 삶	"___님께서는 요즘 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캔트릴 사다리 (삶의 평가)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영역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생활수준, ② 건강, ③ 삶에서 성취한 것, ④ 가족관계, ⑤ 개인적인 관계, ⑥ 안전, ⑦ 미래 안정성, ⑧ 시간적 여유, ⑨ 지역사회 전반, ⑩ 직업 등"	
	정서적 행복 (Affective happiness)	긍정적 정서	"___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부정적 정서	(우울) "___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우울하셨습니까?"	
	풍요로움 (Flourishing)		신체·정신적 건강,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목(지향), 친밀한 사회적 관계, 재정 및 물질적 안정	Human Flourishing Program at Harvard's Institute for Quantitative Social Science(https://hfh.fas.harvard.edu/measuring-flourishing)
독립변수	행복의 조건		행복할 조건 충족 여부, 더 행복할 조건	한국교육고용패널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행복저해요소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2)
			사회 행복지수, 사회 행복지수에 가장 중요한 요소	
	영역별 중요도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생활수준, ② 건강, ③ 삶에서 성취한 것, ④ 가족관계, ⑤ 개인적인 관계, ⑥ 안전, ⑦ 미래 안정성, ⑧ 시간적 여유, ⑨ 지역사회 전반, ⑩ 직업 등"	OECD (2013)
	일상재구성(DRM)		어제 활동, 함께한 사람, 시간사용, 정서경험	Kahneman et al. (2004)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수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
	경제적 특성		경제활동, 실업 경험, 주거 점유형태,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박탈 등	김미곤 외 (2014),

구분	영역	내용	참고 자료
	근로시간 소득대체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생각, 소득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 소득이 늘어날 경우 근로시간을 늘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 정기적 휴일, 동일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 등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한국고용정보원, 2018)
	일과 삶의 균형	집안일을 하기 힘들만큼 지쳐서 퇴근한 경험, 시간이 부족해 가족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웠던 경험, 가족 책임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경험	Eurofound (2016)
	성격	단축형 Big 5 Inventory	한국미디어패널조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물질주의	물질주의 척도	Richins and Dawson (1992)
	신뢰 및 사회인식	사회에 대한 신뢰, 부패인식, 사회인식 등	Inglehart et al. (eds.) (2014).;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이동성 인식	정해식 외 (2018)
		자살 생각	한국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제도적 조건	사회보장제도 가입 및 수급 경험 등	김태완 외 (2017)
	계층인식	주관적 소득계층, 계층이동 경험과 기대 등	여유진 외 (2015)
통제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 건강, 가구특성, 실업경험 등	
표지정보		응답자 특성, 가구주와의 관계, 주소(시도, 시군구), 응답일자, 응답요일, 유치조사 여부, 응답방법, 주거형태 등	

주: 음영 표시는 2019년 조사와 비교하여 2020년 조사에서 추가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한 문항을 의미함.
자료: 정해식 외.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pp. 22-24를 이용하여 수정함.

나. 국내 질적 연구 개요

국내 양적 연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수행한 국내 질적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위험과 각각의 경험에서 국가의 제도적 대응 또는 개인적 대응 경험이 개인의 행복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분석하여, 복지정책 경험이 행복한 삶으로의 회복에 기여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이 연구주제에 맞춰 설계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개별 면접 대상을 선정함에서는 취업, 결혼·출산과 양육, 은퇴, 노후 생활이라는 생애주기별 과업 시기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표와 같이 4개 연령 집단의 남녀 각 3명씩 총 24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2020년 7~8월 중에 수행하였다.[4)]

〈표 1-4〉 국내 질적 연구 면접 대상자 선정 원칙

구분	연령대	고려사항	규모
청년	20대	취업 준비생 (2020년 2월 대학 졸업자)	남녀 각각 3명씩 6명
장년	30대	결혼과 출산 경험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남녀 각각 3명씩 6명
중년	만55~65세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남녀 각각 3명씩 6명
노년	만70~75세	만성 질환이 있는 자	남녀 각각 3명씩 6명

다. 국외 질적 연구 개요

다른 나라 국민들의 행복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는 모두 3년에 걸쳐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인식 속에서 확인되는 행복의 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제 비교를 위한 질적 연구는 다음 [그림 1-3]과 같이 2019년에는 국가군 B에 해당하는 북유럽 2개 국가, 2020년에는 국가군 A에 해당하는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2021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군 C를 대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질적 연구 수행에서는 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해나가는 방식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관찰하여, 우리 국민의 행복에 대한 해석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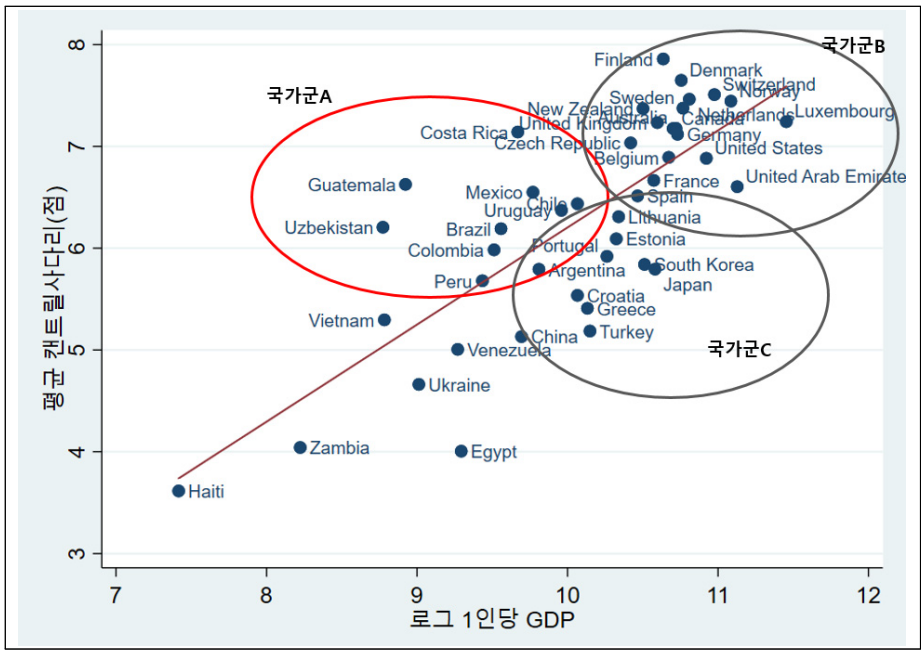
3년간 진행될 국외 질적 연구 수행은 다학제로 구성된 협동연구진의 현지 조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그렇지만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구 기간 중 현지 방문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입국한 해당국 출신자를 인터뷰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국내 입국한 중남미 국가 출신자의 사회계층적 특

4) 국내 질적 연구는 수행과정에서 설명문 및 동의서, 질적 연구 설문지, 조사대상자 모집계획 및 조사 참여자 동의서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제2020-27호(2020.6.22.)]의 승인을 받았다.

징이 확연히 구분되어 연구결과의 보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외 질적 연구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팀이 수행하였으며, 3개년 간의 국외 질적 연구의 계획의 2차연도 연구목적에 따라 면접대상자 선정, 인터뷰 진행 및 녹취,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5] 면접대상자 모집은 국내에 있는 정보제공자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인의 신청서를 취합한 후 연구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행복 인식에서 개인수준, 사회문화적 수준의 특징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기로 하고, 중남미 국가 중 코스타리카, 멕시코 2개국에서 모두 34명을 조사하였다.

[그림 1-3]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복 수준(2018년)



자료: Helliwell, Layard, and Sachs.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장 온라인데이터 원자료를 저자가 분석하여 작성함.

5) 국외 질적 연구 수행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2009/001-001(승인일자 2020년 08월 31일)]의 연구 승인을 받고 수행하였다.

제2장

생애주기와 행복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생애주기별 가치와 행복
제4절 소결

제 2 장 생애주기와 행복

제1절 문제 제기

연령과 행복 수준 간 역 U자형 관계는 한국인의 행복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회자된다. 역 U자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령자들의 행복도가 낮기 때문인데, 많은 연구에서 한국 노인들의 행복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김성아, 정해식, 2019; 김혜연,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고령층으로 갈수록 평균적인 행복도가 낮아지는 역 U자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한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 보이는 U자 패턴, 즉 장년기에 행복도가 최하점을 보이다가 노년기에 접어들어 점차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양상과 배치된다.

한국인의 행복 연구에서 그간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한국인의 행복 양상을 설명하는 것은 주요 화두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어쩌면 식상한 논의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온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에서 한국인의 연령과 행복의 관계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고, 이것의 충족 정도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점(Esterlin & Sawangfa, 2007; Lelkes, 2008)에서 연령과 행복 간의 관계를 재고해보는 것이다. 우선 이는 욕구 충족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욕구 이론과 일맥상통하는데, 김미혜, 문정화, 성기옥(2014), 오민지, 이수영(2017)의 연구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특히, 김미혜 외(2014)는 생애주기에 따라 생존과 관계, 성장 욕구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 장에서도 김미혜 외(2014)의 접근을 따라, 연령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해 이들 간의 행복도에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밝힌다. 그렇지만 생애주기에 따라 달성하도록 기대되는 발달과업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 연구에서는 Esterlin and Sawangfa(2007), Lelkes(2008)처럼 생애주기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 가치를 두느냐가 달라져서 각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본다. 구체적으로 생활 수준을 비롯한 10대 삶의 영역별(domain-specific) 중요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연령대별 차이와 그것의 만족 정도가 행복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최근에 생애주기별 필요 충족이 복지정책의 주요 목표로 다뤄지는 만큼, 사회보장정책의 수혜 경험이 연령별 행복도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술적(descriptive)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자료의 한계를 미리 언급해 둔다. 2장에서는 횡단자료인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령 집단별 구분이 생애주기로 대체될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행복을 분석하려면 종단자료가 필요하다. 한 개인이 점차 나이가 많아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생애주기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야, 생애주기에 따른 행복도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Li, 2014). 다만, 기존의 실증 연구들에서도 연령과 행복 간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석해온바(김미혜 외, 2014; 김재우, 2017), 여기서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 이후에는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행복도 차이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전술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연령과 행복 간의 독특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연령 집단별로 행복을 결정하는 독특한 요인들이 발견된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매력이나(전기숙, 2016), 부모와 주변으로부터의 지지(김청송, 2009; 박영신, 김의철, 2009; 성은모, 김균희, 2013)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청년기에는 삶에 대한 기대 혹은 미래 불확실성이나 무망감, 목표달성의 불가능성 등의 요인이 행복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외, 2014; 이명숙, 2015;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한편, 노인들에게서 건강과 더불어 아직까지 공적 사회보장이 행복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소득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양재진, 이호연, 이정주, 2016; 김혜연, 2020).

최근 연구들은 생애주기 접근에서 연령 집단에 따라 행복감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다. 각 연령 집단에서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수준과 같이 연령에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생애주기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이나 출산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연령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생애 사건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U자 패턴이 고수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일맥상통한다(Easterlin, 2006, p. 465). 실제로 출생 코호트를 통제한 Easterlin(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인들에게서도 노년기에 행복감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건강 문제였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중 건강 관련 요인의 악화가 노년기에 두드러진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건강은 전 연령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특히 노년층에서 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생애주기 관점에서 행복 수준의 변화를 해석한 실증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전술한 김미혜 외(2014)의 연구에서는 청년층(18세~39세)과 중년기(40세~59세), 노년기(60세 이상)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생존 욕구 중 하나인 경제적 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영향력의 크기는 고령층보다는 저 연령대 집단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각 연령 집단에서 고유한 특징도 확인되었는데, 청년기에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희망감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데 반해, 중년기 이후부터는 주관적 건강과 목표 달성 가능 정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복 수준을 변화시켰다. 아울러, 노년기에는 다른 집단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했던 안전 역시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김재우(2017)의 연구에서도 김미혜 외(2014)의 연구와 유사하게 청년층(20세~39세)과 중년층(40세~59세), 노년층(60세~89세)을 구분해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 참여 등의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각 요인의 영향이 모든 집단에서 같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소득 수준이나 경제활동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중년층에게서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생애주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는 주변으로부터 실제 도움을 더 많이 받을수록, 즉 도구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노년층에서는 그보다는 서로 관심과 지지를 주고받는 주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도가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들과 같이 2장에서도 생애주기에 따라 행복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생애주기에 따라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aspirations)이 다르고, 그것이 충족된 정도(achievement or attainment)가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이다(Esterlin & Sawangfa, 2007; Lelkes, 2008). 최근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가 비정형화, 비표준화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큰 패턴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생애주기별 과업 단계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발달과업의 충족이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개개인들이 이러한 기대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2장에서는 각 생애주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어려움을 겪는 영역, 필요로 하는 부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것의 충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할 것이다.

제3절 생애주기별 가치와 행복

1. 연령별 행복의 특성

가. 연령별 행복 정도와 행복 조건의 확보 정도

한국인들은 노년기로 갈수록 행복 수준이 낮아져, 연령과 행복 간에 역 U자 모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30대를 정점으로 행복도가 점차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행복의 측정 개념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본 행복 방정식에 따라 추정된 결괏값과 실제 행복도 간에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 행복 결정요인으로 논의되었던 인구 사회학적 요인(연령, 성별, 혼인상태)과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가구소득,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를 투입해 도출한 〈표 2-1〉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령대별 기대 행복 수준과 실제값 간의 차이를 도식화한 〔그림 2-1〕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50대 후반부터는 기대 수준보다 실제 값이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노년층의 행복도가 유독 낮은 것은 물론, 다른 객관적인 지표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행복도가 낮다는 것이다.

〈표 2-1〉 행복 결정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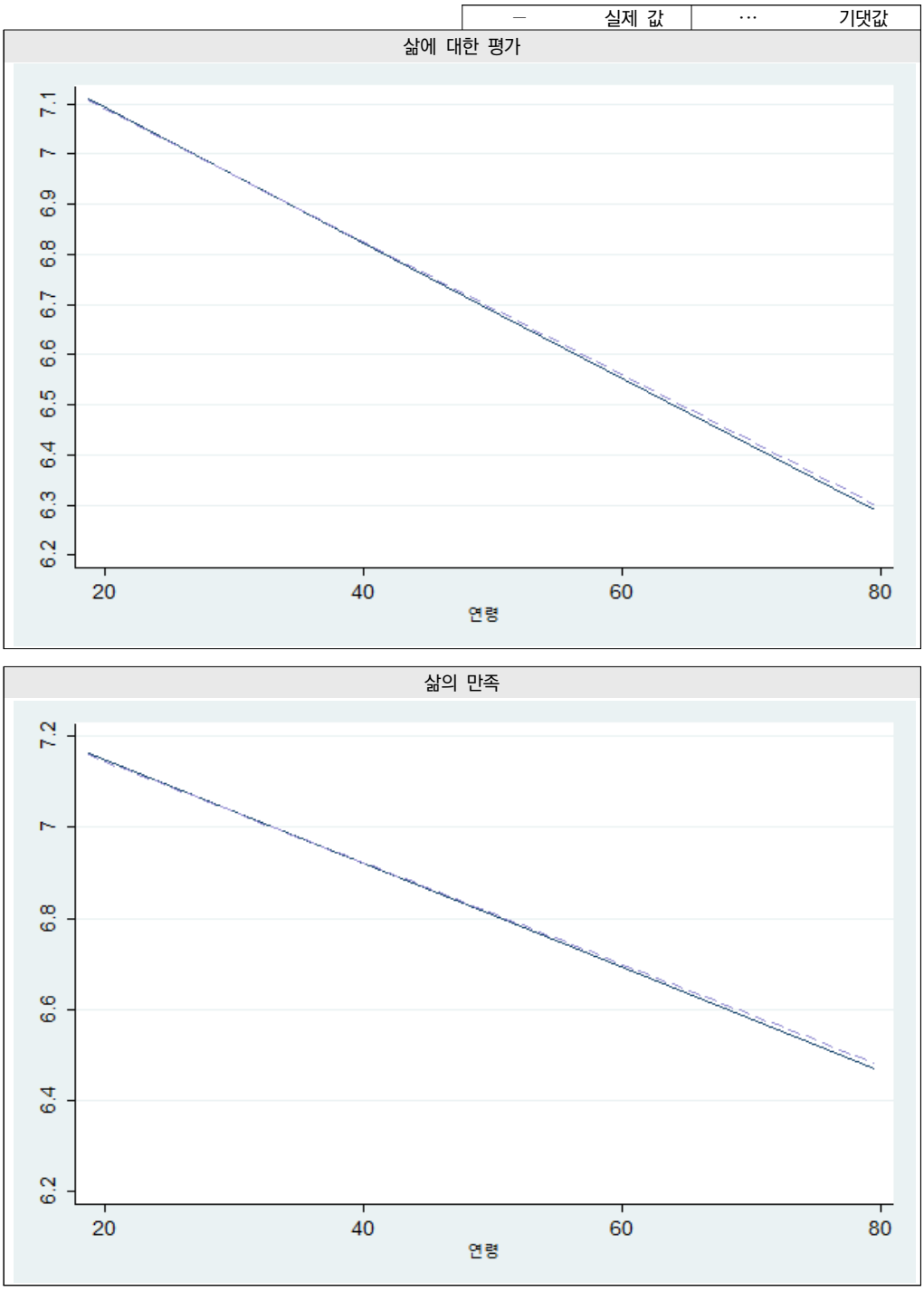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만나이	-0.044***	-0.045***	-0.062***	-0.037**
	(0.013)	(0.012)	(0.012)	(0.013)
만나이 제곱	0.041**	0.044***	0.060***	0.031*
	(0.014)	(0.013)	(0.013)	(0.014)
남자 (여자=0)	-0.121*	-0.126**	-0.140**	-0.007
	(0.048)	(0.046)	(0.048)	(0.050)
로그가구균등화소득	0.333***	0.368***	0.334***	0.315***
	(0.049)	(0.051)	(0.050)	(0.054)
혼인상태 (유배우=0)				
별거	-0.461	-0.460	-0.864***	-0.616**
	(0.248)	(0.308)	(0.258)	(0.232)
사별	-0.528***	-0.245*	-0.343***	-0.087
	(0.110)	(0.096)	(0.098)	(0.102)
이혼	-0.674***	-0.953***	-0.958***	-0.581***
	(0.124)	(0.117)	(0.122)	(0.131)
미혼	-0.414***	-0.422***	-0.585***	-0.323***
	(0.076)	(0.072)	(0.071)	(0.077)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430***	0.381***	0.403***	0.337***
	(0.108)	(0.095)	(0.093)	(0.100)
대졸 이상	0.546***	0.482***	0.539***	0.452***
	(0.120)	(0.107)	(0.106)	(0.11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0))				
임시·일용직	-0.410***	-0.638***	-0.485***	-0.529***
	(0.078)	(0.075)	(0.073)	(0.081)
자영자	-0.149*	-0.247***	-0.239***	0.0583
	(0.063)	(0.062)	(0.063)	(0.066)
실업자	-0.865***	-1.333***	-1.016***	-1.091***
	(0.185)	(0.187)	(0.152)	(0.151)
비경제활동인구	-0.096	-0.087	-0.103	-0.280***
	(0.066)	(0.064)	(0.066)	(0.075)
상수	5.859***	5.873***	6.339***	5.822***
	(0.377)	(0.369)	(0.375)	(0.397)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10	0.142	0.122	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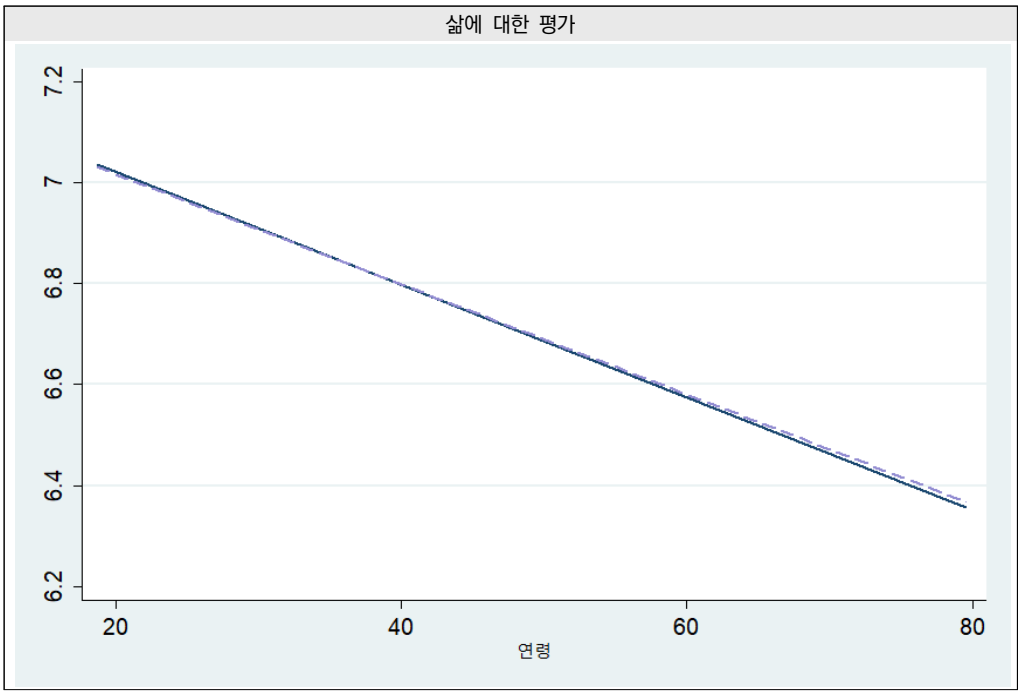
주 1) 개인가중치 및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만나이제곱은 계수 값이 작아 나누기 100한 값을 사용한 결과임.
3) 경제활동상태 중 자영자에는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4) 괄호 안은 표준 오차이며, 유의수준은 *p<.05, **p<.01, ***p<.001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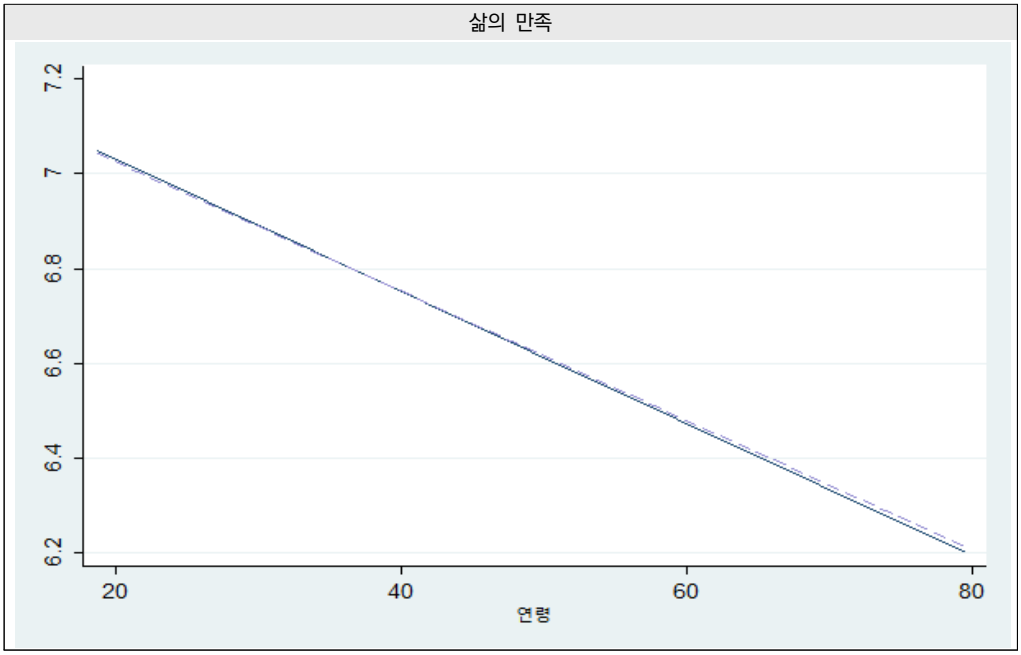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 연령별 행복의 실제 값과 기댓값 비교

(단위: 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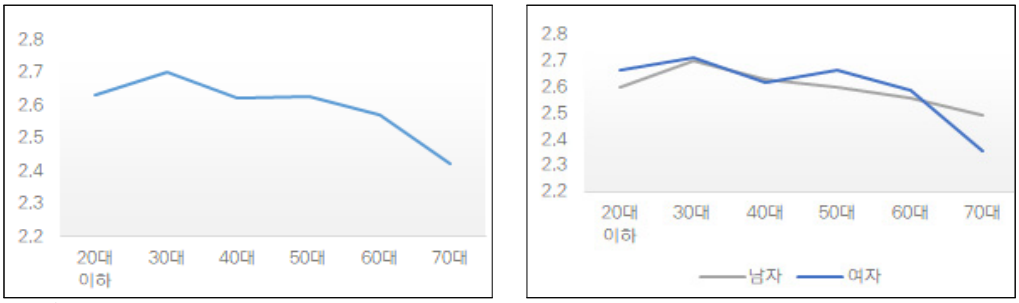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로, 기댓값은 〈표 2-1〉의 회귀 분석 결과로 추정한 베타 값을 기초로 작성.
2) 0에서 10점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행복감이 낮고, 10에 가까울수록 행복한 것을 의미함.
3) 실제 값과 기댓값의 차이가 양의 값을 가지면 영역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로 추정한 값보다 실제 값이 큰 것이며, 음의 값을 가지면 실제 값이 기댓값보다 작은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흥미롭게도 연령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 정도는 연령별 행복도의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행복도와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 정도도 30대에서 정점을 보이다가 50대 이후부터는 대체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그림 2-3]에 제시한 행복 양상과 마찬가지로 어느 행복 개념을 활용한 경우에서나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연령별 분포의 모습이기도 하다. 실제로 〈표 2-2〉에서와 같이 행복의 조건이 확보된 정도와 행복도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년층은 행복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행복 수준이 낮은 것일까?

[그림 2-2] 연령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 정도

(단위: 점)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1부터 4까지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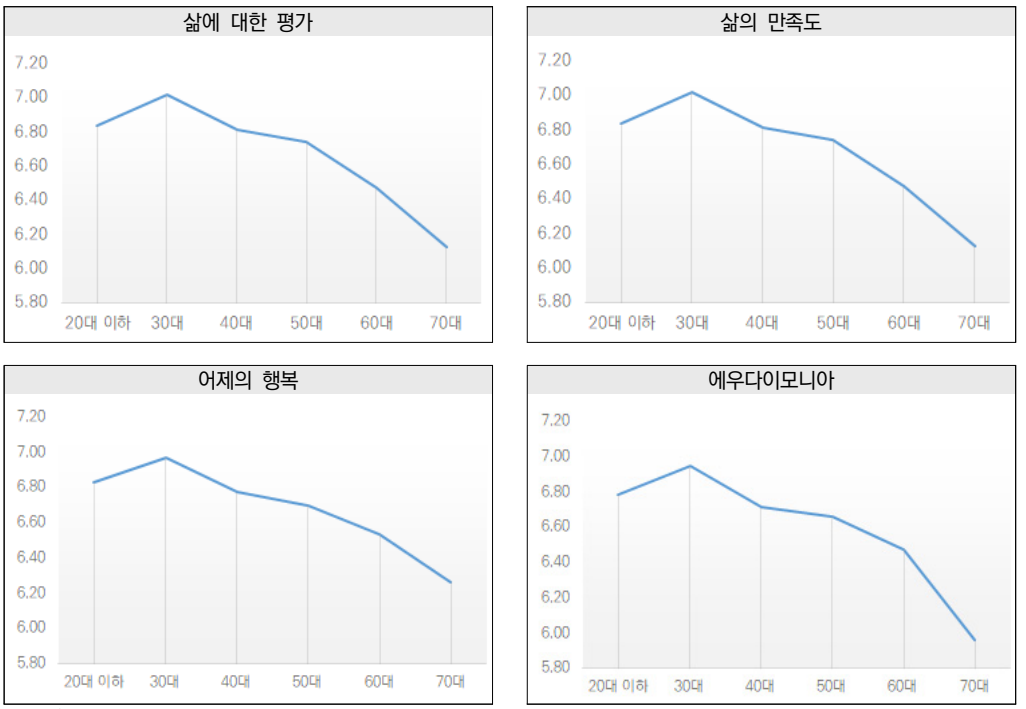
〈표 2-2〉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와 행복의 상관관계

	행복의 조건 확보 정도		행복의 조건 확보 여부	
	상관계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유의확률
삶에 대한 평가	0.341	(0.000)	0.306	(0.000)
삶의 만족도	0.417	(0.000)	0.375	(0.000)
어제의 행복감	0.407	(0.000)	0.357	(0.000)
에우다이모니아	0.297	(0.000)	0.257	(0.000)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행복의 조건 확보 정도'는 1부터 4까지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임. '행복의 조건 확보 여부'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들을 1로, 나머지는 0으로 간주한 값을 활용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 연령별 행복 점수

(단위: 점)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0에서 10점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행복감이 낮고, 10에 가까울수록 행복한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나. 생애주기별 가치의 충족 정도와 행복 수준

이제부터는 생애주기별로 삶에서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고 그것의 충족 정도에 따라 행복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이를 통해 연령별 행복 분포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표 2-4-1〉과 〈표 2-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역을 막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영역에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일관되게 행복도가 높다. 영역별로, 그리고 어떤 행복 측정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각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만족도가 낮은 사람 간의 행복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특징이다. 즉,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만족할수록 전반적인 삶의 행복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 2-3〉 삶의 질 각 영역의 중요도와 만족도 기술통계량

(단위: 사례수, %)

	7점 이상 기준		8점 이상 기준		9점 이상 기준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5050	(100.0)	5050	(100.0)	5050	(100.0)
생활 수준						
중요하지 않음	580	(11.5)	1233	(24.4)	2594	(51.4)
중요하나 불만족	1904	(37.7)	2501	(49.5)	2095	(41.5)
중요하고 만족	2566	(50.8)	1316	(26.1)	362	(7.2)
건강						
중요하지 않음	344	(6.8)	909	(18.0)	1828	(36.2)
중요하나 불만족	984	(19.5)	1770	(35.1)	2325	(46.0)
중요하고 만족	3722	(73.7)	2371	(47.0)	897	(17.8)
성취						
중요하지 않음	524	(10.4)	1209	(23.9)	2451	(48.5)
중요하나 불만족	1486	(29.4)	2139	(42.4)	2015	(39.9)
중요하고 만족	3039	(60.2)	1702	(33.7)	584	(11.6)
가족관계						
중요하지 않음	478	(9.5)	1068	(21.2)	2291	(45.4)
중요하나 불만족	925	(18.3)	1745	(34.6)	1917	(38.0)
중요하고 만족	3647	(72.2)	2237	(44.3)	841	(16.7)
사회적 친분관계						
중요하지 않음	635	(12.6)	1521	(30.1)	2984	(59.1)
중요하나 불만족	1027	(20.3)	1718	(34.0)	1597	(31.6)
중요하고 만족	3388	(67.1)	1812	(35.9)	469	(9.3)
안전						
중요하지 않음	523	(10.4)	1268	(25.1)	2618	(51.8)
중요하나 불만족	1073	(21.3)	1865	(36.9)	1904	(37.7)
중요하고 만족	3454	(68.4)	1917	(38.0)	528	(10.5)
미래 안정성						
중요하지 않음	557	(11.0)	1158	(22.9)	2469	(48.9)
중요하나 불만족	1540	(30.5)	2218	(43.9)	2138	(42.3)
중요하고 만족	2953	(58.5)	1674	(33.2)	443	(8.8)
시간적 여유						
중요하지 않음	579	(11.5)	1353	(26.8)	2832	(56.1)
중요하나 불만족	1384	(27.4)	2054	(40.7)	1778	(35.2)
중요하고 만족						
환경의 질						
중요하지 않음	676	(13.4)	1580	(31.3)	3133	(62.1)
중요하나 불만족	1325	(26.2)	1887	(37.4)	1577	(31.2)
중요하고 만족	3049	(60.4)	1583	(31.3)	339	(6.7)
하는 일						
중요하지 않음	605	(12.0)	1321	(26.2)	2801	(55.5)
중요하나 불만족	1382	(27.4)	2021	(40.0)	1837	(36.4)
중요하고 만족	3063	(60.7)	1708	(33.8)	412	(8.2)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중요하지 않음'은 0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10점(매우 중요하다)으로 구성된 삶의 질 영역별 중요도 문항에서 각 기준점, 7점, 8점, 9점 미만에 응답한 사람들이며, '중요하나 불만족'은 각 삶의 질 영역의 중요도에서 각 기준점 이상에 응답한 사람 중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으로 구성된 삶의 질 영역별 만족도에서 기준점 미만에 응답한 사람들이며, '중요하나 만족'은 만족도에서도 기준점 이상에 응답한 사람들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2-4-1〉 가치의 충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8점 이상 기준)

생활 수준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86	0.084	-0.001	-0.087
중요하지 않음	(0.056)	(0.051)	(0.052)	(0.054)
중요하고 만족	0.757***	0.915***	0.909***	0.629***
	(0.051)	(0.047)	(0.047)	(0.057)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62	0.223	0.203	0.142
건강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184**	0.146*	0.109	-0.126*
중요하지 않음	(0.067)	(0.062)	(0.061)	(0.063)
중요하고 만족	0.649***	0.738***	0.765***	0.598***
	(0.050)	(0.047)	(0.048)	(0.054)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52	0.202	0.186	0.149
성취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10	-0.100	-0.103	-0.191***
중요하지 않음	(0.059)	(0.054)	(0.054)	(0.057)
중요하고 만족	0.763***	0.859***	0.902***	0.658***
	(0.049)	(0.045)	(0.046)	(0.054)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000
adj.R^2	0.176	0.237	0.222	0.160
가족관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180**	0.073	0.032	-0.084
중요하지 않음	(0.062)	(0.058)	(0.057)	(0.061)
중요하고 만족	0.731***	0.763***	0.817***	0.644***
	(0.050)	(0.047)	(0.048)	(0.053)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66	0.212	0.202	0.155
사회적 친분관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70	0.074	0.041	-0.120*
중요하지 않음	(0.056)	(0.052)	(0.052)	(0.054)
중요하고 만족	0.627***	0.817***	0.839***	0.554***
	(0.053)	(0.049)	(0.050)	(0.057)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51	0.217	0.201	0.144
안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220***	0.091	0.078	-0.114*
중요하지 않음	(0.058)	(0.054)	(0.055)	(0.057)
중요하고 만족	0.713***	0.753***	0.787***	0.615***
	(0.050)	(0.048)	(0.047)	(0.055)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60	0.207	0.191	0.152
미래 안정성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57	-0.006	-0.044	-0.184**
중요하지 않음	(0.059)	(0.054)	(0.054)	(0.057)
중요하고 만족	0.720***	0.853***	0.842***	0.589***
	(0.049)	(0.045)	(0.047)	(0.054)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64	0.227	0.204	0.149

시간적 여유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13	-0.026	-0.084	-0.232***
중요하지 않음	(0.057)	(0.053)	(0.053)	(0.056)
중요하고 만족	0.647***	0.829***	0.833***	0.539***
	(0.049)	(0.046)	(0.047)	(0.054)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58	0.225	0.208	0.148
환경의 질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78	0.011	0.031	-0.117*
중요하지 않음	(0.055)	(0.051)	(0.052)	(0.055)
중요하고 만족	0.710***	0.808***	0.840***	0.583***
	(0.051)	(0.047)	(0.047)	(0.058)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60	0.216	0.197	0.145
하는 일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94	0.016	-0.050	-0.185***
중요하지 않음	(0.056)	(0.052)	(0.052)	(0.055)
중요하고 만족	0.666***	0.871***	0.893***	0.689***
	(0.051)	(0.047)	(0.047)	(0.055)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55	0.229	0.215	0.165

주 1) 개인가중치 및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였으며, 성별과 만나이, 만나이 제곱,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로그균등화소득을 통제한 분석 결과임.

2) 괄호 안은 표준 오차임.

3) '중요하지 않음'은 0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10점(매우 중요하다)으로 구성된 삶의 질 영역별 중요도 문항에서 각 기준점, 8점, 미만에 응답한 사람들이며, '중요하나 불만족'은 각 삶의 질 영역의 중요도에서 7점 이상에 응답한 사람 중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으로 구성된 삶의 질 영역별 만족도 문항에서 8점 미만에 응답한 사람들이며, '중요하나 만족'은 만족도에서도 8점 이상에 응답한 사람들임.

4)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2-4-2〉 가치의 충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9점 이상 기준)

생활 수준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180***	0.159***	0.151***	0.021
중요하지 않음	(0.046)	(0.044)	(0.045)	(0.049)
중요하고 만족	0.817***	0.896***	0.995***	0.729***
	(0.088)	(0.085)	(0.074)	(0.093)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32	0.169	0.154	0.120
건강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195***	0.127**	0.0976*	-0.0625
중요하지 않음	(0.049)	(0.046)	(0.047)	(0.050)
중요하고 만족	0.586***	0.646***	0.711***	0.611***
	(0.061)	(0.059)	(0.060)	(0.068)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32	0.170	0.156	0.131
성취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16	-0.086	-0.105*	-0.126*
중요하지 않음	(0.048)	(0.045)	(0.045)	(0.050)
중요하고 만족	0.706***	0.778***	0.848***	0.628***
	(0.070)	(0.064)	(0.064)	(0.078)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37	0.180	0.167	0.129
가족관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102*	0.029	0.017	-0.056
중요하지 않음	(0.049)	(0.046)	(0.046)	(0.050)
중요하고 만족	0.752***	0.711***	0.808***	0.555***
	(0.060)	(0.057)	(0.062)	(0.074)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46	0.178	0.168	0.126
사회적 친분관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06	0.009	0.022	-0.051
중요하지 않음	(0.049)	(0.047)	(0.047)	(0.052)
중요하고 만족	0.697***	0.768***	0.816***	0.716***
	(0.080)	(0.075)	(0.076)	(0.084)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31	0.168	0.151	0.126
안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138**	0.0931*	0.0982*	-0.058
중요하지 않음	(0.048)	(0.045)	(0.045)	(0.050)
중요하고 만족	0.802***	0.787***	0.857***	0.637***
	(0.071)	(0.070)	(0.070)	(0.083)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38	0.170	0.155	0.124
미래 안정성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26	-0.042	-0.027	-0.137**
중요하지 않음	(0.047)	(0.044)	(0.044)	(0.050)
중요하고 만족	0.679***	0.748***	0.899***	0.681***
	(0.079)	(0.071)	(0.071)	(0.073)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28	0.168	0.157	0.127

시간적 여유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16	0.023	-0.067	-0.181***
중요하지 않음	(0.048)	(0.046)	(0.047)	(0.052)
중요하고 만족	0.742***	0.776***	0.772***	0.572***
	(0.077)	(0.076)	(0.070)	(0.081)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32	0.167	0.150	0.124
환경의 질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23	-0.045	-0.061	-0.069
중요하지 않음	(0.049)	(0.047)	(0.046)	(0.053)
중요하고 만족	0.765***	0.774***	0.884***	0.755***
	(0.090)	(0.085)	(0.084)	(0.097)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28	0.164	0.151	0.123
하는 일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중요하나, 불만족=0	0.069	0.057	0.035	-0.100*
중요하지 않음	(0.048)	(0.045)	(0.046)	(0.050)
중요하고 만족	0.720***	0.944***	0.957***	0.824***
	(0.081)	(0.076)	(0.078)	(0.088)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adj.R^2	0.129	0.176	0.157	0.132

주 1) 개인가중치 및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였으며, 성별과 만나이, 만나이 제곱,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로그균등화소득을 통제한 분석 결과임.

2) 괄호 안은 표준 오차임.

3) '중요하지 않음'은 0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10점(매우 중요하다)으로 구성된 삶의 질 영역별 중요도 문항에서 각 기준점, 9점, 미만에 응답한 사람들이며, '중요하나 불만족'은 각 삶의 질 영역의 중요도에서 7점 이상에 응답한 사람 중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으로 구성된 삶의 질 영역별 만족도 문항에서 9점 미만에 응답한 사람들이며, '중요하나 만족'은 만족도에서도 9점 이상에 응답한 사람들임.

4)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2. 삶에서 중요한 것의 생애주기별 차이와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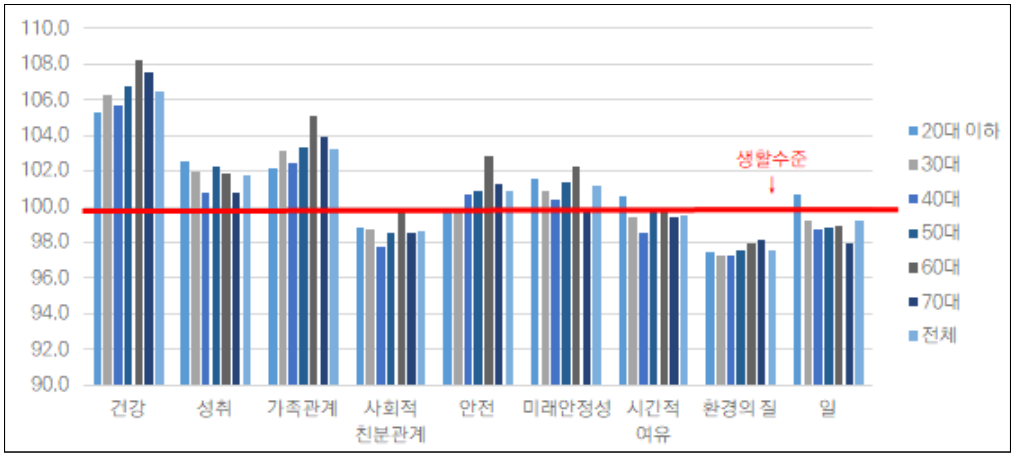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 아래의 〔그림 2-4〕는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각 영역에 부여한 중요도 점수를 생활 수준의 중요도를 100으로 하여 표준화한 값이다. 생활 수준보다 건강과 성취, 가족관계를 전 연령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연령 집단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영역도 다르다.

우선, 연령과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가치 부여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건강과 달리, 성취와 하는 일에 관해서는 대체로 젊은 층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20대는 생활 수준보다도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청년층인 20~30대 사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데, 30대는 20대와 달리 일과 시간적 여유에는 가치를 덜 부여하면서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년층으로 갈수록 30대 이하보다 가족관계와 안전을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50대와 60대는 미래 안정성에 대해서도 가치를 높게 부여한다. 한편, 이들은 40대보다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2-4] 연령별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

(단위: 점)



주: 생활 수준에 대한 중요도 평가 점수를 100점으로 할 때 환산한 각 영역의 중요도 점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연령별로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선택한 결과도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도 평가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20대는 적성에 맞는 일과 행복한 가정, 돈과 명성에 대한 욕구가 큰 데 반해, 같은 청년층인 30대는 일보다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 앞서 행복한 삶을 위해 20대는 생활 수준보다도 일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30대는 20대보다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한편, 40대 이후부터는 일보다는 건강에 대한 필요를 점차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는데,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건강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연령 집단에서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건강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2-5〉 연령별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 순위

1순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순위	적성에 맞는 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	건강	건강
2순위	행복한 가정	적성에 맞는 일	돈과 명성	행복한 가정	돈과 명성	행복한 가정
3순위	돈과 명성	돈과 명성	건강	돈과 명성	행복한 가정	돈과 명성
4순위	건강	건강	적성에 맞는 일	적성에 맞는 일	적성에 맞는 일	적성에 맞는 일
5순위	여가 생활	자녀 교육	자녀 교육	여가 생활	여가 생활	여가 생활
6순위	자기 발전	여가 생활	여가 생활	사회 발전에 기여	종교 생활	종교 생활
7순위	사회 발전에 기여	자기 발전	자기 발전	자녀 교육	사회 발전에 기여	사회 발전에 기여
8순위	자녀 교육	종교 생활	사회 발전에 기여	자기 발전	자녀 교육	자녀 교육
9순위	종교 생활	사회 발전에 기여	종교 생활	종교 생활	자기 발전	자기 발전
10순위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1+2순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순위	적성에 맞는 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	건강	건강
2순위	돈과 명성	적성에 맞는 일	건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가 생활
3순위	행복한 가정	돈과 명성	돈과 명성	돈과 명성	돈과 명성	행복한 가정
4순위	건강	건강	적성에 맞는 일	적성에 맞는 일	여가 생활	돈과 명성
5순위	여가 생활	여가 생활	자녀 교육	여가 생활	적성에 맞는 일	적성에 맞는 일
6순위	자기 발전	자녀 교육	여가 생활	자녀 교육	종교 생활	종교 생활
7순위	사회 발전에 기여	자기 발전	자기 발전	자기 발전	자기 발전	사회 발전에 기여
8순위	자녀 교육	사회 발전에 기여	사회 발전에 기여	사회 발전에 기여	사회 발전에 기여	가기 발전
9순위	종교 생활	종교 생활	종교 생활	종교 생활	자녀 교육	자녀 교육
10순위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봉사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렇다면 각 영역의 만족도는 행복도에 연령별로 같은 영향을 미칠까? 연령별 행복도 변화 패턴과 각 영역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먼저 영역별 만족도 추정 결과에 따른 기댓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를 산출하였다. 〈표 2-6〉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결과에서 도출한 연령별 추정치와 실제값 간의 차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2-5]이다. 그림에서 실제 값과 기댓값의 차이가 양의 값이면 영역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로 추정한 값보다 실제 값이 크고, 음의 값을 가지면 실제 값이 기댓값보다 작다. 음의 값은 다른 조건에 따라 기대되는 수준보다도 실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대의 생활 수준 만족도가 기댓값보다 실제 값의 수준이 근소하게 크나, 성취와 일에서는 기댓값이 더 큰 경향이 있다. 한편, 30대 이하는 20대와 달리,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수준과 가족 관계 영역에서는 기댓값이 더 크나, 건강과 하는 일에서는 실제 만족도가 더 크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행복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20대보다 30대가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높은 것은, 30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큰 것과 일정 부분 관련 있어 보인다. 그리고 40대는 가치를 부여하는 생활 수준과 건강, 성취, 가족 관계의 전 영역에서 실제 만족도 수준이 기댓값보다 높다. 다른 고령자 집단보다 40대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은 것은 이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각 영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50대 이상부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의 만족도의 실제 값이 기댓값보다 작으며, 60대 이후에는 가족관계 만족도도 실제 값이 더 크다. 장년 이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의 낮은 만족도는 이들의 낮은 행복도와 관련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어서 〈표 2-7〉과 같이, 삶의 각 영역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영역 삶의 만족도 간에도 상관관계가 높아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통해, 전체를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 단계적으로 변수를 제거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을 남기는 방법을 취했다. 분석 결과 연령에 상관없이 생활 수준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행복 수준이 높다. 달리 말해 이는 한국인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생활 수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과도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체로 모든 연령 집단에서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으면 행복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연령별로 행복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앞서 행복한 삶을 위한 요인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20대는 일에서의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한편, 30대부터는 건강의 영향이 확인되기 시작해, 70대에서는 아니지만 고연령 집단에서는 대체로 건강이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다. 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에서는 미래 안정성과 시간적 여유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40대는 미래 안정성이, 50대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은 행복 지표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가족 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흥미롭게도 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60대에는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도 행복 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표 2-6〉 영역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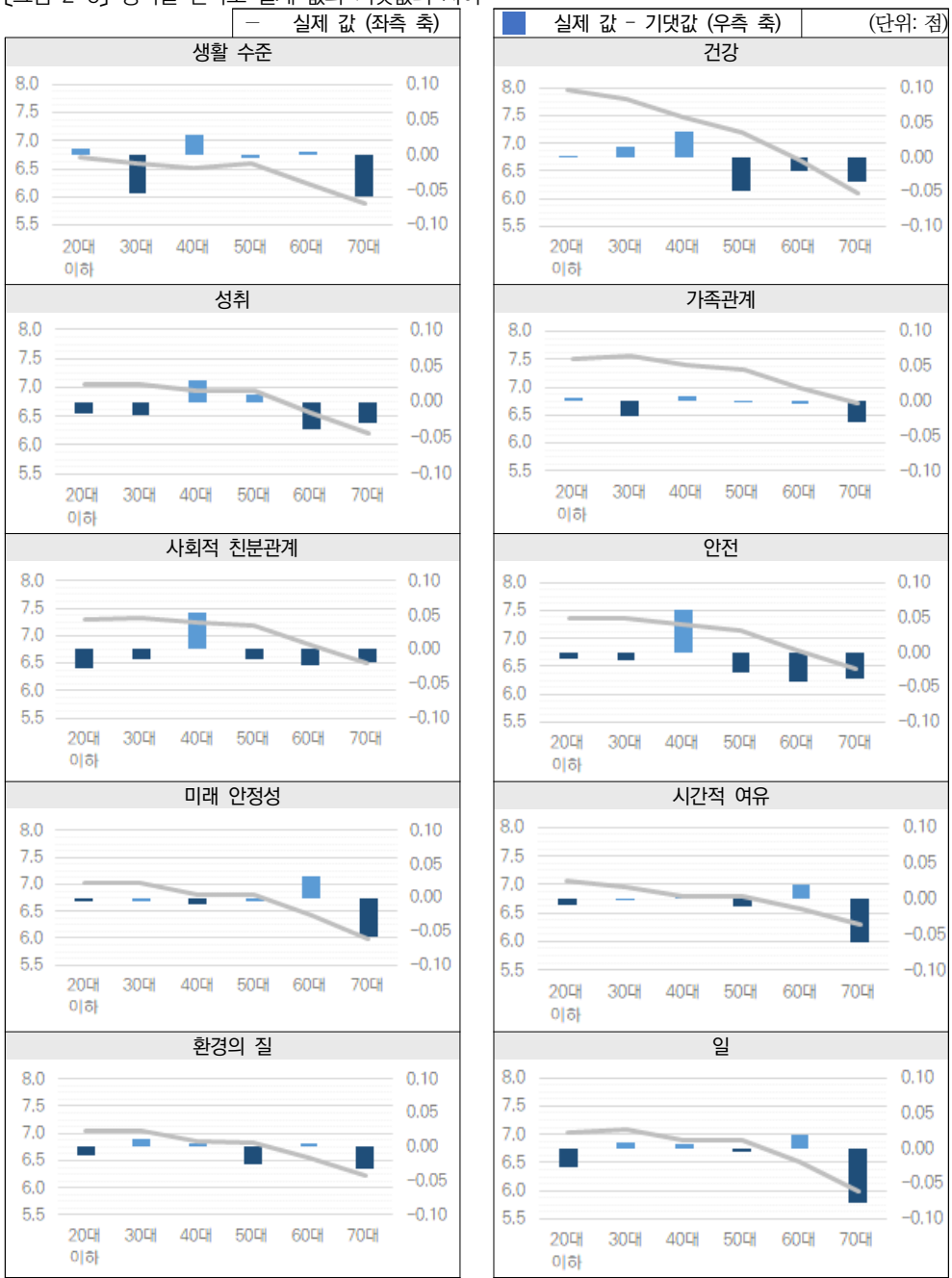
	생활 수준	건강	성취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안전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	환경의 질	하는 일
만나이	-0.066***	-0.054***	-0.065***	-0.061***	-0.046***	-0.047***	-0.062***	-0.060***	-0.062***	-0.073***
	(0.015)	(0.015)	(0.014)	(0.014)	(0.013)	(0.013)	(0.015)	(0.015)	(0.014)	(0.014)
만나이 제곱	0.075***	0.032*	0.066***	0.058***	0.047***	0.045***	0.059***	0.063***	0.062***	0.072***
	(0.016)	(0.016)	(0.015)	(0.015)	(0.014)	(0.014)	(0.016)	(0.016)	(0.014)	(0.015)
남자 (여자=0)	-0.161**	0.050	-0.129*	-0.078	-0.094	-0.039	-0.176**	-0.069	-0.083	-0.095
	(0.055)	(0.052)	(0.054)	(0.051)	(0.049)	(0.048)	(0.058)	(0.060)	(0.051)	(0.054)
로그가구균등화소득	0.771***	0.420***	0.549***	0.384***	0.451***	0.435***	0.565***	0.469***	0.481***	0.557***
	(0.059)	(0.058)	(0.055)	(0.050)	(0.052)	(0.050)	(0.064)	(0.060)	(0.053)	(0.059)
혼인상태 (유배우=0)										
별거	-0.210	-0.297	-0.620*	-1.202***	-0.580	-0.628*	-0.540	-0.411	-0.503	-0.629*
	(0.257)	(0.294)	(0.257)	(0.338)	(0.315)	(0.320)	(0.280)	(0.319)	(0.269)	(0.257)
사별	-0.088	-0.008	-0.105	-0.548***	-0.280**	-0.043	-0.163	-0.204	-0.136	-0.127
	(0.116)	(0.111)	(0.107)	(0.115)	(0.105)	(0.107)	(0.123)	(0.124)	(0.109)	(0.116)
이혼	-0.873***	-0.493***	-0.720***	-1.648***	-0.721***	-0.510***	-0.771***	-0.309*	-0.521***	-0.519***
	(0.135)	(0.126)	(0.131)	(0.160)	(0.113)	(0.124)	(0.130)	(0.129)	(0.117)	(0.124)
미혼	-0.250**	-0.193*	-0.364***	-0.536***	-0.250**	-0.251**	-0.400***	-0.125	-0.332***	-0.395***
	(0.087)	(0.085)	(0.085)	(0.082)	(0.077)	(0.076)	(0.085)	(0.088)	(0.080)	(0.077)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639***	0.781***	0.678***	0.500***	0.541***	0.674***	0.519***	0.541***	0.602***	0.684***
	(0.121)	(0.134)	(0.105)	(0.110)	(0.109)	(0.108)	(0.120)	(0.125)	(0.103)	(0.120)
대졸 이상	0.779***	0.815***	0.708***	0.659***	0.688***	0.820***	0.651***	0.564***	0.723***	0.739***
	(0.135)	(0.148)	(0.117)	(0.123)	(0.122)	(0.119)	(0.134)	(0.140)	(0.115)	(0.13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0))										
임시·일용직	-0.720***	-0.478***	-0.619***	-0.534***	-0.512***	-0.513***	-0.863***	-0.623***	-0.535***	-0.777***
	(0.088)	(0.080)	(0.084)	(0.081)	(0.081)	(0.078)	(0.092)	(0.095)	(0.083)	(0.086)
자영자	-0.121	-0.131*	-0.119	-0.089	-0.069	-0.0819	-0.179*	-0.221**	-0.100	-0.100

	생활 수준	건강	성취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안전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	환경의 질	하는 일
	(0.072)	(0.066)	(0.069)	(0.066)	(0.061)	(0.063)	(0.076)	(0.084)	(0.067)	(0.070)
실업자	-1.081***	-0.908***	-1.426***	-0.842***	-0.921***	-0.885***	-0.993***	-0.869***	-0.770***	-1.679***
	(0.230)	(0.248)	(0.218)	(0.212)	(0.207)	(0.197)	(0.226)	(0.264)	(0.167)	(0.208)
비경제활동인구	-0.202**	-0.095	-0.240**	-0.011	-0.137*	-0.060	-0.297***	-0.040	-0.100	-0.380***
	(0.078)	(0.070)	(0.075)	(0.070)	(0.067)	(0.067)	(0.078)	(0.079)	(0.070)	(0.074)
상수	3.295***	6.213***	5.091***	6.533***	5.416***	5.417***	5.079***	5.264***	5.291***	5.227***
	(0.436)	(0.419)	(0.419)	(0.392)	(0.383)	(0.376)	(0.454)	(0.442)	(0.396)	(0.409)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5050	5050	5050	5050	5050	5050
adj.R2	0.160	0.200	0.139	0.164	0.134	0.130	0.139	0.079	0.114	0.173

주 1) 개인가중치 및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괄호 안은 표준 오차임.
3)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 영역별 만족도 실제 값과 기댓값의 차이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0에서 10점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낮고, 1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실제 값과 기댓값의 차이가 양의 값을 가지면 영역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로 추정한 값보다 실제 값이 큰 것이며, 음의 값을 가지면 실제 값이 기댓값보다 작은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2-7〉 연령별 영역별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단계별 회귀분석)

	20대 이하				30대				40대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생활 수준	0.506***	0.497***	0.410***		0.548***	0.533***	0.461***	0.345**		0.452***	0.294*	0.460**
	(0.118)	(0.113)	(0.102)		(0.099)	(0.095)	(0.087)	(0.133)		(0.117)	(0.114)	(0.150)
건강							0.192*	0.230*	0.272**	0.225*	0.341**	0.276*
							(0.093)	(0.111)	(0.100)	(0.095)	(0.107)	(0.127)
성취	0.358*	0.234	0.24	0.303*	0.183	0.183	0.207		0.472***	0.216	0.153	0.224
	(0.150)	(0.128)	(0.131)	(0.154)	(0.115)	(0.104)	(0.106)		(0.123)	(0.121)	(0.103)	(0.139)
가족관계	0.286*	0.240*	0.355***	0.435***	0.437***	0.254**	0.321***	0.358**	0.149	0.18	0.277**	
	(0.116)	(0.102)	(0.095)	(0.115)	(0.103)	(0.097)	(0.090)	(0.110)	(0.103)	(0.100)	(0.100)	
사회적 친분관계	0.286*		0.321**									0.384*
	(0.145)		(0.123)									(0.149)
안전				0.207	0.248*	0.278*	0.141	0.217	0.205	0.304*	0.211	
				(0.153)	(0.125)	(0.131)	(0.110)	(0.127)	(0.136)	(0.130)	(0.109)	
미래 안정성	0.266		0.283*						0.563***	0.466***	0.486***	
	(0.144)		(0.138)						(0.123)	(0.128)	(0.118)	
시간적 여유	0.232	0.330*	0.190				0.278*				0.274*	
	(0.134)	(0.131)	(0.128)				(0.111)				(0.107)	
환경의 질						0.193					-0.242	
						(0.124)					(0.124)	
일		0.679***	0.460***	0.745***		0.276*		0.258		0.300*	0.237*	
		(0.147)	(0.132)	(0.148)		(0.136)		(0.135)		(0.132)	(0.117)	
상수	5.043***	5.329***	5.729***	4.532***	4.712***	4.410***	4.840***	4.036***	3.472***	3.495***	2.830***	3.825***
	(0.657)	(0.662)	(0.766)	(0.723)	(0.674)	(0.657)	(0.621)	(0.897)	(0.674)	(0.680)	(0.701)	(0.872)
사례 수	876	876	876	876	861	861	861	861	925	925	925	925
adj.R^2	0.232	0.32	0.335	0.203	0.203	0.296	0.265	0.16	0.27	0.392	0.355	0.16

〈표 2-7〉 연령별 영역별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단계별 회귀분석)(계속)

	50대				60대				70대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생활 수준	0.403**	0.704***	0.567***		0.289	0.461***	0.414***		0.537**	0.363*	0.414*	0.241
	(0.125)	(0.109)	(0.109)		(0.150)	(0.121)	(0.121)		(0.202)	(0.151)	(0.172)	(0.141)
건강	0.261	0.370**	0.159		0.281*	0.273*	0.152					
	(0.136)	(0.114)	(0.118)		(0.142)	(0.115)	(0.115)					
성취	0.365*			0.379*	0.398**	0.228	0.248	0.424**	0.383	0.618***	0.692***	0.303
	(0.148)			(0.181)	(0.147)	(0.132)	(0.129)	(0.133)	(0.200)	(0.163)	(0.165)	(0.163)
가족관계	0.367*	0.312*	0.275*	0.435**	0.298*	0.406**	0.306*	0.405**	0.386*		0.431*	
	(0.150)	(0.124)	(0.124)	(0.159)	(0.148)	(0.148)	(0.129)	(0.147)	(0.181)		(0.180)	
사회적 친분관계				0.204		0.207	0.253*	0.308*				0.212
				(0.146)		(0.129)	(0.121)	(0.130)				(0.161)
안전			0.275*							0.382*	0.266	0.252
			(0.123)							(0.164)	(0.168)	(0.155)
미래 안정성		0.172	0.331**									
		(0.115)	(0.120)									
시간적 여유	0.378**	0.408***	0.379**		0.312	0.177	0.179			0.327*	0.219	
	(0.130)	(0.113)	(0.120)		(0.161)	(0.126)	(0.135)			(0.158)	(0.144)	
환경의 질												0.568**
												(0.184)
일		0.188	0.300*	0.596***		0.344*	0.423**	0.402**		0.285		
		(0.132)	(0.147)	(0.178)		(0.138)	(0.140)	(0.144)		(0.165)		
상수	3.824***	4.074***	4.437***	3.561***	4.128***	4.725***	4.691***	4.619***	4.823***	4.645***	4.539***	4.609***
	(0.716)	(0.615)	(0.547)	(0.686)	(0.444)	(0.410)	(0.369)	(0.477)	(0.325)	(0.306)	(0.325)	(0.293)
사례 수	959	959	959	959	834	834	834	834	595	595	595	595
adj.R^2	0.246	0.37	0.361	0.194	0.239	0.374	0.365	0.236	0.222	0.339	0.348	0.254

주 1) 개인가중치 및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였으며, 성별, 로그가구균등화소득, 혼인상태(유배우 여부), 교육수준(대졸이상 여부), 고용상태(실업 및 비경활인구 여부) 변수는 반드시 포함해 통제하게 하고 후진(Backward)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임.

2) 괄호 안은 표준 오차임.

3)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3. 생애주기별 행복과 사회보장제도의 영향

사회보장제도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이와 관련해서 Lelkes(2017)는 행복,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복은 많은 부분 개인의 태도나 심리적 요인 등에 좌우되는 반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객관적인 요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해소해주어 개인이 행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Lelkes(2017)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부터는 생애주기 상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국민 행복도 증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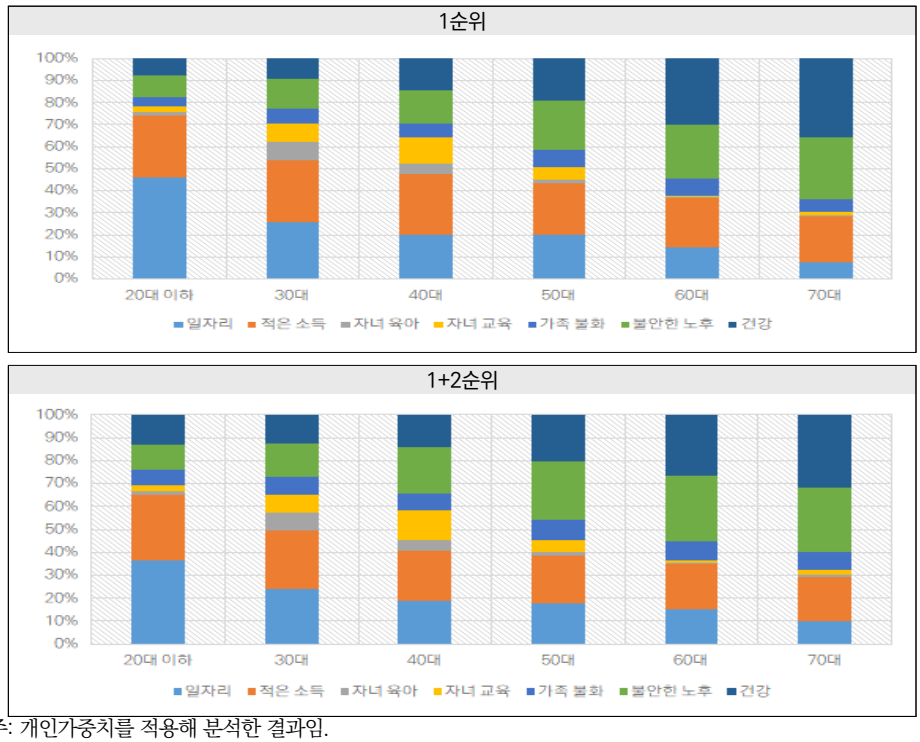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해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연령별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적은 소득이 모든 연령에서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확대해서 해석하면, 소득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적은 소득 이외에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응답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20대는 과반에 가까운 수가 일자리 문제가 행복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자리 문제가 행복을 저해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불안한 노후와 건강 문제가 행복을 저해한다고 응답하는 비중은 는다. 한편, 30대는 다른 연령 집단들보다 자녀 육아 문제를 지적한 응답 비중이 높고, 40대는 자녀 교육 문제를 지적한 응답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울러, 정책 수요 분석 결과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20대는 연금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같은 교육과 실업급여, 직업훈련과 취업상담, 알선 등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 30대는 육아와 밀접하게 관련된 아동보육 서비스 지원과 아동돌봄 및 교육지원, 아동수당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다. 자녀 교육과 적은 소득 및 불안한 노후 등이 행복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40대는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비 및 등록금 지원제도와 국민연

금 및 기초연금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한편, 50대 이상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비롯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림 2-6] 연령별 행복 저해 요인

(단위: %)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만 해당 제도들의 수혜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20대의 경우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의 비해당자(예, 대학 미진학자 등)를 제외한 29.6%가 수혜하여 비교적 많은 수의 20대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행복 저해 요인으로 주되게 지적된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제도인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 제도 등의 수혜율은 극히 적은 편이다. 반면에, 30대는 자녀 육아와 관련된 욕구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큰데,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수혜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예컨대, 아동수당은 약 46.9%가 혜택을 보았다. 40대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비 지원

관련 혜택을 본 경험이 많은 편으로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자의 약 33.5%가 대학 등록금은 약 22.6%가 수혜한 경험이 있다. 40대와 50대는 아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혜 경험은 적으나, 60대 이상부터는 늘어나 70대 이상은 과반 이상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혜 경험이 있다.

〈표 2-8〉 연령별 정책 수요가 높은 제도 순위별 정책 수혜 경험과 충족도

20대 이하	필요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민연금	대학생 등록금지원	실업급여	공공임대주택	직업훈련/취업상담,알선/자활근로
	수혜 경험	명	17	104	19	31	18
		%	3.7	29.6	3.8	0.9	3.3
	충족도		3.2	3.1	3.2	3.2	3.0
30대	필요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아동보육 서비스 지원	아동돌봄 및 교육지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	명	130	187	214	53	40
		%	28.2	39.4	46.9	13.0	10.9
	충족도		3.1	3.1	3.1	3.0	3.0
40대	필요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수혜 경험	명	208	119	20	16	21
		%	33.5	22.6	3.4	3.1	4.6
	충족도		3.0	3.1	3.2	3.0	3.0
50대	필요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민연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공공임대주택
	수혜 경험	명	22	156	24	24	37
		%	3.2	33.1	4.4	4.4	8.1
	충족도		3.0	3.0	3.0	2.8	3.2
60대	필요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생계비,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 경험	명	164	133	23	23	5
		%	27.7	23.2	4.4	4.4	1.9
	충족도		2.9	3.1	2.9	3.1	2.4
70대	필요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생계비,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 경험	명	159	245	31	50	4
		%	52.0	68.5	9.2	19.6	3.0
	충족도		3.0	3.1	3.1	3.0	2.9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필요도 순위는 제도별로 비해당자를 제외하고 평균 필요 정도가 높은 순서로 정리한 것임.
3) 충족도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4점 매우 만족까지의 4점 척도로 값이 클수록 정책이 필요를 충족한 정도가 높음을 뜻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렇다면 정책 수혜 경험은 행복 수준 제고에 기여할까? 정책 수혜 경험 자체는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수혜 경험이 있는 제도의 충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있다(〈표 2-10〉 참고). 사회보장제도가 관련 욕구를 충족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후술하겠지만, 제도의 특성별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도마다 자격 기준과 포괄범위가 상이한데, 각 특성에 따라 행복과의 관련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별 수혜자의 사례 수가 많지 않아 이를 고려하지 못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제도 수혜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표 2-9〉와 같이 정책 수혜 경험 역시 제도에 따라 행복 수준과의 관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 각 제도가 대응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체로 자산조사가 엄격하고 별도의 의학적 진단을 필요로 하는 선별성이 높은 제도의 수혜 경험은 행복과 부적(-) 상관관계를 맺는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들의 수혜자들은 극빈층이거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로 생활 수준과 같이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건의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여 행복이 전반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욕구를 충족하는 정도가 높으면 행복도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사회보장제도가 대응하는 욕구에 따라서도 수혜 경험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다. 우선 자녀 육아와 관련된 제도들의 수혜 경험은 행복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맺는 데 반해, 일자리 보장 관련 제도들의 수혜는 행복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들은 대체로 자산조사가 없거나 자산조사 기준이 있더라도 비교적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유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행복과의 관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소득보장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제도는 수혜 경험이 행복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앞서 엄격한 자산조사에 기초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과 같은 소득보장제도 역시 행복과의 관계가 음의 방향성을 가졌는데,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은 선별성과 보편성으로 구분하면 생계비, 의료비 지원과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행복과 부적 관련성을 맺는데, 이는 이 제도의 수혜자들인 노인층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점과 관련되어 보인다. 한편, 충족도는 행복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행복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소득 보장 및 취업 지원 관련 제도들도 충족도가 높아지면 행복감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성을 보인다.

〈표 2-9〉 제도별 수혜 경험과 행복의 상관관계

제도명	제도특성	정책 수혜 경험				충족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육아휴직급여	사회보험 자산조사 없음	+	+	+	+				
아동수당	사회수당 자산조사 없음	+	+	+	+				
아동돌봄 및 교육지원	사회서비스 자산조사 있으나, 적용범위 넓은 편	+	+	+	+				
아동보육서비스 지원	사회서비스 자산조사 있으나, 적용범위 넓은 편	+	+	+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자산조사 있으나, 적용범위 넓은 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자산조사 있으나, 적용범위 넓은 편	-			+		+	+	+
공공임대주택	엄격한 자산조사	-	-	-	-				
공공대출, 융자	엄격한 자산조사	-	-	-			+	+	
직업훈련, 취업상담,알선, 자활근로	제도마다 자산조사 실시 여부 및 적용범위 상이	-	-	-	-		+		
실업급여	사회보험 자산조사 없음	-	-	-	-	+	+	+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자산조사 있으나, 적용범위 넓은 편			-					
생계비, 의료비 지원	공공부조 엄격한 자산조사	-	-	-	-				
국민연금	사회보험 자산조사 있으나, 적용범위 넓은 편	-	-	-	-	+			
기초연금	공공부조 자산조사 있으나, 적용범위 넓은 편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등급진단필요	-		-	-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서비스 등급진단필요	-	-	-	-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상관관계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우만 표시한 것이며, 괄호 안의 상관관계의 방향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2-10〉 정책 수혜 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정책 수혜 여부				수혜 정책 충족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정책수혜	-0.096	-0.0979*	-0.024	0.016	0.167	0.228**	0.213*	0.225*
	(0.050)	(0.047)	(0.047)	(0.051)	(0.085)	(0.080)	(0.083)	(0.088)
만나이	-0.045***	-0.046***	-0.062***	-0.037**	-0.080***	-0.079***	-0.100***	-0.080***
	(0.013)	(0.012)	(0.012)	(0.013)	(0.021)	(0.021)	(0.020)	(0.021)
만나이 제곱	0.043**	0.045***	0.060***	0.031*	0.073***	0.073***	0.091***	0.066**
	(0.014)	(0.013)	(0.013)	(0.014)	(0.021)	(0.021)	(0.020)	(0.022)
남자 (여자=0)	-0.118*	-0.122**	-0.139**	-0.008	-0.094	-0.069	-0.096	0.077
	(0.048)	(0.046)	(0.048)	(0.050)	(0.077)	(0.078)	(0.078)	(0.080)
로그가구균등화소득	0.314***	0.348***	0.329***	0.318***	0.260***	0.382***	0.292***	0.307***
	(0.049)	(0.051)	(0.051)	(0.055)	(0.065)	(0.076)	(0.067)	(0.077)
혼인상태 (유배우=0)								
별거	-0.456	-0.455	-0.862***	-0.617**	-0.499	-0.011	-0.522	-0.041
	(0.246)	(0.310)	(0.258)	(0.232)	(0.316)	(0.318)	(0.288)	(0.321)
사별	-0.523***	-0.240*	-0.342***	-0.080	-0.596***	-0.342**	-0.390**	-0.088
	(0.110)	(0.095)	(0.098)	(0.102)	(0.149)	(0.124)	(0.127)	(0.137)
이혼	-0.683***	-0.962***	-0.961***	-0.580***	-0.962***	-1.056***	-1.173***	-0.329
	(0.123)	(0.117)	(0.122)	(0.131)	(0.207)	(0.232)	(0.209)	(0.184)
미혼	-0.442***	-0.450***	-0.591***	-0.318***	-0.854***	-0.746***	-0.933***	-0.651***
	(0.078)	(0.074)	(0.072)	(0.079)	(0.155)	(0.144)	(0.141)	(0.148)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420***	0.371***	0.400***	0.338***	0.426**	0.269*	0.496***	0.380*
	(0.108)	(0.095)	(0.093)	(0.100)	(0.143)	(0.134)	(0.126)	(0.150)
대졸 이상	0.534***	0.469***	0.536***	0.454***	0.674***	0.437**	0.664***	0.519**
	(0.120)	(0.108)	(0.106)	(0.116)	(0.163)	(0.154)	(0.148)	(0.18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0))								
임시·일용직	-0.410***	-0.638***	-0.485***	-0.529***	-0.403**	-0.641***	-0.457***	-0.387**
	(0.078)	(0.075)	(0.073)	(0.081)	(0.136)	(0.117)	(0.118)	(0.145)
자영자	-0.148*	-0.247***	-0.238***	0.0582	-0.0677	-0.16	-0.119	0.213*

	정책 수혜 여부				수혜 정책 충족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실업자	(0.063)	(0.062)	(0.063)	(0.066)	(0.105)	(0.108)	(0.106)	(0.106)
	-0.847***	-1.316***	-1.012***	-1.093***	-0.631*	-1.122***	-0.752***	-0.919***
	(0.185)	(0.186)	(0.153)	(0.151)	(0.252)	(0.249)	(0.201)	(0.215)
비경제활동인구	-0.086	-0.0763	-0.1	-0.281***	-0.0579	-0.0557	-0.0797	-0.189
	(0.066)	(0.064)	(0.066)	(0.074)	(0.107)	(0.108)	(0.108)	(0.122)
상수	6.063***	6.081***	6.390***	5.788***	6.630***	6.004***	6.859***	6.236***
	(0.393)	(0.385)	(0.392)	(0.415)	(0.640)	(0.646)	(0.639)	(0.628)
사례 수	5050	5050	5050	5050	2109	2109	2109	2109
adj.R^2	0.111	0.143	0.122	0.103	0.163	0.182	0.181	0.144

주 1) 개인가중치 및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2) 괄호 안은 표준 오차임.
3)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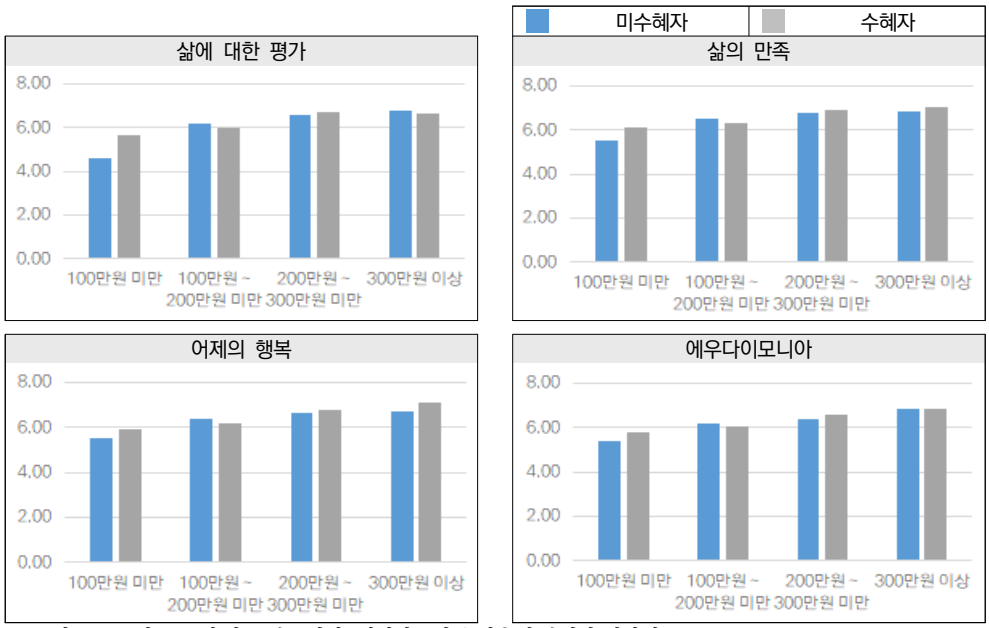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집단별로 주로 수혜 경험이 있는 제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대의 높은 행복도를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30대는 자녀 육아와 관련된 제도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동 돌봄을 위한 제도의 수혜 경험이 많은 편이고 해당 제도의 수혜는 행복도와도 정적 관련을 맺는다.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들어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자녀 돌봄 욕구가 있는 다수의 30대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이들의 행복도가 다른 집단들보다 높은 것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30대보다 다소 행복도가 낮은 20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수혜 경험이 적다. 그리고 수혜한 경우도 행복에 정적 관련성을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0대가 고령층보다는 높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이지만, 30대보다는 다소 낮은 행복도가 나타나는 것은 일자리 관련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실업 문제가 정책적으로도 주요하게 다뤄짐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만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이 이들의 행복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한편, 고령층은 소득보장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다른 연령 집단보다 관련 제도 수혜 경험이 비교적 많기도 하다. 그런데 수혜 경험이 행복과는 부적 관련성을 맺는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제도가 필요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여긴다면 행복과 정적 관련을 맺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수혜가 행복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나아가서 이는 한국의 노령층이 유독 낮은 행복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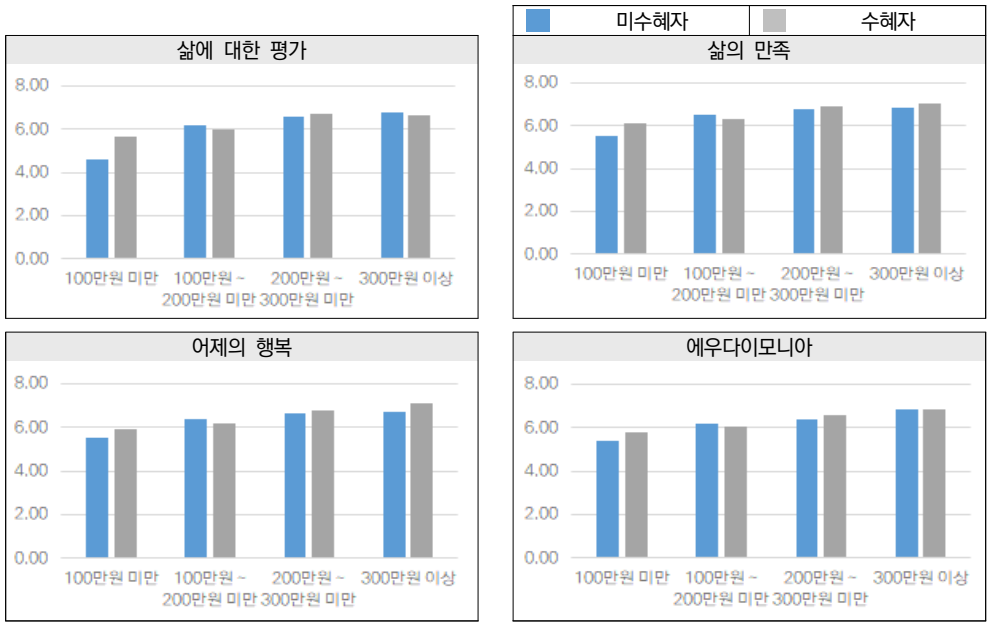
실제로 〔그림 2-7〕, 〔그림 2-8〕과 같이,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노후소득보장제도 수혜 여부 별 행복도를 비교해보았을 때도 충분한 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수혜할 경우 행복도가 더 높은 데 비해,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기초연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미수혜집단의 행복도가 근소하게 높다. 기초연금의 수준을 차츰 높였음에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관련해서 김혜연(2020) 등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낮은 행복이 경제적 부문과 주되게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림 2-7] 국민연금 수혜자의 행복도 (60대 이상)



주 : 가구 균등화 소득에 따른 분류이며,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2-8] 기초연금 수혜자의 행복도 (60대 이상)



주 : 가구 균등화 소득에 따른 분류이며, 개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제4절 소결

2장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영역별 중요도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만족하는 것은 전반적인 행복도를 견인하는 요인이 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가치를 두는 영역에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취와 일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는 20대는 학령기를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이다. 이에 성취와 일자리에 대한 가치 부여가 높은 편이다. 한편 이 시기는 과거 결혼을 통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나, 초혼 연령이 증가하여 가족형성시기가 30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 33.37세, 여성 30.59세로 20년 전인 1999년보다 약 4.3세씩 상승했다(통계청, 2020a). 이에 30대에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20대보다 높은 것은 물론 건강을 제외한 모든 영역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Switek and Eastelin(2018)의 연구에서도 스웨덴 초기 성년기 패널 자료(Swedish Young Adults Panel Study)를 활용해 가족 형성기 행복도가 높아졌다가 가족 내 긴장도가 높아지는 30대부터 차츰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족 형성기인 한국 30대의 높은 행복도는 이러한 가족 구조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하겠다.

청년층인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30대의 행복도가 더 높은데, 사실 30대는 전체 연령 집단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인다. 30대가 20대보다 가치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에서의 높은 만족도가 일정 부분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Switek and Eastelin(2018)의 연구의 맥락에서 가족형성기의 행복도가 높다는 점도 일정 부분 이와 관련될 수 있다. 게다가 아동 돌봄 관련 정책들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춰준 것 역시 이들의 높은 행복도와 연관된다. 이에 반해, 20대는 일자리 불안이 이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전 연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수준보다도 하는 일에 가치를 더 높게 부여하지만,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얻지 못해 30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 같다.

한편, 중년층으로 넘어갈수록 건강과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진

다. 생활 수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데, 40대와 50대 중년층은 미래 안정성을 다른 연령대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는 가족 확장기로 가족 부양 부담을 짐과 동시에,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생애주기상의 특징이 반영되는 특징으로 보인다. 생활 수준이나 건강, 가족관계, 미래 안정성 등의 영역에서 40대의 기대 수준보다 높은 만족도는 50대보다 40대의 전반적인 행복도 수준이 높은 것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자료이기도 하다. 한편, 이 시기에는 시간적 여유 역시 행복과 관련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가족 내에서의 부담과 더불어 직장 생활에서 중간관리직 이상의 직급에 도달하여 높은 책임감이 부여됨에 따라 여유로운 시간에 대한 갈망도 높은 경향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은 생활 수준과 건강,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현저하게 행복 수준이 낮은데,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기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기대 수준보다 낮은 것이 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60대는 일의 중요성도 두드러지는데,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에서 점차 이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고령층과 달리 만족스러운 일 생활을 유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일 자체에서의 만족감과 더불어, 일정 부분 소득 보장의 기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고령층의 행복과 부적 관련성을 맺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3장

노인의 일상생활 경험과 행복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 3 장 노인의 일상생활 경험과 행복

제1절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60세이다(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3). 하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두는 평균 연령은 49.4세다(통계청 보도자료, 2020.7.28., p. 8). 국민연금 수급요건에 의하면,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수급 개시가 가능했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상향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다. 노인 여부를 정의하는 법적 연령 기준은 없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 경로우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 2020).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50세 이후부터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여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은퇴와 노후는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큰 변화이다. 청·장년기에 비해 건강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은퇴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다거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 주요 인물을 잃어버리며 우울증이 높아지기도 한다(박경순, 박영란, 손덕순, 2020, p. 668).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일상생활 방식도 대폭 변화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이 일이나 학습 등 의무시간을 하루에 약 7시간 40분을 쓰는 데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은 약 5시간 쓴다. 전체 성인의 여가시간이 하루에 약 5시간인데 노인의 여가시간은 하루에 약 7시간이다(통계청 보도자료, 2020.7.30. p. 11; p.13).

주요 선진국에서는 40대 이후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 정형화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50대 이후 행복 수준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것 또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김성아, 정해식, 2019).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인다는 점도(OECD, 2020a)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기여한 노인들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용하고 새로운 시간대의 하루를 살아가는 노인의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한국 노인들이 누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

내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은 일상의 패턴을 탐색하여 행복과의 관련성을 발견하는 서베이 측정방법이다(Kahneman et al., 2004). 국내에서는 홍영의(2019)와 강승민, 장재윤(2018)의 연구 이외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한경혜, 장미나, 2011). 3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행복에 있어 일상생활의 영향을 분석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 이하 DRM)이란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는 활동과 장소, 정서적인 경험에 주목하되, 회상편의를 줄이기 위해 시간대별 일기를 쓰고 정서적 경험을 표집(장재윤 외, 2007, pp. 124-127)하여 일상적 행복을 측정하는 서베이조사 방법으로 Kahneman et al.(2004)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경험하는지의 관점으로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사용'과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 삶의 만족을 질문하는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문 시점의 맥락과 객관적 조건에 덜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일상에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정서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적절하다"(장재윤 외, 2007, p. 124).

주요 선행연구에서도 DRM을 활용한 행복 측정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요 독립변수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대와 다른 결과를 일상적 경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 수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음의 영향을 보인다. Stone et al.(2006)는 일상재구성법을 활용해 자녀가 미국 여성 직장인에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 중 하나이고 실제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는 실험을 추구한다. 전반

적인 삶의 만족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의 신뢰도에 대한 비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Fredrickson & Kahneman, 1993; Kahneman, Fredrickson, Schreiber, & Redelmeier, 1993; Thomas & Diener, 1990; 장재윤 외, 2007, p. 125에서 재인용). 경험표집법이 대표적인 방식인데, 연구 참여자는 호출기가 무작위로 울릴 때 있는 장소와 활동, 기분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자료 구축에 용이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과 정서경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원하는 특정 시간대에 일어나는 활동과 정서 경험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고, 연구참여자들이 실제 경험을 보고하여 정서를 왜곡하거나 과거를 회상할 부담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일상을 방해하며 연구 참여의 부담이 크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표집되지 않은 시간의 중요한 사건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대안으로서 일상재구성법(DRM)이 제안되었다. DRM은 연구 참여자들이 어제 시간대별 경험과 정서적 경험을 회상하여 보고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실적인 자류 구축에 용이하고, 하루 전날 일상에 대해 응답, 회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연구 참여 부담이 적고, 경험표집법과 시간대별 일기의 장점을 모두 가진다. 그리고 하루 일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다. 하루 전 일이라도 기억에 남지 않은 사건은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Dockray et al.(2010)은 침 속의 코르티솔을 측정하는 '생태학적 순간 평가(Ecological Moment Assessment)' 결과와 DRM 결과의 차이가 유의하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서베이로서의 DRM의 결과의 신뢰도를 지지하기도 했다.

〈표 3-1〉 일상재구성법과 경험표집법 비교

구분	일상재구성법 (DRM, Day Reconstruction Method)	경험표집법 (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
방법	어제 시간대별 경험과 정서적 경험을 보고	연구참여자는 호출기가 무선으로 울릴 때 장소와 활동, 기분을 하루 중 수차례 기록
장점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실적인 자류 구축에 용이 -하루 전날 일상에 대해 응답, 회상의 오류를 최소화 -연구 참여 부담이 적음 -경험표집법과 시간대별 일기의 장점을 모두 가짐 -하루 일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파악에 용이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실적인 자료 구축에 용이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과 정서경험을 실시간 확인 가능 -특정 시간대에 일어나는 활동과 정서 경험 파악에 용이 -연구참여자들이 실제 경험을 보고하여 정서를 왜곡하거나 과거를 회상할 부담을 갖지 않음.
단점	-하루 전 일이라도 기억에 남지 않은 사건은 누락될 수 있음	-일상을 방해하며 연구 참여의 부담이 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표집되지 않은 시간의 중요한 사건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 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일상재구성법 (DRM) 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pp. 124-127을 수정 및 보완하여 표로 정리함.

Kahneman et al.(2004)은 미국 텍사스 서베이회사에서 운전면허증 리스트를 모집단으로 표집한 경제활동 중인 1,018명 여성 중 기준일(reference day)에 일을 한 90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DRM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교사, 간호사, 텔레마케터를 과대표집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일의 즐거움은 시간의 압박감을 응답한 사람들(평균 2.88점)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평균 3.96)의 차이가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의 즐거움(평균 2.86)과의 차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시간의 압박감은 집에서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DRM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느끼는 시간의 압박감은 직장에서 즐거움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 유사하게 수면의 질은 집에서의 즐거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도 DRM을 활용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양상을 분석한 경험이 있다. 장재윤 외(2007)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기혼 직장인 남자 200명(평균 34.9세), 기혼 전업주부 여자 100명과 직장인 100명(전체 여자 200명 평균 33.8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직장인과 기혼 전업주부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먹거나 대화 혹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였다. 직장인은 일하기를 하면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며, 직장인 여성은 전업주부나 직장인 남성에 비해 자녀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돌봄

노동에 대해 더 많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였다.

한경혜, 장미나(2011)는 유아용품 전문회사 인터넷사이트 회원 중 만 60개월(만 5세) 이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기혼 여성 3,067명을 대상으로 DRM을 활용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자의 다수는 자녀돌봄이나 가사활동을 보고하였다. 가족과 여가를 보낼 때 행복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사활동을 할 때 덜 행복하다. 배우자,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혼자 있거나 자녀와만 있을 때는 덜 행복하다. 영유아 자녀를 온전히 돌보아야 한다는 육아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DRM은 연구윤리와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일상의 양상과 정서적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제 하루 종일 혹은 특정 시간대의 경험을 회상하는 응답 부담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용이할 수 있다.

40대 이후 낮아진 행복 수준을 회복하는 주요 선진국의 노인과 달리 한국 노인의 행복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김성아, 정해식, 2019), 노인의 일상생활과 행복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주현(2007a)은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하여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무급 가사활동에 시간을 많이 쓰고,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유급 노동에 시간을 많이 쓰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신숙(2011a)은 전남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해 평일에는 근로시간의 비중이, 주말에는 종교활동의 비중이 다소 높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은퇴와 노년기를 맞이하는 노인의 시간사용 실태 뿐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신숙(2011b)은 가사노동이나 TV 시청 등 정적인 여가활동이 노인의 행복을 낮추는 반면,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적극적인 취미활동을 하면 노인의 행복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송시영, 전혜정, 최봄이(2020)는 2017~2018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분석하여 경제활동을 새롭게 시작한 노인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높고 우울감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활동의 종류 뿐 아니라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관계가 또한 노인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박경순, 박영란, 손덕순(2020)은 농촌 노인에 비해 도시 노인의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고, 특히 도시노인이 느끼는 고독감이 높은 우울감의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이영균, 최승인(2016)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경로를 확인하였고, 김석일, 박정은(2016)은 적극적 여가활동으로서 스포츠 참여가 서울과 경기 지역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회복시키면서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체를 활용하는 여가 프로그램 참여가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높이고 우울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석일(2012)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 신환호, 한미아, 박종, 류소연, 최성우, 김해란(2017)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인 가구의 노인,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친구가 없는 노인의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여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노인의 생활과 행복에 대한 이들 연구는 서베이에서 척도를 활용해 측정한 개념 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것으로 DRM의 접근과는 다르다.

최근 홍영의(2019)는 국내에서 DRM을 활용해 서울 망원동에 거주하는 먼 65세 이상 노인 67명의 일상생활과 정서를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활동의 종류나 함께 한 사람보다는 공간에 주목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하루 평균 17시간 15분을 집에서 보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누리는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서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학습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기쁨이 높아졌다. 종교시설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긍정적 정서가 강화되었다.

강승민, 장재윤(2018)은 서울에 거주하는 60대를 대상으로 DRM을 활용해 일상생활 중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노인은 혼자 있을 때와 배우자와 있을 때는 행복감이 다르지 않았으나, 친구, 동료, 이웃 등 지인이나 가족과 있을 때는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홍영의(2019)의 연구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자로 하고 있고, 강승민, 장재윤(2018)의 연구가 '행복한'이라는 단일한 정서적 경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3장에서 시도하는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의 일상생활 경험과 다양한 차원의 행복에 대해 수행하는 실증 분석 결과가 한국 노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에 학술적,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분석 결과

1. 분석자료

3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노인의 행복과 일상생활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 조사는 표본 가구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가구원 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며 개인 특성, 가구 특성, 행복과 심리적 정서, 심리적 역량, 사회인식과 함께 1960년 5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DRM을 활용한 일상생활과 정서적 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노인 여부를 결정하는 연령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은퇴 이후 노년기를 준비하는 인구를 포괄한 것이다.

Kahneman et al.(2004)이 제시한 DRM 문항 세트는 어제 경험한 일화를 기준으로 그 일화가 있었던 시간, 장소, 함께 한 사람의 수와 본인과의 관계, 일화의 내용, 그리고 정서적 경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등 어제 경험한 일화들을 회고하여 DRM 문항 세트에 응답하도록 하여 어제 하루 종일 경험을 회상하게 한다. 이로써 일상생활의 내용과 정서 경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Schwarz, Kahneman, Krueger, Schkade & Stone(2005)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DRM을 활용하여 어제 하루 종일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의 전체 응답을 받는 데에 약 30~40분 정도 될 것을 고려하면 응답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응답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Schwarz et al.(2005)는 DRM을 이용해 어제 하루 중 무작위 시간대(오전, 오후, 저녁)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10~15분만 소요된다고 보았다. Miret et al.(2012)에 의하면, 이러한 단축형 DRM 문항에 의한 결과로 어제 종일의 정보를 질문하는 완전형 DRM 문항에 의한 결과의 긍정적 정서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ICC)가 0.67, 순 정서(Net Affect)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0.66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완전형 DRM을 단축형 DRM으로 충분히 대리한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는 60세 이상 응답자에 한하여 오전(자정~12시), 오후(12~6시), 저녁(6시~수면)의 3개 시간대를 무작위 할당하여 DRM에 의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다음 표는 시간대별 응답 현황이다.

〈표 3-2〉 일상재구성법 응답 시간대 분포

(단위: 명, %)

구분	유효표본(명)	비율(%)
오전	495	36.0
오후	439	31.9
저녁	442	32.1
전체	1,376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5,020명 중 DRM 응답자는 1,376명이다. 이들에게 시간대별 일화를 최대 5개씩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장에서는 노인의 활동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 그리고 정서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므로 분석단위는 4,404개의 일화이다. 응답자 1인당 약 3.2개의 일화를 보고한 것이다. 응답자와 응답자의 일화별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와 같다. 결과변수는 일화별로 0~10점 범위의 리커트척를 활용해 측정한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의 정서 경험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가 강화된다.

〈표 3-3〉 일상재구성법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n=1,376)		응답자의 일화(n=4,40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성별(%)	남성	50.7		49.8			
	여성	49.3		50.3			
만나이(세)		66.9	5.19	67.0	5.22	60	79
혼인상태(%)	유배우	71.0		71.8			
	이혼/별거/사별	28.3		27.6			
	미혼	0.8		0.6			
교육수준(%)	중졸 이하	43.3		43.1			
	고졸	47.6		46.8			
	대졸 이상	9.2		10.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5		10.0			
	임시직 임금근로자	8.1		8.0			
	일용직 임금근로자	7.2		6.4			
	고용주	1.2		1.2			
	자영업자	26.4		26.2			
	무급가족종사자	1.3		1.1			
	실업자	5.1		4.9			
	비경제활동인구	41.3		42.3			
주거 점유형태(%)	자가	81.2		82.1			
	전세	11.8		10.7			
	월세	7.1		7.2			
균등화 가구소득(만원/월)		196.2	115.94	201.1	124.93	0	952.6

구분		응답자(n=1,376)		응답자의 일화(n=4,40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일상생활수행능력(점)		7.1	1.07	7.1	0.92	7	21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점)		7.3	1.19	7.2	1.06	7	21
수면시간(분)		435.6	91.43	434.7	93.38	60	900
행복한(점)				6.7	1.49	0	10
의미 있는(점)				5.7	1.94	0	10
피곤한(점)				3.8	2.36	0	9
스트레스 받은(점)				3.1	2.38	0	10
슬픈(점)				2.6	2.30	0	9
고통스러운(점)				2.6	2.30	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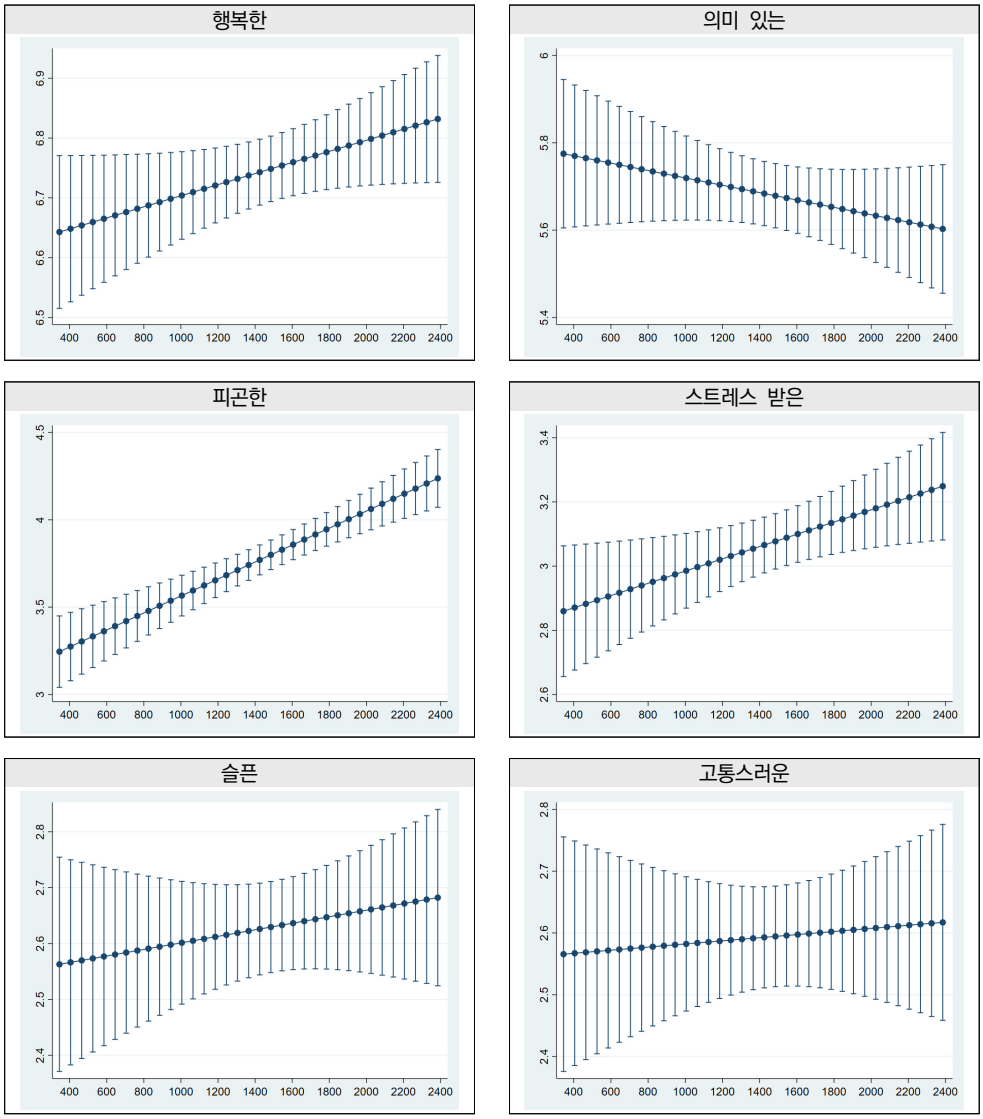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범주형 변수는 빈도분석 결과이고, 연속변수는 기술통계분석 결과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은 일화별 응답을 수집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2. 노인은 언제 행복한가?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 DRM으로 측정한 노인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노인은 언제 행복한가?'이다. 다음 그림은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대별 정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그리고 수면시간을 통제한 한계(marginal) 예측치이다. 행복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의미 있다는 감정은 밤에 가까울수록 약화된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감정은 행복한 감정과 유사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된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 또한 밤에 가까울수록 강화되지만 변화의 기울기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다소 완만하다.

Kahneman et al.(2004)이 DRM을 활용해 미국 텍사스에서 경제활동 중인 1,018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여준 주중 피곤한 감정이 12시에 최저점을 보이는 V자형을 보이는 양상과 상이한 것이다. Kahneman et al.(2004)의 분석대상과 비교하면 주중 감정의 시간대별 변화가 경제활동의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자영업을 제외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나이대인 60대 이상의 노인의 하루를 채우는 주요 일화가 경제활동인구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화를 경험하는 하루의 일상생활 양상이 경제활동인구와 같지 않고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패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주목하는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 노인의 행복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 도출이 필요하다.

〔그림 3-1〕 60세 이상의 시간대별 정서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성별, 만나이, 만나이제곱,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주거 점유형태, 로그 균등화가구소득,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수면시간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시간대별 한계 예측치임. 시간대는 종료시점 기준임. 시간대별 세로선은 신뢰구간임.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3. 노인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우리나라 노인은 전체 성인에 비해 여가시간이 길다(통계청 보도자료, 2020.7.30. p. 11; p. 13). 2019년에 노인이 여가시간 중에 TV 시청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전체 성인 2시간 30분에 비해 약 1시간 20분 정도 더 길다(통계청 보도자료, 2020.7.30. p. 11; p. 13). 홍영의(2019)는 서울 망원동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DRM 결과를 분석하여 활동적 여가와 정적 여가가 노인이 경험하는 기쁜 감정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 활동을 할 때 노인이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석일, 박정은(2016)은 적극적 여가활동으로서 노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결국 우울을 감소시키는 경로를 보인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을 보내는 활동의 종류는 행복을 포함한 정서적 경험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여기에서는 활동의 종류에 주목하여 '노인은 어떻게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다음 〈표 3-4〉는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응답자가 보고한 활동의 응답률과 소요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일화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 혹은 동료와 어울리는 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의 일화에서 개별 활동을 포함한 다른 활동을 동시에 경험하는 횟수인 중복 활동의 개수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소요시간은 중복 활동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요시간이 약 830분으로 조사된 몸단장은 중복하여 등장하는 활동의 개수가 2.8개로, 이 시간 동안 몸단장만 했다기보다 몸단장을 하며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할 수 있고, 몸단장하고 이동하거나 일을 하거나 누군가와 어울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활동은 'TV 시청 혹은 음악청취'이다. 평균 2.6개의 활동과 중복되어, 하루 평균 약 350분 정도를 쓴다. 두 번째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활동은 '음식물을 먹고 있음'이다. 하루에 약 400분을 쓰는데 먹는 활동에만 쓰는 시간이라기보다 중복되는 평균 2.7개의 활동 중에 쓰는 시간으로 보인다. 세 번째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활동은 '개인적인 휴식'이고, 평균 3개의 활동과 중복되어 하루 평균 270분을 쓴다. 네 번째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활동은 '집안일 혹은 식사준비'이고 평균 2.6개의 활동

과 중복되며 하루 평균 525분을 쓴다. 이상의 활동은 대부분 집에서 홀로 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 일을 했다는 응답률은 11.5%로, 일화를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약 52.7%라는 점을 환기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서울 망원동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조사한 홍영의(2019)의 분석 결과, 집에서 머문 시간이 하루 평균 17시간 15분으로 하루의 약 72%이다. 그리고 집에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고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기쁨이 높아졌다. 이 장의 분석 결과 또한 외부공간에서 보내야 하는 활동의 응답률은 다소 낮은 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응답률이 높다. 노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일상생활 중 주로 경험하는 활동의 종류와 개별 활동의 적극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가 실시된 2020년 6~7월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되는 시기이므로 집에 머무르는 활동이 높아졌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친구 혹은 동료와 어울림의 응답률이 각각 5.6%와 8.4% 정도인 것은 조사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 값이다.

〈표 3-4〉 활동별 응답률과 소요시간

(단위: %, 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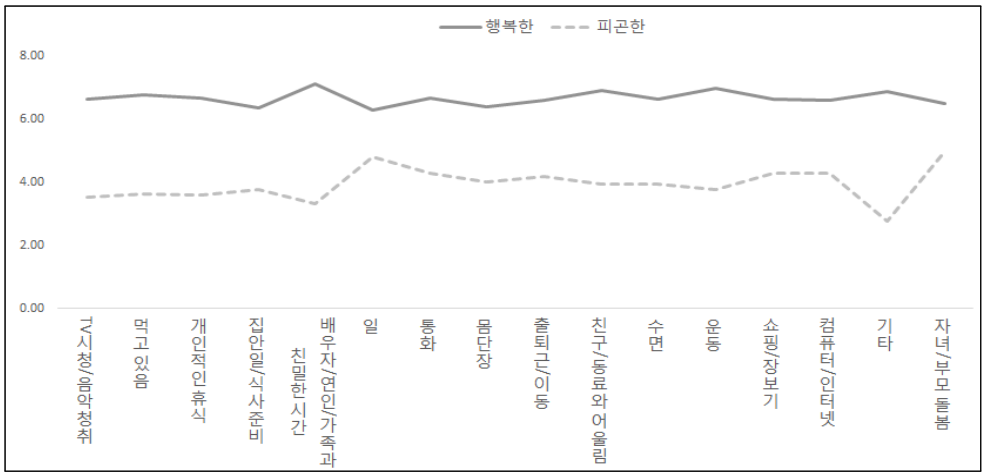
활동	응답률	중복 활동	소요시간
TV시청/음악청취	32.0	2.6	350.6
먹고 있음	26.5	2.7	417.6
개인적인 휴식	20.3	3.0	270.0
집안일/식사준비	18.4	2.6	525.1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11.5	3.5	348.0
일	11.5	2.5	278.5
통화	9.5	3.4	258.9
몸단장	8.7	2.8	827.5
출퇴근/이동	8.7	2.8	468.9
친구/동료와 어울림	8.4	2.9	206.4
수면	6.0	3.1	292.7
운동	5.6	2.9	463.6
쇼핑/장보기	2.8	3.2	152.2
컴퓨터/인터넷	1.6	5.0	304.5
기타	0.8	1.6	315.5
자녀/부모 돌봄	0.7	6.5	311.0

주: 소요시간은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 [그림 3-2]는 활동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의 패턴을 '행복'과 '피곤'에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다. 기타의 활동을 제외하고 배우자, 연인,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하고, 덜 피곤하다. 반면 응답률은 낮았지만 일을 할 때 가장 덜 행복하고 더 피곤하다.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누군가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관계적 활동이 중요하다.

〔그림 3-2〕 활동별 정서적 경험

(단위: 점)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 〈표 3-5〉는 앞서 그림으로 살펴본 활동별 정서적 경험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정서적 경험의 수준이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은 배우자, 연인,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덜 피곤하고, 가장 덜 스트레스받고, 가장 덜 슬프고, 가장 덜 고통스럽다. 반면, 일할 때 가장 덜 행복하다. 자녀나 부모를 돌보는 활동에 주목할 만한데 응답률이 0.7%에 불과하지만, 이때 가장 피곤하고, 가장 스트레스받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다. 의미 있다는 감정은 정서적 경험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잘 때 가장 덜 의미가 있고, 운동할 때 가장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부정적 정서인 피곤함, 스트레스, 슬픔, 고통이 가장 강한 활동은 일관적이다. 하지만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과 의미 있다는 느낌은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할 때 가장

강하게 느낀다.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고려할 필요를 시사하는 것이다. 행복한 정서적 경험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성적 판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방식을 고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종류가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표 3-5〉 활동별 정서적 경험

(단위: 점)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TV시청/음악청취	6.66	5.48	3.52	2.94	2.64	2.58
먹고 있음	6.78	5.67	3.63	2.97	2.66	2.58
개인적인 휴식	6.69	5.54	3.60	2.86	2.54	2.38
집안일/식사준비	6.36	5.48	3.78	3.21	2.80	2.71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7.14**	6.10	**3.31**	**2.46**	**2.01**	**1.99**
일	**6.30**	5.95	4.82	3.96	3.06	3.05
통화	6.68	5.83	4.28	3.68	3.23	3.24
몸단장	6.42	5.52	4.03	3.11	2.78	2.74
출퇴근/이동	6.62	6.01	4.18	3.06	2.56	2.52
친구/동료와 어울림	6.91	5.98	3.94	2.94	2.53	2.44
수면	6.64	**5.45**	3.93	3.00	2.80	2.75
운동	7.00	**6.23**	3.76	2.81	2.53	2.47
쇼핑/장보기	6.64	5.68	4.28	3.31	2.62	2.54
컴퓨터/인터넷	6.61	5.97	4.30	3.69	2.97	2.97
기타	6.88	6.18	2.76	2.12	2.03	2.29
자녀/부모 돌봄	6.50	6.03	**5.00**	**4.77**	**3.97**	**4.1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아랫줄로 표시된 볼드체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저점이고, 윗줄로 표시된 볼드체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고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3-6〉은 활동의 종류가 노인의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그리고 수면시간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인 휴식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의하게 경감시켰다. 집안일은 행복한 감정을 유의하게 낮추었다. 배우자, 연인,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은 행복한 감정과

삶의 의미를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받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감정을 유의하게 낮추었다. 일은 부정적 감정을 일관되게 높였는데,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 즉 행복한 감정은 유의하게 낮추는데 삶의 의미는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통화는 삶의 의미와 부정적 감정들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친구 및 동료와 어울리는 시간과 운동은 긍정적 감정들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거나 완화하는 활동은 일관적이다. 긍정적 감정을 강화하는 활동도 비교적 일관적이지만 일은 양가감정을 유발한다. 행복한 정서적 경험은 낮추지만 삶의 의미는 강화하는 것이다. 노년기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표 3-6〉 정서적 경험에 대한 활동 종류의 영향

구분	(1) 행복한	(2) 의미 있는	(3) 피곤한	(4) 스트레스 받은	(5) 슬픈	(6) 고통스러운
TV시청/음악청취	-0.029	-0.150+	-0.102	0.058	0.162+	0.103
	(0.060)	(0.085)	(0.099)	(0.100)	(0.096)	(0.096)
먹고 있음	0.083	0.060	-0.099	-0.058	0.124	0.002
	(0.062)	(0.085)	(0.100)	(0.098)	(0.095)	(0.097)
개인적인 휴식	0.027	-0.059	-0.046	-0.151	-0.166	-0.344***
	(0.070)	(0.094)	(0.111)	(0.110)	(0.105)	(0.100)
집안일/식사준비	-0.314***	0.019	0.182	0.338**	0.209+	0.121
	(0.075)	(0.101)	(0.113)	(0.118)	(0.114)	(0.113)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	0.496***	0.375**	-0.289*	-0.642***	-0.680***	-0.622***
	(0.093)	(0.141)	(0.141)	(0.127)	(0.125)	(0.127)
일	-0.622***	0.236*	1.088***	0.959***	0.374**	0.350**
	(0.087)	(0.105)	(0.139)	(0.142)	(0.137)	(0.135)
통화	0.068	0.222*	0.377*	0.626***	0.621***	0.693***
	(0.084)	(0.105)	(0.151)	(0.146)	(0.149)	(0.146)
몸단장	-0.177+	-0.075	-0.004	-0.151	-0.003	-0.037
	(0.098)	(0.135)	(0.157)	(0.146)	(0.149)	(0.147)
출퇴근/이동	-0.172+	0.116	0.324*	-0.069	-0.025	-0.049
	(0.095)	(0.119)	(0.153)	(0.146)	(0.143)	(0.141)
친구/동료와 어울림	0.241**	0.327**	0.026	-0.198	-0.251+	-0.273+
	(0.091)	(0.109)	(0.148)	(0.154)	(0.142)	(0.146)
수면	0.013	-0.182	0.305	0.026	0.251	0.298+
	(0.104)	(0.152)	(0.191)	(0.193)	(0.185)	(0.180)
운동	0.243*	0.511**	0.068	-0.331+	-0.150	-0.151
	(0.114)	(0.162)	(0.188)	(0.182)	(0.170)	(0.180)
쇼핑/장보기	-0.147	-0.073	0.397	0.257	-0.110	-0.283
	(0.211)	(0.185)	(0.278)	(0.267)	(0.252)	(0.238)
컴퓨터/인터넷	-0.277	-0.224	0.053	0.498	0.284	0.324
	(0.255)	(0.280)	(0.345)	(0.415)	(0.406)	(0.432)
기타	0.083	0.060	-0.099	-0.058	0.124	0.002
	(0.062)	(0.085)	(0.100)	(0.098)	(0.095)	(0.097)
자녀/부모 돌봄	-0.359	-0.410	0.302	1.000*	0.934+	1.028+
	(0.345)	(0.386)	(0.550)	(0.500)	(0.520)	(0.568)
통제변수	O	O	O	O	O	O
상수	2.942	7.827	20.942*	23.772**	16.796*	21.304**
	(5.134)	(6.616)	(8.137)	(8.021)	(7.449)	(7.506)
N	4404	4404	4404	4404	4404	4404
adj. R-sq	0.111	0.073	0.089	0.098	0.088	0.089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성별, 만나이, 만나이제곱,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주거 점유형태, 로그 균등화가구소득,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수면시간을 통제함.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p〈0.1, *p〈0.05, **p〈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4. 노인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한가?

앞서 활동의 종류가 노인의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 연인, 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 긍정적 정서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친구, 동료와 어울리는 활동은 긍정적 정서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타인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김석일, 2012; 김석일, 박정은, 2016; 이영균, 최승인, 2016; 박경순, 박영란, 손덕순, 2020). 신환호 등(2017)은 1인 가구 노인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친구가 없는 노인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노인 혼자 했던 활동이 노인의 정서적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한다. 〈표 3-7〉은 혼자 했던 활동과 누군가와 했던 활동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혼자 했던 활동이 49.6% 등장하였고, 하루 평균 약 410분을 썼다. 누군가와 했던 활동의 응답률은 50.4%, 소요시간은 하루 평균 403분으로 혼자 했던 활동과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표 3-7〉 혼자였다는 응답률과 소요시간

(단위: %,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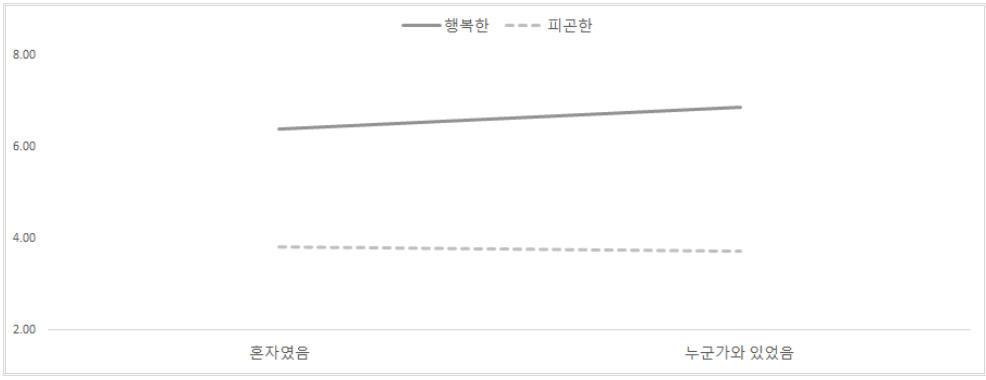
활동	응답률	소요시간
혼자였음	49.6	409.9
누군가와 있었음	50.4	402.8

주: 소요시간은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 [그림 3-3]은 혼자였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때의 정서적 경험을 행복한 감정과 피곤한 느낌에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다. 두 경우의 응답률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혼자였을 때는 누군가와 있었을 때와 비교하여 행복한 감정이 낮고 피곤한 감정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혼자였을 때 정서적 경험

(단위: 점)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 〈표 3-8〉은 혼자였을 때와 누군가와 있었을 때의 정서적 경험을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일관되게 혼자였을 때는 누군가와 있었을 때와 비교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낮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받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다.

〈표 3-8〉 혼자였을 때 정서적 경험

(단위: 점)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혼자였음(A)	6.39	5.34	3.80	3.14	2.82	2.76
누군가와 있었음(B)	6.86	5.83	3.71	2.98	2.55	2.56
차이(A-B)	-0.478	-0.491	0.097	0.157	0.270	0.197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아랫줄로 표시된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저점이고, 윗줄로 표시된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고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앞서 노인이 혼자였을 때와 누군가와 있었을 때의 정서 경험을 비교한 것에 이어, 다음 〈표 3-9〉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수면시간을 통제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혼자였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받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정서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긍정적 정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있는 경험은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기보다 긍정적 정서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9〉 정서적 경험에 대한 혼자였음의 영향

구분	(1) 행복한	(2) 의미 있는	(3) 피곤한	(4) 스트레스 받은	(5) 슬픈	(6) 고통스러운
혼자였음	-0.370***	-0.301***	0.045	0.144	0.158+	0.116
	(0.062)	(0.085)	(0.100)	(0.100)	(0.094)	(0.094)
통제변수	O	O	O	O	O	O
상수	4.424	8.068	19.632*	22.870**	17.006*	21.893**
	(5.288)	(6.683)	(8.132)	(8.188)	(7.589)	(7.632)
N	4404	4404	4404	4404	4404	4404
adj. R-sq	0.083	0.064	0.054	0.059	0.068	0.066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성별, 만나이, 만나이제곱,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주거 점유형태, 로그 균등화가구소득,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수면시간을 통제함.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p〈0.1, *p〈0.05, **p〈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5. 노인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가?

"노인은 혼자서도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노인은 누군가와 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근거를 찾았다. 여기에서는 "노인은 누구와 행복한가?"라는 질문으로 노인을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다음 〈표 3-10〉은 노인이 일상생활 동안 함께 있는 사람의 응답률을 제시하고 있다. '없음', 즉 해당 일화를 경험하는 동안 혼자였다고 응답한 확률이 46.3%이다. '배우자/연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7%로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때에 한정하여 가장 높다. 다음은 '친구'가 6.2%, '직장 동료'가 5.9%, '자녀'가 3.8%의 순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연인'의 응답률과 이를 제외한 타인과 같이 있었다는 응답률 간 차이가 상당하다. 즉, 노인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많고, 누군가와 있었다면 그 대상은 주로 배우자 혹은 연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노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자가 다양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3-10〉 함께 있는 누군가의 응답률과 소요시간

(단위: %, 분)

활동	응답률	소요시간
없음	46.3	405.6
배우자/연인	35.7	493.9
친구	6.2	179.4
직장 동료	5.9	223.6
자녀	3.8	556.7
고객, 학생	2.0	173.9
기타	1.8	267.3
다른 친척	0.8	342.6
직장상사	0.6	247.1
부모	0.5	2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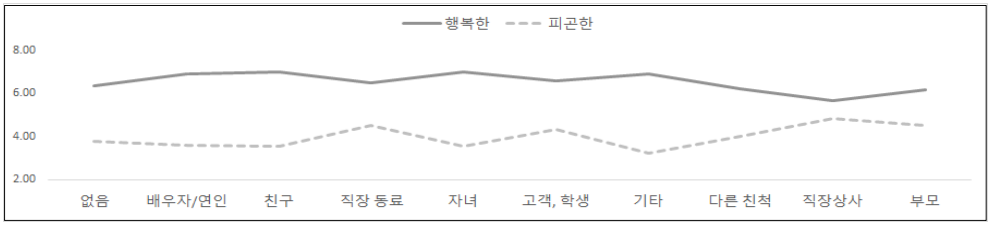
주: 소요시간은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 [그림 3-4]는 함께 있는 사람에 따른 노인의 정서적 경험을 행복한 감정과 피곤한 감정에 주목하여 보여주고 있다. 노인은 친구나 자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피곤한 감정도 낮다. 배우자 혹은 연인과 있을 때도 행복한 감정의 수준이 높은 편이고 피곤함도 낮다. 친척과 있을 때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피곤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즉 결혼과 출산 등으로 본인이 만든 가족이나 본인이 관계를 형성한 친구와 시간을 보낼 때 피곤하지 않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상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덜 행복하고 가장 피곤하다. 직장 동료나 고객과 있을 때도 행복한 감정 수준이 낮은 편이고 피곤한 정도도 높다. 직장 상사나 동료, 고객과 있었다는 응답률은 각각 0.6%, 5.9%, 2.0% 정도로 낮지만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양상은 비교적 선명하다. 경제활동은 가구소득을 확보하고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서적 경험은 긍정적이지 않다.

[그림 3-4] 함께 있는 누군가와 정서적 경험

(단위: 점)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 〈표 3-11〉은 함께 있는 사람에 따른 정서적 경험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노인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며 덜 스트레스 받고 덜 슬프고 덜 고통스럽다. 반면, 다른 친척과 있을 때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친구와 있을 때 행복한 정도가 높은 수준이고, 덜 피곤하고 덜 스트레스 받는다. 직장 상사와 있을 때 가장 덜 행복하고 가장 피곤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부모와 있는 경우인데, 스트레스나 슬픔, 고통스러움의 점수가 가장 높다. 활동별 정서적 경험을 확인했을 때에도 자녀 혹은 부모 돌봄의 활동을 할 때 가장 피곤하고 스트레스받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결과를 고려하면, 부모와 함께 있는 응답률이 0.5%라는 점에서 발생률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부모를 돌보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함께 있는 누군가와 정서적 경험

(단위: 점)

구분	행복한	의미 있는	피곤한	스트레스 받은	슬픈	고통스러운
없음	6.38	5.33	3.79	3.10	2.81	2.74
배우자/연인	6.90	5.82	3.62	2.97	2.57	2.57
친구	6.99	5.55	**3.54**	**2.76**	2.54	2.46
직장 동료	6.49	5.81	4.51	3.73	2.93	2.99
자녀	**7.00**	**6.22**	3.58	**2.76**	**2.28**	**2.30**
고객, 학생	6.58	6.11	4.35	3.68	2.41	2.50
기타	6.91	6.31	3.24	2.44	2.23	2.25
다른 친척	6.24	**4.79**	4.00	3.38	3.12	3.15
직장상사	**5.68**	5.86	**4.86**	4.00	3.32	3.14
부모	6.19	5.38	4.52	**4.38**	**3.90**	**3.57**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아랫줄로 표시된 볼드체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저점이고, 윗줄로 표시된 볼드체 수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최고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 〈표 3-1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그리고 수면시간을 통제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노인의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없을 때, 즉, 혼자였을 때 노인의 행복감과 삶의 의미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피곤함, 스트레스, 슬픔, 고통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노인이 고립되는 상황이 노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한 강건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앞선 기술통계분석과 일치하게 직장 동료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피곤, 스트레스, 슬픔, 고통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과 연관되는 고객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피곤,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직장상사와 있을 때 행복한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관적이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삶의 의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다른 친척과 함께 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우자 혹은 연인이 아닌 가족 및 친척과 보내는 시간은 노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와 관련이 되는데, 그 영향력은 자녀일 때 긍정적이다. 노인에게 자녀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노인의 행복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피곤, 스트레스, 슬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인다.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했을 때 배우자 혹은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슬픈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피곤함과 슬픔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기 노년기 노인이 일상을 보내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행복감의 관계를 DRM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강승민, 장재윤(2018)이 혼자 있을 때와 배우자와 있을 때 행복감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인과 있을 때는 가족과 있을 때와 같이 혼자 있을 때보다 행복감을 느낀다는 발견과는 상이한데, 강승민, 장재윤(2018)이 지인을 친구, 동료, 이웃을 포괄한 광의의 개념을 활용한 반면, 이는 이 연구에서 일상을 보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구별하면서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본인의 지위와 역할이 가지는 의미를 통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도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이 자신의 부모를 돌보거나 자신의 노년기 경험을 상기시키는 동년배일 배우자 혹은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가지는 이중적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표 3-12〉 정서적 경험에 대한 함께 있는 누군가의 영향

구분	(1) 행복한	(2) 의미 있는	(3) 피곤한	(4) 스트레스 받은	(5) 슬픈	(6) 고통스러운
없음	-0.643***	-0.488*	0.442*	0.564*	0.727***	0.510*
	(0.156)	(0.199)	(0.223)	(0.241)	(0.213)	(0.232)
배우자/연인	-0.262+	-0.307	0.314	0.414+	0.636**	0.418+
	(0.153)	(0.197)	(0.220)	(0.242)	(0.212)	(0.233)
친구	-0.146	-0.318	0.555*	0.541+	0.743**	0.464+
	(0.176)	(0.226)	(0.252)	(0.282)	(0.249)	(0.265)
직장 동료	-0.731***	-0.232	0.855**	0.971***	0.644*	0.636*
	(0.188)	(0.220)	(0.280)	(0.294)	(0.258)	(0.276)
자녀	0.140	0.424*	0.131	0.150	0.061	0.002
	(0.166)	(0.197)	(0.221)	(0.246)	(0.232)	(0.236)
고객, 학생	-0.626**	0.225	1.153***	1.508***	0.617+	0.595
	(0.199)	(0.285)	(0.331)	(0.356)	(0.343)	(0.362)
다른 친척	-0.248	-1.080*	0.056	0.312	0.426	0.510
	(0.427)	(0.438)	(0.385)	(0.362)	(0.428)	(0.390)
직장상사	-0.806**	0.288	1.028+	0.923+	0.498	0.236
	(0.302)	(0.375)	(0.529)	(0.555)	(0.450)	(0.439)
부모	-0.882**	-0.624	1.346*	1.669**	1.589**	1.071+
	(0.341)	(0.451)	(0.524)	(0.579)	(0.536)	(0.621)
통제변수	O	O	O	O	O	O
상수	4.004	7.365	19.189*	22.312**	16.213*	21.575**
	(5.258)	(6.714)	(8.133)	(8.134)	(7.589)	(7.630)
N	4404	4404	4404	4404	4404	4404
adj. R-sq	0.094	0.068	0.062	0.068	0.070	0.067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응답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성별, 만나이, 만나이제곱,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주거 점유형태, 로그 균등화가구소득,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수면시간을 통제함.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임. +p〈0.1, *p〈0.05, **p〈0.01,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제4절 소결

노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주요한 단계이다. 신체적 노화를 체감하는 때이며,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하여 소득도 감소한다.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 관계의 양상도 변화한다.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 양식도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등(김성아, 정해식, 2019)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노인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인의 일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상재구성법(DRM)은 일상의 패턴을 탐색하여 행복 등 정서적 경험과의 통계적 관련성을 발견하는 서베

이 측정방법이다(Kahneman. et al. 2004). 국내에서는 서울 망원동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주목한 홍영의(2019)의 연구 이외에 주로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한경혜, 장미나, 2011).

3장에서는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행복의 실태와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1960년 5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DRM을 활용한 어제 하루 중 무작위 시간대(오전, 오후, 저녁)의 일상 중의 활동과 함께 한 사람, 그리고 정서적 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노인은 언제 행복한가?'였다. 시간대별로 행복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의미 있다는 감정은 밤에 가까울수록 약화된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받는다는 감정은 행복한 감정과 유사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된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 또한 밤에 가까울수록 강화되지만 그 변화의 기울기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다소 완만하다.

두 번째 질문은 "노인은 어떻게 행복한가?"였고, 노인이 하루를 보내는 활동을 확인하였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활동은 'TV 시청 혹은 음악청취'이고, 두 번째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활동은 '음식물을 먹고 있음', '개인적인 휴식', '집안일 혹은 식사준비' 등이 활동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률이 높은 활동은 대부분 노인이 집에서 홀로 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연인,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은 행복한 감정과 삶의 의미를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받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감정을 유의하게 낮추었다. 친구 및 동료와 어울리는 시간과 운동은 긍정적 감정들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집안일은 행복한 감정을 유의하게 낮추었다. 일은 부정적 감정을 일관되게 높였는데,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 즉 행복한 감정은 유의하게 낮추는데 삶의 의미는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세 번째 질문은 "노인은 혼자서도 행복한가?"였다. 혼자 했던 활동이 49.6% 등장하였고, 누군가와 했던 활동의 응답률은 50.4%로 혼자 했던 활동과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혼자였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받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정서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긍정적 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은 “노인은 누구와 행복한가?”였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없을 때, 즉, 혼자였을 때 노인의 행복감과 삶의 의미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피곤함, 스트레스, 슬픔, 고통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삶의 의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다른 친척과 함께 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과 연관되는 고객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피곤,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직장상사와 있을 때 행복한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관적이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노인의 행복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피곤, 스트레스, 슬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인다.

DRM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한 노인의 일상생활과 행복의 실태와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노인은 고립되는 상황에 취약하다. 혼자 있을 때 행복감이 낮아지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혼자 있는 경험은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기보다 긍정적 정서를 해친다. 그런데 TV 시청, 개인적인 휴식 등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의 빈도가 높고 혼자 하는 활동이 전체 활동의 절반 정도이다. 조사가 수행된 시점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되어 노인이 집에 머무르는 활동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노인의 행복하지 않은 삶에 대해 노인이 경험하는 고립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활성화하여 노인이 소속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노인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많고, 누군가와 있었다면 그 대상은 주로 배우자 혹은 연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노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자가 다양하지 않다. 배우자 혹은 연인이 아닌 가족 및 친척과 보내는 시간은 노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와 관련이 되는데, 그 영향력은 자녀일 때 긍정적이다. 노인에게 자녀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친구나 동료와 어울리는 활동을 통해 노인의 긍정적 정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노인이 소속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타인들과 함께 노인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모를 돌보는 노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활동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자녀 및 부모를 돌보는 활동이 노인의 피곤함 등 부정적 정서를 강화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 삶의 의미가 강화되었지만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 행복한 감정이 약화되고 부정적 정서가 강화되었다. 발생률이 높지는 않지만 본인 또한 신체적 노화와 허약을 경험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노(老)-노(老) 돌봄'의 경우 노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비용이 상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는 아니지만 2019년에는 80대 남편이 치매 아내를 10년간 간병한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근아, 2019).

노인이 일상을 보내는 활동의 종류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운동을 하는 경우 노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삶의 의미가 유의하게 강화되었다. 김주현(2007b)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거나 학습하거나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혜자와 전동일(2011)의 연구에서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만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습단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자기 계발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노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경도의 경제활동은 가구의 소득원 뿐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은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고 행복한 감정을 낮추었지만 삶을 의미 있게 느끼게 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OECD, 2020),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확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 연령이 만 60세인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3), 2020년 기준 만 60세인 1960년생의 국민연금의 개시 연령은 만 62세이다(보건복지부, 2020). 그리고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73세까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통계청 보도자료, 2020.7.28., p. 15). 노년기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기보다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이다(Erikson, 1993). 신체적 노화 또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경제활동보다는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경도의 경제활동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기존 연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개발된 DRM 측정방식을 우리나라 노인에게 적용한 것이다. 노년기가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

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조정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활동의 종류나 함께 있는 사람 등 노인의 특수한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추후 경제활동 연령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한다면 한국인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4장

한국 사회의 행복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행복
제3절 한국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
제4절 소결

제 4 장 한국 사회의 행복

제1절 문제 제기

전 세계 각국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물은 결과를 이용하는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점수는 2020년 5.872로 61위를 보였다(Helliwell et al., 2020). 2019년 보고서(Helliwell et al., 2019)의 행복점수 5.895점, 54위에서 점수와 순위가 하락한 것이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각국의 행복 요인별 영향력을 확인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도의 원인으로 우리의 높은 부패인식, 삶의 선택에서의 낮은 자유를 지적하고 있다(Helliwell et al., 202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4장에서는 먼저 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데이터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행복도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대별 행복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 데이터는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 자료의 원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세계가치관조사/유럽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6)]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할 조건의 충분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차이,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더 갖춰지기를 바라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는 행복할 조건이 생애주기별로 다를 것이라는 2장의 문제제기에서 더 나아간다. 정해식 외(2019, p. 147)은 질적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점수의 구성을 어떤한 것의 '채워짐' 또는 어떠한 것의 '모자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행복 인식 수준과 행복할 조건의 관계를 살펴본다.

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의 2021년 연구에서 갤럽월드폴 데이터를 구매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제2절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행복

1.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행복

다음 [그림 4-1]은 Helliwell et al. (2020)의 세계행복보고서 2장 온라인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각국의 행복점수와 요인별 설명력에 대한 자료이다. 행복점수는 2017년부터 2019년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다. 핀란드는 7.809점으로 행복점수 1위를 보이고 있고, 덴마크는 7.646점으로 2위, 노르웨이는 7.488점으로 5위를 보인다 (Helliwell et al., 2020). 이 연구의 7장에서 살펴볼 코스타리카는 7.121점으로 15위, 멕시코는 6.465점으로 24위를 보이며, 대만은 6.455점으로 25위, 우리나라는 5.872점으로 61위, 일본은 5.871점으로 62위, 홍콩은 5.510점으로 78위를 보인다 (Helliwell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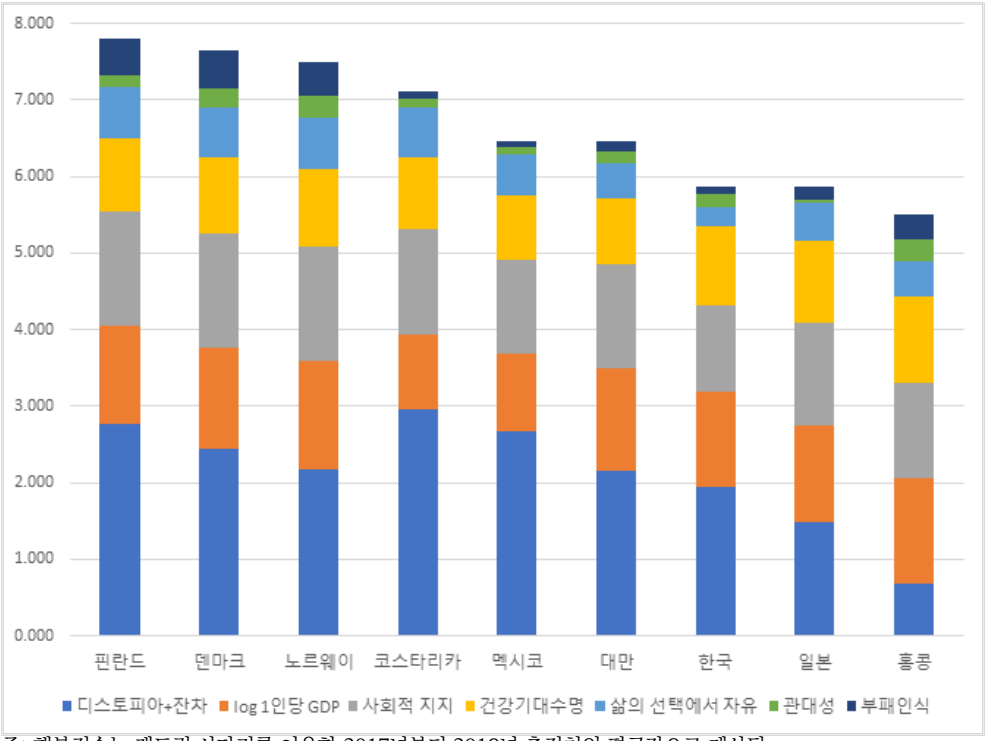
세계행복보고서는 각국의 행복점수를 설명하는 6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Helliwell et al., 2020, p,18).[7] 첫째로 구매력으로 환산한 1인당 GDP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각국의 경제적 수준을 보여준다. 둘째로 건강기대수명이다. 각국의 경제적 수준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의 수준을 보여준다. 제한된 자료로 인해 2015년 이후 값에서는 계산된 추정치를 이용하는데, 2019년 우리나라의 값은 73.9세로 가정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의 이분변수값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값은 78.3%이다. 넷째,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 정도이다.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는 "인생을 살면서 하는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자유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값을 이용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값은 70.6%이다. 다섯째, 관대성이다. 관대성은 "지난 달에 자선 목적으로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의 비율을 1인당 GDP를 이용한 회귀추정치의 잔차 값을 이용한다. 한 국가의 1인당 GDP 수준에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부 경험률과 실제의 기부 경험률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2019년 우리나라는 -5.5%를 보여서, 1인당 GDP 수준에서 예상되는 기

7) 이하에서 확인하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값은 Helliwell et al. (2020)의 세계행복보고서 2장 온라인데이터(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0/#read의 그림 2.1의 원자료) 값을 해석한 것이다.

부경험률보다 실제의 기부경험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부패인식이다. “부패가 정부 전체에서 만연되어 있는가, 아닌가?”, “부패가 기업 영역에서 만연되어 있는가, 아닌가?”라는 두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며, 2019년 우리나라의 값은 71.2%이다.

〔그림 4-1〕 주요국의 행복점수와 요인별 설명력

(단위: 점)



주: 행복점수는 캔트릴 사다리를 이용한 2017년부터 2019년 측정치의 평균값으로 계산됨.
자료: Helliwell et al.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2장 온라인데이터(그림 2-1)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각 요인의 설명점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로그 1인당 GDP가 1.245점, 사회적 지지가 1.134점, 건강기대수명이 1.023점,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가 0.259점, 관대성이 0.170점, 부패인식이 0.095점을 설명하고, 디스토피아와 잔차가 1.947점이다. 여기서 디스토피아는 모든 설명요인이 0에 해당하는 국가의 행복점수를 의미하는데,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이 점수는 1.972점이다.[8] 전 세계 국가의 평균값으로 보면 로그 1인당 GDP는 0.869점, 사회적 지지는 1.156점, 건강기대수명이 0.693점, 삶에서

의 자유로운 선택이 0.464점, 관대성이 0.189점, 부패인식이 0.131점을 설명한다. [그림 4-1]에서 보면 핀란드, 덴마크, 코스타리카, 멕시코는 잔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6개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각국의 행복점수 영역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표 4-1〉은 각 국가의 행복점수를 설명하는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한 회귀설명모델 결과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과 OECD 국가로 한정한 분석모형을 구분하였다. 먼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설명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OECD 국가로 한정하면 로그 1인당 GDP는 각국의 행복점수의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OECD 국가로 한정하면 관대성, 부패인식의 설명계수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국가간 행복점수에 대한 회귀설명모델

	전 세계 국가 행복점수(Cantril Ladder)	OECD 국가 한정 행복점수(Cantril Ladder)
로그 1인당 GDP	0.310*** (0.025)	0.029 (0.080)
사회적 지지	2.362*** (0.171)	1.506** (0.534)
건강기대수명	0.036*** (0.004)	0.034*** (0.010)
삶의 선택에서 자유	1.199*** (0.130)	1.310*** (0.247)
관대성	0.661*** (0.097)	1.298*** (0.159)
부패인식	-0.646*** (0.093)	-1.012*** (0.136)
상수	-2.001*** (0.180)	2.095* (0.829)
관측수	1627	448
국가사례수	156	37
adj. R-sq	0.749	0.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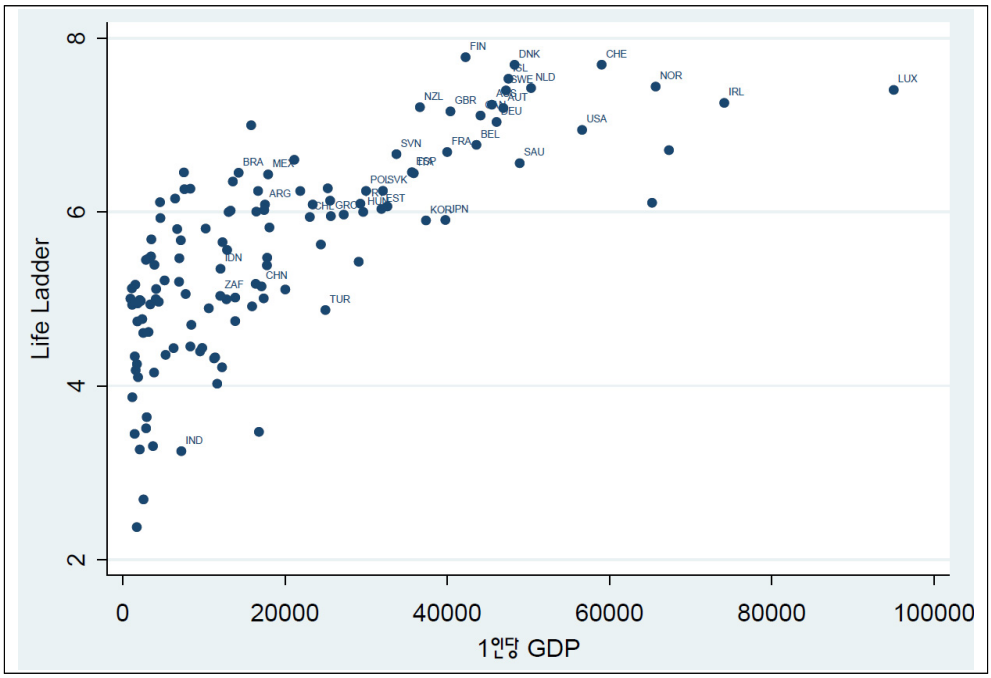
주 1) 유의수준은 * p〈0.05, ** p〈0.01, *** p〈0.001으로 표시함.
2) OECD 국가는 37개국으로 하였음.
자료: Helliwell et al.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2장 온라인데이터(표 2-1)를 분석하여 작성함.

8) 브룬디가 로그 1인당 GDP,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사회적 지지와 건강기대수명, 아프카니스탄이 삶의 선택에서 자유, 그리스가 관대성, 불가리아가 부패인식이 가장 나쁘다. 이들 국가에서 해당하는 행복설명요인의 영향력은 0이며, 모든 설명요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행복점수가 디스토피아 국가의 행복점수이다.

위의 분석모델을 이용해서 각국의 행복점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제력 수준을 보여주는 로그 1인당 GDP가 OECD 국가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그림 4-2]는 세계행복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GDP와 캔트릴 사다리값으로 측정한 행복점수의 관계를 작성한 결과이다. OECD 국가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여러 국가에서 1인당 GDP가 약 2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각국의 행복 점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략적으로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는 경제력 수준이 한 나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4-2] 각국의 1인당 GDP와 행복점수

(단위: 점, PPP로 전환한 US$)



자료: Helliwell et al.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2장 온라인데이터(표 2-1)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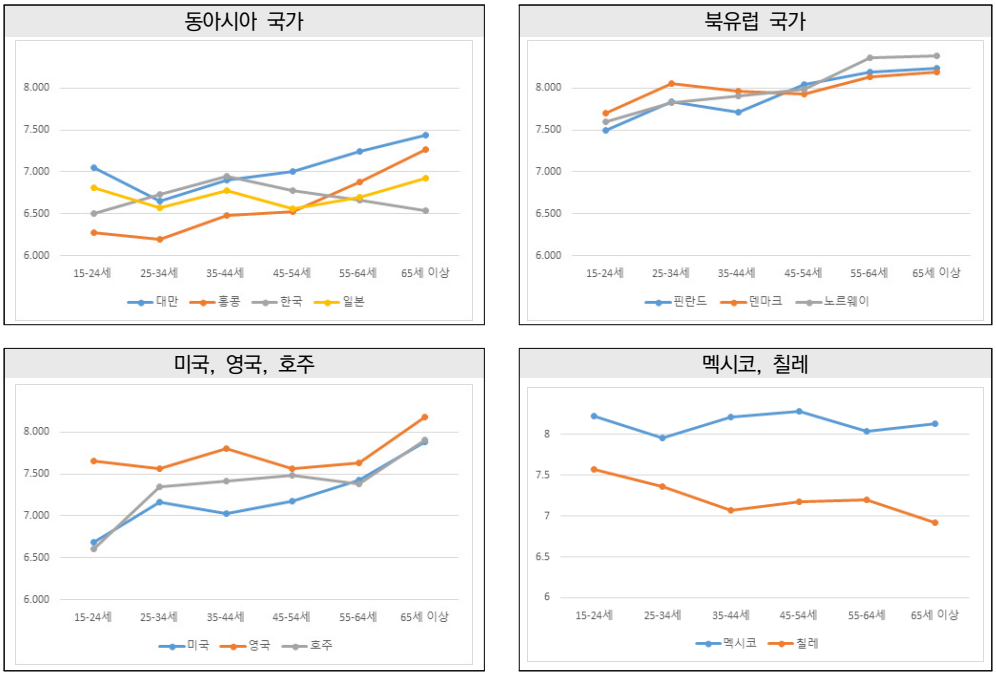
2. 유럽가치관조사/세계가치관 조사를 이용한 연령대별 행복의 특징

김성아, 정해식(2019)은 경제력에 비해 낮은 삶의 질과 행복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

나라 행복도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일반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40~50대까지 점차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U자형 커브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 4-3]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2010년대 후반)

(단위: 점)



주: 주요국에 한정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EVS/WVS (2020). European Values Study and World Values Survey: Joint EVS/WVS 2017-2021 Dataset (Joint EVS/WVS). JD Systems Institute & WVSA. Dataset Version 1.0.0, doi:10.14281/18241.2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함.

위 [그림 4-3]은 유럽가치관조사/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이다. 우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고, 국가간 특성 비교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자료가 없어서 칠레를 임의로 포함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우리나라 외에 칠레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간략히 살펴본 여러나라에서 삶의 만족도는 고령자 집

단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낮은 삶의 만족도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한국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

1. 행복할 조건에 대한 인식

가. 행복할 조건의 충분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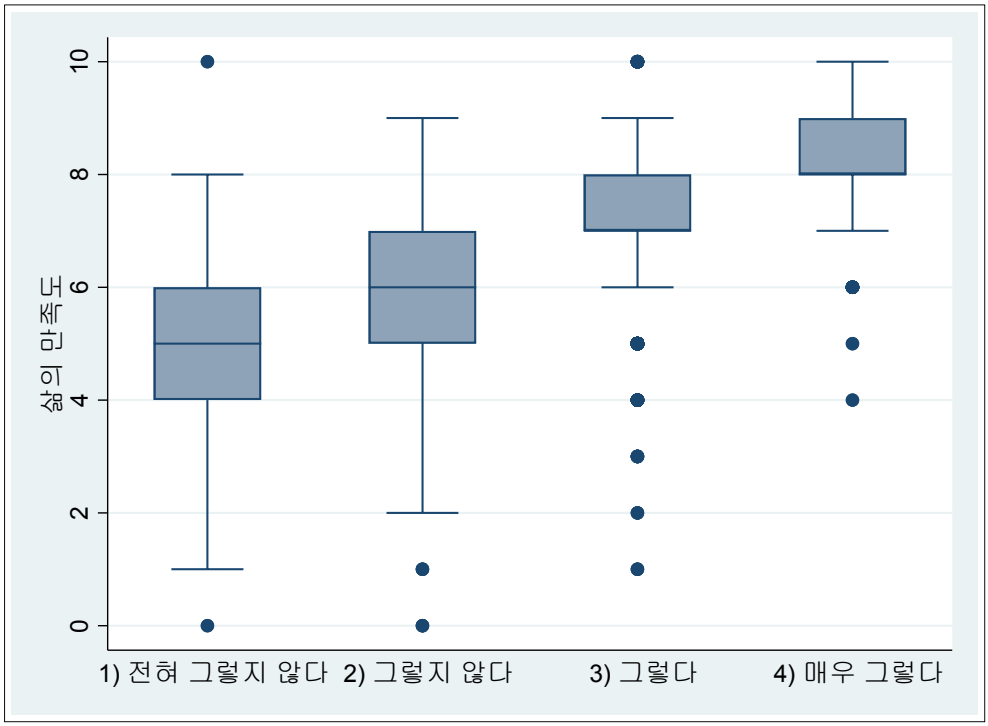
OECD(2013)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하위 요소를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정서(affect), 에우다이모이아적 안녕(Eudaimonic well-be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을 결정짓는 것은 소득,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고용상태, 성격 유형 외에도 문화적 특징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관적 안녕의 요소를 설명하는 행복 함수를 구성할 때는 이런 결정 요인을 투입한다.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설문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행복 결정 요인과 행복할 조건의 인식에서의 불일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이다.

다음 [그림 4-4]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평가별로 삶의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다. 행복할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4.82점으로 매우 낮고, 잘 갖췄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8.07점으로 나타난다. 뒤이어 〈표 4-2〉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다른 주관적 안녕의 측정 척도들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와 아닌지에 대한 차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어제의 행복감, 삶에 대한 평가, 에우다이모니아의 순으로 차이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행복 조건의 충분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값임. 삶의 만족도는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4-2〉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안녕

(단위: 점)

행복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평가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전혀 그렇지 않다	4.82	(1.69)	4.89	(1.53)	4.71	(1.54)	5.30	(1.57)
2) 그렇지 않다	6.30	(1.34)	6.28	(1.43)	6.19	(1.35)	6.25	(1.38)
3) 그렇다	7.20	(1.10)	7.04	(1.18)	7.06	(1.17)	6.90	(1.35)
4) 매우 그렇다	8.07	(1.05)	7.67	(1.24)	8.14	(1.12)	7.98	(1.15)
5) 전체 평균	6.84	(1.33)	6.73	(1.37)	6.72	(1.37)	6.65	(1.43)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 〈표 4-3〉은 행복할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의 응답값별로 집단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집단일수록 고연령이고, 미혼,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고, 대졸 이상 학력이 적고, 가구소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행복할 조건의 충분함에 대한 평가에서의 차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에서의 변화가 한 축을 구성하여 설명한다.

〈표 4-3〉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충분성에 대한 응답 집단별 특성

(단위: 세,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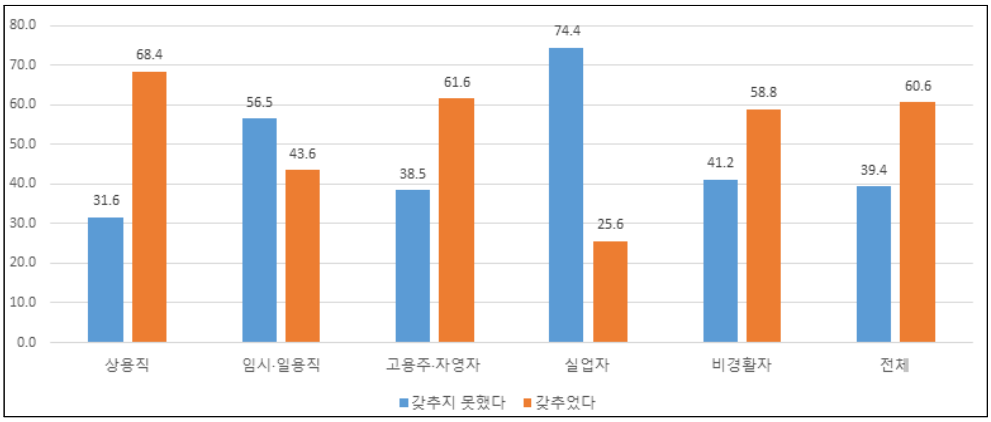
행복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	연령	성별 (남성=1)	결혼상태 (유배우=1)	교육 수준 (대졸 이상=1)	균등화 가구소득
1) 전혀 그렇지 않다	55.2	47.5	39.0	10.7	162.7
2) 그렇지 않다	47.4	51.9	60.6	40.1	242.0
3) 그렇다	46.0	50.0	70.8	52.7	277.7
4) 매우 그렇다	42.2	48.8	69.3	62.5	355.5
5) 전체 평균	46.6	50.6	66.2	47.4	264.2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임.
2) 성별은 남성의 비율(%), 결혼상태는 유배우자의 비율(%),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른 하나의 축은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관련된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삶의 질과도 관련되어 주관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낮은 주관적 안녕 상태를 보이며(Clark & Oswald, 1994),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행복 정도가 낮다(안주엽 외, 2015).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행복할 조건을 갖추었다는 응답이 68.4%에 이르지만,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43.6%로 낮아진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갖추지 못했다는 응답이 74.4%에 이르고 있어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따른 행복 조건의 충분성 인식이 크다.

[그림 4-5]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행복 조건의 충분성 인식

(단위: %)



주 1)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값임.

2)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갖추지 못했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갖추었다'로 재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나.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

이어서 한국 사회에서 각 개인은 어떠한 요소가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앞서 2장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이러한 요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는 행복할 정도의 충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요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한다.

먼저 〈표 4-4〉을 보면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는 이들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의 순으로 더 행복할 요인 1순위를 선택하였지만,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이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의 순서로 1순위를 선택하였다.

〈표 4-4〉 행복 조건의 충분성 판단 집단별 더 행복할 조건- 1순위, 2순위

(단위: %)

	1순위			2순위		
	갖추지 못했다	갖추었다	전체	갖추지 못했다	갖추었다	전체
1)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18.2	23.7	21.5	13.6	14.3	14.0
2)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7.0	17.4	17.2	13.6	15.3	14.6
3) 돈과 명성을 얻는 것	22.3	14.4	17.5	14.3	10.7	12.1
4)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2.3	2.6	2.5	2.6	5.5	4.3
5)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2.1	3.4	2.9	3.7	4.8	4.4
6)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3.9	4.3	4.1	6.0	7.2	6.7
7)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3.9	5.1	4.7	9.4	8.3	8.8
8) 건강하게 사는 것	24.4	22.7	23.4	18.9	17.1	17.8
9)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5.7	6.2	6.0	17.1	15.4	16.0
10)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0.2	0.4	0.3	1.0	1.6	1.4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갖추지 못했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갖추었다'로 재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지금까지의 분석을 생각해보면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경로에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네 집단의 더 행복할 조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집단은 아직 미혼인 1인 가구원으로서 연령은 25세에서 34세이다. 이 집단은 더 행복해질 조건으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28.5%이고, 그 뒤를 이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22.3%,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18.7%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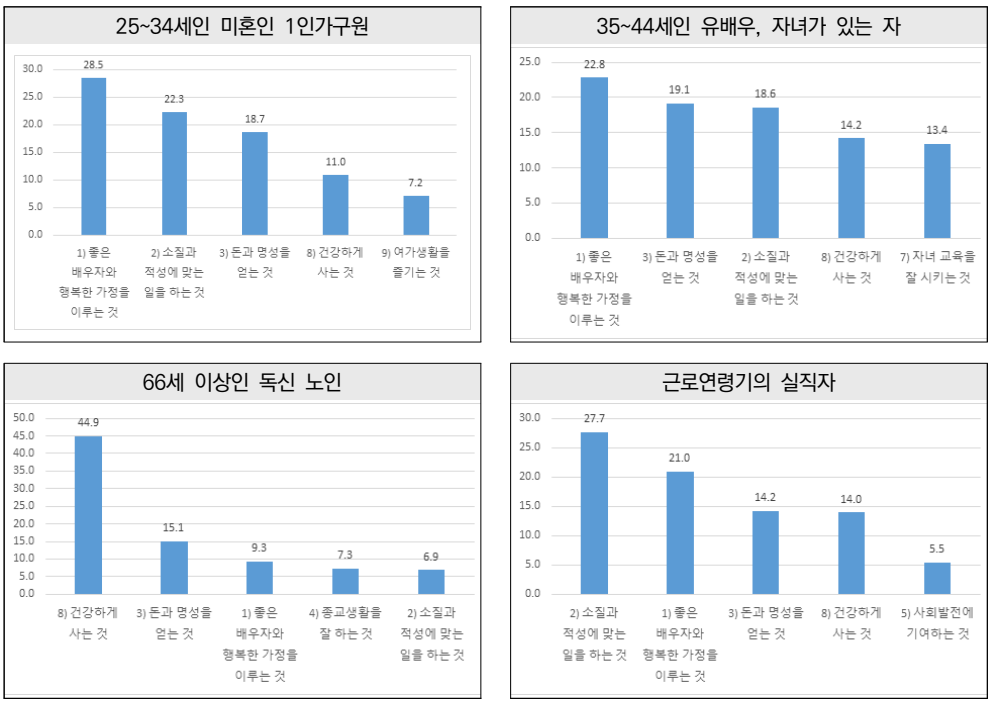
둘째 집단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고 만 18세 이하 아동이 1명 이상 있는 35세에서 44세인 집단이다. 이 집단은 더 행복해질 조건으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22.8%이고, 그 뒤를 이어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19.1%,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18.6%였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 '자녀교육을 잘 시키는 것'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도 각각 14.2%, 1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은 66세 이상의 독신 노인이다. 이 집단에서는 더 행복할 조건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44.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15.1%,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9.3%로 그 뒤를 이었다. 노인 연령대에서의 행복의 조건으로 건강을 가장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집단은 25세~59세의 실직자이다. 이 집단에서는 더 행복할 조건으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27.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21.0%였다.

[그림 4-6] 주요 특징 집단의 더 행복할 조건- 1순위

(단위: %)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1순위로 뽑은 행복할 조건 중 상위 5개에 대해서만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

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어떤 요소들의 더해짐과 관련된다면,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는 불안함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4-5〉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저해 요소 1순위, 2순위를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저해요소로 1순위로 가장 많이 뽑은 것은 적은 소득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일자리 문제, 불안한 노후 문제, 건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더 행복할 조건의 하나로 가족을 먼저 이야기하였지만, 덜 행복하게 하는 원인은 다른 내용으로 일자리, 소득, 노후의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행복 저해 요소에서도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4-5〉는 각각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람과 갖추었다는 사람을 구분하여 이들이 선택한 1순위, 2순위 행복 저해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람은 적은 소득을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가 33.4%로 더 높아지고, 그 뒤를 이어 일자리를 선택한 경우가 21.7%였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25.0%가 일자리를 문제로 지적하는데,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불만, 일의 어려움과 관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20.2%가 적은 소득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표 4-5〉 행복할 조건의 충족 여부별 행복 저해 요소- 1순위, 2순위

(단위: %)

	1순위			2순위		
	갖추지 못했다	갖추었다	전체	갖추지 못했다	갖추었다	전체
1) 일자리	21.7	25.0	23.7	18.8	18.7	18.7
2) 적은 소득	33.4	20.2	25.4	23.1	18.8	20.5
3) 자녀 육아	2.4	3.3	3.0	1.8	3.6	2.9
4) 자녀 교육	4.4	6.7	5.8	5.3	5.9	5.7
5) 가족 간의 불화	5.6	6.9	6.4	8.1	10.5	9.5
6) 불안한 노후	17.3	18.3	17.9	26.9	20.3	22.9
7) 건강	15.2	19.0	17.5	15.7	21.3	19.1
8) 기타	0.0	0.7	0.4	0.3	0.9	0.7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갖추지 못했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갖추었다'로 재분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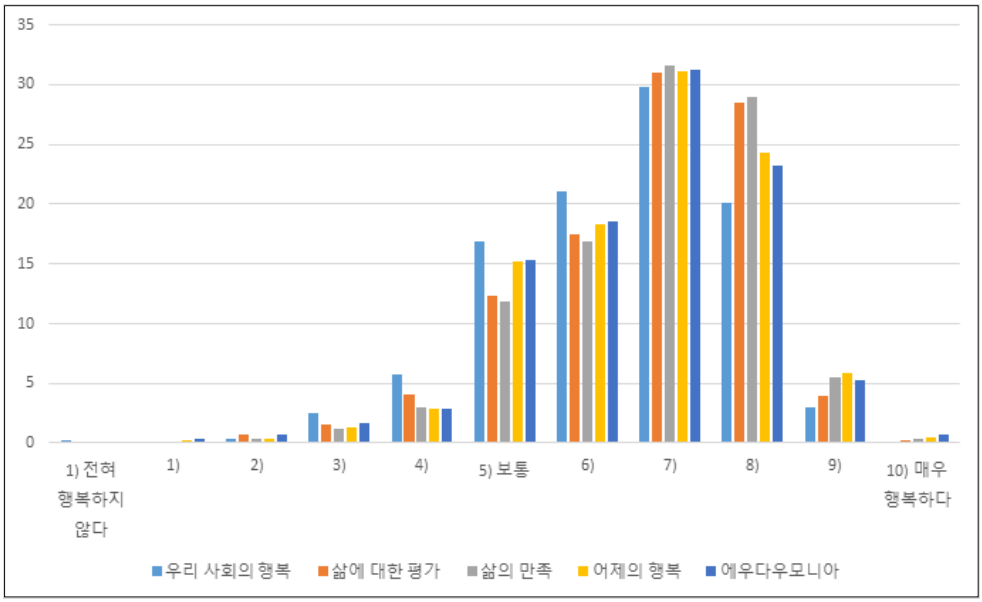
2. 한국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

가.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의 행복도를 개인의 행복 점수보다 더 낮게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해서는 친숙하지 않은 평가이므로 [그림 4-7]에서와 같이 평균 근처에 더 집중하는 응답 분포를 보였을 수 있다.

[그림 4-7]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행복 점수 분포

(단위: %)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은 6.39점이고, 삶에 대한 평가(캔트릴 사다리)는 6.73점, 삶의 만족도는 6.84점, 어제의 행복은 6.72점, 에우다이모니아는 6.65점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 점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주관적 안녕의 척도는 삶의 만족이었다.

〈표 4-6〉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행복 점수

(단위: 점)

	우리 사회의 행복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어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평균점수	6.39	6.73	6.84	6.72	6.65
상관계수					
삶에 대한 평가	0.458	1.000			
삶의 만족	0.506	0.632	1.000		
어제의 행복	0.491	0.591	0.742	1.000	
에우다이모니아	0.302	0.383	0.483	0.472	1.00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와 본인의 행복 점수 간의 차이를 크게 보이는 집단의 특징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점수가 약간 더 낮으므로,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 간 점수 차이를 2점 이상으로 응답한 집단만 구분해서 살펴본다. 본인이 더 행복한 사람들은 조금 더 젊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소득도 더 높은 집단에 해당한다.

〈표 4-7〉 응답값 차이별 집단 특징

(단위: 세,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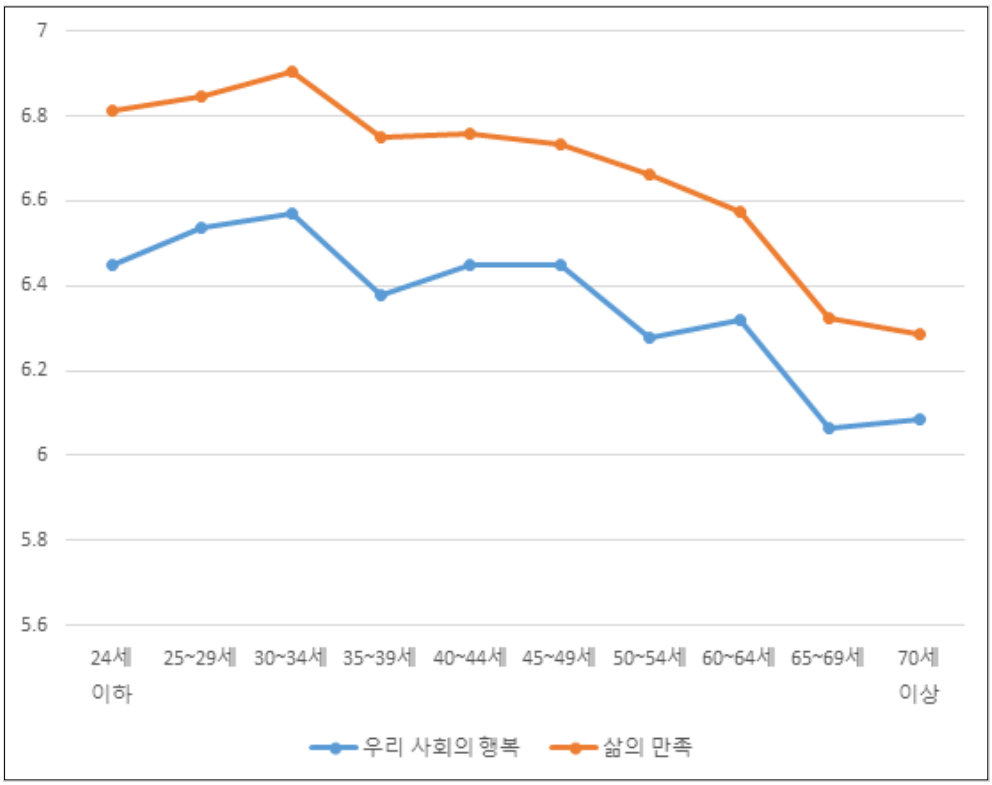
응답값의 차이	연령	성별 (남성=1)	결혼상태 (유배우=1)	교육 수준 (대졸 이상=1)	균등화 가구소득
유사한 평가(1점~1점)	46.7	50.4	66.5	47.0	260.6
본인이 더 행복	45.8	51.4	68.3	51.8	291.1
사회가 더 행복	47.4	51.4	58.5	40.6	239.0
전체 평균	46.6	50.6	66.2	47.4	264.2

주 1)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임.
2) 성별은 남성의 비율(%), 결혼상태는 유배우자의 비율(%),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젊은 연령대에서는 본인의 삶의 만족을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평가보다 더 높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고연령으로 가면서 그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연령대에서는 본인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크게 낮아지면서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8] 연령대별 우리 사회의 행복과 삶의 만족 평균 점수

(단위: 점)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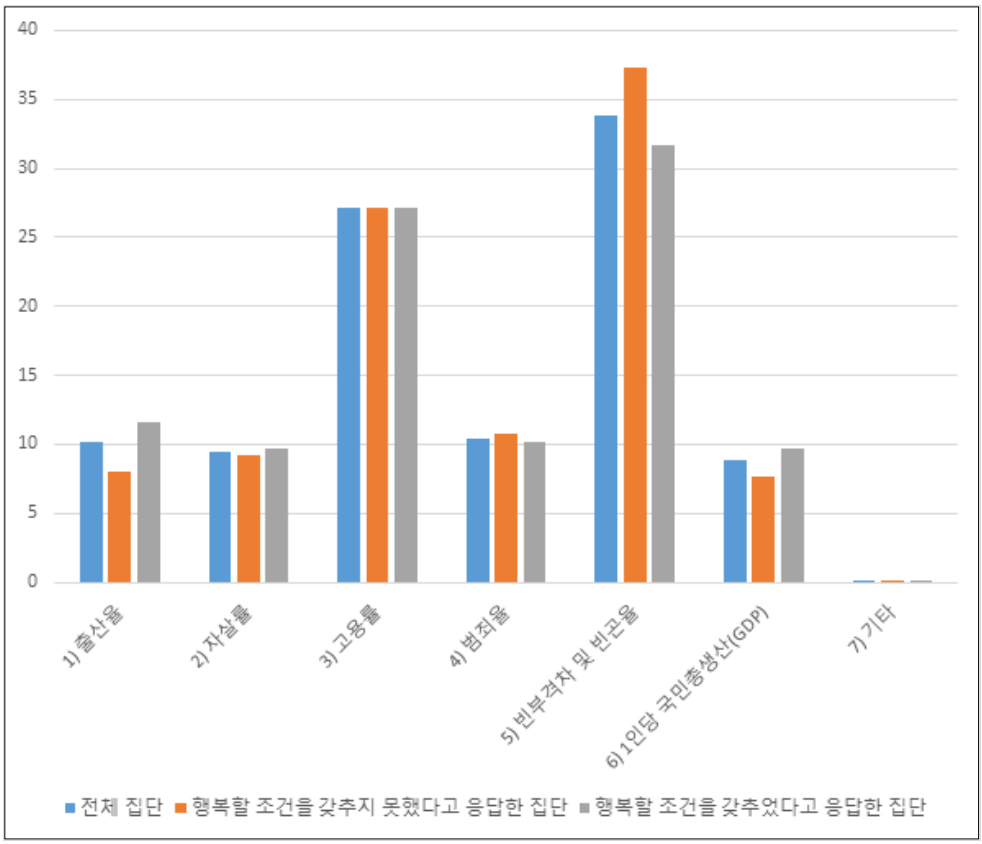
나. 우리 사회의 행복 영향 요인

우리 사회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빈부격차 및 빈곤율을 지적한 사람들은 33.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고용률 문제를 27.1%, 범죄율 10.4%, 출산율 10.2%로 우리 사회의 행복 저해요소를 지적하였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응답의 분포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인당 국민 총생산과 같은 경제성장 요소를 조금 더 강조하고,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빈부격차 및 빈곤율과 같은 분배 상태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였다.

[그림 4-9] 우리 사회의 행복 저해 요소 응답 분포-행복할 조건의 충족 여부 집단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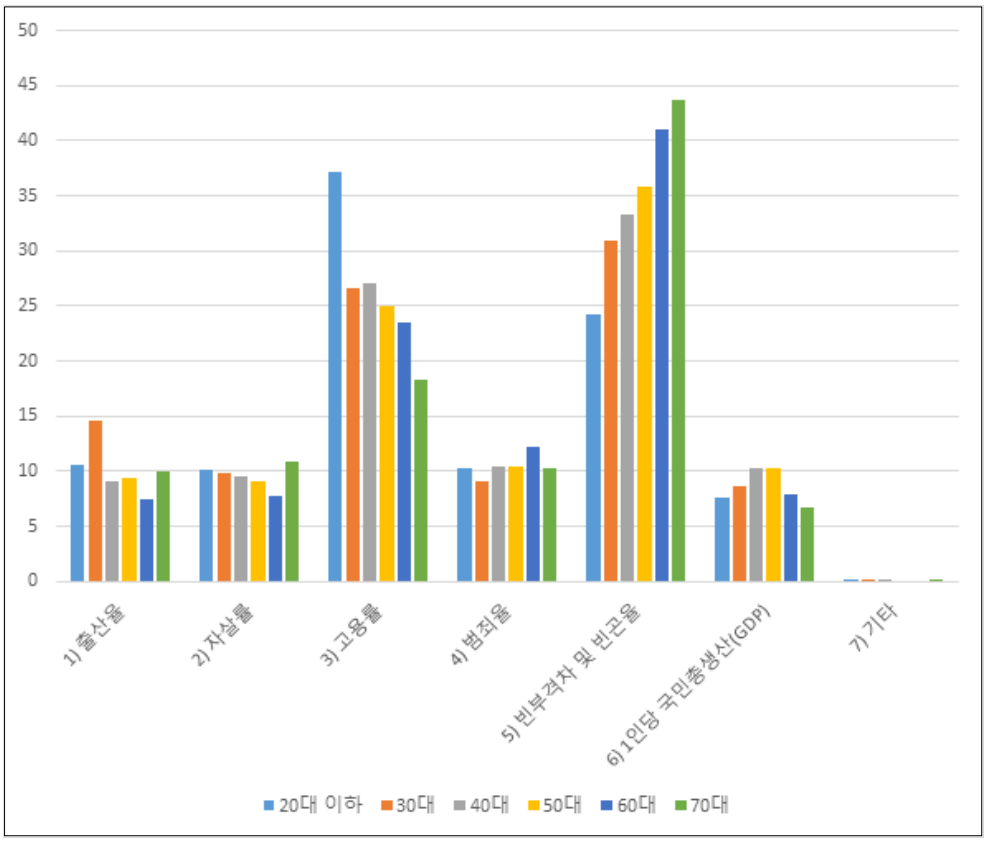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연령집단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4-10]은 우리 사회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대 이하 집단에서는 고용률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으면서 점차 고연령 집단으로 갈수록 고용률에 대한 강조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빈부격차 및 빈곤율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젊은 연령대에서는 적지만 고연령대 집단에서는 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0] 우리 사회의 행복 저해 요소 응답 분포-연령 집단별

(단위: %)



주 :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제4절 소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후발 국가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도를 보이는 이유를 찾아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국제비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행복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세계행복보고서」 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도의 원인은 삶에

서의 선택의 자유가 낮고, 관대성이 낮으며, 부패인식이 높은 이유로 설명된다. 이것은 국가 수준의 행복을 설명하는 것으로, 비교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제약 요소를 줄이고,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는 삶, 서로에게 공정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 간 행복점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소득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 한정할 때, 각국의 행복 수준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의성을 잃는다. 그리고 앞서 확인된 관대성과 부패인식이 국가 간 행복수준의 차이를 더 많이 설명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느냐, 못하느냐의 길목에 서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럽가치관조사/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연령대별 행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3년으로 계획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고 살펴볼 예정인 국가들의 연령대별 행복 패턴을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의 삶의 만족가 낮다는 명확한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노인의 낮은 삶의 만족도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3장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행복 수준을 파악할 때 '행복할 조건의 충분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때 더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집단은 고연령이고, 미혼,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고, 대졸 이상 학력은 적고, 가구소득이 낮다. 이렇게 행복할 조건의 충분함에 대한 평가 차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에서의 변화가 한 축을 차지한다. 다른 하나의 축은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관련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업자의 경우에는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훨씬 높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 대상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 것이 한국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각각의 생애주기별로 설정하는 과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다. 이러한 각 생애주기별 과업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적은 소득과 일자리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건강하게 살

고,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의 행복을 이해함에 있어 '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과 '덜 행복해지지 않기 위한 조건'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는 덜 행복한 사람을 줄여나가는 지원 정책 외에도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제5장

행복 측정에서 풍요지수(FI)의 탐색적 적용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영역별 · 요인별 풍요지수(FI)의 수준
제4절 풍요지수(FI)의 결정 요인
제5절 소결

제 5 장 행복 측정에서 풍요지수(FI)의 탐색적 적용

제1절 문제 제기

행복이란 무엇인가는 철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어 온 질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행복의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을 결정하는 객관적 환경에 주목하는 연구에서 행복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풍요로움(flourishing) 등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행복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중시하는 연구에서 행복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등의 용어와 동치되기도 한다(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등, 2014, p. 152). 주관적 안녕을 행복이라고 정의할 때조차 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예컨대 OECD(2013, p. 10)는 주관적 안녕에 대한 세 가지 차원, 즉 삶에 대한 성찰적 평가(life evaluation), 정서적 상태(affection),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eudaimonia)을 제시하였으며, 리프(Ryff, 1989)는 주관적 안녕을 쾌락적 안녕(hedonic well-being)과 에우다이모니아적 안녕(eudaimonia well-be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복의 측정은 단일 차원보다는 다차원적 지표를 통해 계측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관련해서 '풍요로움'(flourishing)은 행복을 묘사하는 또 다른 용어로 최근 부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고대 그리스 어원을 가진 에우다우모니아(eudaimonia)는 일반적으로 행복(happiness), 혹은 복리(welfare)로 해석되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인간적 풍요와 번영'(human flourishing, prosperity) 혹은 '축복'(blessedness)이라고 한다(Wikipedia, 2020). 이런 의미에서 풍요로움은 인간의 에우다이모니아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풍요로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디너(Diener)와 동료들이 개발한 풍요척도(Flourishing Scale), 다차원적 관점에서 하버드 대학 인간풍요프로그램 연구소(Harvard Institute for Human Flourishing Program)의 웨잭-비알로보스카(Weziak-Bialowolska)와 동료들이 개발한 풍요지수(Flourishing Index, 이하 FI) 등이 있다(Diener et al., 2009;

Weziak-Bialowolska, McNeely, & VanderWeele, 2019). 전자는 사회적 관계, 목적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신의 활동에 몰입하고 흥미를 가지는 것, 자기존중과 낙관주의를 견지하는 것, 유능하고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특성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이외에 건강, 안정 등 좀 더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 5장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나타내는 지표(FI)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풍요지수(FI)는 하버드 대학 인간풍요프로그램(Human Flourishing Program) 연구소에서 개발한 12개 항목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다음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영역-행복과 삶의 만족도,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사회관계, 금전과 물질적 안정성-별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버드 대학 인간풍요프로그램연구소는 금전과 물질적 안정성을 제외한 10개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풍요지수(FI)로, 12개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안정풍요지수(SFI)로 규정하고 있다(Weziak-Bialowolska, McNeely, & VanderWeele, 2019).

이 연구에서는 행복의 측정 도구로서 풍요지수(FI)를 탐색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풍요지수(FI)를 구성하는 12개 항목과 6개 영역별 평균점수와 이를 합산한 풍요지수(FI)와 안정풍요지수(SFI)의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각 영역과 안정풍요지수(SFI)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별, 가구와 개인의 특성별, 사회경제적 지위(SES)별로 풍요지수(FI)와 안정풍요지수(SFI)를 계측하고 집단 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가구와 개인의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독립변수로 하고 풍요지수(FI)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들이 풍요지수(FI)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표 5-1〉 풍요지수(FI)의 영역 및 항목 구성

영역	항목	척도
영역1. 행복과 삶의 만족도	선생님께서는 요즘 선생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D-1)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매우 만족한다
	선생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D-2)	0=전혀 행복하지 않않다 10=매우 행복했다
영역2. 신체 및 정신 건강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6)	0=전혀 건강하지 않다 10=매우 건강하다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D-7)	0=전혀 건강하지 않다 10=매우 건강하다
영역3. 삶의 의미와 목적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4)	0=전혀 가치있지 않다 10=매우 가치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이해한다.(D-10)	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매우 동의한다
영역4. 성격과 덕성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모든 상황을 개선하려고 행동한다. (D-11)	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매우 동의한다
	나는 향후의 더 큰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다소 포기할 수 있다. (D-12)	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매우 동의한다
영역 5. 사회관계	나는 가족관계에 만족한다. (D-15 (4)) 나는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한다. (D-15 (5))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매우 만족한다
	나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바라는 만큼 만족스럽다. (D-13)	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매우 동의한다
영역 6.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월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 걱정하십니까? (D-9)	0=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0=항상 걱정한다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안전과 식생활, 주거에 관해 걱정하십니까? (D-8)	0=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0=항상 걱정한다

자료: The Human Flourisning Program at Harvard's Institute for Quantitative Social Science. Our Flourishing Measure. Retrieved from https://hfh.fas.harvard.edu/measuring-flourishing 2020. 7. 17을 근간으로 수정.

제3절 영역별 · 요인별 풍요지수(FI)의 수준

1. 풍요지수의 일반적 특성

아래 표는 풍요지수(FI) 및 안정풍요지수(SFI)의 영역별, 항목별 평균 점수와 안정풍요지수(SFI)와 각 항목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풍요지수(FI)의 신뢰도점수(Cronbach's alpha)는 0.877이었고, 안정풍요지수(SFI)의 신뢰도 점수(Cronbach's alpha)는 0.827로 내적 신뢰도(reliability)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볼 때

평균 점수는 신체 및 정신 건강(14.5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관계(13.9점), 삶의 의미와 목적(13.7점), 행복과 삶의 만족도(13.6점), 성격과 덕성(13.0점)의 순이었다. 안정(stability)을 나타내는 추가 영역인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의 평균 점수는 10.1점으로 6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12개 항목 중에서도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생활비 조달에 대한 걱정(5.2점)과 안전, 식생활, 주거에 관한 걱정(4.9점)이 최하위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풍요 속의 빈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로 포괄적 의미에서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안정'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7.3점), 신체적 건강(7.2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7.2점) 등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요지수(FI) 총점은 100점 만점에 68.6점으로 1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삶의 만족도 점수(6.8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안정풍요지수(SFI) 총점은 120점 만점에 78.6점, 10점으로 만점으로 환산할 때 6.6점으로 풍요지수(FI)에 비해 다소 낮았다.

각 항목별 점수와 안정풍요지수(SFI)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0.72), 행복도(0.70), 정신적 건강(0.69), 내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0.69)와 안정풍요지수(SFI)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미래 행복을 위한 현재 행복의 이연(0.32), 안전, 식생활, 주거에 관한 걱정(0.49), 생활비 조달에 대한 걱정(0.50)과 안정풍요지수(SFI) 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성격과 덕성을 구성하는 두 항목이 '풍요로운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직관적이지 않다.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쾌락적 관점(hedonic)에서 볼 때 이 항목을 풍요지수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자세가 삶의 좀 더 풍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풍요로움'(flourishing)의 의미가 에우다이모니아적 안녕 상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성격과 덕성은 풍요로운 삶의 중요한 한 차원이 될 수 있다. 하버드 연구소는 '풍요로움'은 안정지향적인 소극적 삶에서보다 도전적인 적극적 삶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 풍요지수(FI)의 영역별, 항목별 점수와 안정풍요지수(SFI)와의 상관관계(Correlation)

(단위: 점)

영역	평균점수	항목	평균 점수	SFI와의 상관관계
영역1. 행복과 삶의 만족도	13.6	삶의 만족도	6.8	0.72
		행복도	6.7	0.70
영역2. 신체 및 정신 건강	14.5	신체적 건강	7.2	0.65
		정신적 건강	7.3	0.69
영역3. 삶의 의미와 목적	13.7	내 일의 가치	6.7	0.63
		내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	7.0	0.69
영역4. 성격과 덕성	13.0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개선 노력	6.9	0.63
		미래 행복을 위한 현재 행복 이연	6.0	0.32
영역 5. 사회관계	13.9	가족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7.2	0.67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	6.7	0.68
풍요지수(FI) 총점			68.6	-
영역 6.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10.1	생활비 조달에 대한 걱정	5.2	0.50
		안전, 식생활, 주거에 관한 걱정	4.9	0.49
안정풍요지수(SFI) 총점			78.6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2. 지역별, 개인 특성별, 경제적 지위별 풍요지수

가. 지역별 풍요지수

먼저, 지역별로 풍요지수 점수에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풍요지수(FI)와 안정풍요지수(SFI)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하위 항목 중 행복과 삶의 만족도, 성격과 덕성,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복과 만족도, 성격과 덕성 점수는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0.2점으로 미미했다. 반면,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점수가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0.4점 더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경쟁적이고 바쁜 일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인 비수도권 거주자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지역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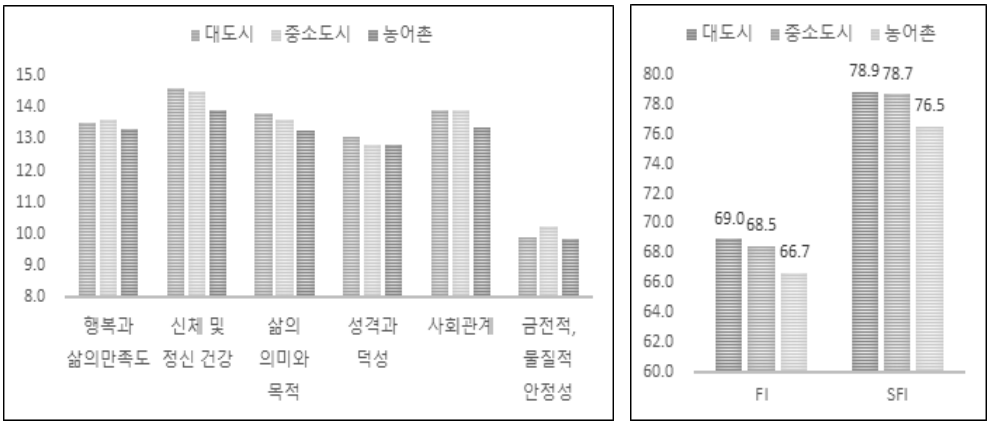
(단위: 점)

		행복과 삶의 만족도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사회 관계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FI	SFI
수도권 여부	수도권	13.5	14.6	13.7	13.0	13.8	9.9	68.6	78.5
	비수도권	13.7	14.5	13.6	12.8	13.9	10.3	68.5	78.8
	F	7.5	1.1	2.6	8.6	3.4	10.7	0.1	1.0
	Prob>F	0.006	0.294	0.104	0.003	0.065	0.001	0.804	0.312
지역별	대도시	13.5	14.6	13.8	13.1	13.9	9.9	69.0	78.9
	중소도시	13.6	14.5	13.6	12.8	13.9	10.2	68.5	78.7
	농어촌	13.3	13.9	13.2	12.8	13.4	9.9	66.7	76.5
	F	2.0	11.1	10.4	6.3	9.4	3.9	8.9	6.8
	Prob>F	0.139	0.000	0.000	0.002	0.000	0.020	0.000	0.001
	전체	13.6	14.5	13.7	12.9	13.9	10.1	68.6	78.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 지역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할 경우 지역 간 풍요로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풍요지수(SF)와 안정풍요지수(SFI) 모두 대도시에서 가장 높고 농어촌에서 가장 낮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지표 간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데 비해 농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영역에서 농어촌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신체 및 정

신 건강과 삶의 의미와 목적 영역에서 대도시와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차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지역 점수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섣부른 해석은 위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간 연령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 평균 연령은 대도시 52.8세, 중소도시 53.2세, 농어촌 55.9세로 대도시와 농어촌 간에는 평균 연령이 3세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대도시 9.5%, 중소도시 12.6%, 농어촌 17.3%로 농어촌에 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가 낮고, 삶에 대한 의미 부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령 등의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 간 차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나. 가구 및 개인 특성별 풍요지수

다음으로 〈표 5-4〉에서는 가구규모, 가구주 여부, 성, 연령대, 학력 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영역별 풍요 점수와 풍요지수(FI), 안정풍요지수(SFI) 점수를 산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 규모에 있어 두드러진 점은 대체로 가구규모가 클수록, 즉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풍요로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1인 단독가구의 풍요로움 점수는 2인 이상 가구의 점수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풍요지수(FI) 점수는 64.5점, 안정풍요지수(SFI) 점수는 74.2점인데 비해, 4인 이상 가구의 풍요지수(FI) 점수는 70.6점, 안정풍요지수(SFI)는 80.8점으로 각각 6.1점과 6.6점 차이가 난다.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구규모별 풍요로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인 단독가구는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과 삶의 만족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자신의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평가,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 삶의 추구 등의 영역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낮게 평가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점수라는 점에서 해석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단독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유독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적인 결과로 보인다. 전통적인 공동체가 점점 더 해체되고 있는 고도 (탈)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친밀한 관계 형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4〉 가구 및 개인 특성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단위: 점)

		행복과 삶의 만족도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사회 관계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FI	SFI
가구 규모	1인	12.6	13.7	12.9	12.4	12.9	9.7	64.5	74.2
	2인	13.5	14.2	13.5	12.7	13.7	10.1	67.6	77.7
	3인	13.8	14.9	13.9	13.1	14.1	10.1	69.8	79.9
	4인이상	13.9	15.0	14.0	13.3	14.4	10.2	70.6	80.8
	F	51.4	67.5	48.6	32.6	80.2	2.3	88.9	73.7
	Prob>F	0.000	0.000	0.000	0.000	0.000	0.075	0.000	0.000
가구 주여 부	가구주	13.8	14.8	13.8	13.1	14.1	10.4	69.6	80.0
	가구주외	13.4	14.3	13.6	12.8	13.7	9.8	67.8	77.6
	F	37.0	42.8	7.6	24.6	43.3	28.7	48.9	64.6
	Prob>F	0.000	0.000	0.006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	여성	13.7	14.4	13.6	12.9	13.9	10.2	68.5	78.7
	남성	13.5	14.6	13.7	13.0	13.9	10.0	68.6	78.6
	F	7.7	8.0	4.6	0.1	0.1	2.6	0.3	0.0
	Prob>F	0.005	0.005	0.031	0.796	0.815	0.106	0.588	0.889
연령대	20대	13.8	15.5	13.9	13.3	14.2	10.7	70.7	81.4
	30대	14.1	15.3	14.2	13.3	14.3	10.3	71.1	81.4
	40대	13.6	14.6	13.8	13.1	14.0	9.8	69.2	79.0
	50대	13.5	14.4	13.7	13.0	13.9	9.9	68.6	78.5
	60대	13.2	13.7	13.3	12.4	13.4	10.0	66.0	76.0
	70대	12.6	12.5	12.3	11.8	12.8	9.5	62.1	71.6
	F	25.8	132.1	48.0	35.0	38.1	8.1	83.9	74.8
	Prob>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교육 수준	중졸	12.2	12.2	12.1	11.7	12.4	9.0	60.6	69.6
	고졸	13.4	14.4	13.5	12.8	13.7	10.1	67.9	78.0
	대학이상	14.0	15.2	14.2	13.3	14.4	10.3	71.0	81.3
	F	131.5	350.9	215.6	106.9	204.9	23.7	332.9	306.3
	Prob>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혼인 상태	유배우	13.8	14.6	13.8	13.0	14.1	10.0	69.3	79.3
	사별,이혼	12.0	12.9	12.5	12.2	12.3	9.1	61.9	71.0
	미혼	13.5	15.2	13.8	13.2	14.0	10.8	69.6	80.4
	F	130.4	160.1	94.1	33.0	152.6	37.2	167.4	168.8
	Prob>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경활 상태	상용직	14.1	15.2	14.2	13.3	14.4	10.3	71.1	81.5
	임시일용직	12.5	13.6	12.7	12.5	12.7	9.1	64.0	73.1
	자영자	13.4	14.4	13.9	12.9	13.9	9.9	68.5	78.4
	실업자	10.8	13.0	11.7	11.7	11.6	8.4	58.8	67.3
	비경활자	13.6	14.2	13.3	12.8	13.8	10.4	67.7	78.1
	F	97.3	74.4	103.7	25.8	110.6	20.0	126.4	124.8
	Prob>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전체	13.6	14.5	13.7	12.9	13.9	10.1	68.6	78.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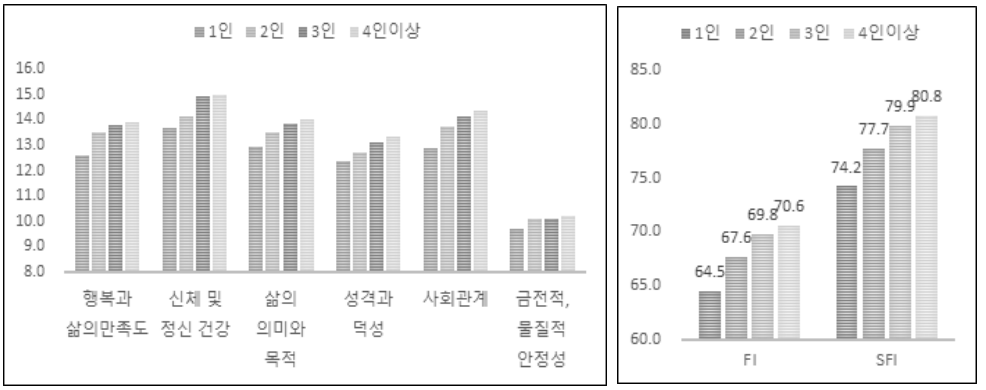
풍요로움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구주는 비가구주에 비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결과 풍요지수(FI) 점수와 안정풍요지수(SFI) 점수에서 가구주는 각각 69.6점과 80.0점을 기록한 데 비해 비가구주인 가구원은 각각 67.8점과 77.6점을 기록하였다. 가구주와 비가구주 간에는 약 2점 내외의 점수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볼 때, 여자는 남자보다 더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높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행복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김미곤 등, 2014). 하지만 전반적인 풍요로움의 수준에 있어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볼 때, 풍요로움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과 전반적인 풍요로움의 수준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풍요로움의 수준은 떨어졌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풍요로움 수준은 60대와도 큰 차이를 보이며 감소했다. 70대의 풍요지수(FI) 점수는 62.1점으로 30대의 71.1점에 비해 9점 낮았으며, 안정풍요지수(SFI) 점수는 71.6점으로 30대의 81.4점에 비해 9.8점 낮았다. 고연령층의 건강 영역 점수가 청장년층에 비해 높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사회관계, 금전적 · 물질적 안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풍요 점수가 청장년층에 비해 낮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전체적으로 볼 때 30대의 풍요로움 수준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금전적 · 물질적 안정성은 30대보다 더 높게 평가했지만,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삶의 의미와 목적, 사회관계 측면에서는 30대보다 낮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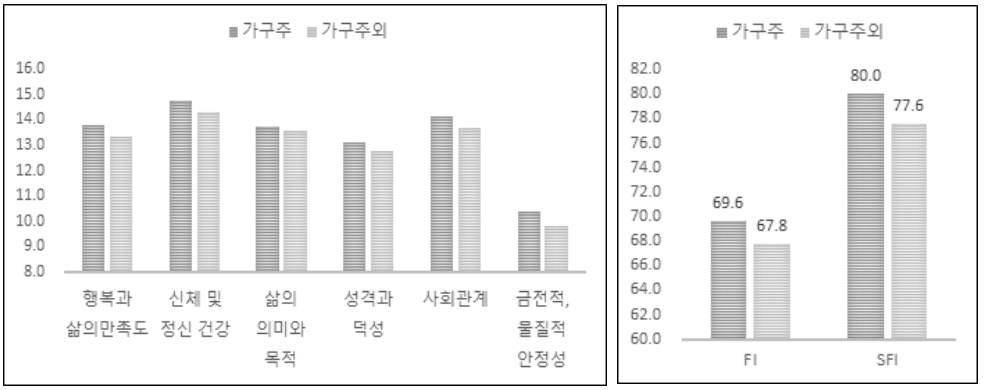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풍요로움의 영역과 풍요지수 점수에서 학력 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풍요로움의 수준도 높았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들 간의 풍요지수(FI) 점수 차이는 10.4점, 안정풍요지수(SFI) 점수 차이는 11.7점으로 그 차이가 상당히 컸다. 그러나 고령층에서 저학력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에서 고학력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가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 나타나는 가식적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5-2] 가구규모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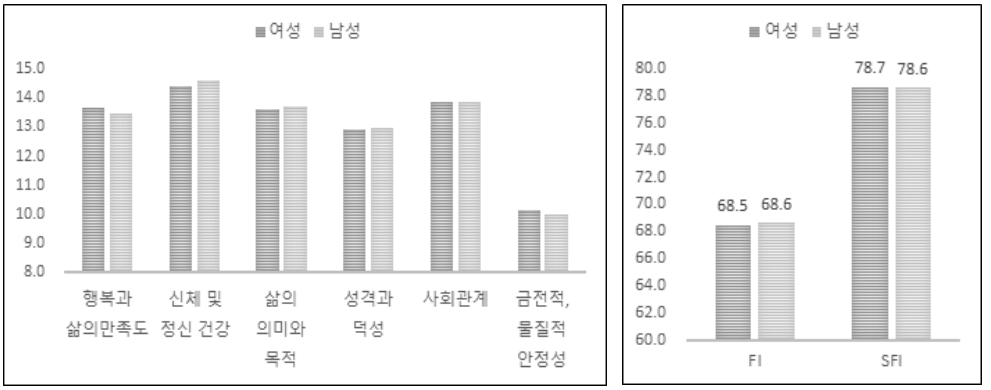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3] 가구주 여부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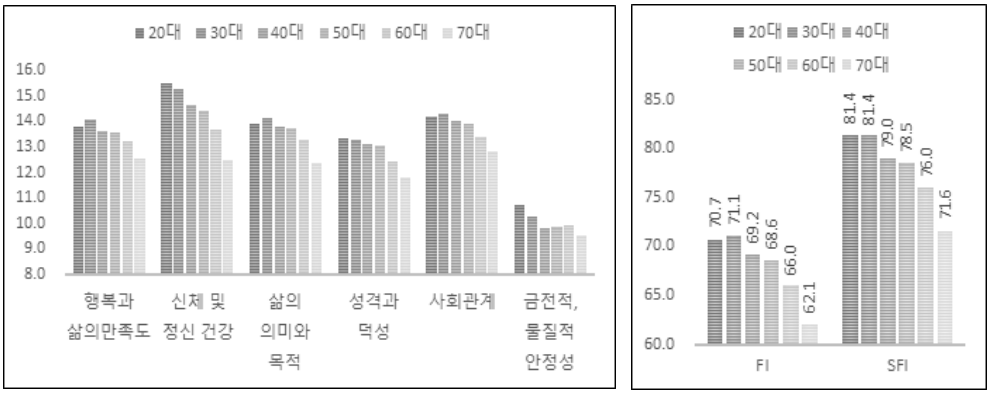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4] 성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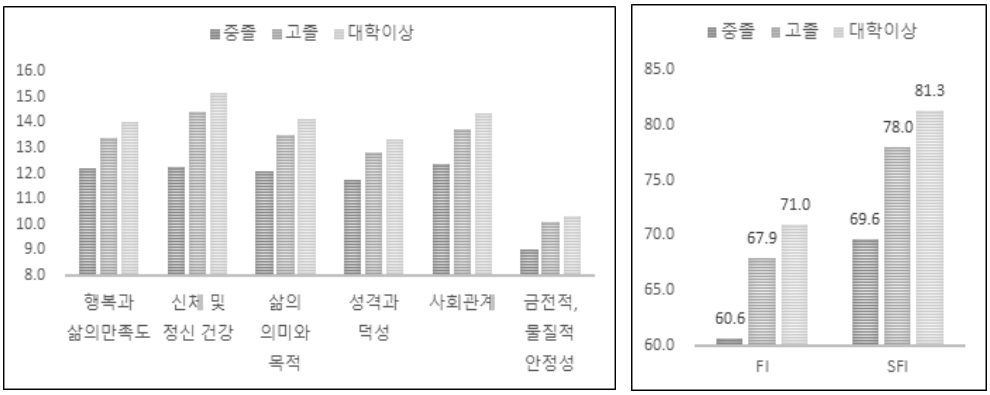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5〕 연령대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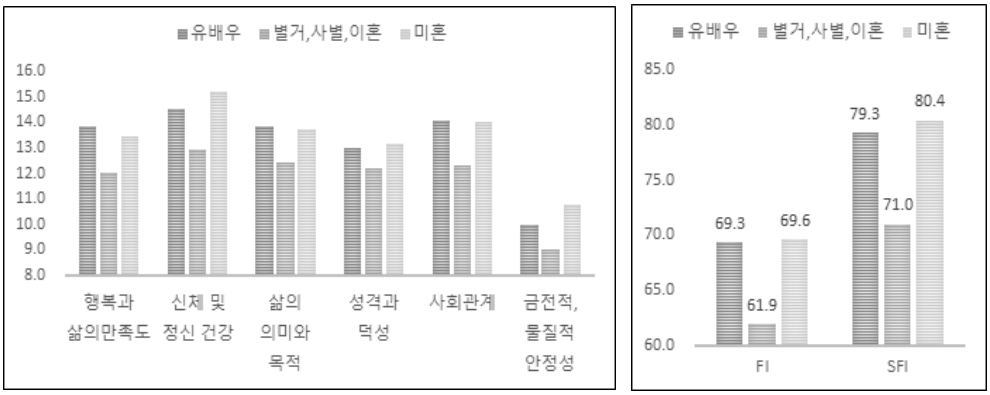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6〕 학력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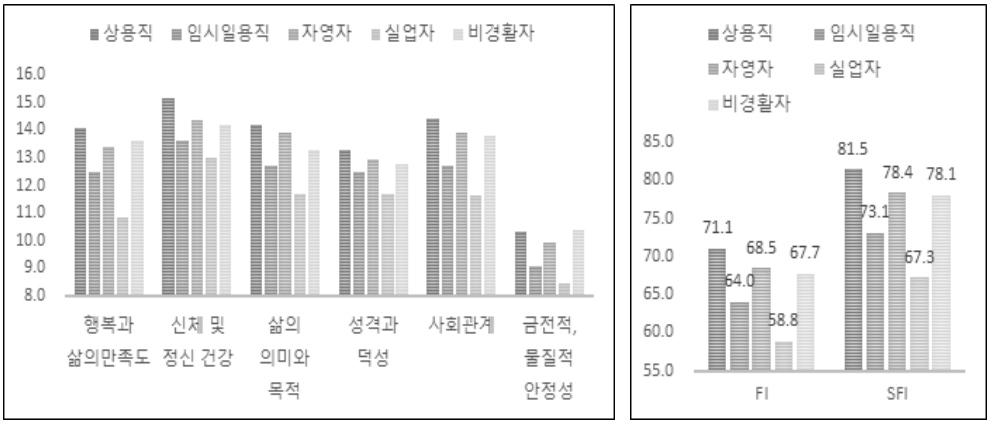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7〕 배우자유무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8] 경제활동 상태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결혼 지위와 풍요로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배우인 사람과 미혼인 사람 간의 영역별 풍요 점수와 전반적인 풍요지수(FI) 점수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별거, 이혼, 사별한 사람의 영역별 풍요 점수와 풍요지수(FI) 점수는 앞의 두 집단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하지만 혼인 지위 역시 연령 등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상태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풍요로움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자, 비경활자, 임시일용직의 순이었다. 실업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실업자의 풍요지수(FI) 점수는 58.8점, 안정풍요지수(SFI) 점수는 67.3점으로 지금까지 언급된 개인 특성 관련 집단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실업자의 풍요지수(FI) 점수와 안정풍요지수(SFI) 점수는 상용직의 그것에 비해 각각 12.3점, 14.2점 더 낮은 수준이었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실업은 '재난적 결과'를 초래하여 행복 수준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뿐 아니라 재취업하더라도 오랜 동안 '흉터효과'를 남기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Thompson, 2013, p. 428).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실업자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그리고 사회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제적 지위별 풍요지수

경제적 지위와 풍요로움 간의 관계는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오랜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9]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기초보장 수급 여부, 객관적인 소득계층, 주관적인 소득계층, 재산계층에 따른 풍요로움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준다.

〈표 5-5〉 경제적 지위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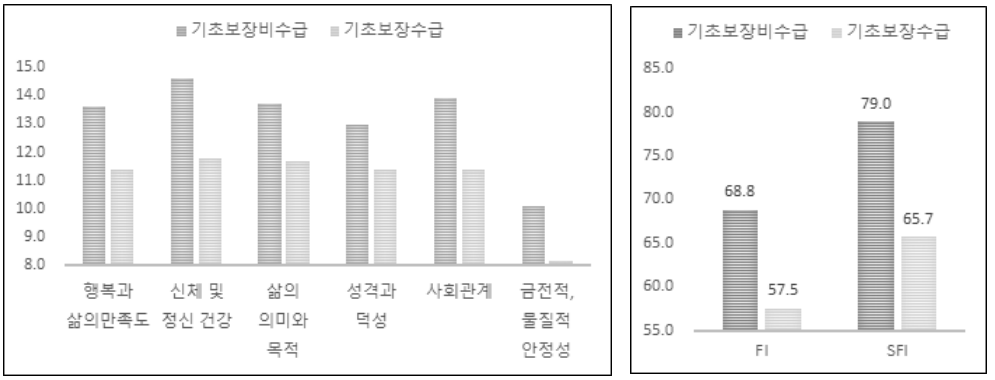
		행복과 삶의 만족도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사회 관계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FI	SFI
기초보장	비수급	13.6	14.6	13.7	13.0	13.9	10.1	68.8	79.0
	수급	11.4	11.8	11.7	11.4	11.4	8.2	57.5	65.7
	F	93.1	150.3	99.4	51.9	155.1	26.9	177.5	180.5
	Prob>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소득계층 1)	저소득층	11.9	12.2	12.0	11.8	12.0	8.6	60.0	68.6
	중간계층	13.6	14.6	13.7	13.0	14.0	10.0	68.9	78.8
	고소득층	14.5	15.4	14.5	13.2	14.5	11.4	72.0	83.4
	F	131.9	227.3	157.1	47.9	173.8	61.4	234.4	257.1
	Prob>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관적 계층	하층	11.6	12.9	12.1	11.9	12.1	8.6	60.7	69.3
	중하층	13.1	14.4	13.3	12.7	13.5	9.6	67.1	76.7
	중간층	14.1	14.9	14.1	13.2	14.4	10.6	70.8	81.4
	중상층/상층	15.1	15.1	14.8	13.6	15.0	11.3	73.6	84.8
	F	234.8	91.1	177.5	52.3	202.0	54.7	239.4	265.7
	Prob>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재산계층 1)	저재산층	12.9	14.0	13.1	12.6	13.2	9.3	65.8	75.1
	중간재산층	13.7	14.6	13.7	13.0	14.1	10.1	69.1	79.2
	고재산층	13.9	14.8	14.1	13.1	14.2	10.5	70.2	80.7
	F	63.0	35.5	70.9	20.9	94.2	31.1	88.0	104.4
	Prob>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전체	13.6	14.5	13.7	12.9	13.9	10.1	68.6	78.6

주: 저소득(재산)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중간(재산)계층은 중위소득 50%~150%, 고소득(재산)층은 중위소득 150% 이상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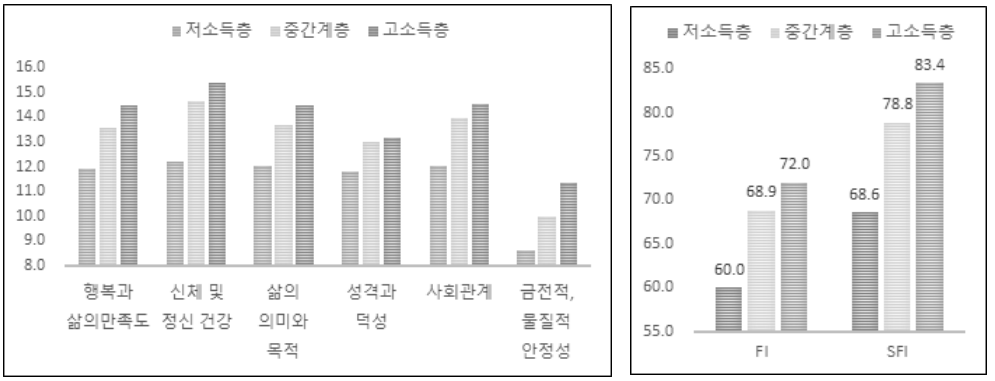
9) 절대적 효용이론(Absolute utility theory)과 상대적 효용이론(Relative utility theory) 간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인간의 타고난 욕구가 더 많이 충족될수록,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높다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 효용이론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소득 상승이 반드시 행복 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후자의 주장은 '이스털린 역설'(Easterlin's paradox)로 일컬어진다(김미곤 외, 2014, pp. 185-186).

[그림 5-9]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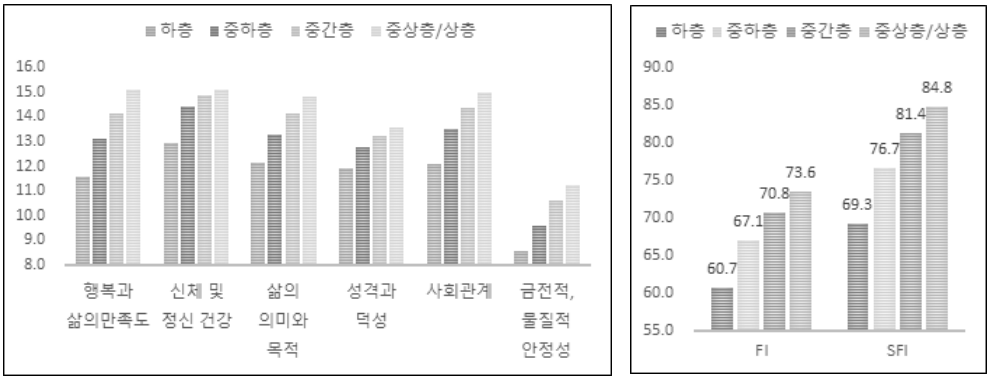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0] 소득 계층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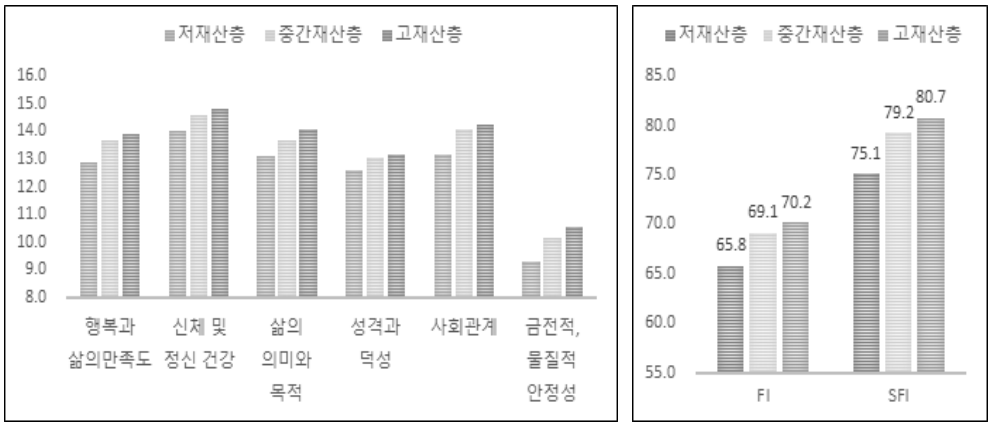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1] 주관적 계층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2] 재산 계층별 풍요로움의 항목별 점수 및 풍요지수 점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먼저, '최후 안정망'(last resort)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풍요로움 지수를 비교해 보면, 영역별 점수와 풍요지수(FI) 점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수급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수급자의 풍요지수(FI) 점수와 안정풍요지수(SFI) 점수는 각각 57.5점과 65.7점으로, 이는 앞서 실업자 집단의 평균 점수보다는 낮은 것이며, 비수급자의 평균 점수에 비해 각각 11.3점과 13.3점 더 낮은 점수이다. 이들 기초보장 수급자 집단은 실업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행복, 건강, 삶의 의미, 덕성, 사회관계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움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두루 비수급자 집단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기초보장 수급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수급자의 삶의 궤적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탐색을 통해 단순히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사회적, 정서적 지원과 지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객관적 ·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풍요로움의 수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소득층이 중간계층에 비해, 중간계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객관적 소득계층의 저소득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의 하층, 객관적 소득계층의 고소득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의 중상층/상층의 풍요지수(FI) 점수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풍요로움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계층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다만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중간계층과 고소득층 간의 점수 차이는 저소득층과 중간계층 간의 점수 차이만

큼 크지 않았다. 하위 영역에서 저소득층과 중간계층 간의 점수 차이는 최소 1.2점(성격과 덕성)에서 최대 2.4점(신체 및 정신 건강)에 이르는데 비해, 중간계층과 고소득층 간의 점수 차이는 최소 0.2점(성격과 덕성)에서 최대 0.9점(행복과 삶의 만족도)로 전반적으로 그 격차가 1점 미만이었다. 즉, 절대적 결핍과 박탈이 발생하는 집단에서 전반적인 풍요로움의 수준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효율적·효과적으로 풍요로움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면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복지(well-being)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산에 따른 계층은 소득에 따른 계층에 비해 계층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제4절 풍요지수(FI)의 결정 요인

1. 기존 행복지표들과의 비교

지금까지 지역 특성별, 개인과 가구 특성별, 경제적 지위별로 개별 요인들의 풍요로움의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해 보았다. 〈표 5-6〉에서는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함으로써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해당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풍요로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행복의 대리변수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캔트릴 삶의 수준 척도[10], 삶의 만족도 수준의 결정 요인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0) 캔트릴 삶의 수준 척도는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점수이다.

〈표 5-6〉 행복지수, 지표의 결정 요인 비교

		FI	SFI	캔트릴 삶의수준척도	삶의 만족도
		b/se	b/se	b/se	b/se
지역 (대도시=0)	중소도시	0.137	0.613*	0.187***	0.094*
		(0.248)	(0.289)	(0.039)	(0.037)
	농어촌	-0.14	0.213	0.192*	0.155*
		(0.522)	(0.607)	(0.082)	(0.078)
가구원수		0.127	-0.038	-0.014	-0.033
		(0.143)	(0.167)	(0.022)	(0.021)
주거 점유형태 (자가=0)	전세	-0.847**	-1.535***	-0.127*	-0.151**
		(0.318)	(0.370)	(0.050)	(0.048)
	월세	-2.372***	-2.597***	-0.250**	-0.218**
		(0.540)	(0.628)	(0.085)	(0.081)
가구주여부	가구주	0.384	0.194	-0.005	0.056
		(0.369)	(0.430)	(0.058)	(0.055)
성별 (여성=0)	남성	-0.443	-0.488	-0.087	-0.124*
		(0.323)	(0.375)	(0.051)	(0.048)
연령		-0.087***	-0.079***	-0.007**	-0.006**
		(0.014)	(0.017)	(0.002)	(0.002)
교육수준 (중졸이하=0)	고졸	2.624***	3.103***	0.302***	0.182*
		(0.482)	(0.561)	(0.076)	(0.072)
	대학이상	3.697***	4.187***	0.411***	0.270**
		(0.553)	(0.643)	(0.087)	(0.083)
혼인상태 (유배우=0)	이혼,사별	-2.948***	-3.329***	-0.517***	-0.533***
		(0.460)	(0.535)	(0.072)	(0.069)
	미혼	-1.518***	-0.69	-0.303***	-0.300***
		(0.409)	(0.476)	(0.064)	(0.061)
경활상태 (상용직=0)	임시일용직	-4.068***	-4.950***	-0.386***	-0.612***
		(0.411)	(0.479)	(0.065)	(0.062)
	자영자	-1.102**	-1.385***	-0.172**	-0.280***
		(0.348)	(0.405)	(0.055)	(0.052)
	실업자	-7.264***	-8.478***	-0.810***	-1.265***
		(0.799)	(0.930)	(0.126)	(0.120)
	비경활자	-0.816*	-0.392	-0.088	-0.035
		(0.356)	(0.415)	(0.056)	(0.053)
로그소득		2.027***	2.996***	0.227***	0.279***
		(0.267)	(0.311)	(0.042)	(0.040)
로그재산		0.359***	0.450***	0.047**	0.049**
		(0.102)	(0.119)	(0.016)	(0.015)
기초보장 (비수급=0)	수급	-2.211*	-2.685**	-0.154	-0.013
		(0.873)	(1.016)	(0.137)	(0.131)
상수		57.007***	60.467***	5.312***	5.307***
		(2.022)	(2.354)	(0.318)	(0.303)
N		4,923	4,923	4,923	4,923
R2		0.208	0.209	0.114	0.13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동일한 변수를 투입한 결과 캔트릴 삶의 수준 척도, 삶의 만족도, 풍요지수(FI), 안정풍요지수(SFI)의 설명력(R^2)은 각각 11.4%, 13.5%, 20.8%, 20.9%로 풍요지수(FI)와 안정풍요지수(SFI)를 종속변수로 투입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가 거주자가 전세나 월세 거주자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상용직인 사람이 여타 경활자에 비해,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보장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풍요지수(FI) 점수가 더 높았다. 특히,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상용직 종사자는 실업자에 비해 풍요 점수가 7.26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 거주자는 월세 거주자에 비해 2.37점, 대졸 이상인 사람은 중졸 이하인 사람에 비해 3.70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이혼 혹은 사별한 사람보다 2.95점 더 높은 풍요점수를 보였다. 앞서 단순 비교에서는 기초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점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소득, 자산, 연령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2.21점의 차이를 나타냈다.

안정풍요지수(SFI)의 경우 풍요지수(SF)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0.5의 유의 수준에서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안정풍요지수(SFI)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앞서 단순 비교에서는 대도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농어촌에 비해 더 높은 안정풍요지수(SFI) 점수를 기록했으나,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농어촌이 오히려 대도시에 비해 더 높은 안정풍요지수(SFI)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주지한 바와 같이, 농어촌 거주자의 인적 특성, 특히 노인 비중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풍요지수(SFI), 캔트릴 삶의 수준 척도, 삶의 만족도 점수 모두 응답자의 인적 특성과 경제적 지위를 통제할 경우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자의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2. 연령대별 풍요지수(FI) 결정 요인 비교

다음으로 〈표 5-7〉은 응답자의 연령을 청년(19~35세), 중년(36-50세), 장년(51-65세), 노년(66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집단별 풍요지수(FI)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풍요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집단별로 다소 상이하였다.

먼저, 19-35세 청년의 경우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와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풍요로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안정적인 상용직 종사자가 임시・일용직이나 실업자에 비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다고 평가했다.

35-50세의 중년기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구원수, 주거 점유형태,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소득이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월세 거주자에 비해 자가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에 비해, 상용직이 임시・일용직, 자영자, 실업자에 비해, 소득이 높을수록 풍요지수(FI)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앞서 청년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가구규모와 주거 형태가 중년에게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대신, 교육 수준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청년기에는 상용직과 자영자 간 풍요로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장년기에는 상용직에 비해 풍요로움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년기에는 안정적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주거가 삶의 풍요로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51-65세 장년기의 경우 앞선 연령대에 유효하지 않았던 많은 변수가 풍요로움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자가 거주자가 전세나 월세 거주자에 비해, 가구주가 그 외 가구원에 비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가 임시・일용직이나 실업자, 비경활자에 비해 풍요로움의 수준이 더 높았다. 소득 또한 풍요로움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연령대에서는 전세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풍요로움의 수준이 떨어졌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은 수준의 풍요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여전히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로 볼 때 이 시기는 정년을 앞두었거나 정년 직후의 시점이라는 점

에서, 일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노후 삶에 대한 불안이 엄습한 장년의 가장 남성의 행복도는 여성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5-7〉 연령대별 풍요지수(FI)의 결정 요인 비교

		19-35세 b/se	36-50세 b/se	51-65세 b/se	66세이상 b/se
지역 (대도시=0)	중소도시	-0.305	0.208	0.896*	-1.428
		(0.469)	(0.457)	(0.445)	(0.753)
	농어촌	-0.599	-1.694	1.407	-0.057
		(1.124)	(0.970)	(0.899)	(1.351)
가구원수		0.227	0.798**	0.396	0.686
		(0.323)	(0.293)	(0.252)	(0.803)
주거 점유형태 (자가=0)	전세	0.007	-0.117	-2.289**	-2.586*
		(0.638)	(0.488)	(0.710)	(1.110)
	월세	0.626	-2.866**	-3.935***	-5.128**
		(0.979)	(0.987)	(1.123)	(1.680)
가구주여부	가구주	0.66	-0.105	1.680*	-2.246
		(0.678)	(0.780)	(0.822)	(1.264)
성별 (여성=0)	남성	0.052	0.561	-2.879***	-0.16
		(0.478)	(0.758)	(0.781)	(1.095)
교육수준 (중졸이하=0)	고졸	10.978***	4.032	2.728***	2.317**
		(2.995)	(3.274)	(0.754)	(0.824)
	대학이상	12.270***	5.379	3.377***	7.100***
		(3.000)	(3.276)	(0.880)	(1.610)
혼인상태 (유배우=0)	이혼,사별	-4.919**	-3.146**	-2.655**	-0.462
		(1.695)	(1.168)	(0.840)	(1.261)
	미혼	-1.862**	-0.415	0.786	0.39
		(0.576)	(0.919)	(1.443)	(5.203)
경활상태 (상용직=0)	임시일용직	-3.099***	-4.020***	-4.983***	-6.346**
		(0.810)	(0.789)	(0.714)	(1.986)
	자영자	-0.932	-2.200***	-0.589	-5.749**
		(1.122)	(0.620)	(0.539)	(1.880)
	실업자	-6.723***	-7.297*	-6.834***	-10.826***
		(1.305)	(2.837)	(1.722)	(2.144)
	비경활자	1.557*	-0.452	-2.035**	-7.284***
		(0.702)	(0.683)	(0.713)	(1.826)
로그소득		3.590***	3.017***	2.676***	0.672
		(0.695)	(0.685)	(0.541)	(0.423)
로그재산		0.299	0.194	0.137	1.233**
		(0.212)	(0.160)	(0.201)	(0.378)
기초보장 (비수급=0)	수급	-1.46	-0.897	-0.938	-2.559
		(2.070)	(1.861)	(1.664)	(1.575)
상수		36.797***	45.077***	50.205***	55.088***
		(5.218)	(5.390)	(3.354)	(4.939)
N		1,258	1,394	1,541	730
R2		0.123	0.137	0.193	0.2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66세 이상 노인의 풍요로움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거 점유형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재산 등이었다. 앞선 장년층과 마찬가지로 전세와 월세 거주자의 풍요 수준이 자가 거주자에 비해 떨어졌다. 반대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상용직이 여타의 경제활동 상태인 사람들에 비해 더 풍요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령대에서 소득이 풍요 수준에 유의미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년기에는 재산 수준이 풍요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전체적으로 생애 후반부로 갈수록 풍요로움의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 점유 형태와 경제활동 상태였다. 반면, 생애 전반기에 풍요로움의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혼인 상태와 소득 수준이었다. 중년기에는 가구원 수가, 장년기에는 거주 지역과 성별이, 그리고 노년기에는 재산이 풍요로움을 결정짓는 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달리 연령별 분석에서는 소득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초보장 수급 여부는 풍요로움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5절 소결

풍요지수(FI)는 최근에 하버드대학 인간풍요프로그램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행복 측정의 새로운 지표로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요지수(FI)와 안정풍요지수(SFI)를 한국인의 행복 연구에 탐색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그 가능성과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차원적 풍요지수(FI)는 행복 연구의 새로운 측정치로서 많은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캔트릴 삶의 수준 척도나 삶의 만족도 점수에 비해 다차원적 삶의 질을 계측하여 합산함으로써 좀 더 풍부한 함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산 지표로서 풍요지수(FI), 안정풍요지수(FI) 뿐 아니라 개별 영역을 구성하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사회관계,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등 6개 영역 각각이 가지는 의미도 적지 않다. 특히, 직관적인 행복, 건

강, 관계, 물질적 안정성과 더불어 성격과 덕성 관련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일한 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풍요지수(FI)는 켄터릴 삶의 수준 척도와 삶의 만족도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척도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른 지표에 비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풍요지수(FI)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볼 수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영향 요인과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가 확인되었다. 이는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단계별로 상이한 정책적 개입과 우선 순위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풍요지수(FI)에 대한 좀 더 엄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학술적, 정책적으로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 결과
제4절 소결

제 6 장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문제제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 성장과 노화 등 신체 변화를 겪을 뿐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발달과업을 달성하게 된다. 발달심리학자 에릭슨(Erikson, 1993, pp. 263-269)은 성인기 이후 주요 발달과업으로 경제 독립과 관계를 통한 친밀감 형성, 가족과 일을 통한 생산성 확보를 들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이전까지 이루어온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자아통합을 달성할 것을 과업으로 말했다. 이러한 과업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면 개인은 고립되고, 침체감을 느끼며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 10명 중 9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 졸업생 3명 중 2명이 대학교에 진학한다(통계청, 2020b).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기 시작한다. 결혼과 출산 등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한다. 성인 후기에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자녀는 독립하며 신체 노화를 체감한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이후 건강을 관리하며 노년기를 보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이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발달과업을 달성해간다. 그 과정 중에 충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부족을 느낄 수도 있다. 과정이 원만할 수도 있지만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 복지정책은 연령별 필요와 잠재적 사회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발전해왔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1차연도 질적 연구에서는 행복을 다층적인 주관적 경험으로 이해했다(정해식 외, 2019).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2차연도 질적 연구는 청년, 장년, 중년, 노년의 연령집단별로 국가와 개인의 행복이라는 큰 주제에 대한 인식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 수행과 필요 혹은 부족 경험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의 경험이 개인의 행복을 저해한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개인적 대처 기제를 탐색하고 복지정책 경험이 행복한

삶으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 장의 연구 목적은 행복 경험에 미친 국가의 영향, 국가에 대한 기대,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세대 간 이해를 통해, 향후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업을 찾는 것이다.

제2절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개요

생애주기를 고려한 욕구와 한국인의 행복, 그리고 복지정책 경험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 장년, 중년, 노년기의 주요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수행하였다. 청년기는 교육을 받은 이후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해하여, 면접 시기 기준 최근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년은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해하여, 결혼과 출산 경험이 있고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인 3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년은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로 이해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한 55~65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은퇴 이후 시기를 보내면서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해하여, 만성 질환이 있는 70~75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면접 환경은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마련하였다.

〈표 6-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세대 구분	연령	선정 기준
청년	20대	취업준비생/2020년 2월 대학 졸업자
장년	30대	결혼과 출산 경험/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중년	만 55세-65세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노년	만70세-75세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

자료: 저자 작성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대 청년, 30대 장년, 55~65세 중년, 70~75세 노인의 남성과 여성을 각각 3명씩 연령집단별 총 6명씩 면접하였다. 총 참여자는 24명이다. 다음 〈표 6-2〉는 면접에 참여한 24명의 나이, 직업,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자녀연령, 만성질환 등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6-2〉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참여자 특성

세대	성별	구분	만 나이	직업	최종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자녀연령	만성질환
청년	남	가	24	취업준비생	2,3년제 대졸	미혼	-	-	-
		나	25	취업준비생	4년제 대졸	미혼	-	-	-
		다	26	취업준비생	4년제 대졸	미혼	-	-	-
	여	가	22	취업준비생	2,3년제 대졸	미혼	-	-	-
		나	22	취업준비생	2,3년제 대졸	미혼	-	-	-
		다	24	취업준비생	4년제 대졸	미혼	-	-	-
장년	남	가	35	공무원	4년제 대졸	기혼	맞벌이	4세	-
		나	37	비영리단체 사무직	대학원 이상	기혼	맞벌이	4세	-
		다	38	it관련 사무직	4년제 대졸	기혼	맞벌이	6세	-
	여	가	31	사회복지업	4년제 대졸	기혼	맞벌이	5세	-
		나	35	시간강사 계약직	4년제 대졸	기혼	맞벌이	3세	-
		다	36	만화 애니메이션 예술강사	대학원 이상	기혼	맞벌이	4세, 2세	-
중년	남	가	60	은퇴자	4년제 대졸	기혼	-	35세	-
		나	62	은퇴후 무급가족 종사자	4년제 대졸	기혼	-	30세	-
		다	64	은퇴자	4년제 대졸	기혼			
	여	가	59	은퇴자	4년제 대졸	기혼	-	33세, 31세	-
		나	63	은퇴자	4년제 대졸	기혼	-	40세, 39세	-
		다	63	은퇴자	고졸 이하	기혼	-	35세	-

세대	성별	구분	만 나이	직업	최종 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자녀연령	만성질환
노년	남	가	70	무직	대학원 이상	-	-	-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요생식기질환
		나	73	무급가족 종사자	4년제 대졸	기혼	-	42세	고혈압/ 당뇨
		다	75	무직	4년제 대졸	-	-	-	고혈압/ 당뇨 척추관 협착증
	여	가	70	전업주부	고졸 이하	-	-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나	70	전업주부	고졸 이하	-	-	-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다	72	전업주부	고졸 이하	-	-	-	기관지 확장증 폐질환 허리디스크

자료: 저자 작성

개별 면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연구진이 수행하였다. 질문지는 행복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 일과 여가, 자산, 건강 등 현재 상황과 행복에 대한 영향, 삶에 대한 만족,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족한 삶의 영역, 정부정책 경험, 국가와 행복, 과거 경험과 정책 경험, 미래 전망과 국가의 역할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1] 면접 결과는 녹취록으로 작성된 이후, 연구자가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귀납적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질문지 문항을 기준으로 연령집단별 면접 결과를 귀납적 주제분석한 결과는 〈부록 6〉에 첨부하였다.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제2020-27호에 의해 표집과 구조화된 질문지를 포함한 면접방법에 의한 IRB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에 의한 동의서 작성 후 면접을 수행하였다.

제3절 연구 결과

1. 개별 사례에 대한 맥락 분석결과

가. 청년: 20대 취업준비생

24세인 청년, 남성, 가의 행복 점수는 3점, SES는 중하이다. 취업이 안 되어 행복도가 최하라고 하였으며, SES는 하에서 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일상생활과 일, 여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했고,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며, 돈이 꽤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 복지 수준이 나쁘진 않지만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복지와 삶의 기본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 단위에서는 현재를 기회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세인 청년, 남성, 나의 행복 점수는 3점, 만족은 4점, SES는 중하이다. 현재 상태가 최악은 아니지만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더 힘든 사람들에 비해서는 낫다고 하였다. 그는 전반적으로 상대성을 적용하고 있다. 그가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은 결코 적지 않고, 자산, 주거, 관계 등의 조건도 나쁘지 않지만, 무직 상태인 것과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지위가 이런 평가를 하도록 한다. 국가는 삶의 질에 긍정 또는 부정 영향을 많이 미치며, 개인의 삶에 절반 정도의 영향을 미쳐도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점이며,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역할을 확장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26세인 청년, 남성, 다의 행복 점수는 0점, 만족은 0점, SES는 최하이다. 졸업 이후 현재까지 무직 상태인 것이 이러한 평가에 매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고, 국제비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조건들도 특별히 나쁘지 않다. 다만 그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의 공정 이슈(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민감하게 고려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며, 걱정거리를 덜어주고,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22세인 청년, 여성, 가의 행복 점수는 3-4점 정도이며, SES는 중간 이하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종종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7-8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점수가 낮은 이유는 졸업 후 소속감을 느낄 곳이 없으며, 졸업 직전부터 취업을 준비했지만 잘 안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국가 지원을 받은 경험은 가지고 있으나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원이 도움이 되고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22세인 청년, 여성, 나의 행복 점수는 7점이며, 만족은 5.5점, SES는 중간 수준(본인은 소득이 없으므로 중하)이다. 만족에는 경제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본인은 현재 경제활동이 없어 행복보다는 점수가 떨어진 상태라고 하였다. 행복함의 척도는 관계, 돈, 평범하게 사는 삶 등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국가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복지든 청년정책이든 알고는 있지만 자신과 거리가 있다고 느꼈다. 다만 국가가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국가장학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지원을 누리고 있음에도 당연시하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24세인 청년, 여성, 다의 행복 점수는 7-8점이다. 이 점수를 준 이유는 자신에게 큰 걱정이 없고 순탄하다고 생각하며,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 시선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SES는 중간 정도이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참고 사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행복의 요소로서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져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하며, 관계에서 갈등이나 불화가 있을 때 낮아진다고 하였다. 국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자격이나 조건이 안 맞아서 받은 경험이 없으며, 그에 대해 자신의 형편이 나은 편이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이 분열되는 느낌과 함께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떨어지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미래에 대해 국가는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교육과 미디어에 초점을 두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20대 청년들의 경험에서 국가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취업준비생이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행복 점수에는 차이가 있다. 남성 3명은 모두 3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고,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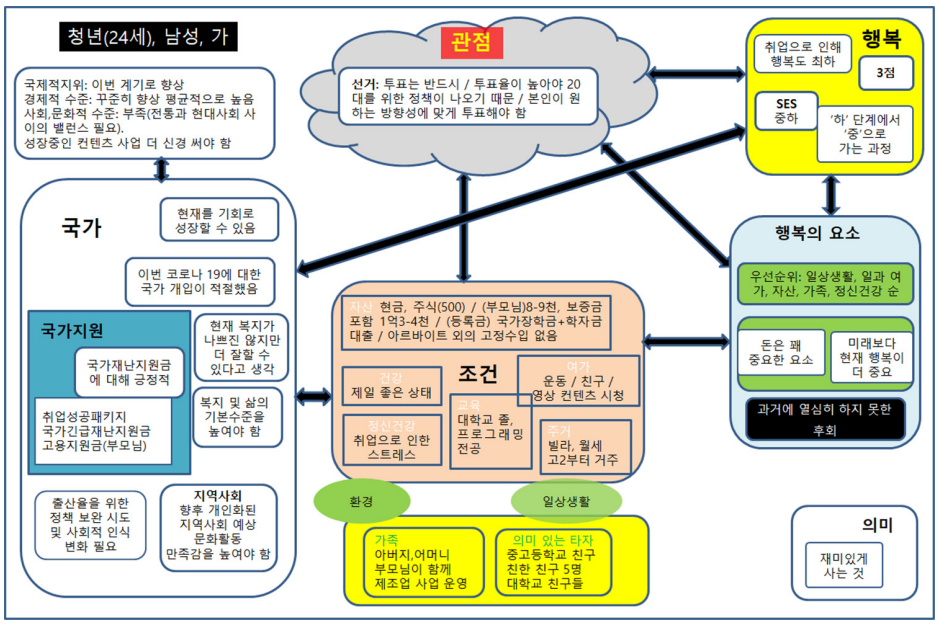
성 1명은 3-4점, 나머지 여성 2명은 7-8점으로 상당히 극단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태를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반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에서 취업만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에 속한 이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저 그런 상황인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궁핍함을 느끼고, 취업한 친구들과 비교하면 위축되고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두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후자들은 지금 당장 취업만 못했을 뿐이지 경제적으로도 특별히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없으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복에 국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행복 수준이 높은 이들의 특징은 국가 지원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그들의 부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장학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장학금(국가지원)을 받게 되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장학금을 거의 또는 전혀 못 받게 된다. 소득분위가 높아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운해 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뭔가 더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행복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반대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왔고 그것이 대학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지원을 받아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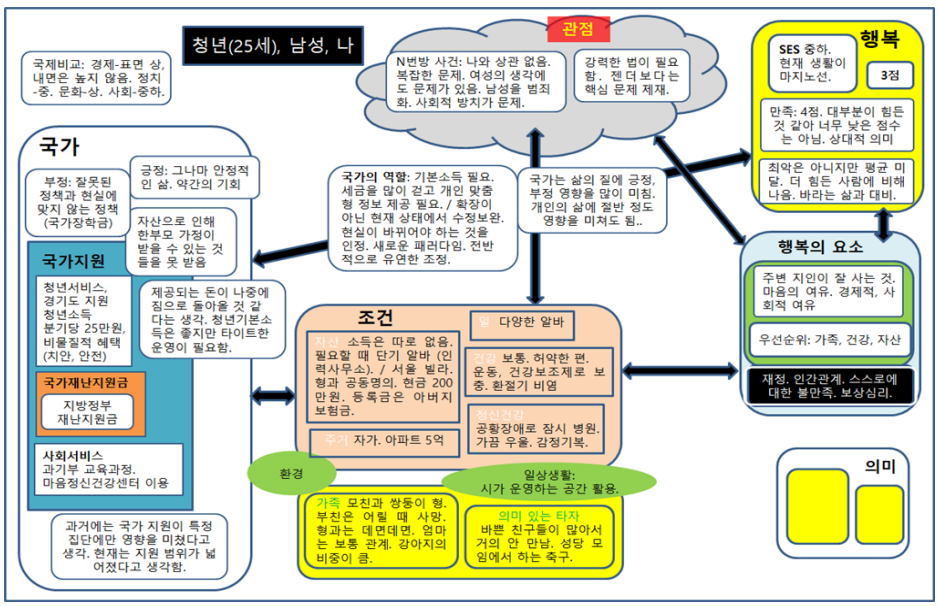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행복 사이에 크거나 작은 틈이 존재하게 된다. 이 틈을 바라보면서도, 청년들은 행복 수준과 무관하게 국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는 국가가 개인에 (직접 일자리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등)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책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일상의 조건들을 적절하게 마련해 주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림 6-1] 청년, 남성, 가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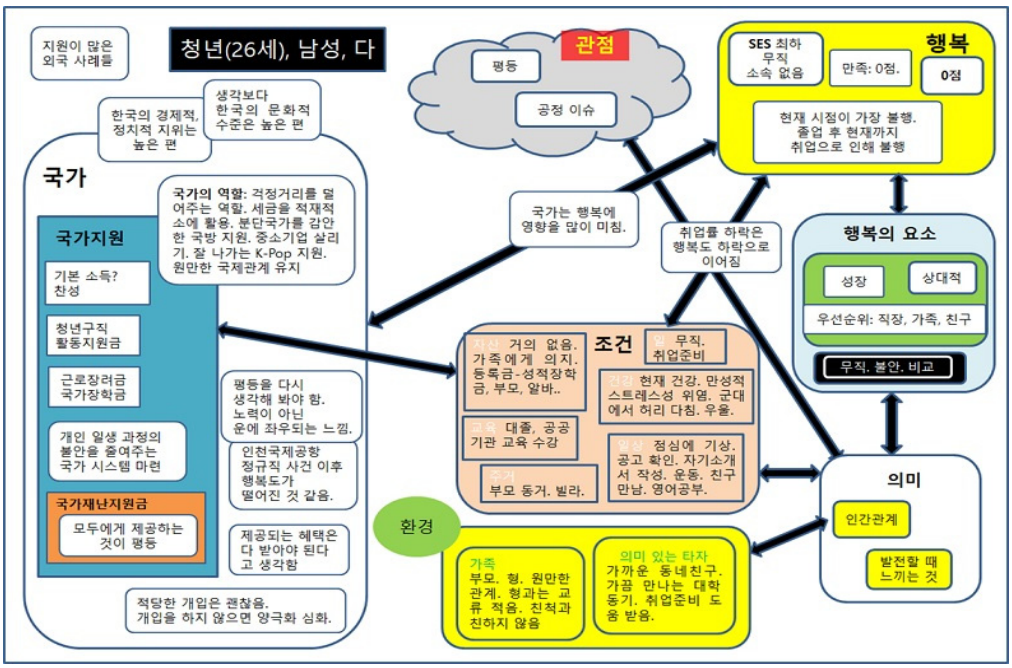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2] 청년, 남성, 나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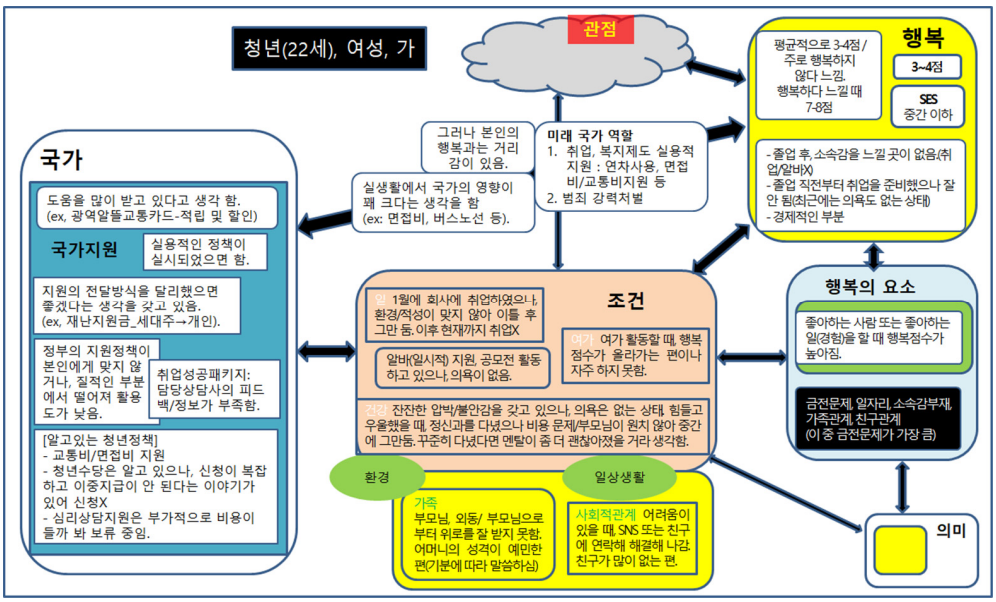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3] 청년, 남성, 다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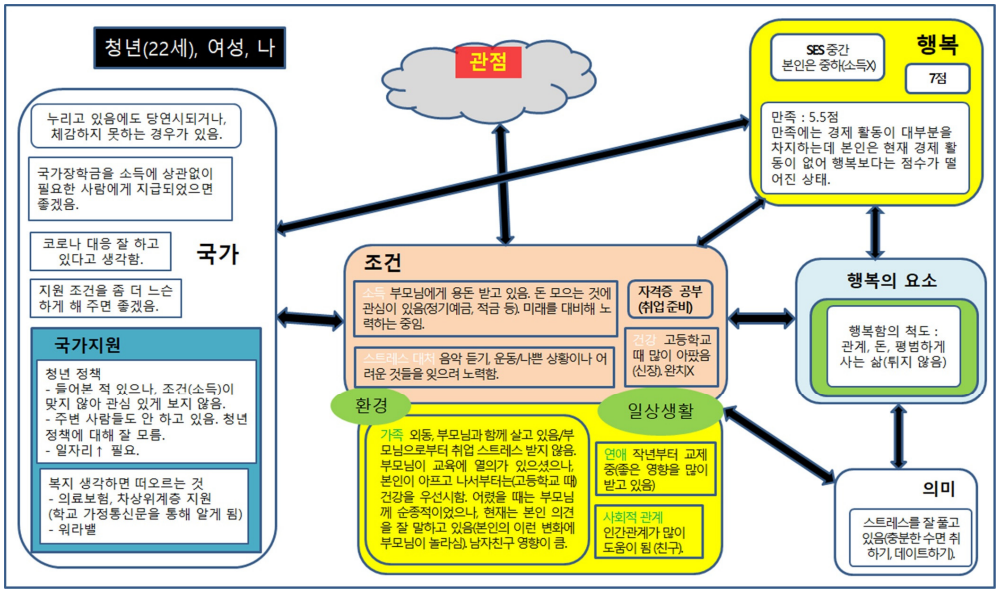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4] 청년, 여성, 가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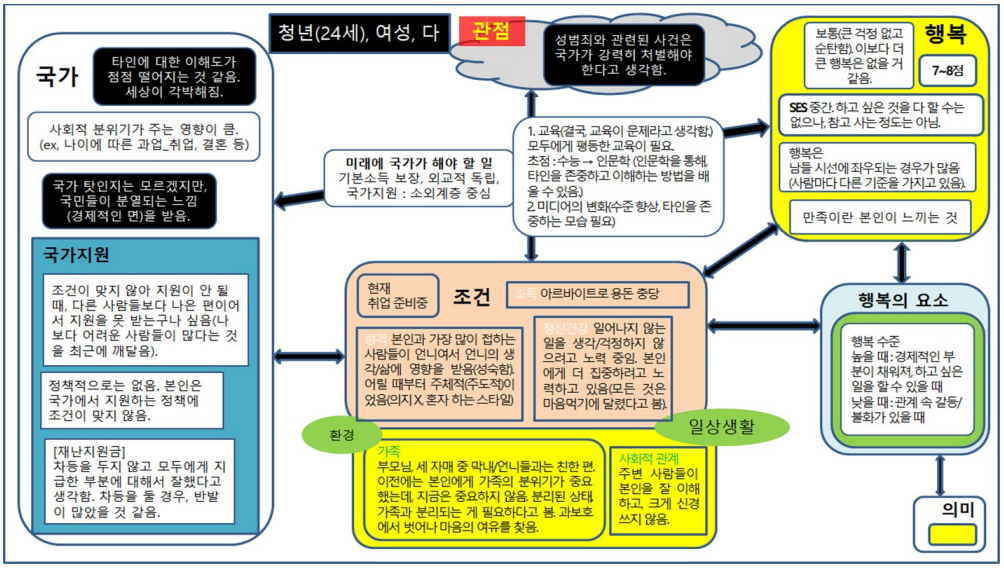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5] 청년, 여성, 나의 행복의 맥락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6] 청년, 여성, 다의 행복의 맥락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장년: 30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

35세인 장년, 남성, 가의 행복 점수는 9점이며, 만족은 9점, SES는 중간 정도다. 그는 대체로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으며, 집만 산다면 10점이 될 거라고 했다. 행복을 위한 우선순위는 가족-건강-정신건강-일과 여가 순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와 여행을 다니지 못해 불안한 것도 불만족의 한 요인이다. 만족과 행복 점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과 함께 저녁 먹는 것이 좋고, 적당 선에서 즐기고 있다고 하였다. 어린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지원을 포함하여 상당히 다양한 국가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이 본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작은 부분까지 국가 정책이 개인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그런 영향에 대해 배우고 느꼈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업무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행복과 만족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37세인 장년, 남성, 나의 행복 점수는 7점이며, 만족은 6점, SES는 중상이다. 그는 가족 관계에서는 매우 행복하지만, 미래의 경제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감점했다고 하였다.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만족은 6점이고 중간층에 어울릴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시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서 현재 부족함은 없는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홀로 보내는 시간에서 행복을 느끼며, 가족이 가장 중요한 행복요인이지만 가족이 가장 힘들기도 하다고 하였다. 어린 자녀와 관련하여 국가지원을 받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지원금이나 보건체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수준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그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많다고도 하였고, 국민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진술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8세인 장년, 남성, 다의 행복 점수는 6점, 만족도 6점이었으며, SES는 중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균 이상의 위치에 있지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감점했다고 하였다. 만족 수준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수입이 괜찮고, 야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점수를 부여했다. 행복은 걱정이 없고, 안정적이며, 마음이 편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도 행복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가족에 두었으며,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관계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가 속한 가정도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밖에는 최근 재난지원금 이외에 국가의 지원으로 여길만한 것이 없었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가(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오히려 국가가 자신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하였으며, 불안한 노후를 조장하고 있고, 행복을 깎고 있다고 하였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은 것보다 뺏기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31세인 장년, 여성, 가의 행복 점수는 3-4점인 반면에, 만족은 7점이고, SES는 중간 정도라고 하였다. 행복 점수와 관련해서는 복지 제도 이용시 불편함과 회사의 눈총,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불만족이 큰 반면에, 만족도에서는 배우자의 지지와 긍정적 영향,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재정상태, 본인과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 등이 긍정적인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SES는 집값이 너무 오른 탓이라고 하였다. 그는 재난지원금 이외에 육아와 관련된 각종 급여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돌봄 공백이 있고 마땅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국가의 영향을 크게 느끼고 있고, 미래를 위해 국가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하였다. 면접에서 그는 유난히 많은 이슈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피력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의 사회문제들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35세인 장년, 여성, 나의 행복 점수는 8점, 만족은 행복과 비슷한 수준, SES는 중과 상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행복 점수에서 빠진 2점은 시댁과 문제, 친정어머니의 건강 문제에 있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큰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SES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집과 차를 갖고 있으며, 취업의 어려움 없이 만족하며 돈을 벌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족과 일, 경제적 측면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들로 거론되었다. 그는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고,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너무 복지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 대한 인식과 만족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36세인 장년, 여성, 다의 행복 점수는 8점이며,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고, SES는

중간 수준이다. 행복 점수의 경우 9점까지 올라갔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7점까지 떨어졌고, 평균으로 8점 정도라고 하였다. 충분히 만족하는 이유는 금전적 여유와 좋은 사회 시스템 덕분이며, SES를 중간이라고 하긴 했지만 경제적 지위는 비교해 본 적이 없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속상하고 불편하다고 하였다. 출산지원정책과 재난지원금 이외에는 국가지원으로 인식되는 것이 없으며,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국가와 행복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고, 도움이 된 경우도 많았다고 하였다. 향후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소외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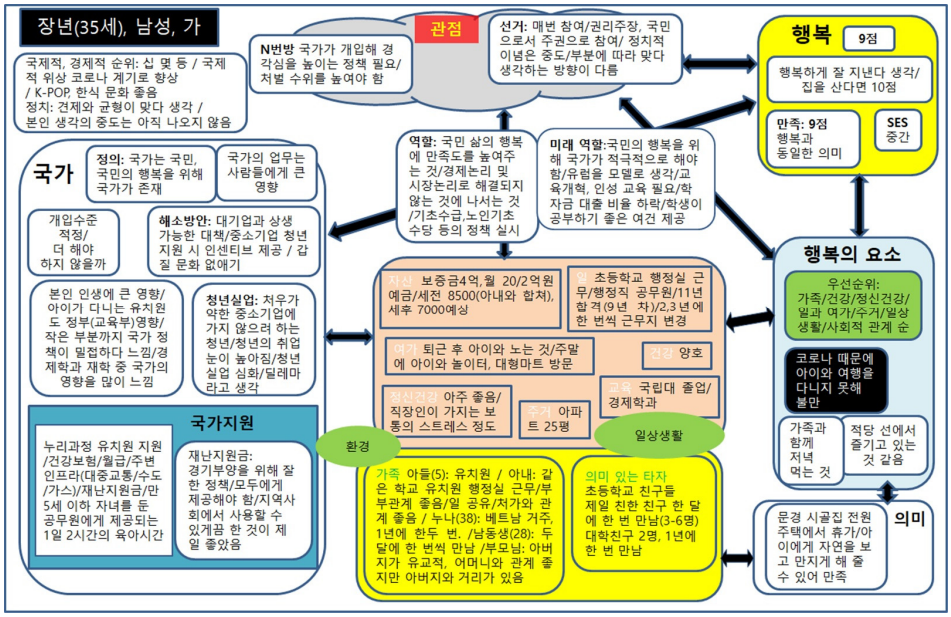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소속된 30대 장년 세대의 행복은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6점 이상, 대부분이 7점 이상이지만 3-4점으로 낮은 점수를 준 이도 있었다. 이들 모두 자신의 SES를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일상생활의 다른 조건들도 괜찮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도 시댁과 갈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 일-가정 양립 이슈, 주거 상황,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한두 가지 이슈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 점수를 낮게 평정한 사례의 경우에도 만족은 7점으로 낮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국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의 지원으로 인지하고 있다. 다만 그에 대한 평가와 보육을 둘러싼 상황은 상이하다. 보육서비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고, 돌봄 공백 때문에 불안해 하는 이도 있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국가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에는 더 큰 차이가 보인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국가의 개입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크게 엇갈린다. 어떤 이는 다양한 국가 정책에 대해 나열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뒤, 앞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 극단에 있는 한 사례는 현재 정부가 자신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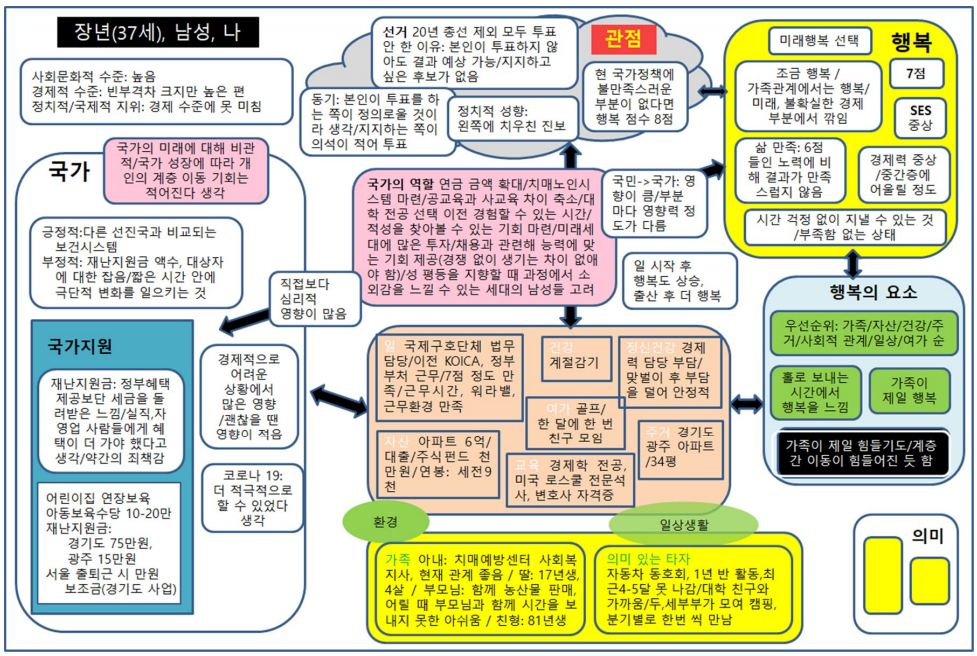
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들 다수가 언급한 주요 국가 정책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포함한 주거 정책 밖에 없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자신들이 받고 있는 보육정책의 경우 다소 불만은 있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거나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거 정책의 경우 그것이 당장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잘못 되었다거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것이다.

[그림 6-7] 장년, 남성, 가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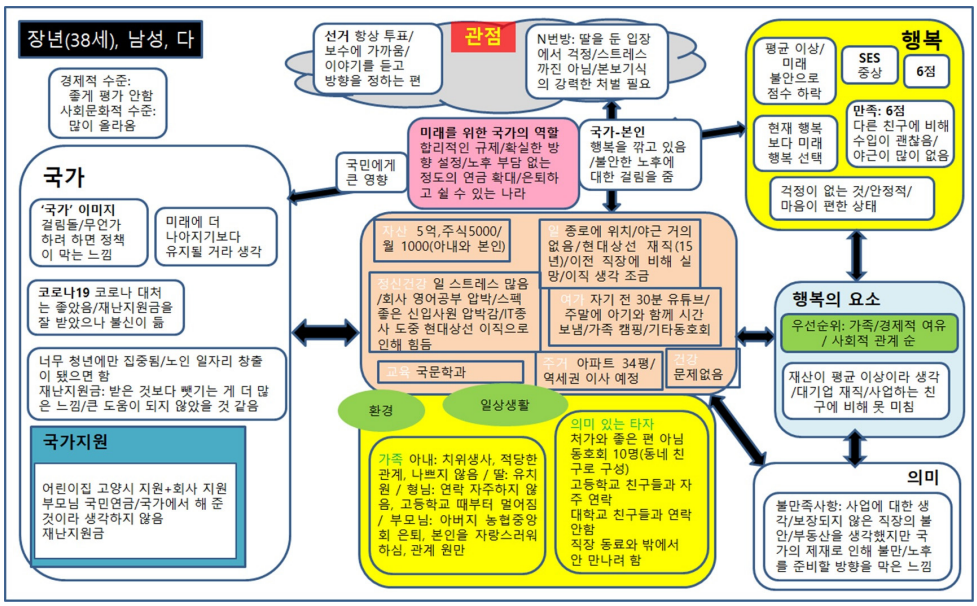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8] 장년, 남성, 나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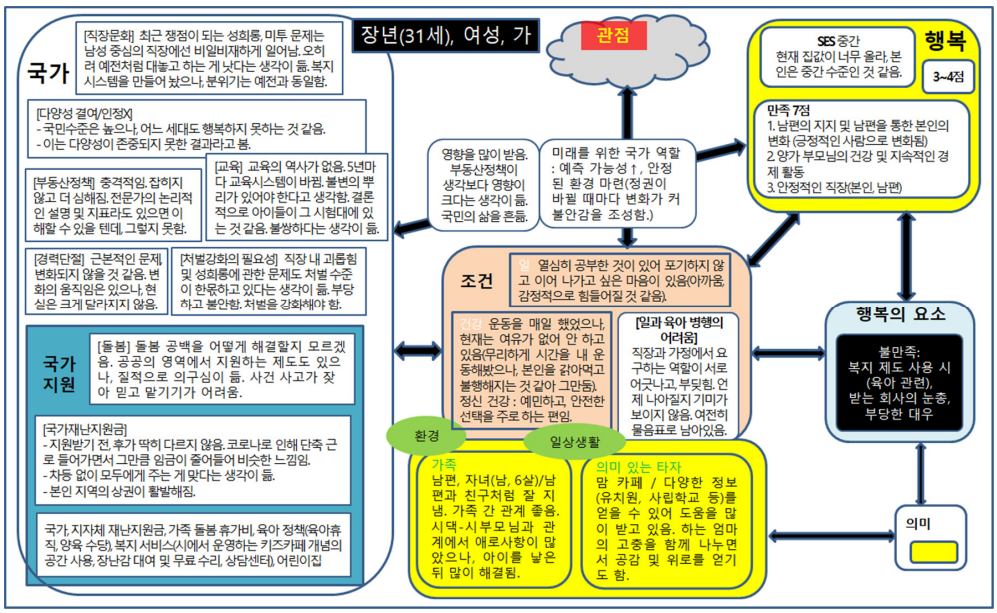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9] 장년, 남성, 다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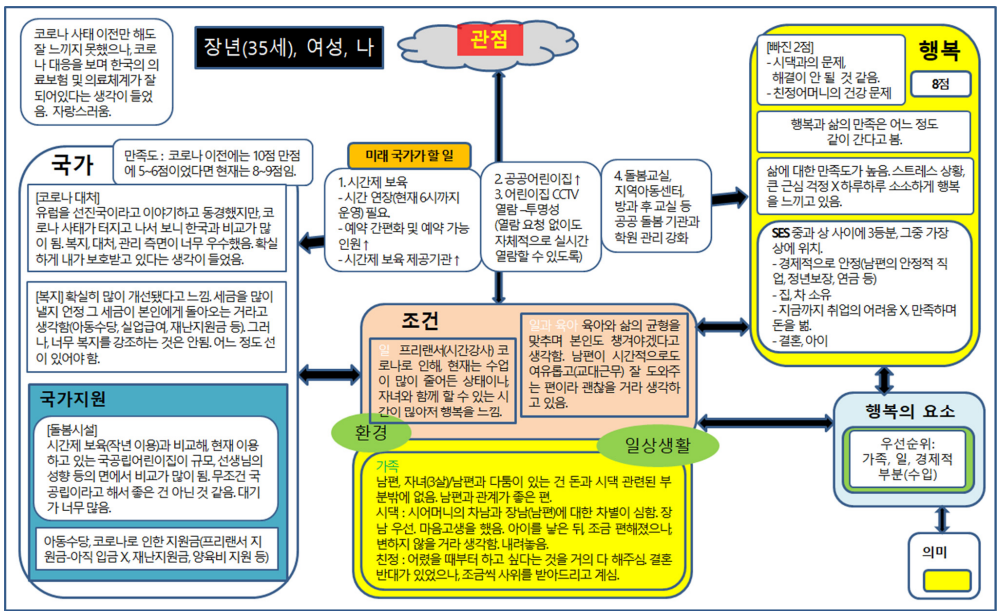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0] 장년, 여성, 가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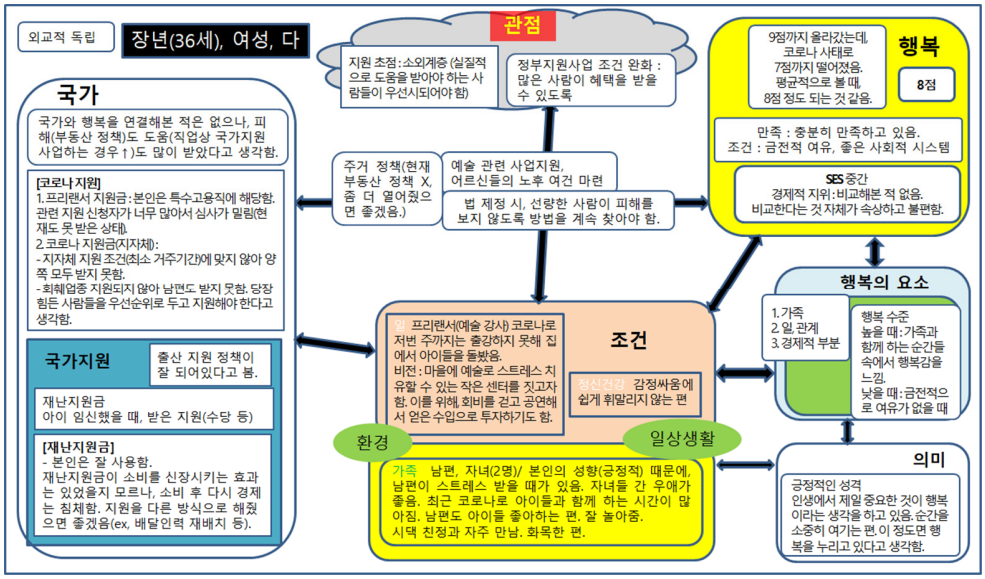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1] 장년, 여성, 나의 행복의 맥락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2] 장년, 여성, 다의 행복의 맥락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중년: 55-65세, 은퇴 전후세대 노인

60세인 중년, 남성, 가의 행복 점수는 8점, SES는 중간 수준이었다. 그는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되새긴다고 하였다. 불만족 상황을 회피하여 만족을 추구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곤 한다. 그에게 행복은 느껴지기도 하면서 노력하기도 하는 것이며, 더 행복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는 전직 군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퇴역 후 전업투자자로 소득을 얻고 있다. 다양한 여가를 즐기고 있으며, 가족도 평안하다. 그는 재직 중 군인으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았고, 퇴역 후 국가로부터 매달 3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 지원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혜택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잘 될수록 국민들의 만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62세인 중년, 남성, 나의 행복 점수는 7점, 만족은 8점, SES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이라고 하였다. 행복은 만족스러운 기분, 느낌, 상태라고 하였으며, 만족은 행복에 비해

주관적이라고 하였고, 필요를 찾아 정보를 얻어 해낼 때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SES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사람과 접촉이 없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자신이 받은 국가지원으로 복지관과 재난지원금을 들었지만, 그것이 국가지원과 큰 관련은 없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기구이며, 행복에 절반 정도 제한을 준다고 하였다. 현재 정부가 국가에 비해 크기 때문에 줄여도 될 것 같고, 나라 형편에 비해 지원이 과하다고도 하였다. 복지를 줄이고 다른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의 여건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며, 사람마다 받는 영향이 다른데, 본인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64세인 중년, 남성, 다의 행복 점수는 7점, 만족도 7점, SES는 하 수준이라고 하였다. 행복 수준은 자신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만족의 경우 현재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고, 스스로 잘 해왔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가 3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ES를 하로 평가한 것은 은퇴 후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관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과 행복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돈은 지위와 역할을 보여주고, 돈을 배경으로 건강과 친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지원을 받은 경험으로 재난지원금, 국민연금, 보건소 서비스, 자치구 서비스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과 지원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국가가 국민을 보듬고 있지 않으며, 잘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은 높지만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안하다고 하였고, 국가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9세인 중년, 여성, 가의 행복 점수는 개인적으로는 8-9점, 개인과 사회를 모두 포함할 경우 5-6점이라고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이나 자녀의 상황, 여유로움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사회적으로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감점이 있었다. 그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재난지원금,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을 국가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쟁의식이나 질투심이 없고 현실에 만족하는 개인 성향과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본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던 부모와 같은 외부의 영향이 자신을 불행하지 않게 해준 안전망이 되었다고 하였다. 앞으로 필요한 국가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언급하였고, 조세부담률이 높아도 확실한 노후보장이 된다면 괜찮다고 말했지만, 세금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을 경계하고, 재난지원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엿보이며,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63세인 중년, 여성, 나의 행복 점수는 7점이며 SES는 하(하 중에서 가장 높음)였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자기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건강과 자녀의 성공에 행복요소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는 연금과 건강보험만을 국가지원으로 꼽았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개인이 행복하면 국가도 행복하며, 개인과 국가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63세인 중년, 여성, 다의 행복 점수는 6-7점이며, SES는 중산층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하였다. 은퇴 전까지는 행복 점수가 8-9점이었으나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코로나로 인해 취미활동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감점하였다. 사회활동을 통한 수입, 자아성찰, 성취욕 등 사회적 모임, 경제력, 건강 등을 행복의 요소로 거론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진료비 감면 정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쁜 건 없었다고 하였다. 다만 코로나에 대한 대처에서 마뜩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과 몇 가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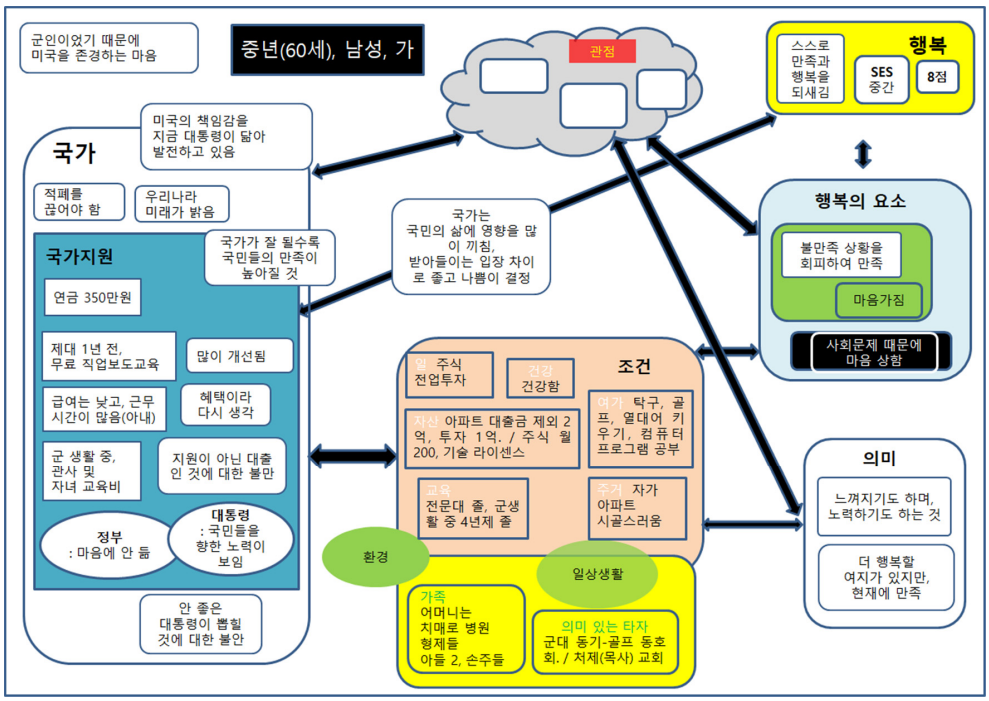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 세대는 7점을 중심으로 행복 점수가 모아졌고, 위아래로 1-2점 정도의 편차만을 보였다. 이는 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편의 표집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자기 가족 소유의 주거공간이 있고, 생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이든 여가든 할 일이 있고, 관계망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 정도의 행복 점수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행복 점수와 만족 점수는 이 정도로 나타나지만 SES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중간 이하 또는 하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상대적인 위치에서는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결 같이 국가가 국민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국가가 정책을 통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진술했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

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 이들이 아직 만 65세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역군인을 제외하고는 연금을 못 받고 있고, 노인복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는 무관하게 행복 점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국민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는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국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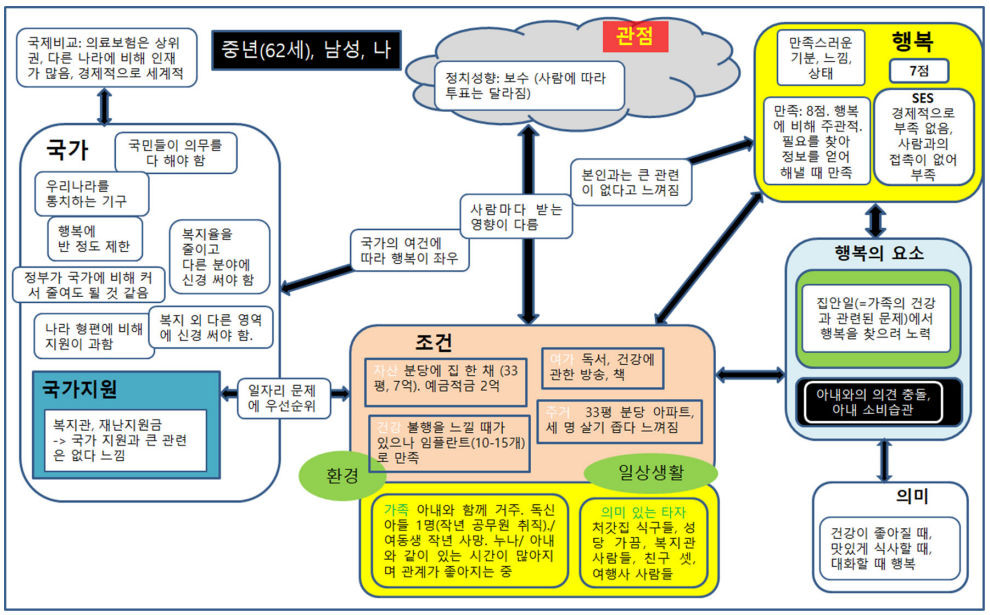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들은 보수적인 정치적 이념 성향을 보이며, 정부 규모의 유지, 효율적인 정책 운영, 선별 복지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지, 주거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지금 여기에서' 그들에게 국가의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3] 중년, 남성, 가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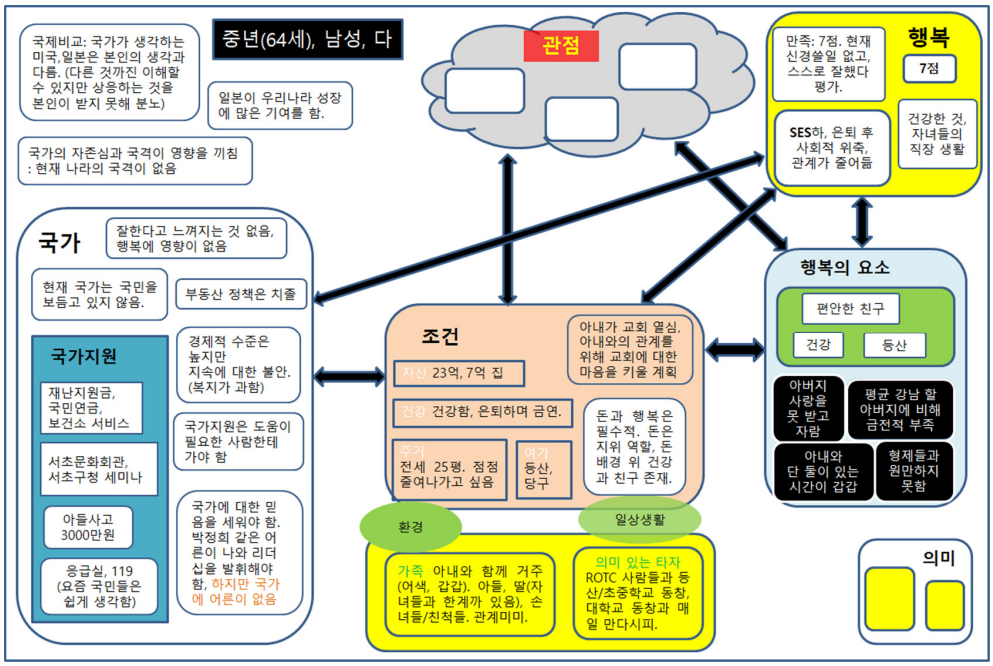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4] 중년, 남성, 나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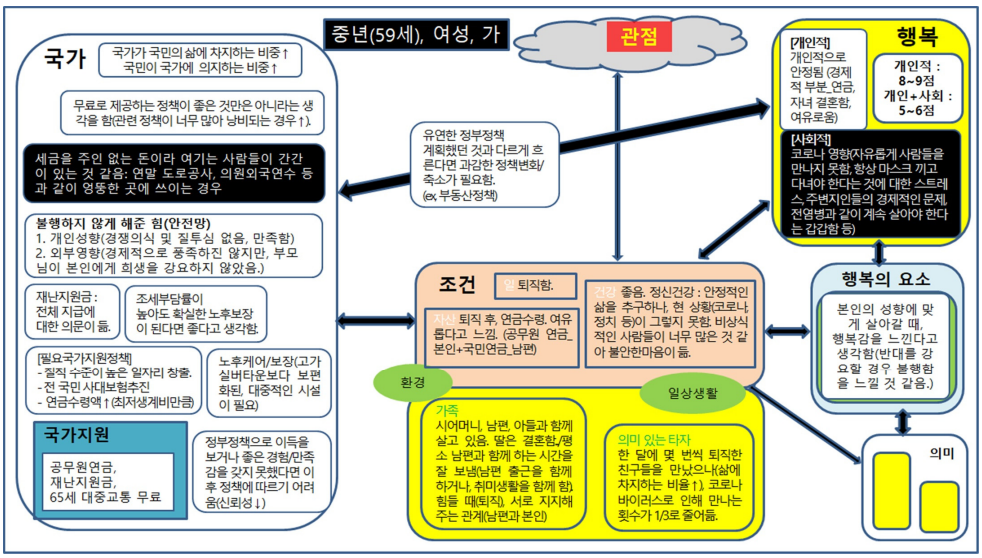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5] 중년, 남성, 다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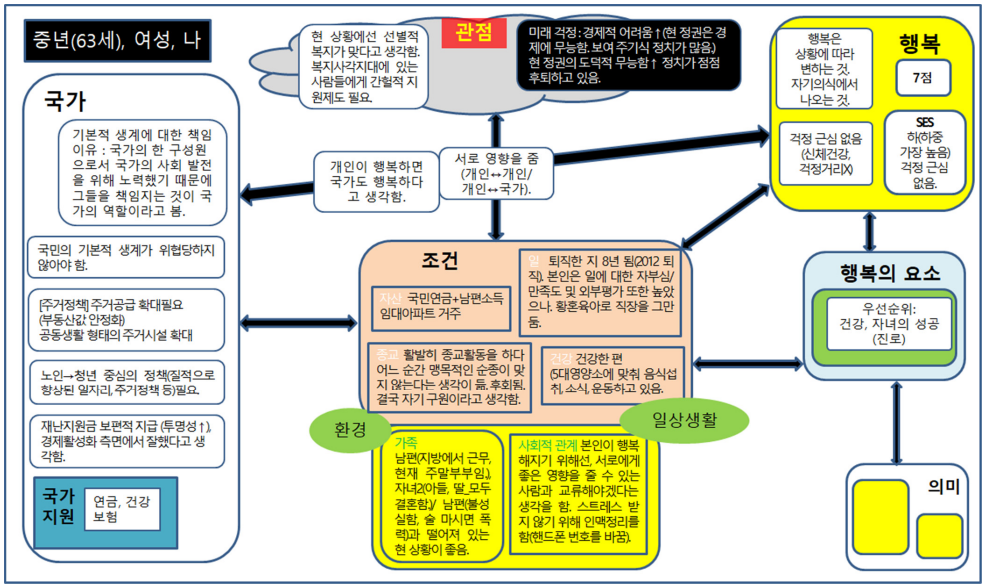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6] 중년, 여성, 가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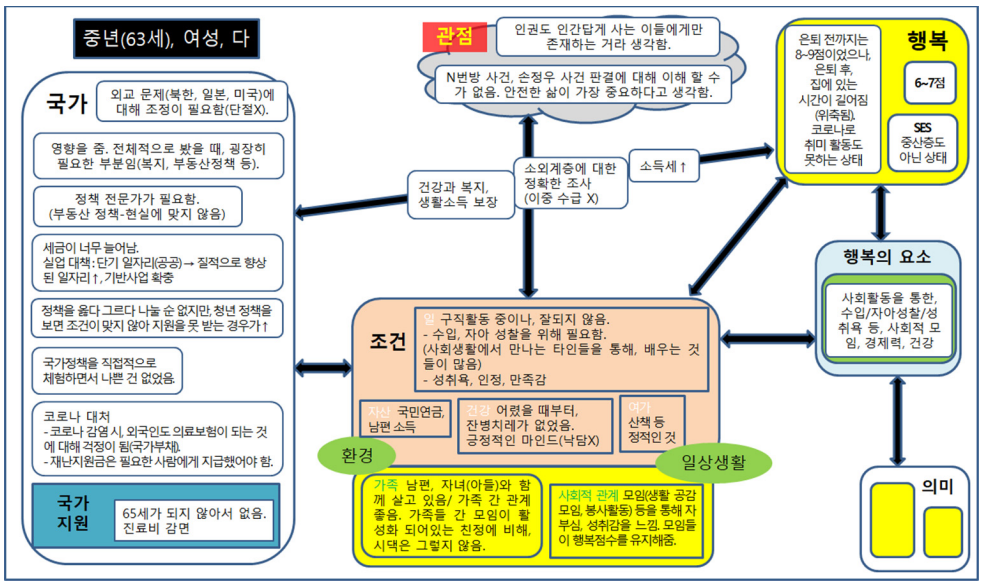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7] 중년, 여성, 나의 행복의 맥락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8] 중년, 여성, 다의 행복의 맥락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노년: 70-75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70세인 노년, 남성, 가의 행복 점수는 만점, 만족은 9점, 사회적 지위는 9점 이상, 경제적 지위는 8-9점이라고 하였다. 그는 매사에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서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으며,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서 자신을 존경하고 있으며, 남들도 부러워 할 만큼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불만족스러운 것은 장학재단을 만들지 못한 것과 자아실현을 하지 못한 것, 재능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등이라고 하였다. 그는 운동할 때와 봉사할 때 가장 행복하며,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속 썩이는 주민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다. 그가 국가지원으로 여기는 것은 공무원 연금과 과거에 공무원으로서 받은 지원들이었으며, 치안, 사회 안전망, 교통 시스템이 좋아서 행복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국가와 국민은 상호작용하는 양방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를 떠나 국민이 있을 수 없고, 국가가 부강해야 개인이 부강해진다고 하였다. 국가의 힘으로 개인의 힘이 생기며, 국가 덕분에 행복과 만족 점수가 생기고, 국가로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미래에는 국가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며,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 국가의

개입은 지나치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73세인 노년, 남성, 나의 행복 점수는 7점, 만족은 4점, SES는 중간 수준이었다. 현재의 행복 수준은 꽤 괜찮은 정도지만, 아직도 뭔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만족은 4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SES는 중간 정도라고 하였다. 행복의 긍정적 요소로는 독서, 걷기, 투자를 위한 회의 등을 들었고, 부정적 요소로는 자기발전 제한으로 인한 욕구불만을 들었다. 그는 시세 12억의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억여원 상당의 주식 투자금이 있다. 그는 국민연금 350만원도 받고 있고, 재난지원금도 받았다. 소득수준이 높아 특별한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의 재산과 소득은 안정적이고 넉넉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영역들이 발전되었으며 사회복지 수준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고, 국제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더욱 선진화를 위해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에게 국가는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는 자신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75세인 노년, 남성, 다의 행복 점수는 7점이며, 삶에 대한 만족은 5점, SES는 중 수준이었다. 그는 대체로 행복한 편이지만 지인들의 사망으로 작년보다 1점이 감소했다고 하였고,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 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안 되어 5점을 준다고 하였다. SES는 완벽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간이라고 하였다. 1억 5천 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이 자산의 전부이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는 가족-경제력-마음의 여유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적응하고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성취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하였다. 그는 건강검진과 연금, 건강보험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자신과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가 복지에 신경을 써줄 때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주된 역할은 국민을 바라보고 위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대체로 진보에 가까운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현 정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선거가 있을 때 빠짐없이 투표를 하고 있다.

70세인 노년, 여성, 가의 행복 점수는 8.5점, 만족은 5점, SES는 중하 수준이었다. 행복 점수에서 빠진 1.5점은 본인의 건강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걱정의 몫이었다. 그는 만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행복 점수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고 하였다. 만족 점수는 더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는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며, SES의 판단 기준은 경제력이었다. 행복의 요소에서는 건강과 자녀결혼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가 갖고 있는 자산은 자녀의 도움과 남편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을 포함하며,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종교생활에 행복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가 인지하는 국가지원은 재난지원금 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국가 부채가 많아질까 봐 걱정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외교와 경제 측면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까봐 걱정이다. 그는 개인의 삶에서 국가가 크게 느껴지며, 국가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국가가 있음으로써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70세인 노년, 여성, 나의 행복 점수는 만점, 만족도 만점, SES는 중간 수준이다. 최근 황혼 육아에서 벗어나 해방된 기분이며, 그것이 행복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행복의 요소로는 부부관계와 일, 봉사 등 활동을 들었으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빌라 두 채를 소유하고 있고, 오피스텔 월세와 보훈연금, 공공활동 수입 등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성인병 이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고, 가족관계도 좋은 그에게 특별히 행복을 갉아먹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가 인지하는 국가지원으로는 보훈연금과 재난지원금, 의료보험 등이 포함되었고,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매우 잘 되어 있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옛날에 비해 아주 살기 좋아졌고, 편리하며,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국가가 망하면 국민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 대해 진술할 때는 세금이 새고 있다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다거나 너무 복지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72세인 노년, 여성, 다의 행복 점수는 7점, 만족도 7점이었다.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상태이며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였으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족은 행복과 같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행복의 요소로는 자녀의 행복과 건강, 재정 등을 들었다. 그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살아가고 있으며, 자가 아파트 한 채와 자녀의 도움과 봉사를 통한 수입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인지하는 국가지원에는 기초연금, 공공 일자리,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노년 세대 중에서 가장 다양성을 가진 답변이었다. 그는 현재 복지제도에 만족하며, 더 바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상의 개인의 문제이며 복지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며,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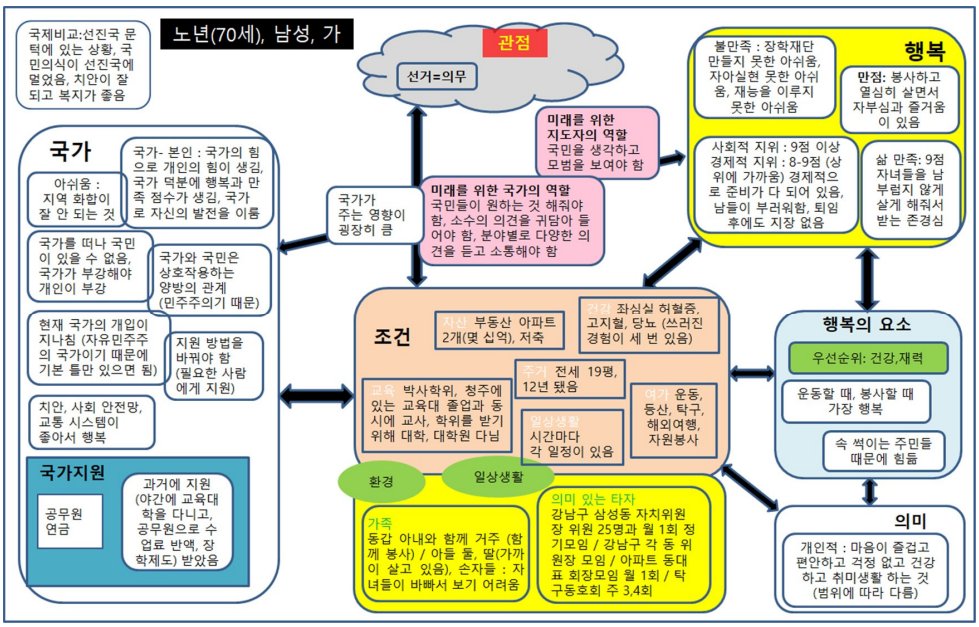
으로 국가의 미래가 밝지만, 남녀평등,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 참여한 노년 세대의 행복 점수는 모두 7점 이상이었으며, 만점도 2명이나 있었다. 행복의 기준이나 요소, 의미 등은 저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자산, 건강, 가족, 일 또는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을 이루는 조건들이 나쁘지 않고, 특히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노년 세대는 65세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가 지원은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가 개입 수준, 정책, 복지 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이 반영된 관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이들은 국가가 더 이상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편이고,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이들은 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기를 바라는 입장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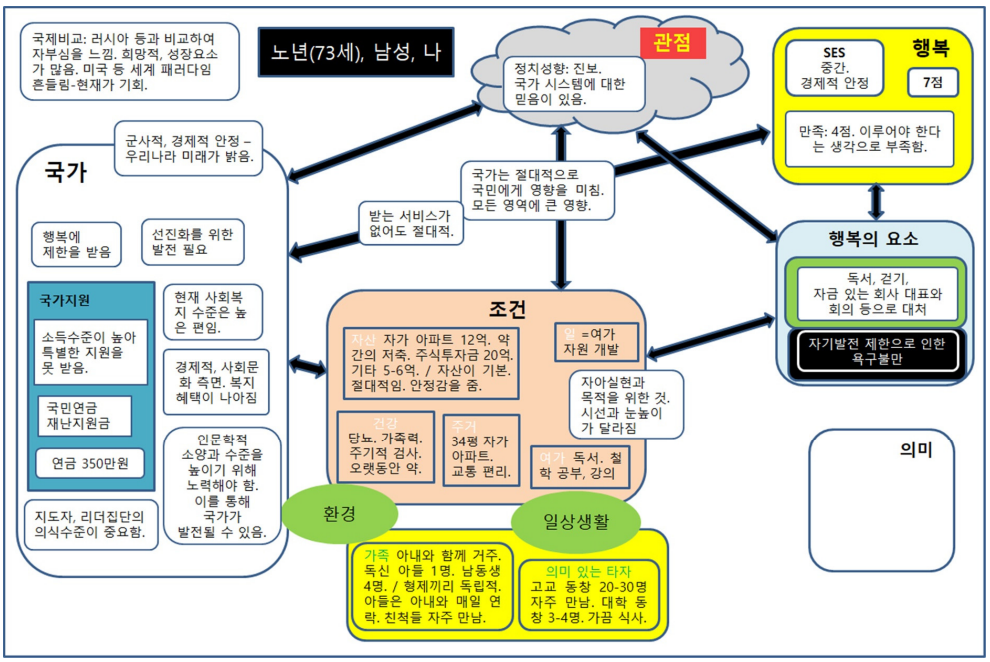
또한 이들 노년 세대는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국가와 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체로 국가가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다른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여하간에 이들 모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과 복지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다만 북한과 관계를 포함한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림 6-19] 노년, 남성, 가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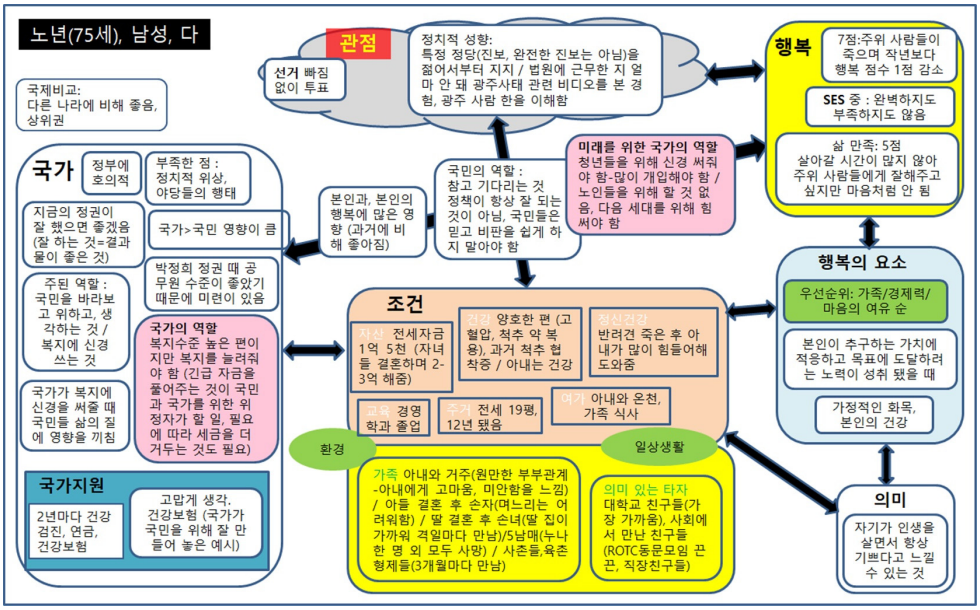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20] 노년, 남성, 나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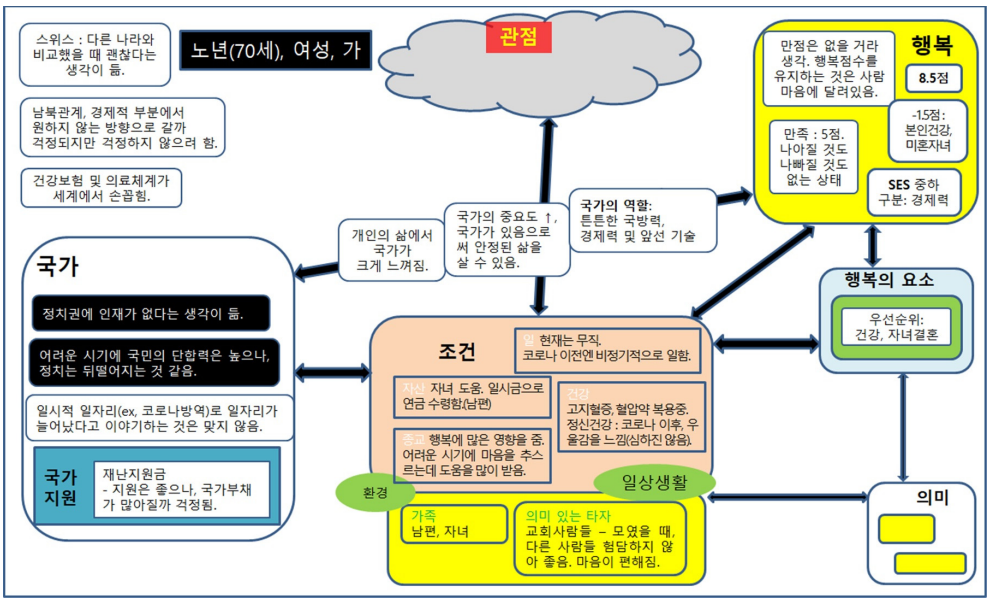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21] 노년, 남성, 다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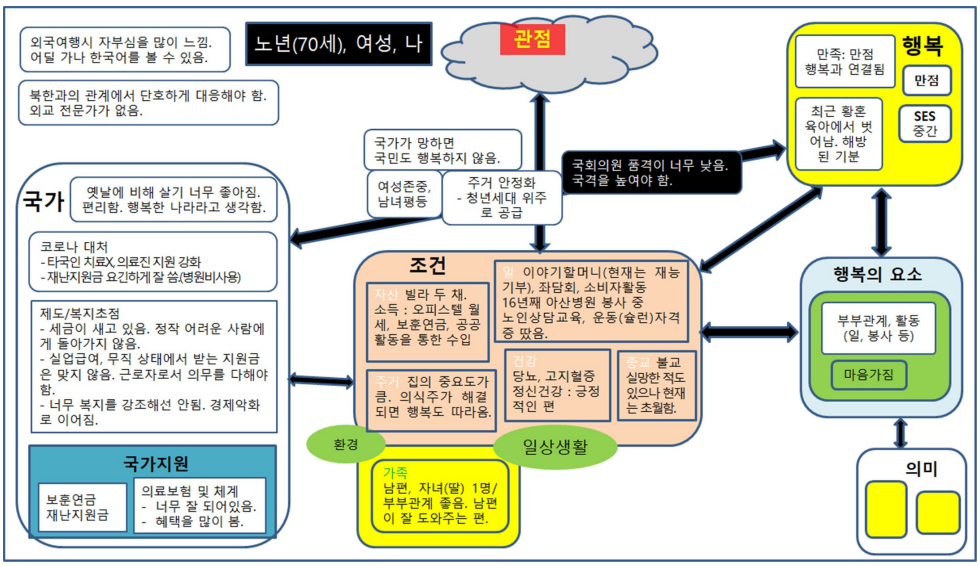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22] 노년, 여성, 가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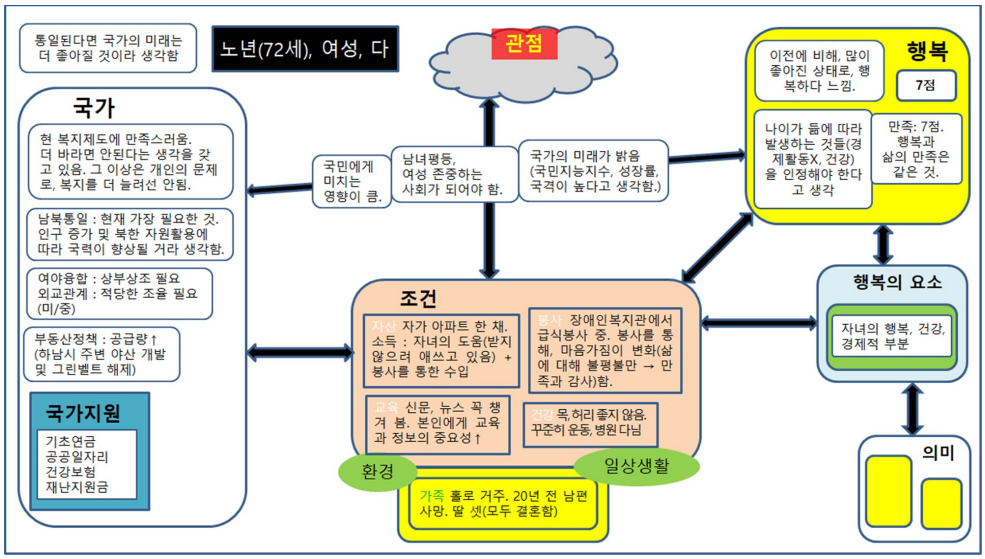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23] 노년, 여성, 나의 행복의 맥락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24] 노년, 여성, 다의 행복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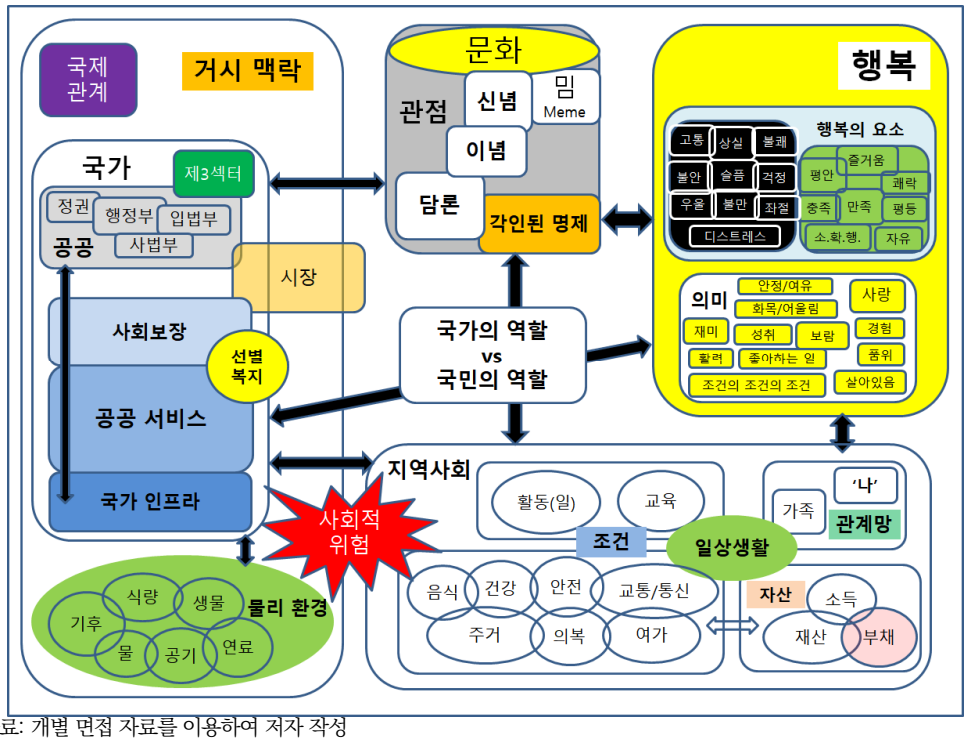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 개별 사례들의 맥락에 대한 통합분석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세대별 분석을 넘어서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초점이 국가와 국민 행복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6-25]에서 보는 것처럼 통합 분석 결과는 국가가 포함되는 '거시 맥락'과 개인의 '행복' 맥락,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개인의 '조건'과 국가와 조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관점'으로 구성되며, 한 가운데에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역할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입장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림 6-25] 한국인들이 경험한 국가와 행복의 맥락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25]를 중심으로 국가와 행복의 관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은 현재 시점의 행복 수준에 대한 평가('행복 점수'와 '만족'), 그러한 행복을 이루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 그리고 행복의 토대가 되는 조건들에 대해 부여되는 '의미'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행복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의 객관적인 측면은 다양하고 복잡한 '일상생활'의 '조건'들과 '환경', 그리고 '사회적 위험'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의 조건은 수도 없이 많지만, 대체로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것은 가족 관계, 건강, 활동(일과 여가), 자산(소득과 재산), 사회적 관계, 주거환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기후와 물, 공기 등 물리적 환경을 추가할 수 있고, 각종 사회적 위험도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국가는 좁은 의미에서 '(행)정부'를 의미한다. 국가의 역할을 정부의 기능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기획하고 수행하는 국가 인프라의 구축과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보장 체계의 운영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국가, 국가의 역할, 국가 지원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 속에 떠올린 것들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개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사업은 법률에 의해서만 수행되므로, 실제 국가의 범위는 여당과 야당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입법부와 중요한 이슈와 분쟁이 발생할 때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 중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민간 영리조직들과 비영리 조직들, 그리고 비공식 부문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 모든 주체들이 국가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의 '거시 맥락'을 구성한다.

거시 맥락과 조건들, 그리고 국민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그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관점'의 역할이다. 관점도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것으로 광범위하게 구분될 수 있다. 앞서 예시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와 그 국가의 다양한 하위집단들이 그 집단 내에서 공유하는 하위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과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이슈들을 맞닥뜨렸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념'들이 거시적인 관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는 이념은 선거 때 표를 던지듯이 단순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개별적 판단들의 복합구성체이며, 특정 시공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각 이념집단에 포함된 개인들의 판단도 그때마다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담론'의 개념을 떠나서, 여기에서는 담론을 특정 공간과 시간 틀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다른 집단과 소통하면서 변해가는 생각들과 그것이 표현되는 '이야기'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는 그저 특정 바이러스

의 창궐에 불과하지만, 특정 시공간 내에서 회자되고, 그 사회의 헤게모니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이야기되며, 그에 따라 그 사회의 대처방식이 결정된다.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자신의 신념과 이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특정 담론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각인된 명제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그 명제가 국가의 정책과 역할, 기능을 해석하게 하며, 특정 시점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일상생활의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각자의 조건과 그 맥락을 조성하게 되며, 그 조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행복 요소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국가와 개인의 행복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일단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결과들만을 놓고 볼 때,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행복 수준과 일상생활의 조건 내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나 영향을 과소평가 내지는 과소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행복에 대해서만 먼저 물어보았을 때는 국가에 대해 거의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이나 국가의 정의, 국가의 역할, 국가의 영향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국가와 개인의 행복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또한 세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국가 지원에 대해 매우 단순하고 좁은 범위에서만 언급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서 예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정책 파문 등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과 국가의 역할, 그리고 나아가 국가의 정의에 대한 화두를 한국 사회와 국민들에게 던졌고, 국가에 대해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한 국민의 역할, 다른 국민들을 위한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2.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분석

가.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연구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국민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영향을 받는다. 유사한 맥락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따라 개인 행복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의미, 영향은 달라진다. 이에 우선,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2019년 행복 연구(정해식 외, 2019)에서 다루어진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젊은이들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서 자유 혹은 자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믿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누군가 나를 돌보아 줄 것이라는 느낌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등의 이야기에서 자유, 평등, 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복지제도를 이해하는 듯하다. 이들 국가의 노인은 "현재의 복지사회와 평등의 이념은 국가가 시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에 의해 획득한 것", "현재의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근대적인 계급투쟁의 산물이라는 진보적 관점 견지", "복지국가(사회)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닌, 사회성원들이 만드는 것" 등의 기술에서 복지를 국가로부터의 선물이 아니라, 국민의 노력으로 쟁취한 결과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선진 복지국가의 국민에게 국가의 복지는 이상적인 명분(자유, 평등, 정의 등)을 좇아 국민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고 소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이번 2020년 행복 연구에서 만난 24명의 국민은 복지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매우 다양한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복지에서 이상적인 대의명분이라는 것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복지는 국민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생색내기 혹은 포퓰리즘 정도로 소비되거나 실용적 차원에서 이해된다. '나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혹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국가의 복지를 이해하는 듯하다.

"좀 정책이 실용적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 실용적인 정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할 때 일처리를 정책들 할 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금 주는 거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세대주한테만 주는 거였잖아요, 그게. 시에서 카드 주는 거 말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준 재난지원금 같은 건 세대주한테만 가니까. 물론 개개인한테 가면 일처리가 많아서 하기는 할 텐데. 그 정책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시에서 카드 줄 때도 그때 선불카드 주는 게 있고 지역화폐카드 주는 게 그때 방법이 있었잖아요." (청년 여성, 가)

그러기에 흔히 말하는 복지에 대한 잔여적, 선별적 입장이 많이 발견된다. 가끔 보편적 입장도 있다. 복지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고통받는 국민을 살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또 다른 보호자로 국가를 인식하는 것, 국민으로 세금을 많이 냈는데 못 받으면 억울하다는 것 등으로 드러나 평등, 정의, 자유라는 가치와는 거리가 있었다.

"(재난지원금) 이건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전체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그 풀어주는 것이 위정자들이 할 일이죠. 정말로 많이 여유가 있다면 많이 풀어서 그건 국가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이 풀어서 국민들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게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 것은 잘한거죠." (노년 남성, 나)

"저는 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잖아요. 세금을 더 내는데 그거 못 받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 그게 더 불평등한 것 같아서 다 주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청년 남성, 가)

한편, 선별주의를 반대하고 복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밝힌 연구 참여자 가운데 20대 청년 여성의 이야기는 인상적이다. 이 여성은 선별주의가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기에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모두에게 준 건 잘 한 거 같아요. 차등을 두게 되면 분명히 너네는 못 사니까 더 줄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그럴 수 있고 차등을 두면 계층 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소외 계층이 폭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못 사는 애들을 왜 내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냐 그런. 차등을 두면 그런 일이 발생했

을 거 같아서. 나도 힘든데 왜 쟤네 도와줘야 되냐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청년, 여성, 나)

연구 참여자 대부분에게 있어, '필요'가 복지를 행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필요에 따라 과도한 복지, 납득할 만한 복지 등으로 구분된다. 말 그대로 복지에서도 '선'이 있어서 '선'을 넘는 복지는 과도한 복지가 되는 셈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선'을 넘은 과잉은 안된다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중년, 노년 세대에서 과잉은 국가 부채의 증가,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닿아 있다. '선'에 대한 인식은 청년 세대의 경우 좀 더 확대된 형태를 띠는 듯하다. 이들을 청년 대상 다양한 제도를 일찍 경험한 결과, 국가, 제도, 복지를 인정하는 폭, 즉 '선'이 다른 세대에 비해 확대된 형태를 갖는다.

"그 당시에는 70%가 우리가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70% 대상이 되니까 사실 전부 다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 국가재정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뭐 돈 많은 사람들 줄 필요가 있나. … 우리는 또 해당이 될까 70%에. 사실 이게 좀 우리나라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퍼줄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절약하고 그렇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요?" (중년 남성, 다)

"(재난지원금) 인기영합주의고. 4월 13일 선거 전전날 우리 딸한테 80만원이 찍혔어. … 그거 일환으로 보는거거든요. 그런거 없는 사람에게 줘야지. 내가 잘 사는게 아니고 나는 주니까 좋지 그런 차원이고 절실한 건 아니다 이거지.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건데. … 한번 더 하려고 그러는거지 이런 시각으로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중년 남성, 나)

"젊은 애들이 고생하고 빚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쓸데없는 돈 남발하지 말고, 나라가 빚 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라나는 애들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도 평화롭게 잘 살아야지. 너무 복지, 복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쓸데없는 복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런데 유럽 같은 데도 복지를 너무 퍼주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노년 여성, 가)

'필요'에 대한 개념에서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되는 것이 흥미롭다. 중년/노년 세대에서 '필요'는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절실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20대 청년 세대에서

‘필요’는 소득과 무관하게, ‘~하려는 사람’, ‘~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구체화된다. 이전에도 물론 ‘자격 있는 빈민’ 개념에서 ‘~하려는 사람’ 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개인이 처한 맥락 보다 개인의 의지와 원함(want)이라는 변수를 청년세대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라는건 이제 제일 먼저 어제 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좀 장애인들 노인들 그런 사람들 보살펴주는거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중년 남성, 다)

“(재난지원금) 그런 거 없는 사람에게 줘야지.” (중년 남성, 나)

“국가가 복지,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면 그건 삶의 질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는 사회에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도와줄 곳은 많이 있죠. 많이 국가에서도 그동안 많이 찾아서 지금 해주기는 해주는데 도 그래도 부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 줘야 할 것은 많죠. 국가가 그런 사람들 찾아서 ~ 그 삶의 질에 조금 보탬은 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국가가 해 줄 일이죠” (노년, 남성, 나)

“(국가장학금을) 전부 다 하는 건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열의가 없을 수도 있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고 소득에 상관없이. 그런 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 여성, 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하면 되고 필요한 사람은 뽑아서 선별하고 선별한 것에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청년 남성, 나)

‘필요’에 대한 청년의 해석에 따르면, 소득이 낮다는 이유(‘결핍’)만으로 의지도 없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효율적인 낭비일 뿐이다. 그것은 치열해진 경쟁 사회에서 생존해야 하는 청년 세대에게 ‘생존 노력에 대한 인정’이 곧 국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이 적절할 때 국가를 느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20대 청년 남성의 이야기는 이러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다.

(국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 뭐 이런 취업정책이라든지.

지금 취업률도 국가가 어쨌든 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 취업률 자체가 낮아지면 행복도가 당연히 낮아질 것 같고 취업준비생 입장으로서. (중략) 그냥 가장 최근에 인국공 사태 때문에 별로 행복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 제가 취업준비생이니까 잘 그래도 국가가 해 주는 게 있구나. 정말 힘든데. 그건 좀 느꼈고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보면서 다시 별로 안 좋아졌고 그랬어요. (중략) 평등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약간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운에 의해서 좌우 되는구나 뭔가 인생이 이런 느낌을 받으면 별로인 것 같아요.… 다들 어렸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 가져서 좋게 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돼 버렸잖아요. … 공기업이나 사기업도 약간 그 지역을 우대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 살아본, 그 지역 근처 대학교나.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역차별까지 받는 느낌이어서.” (청년 남성, 가)

이처럼 세대별로 제각각 규정하는 ‘필요’와 그에 따른 복지의 필요성은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원에서도 세대 간 인식의 차이로 드러난다. 결핍 상황으로 ‘필요’를 인식하는 중년과 노년 세대에서는 청년수당과 같은 현금 지급보다 일자리 제공을 상당히 중시한다. 그러나 생존에 대한 인정 혹은 생존을 위한 기회로 ‘필요’를 인식하는 취업준비생 20대 청년세대는 청년수당, 기본소득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다.

> “국가라는 복지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니까. 경제적 지원. 중요하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소득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 여성, 나)

> “기본소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봤을 때에는” (청년 남성, 나)

> “기본소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유럽에서는 하다가 실패했다고도 보기는 했는데 기계들이 이제 대체하잖아요. 그럼 많은 실직자가 생길 거고 … 그래서 그 기계가 다 대체하되 기본소득을 최저생계비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주면 … 그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거의 없으니까 … 부작용까지 저도 정책에 대해서 잘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청년 남성, 가)

"지금 현재 청년실업수당까지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참 놀고 있는 걸 지원한다? 걔들 줄 때는 그 남은 기간에 몇 달 동안 바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워서 고용을. 집단에 가서 취직을 하라고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현재가 어떻냐. 그런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비율적으로. 나머지는 다들 주니까 받아쓰자. 그 돈 어디로 가느냐. 카페 가서 커피 마셔. 오락실 가서 오락 해. 그러면서 써버려요. 이걸 잡아야 돼. 잘못된 쓰는 돈을. 이걸 잡고 직접 직업학교 더 많이 생겨. 수업을 시켜서. 하나만 해." (노년, 남성, 다)

둘째, 복지는 투쟁을 통해 얻은 산물이 아니다. 노년 세대에게 복지는 시혜(베푸는 것)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는 노년 세대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으로 해석,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노년 세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개입을 시혜로 읽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장년 세대의 경우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읽힌다. 20대 청년에게 복지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생존을 위한 기회이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첫 번째에서 언급한 '필요'에 대한 해석이 차이와 연결된다. 결핍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 노년 세대의 연구참여자에게 복지는 시혜인 셈이며, 생존에 대한 인정, 생존을 위한 기회로 '필요'로 느끼는 젊은 세대에게 복지는 열심히 사는(그래서 세금을 내거나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아까 얘기했던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요. …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중년 남성, 다)

"저는 정말로 고맙게 받아서 썼어요. 왜냐하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주는 돈이니까. 자기 선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국민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그 대신 뭐 먹고 이렇게 헤프게 쓰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거 사 쓰고 저 등산복 사고." (노년 남성, 나).

"(재난지원금)받는 거기는 한데 제가 낸 세금에서 오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돌려받는다는 느낌이지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는 느낌으로 오지는 않아요." (장년 남성, 가)

"평등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약간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구나 뭔가 인생이 이런 느낌을 받으면 별로인 것 같아요. … 다들 어렸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 가져서 좋게 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돼 버렸잖아요. … 공기업이나 사기업도 약간 그 지역을 우대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 살아본, 그 지역 근처 대학교나.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역차별까지 받는 느낌이어서." (청년 남성, 가)

셋째, 복지가 투쟁의 산물로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자부심을 느끼는 대목이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에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의료체계에 대한 높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하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는 이야기를 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의료체계에 대한 자부심은 모든 세대에서 공히 나타난 현상이다.

"솔직히 그전에만 해도 잘 못 느꼈거든요. 코로나 전 때만 해도 잘 못 느꼈고 의료보험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고 실제 미국 같은 데에서 다시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그 의료보험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올 수 있고 오면 다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솔직히 유튜브 같은 거 요즘 많이 보면 그렇게 외국 사람들은 민간요법 관련된 거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런 거잖아요. (중략)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10 만점에 한 5, 6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엄청 올라갔어요. 한 8, 9." (장년 여성, 다)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보건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정말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보다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라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장년 남성, 가)

"건강보험이 많이 싸졌대요. 옛날에는 엄청 나왔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의사선생님한테서 집 팔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노년 여성, 가)

"좀 더 의료보험 같은 건,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중년 남성, 다)

"이번 코로나로 좀 확실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늘 동경하고 했던 그곳은 지금 코로나 했을 때 정말 국민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그런 나라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그러한 혜택이나 복지나 관리 측면이 너무 우수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세금도 엄청 많이 내고 그만큼 복지 얘기 엄청 많이 했었던 나라들도 이번에 코로나로 그렇게는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무료로 저희는 다 해주죠. 거기다가 심지어 서울에서는 의심만 들어도 해주죠. 그런 게 솔직히 어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도 완전 중국도." (장년 여성, 다)

넷째, 복지 인식에서 자기이해, 확장된 자기이해 등이 발견되었다. 복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기 이해는 복지 수급 경험, 복지 수급 가능성에 따라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또한 확장된 자기 이해는 각 개인이 복지 인식 형성에 있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 존재하는 타 세대 구성원의 이익까지 고려한다는 개념이다(은석, 2019).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도 자기이해, 확장된 자기 이해가 발견되었다. 20대 취업준비생 청년의 경우 자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아진 것에 대해 만족하였다. 장년 세대의 경우, 부모 세대 부양과 자녀 돌봄의 이슈를 모두 갖고 있어 확장된 자기 이해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런.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뭐 취업률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남성, 가)

"정치적 발언으로 느낄 수 있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 전에 비해서 … 제도도 이번에 들어서면서 제 또래에 맞는 정책이 많아졌어요. … 저는 그거에 만족했거든요. … 전체적으로 나라에 방향이 제가 원하는. … 5-6년 전부터 언제까지 성장, 성장 타령할 거니. 복지 좀 신경 써야지 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 삶의 만족도는 높여야 되는 시기. 그런 방향으로 가길 원했는데. 방향은 그런 거 같아서. 안정감을 느껴요" (청년 남성, 다)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셔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되죠. (중략) 일자리 창출하는 거. 어떤 식으로 창출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제 아버지 생각하면 노인 일자리도 좀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창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청년에만 너무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아서" (장년 남성, 다)

"전체적인 수준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커스를 둬야 할 분야의 비율을 다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 지금 삶을 하위 계층의 삶을 조금 높여 준다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미래 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주면 좋겠어요." (장년 남성, 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펴서 내가 저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나쁜 건 없어요." (중년 여성, 나)

한편, 자기 세대에 대한 정책이 많아져서 만족하는 것에 덧붙여, 정책 혹은 서비스의 질도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는 배우는 것도 아무래도 퀄리티 차이도 있고, 그리고 국비 수업은 아침부터 계속 가야 된데요. 매일매일 가야 하니까. 그게 매일매일 가야 할 정도로 수업의 가치를 못한다는 말도 있어서 사실 그것도 힘들기도 하고. 수업도 한정적. 시간이 한정적인 느낌이고 거리도 좀 있고 하니까. ... (취성패) 3단계 했는데. 이제 2단계 넘어가야지 그게 상담사도 잘 얘기를 안 해 줬어요, 피드백을. 그래서 연락을 잘 안 했는데. 그래서 3월쯤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웹디를 배우면 그런 걸 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취성패를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거기 상담사가 그게 넘어가는 게 안 된대요, 3단계에서 3개월 이상 지나면.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주고 뒤늦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과도 '죄송합니다'하는데 싫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 상담사 카톡에 답장 전혀 안 했어요. 4월이면 끝나서요. 좀 그런 걸 미리 알려줬으면." (청년 여성, 가)

"어린이집 이용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사실 그 아이를 아침 7시 반부터 밤 7시 반까지 이제 맡길 수 있는 운영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사실은 저도 일을 하지만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 어린이집이 거의 한 4시, 4시 반에 거의 다 아이들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 후에 이제 어디 갈 곳 없는 아이들 돌보는

제2의 어린이집 같은 그런 사업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장년 여성, 나)

본 연구 참여자 가운데 중년/노년 세대의 경우 건강과 관련하여 경험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높은 만족으로 이어졌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둔 중년 세대에서 자식의 미래와 관련된 걱정이 구체적인 정책 선호로 나타나기보다, 부채 증가가 젊은이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보였다. 손자녀 부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노년 참여자의 경우도 어린이집에 보낸 후, 돌봄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는 보였지만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 정책에 대한 선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의료비도 많이 보탬이 되죠. 건강보험도 그렇고 병원비도 많이 안 들잖아 우리 노인네들은 참 세계적으로 제일 쌀 거예요.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 치과고 뭐고 거의 다 웬만한 암 같은 것도 많이 되잖아 우리나라. 그런 거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노년 여성, 나)

“걱정돼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외국인도 다 된다면서요. 우리 아들들이 미래에 애들이 그걸 다 어떻게 갚을거예요. 그것도 걱정이야. … 저에 대한 생각은 안해봤고 우리 애가 이제 60대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살아갈건가 그 생각이 들죠. 어려울 거 같아요. 우리 복지 여러 가지 혜택을.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걱정이야. 열심히 내고 있는데 진작 애가 혜택 받을 때는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중년 여성, 다)

“젊은 애들이 고생하고 빚 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쓸데 없는 돈 남발하지 말고, 나라가 빚 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라나는 애들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도 평화롭게 잘 살아야지. 너무 복지, 복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쓸데없는 복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런데 유럽 같은 데도 복지를 너무 퍼주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노년 여성, 가)

자기이해 혹은 확장된 자기 이해를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청원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는 국가개입에 공감할 수 없다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이해관계를 벗어난 정책에 대한 선호는 가능한 것인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 "00직 전환. **직 00직 전환 그건 제 남편이니까 그거(청원) 했고 그다음에 또 아기 무슨 사건 사고 같은 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지? 버스. 어린이집 차량에서 뭐 아기가 죽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되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안 했어요. 자기 아들이 미국 거기서 미국에 있는 무슨 관광지에서 떨어졌는데. … 그런 건 공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왜 국가 돈으로 해야되지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슈가 됐어도 좀 제가 그래도 공감이 되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되게 불법 성 관련된 거 불법 성 관련된 거 사이트 운영하다가. 예. 그런 거 왜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제가 진짜 읽어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가 되면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너무 개인적인 거다. 그런 거는 굳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개인적인 거. 왜 국가가 아무리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장년 여성, 다)

한편, 특정한 자기 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더 어려운 사람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선별주의가 계층 갈등을 낳는다고 말한 '청년 여성, 나'의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면, 대학 시절에 수강한 관련 교육 및 독서 활동 등이 이러한 생각 형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걸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구나. 긍정적이고 요즘 관심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회 소외층에 대한 지원, 복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청년 여성, 나)

> "모두에게 준 건 잘한 거 같아요. 차등을 두게 되면 분명히 너네는 못 사니까 더 줄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그럴 수 있고 차등을 두면 계층 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소외 계층이 폭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못 사는 애들을 왜 내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냐 그런. 차등을 두면 그런 일이 발생했

을 거 같아서. 나도 힘든데 왜 쟤네 도와줘야 되냐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청년, 여성, 나)

"(현재는 비혼주의자) (신혼세대 지원) 신혼부부 자체는 어느 정도 효과 있다고 생각해요. … 나라는 출산율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수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 보면 그래도 좋은 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은 회사 안에 어린이집도 잘 돼 있고. … 여성분들은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나 하지만 아직까지 임신하면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다 있지만 쓰기 힘들잖아요. … 애 낳으면 일 그만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크고." (청년 남성, 다)

3. 국가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국가의 통치 행위는 국방, 치안, 교육, 환경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하기에 다방면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국가 통치 행위를 모두 복지로 표현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에 대한 특정한 정의를 시도하지 않았고 매우 포괄적으로 국가의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잘 모르겠다, 둘째,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 중요하다. 셋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등으로 나뉜다.

가. 국가의 영향, 모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영향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경우는 중년, 노년 세대에서 좀 더 두드러졌고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세대에서는 반대 입장이 많았다.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소위 자수성가형 국민의 경우 국가의 영향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자수성가형 사고를 갖는 경우 국가의 지원을 어색하거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크게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주는건 필요 없는거고 국가에서 정치를 잘 해가기고 어떠한 근심 같은게 없게 만들고 문제를 잘 해나가고 그러면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거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무슨 도움 받는 건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중년 남성, 다)

“사람마다 아까 얘기했던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요. …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중년 남성, 다)
“나는 (재난지원금) 반대했어요, 처음부터. 꼭 필요한 사람은 더 줘야 해. 그러나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한테는 그거 주지 마. 내가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남한테 얻어먹는 거. 나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줘라, 차라리. 없는 사람은 주고 우리가 참으면 되지.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모이면 토론을 막 하잖아. 받자 뭐 말자. 그건 아니다. 뭐 억지로 다 준다면 받지만 그거 주는 거 아니다. 그거 받았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노년 남성, 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내 돈을 내고 내가 받은 것’이라는 표현한 경우도 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혹은 생각해보니 국가의 역할을 깨닫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연금 같은건 글쎄요. 연금은 우리가 연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이를 받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거니까 관계가 있겠네요.” (중년 남성, 다)

“국민연금은 받고 계시죠. 어머니는 일 안 하시고 아버지가 국민연금 받고 계시죠. 국민연금 아버지가 내셨으니까 받는 거고, 그걸 국가에서 해준 거라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장년 남성, 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할 때 개인 삶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인식도 보인다. 그것은 다양한 국가 정책을 보고 듣고 때로는 이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옛날에 비해서는 국가가 참여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또 실제로 국가에 기대는 부분도 많아졌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별로 경찰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삶에서 멀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중년 여성, 가)

나. 국가의 영향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국가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특정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는 국가의 비중이 크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큰 위기 상황 혹은 국가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영향이 크다는 식이다. 중년, 노년 세대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특정한 사람'이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청년, 장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중심으로 국가의 영향을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 "사람마다 아까 얘기했던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요. ...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중년 남성, 다)

> "지금 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가 정말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년 남성, 가)

다. 국가의 영향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해야 합니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세대에서 그 중요성을 드러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구체적인 경험에 따른 국가의 영향력을 언급하였고 중년, 노년 세대의 경우 구체적인 경험보다는 다소 막연한 수준에서 국가의 영향을 기술한 점이 다르다.

> (국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 뭐 이런 취업정책이라든지. 지금 취업률도 국가가 어쨌든 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 취업률 자체가 낮아지면 행복도가 당연히 낮아질 것 같고 취업준비생 입장으로서. (중략) 그냥 가장 최근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 때문에 행복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청년 남성, 가).

"예전에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도 뭐 하나 보다. 특정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나보다 했는데 지금은 좀 범위가 많이 넓어졌죠. 영향을 미치는 부분" (청년 남성, 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삶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그리고 약간의 기회. 어느 정도. 솔직히 국가가 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못 찾고 조건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행복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게" (청년 남성, 나)

"생각보다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많이 주는 거 같아서. 버스 같은 노선 생기잖아요. 최근에 제가 집에서 홍대까지 가는 버스가 한 번에 생겼더라고요. 그런 제도나 이런 거나 교통이나 이런 것도. 국가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 이번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생각해 보니까 꽤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느끼고 있어요." (청년 여성, 가)

"국가가 망하고, 없어 봐야 뭐가 행복해요. 불쌍하지." (노년 여성, 가)

"이게 절대적이죠. 국가가 사람들한테 행복을 미치는 건 절대적이죠. 저는 절대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도자의 어떤 의식 수준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좌우하는. 전 ** 같은 사람 보라고. 지나간 얘기지만. 대단한. 절대적이라고 봐요." (노년 남성, 가)

그런데 이런 국가의 영향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분출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 특히 장년 세대에서는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도 자기 이해 혹은 확장된 자기 이해가 등장한다. 장년 세대에게 부동산은 미래의 노후 대비 수단이고 중년, 노년 세대에게는 현재의 실질적이고 든든한 노후의 경제적 기반인데,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이를 뒤흔들어놓아 불만의 소리가 많았다.

"저는 걸림돌. (중략) 저도 직장이 사실 정년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너무 커요. 그래서 … 부동산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또 부동산이 막 이렇게 막아버리고 …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죠. … 현재 수준만큼만 계속 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주니까 이 사회 자체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중략)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건 부동산이나 주식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 그렇다고 돈을 따박따박 모은다고 금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정책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다 막아버린 것 같아요." (장년 남성, 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는 투자를 막 선호하게끔 만들어 주다가 또 어떨 때는 지금은 너무 투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진 …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집을 두 채를 소유하고 계세요. 오빠가 살고 있는 집하고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신 집이요.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연립인데, 그래서 오빠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지금 언니랑 살고 있는 그 집을 오빠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사셨고 지금 조그마한 연립, 사실 그 아파트도 연립이었다가 아파트로 재건축을 한 것이거든요. … 아빠 노후준비를 하셔라 하고 저희가 그 집은 안 건드리겠다 했는데 아빠한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집 두 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이러면서 계속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오빠한테 그 명의를 주고 싶어도 세금 문제라든가 증여문제라든지, 아파트 한 채를 집 한 채를 팔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팔면 또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금폭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꾸려오신 게 나중에는 진짜 집이 세금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 그 동안 그렇게까지 연탄 배달 새벽까지 해가면서 모으신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금 문제 걱정해야되고 이런 게 사실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장년 여성, 가)

4. 개인의 행복에서 국가의 영향은 어떠한가?

세대별 관심사, 걱정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 즉 개인의 행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갖는 기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6-3〉과 같다.

〈표 6-3〉 세대별 관심사(걱정)와 국가 역할

세대 구분	관심사, 걱정	국가 역할
청년(취업준비생, 20대)	평범함, 생존	개인의 행복에서 국가에 대한 역할 기대는 광범위함, 취업준비생 20대의 적극적인 국가 역할에 대한 수용도 높음
장년(30대, 결혼과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	여성- 자녀양육과 직장 생활 병행 남성 - 고용안정/현재의 생활 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 인식
중년(55세 -65세,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삶의 공허함, 건강	개인의 행복에서 국가에 대한 역할 기대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효하다고 인식
노년(70세 - 75세)	건강/죽음	개인의 행복에서 국가에 대한 역할 기대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효하다고 인식

자료: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20대 청년 -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20대 청년 세대의 경우, 현재 행복한 정도를 점수를 0점 - 10점으로 표현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취업이 안되는 막막한 상태로, "불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에서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 남들만큼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야기에서는 '평범함'에 대한 바람이 읽힌다.

> "지금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직업도 제가 없어서 보호받는 단체 자체가 없잖아요. 소속이 없는 지금 약자인 것 같아서 취업 준비생이어서 일단 그래서 지위는 아래고 경제적인 것도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둘 다 낮아서 최하인 것 같아요." (청년 남성, 가)

>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런 기본적인 급여를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고" (청년 남성, 다)

> "평범하게 사는 것도 행복함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남들과 다르지 않게. 튀지 않고." (청년 여성, 다)

이들은 국가장학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소득, 근로장려금, 청년지원서비스, 재

난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며, 개인의 삶에서 국가의 영향을 크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안되는 상황은 청년에게 스트레스와 불행을 야기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바로 이러한 취업을 겨냥하고 있으니, 개인이 느끼는 행복에서 국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참여자도 행복은 아니더라도 코로나 대응이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국가가 개인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가의 영향에 대한 질문)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 뭐 이런 취업정책이라든지. 지금 취업률도 국가가 어쨌든 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 취업률 자체가 낮아지면 행복도가 당연히 낮아질 것 같고 취업준비생 입장으로서. ... 제가 취업준비생이니까 잘 그래도 국가가 해 주는 게 있구나. 정말 힘든데. 그건 좀 느꼈고 인국공 사태를 보면서 다시 별로 안 좋아졌고 그랬어요." (청년 남성, 가).

"현재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행복은 모르겠어요. 행복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행복이니까. 삶의 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책에 따라서 완전 집에 생활 방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부정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 (청년 남성, 나)

"5-6년 전부터 언제까지 성장 타령할 거니. 복지 좀 신경 써야지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 삶의 만족도는 높여야 되는 시기. 그런 방향으로 가길 원했는데. 방향은 그런 거 같아서. 안정감을 느껴요. (중략) 불안감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제일 기본적인 것. ..." (청년 남성, 다)

행복,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무엇으로 명명하듯, 청년 세대는 개인의 삶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을 중시했고 개인의 행복에 있어 국가에 대한 역할 기대 또한 높았다. 이러한 기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지, 청년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도 연결된다.

"예전에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 뭘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저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도 뭐 하나 보다. 특정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나보다 했는데 지금은 좀 범위가 많이 넓어졌죠. 영향을 미치는 부분." (청년 남성, 나)

"기본소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유럽에서는 하다가 실패했다고도 보기는 했는데 기계들이 이제 대체하잖아요. 그럼 많은 실직자가 생길 거고 … 그래서 그 기계가 다 대체하되 기본소득을 최저생계비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주면 … 그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거의 없으니까 … 부작용까지 저도 정책에 대해서 잘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청년 남성, 가)

"국가라는 복지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니까. 경제적 지원. 중요하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소득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 여성, 나)

정리하면, 대학을 막 졸업한 취업준비생, 20대 청년은 국가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특정한 사람에 대한 한정적 지원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그러기에 국가가 청년세대가 겪는 보편적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리고 국가의 대응에서는 성장보다는 복지로 패러다임의 변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쓸 때는 써야 한다는 생각, 기본소득 지지와 같은 형태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불안감이 고조된 현재의 삶, 현재 없이는 미래 또한 없다는 절박함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이들에게 국가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찾기 위해 믿고 기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이처럼 국가를 개인의 행복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새로운 세대가 바로 청년이다. 달리 말하면, 불안하지 않고 기대되는,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사례들을 보면, 지원해주는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국가가 시스템을 갖춰놓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가서 취업이 어느 정도 루트가 잘 짜여있으면 그냥 불안이 적어지잖아요. 불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 남성, 가)

나. 30대 장년 –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이 세대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자녀 양육과 개인의 일(경력) 관련 언급이 유독 많았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양육이 여성, 엄마의 역할로 규정되어, 여성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엄마로서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따른 힘겨움이 도드라졌다. 이에 비해 30대 남성은 일에서의 성공,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 유지를 위한 미래 설계 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있지만, 이들에게 육아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제가 전담을 해서 이제 봐야 하는 문제인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해결될 저의 문제인가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또 그렇다고 지금처럼 직장에서도 너무 고군분투하고 또 아이를 보는 제 엄마 역할도 계속하는 그것을 유지하는 게 과연 행복한지도 모르겠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 엄마로서 해야 하는 역할은 여전히 굉장하고 그런 게 자꾸 부딪히고 상충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택해도 이제 나을지 아무도 얘기해줄 수 없고 저도 이제 모르니까 그런 약간 물음표들이 많은 그런 거, 약간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또 언제 나아질지도 너무 보이지가 않아서." (장년 여성, 나)

> "요즘은 그냥 직장 다니고 평일에는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그리고 평일에 운동하고 주말에는 아기가 어려서 아직 6살이어서 주로 아기랑 놀아주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캠핑 가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년 남성, 다)

이 세대, 남성 연구 참여자의 행복 점수는 6점 이상이었다. 남성 연구 참여자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삶이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보였다.

> "앞으로 미래에 관한 걱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 때문에서 3점 깎인 거 같습니다." (장년 남성, 가).

"부족하다는 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뤄야 할 게 많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좀" (장년 남성, 다).

이들 남성 참여자가 미래의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가운데 부동산이 있다. 안정적 직장이 있고 맞벌이를 하는 이들 세대에서 부동산은 강력한 자산형성수단이며, 노후 대비책이다. 부동산을 활용할 계획을 세운 참여자의 경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미래 설계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30대, 맞벌이하는 직장인, 안정적 직업이 있는 직장인은 다른 어느 세대보다 자기 이해에 충실한 정책 선호를 보이는 집단이다.

"9점이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 사기만 이루면 10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장년 남성, 나)

"저도 직장이 사실 정년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 현재 수준만큼만 계속 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주니까 이 사회 자체가. ...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장년 남성, 다)

한편, 3명의 여성 참여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순간 속에서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참여자, 시댁과의 갈등,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제외하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참여자,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가장 낮은 행복 점수(3-4점)을 준 참여자가 있다. 여성 참여자는 가족(자녀 양육 포함) 관계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지금은 제 아기가 3살이어서 … 그래서 물론 너무 힘들어요. 얘가 체력적으로 제가 너무 얘의 에너지를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진짜 이 아이가 주는 행복감은 엄청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행복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본 가족도 있죠. 제 본 가족도 좀 영향이 당연히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장년 여성, 나)

30대 여성 참여자가 일과 가정(양육)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분히 개인적 차원이었다. 예를 들어 병행 가능한 일로 전환하기, 일을 그만두기, 부모님께 부탁

하기, 사교육에 의존하기 등에서 찾고 있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분명 있지만 여전한 보육 사각지대(보육시간)에 대한 우려, 서비스 질에 대한 아쉬움도 묻어났다.

> “제가 그 뭐지 회사생활 하다가 아기를 낳고 나서는 다시 이제 회사 정규직 풀로는 아기를 케어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제가 약간 파트타임처럼 제가 원하는 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어요. (중략)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이 많아요. 애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풀타임인데 걔들은 되게 고민하는 게 그만둘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풀타임이다 보니까 얘기랑 진짜 시간이 없어요. 없고 얘기는 늘 엄마를 원하고 매일 엄마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둘째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둘째를 낳으면 이렇게 직장생활을 못하겠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장점이 제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놓고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기를 낳고 나서 이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할 때 일하고 또 뺄 수 있을 때 충분히 뺄 수 있거든요.” (장년 여성, 다)

> “그 외에 과연 12시 반부터 제가 퇴근하기 그 시간까지 공백 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분명히 있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있고 하지만 그게 과연 그런 양질에 정말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나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너무 사건 사고도 많고 엄마들이 정말 믿고 맡기고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줄어들어서. (중략) 저도 아이를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에서 빨리 데리러 오는 그런 방향으로 … 가끔 저희 시어머니도 일이 있으시고 해서 저랑 남편이 늦게 데리러 가는 날이 있으면 이미 불 거의 다 꺼져있고 선생님 옷 다 입고 계시고. 저희 아이만 하면 바로 퇴근, … 그게 또 아이가 짠한 거죠. 애가 너무 그냥 그러니까 어떤 날은 갔는데 선생님들 회의하고 계시고 저희 아이 구석에서 혼자 뭐라고 말을 못하는. 아니까 그게 뭔지. 선생님도 빨리 가셔야죠.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장년 여성, 나)

이 세대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교육은 자녀의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교육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당장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향후 이들의 주된 관심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교육만 해도 우리나라 교육이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백년의 시간을 봐야 되는 분야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정말 5년마다 이게 막 교육 시스템부터 날뛰고 그런데 뭔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어떤 그런 뿌리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 아이들만 정말 그냥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싸움에. 그래서 자꾸 결론이 애들이 불쌍해요. 정말 시험대에 있는 것 같아요." (장년 여성, 나)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 미래에는 약간 부가가치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학교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 교육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장년 남성, 나)

"교육에 있어서도 자기 적성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도 전공을 바꿈에 있어서 제약이 덜 하다거나 … 극단적인 예이지만 외국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정도 경험한 다음에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 1년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시간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장년 남성, 가)

이들 세대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노후 불안에 대한, 부동산을 대신할 강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실생활에서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 등이 시급하다.

다. 55-65세 중년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남녀 참여자의 행복 점수는 가장 낮은 점수가 6점으로 대체로 7점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집이 있고 연금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하지만 아직 큰 문제가 없는 상태, 결혼을 안 한 자녀가 있기는 해도 크게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혹은 끓여도 달라질 것이 없는 상태에 대한 받아들임)가 대체로 높은 수준의 행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먹은 약이 하나도 없고 마누라도 마찬가지로 먹는 약이 없고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닌가. 손녀가 8살, 6살, 4살. 아들도 갔고 이제 딸도 갔으니까 다 주위에 살고 애 낳고 우리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네 사람이 직장생활을 다 열심히 요새같이 어려운데 잘리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한다? 나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중년 남성, 나)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중년 남성, 가)

"개인적으로는 직장생활을 33년 했거든요. 그리고 그만둔 게 3년쯤 돼요. 연금도 나오고 아이들도 이제 딸은 시집가고 아들은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이럴 때는 조금 안 되고 이럴 때는 마음이 시끄러운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아이도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정이 됐고 여유가 생기니까." (중년 여성, 가)

"그냥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 건강하고 제 나이에 비해서 아픈 데가 없어서. 신체 건강하고 그냥 걱정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가족 뭐 예를 들면 남편이나 자식이나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만 즐거우면 즐거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신경 쓰게 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요."(중년 여성, 나)

하나, 하나 따져서 생각해 보면, 남과 비교할 때도 그리 나쁘지 않은 괜찮은 삶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에 비해 높은 행복 점수로 이어진 듯하다. 특히 여성 참여자의 경우 자녀의 취업, 결혼, 출산 등과 같은 규범적 기대가 달성된 것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으로 보였다.

개인적인 삶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행복 점수를 따로 제시한 참여자가 있었다. 이 여성은 개인적인 행복과 별개로 사회적인 상황,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사회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전염병과 같이 계속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행복 점수를 조정하였다. 이것은 개인적 행복에 사회적 상황이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은 사회적 상황을 개인 및 가족의 삶과 분리시켜 인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사회가 걱정이다'는 인식이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특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못 만난다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끼고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친척이라든가 지인들이 요새 장사가 안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회적으로는 조금 덜 행복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특히 코로나 같은 전염병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야 될 것은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은 갑갑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치면 한 5, 6점" (중년 여성, 가)

대체로 행복점수가 높은 편이지만 은퇴 후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행복 점수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이 없다는 점이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답답함을 낳았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같은 직장 생활 하니까. 남편도 은퇴하고 저도 은퇴하고 하니까 은퇴 전에는 좋았습니다. 8-9점. 그런데 은퇴 시점이 벗어나니까 떨어지는 거 같고 제가 일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드문드문 개월 차로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은 계속하고 싶고 나이는 있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고 나름대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못 하고 집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못 하니까 집안에서만 있게 되니까 위축되고 점수가 낮아지는." (중년 여성, 다)

"은퇴하는 순간 '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게 (중략) 사회지위는 내가 뭐가 있냐. 그건 없다. 하여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저 역시 이 나이에 뭐 하기에는 쭈뼛쭈뼛하고. 남을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작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중년 남성, 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중년 세대는 개인적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일을 끝마침, 자녀를 결혼시킴 등)에 대해 남과 비교할 때 뒤지지 않은 괜찮은 상태를 행복함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의 행복은 가족생활주기 혹은 개인발달단계 상의 생애 과업을 달성한 것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고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이 행복에 기본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이들의 행복은 과거 개인이 살아온 삶의 결과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기에 국가는 전 생애적 관점에서 발달단계 상의 주요 과업 성취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각자 자신 생긴 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행복하겠다는 한 여성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그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로 읽힌다.

> "저는 저 자체가. 아들은 저를 좀 닮아서 좀 느긋한 성격인데 딸은 아빠를 닮아서 빠릿빠릿한 성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들은 도전을 하고 사는 게 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나보다. 저는 자기가 이걸 이뤄서 행복한 사람은 그거에 도전해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약간 좀 막 이렇게 도전의식보다는 평온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뭐. 자기 성향에 맞게 사는 건데 그걸 누군가가 반대로 강요를 하면 서로가 불행함을 느낄 것 같아요." (중년 여성, 가)

라. 70-75세 노년 -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

삶을 쭉 살아보니, 시기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른데, 이제는 건강과 가족이 최고라고 여기는 나이가 되었다.

> "이제 젊어서는 돈이 좋았고 이제 중년 들어서는 권력이 좋았고 그런데 장년 넘어서면서는 금전이나 권력이나 이것보다는 가정적인 화목, 본인의 건강 이것이 정말로 행복의 필수조건이구나 이것을 느꼈죠. 생활이 1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건 없어요. 그때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 자꾸 친구들도 운명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건강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가장 좋은 것이 건강이구나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나 1년 지나오면서 더 피부로 느끼죠." (노년 남성, 나)

건강과 가족이 최고지만 경제력이 자존심을 세우는 기반이 되기에 경제력은 늘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 "(경제력이) 기본이 되는. 기본이 안 됐을 때에는. 내가 사회 생활하면 인간으로써 해야될 도리를. 나는 없다고 하지만 상대로 하여금.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인간으로 도리 해야 하는데 도리 못 할 때 수치심이라든가 자격지심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걸 맡기면 자연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악화될 거 아니야.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으면 대부분 보면 그런 문제가 기본

이 되는 거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절대적이라고 봐요“ (노년 남성, 가)

5년의 황혼 육아에서 해방된 여성 참여자는 현재의 행복 수준을 만점으로 평가하였는데, 황혼 육아 기간의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크게 악화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육아 부담이 30대 장년 여성의 삶과 70년 노년 여성의 삶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손녀 육아로)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맨날 한의원 가고, 하루는 정형외과 가고 무릎이 퉁퉁 부어서 물도 뺄 정도로. 그런데 빼지 않고, 말려서 치료하고. 애기보는 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옛 어른들이 “애기 볼래, 밭 맬래?” 하면 밭 맨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하혈까지 하더라고요.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상 있나 싶었더니 힘들어서. 손녀. 얘가 되게 활달해요. 성격이 너무 활달하다 보니까 남자 키우는 거나 진배 없어요. 저는 70 평생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네가 떠나가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중략) 아이 키우느라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애 때문에 우울증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노년 여성, 나)

이들의 행복점수는 7점 이상으로 다른 세대보다 높았는데, 삶의 만족도는 최저 4점에서 최고 10점(황혼 육아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컸다. 행복은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따져보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지만, 만족은 현재 느끼는 것인지라 행복과 만족도 점수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계속 그건(행복은) 사람 마음먹기 달려 있잖아요. 내 마음이 오싹오싹하면 불행한 거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노년 여성, 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더 느끼거든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날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좀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살면 좋은데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막상 생활에 닥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첫째가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어디를 갈 때 돈 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저 그냥 양복 하나 걸치고 어디를 가면 우선 불편하잖아요.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지금도 마누라한테 용돈을 타 쓰지만 더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도 그 주는 용돈 가지고 그냥 아끼면서 사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너 그 용돈 부족하지 않냐 하는데 나 안 부족해. 있는 대로 쓰고 오히려 마누라한테 용돈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내 자존심이 꺾이는 거지 내가 아끼면 되지. 내가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확실히 삶의 질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느끼는 것 하고 중년에 느끼는 것 하고 말년에 느끼는 것 하고 달라요. ” (노년 남성, 나)

어쩌면 노년 세대에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적 성격의 행복 보다는 삶의 질,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존엄을 인정하는 일상 밀착형 지원(예를 들어 예의를 갖춘 식사 지원, 품격 있는 여가 활동 지원 등)이 노년 세대에는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년 세대는 힘겹게 살아왔던 부모 세대의 삶과 비교할 때 노후가 안정적이라는 점, 노인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높은 만족을 보였다. 다만,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걱정, 세금을 제대로 잘 써야 한다는 생각, 청년지원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지원이 우선이라는 생각 등이 있었다.

“아시겠지만 기초연금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걸로 기초연금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일자리도 조금. 그거 조금 하고 의료비도 많이 보탬이 되죠. 건강보험도 그렇고 병원비도 많이 안 들잖아. 우리 노인네들은 참 세계적으로 제일 쌀 거예요.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 치과고 뭐고 거의 다 웬만한 암 같은 것도 많이 되잖아 우리나라. 그런 거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노년 여성, 다)

“세세히는 모르죠.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 일 안 하고 돈 주는 것. 일 안 하는데 실업자라고 돈 주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네가 공부만 한답시고. 물론 공부해서 자격증 딴다고 하지만, 일도 안 하는데 왜 근로자면 근로자 노릇을 하고, 4대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중략) 요소요소에 바르게,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되겠죠. 공무원들이 디테일하게 찾아야지. 그러면 새는 돈도 없고, 국가에 빚이 엄청 많잖아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중에 국가가 부도나면 IMF 짝 나잖아요. IMF 때 얼마나 망한 사람이 많아요. (중략) 그런 IMF 겪으면 안 되겠죠. 지도자들이 잘해야지.” (노년 여성, 나)

"사회복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내가 한 달을 벌어서 올 겨울을 먹고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저 30만원인가 주더라고. 어려운 사람 30만원 주잖아. 굶어 죽지는 않아. 현재로써 단계적으로 잘하고 있다. 복지 잘하는 거다. … 우리 세대는 굶어 죽는 걸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장족의 발전입니다" (노년 남성, 가)

노년 세대는 IMF 때 '금 모으기'로 나라 살리는 데 동참했던 세대로, 이들에게 국가는 당연히 절대적 존재이다. 그런 국가가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확장된 자기 이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세대 공감의 가능성은 엿볼 수 있다.

"글쎄요. 금방 떠오르는 건 없고 그저 그냥 젊은 세대들이 좀 마음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삶을 살았으면 그 생각은 있어요. 이제 우리 시대는 지났으니까 차후에 우리나라를 짊어나갈 젊은 세대들이 좀 편안하고 자유럽게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 (노년 남성, 나)

정리하면, 노년 세대의 행복에는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건강과 가족의 화목이 중요했다. 현재에도 높은 만족을 보이는 의료체계를 더욱 노인 친화적으로 강화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소결

유엔 세계행복보고서는 각국의 행복도를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Helliwell et al., 2020). 한 나라의 행복을 설명하는 각 요소가 가장 열악한 가상의 국가를 설정할 때, 그 국가의 행복도는 1.972점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872점인데,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이 설명하는 추가 점수가 1.245점, 사회적 지지가 설명하는 추가 점수가 1.134점, 건강수명이 설명하는 추가점수가 1.022점, 삶의 선택에서 자유로움이 설명하는 추가 점수가 0.259점, 관대성이 설명하는 추가점수가 0.170점, 부패인식이 설명하는 추가점수가 0.095점이고, 설명되지 않는 행복 점수가 0.026점 가량이다. 우리나라보다

행복도가 높은 나라와 비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력은 높고, 사회적 지지는 낮고, 건강수명은 높고, 삶의 선택에서 자유로움은 크게 낮고, 관대성은 조금 낮고, 부패인식은 많이 낮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특히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로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복지 제도 경험과 행복을 묻는 일련의 질적 인터뷰를 통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욕구,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특히 어떠한 지원체계를 이용했는지가 행복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 인터뷰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로 생애의 경험과 그때의 복지 욕구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왔던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필요'를 복지를 행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필요를 판단하는 '선'에서 청년 세대의 경우는 좀 더 확대된 형태를 띈다. 청년 세대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일찍부터 경험하였고, 그래서 복지의 필요를 인정하는 선이 넓다. 이것은 이전의 세대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한정하여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확장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복지의 확대, 보다 정확하게는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 확대가 행복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복 수준이 낮아질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둘째, 이러한 욕구 충족에 있어 국가의 영향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들이 더 긍정적이다. 중년, 노년 세대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특정한 사람'이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청년, 장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중심으로 국가의 영향을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즉,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질적 연구 결과는 2020년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져볼만 한다. 행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사람,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

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삼았다(정해식 외, 2019). 그렇지만 그것은 행복을 위한 최소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욕구 영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제7장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중남미 국가 행복 연구 동향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제4절 질적 연구 결과
제5절 소결

제 7 장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문제 제기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세운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은 후발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고성장의 이면에 짙은 그림자가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근 10년 이상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OECD, 2019),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인 2위이고(OECD, 2020c), 직무스트레스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OECD, 2009).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156개국 중에서 57위이다(Helliwell et al., 2018). 통상적인 사회발전의 지표로 사용되는 1인당 GDP로 측정되는 경제발전 수준이 세계 29위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행복수준은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정해식 외, 2019).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복에 있어서 경제적 요건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한국은 경제적 수준은 높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이다. 행복과 경제 수준을 양축으로 두면, 개별 국가는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행복 수준이 평균 이상이면서 경제 수준도 평균 이상인 국가들, 둘째, 행복 수준이 평균 이상이면서 경제 수준은 평균 이하인 국가들, 셋째, 행복 수준이 평균 이하이면서 경제 수준은 높은 국가들, 넷째, 행복 수준이 평균 이하이면서 경제 수준도 낮은 국가들이 그것이다. 정해식 외(2019)의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행복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면서, 위에 언급한 첫째 유형의 국가인 북유럽 국가의 행복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대비 행복 수준이 높은 중남미 국가의 사회제도적 특징과 국민의 일상적 삶의 영위 방식,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여건 대비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

인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향후 행복 연구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중남미 국가 행복 연구 동향

1. 중남미 국가 행복 연구 동향: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가. 멕시코 행복 연구 동향

1) 행복 수준

Helliwell et al.(2020)의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멕시코는 6.465점으로 24위를 보였다. 이 점수는 코스타리카(15위, 7.121)보다는 낮지만,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인 우루과이(26위, 6.440), 과테말라(29위, 6.399), 브라질(32위, 6.376) 등보다 높다. 다른 대륙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는 유럽 국가 중 스페인(28위, 6.401), 이탈리아(30위, 6.387), 슬로바키아(37위, 6.281) 등보다 행복지수가 높으며, 아시아 국가 중 순위가 가장 높은 대만(25위, 6.455)보다도 높이 위치한다. 특히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를 기준으로 하면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그러나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를 포괄한 멕시코의 행복도 변화는 2008년-2012년 평균과 비교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0.588점 감소하여 149개 국가 중 134위다. 이는 -0.127점으로 100위를 차지한 코스타리카보다 낮은 순위다.

주거, 소득, 직업, 교육 등 11개의 항목을 종합하여 국가 간 행복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에 의하면 멕시코는 40개 국가 중 39위를 차지하여 30위인 한국보다 낮다(OECD, 2017a). 부문별로는,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에서만 상위권(10위)을 기록했고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는 중위권(20위) 수준을 보였으며 나머지 주거, 소득, 직업, 지역사회, 교육, 환경, 건강,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의 부문에서는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2)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 특이사항

2019년 멕시코의 1인당 GDP는 9,863달러이다(통계청, 2020c). 같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10,006달러), 코스타리카(12,238달러)와 칠레(14,896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브라질(8,717달러), 콜롬비아(6,432달러) 등보다는 높아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평균(8,847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OECD의 2017년 더 나은 삶 지수 중 소득 부문에서 멕시코의 가계순조정가처분소득(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은 13,965달러이며 가계 순자산(Household net wealth)는 105,745달러로, 각각 OECD 평균인 33,604달러, 408,376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OECD, 2017a). 멕시코 인구의 18%가 국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지수는 10.43으로 39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OECD, 2020b). 같은 자료에서 칠레의 사회적 불평등 지수는 10.03으로 36위, 브라질은 12.48로 38위를 기록하여, 멕시코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OECD, 2020b).

Castilla(2012)에 따르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인구의 44%는 자신의 소득이 자신 주변 사람을 비교집단으로 봤을 때 비슷할 것이라 예상했으며, 이전에 기대했던 소득과 실제 소득을 비교했을 때 25%는 만족한다고 했으며 39%는 예상보다 많다고 했고 35%는 예상보다 적다고 응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는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국가이지만, 필요한 욕구의 충족 정도 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정도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는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비교집단 또는 과거의 기대와 소득을 비교했을 때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주관적 행복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stilla, 2012).

3) 민주주의, 시민참여 수준

멕시코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로 간주된다. 이코노미스트 인

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에서 발표한 2019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의하면, 멕시코는 6.09점으로 167개국 중 73위를 보였다. 중남미 권역으로 한정하면 멕시코는 23개국 중 16위로 멕시코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한국은 8.00점으로 23위고 두 국가 모두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국가로 분류된다.

OECD의 2017년 더 나은 삶 지수 중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부문에서 멕시코는 40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OECD, 2017a). 이는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Stakeholder engagement for developing regulations)가 40개국 중 1위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OECD, 2020b).

민주주의와 행복은 내생성의 문제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Graham and Pettinato(2001)에 의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다른 정치 체제와 비교한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행복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관계, 결혼 및 출산

OECD의 2017년 혼인율 조사(OECD, 2017b)에 따르면 멕시코의 2016년 혼인율은 1000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인 4.8명보다 낮은 편이고 한국의 5.2명보다도 낮은 편이다. 1970년 7.0명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남미권에서는 코스타리카 5.2명보다는 낮은 편이며 아르헨티나 2.7명(2016년)보다는 높은 편이다.

UN의 세계 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멕시코의 2015-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Children per woman)은 2.14명으로 중남미 평균 2.04명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중남미 38개국 중 18위다(UN, 2019). 아르헨티나는 2.27명으로 멕시코보다 높으며 브라질은 1.74명, 칠레는 1.65명으로 멕시코보다 낮다(UN, 2019).

5) 일 가정 균형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중 일-가정 균형(work life balance) 부문에서 멕시코는 40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OECD, 2017a). 이 지표는 장시간 노동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여가 및 개인 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의 비중을 종합한 것이다. 멕시코 근로자의 28.7%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이는 OECD 평균인 11%보다 훨씬 높아 40개국 중 2위로 높다(OECD, 2020b). 멕시코의 전일제 근로자들은 먹고 자는 등의 개인 생활과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OECD 평균인 15시간보다 적은 12.4시간으로 39위다(OECD, 2020b). 이 지표에서 콜롬비아는 40위를 차지했고 칠레는 34위, 브라질은 27위로 나타나서(OECD, 2020b), 개인 생활과 여가 시간에 사용하는 시간이 짧은 것은 중남미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로 보인다.

멕시코는 노동시간이 매우 길기로 유명하다. 2018년 OECD 조사(OECD, 2020c)에서도 조사 대상 38개국 중 가장 긴 2,148시간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체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멕시코는 2015년부터 소폭 증가한 점이 흥미롭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노동시간 1위를 차지했던 코스타리카를 추월했다. 코스타리카(2위, 2,121시간), 칠레(6위 1,941시간)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위치한다(OECD, 2020c).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여 멕시코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47%로 OECD 국가 및 비교 대상 국가 중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음으로 낮다(OECD, 2020d). 또한,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따른 성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는 멕시코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5시간 더 가사 일을 한다(통계청, 2020d). 멕시코 가족들의 시간 사용을 조사한 Ruiz Castro(2012)에 의하면, 가정 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집안일과 육아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관념 때문이다.

나. 코스타리카 행복 연구 동향

1) 행복 수준

Helliwell et al.(2020)의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코스타리카는 7.121점으로 153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코스타리카의 행복도가 상당히 높은 것인데 비슷한 순위

권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행복도가 1인당 GDP로 설명되는 비중이 작고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와 긴 기대수명이 설명하는 비중이 크다(Helliwell et al., 2020). 코스타리카의 경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영국의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도입한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는 사람들의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Jeffrey, Wheatley, & Abdallah, 2016). 2016년 코스타리카의 HPI는 44.7점으로 14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HPI 보고서는 코스타리카의 높은 행복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Jeffrey, Wheatley, & Abdallah, 2016). 첫째, 교육과 건강에 대한 높은 투자다. 1949년에 군대를 폐지한 코스타리카는 재정을 교육, 건강 그리고 연금에 투자하여 2012년 코스타리카의 GDP 대비 교육과 건강 지출은 영국의 지출보다 높다. 둘째, 가족, 이웃과 친구의 사회 네트워크가 견고하다. 셋째,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 화석연료 판매 세금은 산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2015년에 생산된 전기의 99%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되었다.

2)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 특이사항

코스타리카는 인구 500만의 작은 국가로, 바나나, 커피, 설탕, 소고기 등의 농수산품 수출을 주력으로 한다(CIA, 2020). GDP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5%(2017년 추정치)지만 전체 노동인구의 14%가 농업 부분에 종사한다(2006년 추정치)(CIA, 2020). 제조업 분야에는 22%, 서비스 분야에는 64%가 종사한다. 2019년 코스타리카 외국인 관광객은 314만 명이며, 2018년 대비 4.1% 수준으로 세계평균 4.0%를 다소 넘는 수치이다(주코스타리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2020).

2019년 코스타리카의 1인당 GDP는 12,238달러이다(통계청, 2020c). 1980년대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 8,142달러였으나 이후 더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 2020c).

3) 민주주의, 시민참여 수준

코스타리카의 평균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임태균, 2017), 일반적으로 독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코스타리카의 정부는 민주적이며 발전된 복지국가로 평가된다(Hall, 1984).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에 따르면 2019년 코스타리카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173개국 중 19위이며, 중남미 국가로 한정하면 우루과이 다음으로 높은 2위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 코스타리카는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Ott(2011)는 127개국 2006년 자료를 분석하여 거버넌스(governance)의 질을 기 술적인 측면과 민주주의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술적인 질과 행복은 0.75의 상관관계를, 민주주의의 질과 행복은 0.60의 상관관계를 보였다(Ott, 2011, p. 9). 코스타리카는 같은 수준의 기술적 질을 가진 국가들 중 평균 행복도가 가장 높다(Ott, 2011, p. 19).

코스타리카의 교육과정에는 민주주의와 환경의 중요성과 시민 교육을 강조한다. 교과서와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Locke(2009)는 코스타리카의 환경 관련 교과과정은 환경에 대한 민감도(environmental sensitivity)를 증가시키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정의의 중요성을 증진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이 교육과정은 교사들로 하여금 환경보호 옹호자가 되도록 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현실과 환경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였다.

4) 가족관계, 결혼 및 출산

UN의 세계 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의 출산율은 1990년~1995년 기간 중에 3.07명이었지만,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여 2015년~2020년에는 1.76명으로 낮아진다(UN, 2019). 반면에 영아사망률은 1990년~1995년 기간 중에 1000명 당 15명이었지만, 2015년~2020년에는 1000명 당 7명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UN, 2019).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스타리카 또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한 편이다. Pentz, Rojas, McCoy, & Vaughan(2013)이 전체 연령의 197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건강과 가족관계를 물질적 소유와 부보다 중시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 후 분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 청소년이 되어도 부모님과 손을 잡고 인사의 입맞춤도 흔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 혼인율은 감소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며 혼외출생자 수가 증가하여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Chant(2002)는 176명의 코스타리카 중산층 및 하층 남녀를 조사하여 성별 연령별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남성은 최근 변화하는 가족 형태가 가족 붕괴(family breakdown)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여성과 젊은 층은 가족생활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오히려 변화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 가정 균형

코스타리카는 OECD 내에서 고용률이 낮은 편이다. 2019년 기준으로 남성 고용률은 61.3%, 여성 고용률은 38.7%이다(OECD, 2020, p. 158). 경제가 성장한 만큼 기대되는 남녀 고용률의 격차 축소, 고용의 질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OECD의 Jobs Strategy에 따르면 2015년 남녀 임금격차는 약 48.5%로 OECD 평균인 38.1%보다 크지만 61%인 한국보다는 격차가 작다(OECD, 2018). 직업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입의 질(earnings quality)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해당한다(OECD, 2018). 2019년 실업률은 11.85%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OECD, 2020, p. 158). 증가한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mismatch)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중남미 사람이 행복한 이유에 대한 의문과 이론적 함의

중남미 국가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여건에 비하여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학계와 미디어는 “중남미도(!)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임정빈, 2018)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특히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는 이런 의문과 관련하여 주목할 가치가 있는 두 국가이다. 코스타리카는 2010년도에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하며 “가난해도 행복한 나라”의 상징이 된 것은 물론,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15위를 차지했으며, 멕시코도 24위로 중남미 국가 중에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Helliwell et al., 2020).

중남미의 더딘 경제발전, 다양한 사회문제 그리고 고질적인 정치 혼란에 익숙한 이들이 이런 조사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고 비결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인간의 의식이 물질적 조건과 상응하여 형성된다는 유물론적 전제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문영찬, 2016). 문화를 매개로 유사한 물질적 조건에 대한 해석이 집단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집단도 특정 관념, 상징, 규범으로 구성되는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향유하는 문화가 물질적 조건, 사회적 과정, 그리고 정치적 경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인간은 문화에 의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 문화는 집단이 재생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세계에 대하여 갖게 되는 시각과 관점은 항상 물질적, 사회적 조건과 깊은 연관성 속에서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정해식 외, 2019)의 대상이었던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례는 수수께끼(mystery) 같은 코스타리카인과 멕시코인의 행복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이번 연구의 대상인 두 국가와 비교할 때 경제발전의 수준도 높고 사회문제 역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모두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범적 복지국가이며, 이런 물질적, 제도적 조건을 토대로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북유럽 복지국가도 문제와 불만이 없는 ‘이상적’ 사회는 아니다. 우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대다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중산층의 생활 수준이 국민 소득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다(정해식 외, 2019, pp. 179-185). 게다가 빈부격차나 범죄 등 다양한 사

회문제도 다른 국가와 성격과 빈도만 다를 뿐, 시민의 불만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의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평등, 평화,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합의를 갖추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볼 때, 한 사회구성원의 행복에 대한 정서적, 의식적 자가진단은 이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어떠한 문화적 요소를 통해 강조하며 수용하고 어떻게 재현하는가(represent)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국민의 행복이 물질적, 경제적 조건과 이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문화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12)]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행복을 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성찰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개념군(槪念群)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서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 이데올로기, 헤게모니이다. 문화는 특정 집단에 속한 인간이 가진 관념, 상징, 규범 등을 포함하며 세계관과 실천의 토대가 된다. 이 가운데 정치적 의식과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만을 지칭할 때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사용한다(Comaroff, 2001, pp. 205-207). 따라서 문화가 이데올로기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의식 및 행위와 무관한 행위를 지배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간주하게 되면 양자의 범위와 경계가 모호해진다. 가령, 사회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특정 종교에 심취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가족생활에 몰입하는 것이 정치와 무관하거나 중립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결국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정치경제적 현실에 대하여 침묵하게 하는 힘을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실천가 그람시(Gramsci, 1973)는 헤게모니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국민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이와 연계된 사회문제에 계급, 젠더, 인종, 종족(ethnic group) 등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아니면 특정 문화를 소비하면서 침묵하는 헤게모니적 상황을 연출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연구자가 문화, 이데올로기, 헤게모니의 작용을 파악할 때 무엇보다 주목하고 있는 사회제도는 가족과 종교이다(김세건, 2004). 사실 어느 사회나 가족과 종교

12) 사회과학의 소위 '원형주의(primordi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대립은 비록 종족, 젠더, 인종을 화두로 삼았지만 이와 유사한 존재론과 인식론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Barth, 1969; Chandra, 2012). 우리가 가진 행복에 대한 문화적 관념이 물질적/객관적 실체에 기인한 것인지, 특정 역사적 시기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양자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가 구성원의 의식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지만, 국가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역할은 구성원에게 특별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현, 2018; Beytía, 2016). 이와 함께, 식민시대와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지배적 종교로 자리 잡은 가톨릭이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세계관에 미친 영향도 막대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Kelly, 1974).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경제 수준 대비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남미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적 수준과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각각 어떻게 행복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국은 중남미 국가 중 코스타리카와 멕시코[13]로 선택하였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는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모집 과정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정해식 외, 2019)와 동일하게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특별한 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의 행복감의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아주 부유하지도, 아주 빈곤하지도 않은 중산층에 속하는 보편적 사람들(ordinary people)을 피면담자로 모집하였다. 또한, 이들이 삶을 사는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변수들 소득(자산 포함), 가족 구성, 직업 유무, 직업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세분화 역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정해식 외, 2019)처럼 1) 청년 세대와 2) 노년 세대에 초점을 두었다. 청년 세대(20대)를 통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거나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에 대한 기대와 행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 세대를 통해서는 개인의 일생 동안 경험

13)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0』에 따르면 2017~2019년 행복순위(Ranking of Happiness)에서 코스타리카는 15위, 멕시코는 24위에 올랐다(Helliwell et al., 2020). 예년과 유사하게 핀란드(1위), 덴마크(2위), 스위스(3위), 아이슬란드(4위), 노르웨이(5위), 네덜란드(6위), 스웨덴(7위) 등의 유럽국가가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25위), 싱가포르(31위), 우즈베키스탄(31위), 바레인(40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참고로 한국은 61위로 나타났다.

하며 형성된 사회에 대한 인식과 그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척도, 행복과 불행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했다. 따라서 일반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중남미 국가 국민의 행복을 사회문화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진은 두 팀으로 나뉘어 인터뷰 설계를 다르게 하였다. 설문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정해식 외, 2019)를 기본으로 하였다. 개인적 수준 연구팀의 경우 2019년 설문지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수준 연구팀의 경우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이하 팀별로 다르게 설정한 내용은 아래 각각에서 제시하였다.

1.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

이 연구는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경제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중남미 국가 국민들의 행복을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과 일상적 삶을 통해 규명해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해식 외(2019)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한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중남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복지 제도 등의 사회경제적 제도가 덜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개인들은 어떻게 행복한지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일상적 삶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적 특징, 사회문화적 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인의 인식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면접대상자로 모집하였고 코스타리카, 멕시코 2개 국가에서 각각 9명씩, 총 18명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14]

14)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에 제시된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7-1〉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 - 면접 대상자 요약

순번	이름(가명)	국적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1	히메나 (Ximena)	코스타리카	여	20대	학사
2	다니엘 (Daniel)	코스타리카	남	20대	고졸
3	디에고 (Diego)	코스타리카	남	60대	학사
4	사라 (Sara)	코스타리카	여	60대	석사
5	마르틴 (Martin)	코스타리카	남	70대	석사
6	가브리엘라 (Gabriela)	코스타리카	여	20대	대학 재학
7	안토니오 (Antonio)	코스타리카	남	20대	학사 수료
8	마리아 (Maria)	코스타리카	여	70대	학사
9	호세피나 (Josefina)	코스타리카	여	60대	중졸
10	로사 (Rosa)	멕시코	여	60대	석사
11	소피아 (Sofia)	멕시코	여	20대	대학 재학
12	카르멘 (Carmen)	멕시코	여	60대	고졸
13	미겔 (Miguel)	멕시코	남	60대	초졸
14	페드로 (Pedro)	멕시코	남	20대	대학 재학
15	프란시스코 (Francisco)	멕시코	남	60대	학사
16	후안 (Juan)	멕시코	남	20대	학사 수료
17	베로니카 (Veronica)	멕시코	여	20대	고졸
18	산티아고 (Santiago)	멕시코	남	20대	고졸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 사람들이라는 기준에 상응하면서도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면접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에 있는 정보제공자(informant)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현지인의 신청서를 취합한 후 연구 목적에 맞는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취지에 맞게 수도(코스타리카 산호세와 멕시코 멕시코시티) 및 수도 인근 도시에 사는 중산층을 선정하였고 젠더(여, 남), 학력(대졸 이상, 대졸 미만)에서 각각의 비율이 절반 정도 되도록 구성하였다. 면접 이전에 이메일을 통해 반드시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면접대상자가 불편을 느낄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중도에 인터뷰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본 연구는 피면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중남미 국가를 연구할 때 인종(race)과 종족성(ethnicity)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현실적 제약과 한정된 목표로 인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 시 이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또한, 이 연구는 면접대상자의 대다수가 중산층이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면접 과정에서 스스로를 중하층(lower-middle class)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세 명(코스타리카 1명, 멕시코 2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 연구는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면접대상자의 '내부자적 관점'(emic)을 분석한다는 한정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면접은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연구 참여자 각각 9명씩 총 18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ZOOM)를 통해 실시하였다. 정해식 외(2019)의 연구와 유사하게 현지를 방문하여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을 병행하는 연구방법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화상 면접 방법만을 택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면접을 2시간에서 3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또한, 면접 질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하되 면접대상자가 비교적 제약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구조적(semi-structural) 면담 방식을 채택하였다. 질문지는 면접대상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장소는 화상 면접의 특성상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진행했는데 대개 참여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은 시차를 고려하여 현지시각 9시~11시와 18시~20시(한국시간 0시~2시, 9시~11시)에 진행하였다. 면접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연구진에 의해 통역 없이 스페인어로 진행하였다. 이후 면접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고 이 글의 작성 과정에서 한국어로 중역(重譯)하였기 때문에, 번역이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면접 시 던진 기본적인 질문은 부록 7에 기술하였다. 질문 내용은 행복을 느끼는 원천과 경제생활 및 일과 삶의 균형, 국가에 대한 시각과 사회의 영향력, 그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 등으로 구성했고 그 과정 속에서 생애사를 간단하게나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인터뷰 자료를 분석할 때는 국가, 세대, 젠더, 직업 등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현지인의 공통적 인식을 살펴보려 했다. 현지인의 삶의 경로와 정치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조화되고 상충하며 행복의 의미를 해석하는지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념과 여기에서 드러나는 논리적 역설이나 현실적 모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논리와 사회문화적 구성을 함께 보고자 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참여 관찰 없이 면접만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면접대상자에 의해 '말로써 표현된' 삶의 모습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개개인의 발언에 대한 사실 검증보다는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여 어떠한 단어와 표현 방식을 동원하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묘사 방식을 활용하는지,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현하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2. 개인적 수준에서 본 행복

개인적 수준에서 본 행복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은 멕시코인 피면담자 8명, 코스타리카인 8명을 섭외하였다. 피면담자들은 모두 멕시코시티와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멕시코 피면담자 중 2명은 멕시코시티 출신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면담자 섭외방법은 구글 폼(google form)을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피면담자들이 모집되었다. 코스타리카 피면담자들은 주로 트위터에서 모집되었고, 멕시코 피면담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해졌다. 이 섭외방법 때문에 젊은 피면담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연구팀은 그들에게 부모세대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각 나라에서 젊은 세대 4명, 노인세대 4명으로 인터뷰 집단을 구성하였다. 피면담자들은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가난하지 않고 학력도 평균에서 멀지 않은 사람으로 구했다. 코스타리카는 문해율이 높고 고등교육까지 의무이며 무료이다. 각 수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람들은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피면담자들도 고졸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다만, 노인세대 피면담자들도 대졸자가 많은 것은 소셜네트워크, 줌(ZOOM)에 익숙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부모라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음 〈표 7-2〉는 개인적 수준에서 본 행복을 파악하기 위해 16명의 피면담자들의 특징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표 7-2〉 개인적 수준에서 본 행복 - 면접 대상자 요약

	이름(가명)	국적	성별	나이	교육수준
1	엘레나 (Elena)	코스타리카	여	70대	학사
2	알라니 (Alani)	코스타리카	여	20대	대학 재학
3	마테오 (Mateo)	코스타리카	남	20대	학사
4	크리스티나 (Cristina)	코스타리카	여	20대	학사
5	바네사 (Vanessa)	코스타리카	남	60대	고졸
6	다니엘 (Daniel)	코스타리카	남	20대	석사과정
7	알베르토 (Alberto)	코스타리카	남	60대	고졸
8	로드리고 (Rodrigo)	코스타리카	남	60대	석사
9	노엘리아 (Noelia)	멕시코	여	20대	학사
10	알레한드라 (Alejandra)	멕시코	여	20대	대학 재학
11	에두아르도 (Eduardo)	멕시코	남	30대	석사
12	산티아고 (Santiago)	멕시코	남	20대	박사과정
13	디에고 (Diego)	멕시코	남	60대	학사
14	마리아 (Maria)	멕시코	여	80대	학사
15	라우라 (Laura)	멕시코	여	60대	석사
16	모니카 (Monica)	멕시코	여	60대	고졸

심층인터뷰는 영어나 스페인어로 진행되었다. 연구진 중 한 명은 영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16명 중에 여덟 명은 영어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른 한 명은 스페인어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8명의 피면담자와 스페인어로 인터뷰를 하였다. 모든 피면담자들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연구윤리를 설명 받고 동의했으며 모든 인터뷰는 음성파일로 저장되고 녹취되었다.

인터뷰 질문은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시작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다고 느꼈던 시기 그리고 행복했다고 느꼈던 시기와 그 이유, 자신의 대응방식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룬 대화에서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 자료 분석은 해석학적 접근을 이용하여 녹음파일과 기록파일을 반복하여 보면서 그 중심담론과 과정의 흐름을 보았다.

제4절 질적 연구 결과

1.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

4절에서는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행복을 질적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서구화, 자본주의화,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거센 흐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종교에 대한 관념이 현지인의 현실에 대한 해석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두 국가에서 행복이 토대를 두고 있는 현실과 이를 해석하는 문화적 기제와 구성과정을 파악해볼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 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다음 내용을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사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우선, 양 국가의 면접대상자가 자신의 행복을 어떤 현실에 준거점을 두고 설명하는지 살펴본다. 면접대상자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에 주목한다. 둘째, 이들이 진술하는 삶의 조건과 경험 속에서 행복과 간극을 보이는 현실을 파악한다. 이들의 행복에 대한 진술과 어긋나는 현실의 경험을 찾아내 분석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주관적 행복감과 경험 속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제도적, 이념적 기반이 무엇이며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한 문화적 관념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가.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의 현실과 행복의 사회문화적 구성

1) 코스타리카인은 행복한가?: ‘티코(Tico)’의 ‘푸라비다(Pura Vida)’

코스타리카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된 사실은 코스타리카인도 잘 인지하고 있다. 물론 총 9명의 면접대상자 가운데 이런 평가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지만,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표현했다. 강한 긍정을 드러내지 않은 유일한 예외 인물인 안토니오(Antonio)도 사회에 대한 진보적이고 비판적 논의의 끝자락에 “그렇게 행복하진 않지만 괜찮게 지낸다”고 말했다. 적어도 면접대상자만 놓고 볼 때 코스타리카인의 행복에 대한 확신은 연

구자의 예상보다 더 일반적이었다.

면접대상자는 공통적으로 행복을 큰 걱정이 없이 '순수한 삶(pure life)'이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하면서 코스타리카인이 이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인식, 감정,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일종의 민족성 담론을 전개하면서 코스타리카인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행복한 상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축약한 어휘가 코스타리카인에 대한 현지인의 애칭인 '티코(Tico)'[15]와 순수한 삶이라는 뜻을 가진 '푸라비다(Pura Vida)'를 합성한 '티코의 푸라비다'이다.

>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여러 방면에서 좀 더 '걱정이 없는 것(carefree)' 같아요. 아마 다른 곳에서는 좀 더 엄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행복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죠. 저희가 더,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차분해서(calm)', 그러니까 그리 엄격하지는 않고 좀 더 잘 견디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히메나)

> "티코는 그저 티코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모든 게 '푸라비다(Pura Vida)'이기 때문이에요. 관광객들은 '티코, 푸라비다'라는 말이 관광 당국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광고문구(commercial hook)로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푸라비다는 실제 감정이에요. 우리 티코들은 잘 지내?, 요즘 어때?, 푸라비다!, 아! 그래?, 어디서 일해?, 이런 데서 일해?, 그래 괜찮아?, 응! 응! 푸라비다! … 모든 게 푸라비다에요. 이봐, 이거 얼마나 좋은지 봐봐!, 다 좋아 푸라비다! … 푸라비다라는 말은 1950년대에 '용수철(Resortes)'이라고 불리던 멕시코 배우가 영화에서 처음 썼어요. … 지진이 났을 때요? 산호세에서 50Km, 10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났고 10명의 사망이 있었죠. 아! 그래! 글쎄! 그래! 자연재해가 있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슬프긴 하지만 지나가는 슬픔이죠. 하루가 끝날 때쯤, 삶은 지나가고 저는 일을 계속하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모든 게 푸라비다에요." (코스타리카, 60대, 남, 디에고)

푸라비다는 이처럼 자연의 섭리에 수긍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며, 걱정을 덜어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며 티코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한다. 티코는 코스타리카에서 '푸라비다'를 추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준거점을 몇

15) 현지에서는 티코(Tico) 외에도 여성형 티카(Tica)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 첫째가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티코는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환경을 훼손시키는 2차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지 않고도, 관광산업으로 먹고살게 해주는 축복받은 자연-지리적 조건이 '푸라비다'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다.

>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후는 온화한 환경이에요. 추운 환경이 아니고, 더운 환경도 아니에요. 소기후(microclimate)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다른 날씨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매우 쾌적한 기후를 갖고 있어요. … 기후? 얼마나 좋아요. 파나마에 가면 끔찍해요. 열기가 끔찍해요. 멕시코에 가면 그 추위가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 제 생각에 우리가 가진 기후는 우리를 매우 기분 좋게 해줘요." (코스타리카, 60대, 여, 사라)

> "아마 코스타리카의 공간이나 자연이 우리 스스로를 내적으로 새롭게 하는 폭포와 같은 평온함(tranquility)을 준다고 말하고 싶어요. 매우 아름다운 풍경의 평화로움도 그렇고요. 저는 초록을 좋아하고 산을 사랑하고 매우 좋아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책할 때, 그리고 모래에서 나온 작은 게들로 가득 찬 해변과 게들의 작은 발자국을 볼 때 저 작은 게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중요해요. 팬데믹(pandemic) 이슈 때문에 지금 시점의 상황이 최선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풍경이 어떤 (삶의) 유형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할까? 격리상황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타리카, 70대, 여, 마리아)

티코가 푸라비다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준거점은 가족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삶의 기억을 발생시키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코스타리카의 가족이 특별히 이목을 끄는 점은 도시화가 진전되고 핵가족에 기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대에 걸친 확대가족을 단위로 교류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자 생일 전후 주말에는 아버지, 사촌, 조카, 아니면 삼촌이나 이모 댁에서 음식을 하죠. 그 집에서 생일 축하하는 거라 저희가 다 가서 요리하고, 만약에 축구경기가 있으면 다 같이 경기장에 가기도 해요. 가끔 비디오 게임 챔피언십을 열거나 보드게임도 하구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식사하고, 생일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랑 아이스크림 있고, 뭐 그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희 삼촌에게 (가족끼리) 같이 모이고, 생일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축하하고 뭐든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오래전에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할 게 많지 않아서 주로 매주 일요일에 저희 할머니 댁에서 다 같이 만났어요. 일요일은 할머니 뵈러 가는 날이었고, 저희는 가족으로 다 같이 만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달이냐에 따라서, 제 기억엔 아마 일 년에 두 달 정도 생일 축하를 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20대, 남, 다니엘)

코스타리카에서는 다니엘처럼 대가족이 일상에서 여러 의례를 계기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현상이 일반적인 것 같다. 또한, 면접대상자의 절대다수가 도시화된 수도 산호세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코스타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확대가족과 친족이 사회문화적 교류와 유대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기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마르틴(78세 남성)처럼 사망한 친인척이 많아 작은 가족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시시콜콜 간섭하는 가족보다 친구가 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면접대상자의 사례만 놓고 볼 때, 티코에게 푸라비다는 가족과의 교류와 유대가 주는 기쁨이나 안정감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생일파티요, 저희는 다 같이 생일 축하해요. 제 생일은 전주(前週)였고, '어머니날'도 있고, 모두의 생일이 있어요. 각자가 '네 생일에 뭐 먹고 싶니?'라는 질문을 받아요. 저는 요리하는 게 좋아서 부엌에 있는 게 좋거든요. 부엌에 가서 그들을 위해 요리해주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 (행복할 때는 가족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때에요." (코스타리카, 60대, 여, 사라)

"제가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저를 안전하고 동시에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죠. 저는 그게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가족이에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가브리엘라)

티코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끈끈한 가족 간 유대와 함께 행복의 세 번째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안전하고 성취가 가능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이다. 티코 역시 푸라비다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속적 욕망이 성취되고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이념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일(work)에 대한 윤리도 잘 체득하고 있다(Weber, 1930). 대다수 면접대상자는,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신의 뜻에 맞는 실천이며 성취의 근원이라는 서구 자본주의가 탄생시킨 관념을 내면화하고 있고(Hunnicutt, 2006, p.68), 이를 가능하게 하는 코스타리카 사회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행하고 있다.

>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고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그게 충족되어야 만족한다고 말해요. 건강, 돈, 사랑이에요. 누구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 건강, 돈, 사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코스타리카, 60대, 여, 호세피나)

> "직업적으로 저는 사회에서 사업가로서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균형 잡혀있죠. 네! 제가 행복에 대하여 생각해봤는데,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행복은 돈이 부족하지 않은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코스타리카, 70대, 남, 마르틴)

면접대상자들이 코스타리카가 제도적 기반을 갖춘 행복한 사회라고 평가할 때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은 사회보장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의료와 무상 공교육이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배우는 것과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보장이 되어있는 것이 이들의 자랑거리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할 때 비교하는 대상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특히 이웃 중남미 국가라는 점이다. 이웃 국가와 달리 핵심적인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티코가 코스타리카 사회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 같다.

> "다행히도 사회보장기금이 있었고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었죠. ... 사실 보건시스템과 공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교육이 지금 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를 길러냈죠. 그 전문가들이 (코스타리카) 체제가 무

너지지 않도록 해줬어요. 교육, 보장기금, 보험이 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코스타리카, 20대, 남, 안토니오)

"저는 코스타리카 시스템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료로 다녔어요. 대학교는 제게 장학금도 주었죠. 저는 제 모든 교육과정에서 코스타리카 국가에게 빚을 졌어요. … 제 느낌인데, 이렇게 나라가 주는 부분이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해줘요. 현실에서 우리에게 많은 평온(tranquility)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신께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 저는 니카라과에서 온 남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치료해줄 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기 정부는 우리에게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을 줘요. 팬데믹 상황인데 저조차도 약을 받아요. 정부는 제가 매월 먹는 약을 직접 와서 주고 있어요." (코스타리카, 70대, 여, 마리아)

면접대상자, 특히 노년층은 이웃 나라가 갖추지 못한 이와 같은 사회보장이 가능했던 것은 코스타리카가 근대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적 어젠다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이런 역사적 과정 덕분에 코스타리카가 동성애를 비롯한 제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대를 폐지하는 등 견고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역사를 설명할 때도 티코는 이웃 국가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힘주어 말하며 이를 행복감의 원천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매우 협력적이에요.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요. 내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 코스타리카는 정말로 서로를 도울 줄 아는 나라에요. 우리는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몇몇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일기(food diary)'가 제공돼요. 우리 티코들은 정말 서로 협력적이에요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는 태어났어요. 매우 소통도 잘 되죠. 그 밖에요? 평화의 나라요. 1948년에 군대가 폐지된 거 아시죠? 군대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종류의 것들은 없어요. 매우 좋은 평온(tranquility)이죠." (코스타리카, 60대, 여, 호세피나)

"코스타리카는 매우 견고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견고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은행 시스템도 좋아요. 여기 코스타리카는 마약 밀매도 많지 않아요.....아내가 아파 고용하고 있는 가정부가 니카라과 출신이에요. 오래전에 함께 이주한 (가정부의) 딸이 코스타리카 대학에서 행정학을 배우고 있어요. 다른 국가라면 가능하지 않은 성취가 여기서는 가능한 것이지요." (코스타리카, 60대, 남, 디에고)

2) 코스타리카인은 정말로 행복한가?: 티코가 직면하는 현실과 불안감

티코는 정말 행복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 면접대상자가 코스타리카의 자연, 가족을 위시한 사회관계, 의료/교육 등의 사회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표현한 행복감은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소절에서는 먼저 면담 과정에서 면접대상자가 드러낸 코스타리카의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스타리카에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넓은 면적과 다양한 자연환경을 향유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대국들처럼 산업화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바나나 등의 농업과 관광산업을 통하여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빼어난 자연환경과 경관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티코가 푸라비다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뽑았던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제기할 반론이 없을 것 같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유대뿐 아니라 긴장과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류학적 연구(예를 들어, Fortes, 1969; Fortes & Evans-Pritchard, 1940)에 비추어볼 때 면접대상자의 두 번째 행복요인으로서 가족의 순기능은 일면적인 진술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상당수 면접대상자는 가족이 사랑이 아닌 미움, 유대가 아닌 갈등, 위로가 아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핵심적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드러내곤 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가족과 항상 너무 가까워서 부모가 아이들을 놓아주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면 그들이 언제나 아이들과 모든 것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미 성인이고 독립된 인간이고 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을 가끔 어려워하세요. 어쩌면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좋

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가족 드라마에는 조금씩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이죠." (코스타리카, 20대, 여, 가브리엘라)

"가족은 … 그걸 뭐라고 하죠? 사람을 평가해요. 그는 잘하고 있어, 그는 잘못하고 있어, 왜 그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면 가족보다 더 잘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친구요. 왜냐면 친구는 말을 잘 들어주고, 조언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친구는 혼내지 않아요. 맞서지 않죠. 가족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가족은) 각자 분리된 삶, 독립된 삶, 그들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매우 다르죠." (코스타리카, 70대, 남, 마르틴)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사회적 범주에 속할 경우는 위의 진술에서 엿보이는 갈등이 정신적 피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인종, 종족, 세대, 계급,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경험과 정체성을 갖는다. 이와 함께 개별 인간은 여러 사회범주에 속하며 교차하는 정체성을 갖는다(Brewer, 1997). 하나의 가족은 교차하는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모임인 것이다. 물론 코스타리카에서 가족이 다른 인종으로 구성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 또한, 코스타리카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족 내의 계층적 분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대감과 친밀감을 자랑하는 코스타리카의 가족 내에서도 성별과 세대의 차이는 구성원 사이의 차별적 의식, 경험, 실천을 낳으며 갈등과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니는) 삶의 질과 관련된 많은 것들, 그런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는데 결혼하고 엄마가 되고 해야 할 일을 하느라 소망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슬퍼져요.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고 그런 모든 부분을 개척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가브리엘라)

가브리엘라가 안타까워한 어머니의 경험은 사실 코스타리카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는 성차별의 편린(片鱗)일 뿐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과도한 남성성(masculinity)에 대한 믿음, 남성우월주의(machismo), 성차별(sexism)의 득세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Walter, Bourgois, & Loinaz, 2004). 이러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성 문화와 관행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코스타리카의 현실을 폭로하면서 분노하는 가브리엘라와 안토니

오의 진술을 듣고 있노라면 '순수한 삶(Pura Vida)'에 토대를 둔 티코의 행복감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

> "정치학을 공부할 때 대학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요. 학우 대부분이 남성이고 이 나라 정치가도 대부분 남성이에요. ...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느껴요. 남성우월주의가 제게 영향을 줘요. 그들은 제게 입 다물어, 너는 '여자잖아'라고 말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결국 네 의견은 안 쳐준다거나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 가끔은 그들이 나중에 저를 공격 할까봐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요. (대학에서 마저) 마초이즘이 많은 것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코스타리카, 20대, 여, 가브리엘라)

> "이 나라의 많은 여성이 살해당해요. 여성이 수없이 실종되어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들은(여성은) 수천 번 신고하고 SNS에 올리지만 경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왜냐고요? 오히려 경찰이 여성을 괴롭혀요. 왜냐고요? 당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을 추행하기 때문이죠. .... 코스타리카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벽에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경찰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요. 직접 신고한 여성의 사건은 간과되죠. 이 때문에 코스타리카의 사람들은 안전을 꾀할 때 경찰을 떠올리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냐면 이 나라에는 부패한 사람이 많고, 경찰조차 여성을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 여기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아요." (코스타리카, 20대, 남, 안토니오)

가브리엘라와 안토니오가 이야기하는 남성중심주의와 여성에 대한 문화적, 물리적 폭력은 사실 코스타리카의 불안정한 치안과 일상화된 범죄의 일부일 뿐이다. 면접대상자들은 도둑이나 소매치기와 같은 "잡범"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에서 안토니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무능하고 부패한 공권력을 탓한다. 그들은 코스타리카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미디어가 보고하고 있는 치안 문제는 이들의 묘사보다 심각하다. 코스타리카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마약의 기착지가 되면서 마약 관련 범죄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사회적 불안정과 불평등은 노동시장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 이전에도 10-12%로 높았던 코스타리카의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 이후 23-24%까지 치솟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실업급여는 존재하지 않고 봉급의 1.5%가 강제퇴직금 플랜의 자금으로 사용될 뿐이다

(주 코스타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0).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노동유연화를 포함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코스타리카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원영수, 2020).

> "왜냐면 제가 M 사이즈에 신발도 9 사이즈를 신거든요. 저는 완전 평균 체형이라 아무나 제 옷을 입을 수 있고, 심지어 제 바지도 32 사이즈라 엄청 평균이라서, 저한테서 훔쳐간 건 정말 아무나 다 입을 수 있었어요. … 그 일(강도 사건)이 있던 날에 그 사람들이 집에 엄청 오래 있었던지 먹을 것들,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치킨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 네, 전부다요. 쌀도 다 가져갔어요. 그 주에는 삼촌들이 다 오셔서 음식을 가져다주셨어요. 슈퍼마켓에 가셔서 다 사셔야 했는데, TV, 컴퓨터랑 가장 급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주셨어요. 결국에 저는 가족들에게 먼저 기대게 되는 거죠." (코스타리카, 20대, 남, 다니엘)

>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착취해야해요. 불평등, 치안, 인종주의, 남성우월주의(machismo) 문제가 심하지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모든 이에게 같은 교육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저는 불평등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특권층이 아닌데 특권층의 특권에 대하여 얘기하면 화를 내죠. 코스타리카인은 진실을 듣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 20대, 남, 안토니오)

코스타리카의 불평등은 티코가 자랑하는 의료제도와 공교육에서도 나타난다. 마르틴에 따르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와 교육의 질이 낮아 부유층은 돈을 더 내고 개인병원과 사립학교를 활용하고 대다수 국민은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한다. 가브리엘라가 고백하고 있듯이 "코스타리카는 대중교통, 교육, 의료 등에서 많은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 "코스타리카는 교육 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공립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을 치기 위해 사립학교의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 사립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는다면 코스타리카의 교육으로 행복한 것은 명백해요. 왜냐고요? 그건 코스타리카 대학교(UCR)로 가는 직행 탑승권을 얻은 셈이니까요. 이미 준비된 거죠. 사람들은 '코스타리카 교

> 육이 이렇게 좋다니'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코스타리카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모두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기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코스타리카,20대, 남, 안토니오)
> "정신 건강은 여기서 사치라는 사실을 정확히 봐야 해요. 민간 병원에서 정신 건강을 위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할 수는 없는 사치에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가브리엘라)

연구자가 면접 과정에서 티코의 '푸라비다'에 대한 확신에 찬 진술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면접대상자의 다수가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부터였다. 물론 정신과 상담이 일반화되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의료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면접대상자, 특히 젊은 세대가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하지 못한 사회 제도적 보호 아래에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불만이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세대, 계급, 젠더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처럼 티코가 진술하는 행복에 대한 자화상과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3) 티코는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행복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개인주의의 내면화

티코도 코스타리카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고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개인적으로 차분함(calm)을 유지하고 평화롭고(peaceful) 평온한(tranquil)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삶의 조건 자체보다 고요함, 평온함, 평화로움을 추구하며 삶에 만족하려는 사고와 태도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다.

> "사람들이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티코가 행복을 위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갈등을 추구하지 않고 여유롭고 조심스럽죠. '나는 개똥 같은 걸로 이웃과 싸우지 않을 거야.'라는 식이죠. 예를 들면, 제 남편은 '내가 그 개똥 치워주고 차고 바닥도 닦아줄게'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까진 아니지만 그는 그렇게 하죠. 저는 평화와 안정(peace and calm)을 유지하고 행복 속에서 살기 위해 말하고 돌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코스타리카, 70대, 여, 마리아)

티코의 행복은 이처럼 삶의 조건에 대한 만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족이 필요하다는 지혜를 내면화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사회문제에 대한 타협과 순응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면접대상자들도 티코의 이러한 관념과 태도가 행복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

> "코스타리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려고 하는가?' '왜 바꾸지도 못할 거면서 조류를 거스르는가?' 우리 티코는 이런 점을 볼 때 매우 차분하지만 동시에 매우 수동적이에요." (코스타리카, 70대, 남, 마르틴)

> "사람들이 (제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하고, 중간 정도의 행복과 만족감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스킬이에요. 대체로 저희는 바라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게 부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저희는 정부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누가 나라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잘해서 좋은 것을 많이 남겨놓고 갈 것인지 같은 결정도 가볍게 내려요. … 작은 것에 안주하는 코스타리카 사람의 그런 면모가 저희로 하여금 많은 걸 놓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더 좋은 걸 성취하려 하지 않고, 몇 년이고 같은 직위에서 머물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좀 더 생각해보면 더 나은 직책을 맡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조금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 20대, 남, 다니엘)

티코가 자신의 행복관이 갖는 비현실적, 수동적, 타협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고요함, 평온함, 평화로움과 같은 관념을 통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구성해내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내면화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이다. 이들은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세계와 공동체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실천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유에 기반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가브리엘라의 주장처럼 "행복한 나라라는 것이 언제나 100% 행복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복관의 기저에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것, 그게 티코의 사고방식이에요. 티코가 매우 독립적이기 때문이죠. 코스타리카가 만들어졌을 때 스페인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각자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고 일했어요. 이후에 산호세 도시를 건설할 때도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데려오기 위해 그들 각자에게 땅을 주어야 했어요. '윤리적 독립(ethical independence)'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코스타리카, 70대, 남, 마르틴)

"코스타리카인은 장점도 있고 특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이 하루종일 쾌활하고 웃고만 있는 비현실적 거품을 믿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체증을 유발하는) 대중교통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줘요. 남성우월주의(machismo) 같은 것도 …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 엄청 행복하지 않아도, 최소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행복하진 않지만 모두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건(완전한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에 많은 사람의 삶에는 무언가 좋은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00% 행복한 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아니에요. … 저에게 행복하다는 건 어떤 상태일 것이고, 당신에게는 다른 것일 거고 제 이웃에게는 또 다른 것일 거예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가브리엘라)

이처럼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관념은 면접대상자 모두가 강한 애정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가족 내에서 진로, 직업, 결혼 등의 선택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진술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가족을 행복의 준거점으로 여기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천을 행하는 가족주의가 현저하게 목격되지만,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에 동반되는 세대 간의 위계적 권위나 '희생'과 같은 도덕 관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가족 구성원은 조언자일 뿐, 결정의 주체는 자율성을 가진 개인이어야 하며 이것이 행복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확대가족의 범위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가족주의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공고하게 깔려있는 것이다.

"커리어와 일은 전적으로 제 삶이고,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과 형제의 조언을 고려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정은 제 몫이고, 누군가 그

결정을 내리라고 했다고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히메나)

"그건 제가 가진 기회에요. '그래! 나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도 그렇게 조언하진 않지만 괜찮아요. [웃음] 제겐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해, 이것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나는 일하고 싶고, 나는 이제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나는 이제 결혼을 원하지 않아.' 이런 점에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보다 행복하다고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가브리엘라)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재혼했고 아들 하나를 가졌어요. 감사하게도 그 애는 공부를 아주 좋아하고 똑똑해요. 근데 그 애는 내가 아버지를 괴롭혔던 것만큼이나 저를 괴롭히기도 하죠. 맞아요. ... 여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시아처럼 어른을 공경하는 게 없어요. 여기 아이들은 경험을 존중하지 않아요. ... 만약 그 애가 내 말을 자산으로 삼는다면 그 애는 나보다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렵죠." (코스타리카, 70대, 남, 마르틴)

행복의 사회문화적 구성과정에서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더 고려하고 존중하는 현상은 라틴아메리카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인 가톨릭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물론, 아직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혼전 성관계에 대한 담론이 여전한 것으로 보아 코스타리카인이 가톨릭 교리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면접자의 대부분은 대부분 이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남자친구랑 같이 살려고 나갔다가 결혼은 안 했대.'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원한다면 남자친구와 나가서 살 수 있어요. 물론, 몇몇 가족은 결혼은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금 더 보수적일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건 그 사람의 종교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딱 이렇다기보다 (종교와 개인의 관점의)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히메나)

(자율적 결정이) 보편적이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한다든지, 여기에는 그렇게 억압적인 제도는 없어요. 광신도적인 가족이 구성원에게 반대를 못하게 하

> 거나, 아들이나 딸이 어떤 특정 인물하고 결혼하도록 하고, 극단적인 종교적 기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99.99%의 코스타리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서 일할지, 여기서 살지 저기서 살지, 어떤 제약도 없어요. 제가 예외라고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코스타리카, 60대, 남, 디에고)

물론, 가족과 종교의 영향력 그리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내면화 정도가 세대, 젠더, 계급에 따라 차별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면접대상자만 놓고 볼 때, 이러한 사회적 범주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보다 개인의 변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와 관련하여 청년세대에 속한 여성 면접대상자가 더 보수적인 경우도 있었고. 노년 세대에 속한 남성이 더 진보적인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관념은 코스타리카 사회의 문화 속에 구성되는 행복이 이전부터 혹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처럼, 현실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인식되고 재현되는(represent) 티코의 행복은,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해온 역사적 맥락에서, 개인의 자유에 토대를 둔 고요함과 평온함을 이상으로 여기고 이를 추구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와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초현실적(surreal)' 멕시코인의 현실과 행복의 사회문화적 구성

1) 멕시코인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멕시코는 수치로만 볼 때 중남미에서 코스타리카에 이어 국민이 가장 행복감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나라이다. 물론, 1억이 넘는 인구와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멕시코와 500만이 조금 넘는 소국(小國) 코스타리카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황을 단순 비교하며 행복감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종, 종족, 계층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두드러진 멕시코의 국민이 코스타리카인에 버금가게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는 흥미를 끌 만하다. 같은 맥락에서, 멕시코와 같이 사회구성원의 특성이 다양한 국가에서 행복감의 일반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의 면접대상자 9명 가운데 멕시코 사회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

던 산티아고도 유사한 회의감을 표시했다.

> “저는 행복지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 사실 멕시코는 정말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많은 인구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멕시코가) 반드시 행복한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정말 나쁜 상황이 있거든요. 빈곤이 있고, 폭력이 정말 일상화된 부분도 있고, 가정 폭력, 물리적 폭력, 마을이나 이웃 간에 벌어진 폭력도 있어요. 돈이 없거나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다양한 폭력이) 공통분모처럼 나타나요. 저는 그 (멕시코가 행복한 국가라는) 진술에 100% 동의할 수 없어요.” (멕시코, 20대, 남, 산티아고)

멕시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어 했던 ‘길거리 악사(樂士)’ 산티아고의 통찰력 있는 의견과는 별개로, 이 연구의 대다수 면접대상자는 자신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그려내는 행복은 무엇보다 멕시코 문화가 자아내는 소소한 일상에 대한 만족감에서 출발했다.

> “저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매일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 요리하는 것도 정말 좋고 훌륭하죠. 저는 아주 예민해서 울기도 하지만 행복해요. … 오늘 해가 뜨면 제가 빨래한 것을 말릴 수가 있죠. ‘정말 훌륭해!’, ‘빠르게 마르는 빨래를 개어놓으면 이상한 냄새가 안 날 거야!’ 오랫동안 말을 안 했던 친구랑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도 저를 행복하게 하죠. 제 동료가 저에게 ‘로사, 넌 정말 행복한 여성이야’라고 했어요. 제 펜에다가 ‘로사, 행복’이라고 새겨주기까지 했죠. 저는 항상 행복해왔어요. …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인정해줘요. 저는 그것도 행복해요. …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대화는 자주해요 … 그런 게 매우 좋은 것들이죠.” (멕시코, 60대, 여, 로사)

로사처럼 매사에 행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멕시코 인에게 일반적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로사가 “매우 좋은 것”으로 언급한 가족이나 친지와의 교류가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준거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 연구의 면접대상자들도 공통적으로 행복

을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강조하는 '가족주의(familismo)'(Morris-Smith, Morales-Campos, Alvarez, & Thurner, 2013), 즉 개인이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체성과 유대감을 표출하였다.

> "아뇨. 가끔 걱정돼요. 가족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 멕시코에서는 가족으로서 함께 뭉치는 버릇이 있어요.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제한적이겠지만, 이걸 차치하면, 병원 응급실에 사람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세상에!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치료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데 친척과 친지 네, 다섯, 여섯 명이 같이 가요." (멕시코, 60대, 남, 프란시스코)

인터뷰 내내 냉소적인 톤을 유지했던 산티아고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친구와 가족이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족을 달기는 했지만, 가족과 친지가 제공하는 정서적 도움이 행복의 요소라는 점에는 동의를 표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면접대상자가 문화적 교감을 나누는 가족과의 활동을 언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혈족과 인척뿐 아니라 친지와 이웃을 포함하는 '의사친족(fictive kinship)'(김세건, 2004)으로 가족의 단위가 확장된다는 점이다. 파티와 축제를 함께 즐기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이들이 떠올리는 행복의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멕시코인의 행복은 일상적인 축제와 파티를 누군가와 함께 하는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포옹을 많이 하고 뺨에 키스하죠. 모임 때 많은 경우에는 집에서 파티를 열고, 멕시코에서 많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요. 파티에서 많이 쓰이는 요리는 빵과 곁들여 먹는, 과카몰리, 까르니타스, 포졸레, 몰레 같은 것들이에요." (멕시코, 60대, 남, 프란시스코)

> "여기 멕시코에는 아름다운 장소와 음악이 있죠. 식탁 위에 접시가 있고 거기에 음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거나 다름없어요. … 멕시코인은 축제(fiesta)와 함께 살아가요. 보통 외출하는 사람은 축제에 가는 거예요. 축제가 여기서는 정말 흔하죠. 무엇이든지 그걸 위해 축제가 만들어져요. 먼저 생일이 있고, 성인(santos)을 위한 축제가 있고, 국경일이 있고, 마을마다 과거에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의 날이 있어요. … 마리아치(mariachi, 멕시코 전통 밴드)와 술이 있다는 고정관념 그대로예요. 술과 음악이 실제로 있고, 밴드음악은 주(estado)마다 다양해요. 어떤 곳에서는 결혼식, 생일파티, 12월 24일, 25일, 1월 1일에 열리기도 하고, 축포를 쏘기도 해요. 제가 사는 곳은 좀 조용한 편인데 연말에 피냐타(Piñata, 사탕이 든 종이인형)를 부수고 선물(Aguinaldo)을 나누고 축포를 쓰고 그러죠. … 네! 축제에 참여할 때 행복감을 느끼죠. … 여기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단순히 '축제를 열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축제를 해요. 이게 멕시코 사람에게 많은 행복을 주죠." (멕시코, 20대, 남, 페드로)

"네! 멕시코가 행복한 나라라는 것에 동의해요. 멕시코는 매우 축제가 많고 매우 전통적이에요. 각 마을, 각 주마다 자기만의 축제가 있죠. 거의 일 년 내내 어디에나 축제가 있어요. 멕시코는 축제가 정말 많아요. …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로부터 벗어나 거기서 위안을 구하기도 하죠. 축제 때는 공경하고 좋아하는 성자들이 있어서 더 묵상하고, 더 구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더 차분해질 수 있죠. 여기 멕시코시티도 매우 전통적이고 모든 지역에 그들만의 성인이 있어요. …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해요. 살사를 매우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춤을 많이 췄죠. … 여기 공원에 가면 단손(danzón), 살사(salsa), 볼레로(bolero)를 볼 수 있죠. … 혼자 가면 거기에 싱글 여성들도 많이 있죠. 저는 축제를 좋아하고 춤추는 걸 매우 좋아해요." (멕시코, 60대, 남, 미겔)

이처럼 멕시코의 음식, 춤, 음악이 결합된 축제는 가족과 친지가 어우러진 공동체 내의 교감일 뿐 아니라 참여자를 종교의 세계로 이끌며 의례를 통해 현세에 대한 성찰을 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멕시코 문화에 내재해 있는 종교적 관념이 의례와 축제를 매개로 일상에 대한 감사와 평온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멕시코인은 가족, 친족, 이웃이 종교적 관념을 담은 문화를 함께 향유하면서 행복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종교적 축제나, 행진, 혹은 죽은 자의 연회를 열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그게 정말 멕시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저는 (그런 종교적 이벤트 때문에) 멕시코 사람은 보편적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요. 사람이 자기 안으로 침잠하고, 매우 종교적인 생각에 잠기고 … 이건 콜럼버스

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시간에서 온거에요. 멕시코는 대단한 뿌리가 있죠." (멕시코, 60대, 남, 프란시스코)

면접대상자들에 따르면 멕시코인의 종교적 관념은 의례를 통하여 쾌락과 기쁨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개인이 현실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여 내면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면접대상자들은 이처럼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종교가 결합된 문화를 향유하는 순간을 즐기고, 이에 감사하는 것이 멕시코인의 행복의 요체라고 말한다. 멕시코인은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종교적 함의를 지닌 멕시코 문화를 일상에서 누릴 때 고된 현실을 긍정하는 힘을 얻게 되고 행복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인의 종교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쳐요. 자신의 결정이 잘 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 '고요함(calm)'을 느낍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서 배운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순간이 고요하고, 감사하면(grateful) 그것이 행복한 것이지요. 무언가를 받고, 남에게 주는 순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사람에게는)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죠." (멕시코, 20대, 여, 베로니카)

2) 멕시코인의 행복감을 좌절시키는 현실

연구자가 멕시코인의 면접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들이 행복한 일상을 묘사할 때와 행복을 파괴하는 현실을 드러낼 때의 어조가 판이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스타리카인의 면접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었다. 면접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가족주의에서 연유하는 긴장감과 억압으로부터 폭력성이 엿보이는 사회문제까지 신랄하게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들이 멕시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주치고 경험하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공부해서 학사랑 석사 학위를 따야 해, 그러지 않으면 직장을 구할 수 없어'라는 가족들의 말에 압박감을 심하게 느꼈어요. 사실 반항심도 생기고 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죠. ...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더 똑똑하고 예

쁘고, 더 잘났고, 그런 말들 듣는 거 질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멕시코, 60대, 여, 카르멘)

카르멘이 경험한 가족의 권위주의와 압박은 특히 여성 면접대상자에게서 상흔으로 기억되고 있다. 멕시코에 만연한 '남성다움의 문화(machismo)'가 여성에게 스스로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하고 다양한 성격의 폭력을 일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여성은 가족 안팎에서 좌절, 불안함, 공포, 분노와 같은 감정이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을 감내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아들이자 남매인 남성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멕시코의 일상이다(Walter, Bourgois, & Loinaz, 2004). 이러한 현실은 강한 유대감과 협력으로 표상되는 멕시코의 '가족주의'의 일반적 이미지와 대조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어린 나이에 가족을 이뤄야 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여성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싫어하고 짐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도 못 마쳤는데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근 동네에 학교도 없어서 그냥 바로 일을 시키거나 그렇게 되죠. 이런 일은 고등학교나 대학만이 아니라 초급 단계의 학교에서도 흔하게 발생해요. 무엇보다, 여전히 마초(macho)의 나라인 멕시코에서는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안 되고 집에서 아이나 봐야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 보편적이에요. 도시에서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다르다거나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방보다 도시에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직장을 구하는 게 더 쉬워 보이긴 해요. 지방에 사는 여성은 남편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여성과 아이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교육을 받아요." (멕시코, 20대, 여, 소피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의 남자들은 매우 마초(macho)였어요. 남자들은 소리지르고 때리고 다했죠.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했고 대답도 못했어요. 대답하면 남자가 여자를 학대(maltratar)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자랐어요. 홀로 일곱 아들을 힘겹게 키우시며 오랫동안 싸워온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가능한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성을 학대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커서 바뀌려고 했어요. 16년을 아내와 살았는데 손을 든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어요. 더 잘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어요."(멕시코, 60대, 남, 미겔)

멕시코에서는 여성이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도 마약과

살인 등 범죄의 주요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사회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여성도 다양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만, 살인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여성이 인신매매나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동안 남성도 되돌리기 힘든 피해를 초래하는 강력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남성 면접대상자는 예외 없이 크고 작은 범죄에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면접대상자가 일상화된 멕시코 치안불안과 범죄일상화를 진술할 때 항상 경찰과 공권력의 부패와 무능력을 개탄하는 담론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 "멕시코에는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가끔 겪어요. 언젠가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죠. 관공서에 가면 마치 제가 범죄자인 양 심문을 해요. 불행하게도 이런 일을 겪으면 멕시코의 정의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는 걸 알게 되죠. 부패도 많고 소송을 제기하러 갈 수도 없어요, 검찰청에 가야 하는데, 거기 가면 마치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심문을 당하기도 해요. … 정말 아무것도 되찾지 못했고 범인도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일도 처리된 것이 없어요." (멕시코, 60대, 남, 프란시스코)

> "사람들이 핸드폰을 도둑맞거나, 폭행당하거나, 차를 도난당하면 신고하러 가는 공공부서가 있죠. 거기에 가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원하면 서류 작성이랑 다 하실 수 있는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차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정말 작게라도 정부의 도움이 있을까 하여 가보는 거죠." (멕시코, 20대, 남, 산티아고)

>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잠들어서 막차를 타게 됐어요. … 경찰이 겁을 주고, 지갑에서 돈을 꺼낸 뒤에 지하철에서 내리게 했어요. … 지하철 공사에 신고했고 당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했는데, 다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신고한 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멕시코, 20대, 남, 후안)

다수의 면접대상자는 이러한 범죄와 치안 부재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멕시코 사회의

16) OECD의 Better Life Index(2017)에 따르면, 멕시코의 살인률은 인구 십만 명 당 18.1명이다(OECD, 2017a).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3.7을 훨씬 웃돌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또한 멕시코는 코스타리카에 비하여 마약 관련 범죄가 많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의 비율도 높다(Agren, 2020).

불평등, 그리고 이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Flannery(2020)에 따르면 2020년도 현재 멕시코 노동인구의 56%가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하위 10%와 상위 10%의 차이가 무려 19배에 이른다(KOTRA, 2013). 프란시스코가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일자리와 소득의 불균등 분배는 범죄는 물론이고 질 나쁜 의료와 교육 그리고 사회보장의 미비 등 멕시코의 제반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대다수 멕시코인이 추구하는 평온하고 긍정적인 삶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음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 "멕시코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이 다수이고, 이들의 경제활동도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생긴 거죠. … (멕시코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해요. 대중교통, 소득, 의료, 교육(이 모두 고려되어야 해요). 우리는 아직도 학교 교육에 문제가 많아요. … 멕시코에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나쁜 정부 및 행정관리와 함께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멕시코, 60대, 남, 프란시스코)

>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죠. 의사인 제 딸이 저를 치료하고 약을 주었어요. 호흡기 내과 의사도 불러주었고요. 호흡기내과 의사가 보더니 '좋아요, 당신들이 이미 다 했군요'라고 말했어요. 사실 산소 호흡기를 가져와서 치료해준 건 제 딸이었어요. … 약값은 (정부가 아닌) 제가 냈어요. 제 돈으로 산소도 코로나 테스트기도 구매했어요.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어요. 멕시코 보건 체계는 정말 엉망이에요. … IMSS(멕시코 사회보장국), SSA(보건부), ISSSTE(국가공무원사회보장서비스국) 등의 세 보건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 환자 치료가 엉망이에요.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는 정말 어려움을 겪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 정부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 저는 외부에서 따로 돈을 내고 내분비내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어요. … 사실 (의사인) 제 딸도 보건당국을 신뢰하지 않아요. 제 딸은 '아냐 엄마 거기 말고 (공공의료 서비스) 밖이 더 나아'라고 하죠. 물론 정부가 제공하는 치료와 사적 치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멕시코, 60대, 여, 카르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악사로 친지에게 전통술 '메즈칼(mezcal)'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산티아고가 노여움을 표출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만큼 다수의 멕시코인이 제반

사회문제와 열악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면접대상자 중 예외에 속했던 카르멘처럼 권리향상을 위해 정치적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멕시코인이 표출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이들의 의식-실천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

> "저를 매번 좌절감에 빠뜨리는 건 부자들이 다른 계급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들이 일상에서 항상 '나는 당신이 평생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해요. ... 이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저를 화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화나게 만들어요. ... 이런 제 생각과는 동떨어져 불평등과 정의롭지 못함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급의식과 현실에 대한 섬세한 고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멕시코, 20대, 남, 산티아고)

3) 초현실적 종교관과 행복의 사회문화적 구성

멕시코인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실존적 욕구와 자신 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면접대상자가 멕시코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멕시코인의 행복지수가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의 불일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적어도 면접대상자가 멕시코의 현실에 지나치게 비판적인 예외적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드러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멕시코인은 행복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미약하나마 이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면접대상자가 현실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construct)하여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코스타리카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멕시코인 면접대상자도 행복의 핵심적 준거점으로 가족 혹은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친지를 포함하는 '의사친족(fictive kinship)'을 언급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멕시코인은 농업 위주의 전통사회 시절부터 확대가족을 토대로 한 가족중심의 문화를 향유해왔고 지금도 그 유산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김세건, 2004).

이는 이상현(2018)이 Beytía(2016)의 연구를 검토하며 지적한 것처럼 사회보장이 취약하고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하게 낮은 사회에서 친밀한 가족관계가 생존전략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을 물질적, 정서적으로 보호하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은 면접대상자들이 가족이나 친지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할 때도 잘 드러난다.

> "이런 상황에서 저는 꽤 좋은 친구 네트워크와 공고한 가족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트워크가) 제게 자존감과 안정감을 유지시켜줘요. 가끔은 경제적 상황 등 극한 상황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기반이 있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멕시코, 20대, 남, 후안)

> "우리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고 해요. 때때로 도시에서는 소음과 (생활의) 빠른 속도감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멕시코인은 친구와 만나서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 20대, 여, 베로니카)

멕시코에서 가족의 기능과 의미가 전통사회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면접내용을 분석하지 않고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가 경험했듯이 어느 사회나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물질적 토대와 조응하여 변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멕시코 역시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자유로운 노동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의 원자화와 개인주의 이념을 발전시켜 온 지 오래되었다(김세건, 2004). '가족주의(familismo)'가 전통사회의 이상적 규범으로 인식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현실에서 멕시코인의 의식과 실천을 지배하는 이념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내면화한 60대 여성 로사와 같은 노년 세대와 달리 20대 남성 후안이나 여성 베로니카와 같은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권위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간섭에 타협하면서도 자신의 결정권을 놓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멕시코 가족의 기능은 여전히 개인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지만, 가족주의는 세대와 젠더에 따라 받아들이는 양상과 정도가 다르고 그 영향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말한 게 가족과 친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거나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 한에서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편한 대로만 말하다가는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끝장날 수도 있죠." (멕시코, 60대, 여, 로사)

"어머니와 할머니까지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때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럴 때 화가 납니다. 제 어머니의 자매들이지만 이모와 그렇게 가까운 관계 같지 않아요. … 예를 들면, 저는 과학과 관련된 걸 좋아하고 연구도 하고 싶은데 아직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도 저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 관점을 갖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모가 저한테 학교도 못 갔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 해외에 가보고 싶은 건 가족 때문이에요. 집에 있으면서 문제되는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지식과 다른 관점을 얻기 위한 모티브를 얻고 싶어요." (멕시코, 20대, 여, 베로니카)

"저는 개인적 삶에서 꽤 자유롭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체로 그래요. 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 자유롭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관점에 따라 결정하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합니다. 제가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도우려고 노력하겠지만요. … 비용이 드는 사안을 논의할 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기여를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제가 반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제 입장을 분명히 말하지만 결정에 따릅니다. … 집에서 할아버지와 관계되는 몇 가지 일을 논의할 때도 불편함을 느껴요. 가족이 제 의견을 배려하지 않으면 좀 물러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험에 기초해볼 때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전통적 가족을 이루라는 외부의 압력보다는 파트너와의 합의에 기반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믿어요. 문화적, 종교적 제약보다는 파트너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멕시코, 20대, 여, 후안)

이상의 사례를 놓고 볼 때, 멕시코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완충시켜주고 행복감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기제를 가족주의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개인이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문화적 기제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백하건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와 같이 단기간의 인터뷰 조사만으로 명확히 찾아내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인의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있는 종교관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행복감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일부 면접대상자의 해석은 연구자에게 설득력이 있게 다가왔다. 특히 멕시코인의 내세관에 토대를 둔 "초현실적(surreal)" 사고가 멕시코 사람들에게 내면화되어 있고 이것이 행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문화적 기제라는 프란시스코의 설명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 보였다.

> "멕시코에는 '우주 속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of the universe)'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 멕시코에서는 지하세계에 대해 많이 다뤄요. 특히 스페인 정복 이전의 문화에서 지하세계와 삶-죽음이 무엇인지 잘 다루었죠. 그게 이어져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 멕시코인은 죽음 앞에서 불손해요. 멕시코에서 죽음이란 '너무 두렵고 그래'가 아니에요. ... 멕시코에서 '망자(亡者)의 날(Día de Muertos)'을 축하하는 것은 초현실적(surreal)인 (것을 믿는) 역사에 근거한 것이에요." (멕시코, 60대, 남, 프란시스코)

> "이건 멕시코의 문화에요. 죽음의 개념도 매우 문화적인 거예요. 멕시코에서 죽음은 지금까지 파티였어요. 조금 변하긴 했지만 커뮤니티 안에서 망자(亡者)를 살펴보러 가는 게 완전히 파티였고 마을 전체가 참여했죠. 타말, 커피, 빵도 있고, '저 사람 죽었네'라고 농담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걸 하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펼쳐진 현실은 우리의 휴일(holiday)이라는 거지요. 상실에 대해 애도하지만, 슬픔보다는 축제 분위기가 지배적일 수 있는 이유에요." (멕시코, 60대, 남, 프란시스코)

이러한 프란스시코의 문화인류학적 해석은 멕시코의 종교와 이에 토대를 둔 세계관, 내세관이 멕시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과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희화화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그 결과 멕시코인이 현실의 고난에 순응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프란시스코의 해석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다수의 멕시코인 면접대상자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학(humor)이 넘치는 대화를 통하여 고통을 희석하는 것이 평온과 감사하는 마음을 만든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멕시코인의 공통분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농담하고, 놀리고, 빈정거리며 웃는다는 거예요. 11월 망자의 날 축제가 죽은 자들을 기리는 날인데 집에 해골을 놓아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에 램프를 놓아서 더 우울해보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불쾌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지 놀라워요." (멕시코, 60대, 여, 카르멘)

"유머는 모든 나쁜 것을 쏟아내고,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왔지만, 행복한 상태는 스스로 긍정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한) 일상의 공격을 다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보면, 멕시코인은 경제나 다른 것 때문에 일상이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무척 힘들거든요. 유머는 이런 현실을 덜 비관적인 방식으로 직시하게 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멕시코, 20대, 남, 후안)

멕시코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주장하는 문화적 기제들이 실제로 이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기제들이 정치경제적 상황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Farmer, 1996)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얼마나 지속적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고통에 직면할 때 종교적 세계관을 비롯한 문화적 관념을 통하여 해석하고 수용한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멕시코인의 이러한 대응방식을 행복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해내는 지혜라고 평가하는 현지인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람시(Gramci, 1973)가 '헤게모니(hegemony)' 개념을 통해 성찰하고 있듯이 이러한 문화적 관행과 지혜가 현실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부지불식간에 지배이데올로기에 동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멕시코인이 정말 행복한가와 이들이 행복을 어떻게 구성해내는가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행복의 구성이 행복한 현실을 만드는 데 진정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젊은 악사 산티아고는 멕시코인의 행복관이 가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간파(penetration)'(Willis, 1981)하고 있는 듯하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문화에 순응주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치경제적 위기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괜찮아'라고 말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찾기보다 다 무시하고 행복을 찾아요.....우리 문화에서 조금의 축제와 음식, 파티가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절망으로 가득 찬,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국가로 남아 있어요." (멕시코, 20대, 남, 산티아고)

2. 개인적 수준에서 본 행복

이 연구는 행복연구의 맥락화와 공간적 역량 (spatial capability)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쓴 중남미 국가 행복 인식에 관한 사례연구다. 2000년대 들어 사회과학과 정책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해 크게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복연구 다수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으로 측정된 행복수준을 나라별로 비교했다. 근래에는 지리학에서 행복은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하고 구체적 맥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보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는 (Smith & Reid, 2018)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는 이론적 틀을 위해 행복연구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거론되는 아마티아 센(Sen, 1992; 2013)의 역량 이론(capability theory)을 발전시켜 공간적 역량을 제시한다. 역량이론은 인생에서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역량으로 규정하고, 인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공간적 역량 (Shin, 2011; Kim & Shin, 2018)은 역량이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공간적 측면을 발전시킨 것으로 주거와 이동의 자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실시한 한 북유럽 나라들의 행복 현장조사는 경제수준이 높고 행복도도 높은 사회에 대한 연구였고(정해식 외, 2019), 이 2차연도 연구는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는 중남미 국가들의 행복에 관한 연구이다. 경제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높은 행복도는 학계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중남미 국가들의 행복은 행복과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Easterlin, McVey, Switek, Sawangfa, & Zweig, 2010; Conradson, 2012; O'Neill, 2016)을 증명하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

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복과 소득 사이에 다소 긍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10년 이상 되는 장기적 기간이나 거시적 수준에서 행복과 소득 사이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 종종 1위로 꼽히는 코스타리카를 비롯하여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대체로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중남미 국가가 대체적으로 좋은 날씨와 쾌활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심각한 내전을 겪은 후 1948년에 군대를 합법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사실상 형식적으로 북한과 전쟁 중이고 군사적 긴장을 가지는 한국사회와 대비를 이룬다. 이 중남미 사람들의 친지들 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두터워서 행복을 비교하는 세계적 기준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이 나라들의 행복도는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는 역량이론에 기반한 이론적 접근과 질적 연구방법에서 1차연도 연구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Smith and Reid (2018)이 지적한대로 사회과학에서 행복연구에 관해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이 무시되고 개인의 만족하는 상태를 계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양적연구가 주된 흐름이었다. 행복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리뷰를 제공한 Smith and Reid(2018)의 연구는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상호작용,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행복을 연구하는 질적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 맥락은 넓은 의미의 공간, 장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웰빙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촉진되고 장소를 촉매로 되는 것라고 주장하였다.

행복연구에서 큰 축을 이루는 센(Sen)의 역량이론(Capability theory)이 개인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 역량의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있다. 행복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주로 이용한 양적연구방법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행복을 상태라고 보고 전체의 평균적 상태를 본다면, 질적 연구방법은 개인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과정 속에서 행복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대도시인 수도(코스타리카의 산호세,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심층인터뷰를 중점적으로 했다. 1차연도에 비해 특이한 점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현지 조사는 불가능하였고 모든 인터뷰는 줌(zoom)을 이용하여 화상대화로 이루어진 점이다.

이 연구에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를 대상으로 삼은 출발점이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높게 나오는 기존의 연구결과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

는 것은 흔히 경제발전이 낮아 행복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소이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에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많은 피면담자들이 얘기한 기본적인 생활조건이다. 여기서 기본조건이란 날씨, 음식과 같이 자연환경에서 인간생활에 제공하는 조건과 일상에서 맺는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뜻한다. 심층인터뷰 결과는 이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중남미 국가가 행복한 근원이 되는 이유를 보여주었다. 다수의 피면담자들은 날씨가 좋고 음식이 풍부하여 음식이 풍부하고 사람들과 친밀감이 높아서 행복한 것이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코스타리카에서는 날씨와 신선한 음식에 대한 묘사가 많았다. 도시 빈민들을 제외하고는 가난해도 신선한 음식을 채소를 먹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좋은 날씨와 좋은 해변과 좋은 풍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하다고 행복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빈부의 차이는 고기를 약간 더 먹고 덜 먹는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공간적 역량이다. 주거, 교통과 같이 주거와 이동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은 행복의 큰 요소이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높은 부동산가격과 교통체증 때문에 일상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특히 중남미 국가에서 범죄는 두드러지게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주거환경의 큰 요소였다. 왜냐면 범죄에 노출이 덜 되는 좋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바램과 그를 위한 재정적 조건이 걱정이었다. 특히 여자 피면담자들과 장래 배우자를 생각하는 남자 피면담자들은 좋은 동네에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비해서는 자신들의 사회가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여 안도하는 점도 있었다. 멕시코 피면담자들은 정부가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좀도둑과 강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에서 뜻하지 않게 나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응답은 자주 언급되었다. 일부 피면담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때를 인터뷰하던 당시, 바로 지금이라고 꼽았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이동규제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은 많이 고통받고 있었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이다. 여기에는 친밀성, 경쟁이나 비교, 사회적 차별 그리고 정치적 참여 등을 포함된다. 모든 피면담자들은 친지, 이웃, 친구 관계에 대해 강

조를 많이 했다. 확대가족, 친구, 이웃과의 모임이 잦고 가까운 관계가 일상의 큰 부분이며 낯선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멕시코 피면담자들이 조금 더 강조하는 편이었고, 한국에 살고 있거나 산 경험이 있는 두 나라 피면담자들이 특히 강조한 점이었다. 한국에서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일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이 물론 좋은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 중점을 준다고 많은 피면담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북유럽 국가 연구에서처럼 세대 간 차이도 함께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노년세대 피면담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젊던 시대보다 지금 젊은 세대는 더 각박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경쟁이 심해지는 경향은 뚜렷하지만 그 정도가 한국에 비해서 낮다는 뜻이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걱정이 있었고,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과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신이 바라는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도 함께 있었다.

가. 기본적 조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날씨, 음식, 자연환경

코스타리카 피면담자들은 코스타리카가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대체로 당연하다고 동의하는 편이었다. 그 당연한 행복의 이유로는 크게 삶의 기본적인 조건 (날씨와 음식)과 친밀한 인간관계 두 가지가 나왔다. 피면담자들은 좋은 날씨와 풍부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았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하는 피면담자들도 있었다. Kahneman and Krueger(2006)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현재의 날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날씨가 더 좋은 날에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설문이나 인터뷰 조사할 때 날씨에 대해 명확하게 질문하는지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Schwarz & Clore, 1983). 이 연구의 심층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된 상태로 준비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날씨 얘기는 다수의 피면담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관광가이드 직업에서 은퇴한 바네사는 바로 수긍하며 이렇게 말했다.

> “네, 코스타리카는 행복한 나라로 생각된 이유는 햇살, 신선한 과일, 교육, 건강 때문이에요. 그런 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스타리카, 60대, 남, 바네사)

이 기본적인 조건은 몸을 보살필 만한 기본적인 여건이라는 것이었고 그 여건이 코스타리카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취한 것보다 가족을 더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성취에 대한 압박과 불평등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 같다고 바네사는 설명했다. 그녀 세대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는 불평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했다.

코스타리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나라라는 것에는 세계적으로 질 좋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현대 사회과학에서 관심이 높아진 혼종성과 관계성은 인간-생태학적 관계의 새로운 복잡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는데 (Duff, 2014; Whatmore, 2006),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이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는 비옥한 토지와 좋은 날씨 덕에 신선한 음식이 풍부했고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수출도 활발했다. 그런 농업 중심의 생활이 2000년대 들어서기까지는 농촌, 후진국의 생활방식으로 생각이 되다가 유기농 재료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자연에서 나는 농산물이 삶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 것이다.

음식에 대한 인식변화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변호사였던 크리스티나 (20대 여)의 이야기에 잘 나타난다. 그녀는 인터뷰를 할 당시 전업을 결정한 직후였다. 대도시에서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변호사직을 그만 두고 교외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기로 했다. 그녀는 행복을 음식과 관계에 따라 정의했다. 자신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시기는 어린 시절, 10대였을 때라고 회상했다. 변호사였던 그녀의 부모님은 집 밖에서 일하느라 매우 바빠서 요리를 많이 하지 못했고, 그녀와 그녀의 언니들은 부모님 없이 TV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당시에는 코스타리카에서 미국의 패스트푸드가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신선한 야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고 그녀 가족은 항상 그런 정크 푸드를 먹는 것이 중산층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되던 때였다.

나중에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환경과 음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면서 그녀는 그녀 가족이 먹던 음식 때문에 어릴 적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유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요리는 단순히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코스타리카의 행복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녀가 코스타리카의 높은 행복도에 동의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풍부한 음식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

시 빈민들은 건강한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여기에서 가장 낮은 생활비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동네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는 거에요. 10달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에요. 고기를 많이 먹을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은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어서 그런게 (파머스마켓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 먹는 것이) 유행이에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변호사여서 중산층 가족)은 늘 슈퍼마켓에 가서 미국 패스트푸드를 사지 그런 시장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지역 시장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슈퍼마켓에 가서 준비된 걸 사다 먹었지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는 인식이 바뀌고 나서는 코스타리카에서 흔한 방식인 지나가는 트럭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몸을 돌보는 중요하고도 값싼 라이프스타일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을 아끼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과 지금이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코스타리카 피면담자들에 비해 멕시코시티 피면담자들은 그런 자연을 즐길 수 없어서 자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건축 스타일이 발전하긴 했지만 자연에 대한 녹색 감수성을 채워주는 커뮤니티 공원이 드문 도시환경이기 때문인 듯했다. 코스타리카인들에 비해 멕시코 피면담자들은 가족과 친구와의 만남,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것에는 중남미 지역에서의 자국의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관한 것도 있었다. 다수의 코스타리카 피면담자들은 세계적 비교에서는 코스타리카가 경제 선진국이 아니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마약, 범죄, 교육, 사회 서비스에서 나은 편이라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연구진이 먼저 중남미 지역 내에서의 비교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는데 다수 피면담자들은 중남미 내에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 정도로 괜찮다고 안심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멕시코 피면담자들도 마약, 범죄문제를 언급할 때 다른 중남미 나라들을 얘기하며 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행운이라고 말했고, 멕시코 문화적 전통과 중남미 지역에서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남미에서 멕시코 문화, 대중문

화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영화, 티비드라마, 대중음악 면에서 멕시코 문화가 다른 나라에 많이 스며들어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는 아즈텍 문화권에 있고, 멕시코 문화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편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은 멕시코 사람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주는 편이었다. 그렇듯 남미 지역에서의 지위가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점이 있었다.

나. 공간적 조건과 역량 – 군대, 사회보장, 주거 환경, 범죄, 교통

앞 섹션에서 보여주는 기본조건인 날씨와 토양은 그 국가의 위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섹션에서는 지역, 수도권 내의 위치에 관련한 공간과 위치에 관해서 다룬다. 주거환경은 경제수준이 낮은 두 나라, 특히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은 삶의 질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경제적 수준이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흔히 짐작되기 때문이다. 위치는 자연조건 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문화 특성,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까지도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Conradson, 2003; Haybron, 2011; Panelli & Tipa, 2007; Tucker, 2010). 이 연구의 피면담자들은 다양한 지리적 범위에서 삶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수도권 거주자인 만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환경의 장점과 단점에 관심이 많았다. 국가적 단위에서 자신의 나라 환경 전체에 관해 말하기도 했고, 산호세, 멕시코시티와 같은 대도시의 환경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1) 군대 부재와 사회보장이 주는 행복과 불안: 사회의 변화와 세대 간 인식 차이

국가적 단위에서는 피면담자들은 군대가 없는 사실과 무료교육과 의료를 행복에 연관시켰다. 코스타리카에는 군대가 없는 것이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데, 코스타리카 피면담자들도 군대가 없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면담자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어떻게 코스타리카에서 군대가 해제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호하냐는 질문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60대 코스타리카인 바네사(Vanessa)는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군대 없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물어봤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든 기꺼이 공격하려 한다면 아무리 돈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더 강한 나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군대가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산호세에 살고 있는 20대 알라니(Alani)는 자신의 할아버지 시대에 군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위적인 태도를 볼 일이 드물고 우호적인 태도에 상당히 익숙하다고 말했다. 알라니는 말했다.

> "코스타리카에서 경찰을 보거나 정치인을 만나도 권위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친절하고 인간적입니다. 사람들이 겁먹는 것도 없구요. 그런 권위적인 태도가 없는 것은 군대가 없는 사실과 관련 있을 거예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알라니)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 4백만 명에 약 1만 명의 경찰이 있는데 군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경찰조직이 존재한다. 단지 군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군대가 없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고 하는 시각은 군사적 긴장 아래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 하는 한국사회에 특히 큰 함의를 던진다.

군대가 없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에 비해 교육, 의료가 무료인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20대인 다니엘 (Daniel)과 크리스티나 (Cristina)는 코스타리카의 의료와 교육이 무료인 점을 중요하게 들었는데, 둘 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고마워하거나 행복의 큰 이유로 말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생각해보면 큰 혜택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피면담자는 공통적으로 비판하기를,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삶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 대해 불평한다고 했다.

한편 60대인 바네사가 비판한 무료교육과 의료의 결과는 다소 의외의 흥미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세대에 비해 요즘 코스타리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이 젊은 세대를 많이 일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연구진의 질문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코스타리카는 교육도 무료이고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요. 비록 약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어도 누군가 열심히 일하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개인의 성과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지요. 전 그렇게 점점 일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걱정이에요." (코스타리카, 60대, 남, 바네사)

이 피면담자는 동시에 젊은이들은 경험 없이 급여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바네사 자신이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처럼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완성하고 싶었기 때문에 추가급여 없이 오랜 시간을 일한 편이었다고 했다. 자신은 삶의 어려움을 도덕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세대는 매우 열심히 일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70대 코스타리카인 엘레나(Elena) 역시 자기 세대의 행복 문제를 오늘날의 젊은 층과 비교했다. 기술과 과학의 진보로 오늘날의 시대에는 훌륭한 것이 많지만, 젊은 세대가 더 빨리 삶을 산다는 것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그들은 "항상 진행 중"이고 "어떤 일에는 진정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인 그녀는 어렸을 때 가족들에게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물질적인 것들은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반적으로나 코스타리카에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행복했고, 형제자매들과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자연을 탐험하고, 가족의 농장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또래 세대들보다 더 많은 혹은 더 높은 품질의 물질 상품을 획득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은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직업에 쏟는 시간, 노력, 집중과 연관되어 있다.

젊은 세대 피면담자들도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크리스티나의 경우,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다가 중단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산호세도 떠나고 덜 경쟁해도 되는 직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산호세가 아닌 지방에서 정원이 딸린 집에서 살면서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녀는 코스타리카의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에 비해 저축과 주택 건설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 덕택에 가질 수 있는 교육과 주거가 자신과 미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자녀를 가지길 원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염려가 20대 코스타리카 피면담자에게서 거론되었다. 알라니(Alani)는 정신건강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관심사를 넘어서 사회운동의 차원이었다. 그녀는 코스타리카 기성세대가 정신건강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성세대는 누군가 집, 교육, 기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문제에 대

해 불평하는 것은 고마운 태도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알라니는 설명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알라니는 인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행복의 국가적 비교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 수도권 거주의 명암: 경제적 기회와 경제적 부담, 안전 불안과 상대적 안전

도시 단위에서의 공간적 역량은 주거지의 선택, 이동의 자유와 관련이 깊었다. 주거지 선택은 주로 직장, 직업선택과 강한 연관이 되어있고 개인의 선호도도 반영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표였다. 대다수의 피면담자들은 수도권에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청년세대 피면담자들의 경우 대도시에 사는 것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는 한편 미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고, 노년 세대 피면담자들은 대도시에 살아온 역사에 대해 애착이 있었다. 대도시에 사는 것은 일자리와 문화적 기회가 좋아서 선호하는 것이고, 경제적 능력은 범죄와 큰 연관이 있었다.

20대 마테오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호세의 도심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는 대부분의 코스타리카인들이 차라리 도시 수도의 외곽에서 자연 주변에 지어진 집에서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테오에게는 대중교통, 문화 행사, 그리고 특히 교감 시간과 관련하여 그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편의들을 갖는 것이 그의 생활방식에 있어 최우선 과제다. 마테오의 경우 행복에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라고 했다. 그에게 이것은 자신의 삶과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통제하는 느낌과 같다고 했다. 20대 후반의 젊은 코스타리카인 마테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둘 다 잃었는데, 자신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가장 불안하고 좌절스럽다고 했다.

대학생인 알레한드라(Alejandra)의 경우 멕시코시티에 사는 것을 절대적으로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직업이나 콘서트, 갤러리 등 모든 것이 멕시코시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멕시코시티에 사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했다. 멕시코 20대 피면담자 산티아고는 그의 부모님은 그가 9살 때 이혼한 이후 그는 다른 가족과 떨어져 멕시코시티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에게 어려움은 부모의 이혼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혼 전 가족 상황이었다. 그는 그때가 도시의 많은 새로운 것들을

탐험한 자신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마주하는 흥분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80대 마리아는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녀는 그곳에서 60년 이상 살았다. 그러나 남편이 암 진단을 받자 그들은 몇 년 전부터 이주해 온 다 큰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콜리마로 이사하기로 했다. 마리아는 콜리마로 이사 온 후, 그녀에게는 멕시코시티와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설명했다. 마리아에 따르면, 멕시코시티는 과밀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비싸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살지 않았었고, 나라를 떠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에는 콜리마와 같은 도시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마도 그녀의 또래의 사람들은 멕시코시티 밖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고 젊은 사람들은 수도를 선호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공간적 역량 중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자유는 피면담자들에게 민감한 사항이었다. 특히 두 나라 피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범죄와 안전의 문제였다. 자신의 정부가 범죄를 근절시키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능력이 없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런 안전과 안보의 문제 때문에 20대 산티아고(Santiago)는 멕시코를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여성에게 보안은 큰 위협이며 사람들은 국가가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 피면담자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알레한드라에게 이 공간적 역량을 좌우하는 것은 멕시코에서 안전 문제였다. 그녀가 살고 싶어 하는 고급주택 지역(폴랑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때문에 밤에 젊은 여성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다.

> “저는 돈을 좀 더 주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사는 것을 택하겠어요. 멕시코는 불행히도 강도와 같은 사건이 많아요. 심지어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요. 그런데 안전한 동네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해요.” (멕시코, 20대, 여, 알레한드라)

그래서 알레한드라의 경우에 그녀의 공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재정적인 능력이었다.

알라니도 다른 많은 피면담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강관리와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약물 문제를 정

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빈곤의 문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총싸움을 하는 마약 산업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시티에 사는 60대 라우라는 인터뷰 내내 멕시코시티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믿는다고 꾸준히 언급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특정한 동네가 다른 동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는 괜찮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의 평생 동안 살아왔지만, 그녀는 이 도시를 인구가 조밀하고, 더럽고, 위험하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과거 여러 건의 주택 강도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관과 여러 차례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국도 믿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곳은 그녀의 집이고 그녀의 가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 걱정을 무마시키는 공통된 반응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비교였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라는 위안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중남미 지역에서의 비교는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니엘(Daniel)은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를 비교하면서, 코스타리카는 멕시코와 같은 많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명망 있는 지위가 덜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피면담자들은 수도인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상태였다. 대학생인 알라니의 경우, 산호세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감사히 여겼다. 그녀는 도시에서 살고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을 때 눈을 떴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걱정을 했다.

> "제 꿈은 혼자 산호세에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산호세 집은 많이 비싸요. 집값을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해요." (코스타리카, 20대, 여, 알라니)

알라니는 부모님이 기꺼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겠지만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좋은 직업을 가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겠다는 했다. 비슷한 젊은 세대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은 다니엘은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어 인터뷰 당시 소득이 없었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직업이나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만 있는 한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

고 좋아하는 동생들과 함께 산다. 그는 코스타리카의 유일한 문제는 교통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아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3) 이주/이동의 자유: 직업에 따른 이주와 코로나 이동제한

공간적 역량의 큰 부분은 이동의 자유, 이주를 할 때 의사결정에서 가지는 힘이다. 거주지를 결정하는 자유는 전반적으로 직업과 큰 연관이 있었고, 이 점에서 젠더 차이가 눈에 띄었다. 남성 피면담자들이 이주의 자유를 더 누리고 여성 피면담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주 결정을 이끄는 역할이 약했다.

멕시코 60대인 디에고(Diego)는 자재 엔지니어라는 직업 덕분에, 그는 많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자주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취업 덕분이었다. 그가 회사 프로젝트를 위해 해외에서 보낸 가장 긴 시간은 3개월이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멕시코에 머무르곤 했다. 디에고는 이렇게 말했다.

> "저는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했지만 제 직업에 매우 열정적이었어요. 제가 제 가족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해외의 과제들을 받아들였지요." (멕시코, 60대, 남, 디에고)

그러나 그가 은퇴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멕시코의 경제 상황이 더욱 격동되고 있는 지금, 디에고는 경제적 자유와 이동성 면에서 이전보다 더 제한적이라고 느낀다고 인정했다.

60대 코스타리카인인 로드리고(Rodrigo)는 과학기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는 항상 시대의 기술에 순응하며, 그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왔다. 그의 분야 덕분에, 그는 학계, 정부, NGO 등의 여러 중요한 기관에서 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들은 그에게 일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또한 재정적으로 그에게 편안한 삶을 주었다. 인터뷰 당시 로드리고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다른 정식 직장에 다니던 월급의 극히 일부만을 받고 지역 NGO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가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일하고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 30대인 에두아르도(Eduardo)에게는 인생과 진보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는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로 이동했다. 언제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에두아르도는 가장 자신이 좌절했던 상황은 원하는 직업 때문에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외국인인 신분 때문에 그 직업에서 뽑히지 못해 가지 못했던 때를 꼽았다. 남들보다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회 자체가 없어 선택을 못했다는 것이 답답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시티에 사는 산티아고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학계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꼽았다. 그것은 그의 실패를 의미했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따로 살지만 좋은 관계를 맺는 가정 상황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위에서 언급한 남성 피면담자들에 비해 여성 피면담자들은 범죄로 인한 주거지 제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구체적인 주거지와 자유에 있어서는 일상의 행복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편이었다. 멕시코 20대 여성인 노엘리아(Noelia)는 그녀가 항상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지만,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캄보디아, 한국에 살았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그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가족 상황에 의한 것이었고 그녀가 따로 지낸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듯했다. 이제 그녀의 어린 아들과 가족생활은 그녀의 일상의 이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에게 이동과 이주의 자유가 제한된 것은 가족생활이었다. 그리고 기혼자나 이혼자들의 경험에서 여성의 제한이 더 크게 나타났다. 코스타리카에서 큰 자녀를 둔 60대 이혼남인 알베르토(Alberto)는 이혼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동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누렸다고 말했다. 그의 자녀들은 전처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는 현재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수입이 자신의 생활 방식과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지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유일한 불평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교통 인프라와 같은 필요한 곳에 이러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스타리카 20대인 크리스티나에게 공간은 행복을 위해 중요했다. 그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쟁적이고 높은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그녀는 이 공간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정원이 딸린 집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산호세 외곽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높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

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정원에서 먹을 신선한 채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거리를 극복하게 된 것도 있었다. 인터넷이 그녀의 직업과 집을 기꺼이 바꾸도록 만든 이유였다. 크리스티나는 2년 전부터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괜찮았다고 말했다.

이주와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여성 피면담자는 산호세 지역에 사는 70대 엘레나(Elena)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충분한 자유를 얻었다고 느낄 만큼 운이 좋다고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의 가족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위한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갈 길을 찾을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한 대답이었다. 공부를 마친 후 그녀는 코스타리카로 돌아왔지만 국내외를 자주 여행할 수 있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두 자녀와 45년간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주와 이동의 자유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상황이 연구대상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과 행복의 성격과는 동떨어진 너무나 특이한 것이지만, 피면담자 대부분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기간인 심층인터뷰를 진행 중이던 2020년 7, 8, 9월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시기라 이동규제가 있었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것이 사람들의 행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준 시기이기도 하다. 자발적으로 코로나와 이동규제에 대해 얘기하는 피면담자들이 많았다.

멕시코 피면담자 산티아고는 가장 불행한 시기가 언제였냐는 연구진의 질문에 '지금'(인터뷰 당시)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제가 불행한 이유는 첫째, 격리되어 타인과의 접촉이 부족한 것이에요. 매일 개를 산책 시키러 가서 공원에서 다른 견주들 만나서 손을 흔드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둘째로 코로나19로 인해 선택의 폭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래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 장래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 20대, 남, 산티아고)

산티아고와 같이 젊은 피면 남자들은 친구를 못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다

고 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친구들과 줌(ZOOM)으로 대화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잦게 가졌던 모임이 없는 것에 대해 괴로워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피면담자도 있었다. 산호세에 사는 20대 마테오는 코로나 유행으로 직장 예산 삭감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언론학을 공부하여 신문사에서 5년 동안 일했다. 그가 언론인으로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매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과거 직업 경험을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이 손실 덕분에 이제 자유계약 언론인, 작가로서 일하면서 더 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행복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택근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다. 산호세의 젊은 건축가인 다니엘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유행병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유행 당시 인터뷰 당시에는 통근 시간이 없어 휴식 시간이 더 많고, 유연한 휴식 시간을 이용해 가사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에 사는 60대 모니카에게도 재택근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그녀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은 출퇴근과 교통체증이었다. 자가용을 소유하고 매일 차를 몰고 출근하지만 다른 운전자들이 보여주는 무례한 행동 때문에 출퇴근을 싫어했다고 말했다. 교통체증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긴장된 충돌은 그녀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했다. 그녀는 교통체증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고객이나 동료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곤혹스럽다고 했다.

다. 사회적 관계의 큰 의미

심층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에게 가장 공통되게 큰 주제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였다. 두 나라 피면담자들은 두 나라 간 혹은 젠더 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외 없이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는데, 핵심 그룹이 있었고 만나는 횟수도 잦았고 포옹 등 스킨십도 많았고 무척 낯선 사람이 끼게 될 때도 따뜻하게 맞아 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했다. 특히 한국에 산 경험이 있거나 한국이나 한국친구에 대해 경험이 있는 피면담자들은 한국과 비교하여 경쟁과 비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 눈에 띈다.

1) 핵심 친밀그룹 형성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은 친척, 친구들로 구성된 핵심 친밀그룹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당시 피면담자들은 그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했다. 코스타리카 20대인 다니엘의 행복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 핵심 친밀그룹이 정말 중요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일할 때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신은 사교적인 사람이어서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자신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핵심그룹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드는 데 까다롭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멕시코에서 너무 많이 일해야 했다. 60대 멕시코인 모니카에게도 이 핵심그룹은 매우 중요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좋은 해소방법은 가까운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코스타리카 60대 여성 바네사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그녀의 이웃에 산다. 남편이 그녀를 떠난 후, 그녀의 친정가족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다.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던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코스타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아 있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그녀의 직업으로 인해 그녀는 오랫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미혼모로서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멕시코에 있는 알레한드라는 대학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22세 여성이었다. 알레한드라에게 행복이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인터뷰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그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그 핵심그룹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 "우리는 다 여덟 명이에요. 이 그룹은 저에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나눠요. 절대로 제 삶에서 그 친구들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에요. 저희는 정말 자주 얘기하고 숨기는 게 없어요." (멕시코, 20대, 여, 알레한드라)

알레하드라가 늘 이런 그룹에 속했거나 그녀의 타고난 성품이어서 원래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꼈던 것은 아니었다. 인터뷰 말기에 가서 알레한드라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다른 도시에서 멕시코시티에 와서 조심하면서 지냈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이미지에 늘 신경을 쓰며 걱정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멕시코, 20대, 여, 알레한드라)

알레한드라가 지금의 핵심그룹을 가진 것은 과거에 친구들과 관계에서 부정적인 시간을 겪고 상담을 받으며 나름대로 극복하고 가진 변화였다.

코스타리카 대학생인 알라니의 경우도 비슷했다. 대학입학 이전에 불행한 시기를 경험했고 그 핵심은 자신이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할 친한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엄격하셨고,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괜찮거나 별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 시기를 간신히 견뎌냈다. 그것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사교적이지 않고 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제 그녀는 더 강해졌고, 만약 그녀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자신의 미래에 불안을 느낄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A부터 D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불안을 다룬다고 했다.

가족이 그런 핵심적인 관계인 피면담자도 여럿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현재 은퇴한 프리랜서 신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디에고는 자신의 가족, 특히 아내가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걷기와 기타 연주, 자기계발과 성서를 읽는 등 취미가 있지만, 여전히 삶에 의욕을 잃지 않는 것은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였다. 멕시코 출신 60대 피면담자인 라우라는 남편이나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도 대처한다고 했다.

2) 행복을 만드는 방식 학습하기

사회적 관계의 핵심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피면담자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다. 동시에 자신이 문제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반응하냐는 질문에 자신의 노하우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했다. 특히 노인세대 피면담자

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스스로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각자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

코스타리카 60대 남성 로드리고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침착하게 그들로부터 벗어나 바람을 쐬고 생각을 모으곤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일이나 상황이었다면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자신을 강조한 일과 무관한 전혀 다른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자신이 훨씬 더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면,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돌아가 맑은 머리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쓴다고 했다.

60대 멕시코 여성 모니카는 행복을 걱정(안정성) 없이 충족시키고 일과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 "멕시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멕시코, 60대, 여, 모니카)

모니카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워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감정을 분리하고 여전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다. 모니카는 특히 전문적인 환경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구분하는 것을 수행한다고 했다. 모니카는 정부에서 복지와 사회 정의에 관련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가지 목표가 달성되면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데, 그녀가 생전에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녀의 삶에 대한 재미와 목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타리카의 60대 남성인 로드리고에게 행복이란 목적의식과 개인적, 정신적 성장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뜻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결정을 통해 스스로 행운을 만든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로드리고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인생의 장애물이 일어날 때 로드리고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장애물과 변화에 반응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복의 개념을 발전과 목적의식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행복을 포기한다고 하면

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60대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된 디에고는 자신이 행복을 계속적인 존재 상태가 아니라 현재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삶의 순간의 집합체로 인식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매우 신중했다. 디에고에게 있어서 이런 종류의 순간은 그가 산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아내와 좋은 시간을 공유할 때다. 그에게 이러한 순간들은 자식들의 탄생과 같은 과거의 의미 있는 추억이 될 수도 있다. 디에고처럼 60대 은퇴한 멕시코 여성 라우라는 자신에게 주는 행복은 지속적인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기쁨, 긍정, 기쁨을 느끼는 삶의 순간들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그런 순간은 그녀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다. 그녀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파티를 열어서 어떤 휴일을 축하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녀는 멕시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멕시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믿는다.

80대 멕시코 여성인 마리아에게 행복은 내면의 평화를 갖기 위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비결을 설명했다.

> “제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나의 경계를 확실하게 확립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타인과 소통하는 법도요. 전 그래서 안정감과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랐어요.” (멕시코, 80대, 여, 마리아)

30년 넘게 학교 교사를 한 마리아는 학생들과 자녀들에게도 이 기술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랐다. 경제 위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항상 보석을 전당포에 맡겼다"고 했다. 만약 그녀가 개인적 혹은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녀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가족, 특히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지만, 자신의 문제나 환경은 오로지 자신의 문제일 뿐이며, 불필요하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자녀들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인 60대 피면담자인 알베르토는 인생에서 스트레스로 압도당할 때 달리기로 긴장을 푼다고 했다. 그는 행복의 기초로서 건강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누군가가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직업, 소득, 개인 및 사회적 관계, 레크리에이션 활동, 취미 등 자신의 삶의 다른 모든 영역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매우 내성적인 편인 알베르토

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인 달리기 이야기를 할 때에만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10년 넘게 마라톤 선수로 활동해 왔다. 이것은 알베르토가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투쟁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전술이나 방법인 것 같다. 감정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의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알베르토는 이렇게 말했다.

>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혼자만 알고 해결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저는 8남매 중 막내여서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식이었어요. 늘 부모님의 관심이 나보다 형들에게 훨씬 더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해결하야 한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코스타리카, 60대, 남, 알베르토)

유일한 취미가 술 마시는 것인 내성적인 성격의 그는 그래서인지 오히려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주로 소통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직접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해 주길 알베르토는 바라고 있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렵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뿐이라고 답했다.

코스타리카 20대인 마테오는 삶의 고난에 대한 대처 기구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과거에 그는 종종 어떤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떤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때 자신을 내려놓곤 했다. 이제 그는 말의 힘을 더 의식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려 할 때마다 자신을 붙잡는다고 했다. 가령 '나는 너무 멍청하다'는 말보다 사실 자신은 멍청하지 않고 실수만 했을 뿐이며 현재의 실수에 근거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일생을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톨릭교인이 많은 중남미 국가의 특성대로 이런 자세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었다. 그 중 몇 피면담자는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70대 코스타리카 피면담자인 엘레나가 내내 강조한 행복의 핵심 요소는 '균형'이었다. 엘레나는 당시 자신의 삶의 상황이 압도적이라고 느꼈던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균형을 향한 여정에 착수할 수 있었고, 영성과 마주쳤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영성, 명상 연습, 독서, 자연 속에 있는 존재, 그리고 실수를 하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그녀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많은 피면담자들에게서 종교적인 태도로 적응적 기호(adaptive preferences)를 발전

시킨 모습이 많이 보였다. 20대 멕시코인 알레한드라는 상사가 매우 권위적이고 그녀를 나쁘게 대하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직장 동료라면 터놓고 얘기를 하겠지만 상사라면 돈보다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정신건강을 많이 강조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과거경험에서 배웠다고 했다. 그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3) 경쟁과 비교 – 한국사회와의 비교

한국에 산 경험이 있거나 한국 사람들을 알고 있는 피면담자들은 인터뷰 당시 한국과 비교하여 말하곤 했다. 그 핵심내용은 한국사회가 성공을 중요시하고 남과 사교하기보다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것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교하면,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에서는 좋은 대학, 직장에 들어가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되지 않아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비교했다.

한국에 3년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멕시코인 노엘리아는 한국사회에서 남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말이 많고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시기가 가장 불행한 시기라고 했다.

> “한국에 온 후 어디에 가건 항상 판단하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행정서류를 떼러 갔을 때 만난 공무원조차 ‘시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야한다’고 훈계했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를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멕시코, 20대, 여, 노엘리아)

노엘레아는 그래서 항상 심판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적응해서 귀찮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야 할 때는 한국어를 이해 못하는 척한다고 했다. 그녀는 행복과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행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제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 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항상 어느 회사, 학교를 들어갔는지,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멕시코, 20대, 여, 노엘리아)

노엘리아는 한국 사람들은 친구 및 가족과 모이는 것보다 일만 한다고 했다. 멕시코에서는 그냥 집에 놀러가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꼭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일도 드물 만큼 닫힌 관계라고 했다.

특히 멕시코 남자 피면담자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무척 강조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거나 압박을 느끼는 것은 없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 연구가 행복이라는 것을 화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기 때문인 듯도 했다. 그리고 어릴 때에 속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피면담자들도 꽤 있었다. 하지만 한국친구가 있거나 한국 경험이 있는 피면담자들은 적어도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는 것을 경험에서 느꼈다고 했다.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에두아르도도 같은 점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 "통계를 보면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노동시간이 길어요. 그래도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이 모입니다. 교제 방식도 중요해요. 멕시코에서는 사람들이 남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요. 약속 없이 노크하고 방문해요. 한국에서는 좀처럼 서로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멕시코, 30대, 남, 에두아르도)

에두아르도는 그다지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거나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생활, 사회적 관계가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에두아르도는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인 불합리성에 대해 싸우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멕시코 피면담자 알레한드라는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낮은 수입으로 더 행복한 곳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 친구로부터 LG와 같은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다며 비교해서 말했다. 그녀는 멕시코에서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중에 직업과 실적은 대학이 아니라 당신의 재능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남미 피면담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타인의 시선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익혀갔다. 70대 코스타리카인 엘레나는 커뮤니티 플레이스 메이킹, 커뮤니티 원예, 커뮤니티 협의회 참여 등이 포함된 이니셔티브를

통해 커뮤니티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독서와 명상, 여행으로 보냈다.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삶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70세가 된 그녀는 나날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현재를 즐기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 "나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7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남들이 나를 재단하는 판단에 극도로 민감하다면 왜 내가 70년 동안을 살았겠어요?" (코스타리카, 70대, 여, 엘레나)

제5절 소결

1. 코스타리카인과 멕시코인의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행복

이 연구는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행복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 국가에서 선정한 면접대상자가 자신의 행복을 논할 때 어떤 준거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어떻게 연결 짓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면접대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준거점과 사회경제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떤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메우며 행복을 구성해(construct) 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정해식 외, 2019)에서 성찰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성찰한 행복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구성의 관계를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의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연구에서 연구자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최저생계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참여관찰과 면접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면접대상자들이 자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절대적인 만족보다는 환경, 평등, 민주, 정의 등의 진보적 관념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념이 이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국가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이들의 행복을 구성해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정해식 외, 2019, p. 163-192). 이러한 성찰은 북유럽 국가보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라틴아메리카의 두 대표적 국가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다시 말해, 코스타리

카와 멕시코의 국민은 북유럽 국가보다 훨씬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적 관념을 활용하여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티코(Tico)'라는 애칭을 좋아하는 코스타리카인의 면접대상자는 공히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순수한 삶을 의미하는 '푸라비다(Pura Vida)'가 가능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행복감을 표시했다. 면접대상자에 따르면 티코가 이처럼 푸라비다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천혜의 자연, 가족의 끈끈한 유대, 이웃 국가에 비하여 잘 갖추어진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성숙 덕택이다. 이런 설명을 들으며 연구자는 코스타리카인이 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행복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지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접고 화제의 방향을 전환하자,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코스타리카인의 삶이 돌연 연구자에게 불안정하고 우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선, 행복을 증폭시키는 든든한 보호막처럼 묘사되었던 가족의 유대가 세대와 성에 따른 균열과 갈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면접대상자의 경우 가부장주의와 남성우월주의로 인한 차별적 성문화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진술하는 코스타리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일상적 범죄, 공권력의 부패,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사적인 시장보다 질 낮은 공교육과 공공의료는 티코가 항상 푸라비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자는 현실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고와 태도가 단지 수동적 순응이 아니라 평온함 삶을 유지하는 티코의 지혜라고 믿고 있었다. 연구자의 눈에는 이러한 사고의 기저에 코스타리카가 근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뿌리내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완벽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독립"(마르틴)할 수 있다면, 개인은 행복의 조건을 구비한 것이라는 판단이 면접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엿보였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면접대상자가 가족과 사회에서 자유로운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정 정도의 불합리한 현실은 감수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티코의 행복감은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평온함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사례는 여러모로 코스타리카와 달랐다. 양 국가가 인구와 경제의 규모 그리고 인종, 종족, 계급의 다양성과 복합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멕시코인 면접대상자는 파티와 축제를 즐기는 멕시코 문화가 가져다주는 소소한 일상을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인과 비교되게 멕시코가 행복한 나라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했다. 멕시코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멕시코 국가에 대한 만족감은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행복감에 대한 멕시코인 면접대상자의 이와 같은 이중적 진술은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코스타리카와 비교할 때 훨씬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진술하는 가족 내의 가부장주의와 남성우월주의(machismo), 강력범죄, 부패한 경찰의 무능한 대응은 멕시코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면접대상자는 이러한 제반 사회문제가 왜곡된 경제 구조와 심화된 소득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멕시코인이 라틴아메리카에서 행복감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멕시코인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순조로운 삶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강한 가족주의를 거론함으로써 이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가족주의는 이들에게 유대와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과 억압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대상자가 제시한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은 멕시코의 종교적 관념과 실천이 이러한 간극을 메워준다는 것이다. 멕시코 사람이 가진 종교적 세계관, 특히 내세관이 이들로 하여금 현실의 한계를 수용하고, 이에 희화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평정심과 행복감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멕시코인의 행복은 종교를 매개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참여관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면접만으로 담론을 수집하여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두 국가의 행복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이 2019년에 탐구했던 북유럽의 두 나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남미 두 국가의 행복이 정치경제적 현실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면접대상자들은 코스타리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그리고 멕시코의 종교적 세계관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각각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2.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의 맥락화와 행복구성의 과정

이 연구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행복이 형성, 구성되는 과정을 보기 위하여 남중미 나라 피면담자들의 행복 형성 과정과 공간적 역량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 사회과학과 정책 분야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그 논의는 이론적인 논의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행복 수준을 계량하여 나라별로 비교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행복 연구에서 구체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인식, 행복은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맥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보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 요구에 답하며 이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개인 피면담자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인 맥락과 행복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행복연구의 큰 축이 되는 아마티아 센(Amartya Sen) 역량 이론을 이용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중심으로 보았다. 역량 이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공간적 측면을 발전시켜 거주, 이동, 이주의 자유에 관한 공간적 역량 개념도 사용하였고, 역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순응, 타협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심으로 보았다.

경제 수준이 낮은 데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는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수준이 높은데도 행복도는 낮게 나타나는 한국 사회와 대비를 이루며 중요한 함의를 준다. 특히 높은 행복도로 유명한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와 대비된다.

연구에서는 반 구조화된 심층 인터뷰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주제를 분석도구로 삼았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되는 날씨와 음식, 두 번째는 주거 선택의 자유와 이동이 뒤에 자유를 보여주는 공간적 역량, 세 번째는 경쟁과 비교, 사회적 차별, 정치적 참여를 포함하는 사회적인 관계였다. 세 가지 주제에서 과정으로서의 행복의 중요성이 공통되게 나왔다. 예를 들어, 날씨와 음식이 좋아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 인해 날씨와 음식을 생각하는 태도 자체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날씨가 좋아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키울 수 있는 농업중심의 생활을 후진국의 특성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던 것을 이제는 고맙게 생각하게 된 것이 나타났다.

두 번째인 공간적 역량에서 피면담자들이 거주하는 나라, 도시, 동네의 위치가 행복의

큰 부분이었다. 이것은 맥락의 중요성인데, 사실상 위치에서 주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통칭하는 것이 맥락이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 피면담자들은 군대의 존재 여부 자체가 아니라 군대가 없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고 하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무료 교육, 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면적인 해석을 보여주었다. 무료 교육과 위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고, 그런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개인의 성과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요즘 코스타리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일한다는 우려도 있었고, 그런 사회서비스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고마운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비판도 있었다.

수도권 거주에 대해서는 마치 한국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경제적 기회와 문화적인 교육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높은 부동산 가격이 민감한 상황으로 다가왔다.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범죄는 한국사회와 대비되는 문제였다. 여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 것에는 특히 멕시코 피면담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 공간적 역량의 제한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동네 가서 사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거주와 이동의 자유에 있어서 많은 피면담자들은 장벽과 걱정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그것으로부터 긍정적인 힘을 갖는 자기 위안의 태도를 길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범죄에 취약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이주의 자유를 덜 누린 여성 피면담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심층인터뷰를 했던 2020년 7월, 8월, 9월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명백하게 제한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중남미 피면담자들은 괴로움을 호소했다. 자신의 핵심 그룹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일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라고 답하는 피면담자들도 많았다.

한국사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 중남미 피면담자들은 한국사회와 자신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한국사회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였다. 첫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훈계와 차별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일에 집중하는 태도였다. 통계상으로 멕시코의 노동시간이 한국 노동시간보다 길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남

미에서 중요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적인 관계는 피면담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진은 심층 인터뷰 속에서 원래부터 그들이 사람들과 어울려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사회적인 기술이 있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고마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핵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배워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집단은 무척 자주 모이고 열린 자세의 대화로 많은 것을 공유하며 신체적인 접촉이 강하고 안정된 정서적, 재정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큰 기능이었다. 일과 취미생활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핵심 그룹의 역할이었다.

중남미 사람들의 행복에 있어서 타협 순응하는 태도는 무척 중요했다. 범죄나 마약의 위협에서 국가가 잘 작동하지 않고 남녀위계가 강하게 존재하는 곳에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고 서로의 행동을 조율함으로써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중남미에서는 강한 가톨릭 종교의 영향도 이 순응적인 태도, 전통적인 젠더 관계, 가족의 핵심 그룹 존재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 순응, 타협하는 태도는 역량이론에서도 논쟁이 된다. 삶의 긍정적인 자생력을 키워주지만 기존질서를 공고히 하기 때문이다. 한 피면담자는 중남미에서 한국처럼 정치적인 비판, 저항이 없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된다. 문화적 규범적 순응은 행복의 정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구조화되는 방식, 개인이 행복을 정의, 추구하는 방법, 추구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식 또한 형성한다.

제8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안

제8장 결론

제1절 요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는 우리나라의 물질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인 삶의 질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왜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해 기획된 3개년 연구이다. 종합연구의 2년차(2020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보고서는 생애주기별 경험과 이에 대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삶의 질 개선,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욕구의 충족, 미충족과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년 차 연구가 한국인의 행복 인식을 두루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2년 차 연구는 누가 '부족', '풍요'를 느끼는가,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행복은 어떠한가와 같은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수행한 각각의 자료 수집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행복 증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함의는 정책 수혜 경험과 행복의 관계를 고려할 때 더 두드러진다. 정책 경험 자체보다는 그를 통해서 충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욕구의 해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선별적인 서비스 대상자들의 행복은 크게 증진되지 않는데, 이들이 선별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박탈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낮은 행복도는 특히 노인의 행복감이 낮다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의 낮은 행복감의 주된 원인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관계, 공동

체 관계의 급격한 해체도 노인의 낮은 행복의 원인일 수 있다. 일상생활재구성법을 적용한 분석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고립된 상황에 놓일수록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들이 참여의 의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노인 행복 증진에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도는 관대성이 낮고, 부패인식이 높으며, 삶에서의 선택의 자유가 제약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단위에서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집단은 고연령이고, 미혼,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고, 대졸 이상 학력은 적고,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복 증진의 기본이 되는 정책 설계 외에도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행복할 조건의 충분함에 대한 평가 차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에서의 변화가 한 축을 차지하고, 다른 하나의 축은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관련되었다.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 대상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 것도 한국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풍요지수(FI), 안정풍요지수(SFI)를 도출하여 보았다. 이 지수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 신체 및 정신 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 성격과 덕성, 사회관계,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의 5개 영역(SFI는 6개 영역)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하위 영역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성격과 덕성 관련한 항목을 포함하여 유다이모니아적 행복 측정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주기 주요 과업을 수행하는데 경험한 위험(risk)과 이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개인의 행복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해석한 결과이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국가의 역할, 복지의 역할은 모호하다. 그렇지만 복지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요'를 복지를 행하는 기준으로 볼 때 청년 세대는 이러한 '필요'를 더 확장된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욕구 충족에 있어 국가의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즉,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 복지의 확대, 더 정확하게는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국가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국민의 인식 속에서 확인되는 행복의 질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의 행복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중남미 2개국(코스타리카, 멕시코) 국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해석한 결과이다.

두 나라는 국가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코스타리카,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달리 순조롭지 않은 삶 사이에서 종교적 관념과 실천으로 이를 극복하는 멕시코로 크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 행복은 정치·경제적 현실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행복의 물질적 토대와 문화적 구성이 개인의 인식에 결합하는 양상과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자신과 가족, 관계망의 상태를 행복의 조건으로 하는 우리의 행복 인식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 제안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단위의 행복에 주목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풍요로움에서 지역간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점수가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0.4점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농어촌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삶의 의미와 목적 영역에서 대도시와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객관적 조건 측면이 아니라 주관적인 안녕 측면에서 지역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의 행복지표(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이혁준, 2015), 충청남도 행복지표(고승희, 홍송효, 장수명, 이희길, 이윤석, 송정기 . . . 오용준, 2012) 등 지자체 차원의 행복 측정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지역 단위로 행복을 측정하고 비교하려는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승규, 박진경, 조창덕(2015)은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채정, 박기태, 구교준, 이희철, 송은주, 김지원, 박차늠(2019)는

대한민국 행복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의 정책 수립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 구조 변화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 구성을 대표하는 가구원수와 풍요로움 간에 밀접한 관계가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풍요로움 점수가 2인 이상 가구의 점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낮은 풍요로움 인식은 연령 구조와도 관련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낮은 행복 수준은 노후 준비 부족이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연구의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혼자 있음에서 확인되는 고립감, 고독감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따라서 노후 준비의 철저와 더불어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훈련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령자 대상의 평생학습 지원, 인생 이모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사회 활동, 사회적 관계 맺기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일상생활재구성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노인의 일상생활과 행복의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은 고립되는 상황에 취약하다. 혼자 있을 때 행복감이 낮아지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혼자 있는 경험은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기보다 긍정적 정서를 해친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관계 활성화하여 노인이 소속된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친구나 동료와 어울리는 활동을 통해 노인의 긍정적 정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노인이 소속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타인들과 함께 노인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청년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의 원인은 다양한 욕구 경험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않았던 것도 한 몫을 한다. 최근 청년들에서는 복지, 지원체계에 대한 '필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무엇을 할 수 있도록'하는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는 행복을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대에서 사회가 행복할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세대로 교체되고 있다. 행복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회문화적 구성은 바뀌어 가는 중이며, 따라서 행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구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행복 추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국가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욕구를, 어떤 수준에서 해결해야 하는가?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각각의 생애주기별로 주요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따른 욕구이다. 한편으로 사회적 최소 수준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 사회와 개인의 역할 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관점의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회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권한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행복을 어떤 조건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데 있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 제안은 2020년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져보게 한다. 행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어려운 사람,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삼았다(정해식 외, 2019). 그렇지만 그것은 행복을 위한 최소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욕구 영역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승민, 장재윤. (2018). 노인들은 누구와 함께할 때 더 행복할까? 노인의 일상적 대인 상호작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4), 531-559.

고승희, 홍송효, 장수명, 이희길, 이윤석, 송정기, . . . 오용준. (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201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박이택, 김성아. (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혜, 문정화, 성기옥. (2014). 성인의 생애주기별 주관적 행복감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4(4), 857-875.

김석일, 박정은. (2016). 노인 여가스포츠참여자들의 여가기능, 사회적 역할상실감 및 우울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3, 573-584.

김석일. (2012).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1(1), 333-344.

김성아, 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70, 95-104.

김세건. (2004). 멕시코 농촌 가구와 친척관계의 구조 및 변화양상: 떼뽀스뜰란의 한 농촌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7(2), 85-116.

김재우. (2017). 한국인과 일본인의 주관적 행복. 한국사회학, 51(4), 1-46.

김주현. (2007a).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27(4), 739-754.

김주현. (2007b). 노인 생산적 활동의 복합성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0(3), 57-81.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김태완, 김문길, 여유진, 김미곤, 김현경, 임완섭, . . . 최민정.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연. (2020).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원인에 대한 연

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47-72.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8).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서울: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광복 100주년을 향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서울: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문영찬. (2016). 세계관과 변증법적 유물론(13). 정세와 노동, 121, 17-34.
박경순, 박영란, 손덕순. (2020). 사회적 연결감과 우울의 관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667-677. doi:10.5392/JKCA.2020.20.02.667
박승규, 박진경, 조창덕. (2015).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3), 399-429.
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이혁준. (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 서울연구원.
보건복지부. (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 ~ 2023). 세종: 보건복지부.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송시영, 전혜정, 최봄이. (2020). 노년기 경제활동이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D) 분석. 한국노년학, 40(5), 895-911.
신환호, 한미아, 박종, 류소연, 최성우, 김해란. (2017). 한국 노인에서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인지기능과 우울 증상과의 관련성 : 2014년 노인실태조사. 노인정신의학, 21(2), 47-54.
양재진, 이호연, 이정주. (2016).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75-102.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Ⅱ: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민지, 이수영. (2017).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9(3), 489-508.
은석. (2019). 복지제도의 확대와 세대갈등 : 2010년대 보육 보편화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세대별 복지인식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이상현. (2018). 행복지수와 라틴아메리카의 행복.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11(1), 85-106.
이신숙. (2011a).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11-325.

이신숙. (2011b).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35-58.

이영균, 최승인. (2016). 노인사회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51-180.

이채정, 박기태, 구교준, 이희철, 송은주, 김지원, 박차늠. (2019). 한국인의 행복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이혜자, 전동일. (2011). 농촌·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1(2), 419-437.

임태균. (2017). 반등의 민주주의 역사와 반부패 제도의 성숙: 칠레와 코스타리카 사례를 통해서.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10(1), 131-156.

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일상재구성법 (DRM) 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23-139.

전기숙. (2016). 청소년의 행복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3(10), 411-429.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 . .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2012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개인용).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닐슨컴퍼니코리아.

정해식, 강신욱, 김동진, 김성아, 강미나, 김지혜, . . . 김종호. (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 . .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20.7.28.).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 (2020.7.3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한경혜, 장미나. (2011).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본 영,유아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행복감. 한국가족복지학, 16(4), 5-27.

한국고용정보원. (2018). 2018년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설문지.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016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조사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한국교육고용패널Ⅱ-가구 설문지(2016). 세종: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 (precariousness) 과 행복: 불확실성

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홍영의. (2019). 일상재구성법으로 본 망원동 노인의 공간이용과 정서경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국외문헌

Barth, F. (1969). *Pathan identity and its maintenance.* Bergin: Universitets Forlaget.
Brewer, R. (1997). Theorizing Race, Class, and Gender: The New Scholarship of Black Feminist Intellectuals and Black Women's Labor. *Materialist Feminism: A Reader in Class, Differentiation and Women's Lives*(pp. 236-247). New York: Routledge.
Cantril, H. (1965). *The Patterns of Human Concerns*. NJ: Rutgers University Press.
Castilla, C. (2012). Subjective well-being and reference-dependence: Insights from Mexico.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0(2)*, 219-238.
Chandra, K. (2012). *Constructivist theories of ethnic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hant, S. (2002). Families on the Verge of Breakdown? Views on Contemporary Trends in Family life in Guanacaste, Costa Rica.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18(2-3),* 109-148.
Clark, A. E., &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104(424),* 648-659.
Comaroff, J. (2001).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The Anthropology of Politics: A Reader in Ethnography, Theory and Critiques*(pp. 203-212). Oxford : Blackwell.
Conradson, D. (2003). Spaces of care in the city: The place of a community drop-in centre. *Social & Cultural Geography, 4(4),* 507-525.
Conradson, D. (2012). Wellbeing: Reflections on geographical engagements. *Wellbeing and Place(pp.15-34).* Farnham: Ashgate.
Diener, E. (2009). Assessing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39, 247-266. DOI 10.1007/978-90-481-2354-4
Diener, E., Wirtz, D., Biswas-Diener, R., Tov, W., Kim-Prieto, C., Choi, D.-w., & Oishi, S.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Assessing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pp.247-266).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Dockray, S., Grant, N., Stone, A. A., Kahneman, D., Wardle, J., & Steptoe, A. (2010). A Comparison of Affect Ratings Obtained with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and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ocial Indicators Research, 99(2)*, 269-283.

Duff, C. (2014). *Assemblages of Health: Deleuze's Empiricism and the Ethology of Life*. Dordrecht: Springer.

Easterlin, R. A. (2006). Life cycle happiness and its sources: Intersections of psychology, economics, and demograph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4)*, 463-482.

Easterlin, R. A., McVey, L. A., Switek, M., Sawangfa, O., & Zweig, J. S.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22463-22468.

Erikson, E. H. (199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Eurofound. (2016). *4th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Source Questionnaire*. Dubli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Farmer, Paul. (1996). On Suffering and Structural Violence: A View from Below.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25(1)*, 261-76.

Fortes, M. & E. E. Evans-Pritchard, E. E. (Eds.). (1940). *African Political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rtes, M. (1969). *Kinship and the Social Order: The Legacy of Lewis Henry Morgan*. NJ: Transaction Publishers.

Gallup. (2014). *State of Global Well-Being: Results of The Gallup-Healthways Global Well-Being Index*. New Mexico: Gallup.

Graham, C., & Pettinato, S. (2001). Happiness, Markets, and Democracy: Latin America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237-268.

Gramsci, A. (1973).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Hall, C. (1984). *Costa Rica: Una interpretacion geografica con perspectiva historica.* San José : Editorial Costa Rica.

Haybron, D. M. (2011). Central Park: Nature, context, and human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1(2),* 235-254.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e Neve, J.-E., Aknin, L. B., Huang, H., & Wang, S.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8). *World Happiness Report 2018.*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unnicutt, B. (2006). The History of Western Leisure. *A Handbook of Leisure Studies*(pp. 55-74). London: Palgrave Macmillan.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t al.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All Rounds - Country-Pooled Datafile.* Retrieved from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L.jsp Madrid: JD Systems Institute.

Jeffrey, K., Wheatley, H., & Abdallah, S. (2016). *The Happy Planet Index: 2016. A global index of sustainable well-being.*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

Kahneman, D., & Krueger, A. B.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5702)*, 1776-1780.

Kelly, P. F. (1974). Death in Mexican Folk Culture. *American Quarterly, 26(5)*, 516-535.

Kim, Y., & Shin, H. (2018). Governing through mobilities and the expansion of spatial capability of Vietnamese marriage migrant activist women in South Kore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9(3)*, 364-381.

Lelkes, O. (2008). Happiness across the life cycle: Exploring age-specific preferences. *European Centre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 Policy Brief, 2*, 1-16.

Lelkes, O. (2017). Happily Ever After. The Role of Welfare Policies. I*n The Future of Welfare in a Global Europe*(pp. 405-426). London: Routledge.

Li, N. (2014). Multidimensionality of Longitudinal Data: Unlocking the Age-Happiness Puzzle. *Melbourne Institute Working Paper No. 4/14*. doi:10.2139/ssrn.2413252

Locke, S. (2009). Environmental education for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in Costa Rica.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8(2)*, 97-110. doi: 10.1080/10382040902861171

Miret, M., Caballero, F. F., Mathur, A., Naidoo, N., Kowal, P., Ayuso-Mateos, J. L., & Chatterji, S. (2012). Validation of a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PLOS ONE, 7(8)*, e43887. doi:10.1371/journal.pone.0043887

Morris-Smith, C., Morales-Campos, D., Alvarez, E. A. C., & Thurner, M. (2013). An Anthropology of Familismo: On Narratives and Description of Mexican/Immigra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5(1)*, 35-60.

O'Neill, J. (2016). Citizenship,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Epicurus or Aristotle?. *Analyse & Kritik*, *28(2),* 158-172.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Extract.*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8). *The new OECD Jobs Strategy: How does COSTA RICA compare?.*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20).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20*. Paris: OECD Publishing. doi.org/10.1787/5842cc7f-en.

Ott, J. C. (2011). Government and Happiness in 130 Nations: Good Governance Fosters Higher Level and More Equa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1)*, 3-22. doi: 10.1007/s11205-010-9719-z

Panelli, R., & Tipa, G. (2007). Placing well-being: A Maori case study of cultural and environmental specificity. *EcoHealth, 4(4),* 445-460.

Pentz, C. J., Rojas, D., McCoy, M. B., & Vaughan, C. S. (2013). A case study in Costa Rica about personal happiness: Does health and family communication have more influence than quantity of money and material goods?. *UNED Research Journal, 5(1)*, 163-170.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doi:10.1086/209304

Ruiz Castro, M. (2012). Time demands and gender roles: The case of a big four firm in Mexico. *Gender, Work & Organization, 19(5)*, 532-554.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Schwarz, N., & Clore, G. L. (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3)*, 513.

Schwarz, N.,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 Stone, A. A. (2005). Day Reconstruction Method. *Presentation at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Workshop on the Collection of Time Use Data*.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Survey Research Center of University of Michigan. Retrieved from https://psidonline.isr.umich.edu/Publications/Workshops/TDTUse05/SchwarzTimeUsePresentation.pdf 2020.3.10.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en, A. (2013). The Ends and Means of Sustainabilit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4(1),* 6-20.

Shin, H. (2011). Spatial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gendered mobility for Korean Christi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48(11)*, 2355-2373.

Smith, T. S., & Reid, L. (2018). Which 'being' in wellbeing? Ontology, wellness and the geographies of happi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2(6)*, 807-829.

Stone, A. A., Schwartz, J. E., Schkade, D., Schwatz, N., Krueger, A., & Kahneman, D. (2006). A Population Approach to the Study of Emotion: Diurnal Rhythms of a Working Day Examined With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Emotion, 6(1)*, 139-149.

Sweetman, C. (2007). *Gender, and Lifecycles.* United Kingdom: Oxfam.

Switek, M., & Easterlin, R. A. (2018). Life transitions and life satisfaction during young adulthoo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1)*, 297-31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Democracy Index 2019- A year of democratic setbacks and popular protest. The Economist & Intelligence Unit.

Thompson, S. (2013). Introduction to happiness and society. *The Oxford Handbook*

of Happiness.(pp. 427-43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ucker, I. (2010). Everyday spaces of mental distress: The spatial habituation of ho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3),* 526-53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Volume I: Comprehensive Table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Walter, N., Bourgois, P., & Loinaz, H. M. (2004). Masculinity and Undocumented Labor Migration: Injured Latino Day Laborers in San Francisco.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9*, 1159-1168.

Weber, M. (1930).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Weziak-Bialowolska, D., McNeely, E., & Vanderweele, T. J. (2019). Flourish Index and Secure Flourish Index – Validation in workplace settings. *Cogent Psychology, 6*:1, DOI: 10.1080/23311908.2019.1598926

Whatmore, S. (2006). Materialist returns: Practising cultural geography in and for a more-than-human world. *Cultural Geographies, 13(4)*, 600-609.

Willis, Paul. (1981).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법률문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91호 (2013).

노인복지법, 법률 제17799호, (2020).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2020). 국민연금정책.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102&PAGE=2&topTitle=에서 2020.10.28.인출.

주 코스타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0). 코스타리카 실업률 증가.
http://overseas.mofa.go.kr/cr-ko/brd/m_6608/view.do?seq=13436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

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서 2020.10.26. 인출.

주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0). 2019 관광분야 실적. http://overseas.mofa.go.kr/cr-ko/brd/m_6608/view.do?seq=1343645&srchFr=&srchTo=&srchWord=%EA%B4%80%EA%B4%91&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서 2020.10.26. 인출.

통계청. (2020a). 시도별 평균 초혼 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에서 2020. 9. 28. 인출.

통계청. (2020b). e-나라지표: 취학률 및 진학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에서 2020.11.19. 인출.

통계청. (2020c). 1인당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원자료: The World Bank, The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2020. 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4에서 2020.10.8. 인출.

통계청. (2020d). 주요국의 성별 일평균 가사노동시간.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232&stts_cd=423202에서 2020. 12. 8. 인출.

CIA. (2020). *The World Factbook*. Retrieved from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costa-rica/ 2020. 12. 7.

KOTRA. (2013). 멕시코 소득격차 더 커지나. Retrieved from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22932 2020.10.24.

OECD. (2017a). *Better life index.* Retrieved from www.oecdbetterlifeindex.org 2020.12. 6.

OECD. (2017b). *OECD Family Database: Marriage and divorce rate*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2020.6.17.

OECD. (2020a).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 2020.11.27.

OECD. (2020b). *Better life index - Mexico*. Retrieved from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mexico/ 2020.12. 6.

OECD. (2020c). *Hours worked* (indicator). doi: 10.1787/47be1c78-en Retrieved from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2020.12. 6.

OECD. (2020d). *Employment rate* (indicator). doi: 10.1787/1de68a9b-en Retrieved from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indicator-chart 2020.12. 6.

The Human Flourishing Program at Harvard's Institute for Quantitative Social Science. (2017). *Our Flourishing Measure*. Retrieved from https://hfh.fas.harvard.edu/measuring-flourishing 2020.7.17.

Wikipedia. (2020). *Eudaimonia*.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Eudaimonia 2020.10.8.

신문기사

원영수. (2020.10.22.). 코스타리카 노동조합 전국 총파업 돌입. 울산저널.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23801093419에서 인출.

이근아. (2019.4.24.). 치매 아내 10년 '노노 돌봄' 끝내 살인 부른 '독박 돌봄'.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4012037에서 인출.

임정빈. (2018.3.15.). 핀란드의 행복지수 세계 1위는 당연...중남미도 행복한 이유는?. 세계비즈. http://segyebiz.com/newsView/20180315015470에서 인출.

Agren, D. (2020.7.22.). Femicide rise in Mexico as president cuts budgets of women's shelters. *Guardian.* Retri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jul/22/mexico-femicides-president-amlo-women-shelters

Flannery, N. P. (2020.1.3.). Will A Minimum Wage Hike Boost Mexico's Struggling Economy?. *Forbes.* Retrived from https://www.forbes.com/sites/nathanielparishflannery/2020/01/03/will-a-minimum-wage-hike-boost-mexicos-struggling-economy/#13f6a72618ed

데이터베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KBS 방송문화연구소. (2012). 행복에 관한 조사, 2012. (연구수행기관: KBS 방송문화연구소,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4년, 자료번호: A1-2012-0141)

EVS/WVS (2020). European Values Study and World Values Survey: Joint EVS/WVS 2017-2021 Dataset (Joint EVS/WVS). JD Systems Institute & WVSA. Dataset Version 1.0.0, doi:10.14281/18241.2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장 온라인데이터 원자료. Retrived from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19/#read 2020. 4.20.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e Neve, J.-E., Aknin, L. B., Huang, H., & Wang, S.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장 온라인데이터 원자료. Retrived from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0/#read 2020.11.27.

부록 참고문헌

손창균. (2019). 2019년 국민요구조사 표본설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창균. (2019).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조사 표본설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창균. (2019). 신중년 생활실태조사 표본설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eaumont, J-F., & Rivest, L-P. (2007). A Weight Smoothing Method for Dealing with Stratum Jumpers in Business Surveys. *Proceedings of the Survey Methods Section of SSC Annual Meeting.*

Bernier, J., & Nobrega, K. (1998). Outlier Detection in Asymmetric Samples: A Comparison of an Inter-quartile Range Method and a Variation of a Sigma Gap Method. *Proceedings of the Survey Research Methods Section,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37-141.

Bethlehem, J.(2009). *Applied Survey Methods*. NJ: Wiley.

Biemer, P. P., & Lyberg, L. E.(2003).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NJ: John Wiley and Sons.

Cochran. W. G.(1977). *Sampling Techniques*. NJ: John Wiley & Sons, Inc.

Groves, R. M., Dillman, D. A. Eltinge, J. L., & Little, R. J. A.(2002). *Survey Nonresponse*. NJ: John Wiley and Sons.

Groves, R. M., Fowler, Jr., F. J., Couper, M. P., Lepkowski, J. M., Singer, E., & Tourangean, R.(2004). *Survey Methodology*. NJ: John Wiley and Sons.

Hansen, M. H., & Hurwitz, W. N.(1946). The Problem of Non-response in Sample Survey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41*, 517-529.

Hidiroglou, M. A., & Berthelot, J. M.(1986). Statistical Edit and Imputation for Periodic Surveys. *Survey Methodology, 12*, 73-83.

Hulliger, B.(1999). Simple and Robust Estimators for Sampling. *Proceedings of the Survey Research Methods Section,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4-63.

Lavalee, P., & Hidiroglou, M. A.(1988). On the Stratification of Skewed Populations. *Survey Methodology, 14*(1), 33-43.

SAS/STAT User's Guide, Version 9.4, SAS Publishing.

Srinath, K. P., & Carpenter, R. M.(1995). Sampling Methods for Repeated Business Surveys(pp.171-183). *Business Survey Methods*. NJ: Wiley.

부록1.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표본설계보고서

1. 모집단 분석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 2020년 현재 만 19세 이상~80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 성인

○ 조사모집단 : 2019년 집계구내 거처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 성인
(제주도를 제외한 섬 지역 거주자는 제외)

〈부표 1-1〉 2019년 기준 모집단의 집계구, 가구 및 인구 규모

(단위 : 개, 천가구, 천명)

지역	집계구			가구			인구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서울	19,062	-	19,062	3,840	-	3,840	9,117	-	9,117
부산	6,499	329	6,828	1,303	61	1,364	3,104	156	3,260
대구	4,469	488	4,957	865	92	958	2,133	240	2,373
인천	5,660	229	5,889	1,059	36	1,095	2,710	81	2,792
광주	3,018	-	3,018	579	-	579	1,429	-	1,429
대전	3,057	-	3,057	602	-	602	1,456	-	1,456
울산	1,894	435	2,329	349	82	431	892	205	1,097
세종	444	197	641	76	43	119	207	94	300
경기	21,433	4,203	25,636	3,939	812	4,751	10,261	2,039	12,300
강원	1,875	1,269	3,144	375	254	628	882	576	1,459
충북	1,887	1,344	3,231	366	275	641	896	635	1,532
충남	2,001	2,427	4,428	385	466	851	948	1,088	2,036
전북	2,644	1,106	3,750	507	226	733	1,243	504	1,747
전남	1,592	2,584	4,176	309	429	737	754	962	1,716
경북	2,876	2,554	5,430	565	530	1,095	1,365	1,177	2,542
경남	4,352	2,578	6,930	821	485	1,306	2,060	1,139	3,199
제주	985	427	1,412	178	71	249	454	169	623
계	83,748	20,170	103,918	16,117	3,862	19,979	39,911	9,065	48,976

□ 2019년 기준 전체 집계구수는 103,918개이며, 동부는 80.6%, 읍면부는 19.4%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8.5%, 경기도가 24.3%를 차지하고 있음(〈부표 1-1〉 참조)

□ 가구와 인구규모를 파악해보면, 전체가구는 1천9백90만 가구이며, 전체 인구는 4천8백90만으로 파악되었음(〈부표 1-1〉 참조)

□ 한편 지역별 집계구 분포를 집계구 유형(일반, 아파트)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주택 집계구는 전체의 약 51%, 아파트 집계구는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부표 1-2〉 참조)

〈부표 1-2〉 지역별 집계구 분포

(단위 : 개, %)

지역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10,878	8,184	.	.	19,062
부산	3,322	3,177	128	201	6,828
대구	2,108	2,361	123	365	4,957
인천	2,533	3,127	220	9	5,889
광주	1,104	1,914	.	.	3,018
대전	1,348	1,709	.	.	3,057
울산	870	1,024	208	227	2,329
세종	27	417	129	68	641
경기	8,145	13,288	2,477	1,726	25,636
강원	831	1,044	1,022	247	3,144
충북	827	1,060	925	419	3,231
충남	729	1,272	1,730	697	4,428
전북	1,085	1,559	960	146	3,750
전남	626	966	2,176	408	4,176
경북	1,387	1,489	1,990	564	5,430
경남	1,979	2,373	1,737	841	6,930
제주	781	204	418	9	1,412
계	38,580	45,168	14,243	5,927	103,918

주: 유형별거처수의 경우 비주거용 거처를 제외하여 동부와 읍면부의 합이 일반과 아파트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거처유형별로 모집단을 분석해보면 총 거처 수는 16,904천개이며, 이중 동부는 79%, 읍면부는 21%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주택과 아파트로 구분하면, 〈부표 1-3〉 과 같이 동부의 일반 주택과 아파트 비율은 34%와 66%로 나타나며, 읍면부에서는 각각 65%와 35%로 나타나고 있음

〈부표 1-3〉 거처유형별 거처 수

(단위 : 천개, %)

지역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970	-	2,970	1,343	1,627	-	-
부산	1,119	56	1,174	412	707	14	41
대구	681	86	767	211	470	17	68
인천	963	32	995	369	594	30	3
광주	488	-	488	109	379	-	-
대전	466	-	466	131	335	-	-
울산	285	73	359	77	208	27	46
세종	76	32	107	2	74	18	13
경기	3,379	741	4,120	993	2,387	412	329
강원	314	229	543	95	219	167	62
충북	297	250	548	84	213	159	91
충남	325	431	756	85	241	281	150
전북	428	211	639	116	312	177	34
전남	279	400	679	81	197	312	88
경북	469	481	950	157	312	349	132
경남	679	451	1,130	197	482	276	176
제주	150	63	212	89	60	59	4
계	13,368	3,536	16,904	4,553	8,815	2,300	1,236
비율	79.0%	21.0%	100.0%	34.0%	66.0%	65.0%	35.0%

주: 유형별거처수의 경우 비주거용 거처를 제외하여 동부와 읍면부의 합이 일반과 아파트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가구수분포를 파악해보면 〈부표 1-4〉 와 같이 1세대 가구는 3,599천 가구(18.2%), 2세대는 9,288천 가구(46.9%), 3세대는 847천 가구(4.3%) 로 파악되었고, 1인 가구는 5,830천 가구(29.5%), 비혈연 가구는 222천 가구(1.1%) 등으로 파악되었음

〈부표 1-4〉 세대별 가구 수

(단위 : 천가구, %)

지역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인가구	비혈연	계
서울	627	1,741	157	0	1,219	55	3,798
부산	257	624	56	0	404	11	1,352
대구	172	465	39	0	270	3	949
인천	181	563	50	0	275	16	1,085
광주	95	279	20	0	175	5	573
대전	100	274	21	0	195	7	597
울산	79	220	15	0	110	3	427
세종	19	57	4	0	36	2	118
경기	789	2,444	223	0	1,192	55	4,704
강원	133	249	28	0	206	7	623
충북	124	272	27	0	204	8	635
충남	170	353	36	0	270	13	843
전북	149	308	30	0	232	6	726
전남	166	290	31	0	235	8	730
경북	239	437	42	0	354	12	1,084
경남	256	598	53	0	379	9	1,294
제주	42	113	13	0	73	5	247
계	3,599	9,288	847	0	5,830	222	19,786
비율	18.2%	46.9%	4.3%	0.0%	29.5%	1.1%	100.0%

□ 연령별 인구수 분포를 파악해보면 〈부표 1-5〉 와 같이 19세는 1.4%, 20대는 16.3%, 30대는 17.3%, 40대는 19.6%, 50대는 19.8%, 60대는 13.6%, 70대는 8.3%로 파악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9.5%, 경기도가 25.1%, 인천이 5.7% 등으로 수도권이 50%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부표 1-5〉 지역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천명, %)

지역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서울	102	1,502	1,494	1,509	1,526	1,218	679	8,030
부산	36	449	422	499	558	504	283	2,751
대구	30	323	308	385	424	315	172	1,957
인천	33	399	430	487	513	353	174	2,389
광주	20	221	198	248	240	163	92	1,182
대전	19	244	201	238	241	174	90	1,207
울산	14	139	162	190	211	139	57	912
세종	4	43	61	65	43	28	14	258
경기	156	1,777	2,016	2,311	2,227	1,476	749	10,712
강원	18	190	168	219	260	226	132	1,213
충북	19	224	209	245	273	213	118	1,301
충남	25	289	302	338	343	268	167	1,732
전북	23	224	197	266	294	244	164	1,412
전남	21	179	189	252	298	252	183	1,374
경북	30	314	315	385	452	387	235	2,118
경남	39	373	444	543	577	437	238	2,651
제주	8	81	89	113	109	76	44	520
계	597	6971	7205	8293	8589	6473	3591	41,719
비율	1.4%	16.3%	17.3%	19.6%	19.8%	13.6%	8.3%	100.0%

주: *는 2020년 추계인구수

〈부표 1-6〉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수

(단위: 천명)

지역	성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서울	남	51	719	749	750	743	574	309	3,895
	여	51	783	745	759	783	644	370	4,135
부산	남	19	235	218	252	268	237	127	1,356
	여	17	214	204	247	290	267	156	1,395
대구	남	16	174	161	191	207	151	75	975
	여	14	149	147	194	217	164	97	982
인천	남	17	211	226	250	256	174	79	1,213
	여	16	188	204	237	257	179	95	1,176
광주	남	10	115	102	124	120	78	41	590
	여	10	106	96	124	120	85	51	592
대전	남	10	130	105	119	120	85	41	610
	여	9	114	96	119	121	89	49	597
울산	남	8	80	88	97	107	70	27	477
	여	6	59	74	93	104	69	30	435
세종	남	2	23	30	33	22	14	7	131
	여	2	20	31	32	21	14	7	127
경기	남	81	953	1,064	1,183	1,125	731	339	5,476
	여	75	824	952	1,128	1,102	745	410	5,236
강원	남	10	108	89	113	133	112	59	624
	여	8	82	79	106	127	114	73	589
충북	남	10	126	113	128	140	107	53	677
	여	9	98	96	117	133	106	65	624
충남	남	13	160	168	182	180	133	75	911
	여	12	129	134	156	163	135	92	821
전북	남	12	124	103	137	151	120	72	719
	여	11	100	94	129	143	124	92	693
전남	남	11	105	101	134	157	125	80	713
	여	10	74	88	118	141	127	103	661
경북	남	16	181	172	201	232	191	104	1,097
	여	14	133	143	184	220	196	131	1,021
경남	남	21	215	242	282	293	217	104	1,374
	여	18	158	202	261	284	220	134	1,277
제주	남	4	44	46	59	57	38	20	268
	여	4	37	43	54	52	38	24	252
계	남	311	3,703	3,777	4,235	4,311	3,157	1,612	21,106
	여	286	3,268	3,428	4,058	4,278	3,316	1,979	20,613

주: *는 2020년 추계인구수

2. 표본설계

가. 층화 방법

□ 지역 및 집계구 특성을 층화변수로 사용

○ 전국적으로 지역은 8개 특광역시와 9개 도지역으로 층화하고, 표본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을 층화 변수로 고려함

○ 조사구 특성은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고,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 집계구로 내제적 층화함

□ 성별 및 연령별 분석에서 사후층화 방법 적용

○ 분석단위에 대한 특성별 추정시 모집단의 분포에 따른 사후층화를 적용하여 추정치의 가중치를 조정함

나. 목표오차 및 표본규모의 결정

□ 일정한 목표 상대오차의 수준 하에서 층화 추출방법에 의한 표본규모 산식을 적용하여 표본규모를 결정함

□ 표본규모

○ 지역별로 집계구를 추출하고, 표본 집계구에서 10가구를 추출하는 층화집락 추출에서 표본규모를 결정할 때 층별로 표본배분하는 방법에 따라 표본규모에 대한 산출식은 달라짐

○ 여기서는 비례배분과 네이만 배분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표본규모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비례 배분 : $n = \dfrac{\sum_{h=1}^{L} N_h S_h^2}{ND + \sum_{h=1}^{L} W_h S_h^2}$

- 네이만 배분 : $n = \dfrac{(\sum_{h=1}^{L} N_h S_h)^2}{N^2 D + \sum_{h=1}^{L} N_h S_h^2}$

여기서 $S_h^2 = P_h Q_h$은 h층의 모집단 분산이며, $W_h = N_h / N$이고, $D = B^2/4$이며, B는 전국단위 통계산출에서 사용하는 허용오차임

○ 전국적으로 500개 집계구를 추출하고, 집계구당 10가구, 가구당 1명을 면접하기 때문에 표본규모는 5,050가구이며, 결과적으로 5,050명이 됨

○ 전국 19세 ~7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19세~79세 성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배분할 수 있음

○ 표본배분방법에 따라 비례배분의 경우 허용오차 0.92%에서 약 5,062명의 표본이 필요하며, 네이만 배분의 경우 표본오차 0.99%에서 4,995명이 필요함(〈부표 1-7〉 참조)

○ 결과적으로 네이만 배분의 경우 5,050명의 표본은 약 1%의 목표오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부표 1-7〉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수준에 따른 표본크기

(단위 : 명)

허용오차(B: %)	비례배분 적용 시	네이만배분 적용 시
10.0%	57	56
5.0%	225	222
2.0%	1,328	1,349
1.0%	4,452	4,908
0.99%	4,523	**4,995**
0.92%	**5,062**	5,674

□ 표본배분

○ 표본집계구는 전국에 걸쳐 505개로 하고, 집계구 당 10가구를 표본가구로 하며, 표본 가구의 1명의 성인 가구원을 조사할 경우 표본크기는 5,050명이 될 것임

○ 505개의 표본집계구를 다음과 같은 3가지 배분방법을 고려함

- 비례 배분 : $n_h = n\frac{N_h}{N}$

- 네이만배분 : $n_h = n\frac{N_h S_h}{\sum_{h=1}^{L} N_h S_h}$

- 제곱근 비례배분 : $n_h = n \times \frac{\sqrt{N_h}}{\sum_{h=1}^{L} \sqrt{N_h}}$

○ 층별 표본배분 방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결정

– 1단계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방안으로 검토함

- 방안1: 지역별*연령대별*성별에 따른 비례배분
- 방안2: 지역별*연령대별*성별에 따른 네이만 배분
- 방안3: 지역별*연령대별*성별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
- 방안4: 지역별*연령대별*성별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과 추출률을 고려한 강제배분

-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배분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구를 지역*동/읍면부 에 대해 배분하도록 함

- 이와 같이 1단계에서 지역별*연령대별*성별을 고려하여 최종표본의 상대표준오차를 관리하고, 2단계에서는 그에 따른 집계구를 배분하도록 함

□ 상대표준오차 기준의 신뢰성 판단 기준

○ 통계청 행정규칙(통계청 예규 제183호, 2016년 3월 개정) 에 의한 상대표준오차 허용규칙에 따르면 가구 조사의 경우 다음과 같음

〈부표 1-8〉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에 따른 신뢰도 기준

구분	RSE<25%		25%≤RSE≤50%	RSE>50%
	n≥10	n<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 캐나다 표본조사 기준(캐나다 통계청)

〈부표 1-9〉 캐나다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에 따른 신뢰도 기준

상대표준오차(RSE: relative standard error) 기준					
<5%	5%≤RSE<10%	10%≤RSE<15%	15%≤RSE<25%	25%≤RSE<35%	RSE≥35%
매우우수 (Excellent)	우수 (Very Good)	좋음 (Good)	허용 가능 (Acceptable)	주의사항표기 (Use with caution)	신뢰불가 (Too unreliable to publish)

○ Kish의 상대표준오차에 대한 신뢰도 기준

- 10%이하 : 우수 (Sufficiently good)
- 20%이하 : 허용 가능 (tolerable)

○ 호주의 상대표준오차에 대한 신뢰도 기준

- 상대표준오차 25% 미만은 대부분 목적에 그대로 사용
- 상대표준오차 25~50% 미만은 *표시를 하여 주의하여 이용
- 50% 이상은 **을 표시하여 신뢰가 부족하니 이용 시 주의바람

(방안 1) 지역별*연령대별*성별에 따른 비례배분

□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인구수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 수 5,050명을 배분하고, 그 결과를 지역의 동부와 읍면부에 대해 집계구를 배분함

〈부표 1-10〉 지역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비례배분 결과(인구비례)

(단위: 명, %)

지역	성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RSE(예상)
서울	남	93	90	90	90	69	37	469	4.6
	여	101	90	92	95	78	45	501	4.5
부산	남	31	26	31	32	29	15	164	7.8
	여	28	25	30	35	32	19	169	7.7
대구	남	23	19	23	25	18	9	117	9.2
	여	20	18	23	26	20	12	119	9.2
인천	남	28	27	30	31	21	10	147	8.2
	여	25	25	29	31	22	11	143	8.4
광주	남	15	12	15	15	9	5	71	11.9
	여	14	12	15	15	10	6	72	11.8
대전	남	17	13	14	15	10	5	74	11.6
	여	15	12	14	15	11	6	73	11.7
울산	남	11	11	12	13	8	3	58	13.1
	여	8	9	11	13	8	4	53	13.7
세종	남	3	4	4	3	2	1	17	24.3
	여	3	4	4	3	2	1	17	24.3
경기	남	125	129	143	136	88	41	662	3.9
	여	109	115	137	133	90	50	634	4.0
강원	남	14	11	14	16	14	7	76	11.5
	여	11	10	13	15	14	9	72	11.8
충북	남	16	14	15	17	13	6	81	11.1
	여	13	12	14	16	13	8	76	11.5
충남	남	21	20	22	22	16	9	110	9.5
	여	17	16	19	20	16	11	99	10.1
전북	남	16	12	17	18	15	9	87	10.7
	여	13	11	16	17	15	11	83	11.0
전남	남	14	12	16	19	15	10	86	10.8
	여	10	11	14	17	15	12	79	11.3
경북	남	24	21	24	28	23	13	133	8.7
	여	18	17	22	27	24	16	124	9.0
경남	남	29	29	34	35	26	13	166	7.8
	여	21	24	32	34	27	16	154	8.1
제주	남	6	6	7	7	5	2	33	17.4
	여	5	5	7	6	5	3	31	18.0
계	남	486	456	511	522	381	195	2,551	2.0
	여	431	416	492	518	402	240	2,499	2.0
	계	917	872	1,003	1,040	783	435	5,050	1.4

〈부표 1-11〉 비례배분에 따른 지역별 집계구 및 가구 배분 결과

(단위 : 개, %)

지역	표본 집계구					표본 가구				계	RSE (예상)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55	41	0	0	96	550	410	0	0	960	3.2
부산	16	15	1	1	33	160	150	10	10	330	5.5
대구	10	11	1	2	24	100	110	10	20	240	6.5
인천	12	15	1	0	28	120	150	10	0	280	6.0
광주	5	9	0	0	14	50	90	0	0	140	8.5
대전	7	8	0	0	15	70	80	0	0	150	8.2
울산	4	5	1	1	11	40	50	10	10	110	9.5
세종	0	2	1	0	3	0	20	10	0	30	18.3
경기	41	67	13	9	130	410	670	130	90	1,300	2.8
강원	4	5	5	1	15	40	50	50	10	150	8.2
충북	4	5	5	2	16	40	50	50	20	160	7.9
충남	3	6	8	3	20	30	60	80	30	200	7.1
전북	5	7	4	1	17	50	70	40	10	170	7.7
전남	3	4	9	2	18	30	40	90	20	180	7.5
경북	7	7	10	3	27	70	70	100	30	270	6.1
경남	9	11	8	4	32	90	110	80	40	320	5.6
제주	3	1	2	0	6	30	10	20	0	60	12.9
계	188	219	69	29	505	1,880	2,190	690	290	5,050	1.4

(방안 2) 지역별*연령대별*성별에 따른 네이만 배분

□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인구수 및 층별 변동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수 5,050명을 네이만 배분하고, 그 결과를 지역의 동부와 읍면부에 대해 집계구를 배분함

〈부표 1-12〉 지역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네이만 배분 결과

(단위: 천명, %)

지역	성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RSE(예상)
서울	남	130	124	125	123	84	33	619	4.0
	여	146	123	127	133	99	43	671	3.9
부산	남	25	20	24	27	22	9	127	8.9
	여	21	18	24	30	27	12	132	8.7
대구	남	16	12	16	18	11	4	77	11.4
	여	13	11	16	20	13	6	79	11.3
인천	남	21	21	24	25	14	4	109	9.6
	여	18	18	22	25	15	6	104	9.8
광주	남	9	6	8	8	4	2	37	16.4
	여	8	6	8	8	5	2	37	16.4
대전	남	10	7	8	8	5	2	40	15.8
	여	8	6	8	8	5	2	37	16.4
울산	남	5	5	6	7	4	1	28	18.9
	여	3	4	5	6	4	1	23	20.9
세종	남	1	1	1	1	0	0	4	50.0
	여	1	1	1	1	0	0	4	50.0
경기	남	200	210	245	227	120	38	1,040	3.1
	여	163	178	229	221	123	51	965	3.2
강원	남	8	5	7	9	7	3	39	16.0
	여	5	4	7	9	7	4	36	16.7
충북	남	10	7	9	10	7	2	45	14.9
	여	7	6	8	9	7	3	40	15.8
충남	남	14	13	15	15	9	4	70	12.0
	여	10	9	12	13	10	5	59	13.0
전북	남	10	6	10	11	8	4	49	14.3
	여	7	6	9	10	8	5	45	14.9
전남	남	8	6	9	12	9	4	48	14.4
	여	5	5	8	10	9	6	43	15.2
경북	남	17	14	17	22	16	6	92	10.4
	여	11	10	15	20	17	9	82	11.0
경남	남	22	23	29	31	20	6	131	8.7
	여	14	18	26	29	20	9	116	9.3
제주	남	2	2	3	3	1	1	12	28.9
	여	2	2	2	2	1	1	10	31.6
계	남	508	482	556	557	341	123	2,567	2.0
	여	442	425	527	554	370	165	2,483	2.0
	계	950	907	1,083	1,111	711	288	5,050	1.4

〈부표 1-13〉 네이만 배분에 따른 지역별 집계구 및 가구 배분 결과

(단위 : 개, %)

지역	표본 집계구					표본 가구				계	RSE (예상)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74	55	0	0	129	740	550	0	0	1,290	2.8
부산	13	12	0	1	26	130	120	0	10	260	6.2
대구	7	8	0	1	16	70	80	0	10	160	7.9
인천	9	11	1	0	21	90	110	10	0	210	6.9
광주	3	4	0	0	7	30	40	0	0	70	12.0
대전	4	4	0	0	8	40	40	0	0	80	11.2
울산	2	2	0	0	4	20	20	0	0	40	15.8
세종	0	1	0	0	1	0	10	0	0	10	31.6
경기	64	104	19	13	200	640	1,040	190	130	2,000	2.2
강원	2	3	3	1	9	20	30	30	10	90	10.5
충북	2	3	3	1	9	20	30	30	10	90	10.5
충남	2	4	5	2	13	20	40	50	20	130	8.8
전북	3	4	2	0	9	30	40	20	0	90	10.5
전남	1	2	5	1	9	10	20	50	10	90	10.5
경북	4	5	6	2	17	40	50	60	20	170	7.7
경남	7	9	6	3	25	70	90	60	30	250	6.3
제주	1	0	1	0	2	10	0	10	0	20	22.4
계	198	231	51	25	505	1,980	2,310	510	250	5,050	1.4

(방안 3) 지역별*연령대별*성별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

□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인구수 및 층별 규모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수 5,050명을 제곱근 비례배분하고, 그 결과를 지역의 동부와 읍면부에 대해 집계구를 배분함

〈부표 1-14〉 지역별*연령별*성별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 결과

(단위: 천명, %)

지역	성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RSE(예상)
서울	남	54	53	53	53	46	34	293	5.8
	여	56	53	53	54	49	37	302	5.8
부산	남	31	29	31	32	30	22	175	7.6
	여	29	28	29	33	32	24	175	7.6
대구	남	27	25	27	28	24	17	148	8.2
	여	25	23	27	28	25	19	147	8.2
인천	남	29	29	31	31	26	17	163	7.8
	여	28	28	30	31	26	19	162	7.9
광주	남	22	20	22	21	17	12	114	9.4
	여	21	19	22	21	18	14	115	9.3
대전	남	23	20	21	21	18	12	115	9.3
	여	21	19	21	21	18	14	114	9.4
울산	남	18	18	19	20	16	10	101	10.0
	여	16	17	19	20	16	11	99	10.1
세종	남	10	11	11	9	7	5	53	13.7
	여	9	11	11	9	7	5	52	13.9
경기	남	62	63	67	65	52	36	345	5.4
	여	58	60	65	64	53	39	339	5.4
강원	남	21	18	20	22	20	15	116	9.3
	여	18	17	20	22	20	17	114	9.4
충북	남	23	21	22	23	20	14	123	9.0
	여	20	19	20	22	20	16	117	9.2
충남	남	25	25	26	26	22	17	141	8.4
	여	23	22	24	25	22	19	135	8.6
전북	남	23	20	23	24	20	16	126	8.9
	여	20	19	22	23	22	18	124	9.0
전남	남	21	19	22	24	22	17	125	8.9
	여	18	18	21	23	22	20	122	9.1
경북	남	27	25	27	29	27	20	155	8.0
	여	23	23	26	29	27	22	150	8.2
경남	남	30	30	32	33	28	20	173	7.6
	여	26	27	30	33	29	22	167	7.7
제주	남	12	13	15	15	12	9	76	11.5
	여	12	13	14	14	12	9	74	11.6
계	남	458	439	469	476	407	293	2,542	2.0
	여	423	416	454	472	418	325	2,508	2.0
	계	881	855	923	948	825	618	5,050	1.4

〈부표 1-15〉 제곱근비례 배분에 따른 지역별 집계구 및 가구 배분 결과

(단위 : 개, %)

지역	표본 집계구					표본 가구				계	RSE (예상)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34	26	0	0	60	340	260	0	0	600	4.1
부산	17	15	1	1	34	170	150	10	10	340	5.4
대구	13	14	1	2	30	130	140	10	20	300	5.8%
인천	14	18	1	0	33	140	180	10	0	330	5.5
광주	8	15	0	0	23	80	150	0	0	230	6.6
대전	10	13	0	0	23	100	130	0	0	230	6.6
울산	7	9	2	2	20	70	90	20	20	200	7.1
세종	0	7	2	1	10	0	70	20	10	100	10.0
경기	22	35	7	5	69	220	350	70	50	690	3.8
강원	6	8	7	2	23	60	80	70	20	230	6.6
충북	6	8	7	3	24	60	80	70	30	240	6.5
충남	5	8	11	4	28	50	80	110	40	280	6.0
전북	7	10	6	1	24	70	100	60	10	240	6.5
전남	4	6	13	2	25	40	60	130	20	250	6.3
경북	8	9	10	3	30	80	90	100	30	300	5.8
경남	10	12	9	4	35	100	120	90	40	350	5.3
제주	8	2	4	0	14	80	20	40	0	140	8.5
계	179	215	81	30	505	1,790	2,150	810	300	5,050	1.4

(방안 4) 지역별*연령대별*성별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과 추출률을 고려한 강제배분

□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인구수 및 층별 규모에 비례하여 목표 표본수 5,050명을 제곱근 비례배분 후 오차를 고려한 강제 배분하고, 그 결과를 지역의 동부와 읍면부에 대해 집계구를 배분함

〈부표 1-16〉 지역별*연령별*성별에 따른 제곱근 비례배분 결과

(단위: 천명, %)

지역	성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RSE(예상)
서울	남	50	50	50	50	40	25	265	6.1
	여	50	50	48	50	40	25	263	6.2
부산	남	30	30	30	30	30	22	172	7.6
	여	29	27	30	33	30	24	173	7.6
대구	남	26	24	26	28	24	20	148	8.2
	여	24	23	27	28	25	20	147	8.2
인천	남	29	29	30	30	25	20	163	7.8
	여	27	27	29	30	26	20	159	7.9
광주	남	20	20	20	20	20	15	115	9.3
	여	20	20	20	20	20	15	115	9.3
대전	남	23	20	20	20	20	12	115	9.3
	여	20	20	20	20	20	13	113	9.4
울산	남	20	20	20	20	20	10	110	9.5
	여	20	20	20	20	20	10	110	9.5
세종	남	20	20	20	20	20	10	110	9.5
	여	20	20	20	20	20	10	110	9.5
경기	남	50	50	50	50	40	32	272	6.1
	여	50	50	50	50	40	32	272	6.1
강원	남	20	20	20	22	20	15	117	9.2
	여	20	20	20	22	20	15	117	9.2
충북	남	22	20	22	23	20	15	122	9.1
	여	20	20	20	22	20	15	117	9.2
충남	남	25	25	26	26	22	17	141	8.4
	여	23	22	24	24	22	20	135	8.6
전북	남	22	20	22	24	20	16	124	9.0
	여	20	20	22	23	20	20	125	8.9
전남	남	20	20	22	24	20	20	126	8.9
	여	20	20	20	23	22	20	125	8.9
경북	남	27	25	27	29	26	20	154	8.1
	여	23	23	26	28	27	22	149	8.2
경남	남	29	30	32	33	28	20	172	7.6
	여	25	27	30	32	28	22	164	7.8
제주	남	20	20	20	20	20	15	115	9.3
	여	20	20	20	20	20	15	115	9.3
계	남	453	443	457	469	415	304	2,541	2.0
	여	431	429	446	465	420	318	2,509	2.0
	계	884	872	903	934	835	622	5,050	1.4

〈부표 1-17〉 제곱근비례 배분과 강제 배분 후 지역별 집계구 및 가구 배분 결과

(단위 : 개, %)

지역	표본 집계구					표본 가구				계	RSE (예상)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30	23	0	0	53	300	230	0	0	530	4.3
부산	17	16	1	2	36	170	160	10	20	360	5.3
대구	13	14	1	1	29	130	140	10	10	290	5.9
인천	14	17	1	0	32	140	170	10	0	320	5.6
광주	8	15	0	0	23	80	150	0	0	230	6.6
대전	10	13	0	0	23	100	130	0	0	230	6.6
울산	8	10	2	2	22	80	100	20	20	220	6.7
세종	1	14	4	2	21	10	140	40	20	210	6.9
경기	17	28	5	4	54	170	280	50	40	540	4.3
강원	6	8	7	2	23	60	80	70	20	230	6.6
충북	6	8	7	3	24	60	80	70	30	240	6.5
충남	5	8	11	4	28	50	80	110	40	280	6.0
전북	7	10	6	1	24	70	100	60	10	240	6.5
전남	4	6	13	2	25	40	60	130	20	250	6.3
경북	8	8	11	3	30	80	80	110	30	300	5.8
경남	10	12	9	4	35	100	120	90	40	350	5.3
제주	13	3	7	0	23	130	30	70	0	230	6.6
계	177	213	85	30	505	1,770	2,130	850	300	5,050	1.4

3. 추정방법

가. 가중치의 계산

○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배분인 경우 자체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조사는 표본 집계구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한 후 지역별, 집계구별, 가구원수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 가중치 조정과정은 첫 번째 표본가구에 대한 가중치 조정을 완료하고, 다음으로 개인에 대한 가중치 조정을 실시함

N : 모집단 총 집계구수(=$\Sigma_{h=1}^{H} N_h$)

N_h : h층의 모집단 집계구수

n_h : h층의 표본 집계구 수

M_{hi} : h층의 i번째 집계구내 가구수

m_{hi} : h층의 i번째 집계구내 표본 가구수

S_{hi}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총가구수

$S_h = \sum_i S_{hi}$: h층의 총가구수

x_{hij} : h층의 i번째 집계구내 j번째 표본가구에서 만 19세 ~79세 가구원수

r_{hi}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응답가구수

w_{hij}^{HB}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j번째 가구의 추출가중치

w_{hi}^{HR}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j}^{HP}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j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_{hij} :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j번째 가구의 개인 최종가중치

1) 가구 가중치의 조정

○ h층의 j번째 집계구의 i번째 가구의 추출기본가중치

$$w_{hij}^{HB}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tag{1}$$

○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j}^{HR} = \frac{m_{hi}}{r_{hi}} \tag{2}$$

○ 사후층화조정 가중치

$$w_{hij}^{HP} = w_{hij}^{HB} \times w_{hij}^{HR} \times \frac{X_h}{\hat{X}_h} \tag{3}$$

- 여기서 $X_h = \sum_i X_{hi}$는 h층의 모집단 가구수이며, $\hat{X}_h$는 h층의 가구에 대한 가중합을 의미함

2) 개인에 대한 가중치 조정

○ h층의 j번째 집계구의 i번째 가구의 개인 추출가중치

$$W_{hij}^{IB} = w_{hij}^{HP} \times x_{hij} \tag{4}$$

○ 사후층화조정 가중치

- 응답자의 지역, 성별, 연령별 사후층에 대한 모집단 인구수와 이에 해당하는 가중치의 주변합(marginal total)을 이용하여 기존의 개인가중치를 사후조정함

$$W_{hij} = W_{hij}^{IB} \times \frac{A_h}{\hat{A}_h} \tag{5}$$

- 여기서 $A_h = \sum_i A_{hi}$는 h층의 모집단 성인 수이며, $\hat{A}_h$는 h층의 성인에 대한 가중합을 의미함

나. 추정치의 계산

1) 모평균 추정

○ 모평균에 대한 추정

$$\hat{\bar{Y}} = \sum_{h}^{L}\sum_{i}^{n_h}\sum_{j}^{m_{hi}} W_{hij} y_{hij} / W_{...} \tag{6}$$

- 여기서 $W_{...} = \sum_{h=1}^{L}\sum_{i=}^{n_h}\sum_{j=1}^{m_{hi}} W_{hij}$이며, h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이며 i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2,\cdots,n_h$이다.

○ 표본평균 $\hat{\bar{Y}}$의 분산 추정치

$$\hat{V}(\hat{\bar{Y}}) = \sum_{h=1}^{L} \frac{n_h(1-f_h)}{n_h - 1} \sum_{i=1}^{n_h} (e_{hi} - \bar{e}_{h..})^2 \tag{7}$$

-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y_{hij} - \hat{\bar{Y}}) \right) / W_{...}$,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hat{\bar{Y}}) = \sqrt{\hat{V}(\hat{\bar{Y}})}$$

○ 상대표준오차

$$RSE(\hat{\bar{Y}}) = \frac{SE(\hat{\bar{Y}})}{\hat{\bar{Y}}} \times 100\% \tag{8}$$

2) 층별 모평균 추정

○ 층별 모평균에 대한 추정

$$\hat{\bar{Y}}_h = \sum_{i}^{n_h}\sum_{j}^{m_{hi}} W_{hij} y_{hij} / W_{..} \tag{9}$$

- 여기서 $W_{..} = \sum_{i=j=1}^{n_h}\sum^{m_{hi}} W_{hij}$이며, h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이며 i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2,\cdots,n_h$이다.

○ 층별 표본평균 $\hat{\bar{Y}}_h$의 분산 추정치

$$\hat{V}(\hat{\bar{Y}}_h) = \frac{n_h(1-f_h)}{n_h - 1}\sum_{i=1}^{n_h}(e_{hi} - \bar{e}_{h..})^2 \tag{10}$$

-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y_{hij} - \hat{\bar{Y}})\right) / W_{...}$, $\bar{e}_{h..} = \sum_{i=1}^{n_h} e_{hi.}/n_h$ 이다.

$$SE(\hat{\bar{Y}}_{h)} = \sqrt{\hat{V}(\hat{\bar{Y}}_h)}$$

○ 층별 상대표준오차

$$RSE(\hat{\bar{Y}}_h) = \frac{SE(\hat{\bar{Y}}_h)}{\hat{\bar{Y}}_h} \times 100\% \tag{11}$$

4. 가중치 조정과정

가중치 조정과정은 전체적으로 세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집계구 추출가중치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에서는 가구 가중치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가구 내 응답한 성인 개인 가중치를 조정함

가. 집계구 추출가중치의 조정

□ 집계구 모집단으로부터 예비 집계구를 고려하여 1,500개 집계구를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05개 집계구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집계구 유형별(일반, 아파트) 표본 집계구에 대한 추출가중치를 조정함

□ 〈부표 1-2〉의 모집단 집계구 분포와 1,500개중에서 505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함

$$w_0 = \frac{n_h}{r_h} \times \frac{N_h}{\hat{N}_h}$$

여기서 N_h는 h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이며, r_h는 h층의 조사 집계구 수, n_h는 표본집계구수 이며, $\hat{N}_h$는 추정집계구수를 의미한다.

〈부표 1-18〉 집계구 가중치 분포

시도	표본집계구	합계	평균	최솟값	최댓값	$1+cv^2$
전국	505	103,680	205	23	826	1.410
서울	52	19,062	367	363	372	1.000
부산	35	6,828	195	128	201	1.004
대구	29	4,957	171	123	365	1.048
인천	32	5,660	177	174	181	1.000
광주	23	3,018	131	128	138	1.002
대전	23	3,057	133	131	135	1.000
울산	22	2,329	106	102	114	1.002
세종	22	641	29	23	43	1.040
경기	55	25,636	466	345	826	1.040
강원	23	3,144	137	95	256	1.185
충북	24	3,231	135	84	231	1.130
충남	28	4,428	158	116	192	1.040
전북	25	3,750	150	136	160	1.005
전남	25	4,176	167	78	435	1.706
경북	31	5,430	175	124	249	1.084
경남	34	6,930	204	158	434	1.185
제주	22	1,403	64	51	70	1.010

□ 집계구 가중치의 총계는 103,600개로서 모집단 집계구보다 약 300 정도 적게 추계되었는데 이는 표본추출과정에서 표본배분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최종 집계구에 대한 가중치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계구 수를 모집단 집계수수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침

$$w_0^* = \begin{cases} w_0 \times 1, \text{인천과제주를제외한지역} \\ w_0 \times Adj_k, \ k = \text{인천}, \text{제주} \end{cases}$$

〈부표 1-19〉 조정된 집계구 가중치 분포

시도	표본집계구	합계	평균	최솟값	최댓값	$1+cv^2$
전국	505	103,918	206	23	826	1.410
서울	52	19,062	367	363	372	1.000
부산	35	6,828	195	128	201	1.004
대구	29	4,957	171	123	365	1.048
인천	32	5,889	184	181	188	1.000
광주	23	3,018	131	128	138	1.002
대전	23	3,057	133	131	135	1.000
울산	22	2,329	106	102	114	1.002
세종	22	641	29	23	43	1.040
경기	55	25,636	466	345	826	1.040
강원	23	3,144	137	95	256	1.185
충북	24	3,231	135	84	231	1.130
충남	28	4,428	158	116	192	1.040
전북	25	3,750	150	136	160	1.005
전남	25	4,176	167	78	435	1.706
경북	31	5,430	175	124	249	1.084
경남	34	6,930	204	158	434	1.185
제주	22	1,412	64	51	70	1.010

나. 가구 가중치 조정

□ 다음으로 조정된 집계구 가중치와 집계구당 가구수 및 표본가구수를 고려한 가구 기본가중치를 적용함

$$w_{hi} = w_0^* \times \frac{M_{hi}}{m_{hi}}$$

여기서 w_0^*는 집계구 가중치이며, M_{hi}는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전체 가구수, m_{hi}는 h층의 i번째 집계구의 표본가구수로서 여기서는 10개 가구를 나타냄.

〈부표 1-20〉 집계구 및 응답 가중치가 부여된 가구 기본가중치 분포

시도	응답가구수	합계	평균	최솟값	최댓값	$1+cv^2$
전국	5,050	22,161,834	4,388	392	29,476	1.533
서울	520	4,297,592	8,265	4,061	17,151	1.096
부산	350	1,508,197	4,309	1,907	7,168	1.073
대구	290	1,112,942	3,838	1,973	10,184	1.176
인천	320	1,076,013	3,363	1,934	4,951	1.063
광주	230	664,290	2,888	1,735	6,182	1.123
대전	230	705,178	3,066	2,077	4,864	1.040
울산	220	467,687	2,126	1,413	3,348	1.058
세종	220	138,862	631	392	1,621	1.240
경기	550	5,106,347	9,284	4,453	29,476	1.194
강원	230	787,587	3,424	1,395	11,932	1.410
충북	240	744,427	3,102	1,148	8,001	1.270
충남	280	874,372	3,123	1,597	5,382	1.109
전북	250	811,908	3,248	1,994	4,506	1.036
전남	250	932,915	3,732	1,101	12,012	1.865
경북	310	1,245,535	4,018	1,427	7,736	1.212
경남	340	1,398,233	4,112	2,120	11,291	1.303
제주	220	289,747	1,317	760	1,900	1.058

〈부표 1-21〉 가구 기본가중치와 조정계수

시도	모집단 가구수	가중 가구수	조정계수
서울	3,850,210	4297592	0.896
부산	1,366,424	1508197	0.906
대구	962,605	1112942	0.865
인천	1,116,613	1076013	1.038
광주	590,213	664290	0.888
대전	609,797	705178.3	0.865
울산	434,462	467687.4	0.929
세종	133,054	138862	0.958
경기	4,940,014	5106347	0.967
강원	640,230	787587	0.813
충북	658,515	744427.3	0.885
충남	874,677	874372.2	1.000
전북	737,144	811908.1	0.908
전남	740,947	932914.8	0.794
경북	1,107,779	1245535	0.889
경남	1,329,286	1398233	0.951
제주	257,597	289747.5	0.889
1인	6,165,823	3,767,874	1.636
2인	5,696,182	7,355,105	0.774
3인	4,282,578	6,495,005	0.659
4인	3,211,972	4,149,871	0.774
5인이상	993,012	393,979.6	2.521
계	20,349,567	22,161,835	0.918

□ 표본가구 특성에 따라 지역(17개 지역) 및 가구원수(1~5인이상)에 따라 2020년 통계청의 추계 가구수에 따라 사후조정을 실시함

$$w_h = w_{hi} \times \frac{M_h}{\widehat{M}_h}$$

여기서 $M_h = \sum_{i=1}^{N_h} M_{hi}$는 h층의 2020년 추계 가구수(모집단 가구)이며, $\widehat{M}_h$는 h층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가구수를 의미함

□ 이때 가구 가중치에 대한 사후조정은 가구수와 가구원수 정보를 이용하여 래이킹 과정으로 가중치를 조정함. 이 과정에서 조정된 가중치는 0.8~2.0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적절하게 조정된 가중치로 간주할 수 있음

$$w_h^{Adj_H} = \begin{cases} w_h^{(2k-2)} \times Adj_h^{(2k-2),} & \text{if } k = 0,2,4,6\cdots \\ w_h^{(2k-1)} \times Adj_h^{(2k-1),} & \text{if } k = 1,3,5,\cdots \end{cases}$$

〈부표 1-22〉 사후 조정된 가구가중치 분포

시도	응답가구수	합계	평균	최솟값	최댓값	$1+cv^2$
전국	5,050	20,349,568	4,030	250	93,468	2.020
서울	520	3,850,210	7,404	2,611	93,468	1.593
부산	350	1,366,424	3,904	1,173	11,675	1.325
대구	290	962,605	3,319	1,037	23,969	1.672
인천	320	1,116,613	3,489	1,423	9,221	1.270
광주	230	590,213	2,566	1,064	10,033	1.462
대전	230	609,797	2,651	1,260	7,814	1.260
울산	220	434,462	1,975	890	5,820	1.314
세종	220	133,054	605	250	2,731	1.774
경기	550	4,940,014	8,982	3,276	57,416	1.449
강원	230	640,230	2,784	633	14,342	1.740
충북	240	658,515	2,744	666	26,433	1.846
충남	280	874,677	3,124	1,082	9,651	1.314
전북	250	737,144	2,949	1,170	7,195	1.250
전남	250	740,947	2,964	630	20,338	2.124
경북	310	1,107,779	3,573	771	28,831	1.640
경남	340	1,329,286	3,910	1,480	23,053	1.624
제주	220	257,597	1,171	437	3,628	1.303

□ 사후 조정된 가구 가중치의 분포로부터 가중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큰 지역에 대해 가중치를 절단하여 새롭게 가중치를 조정하는 절단 가중치 조정을 실시함

$$w_h^{Adj_{H(trim)}} = \begin{cases} w_h, & \text{if } |w_h \pm 2\sigma_w| \\ Mean(w_h), & otherwise \end{cases}$$

□ 〈부표 1-23〉으로부터 가중치 절단을 통해 지역별 가중치의 분포가 〈부표 1-22〉보다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표 1-23〉 절단 가중치 적용 가구가중치 분포

시도	응답가구수	합계	평균	최솟값	최댓값	$1+cv^2$
전국	5,050	20,349,568	4,030	471	32,757	1.757
서울	520	3,850,210	7,359	3,879	28,667	1.292
부산	350	1,366,424	3,944	2,198	17,186	1.774
대구	290	962,605	3,358	1,965	15,075	1.533
인천	320	1,116,613	3,515	2,154	16,353	1.723
광주	230	590,213	2,575	1,744	10,429	1.533
대전	230	609,797	2,661	1,818	11,747	1.436
울산	220	434,462	1,978	1,446	6,909	1.270
세종	220	133,054	603	471	1,311	1.168
경기	550	4,940,014	8,885	4,458	32,757	1.168
강원	230	640,230	2,828	1,631	8,935	1.270
충북	240	658,515	2,754	1,906	11,180	1.314
충남	280	874,677	3,149	1,966	15,476	1.518
전북	250	737,144	2,980	1,827	10,828	1.436
전남	250	740,947	2,955	2,061	7,081	1.152
경북	310	1,107,779	3,624	1,927	12,856	1.656
경남	340	1,329,286	3,897	2,606	19,965	1.462
제주	220	257,597	1,177	838	2,476	1.203

다. 개인가중치 조정

□ 개인가중치는 가구 가중치를 기반으로 가구내 19세 이상 성인 1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개인기본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함

$$w_{hi}^{Adj_P} = w_h^{Adj_{HH}} \times HHA_{hi}$$

여기서 $w_{hi}^{Adj_P}$는 h층의 i번째 가구의 개인 기본가중치이며, $w_h^{Adj_{HH}}$는 층별 최종 가구 가중치이며, HHA_{hi}는 h층의 i번째 가구내 성인수를 나타냄

□ 다음은 위에서 정의한 개인기본가중치 $w_{hi}^{Adj_P}$를 적용하여 추정한 인구수와 통계청의 2020년 19~79세 인구수를 대비한 결과로서 조정계수 값이 일부 셀을 제외하고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음

〈부표 1-24〉 가구 기본가중치와 조정계수

시도	모집단 인구수	가중 가구수	조정계수
서울	8,026,760	8,341,245	0.962
부산	2,753,533	2,665,910	1.033
대구	1,954,806	1,767,483	1.106
인천	2,390,521	2,528,711	0.945
광주	1,181,265	1,179,172	1.002
대전	1,206,996	1,347,424	0.896
울산	914,508	987,186	0.926
세종	257,119	302,634	0.850
경기	10,712,280	10,845,303	0.988
강원	1,213,025	945,240	1.283
충북	1,301,450	1,278,945	1.018
충남	1,732,518	1,568,825	1.104
전북	1,409,445	1,393,329	1.012
전남	1,373,998	1,471,265	0.934
경북	2,116,224	1,994,233	1.061
경남	2,651,575	2,876,826	0.922
제주	519,847	535,240	0.971
남	21,104,657	20,924,160	1.009
여	20,611,213	21,104,810	0.977
19~29세	7,569,025	8,270,237	0.915
30대	7,203,550	6,300,973	1.143
40대	8,291,728	7,259,482	1.142
50대	8,587,047	9,678,278	0.887
60대	6,472,987	6,056,964	1.069
70대	3,591,533	4,463,036	0.805
계	41,715,870	42,028,970	0.993

□ 가구 가중치 조정과 유사하게 먼저 모집단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19~79세 인구수에 대해 래킹비 조정을 통해 조정함

$$w_h^{Adj_P} = \begin{cases} w_{hi}^{(2k-2)} \times AdjP_h^{(2k-2),} & \text{if } k = 0,2,4,6\cdots \\ w_{hi}^{(2k-1)} \times AdjP_h^{(2k-1),} & \text{if } k = 1,3,5,\cdots \end{cases}$$

□ 한편 개인 기본가중치의 분포를 〈부표 1-25〉와 같이 살펴보면 인천과 대전지역의 가중치의 설계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부표 1-25〉 래킹비 조정후 개인가중치 분포

시도	응답개인수	합계	평균	최솟값	최댓값	$1+cv^2$
전국	5,050	41,715,869	8,261	691	97,479	1.846
서울	520	8,026,798	15,436	6,033	51,151	1.221
부산	350	2,753,576	7,867	2,879	97,479	2.082
대구	290	1,954,802	6,741	2,545	46,731	1.504
인천	320	2,390,450	7,470	2,737	71,119	2.232
광주	230	1,181,263	5,136	1,739	43,045	1.476
대전	230	1,206,952	5,248	1,494	49,823	1.884
울산	220	914,510	4,157	1,312	29,473	1.608
세종	220	257,114	1,169	691	5,045	1.194
경기	550	10,712,288	19,477	7,344	58,490	1.168
강원	230	1,213,041	5,274	2,135	25,799	1.130
충북	240	1,301,428	5,423	3,252	42,584	1.281
충남	280	1,732,543	6,188	2,677	39,858	1.292
전북	250	1,409,465	5,638	2,086	48,688	1.792
전남	250	1,373,967	5,496	3,355	25,264	1.176
경북	310	2,116,220	6,827	2,528	51,166	1.656
경남	340	2,651,604	7,799	4,164	77,923	1.518
제주	220	519,848	2,363	879	12,246	1.384

□ 한편 조정된 사후 가중치의 분포로부터 부산과 인천의 설계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가중치의 분산 감소 차원에서 가중치 절단방법을 적용하여 가중치의 분포를 안정적으로 조정함

$$w_h^{Adj_{P(trim)}} = \begin{cases} w_{hi}^P, & \text{if } |w_{hi}^P \pm 2\sigma_w| \\ Mean(w_{hi}^P), & otherwise \end{cases}$$

〈부표 1-26〉 절단 가중치 적용후 개인가중치 분포

시도	응답개인수	합계	평균	최솟값	최댓값	$1+cv^2$
전국	5,050	41,715,871	8,261	604	34,701	1.563
서울	520	8,026,760	15,436	6,817	30,441	1.116
부산	350	2,753,533	7,867	3,386	21,145	1.152
대구	290	1,954,806	6,741	2,658	15,758	1.123
인천	320	2,390,521	7,470	3,489	15,363	1.102
광주	230	1,181,265	5,136	2,013	16,053	1.152
대전	230	1,206,996	5,248	1,690	10,280	1.102
울산	220	914,508	4,157	1,494	23,465	1.410
세종	220	257,119	1,169	604	5,031	1.203
경기	550	10,712,280	19,477	8,949	34,701	1.123
강원	230	1,213,025	5,274	2,169	12,384	1.078
충북	240	1,301,450	5,423	2,913	17,491	1.102
충남	280	1,732,518	6,188	2,695	11,861	1.090
전북	250	1,409,445	5,638	2,473	27,573	1.176
전남	250	1,373,998	5,496	2,979	15,136	1.144
경북	310	2,116,224	6,827	2,709	26,012	1.212
경남	340	2,651,575	7,799	3,944	20,024	1.123
제주	220	519,847	2,363	829	11,838	1.436

□ 결과적으로 〈부표 1-26〉과 같이 지역별로 안정적인 가중치가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가중치를 최종 가중치로 적용함

□ 한편 가구 가중치와 개인 가중치는 분석과정에서 표준화 가중치로 변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음

○ 가구 표준화 가중치 : $w_h^{Hs} = w_h^{AdjH} \times \frac{\hat{N}}{N}$, 여기서 $\hat{N}$는 가구 가중치합이며, N은 총 가구수임

○ 개인 표준화 가중치 : $w_h^{Ps} = w_h^{AdjP} \times \frac{\hat{X}}{X}$, 여기서 $\hat{X}$는 개인 가중치합이며, X은 총 성인수임

부록2.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집계구 번호					응답자 ID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댁에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6월

- 주관기관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 문 의 처 :

집계구 번호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응답가구원)	① 응답가구원 ② 대체가구원 ※ 가구원의 생일(실제 생년월일 기준)을 파악한 후, 시스템에 의해 조사관리부서에서 무작위 선정한 응답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응답자 이름 (응답가구원)		응답자 연락처 (응답가구원)	- -
응답자 성별 (응답가구원)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응답가구원)	만 _____세 → 만18세 이하, 만80세 이상 조사 중단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도로명)_____ (건물번호) _____		
응답자 (응답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주거형태	① 단독주택(다가구)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④ 기타(영업용 건물 내 거주, 오피스텔 등)
	※ 가구주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인 가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응답방법	① 대면조사 ② 유치조사 ③ 온라인조사
1차 방문	___월___일(___요일)/___시___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2차 방문	___월___일(___요일)/___시___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3차 방문	___월___일(___요일)/___시___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4차 방문	___월___일(___요일)/___시___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___월___일(___요일)/___시___분	면접시간	_____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문 1.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닥 ◀										▶ 꼭대기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가구 구성

※ 가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202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A-1. 선생님 댁의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구분	가구원수	
(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2) 가구원 중 노인 수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5년 5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3) 가구원 중 장애인 수 ※ 등록장애인(경증, 중증) 기준,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명
(4)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2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5) 가구원 중 실업자 수 ※ 2020년 5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명

B. 가구 경제상태

※ 가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B-1. 선생님 댁의 총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총 생활비	지난 3개월(2020.3.1.~2020.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총생활비는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로 구성됩니다. ※ 가정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합니다. - 단,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합니다.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 2020년 3월 1,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 →월 50만원 지출 ※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물(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물, 서비스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정부보육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합니다.	천 백 십 일	만원

문B-2. 지난 3개월(2020.3.1.~2020.5.31.) 동안 선생님은 아래의 공적이전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수급여부	
		받았다	받지 않았다
(1) 사회보험 급여	①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①	②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또는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①	②
(2) 기초생활 보장급여	①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①	②
(3) 기타 정부 보조금	① 기초연금	①	②
	②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①	②
	③ 기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농어업 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①	②

문B-3. 지난 3개월(2020.3.1.~2020.5.31.) 동안 선생님의 근로소득과 전체 가구 총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1) '응답자' 근로소득	지난 3개월(2020.3.1.~2020.5.31.)동안 선생님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 임금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는 순소득(총소득-경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가구' 총소득	지난 3개월(2020.3.1.~2020.5.31.)동안 선생님 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총 소득=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현금으로 가계에 유입된 소득만 포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 현물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제외함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B-4. 선생님 댁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과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재산과 부채는 **명의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구분	해당항목	금액 (※ 없음 0)	
(1) 거주 주택가격	2020.5.31.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현시가 기준)은 얼마입니까? ※ 가구원이 아닌 부모님 또는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포함하지 않음 ※ 자가는 주택가격, 전세는 전세금,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기입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2) 금융재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2020.5.31. 기준 금융재산과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부동산 및 재산은 총 얼마입니까? ※ 금융재산(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 **사업목적의 (소유 또는 점유) 부동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소유부동산(거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회원권, 골동품 등)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3) 부채 총액	2020.5.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합니다.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세입자로부터 받은 돈) ※ 외상, 미리 탄 곗돈(미리 탄 곗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 기타부채(밀린 월세,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B-5. 선생님 댁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

문B-6.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비해당
(1)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2)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3)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4)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5)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6)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7) 2019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①	②	
(8) 2019년 1년 동안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C. 응답자 일반사항

문C-1. 선생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태어난 연도	(4) 교육수준	(5) 혼인상태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로 기재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6) 경제활동 참여 상태	(7) 직업	(8) 직업안정성	(9) 고용형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무 등) ※ **실업자**는 2020.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⓪ 비해당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 **문C-1-(6)의 ①~⑥응답자만 응답** ※ **문C-1-(6)의 ⑦~⑧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⓪ 비해당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상용직 임금근로자 (문C-1-(6)의 ①응답자)만 응답** ※ **문C-1-(6)의 ②~⑧ 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⓪ 비해당 ① 전일제(풀타임) ② 시간제(파트타임) ※ **문C-1-(6)의 ①~③응답자 (임금근로자)만 응답** ※ **문1C-1-(6)의 ④~⑧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 **전일제**란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근로 ※ **시간제**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가 해당

문C-2. **(귀하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만)** 선생님 댁의 가구주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가구주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C-3. 【문C-1-(6)에서 ①~⑥ 응답자만】 선생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1주 평균 [ ][ ] 시간

※ 행동한 목적에 따라 시간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를 일 관련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일'로 근로시간에 합산해주시고, 교제의 목적으로 한 경우는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분류해 제외하시면 됩니다.

문C-3-1. 선생님께서 평일 집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왕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중 평일의 1일 평균값을 응답해 주십시오.

■ 1일 평균 [ ][ ] 분

문C-3-2. 선생님께서 지난 1년간 일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매일	1주일에 몇번	한달에 몇번	1년에 몇번	자주 있지 않았음	전혀 없었음
나는 해야할 집안일을 하기 힘들만큼 너무 지쳐서 퇴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일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가족의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나의 가족 책임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C-4. 선생님께서는 정규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현재 일자리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 C-5
②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C-7
③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 C-6

문C-5. 길다고 생각하신다면 소득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C-11

문C-5-1. 그렇다면 전체 근로시간의 몇 %를 줄이고 싶으십니까? (단위: %)

_____% [최소1 ~ 최대99]

문C-5-2. 그렇다면 전체 근로소득의 몇 % 감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단위: %)

_____% [최소1 ~ 최대99] → C-11

문C-6. 짧다고 생각하신다면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더 오래 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C-7

문C-6-1. 그렇다면 전체 근로시간의 몇 %를 늘리고 싶으십니까? (단위: %)

_____% [최소1 ~ 최대100]
[면접원: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100을 입력하세요.]

문C-6-2. 그렇다면 전체 근로소득의 몇 %가 늘어나야 합니까? (단위: %)

_____% [최소1 ~ 최대99]

문C-7. 선생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월 1일
③ 월 2~3일
④ 월 4~5일
⑤ 월 6~7일
⑥ 월 8일 이상

문C-8. 선생님께서는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그만두었을 때, 비슷한 급여나 소득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가능성이 높다.
② 약간 가능성이 높다.
③ 반반이다.
④ 약간 가능성이 낮다.
⑤ 매우 가능성이 낮다.

문C-9. [모든 응답자] 선생님은 지난 5년(2015년~현재) 동안 원치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⑨ 모름

문C-10. 선생님께서는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C-10-1. [문C-10에서 ① 응답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하다 ② 다소 강하다 ③ 별로 강하지 않다 ④ 모르겠다

D. 행복과 심리적 정서

※ 다음 문항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D-1. 선생님께서는 요즘 선생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2. 선생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3. 선생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우울하셨습니까?

전혀 우울하시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4.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있지 않다					보통					매우 가치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5. _선생님께서는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보통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6.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다					보통					매우 건강하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7.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건강하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8.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월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 걱정하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				보통	←→				항상 걱정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9.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안전과 식생활, 주거에 관해 걱정하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				보통	←→				항상 걱정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음 문항은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D-10.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이해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동의 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1.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모든 상황을 개선하려고 행동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동의 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2. 나는 향후의 더 큰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다소 포기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동의 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3. 나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바라는 만큼 만족스럽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동의 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4. _선생님께서는 __선생님 가족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소득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월 [ ][ ][ ][ ][ ][ ] 만원

문D-15.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1) __님의 생활수준(소득과 소비수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__님의 건강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__님께서 삶에서 성취한 것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__님의 가족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__님의 사회적 친분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__님의 안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__님의 미래 안정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__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__님의 지역사회 환경의 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__님께서 하시는 일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6.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3순위까지 제시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생활수준(소득과 소비수준)
② 건강
③ 삶에서 성취하는 것
④ 가족관계
⑤ 사회적 친분관계
⑥ 안전
⑦ 미래 안정성
⑧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⑨ 지역사회 환경의 질
⑩ 하시는 일

문D-17. 선생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중요하다	
(1) 생활수준(소득과 소비수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건강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삶에서 성취하는 것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가족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사회적 친분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안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미래 안정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지역사회 환경의 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하시는 일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8.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D-19.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게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②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③ 돈과 명성을 얻는 것
④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⑥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⑦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⑧ 건강하게 사는 것
⑨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⑩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문D-20. 선생님께서는 _선생님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일자리
② 적은 소득
③ 자녀 육아
④ 자녀 교육
⑤ 가족 간의 불화
⑥ 불안한 노후
⑦ 건강
⑧ 기타(_____)

문D-21.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보통					매우 행복하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22.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요소가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출산율
② 자살률
③ 고용률
④ 범죄율
⑤ 빈부격차 및 빈곤율
⑥ 1인당 국민총생산(GDP)
⑦ 기타(_____)

문D-23. 선생님의 일상적인 삶에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는 편이다	영향이 매우 크다
(1) 일상생활	①	②	③
(2) 소득	①	②	③
(3) 고용과 일자리	①	②	③
(4) 가족 돌봄	①	②	③
(5) 대인관계	①	②	③

문D-24.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이전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닥										꼭대기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25.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선생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 충족도는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합니다.
※ 필요여부와 수혜여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충족도는 응답자께서 느끼시는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여부					수혜여부		충족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육아휴직급여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2) 아동수당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3) 아동돌봄 및 교육지원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4) 아동보육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6) 대학생등록금지원 (장학금, 융자지원 등)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7)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등)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8) 생계, 생업, 자립, 교육, 주택 등을 위한 각종 공공대출, 융자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9)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10) 실업급여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11)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12) 생계비·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등)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13) 국민연금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14) 기초연금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15)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16) 장애인 활동지원	①	②	③	④	⑨	①	②	①	②	③	④

E. 심리적 역량

※ 다음 문항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E-1. _선생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모험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2) 변화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3) 준비성이 있고 철저하다.	①	②	③	④
(4)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규칙을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6) 관심 받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7) 남과의 대화를 즐기고, 대화를 주도한다.	①	②	③	④
(8) 감정의 변화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11) 쉽게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12) 타인을 잘 믿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E-2. 다음의 표현이 선생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비싼 집과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삶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사람들이 성공의 증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물건들을 포함해서 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내가 가진 것들이 내게 중요한 전부는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에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고가의 사치품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나는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내 삶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더 좋은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살 여력이 없을 때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F. 사회 및 계층인식

문F-1.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				보통		→			매우 믿을 수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F-2.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	←		보통		→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정치영역	⓪	①	②	③	④	⑤	⑥
(2) 경제영역	⓪	①	②	③	④	⑤	⑥

문F-3. 선생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5)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F-4.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선생님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F-5. 선생님은 15세 무렵에 비해 현재 계층이 낮아졌다고 또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아졌다	약간 낮아졌다	떨어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았다	약간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F-6.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F-7.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얼마만큼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F-8.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⑨

문F-9.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⑨

문F-10. 선생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①	②	③	④	⑤

CAPI 로직
만 60세 미만(1960년 6월 1일 이후) 응답자 → 문F-11로 이동 후 종료
만 60세 이상(1960년 5월 31일 이전) 응답자 → G. 일상재구성으로 이동

문F-11. 선생님께서는 2020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F-12. 선생님께서는 2020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F-13. 선생님께서는 2020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G. 일상재구성(만 60세 이상 응답자 대상)

문G-1. 선생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셨습니까?

	(1) 완전 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1) 옷 입기(옷 꺼내기, 단추·지퍼, 벨트 채우기)			
(2)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3)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4) 차려 놓은 음식 먹기			
(5)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6)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7) 대소변 조절하기			

문G-2. 선생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셨습니까?

	(1) 완전 자립	(2) 부분 도움	(3) 완전 도움
(1)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2) 집안일(실내 청소, 설거지, 침구 정리, 집안 정리 정돈 등)			
(3)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 차리기)			
(4)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6) 금전 관리(용돈, 통장 관리, 재산 관리)			
(7)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1) 완전 자립	(2) 적은 부분 도움	(3) 많은 부분 도움	(4) 완전 도움
(8)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9) 전화 걸고 받기				
(10)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문G-3. 귀하는 어제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낮잠을 포함해 응답해주십시오.

■ 어제 [ ][ ] 시간 [ ][ ] 분

CAPI 로직
전체 응답자를 3개 집단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오전/오후/저녁 중 응답자 1명당 1개 시간대만 질문
(단, 최종 응답한 3개 집단의 크기는 동일해야 함)

문G-4. 귀하는 어제 (오전/오후/저녁)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요 활동을 한 일화별 시간대별로 응답해주십시오.

오전(~12시)

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있었던 일화부터 떠올려주십시오. 최대 5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메모

일화
1.
2.
3.
4.
5.

첫 번째 일화는 몇 시에 시작되었습니까? 가능한 정확한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일화는 _____시 _____분에 시작되어 _____시 _____분에 종료되었다.

다음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일화를 자세히 떠올려 보기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귀하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누구와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2) 귀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	일터	차 안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3) 귀하는 혼자였습니까?

예, 혼자였습니다	아니오, 누군가와 있었습니다
①	②

(3) 귀하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오	한 사람	두 사람 이상
①	②	③

(4) 귀하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나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면 누구였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분을 표시해주세요.

배우자/연인	자녀	부모	다른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고객, 학생	직장상사	기타 (: _____)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체 목록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되는 모든 활동을 표시해주세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출퇴근/이동하고 있었다	①	②	② 일하고 있었다	①	②
③ 집안일/식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①	②	④ 자녀/부모를 돌보고 있었다	①	②
⑤ 쇼핑/장보고 있었다	①	②	⑥ 먹고 있었다	①	②
⑦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①	②	⑧ 통화하고 있었다	①	②
⑨ 친구/동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①	②	⑩ 배우자/연인/가족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①	②
⑪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①	②	⑫ 수면하고 있었다	①	②
⑬ TV를 보고/음악을 듣고 있었다	①	②	⑭ 컴퓨터/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①	②
⑮ 운동하고 있었다	①	②	⑯ 기타 (: _____)	①	②

(6) 이 일화가 일어난 시간에 귀하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0은 해당 정서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10점은 해당 정서를 매우 강하게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0에서 10 사이 숫자 중 귀하게 경험한 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숫자를 응답해주십시오.

	전혀 못 느꼈다	←				보통				→	매우 강하게 느꼈다
① 행복한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② 피곤한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③ 스트레스 받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④ 슬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⑤ 고통스러운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⑥ 의미 있는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오후 일화에 대해 조사*

오후(12시~6시)

어제 낮 12시부터 6시까지 있었던 일화부터 떠올려주십시오. 최대 5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메모

일화
1.
2.
3.
4.
5.

첫 번째 일화는 몇 시에 시작되었습니까? 가능한 정확한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6) 문항 세트 제시

☞ *저녁 일화에 대해 조사*

저녁(6시~)

어제 6시부터 잘 때까지 있었던 일화부터 떠올려주십시오. 최대 5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메모

일화
1.
2.
3.
4.
5.

첫 번째 일화는 몇 시에 시작되었습니까? 가능한 정확한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6) 문항 세트 제시

문G-5. 선생님께서는 2020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G-6. 선생님께서는 2020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G-7. 선생님께서는 2020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조사대상자 번호

응답자ID		조사원	_____ (인)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안)

■ 본인은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 파악
②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등 설문문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부호화 처리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동의인: _____ (인)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록3.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기초통계표

□ 이하 기초 분석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a)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가 작성함.

〈부표 3-1〉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체		5,050	100.00
성별	남성	2,556	50.61
	여성	2,494	49.39
연령대	20대 이하	916	18.14
	30대	872	17.27
	40대	1,004	19.88
	50대	1,039	20.58
	60대	784	15.52
	70대	435	8.61
지역	수도권	2,558	50.65
	비수도권	2,492	49.35
	대도시	2,178	43.13
	중소도시	2,544	50.38
	농어촌	328	6.5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91	9.72
	중하층	1,949	38.59
	중간층	2,258	44.72
	중상층(상층)	352	6.9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23	26.20
	200만 원대	2,120	41.98
	300만 원대	1,066	21.12
	400만 원대	381	7.55
	500만 원 이상	160	3.16
학력	중졸 이하	568	11.25
	고졸	2,089	41.37
	대졸 이상	2,393	47.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93	41.4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23	12.34
	고용주·자영자	950	18.82
	무급가족종사자	37	0.73
	실업자	133	2.63
	비경제활동인구	1,214	24.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18	73.41
	비정규직	985	26.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60	26.93
	중도적	2,185	43.27
	진보적	1,505	29.80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직업안정성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표에는 가중평균된 빈도를 제시함.

〈부표 3-2〉 캔트릴 사다리: 삶의 평가

(단위: %)

구분		바닥 0	1	2	3	4	5	6	7	8	9	꼭대기 10	χ^2
전체		0.02	0.09	0.67	1.55	4.06	12.35	17.50	30.99	28.48	4.00	0.28	
성별	남성	0.01	0.10	0.74	1.70	4.05	12.32	18.36	30.50	28.54	3.45	0.24	9.414
	여성	0.03	0.07	0.61	1.40	4.08	12.38	16.62	31.51	28.42	4.56	0.32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70	1.54	2.60	12.82	15.71	30.53	29.66	6.16	0.27	231.121***
	30대	0.00	0.03	0.07	0.72	2.09	10.06	14.45	32.20	34.68	5.43	0.27	
	40대	0.00	0.00	0.21	1.06	3.72	10.69	20.09	29.72	29.84	4.50	0.16	
	50대	0.09	0.14	0.49	1.83	4.15	10.65	16.28	34.29	29.25	2.45	0.39	
	60대	0.00	0.18	2.09	1.80	5.24	14.73	19.29	30.20	23.02	3.11	0.34	
	70대	0.00	0.30	0.78	3.28	9.59	19.59	21.07	26.06	18.46	0.66	0.21	
지역	수도권	0.00	0.05	0.52	1.57	4.41	12.21	19.36	31.54	26.48	3.86	0.00	38.653***
	비수도권	0.04	0.13	0.83	1.53	3.71	12.50	15.59	30.44	30.54	4.13	0.57	
	대도시	0.00	0.12	0.87	1.69	4.23	12.43	18.65	32.13	25.75	3.65	0.48	45.571**
	중소도시	0.04	0.02	0.49	1.42	3.91	11.73	17.26	29.77	30.78	4.49	0.10	
	농어촌	0.00	0.39	0.76	1.68	4.14	16.67	11.77	33.01	28.78	2.42	0.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6	0.76	3.30	5.48	11.14	20.06	22.28	22.91	13.07	0.42	0.52	559.482***
	중하층	0.01	0.03	0.67	1.85	5.06	14.64	20.55	29.52	25.33	2.31	0.02	
	중간층	0.02	0.00	0.15	0.57	2.00	9.92	15.39	33.62	33.08	4.80	0.43	
	중상층(상층)	0.00	0.00	0.33	0.76	1.91	4.57	7.45	33.56	37.88	13.14	0.4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26	1.67	3.16	8.24	16.33	19.74	27.17	20.64	2.36	0.41	303.461***
	200만 원대	0.03	0.03	0.38	1.33	2.84	12.61	18.07	30.61	29.80	4.08	0.21	
	300만 원대	0.00	0.00	0.29	0.53	2.87	9.79	16.78	34.51	30.64	4.27	0.31	
	400만 원대	0.06	0.06	0.17	0.73	0.63	7.18	10.83	38.44	35.75	5.95	0.20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00	1.84	5.44	12.09	26.43	44.18	9.88	0.13	
학력	중졸 이하	0.00	0.69	3.00	4.33	9.50	20.45	20.97	23.53	16.38	0.75	0.39	318.822***
	고졸	0.03	0.01	0.67	1.49	4.34	12.65	18.44	31.90	27.16	3.02	0.29	
	대졸 이상	0.01	0.01	0.13	0.96	2.53	10.17	15.85	31.97	32.51	5.61	0.2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1	0.01	0.08	0.97	2.12	10.37	15.41	32.01	33.90	4.92	0.19	293.944***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1.70	2.95	7.38	14.91	24.28	25.12	20.94	2.58	0.15	
	고용주/자영자	0.07	0.07	0.77	1.56	4.34	11.15	19.87	31.76	27.03	2.93	0.45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3.18	14.16	4.32	47.14	29.35	0.96	0.89	
	실업자	0.00	1.24	3.35	4.32	10.31	26.74	23.24	20.21	9.59	1.00	0.00	
	비경제활동인구	0.00	0.15	0.81	1.58	4.84	13.77	15.53	32.35	26.20	4.38	0.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3	0.03	0.25	1.05	2.82	10.03	15.90	32.66	32.61	4.33	0.29	122.487***
	비정규직	0.00	0.00	1.30	2.54	5.71	15.09	23.58	26.18	22.44	2.99	0.1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4	0.06	1.40	1.67	5.44	15.63	17.56	30.93	24.41	2.54	0.33	111.023***
	중도적	0.00	0.04	0.53	1.64	3.04	11.16	18.63	33.33	28.14	3.22	0.25	
	진보적	0.03	0.17	0.22	1.32	4.30	11.12	15.80	27.65	32.66	6.45	0.27	

주 1) "(조사표 질문)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 평균 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평균:만원]	F
전체		248.47	
성별	남성	249.16	3.580
	여성	247.77	
연령대	20대 이하	268.84	197.079***
	30대	239.96	
	40대	284.19	
	50대	290.46	
	60대	189.76	
	70대	145.68	
지역	수도권	266.99	.013
	비수도권	229.47	
	대도시	265.94	54.839***
	중소도시	238.54	
	농어촌	209.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1.72	164.402***
	중하층	236.23	
	중간층	270.19	
	중상층(상층)	297.9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64.68	396.314***
	200만 원대	254.98	
	300만 원대	294.90	
	400만 원대	332.77	
	500만 원 이상	345.15	
학력	중졸 이하	136.12	428.005***
	고졸	242.80	
	대졸 이상	280.0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5.81	32.804***
	임시/일용직 근로자	210.03	
	고용주/자영자	257.18	
	무급가족종사자	209.09	
	실업자	203.40	
	비경제활동인구	237.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5.21	.074
	비정규직	221.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5.81	42.053***
	중도적	251.85	
	진보적	264.05	

주 1) "(조사표 질문) 지난 3개월(2020.3.1.~2020.5.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만원]	F
전체		205.70	
성별	남성	271.93	10.889**
	여성	137.83	
연령대	20대 이하	164.29	141.674***
	30대	236.63	
	40대	254.08	
	50대	256.08	
	60대	163.67	
	70대	74.66	
지역	수도권	217.93	26.955***
	비수도권	193.16	
	대도시	213.54	6.390**
	중소도시	201.86	
	농어촌	183.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0.25	57.125***
	중하층	195.29	
	중간층	225.66	
	중상층(상층)	240.5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8.00	301.485***
	200만 원대	209.84	
	300만 원대	251.81	
	400만 원대	308.18	
	500만 원 이상	407.77	
학력	중졸 이하	83.53	387.788***
	고졸	175.90	
	대졸 이상	260.7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7.68	1034.667***
	임시/일용직 근로자	170.73	
	고용주/자영자	304.04	
	무급가족종사자	58.08	
	실업자	33.99	
	비경제활동인구	28.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7.92	13.987***
	비정규직	192.6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5.04	15.534***
	중도적	211.80	
	진보적	215.53	

주 1) "(조사표 질문) 지난 3개월(2020.3.1.~2020.5.31.)동안 ___님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 지난 3개월(2020.3.1.~2020.5.31.)기준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만원]	F
전체		430.65	
성별	남성	438.70	.072
	여성	422.41	
연령대	20대 이하	498.53	206.016***
	30대	429.87	
	40대	458.66	
	50대	518.44	
	60대	322.27	
	70대	210.09	
지역	수도권	480.03	42.297***
	비수도권	379.98	
	대도시	453.55	36.734***
	중소도시	421.93	
	농어촌	346.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3.24	323.080***
	중하층	379.05	
	중간층	487.88	
	중상층(상층)	610.5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11.49	3144.296***
	200만 원대	403.34	
	300만 원대	554.26	
	400만 원대	722.93	
	500만 원 이상	1086.16	
학력	중졸 이하	201.80	543.327***
	고졸	404.71	
	대졸 이상	507.6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90.92	83.571***
	임시/일용직 근로자	349.12	
	고용주/자영자	451.16	
	무급가족종사자	317.24	
	실업자	287.05	
	비경제활동인구	371.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86.44	9.879**
	비정규직	368.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9.25	60.807***
	중도적	435.27	
	진보적	470.41	

주 1) "(조사표 질문) 지난 3개월(2020.3.1.~2020.5.31.)동안 ___님 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 거주 주택가격(2020.5.31. 기준)

(단위: 만원)

구분		[평균:만원]	F
전체		27083.19	
성별	남성	27001.19	.033
	여성	27167.04	
연령대	20대 이하	29135.99	12.733***
	30대	21290.88	
	40대	25611.94	
	50대	31163.69	
	60대	27859.92	
	70대	26528.91	
지역	수도권	37952.07	690.327***
	비수도권	15741.35	
	대도시	34836.55	178.110***
	중소도시	22652.48	
	농어촌	9514.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941.81	179.009***
	중하층	21517.64	
	중간층	31744.43	
	중상층(상층)	49506.3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655.21	272.324***
	200만 원대	23327.37	
	300만 원대	32915.63	
	400만 원대	54740.10	
	500만 원 이상	64764.97	
학력	중졸 이하	15574.89	123.271***
	고졸	23087.11	
	대졸 이상	33254.9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686.85	22.628***
	임시/일용직 근로자	17182.43	
	고용주/자영자	30497.32	
	무급가족종사자	17734.88	
	실업자	23011.73	
	비경제활동인구	30795.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210.55	46.707***
	비정규직	19840.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540.33	6.464**
	중도적	25408.99	
	진보적	28204.28	

주 1) "(조사표 질문) 2020.5.31. 기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격(현시가 기준)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 부채 총액(2020.5.31. 기준)

(단위: 만원)

구분		[평균:만원]	F
전체		3068.20	
성별	남성	3004.23	3.737
	여성	3133.76	
연령대	20대 이하	2832.98	23.161***
	30대	3666.60	
	40대	3853.18	
	50대	3723.48	
	60대	2021.68	
	70대	872.15	
지역	수도권	3954.79	162.019***
	비수도권	2158.20	
	대도시	3479.89	8.698***
	중소도시	2787.38	
	농어촌	2512.9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1.47	35.997***
	중하층	2674.72	
	중간층	3617.15	
	중상층(상층)	4676.5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82.34	69.800***
	200만 원대	2926.39	
	300만 원대	3634.84	
	400만 원대	5719.24	
	500만 원 이상	7980.31	
학력	중졸 이하	712.82	98.098***
	고졸	2386.53	
	대졸 이상	4222.2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68.34	7.876***
	임시/일용직 근로자	2225.91	
	고용주/자영자	3954.56	
	무급가족종사자	2096.05	
	실업자	1924.13	
	비경제활동인구	2788.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408.43	17.519***
	비정규직	2627.6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79.86	5.327**
	중도적	3055.10	
	진보적	3438.19	

주 1) "(조사표 질문) 2020.5.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반전세 포함)	월세 (사글세)	기타	χ^2
전체		67.56	23.44	5.85	2.21	0.95	
성별	남성	67.77	22.48	6.25	2.62	0.88	7.499
	여성	67.34	24.42	5.44	1.79	1.01	
연령대	20대 이하	65.25	22.38	8.14	2.99	1.24	770.061***
	30대	33.35	54.89	8.03	2.69	1.03	
	40대	67.72	24.32	5.16	1.82	0.97	
	50대	83.25	11.23	3.42	1.74	0.36	
	60대	82.17	10.00	5.05	1.78	1.00	
	70대	76.77	13.95	5.49	2.39	1.40	
지역	수도권	62.32	31.45	4.13	2.00	0.09	231.064***
	비수도권	72.93	15.21	7.61	2.42	1.82	
	대도시	65.49	26.85	5.13	1.63	0.90	72.032***
	중소도시	67.70	22.26	6.50	2.79	0.75	
	농어촌	80.17	9.89	5.61	1.53	2.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55	27.75	16.47	9.13	3.10	449.664***
	중하층	60.88	28.32	7.27	2.55	0.97	
	중간층	76.28	19.67	2.90	0.58	0.57	
	중상층(상층)	82.06	14.55	2.07	1.11	0.2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2.37	21.31	9.58	4.56	2.18	160.815***
	200만 원대	67.84	23.61	5.91	1.97	0.66	
	300만 원대	69.64	26.08	3.38	0.56	0.34	
	400만 원대	74.98	23.12	1.25	0.65	0.00	
	500만 원 이상	75.15	21.85	1.62	0.56	0.81	
학력	중졸 이하	68.79	14.48	9.21	5.07	2.45	159.849***
	고졸	73.45	18.45	5.11	2.11	0.88	
	대졸 이상	62.12	29.92	5.70	1.62	0.6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9.17	31.37	6.64	2.43	0.39	343.390***
	임시/일용직 근로자	58.73	22.59	11.99	4.35	2.34	
	고용주/자영자	83.70	12.23	2.75	0.56	0.78	
	무급가족종사자	85.94	2.13	7.77	0.00	4.16	
	실업자	62.19	21.14	6.60	7.82	2.24	
	비경제활동인구	73.94	19.87	3.63	1.47	1.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6.72	25.58	5.75	1.49	0.46	59.658***
	비정규직	62.71	22.22	8.77	4.36	1.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74.18	17.64	4.82	2.59	0.77	53.940***
	중도적	65.97	24.29	6.12	2.53	1.09	
	진보적	63.87	27.44	6.39	1.40	0.9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댁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χ^2
전체		52.77	8.81	2.30	1.12	22.05	0.37	1.54	11.04	
성별	남성	51.47	7.74	2.29	0.60	28.27	0.19	0.51	8.92	15.838*
	여성	53.05	9.03	2.30	1.23	20.73	0.41	1.76	11.49	
연령대	20대 이하	57.42	8.01	1.05	0.38	23.06	0.10	0.45	9.54	546.078***
	30대	74.81	6.71	0.72	0.15	10.17	0.42	0.19	6.84	
	40대	63.97	8.12	0.40	1.90	17.22	0.29	1.01	7.09	
	50대	47.33	10.47	2.16	2.59	27.07	0.00	2.65	7.74	
	60대	19.02	14.68	8.11	0.89	34.96	2.13	2.06	18.16	
	70대	2.10	5.16	10.51	1.07	27.17	0.00	9.17	44.83	
지역	수도권	52.35	8.88	2.22	1.08	22.59	0.19	1.61	11.08	3.245
	비수도권	53.25	8.72	2.39	1.17	21.43	0.58	1.47	10.99	
	대도시	54.35	6.92	1.49	0.29	23.60	0.08	1.47	11.80	48.399***
	중소도시	52.29	10.55	3.12	1.67	19.48	0.46	1.80	10.61	
	농어촌	45.78	8.15	1.48	2.45	31.23	1.68	0.00	9.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40	15.53	10.84	0.00	16.98	0.96	6.87	18.43	168.378***
	중하층	50.72	12.91	3.11	0.64	18.16	0.36	1.61	12.50	
	중간층	56.18	6.27	1.06	1.45	24.72	0.38	0.69	9.25	
	중상층(상층)	56.70	1.10	0.33	2.04	27.02	0.00	2.66	10.1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15	13.27	6.94	1.35	19.38	1.01	5.52	20.38	269.738***
	200만 원대	55.23	9.81	1.98	1.29	21.02	0.29	0.98	9.42	
	300만 원대	58.98	6.39	0.15	1.17	25.01	0.18	0.00	8.12	
	400만 원대	67.18	2.79	0.00	0.07	26.06	0.00	0.00	3.91	
	500만 원 이상	62.16	2.01	0.00	0.00	18.68	0.00	0.00	17.14	
학력	중졸 이하	6.19	10.40	15.42	0.00	28.76	1.45	4.52	33.26	449.203***
	고졸	45.64	12.21	1.90	1.26	25.20	0.35	2.16	11.28	
	대졸 이상	66.97	5.47	0.48	1.18	18.08	0.21	0.48	7.1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1.12	3.75	0.12	0.05	12.55	0.18	0.49	1.73	1332.048***
	임시/일용직 근로자	33.69	40.25	6.54	0.26	13.51	0.00	4.45	1.30	
	고용주/자영자	24.20	3.19	0.47	4.12	61.94	1.96	1.27	2.85	
	무급가족종사자	12.02	2.58	0.00	11.64	62.47	11.30	0.00	0.00	
	실업자	41.50	11.00	6.55	0.00	30.12	0.00	8.73	2.11	
	비경제활동인구	41.58	3.54	3.00	1.50	23.53	0.00	1.13	25.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3.62	2.84	0.25	0.76	19.85	0.41	0.89	1.37	317.958***
	비정규직	33.69	31.51	4.59	1.23	22.55	1.09	2.80	2.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34.31	9.52	4.31	2.83	26.31	0.26	3.21	19.24	136.066***
	중도적	56.26	7.94	2.48	0.82	21.25	0.59	1.13	9.53	
	진보적	59.96	9.46	0.80	0.43	20.37	0.16	1.02	7.8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댁의 가구주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 [경제활동 참여자]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시간)

구분		[평균:시간]	F
전체		43.15	
성별	남성	44.39	2.926
	여성	41.34	
연령대	20대 이하	41.39	15.965***
	30대	42.80	
	40대	43.81	
	50대	44.50	
	60대	44.04	
	70대	37.47	
지역	수도권	43.85	72.822***
	비수도권	42.45	
	대도시	43.58	3.386*
	중소도시	42.68	
	농어촌	43.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42	13.940***
	중하층	43.19	
	중간층	43.77	
	중상층(상층)	43.2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9.90	21.336***
	200만 원대	43.61	
	300만 원대	44.36	
	400만 원대	44.60	
	500만 원 이상	42.97	
학력	중졸 이하	38.80	22.209***
	고졸	43.80	
	대졸 이상	43.1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58	194.025***
	임시/일용직 근로자	36.46	
	고용주/자영자	48.80	
	무급가족종사자	42.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57	348.712***
	비정규직	39.21	
이념적 성향	보수적	43.40	.328
	중도적	43.06	
	진보적	43.08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1〉 [경제활동 참여자] 평일 기준 출퇴근 시간(왕복)

(단위: 분)

구분		[평균:시간]	F
전체		42.23	
성별	남성	43.93	6.650*
	여성	39.75	
연령대	20대 이하	50.36	31.988***
	30대	45.19	
	40대	41.81	
	50대	40.65	
	60대	35.62	
	70대	27.91	
지역	수도권	50.76	154.689***
	비수도권	33.76	
	대도시	46.67	66.839***
	중소도시	40.26	
	농어촌	28.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49	5.341**
	중하층	41.51	
	중간층	43.53	
	중상층(상층)	43.3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6.61	38.351***
	200만 원대	39.46	
	300만 원대	47.38	
	400만 원대	48.68	
	500만 원 이상	56.62	
학력	중졸 이하	26.82	99.326***
	고졸	38.16	
	대졸 이상	47.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8.28	107.045***
	임시/일용직 근로자	38.80	
	고용주/자영자	31.87	
	무급가족종사자	23.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27	2.052*
	비정규직	36.5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44	30.025***
	중도적	42.01	
	진보적	46.25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 평일 집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왕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중 평일의 1일 평균값을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 [경제활동 참여자] 지난 1년간 일에 대한 경험 : 1) 나는 해야할 집안일을 하기 힘들만큼 너무 지쳐서 퇴근한다.

(단위: %)

구분		매일	1주일에 몇번	한달에 몇번	1년에 몇번	자주 있지 않았음	전혀 없었음	χ^2
전체		0.85	9.79	23.71	20.54	21.98	23.12	
성별	남성	0.78	8.42	21.73	21.42	23.01	24.63	29.661***
	여성	0.95	11.79	26.59	19.26	20.49	20.91	
연령대	20대 이하	0.26	10.97	23.44	17.93	19.97	27.42	59.575***
	30대	0.22	8.79	26.52	18.89	22.40	23.19	
	40대	0.80	10.51	23.81	20.04	23.19	21.65	
	50대	1.62	10.92	23.72	23.89	20.51	19.33	
	60대	0.89	8.38	21.03	22.32	24.10	23.27	
	70대	2.07	3.89	20.03	16.77	22.93	34.31	
지역	수도권	0.85	12.98	27.90	22.91	18.82	16.53	161.323***
	비수도권	0.85	6.63	19.54	18.19	25.12	29.66	
	대도시	0.96	11.57	25.97	20.37	23.20	17.93	67.493***
	중소도시	0.77	9.04	21.96	21.38	20.87	25.98	
	농어촌	0.78	4.18	22.11	15.72	22.33	34.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5	13.21	24.10	20.31	22.40	19.43	38.028**
	중하층	0.89	10.86	24.92	20.28	20.23	22.81	
	중간층	0.64	8.19	22.08	20.24	24.22	24.63	
	중상층(상층)	2.38	10.29	27.19	24.38	16.63	19.1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6	9.07	22.91	22.08	25.65	18.93	45.155**
	200만 원대	0.77	10.19	23.37	20.55	19.71	25.42	
	300만 원대	0.52	11.00	22.23	19.55	23.87	22.83	
	400만 원대	1.24	9.27	27.81	18.39	21.15	22.14	
	500만 원 이상	0.48	1.72	32.31	24.37	20.19	20.93	
학력	중졸 이하	2.34	8.09	18.14	18.69	24.08	28.66	27.980**
	고졸	0.84	11.10	23.96	21.25	22.58	20.27	
	대졸 이상	0.68	9.05	24.19	20.25	21.30	24.5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4	7.71	23.82	20.87	22.31	24.95	82.640***
	임시/일용직 근로자	1.90	16.43	22.91	17.06	19.57	22.13	
	고용주/자영자	1.22	10.23	23.27	22.64	22.65	19.99	
	무급가족종사자	2.76	4.67	42.37	6.75	27.21	16.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7	8.16	23.60	21.77	22.54	23.36	47.170***
	비정규직	1.64	14.29	24.01	17.15	20.45	22.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8	10.57	23.43	19.32	21.62	23.78	23.697**
	중도적	0.83	10.13	21.06	20.79	23.27	23.92	
	진보적	0.55	8.72	27.64	21.15	20.47	21.48	

주 1) "(조사표 질문) 나는 해야할 집안일을 하기 힘들만큼 너무 지쳐서 퇴근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 [경제활동 참여자] 지난 1년간 일에 대한 경험 : 2) 나는 일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가족의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웠다.

(단위: %)

구분		매일	1주일에 몇번	한달에 몇번	1년에 몇번	자주 있지 않았음	전혀 없었음	χ^2
전체		0.53	6.12	17.52	20.40	23.80	31.63	
성별	남성	0.56	5.05	15.87	21.09	24.86	32.57	23.899***
	여성	0.49	7.68	19.93	19.39	22.24	30.26	
연령대	20대 이하	0.25	2.74	18.54	14.95	24.68	38.83	99.886***
	30대	0.31	5.65	16.40	19.76	23.47	34.40	
	40대	0.74	7.28	18.95	22.91	22.59	27.53	
	50대	0.96	8.48	18.54	24.05	22.05	25.92	
	60대	0.23	5.42	13.23	19.65	29.32	32.14	
	70대	0.27	4.83	19.45	13.71	19.37	42.37	
지역	수도권	0.44	7.49	21.81	22.42	23.23	24.61	115.362***
	비수도권	0.63	4.76	13.27	18.38	24.35	38.60	
	대도시	0.71	6.83	17.98	21.52	24.82	28.14	28.191**
	중소도시	0.46	5.79	17.39	20.16	22.93	33.27	
	농어촌	0.00	4.08	15.68	15.13	23.58	41.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7	7.89	16.61	18.35	25.08	31.61	48.521***
	중하층	0.45	6.97	18.06	22.00	21.23	31.30	
	중간층	0.60	5.37	16.04	18.43	26.66	32.91	
	중상층(상층)	0.67	4.17	25.53	26.85	17.89	24.8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47	6.72	17.81	20.79	25.84	28.36	52.943***
	200만 원대	0.46	6.93	16.11	21.02	22.35	33.14	
	300만 원대	0.00	5.70	18.55	18.49	24.38	32.89	
	400만 원대	2.13	4.16	18.71	22.65	23.00	29.35	
	500만 원 이상	1.49	0.43	24.03	17.84	29.14	27.07	
학력	중졸 이하	0.66	6.85	14.54	15.48	24.70	37.77	15.478
	고졸	0.46	6.87	17.66	20.70	25.06	29.25	
	대졸 이상	0.57	5.49	17.78	20.76	22.78	32.6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4	5.13	16.00	21.14	23.67	33.91	60.629***
	임시/일용직 근로자	0.94	8.78	21.50	16.57	21.05	31.15	
	고용주/자영자	1.04	6.20	18.36	21.36	25.83	27.22	
	무급가족종사자	2.91	15.36	15.04	18.01	25.15	23.5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7	5.29	16.34	21.55	24.31	32.05	28.862***
	비정규직	0.72	8.41	20.79	17.23	22.39	30.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5	7.41	15.93	20.14	23.99	31.88	9.307
	중도적	0.64	5.24	17.81	20.32	24.69	31.31	
	진보적	0.30	6.36	18.36	20.71	22.40	31.88	

주 1) "(조사표 질문) 나는 일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가족의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웠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 [경제활동 참여자] 지난 1년간 일에 대한 경험 : 3) 나는 나의 가족 책임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단위: %)

구분		매일	1주일에 몇번	한달에 몇번	1년에 몇번	자주 있지 않았음	전혀 없었음	χ^2
전체		0.24	4.27	13.98	20.25	25.29	35.96	
성별	남성	0.27	3.52	12.08	19.97	26.53	37.64	29.520***
	여성	0.21	5.37	16.76	20.65	23.50	33.51	
연령대	20대 이하	0.00	4.14	14.02	15.56	22.05	44.23	85.647***
	30대	0.22	3.73	12.48	22.22	24.51	36.84	
	40대	0.60	4.90	15.09	21.59	25.95	31.87	
	50대	0.10	4.04	17.92	20.72	26.54	30.68	
	60대	0.23	4.90	8.31	22.61	28.00	35.95	
	70대	0.27	3.02	11.55	12.17	22.47	50.52	
지역	수도권	0.00	4.38	18.10	23.13	24.65	29.73	108.807***
	비수도권	0.49	4.16	9.89	17.38	25.93	42.15	
	대도시	0.23	5.32	15.26	20.94	25.70	32.55	30.904**
	중소도시	0.25	3.71	13.21	20.47	24.79	37.58	
	농어촌	0.27	1.81	11.62	14.40	26.37	45.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9	7.54	14.71	15.71	28.22	33.14	49.306***
	중하층	0.32	4.27	14.20	20.80	24.75	35.66	
	중간층	0.14	3.52	12.57	19.62	26.09	38.05	
	중상층(상층)	0.00	5.38	21.38	26.70	19.56	26.9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58	5.06	12.92	22.81	26.37	32.27	33.765*
	200만 원대	0.12	4.57	13.48	20.53	24.11	37.19	
	300만 원대	0.00	3.58	14.99	16.97	26.79	37.67	
	400만 원대	0.73	3.98	13.71	21.83	25.33	34.43	
	500만 원 이상	0.48	1.72	19.87	21.25	24.31	32.36	
학력	중졸 이하	0.66	7.52	9.37	15.86	24.58	42.00	26.859**
	고졸	0.16	4.74	13.23	20.74	26.62	34.52	
	대졸 이상	0.26	3.55	15.08	20.41	24.42	36.2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8	3.36	13.16	20.82	23.88	38.61	41.069***
	임시/일용직 근로자	0.36	6.72	15.60	17.32	25.13	34.87	
	고용주/자영자	0.33	4.44	14.60	20.81	28.62	31.20	
	무급가족종사자	0.00	10.32	17.84	23.16	22.36	26.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2	3.41	13.58	21.18	24.87	36.74	25.426***
	비정규직	0.32	6.65	15.10	17.68	26.45	33.8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6	5.02	13.85	20.17	24.80	35.90	4.839
	중도적	0.37	3.91	13.63	20.39	25.96	35.73	
	진보적	0.05	4.19	14.57	20.11	24.75	36.32	

주 1) "(조사표 질문) 나는 나의 가족 책임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5〉 [경제활동 참여자] 정규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현재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χ^2
전체		14.02	83.09	2.89	
성별	남성	13.60	83.72	2.68	1.657
	여성	14.63	82.17	3.20	
연령대	20대 이하	11.16	85.77	3.07	77.525***
	30대	13.19	84.84	1.97	
	40대	14.61	83.74	1.65	
	50대	14.38	82.91	2.71	
	60대	17.52	79.32	3.16	
	70대	12.55	73.71	13.74	
지역	수도권	18.75	78.80	2.45	69.605***
	비수도권	9.32	87.35	3.34	
	대도시	15.07	82.17	2.75	5.563
	중소도시	13.66	83.38	2.96	
	농어촌	10.04	86.68	3.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04	71.59	8.37	80.791***
	중하층	16.68	80.06	3.26	
	중간층	11.58	86.63	1.78	
	중상층(상층)	7.64	90.71	1.6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93	78.65	6.42	50.198***
	200만 원대	13.81	83.35	2.85	
	300만 원대	13.45	85.63	0.92	
	400만 원대	14.84	84.15	1.01	
	500만 원 이상	13.66	83.79	2.56	
학력	중졸 이하	14.97	73.93	11.10	89.591***
	고졸	16.71	79.79	3.50	
	대졸 이상	11.96	86.56	1.4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75	90.35	0.90	353.190***
	임시/일용직 근로자	13.85	74.93	11.22	
	고용주/자영자	25.91	72.19	1.90	
	무급가족종사자	9.39	89.60	1.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23	86.51	1.26	132.861***
	비정규직	18.95	73.63	7.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40	79.41	3.18	16.692**
	중도적	11.96	84.88	3.16	
	진보적	14.29	83.43	2.2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정규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현재 일자리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6〉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응답자] 소득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지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χ^2
전체		30.34	69.66	
성별	남성	28.39	71.61	1.273
	여성	32.98	67.02	
연령대	20대 이하	33.75	66.25	15.388**
	30대	30.14	69.86	
	40대	21.27	78.73	
	50대	28.28	71.72	
	60대	36.60	63.40	
	70대	61.74	38.26	
지역	수도권	33.86	66.14	6.251*
	비수도권	23.29	76.71	
	대도시	31.96	68.04	6.633*
	중소도시	31.09	68.91	
	농어촌	8.18	91.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87	77.13	5.635
	중하층	28.42	71.58	
	중간층	33.56	66.44	
	중상층(상층)	45.52	54.4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5.31	74.69	10.533*
	200만 원대	28.41	71.59	
	300만 원대	34.01	65.99	
	400만 원대	29.38	70.62	
	500만 원 이상	62.77	37.23	
학력	중졸 이하	21.68	78.32	2.577
	고졸	28.49	71.51	
	대졸 이상	33.50	66.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58	70.42	2.576
	임시/일용직 근로자	24.18	75.82	
	고용주/자영자	33.22	66.78	
	무급가족종사자	19.03	80.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28	66.72	3.806
	비정규직	25.10	74.9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82	66.18	1.794
	중도적	27.27	72.73	
	진보적	30.66	69.34	

주 1) "(조사표 질문) 길다고 생각하신다면 소득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7〉 [근로시간 감소 응답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감소 비율

(단위: %)

구분		[평균:%]	F
전체		18.82	
성별	남성	18.10	.784
	여성	19.65	
연령대	20대 이하	18.82	.384
	30대	19.41	
	40대	18.22	
	50대	17.73	
	60대	18.71	
	70대	22.36	
지역	수도권	19.21	.641
	비수도권	17.67	
	대도시	17.71	.949
	중소도시	19.84	
	농어촌	22.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86	1.196
	중하층	19.55	
	중간층	19.06	
	중상층(상층)	12.7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33	.839
	200만 원대	20.37	
	300만 원대	17.32	
	400만 원대	19.21	
	500만 원 이상	15.89	
학력	중졸 이하	19.77	1.792*
	고졸	17.09	
	대졸 이상	20.2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31	7.112***
	임시/일용직 근로자	27.52	
	고용주/자영자	16.84	
	무급가족종사자	3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23	4.145*
	비정규직	22.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95	.286
	중도적	19.20	
	진보적	19.32	

주 1) "(조사표 질문) 그렇다면 전체 근로시간의 몇 %를 줄이고 싶으십니까? (단위: %)"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8〉 [근로시간 감소 응답자] 전체 근로소득 대비 감소 비율

(단위: %)

구분		[평균:%]	F
전체		13.77	
성별	남성	12.98	.034
	여성	14.71	
연령대	20대 이하	12.24	.806
	30대	14.69	
	40대	12.29	
	50대	13.77	
	60대	13.70	
	70대	18.32	
지역	수도권	14.26	5.441*
	비수도권	12.37	
	대도시	13.16	.341
	중소도시	14.33	
	농어촌	15.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83	.786
	중하층	13.15	
	중간층	15.03	
	중상층(상층)	10.8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20	2.048*
	200만 원대	16.06	
	300만 원대	11.29	
	400만 원대	11.18	
	500만 원 이상	11.79	
학력	중졸 이하	11.49	.247
	고졸	13.73	
	대졸 이상	14.0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97	.770
	임시/일용직 근로자	16.47	
	고용주/자영자	12.99	
	무급가족종사자	1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48	1.579*
	비정규직	14.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28	1.548*
	중도적	15.07	
	진보적	11.90	

주 1) "(조사표 질문) 그렇다면 전체 근로소득의 몇 % 감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단위: %)"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 [근로시간이 너무 짧다 응답자] 소득이 늘어날 경우,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은지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χ^2
전체		68.04	31.96	
성별	남성	66.77	33.23	0.132
	여성	69.57	30.43	
연령대	20대 이하	68.48	31.52	5.574
	30대	67.19	32.81	
	40대	65.95	34.05	
	50대	86.84	13.16	
	60대	54.47	45.53	
	70대	58.84	41.16	
지역	수도권	51.16	48.84	10.491**
	비수도권	80.33	19.67	
	대도시	79.52	20.48	5.058
	중소도시	61.40	38.60	
	농어촌	50.88	49.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9.39	20.61	8.911*
	중하층	73.99	26.01	
	중간층	53.91	46.09	
	중상층(상층)	32.94	67.0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8.73	31.27	5.870
	200만 원대	72.19	27.81	
	300만 원대	36.81	63.19	
	400만 원대	100.00	0.00	
	500만 원 이상	45.36	54.64	
학력	중졸 이하	55.00	45.00	4.801
	고졸	77.51	22.49	
	대졸 이상	63.38	36.6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1.04	28.96	1.555
	임시/일용직 근로자	70.47	29.53	
	고용주/자영자	54.81	45.19	
	무급가족종사자	100.00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2.47	47.53	5.369*
	비정규직	75.32	24.68	
이념적 성향	보수적	74.58	25.42	1.934
	중도적	69.85	30.15	
	진보적	57.48	42.52	

주 1) "(조사표 질문) 짧다고 생각하신다면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더 오래 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0〉 [근로시간 증가 응답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증가 비율

(단위: %)

구분		[평균:%]	F
전체		35.41	
성별	남성	34.34	2.665
	여성	36.65	
연령대	20대 이하	46.25	1.404
	30대	29.31	
	40대	27.39	
	50대	34.10	
	60대	33.55	
	70대	37.87	
지역	수도권	37.85	.008
	비수도권	34.27	
	대도시	36.79	.842
	중소도시	35.46	
	농어촌	23.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25	1.369
	중하층	36.29	
	중간층	28.88	
	중상층(상층)	18.8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9.45	1.704
	200만 원대	35.27	
	300만 원대	24.53	
	400만 원대	15.37	
	500만 원 이상	20.00	
학력	중졸 이하	40.54	.831*
	고졸	32.96	
	대졸 이상	36.5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76	3.580*
	임시/일용직 근로자	39.88	
	고용주/자영자	30.96	
	무급가족종사자	5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39	4.027*
	비정규직	38.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8.12	1.856*
	중도적	37.39	
	진보적	26.93	

주 1) "(조사표 질문) 그렇다면 전체 근로시간의 몇 %를 늘리고 싶으십니까? (단위: %)"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1〉 [근로시간 증가 응답자] 전체 근로소득 대비 증가 비율

(단위: %)

구분		[평균:%]	F
전체		36.11	
성별	남성	37.19	.257
	여성	34.85	
연령대	20대 이하	43.37	1.064
	30대	32.55	
	40대	28.68	
	50대	37.69	
	60대	29.91	
	70대	38.45	
지역	수도권	41.33	1.588*
	비수도권	33.69	
	대도시	37.77	.723
	중소도시	35.59	
	농어촌	26.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8.66	1.190
	중하층	37.97	
	중간층	30.38	
	중상층(상층)	18.8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8.25	2.110*
	200만 원대	35.27	
	300만 원대	52.89	
	400만 원대	16.44	
	500만 원 이상	20.00	
학력	중졸 이하	36.28	.008
	고졸	35.87	
	대졸 이상	36.4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45	5.978**
	임시/일용직 근로자	41.15	
	고용주/자영자	29.50	
	무급가족종사자	7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25	3.659*
	비정규직	39.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70	.097
	중도적	37.00	
	진보적	34.60	

주 1) "(조사표 질문) 그렇다면 전체 근로소득의 몇 %가 늘어나야 합니까? (단위: %)"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2〉 [경제활동 참여자] 정기적인 휴무일 지정 여부

(단위: %)

구분		없음	월 1일	월 2~3일	월 4~5일	월 6~7일	월 8일 이상	χ^2
전체		6.36	1.34	5.59	36.60	12.71	37.40	
성별	남성	6.97	1.30	6.04	36.92	12.28	36.50	7.150
	여성	5.49	1.40	4.93	36.14	13.34	38.71	
연령대	20대 이하	4.16	1.39	2.86	31.97	14.97	44.64	171.679***
	30대	4.00	1.66	3.48	32.47	10.64	47.75	
	40대	5.15	1.32	5.74	37.19	13.17	37.43	
	50대	7.71	0.97	7.13	40.56	13.15	30.48	
	60대	8.48	1.33	8.85	43.14	12.36	25.83	
	70대	18.79	1.95	6.01	26.97	9.05	37.23	
지역	수도권	7.17	2.04	5.77	34.75	12.53	37.74	21.350**
	비수도권	5.56	0.65	5.41	38.44	12.88	37.05	
	대도시	6.46	1.08	6.94	36.21	12.08	37.23	43.076***
	중소도시	5.37	1.56	4.28	36.33	13.85	38.61	
	농어촌	12.76	1.42	6.39	40.88	8.62	29.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54	0.00	5.88	38.24	11.88	28.47	77.861***
	중하층	5.83	1.23	4.92	36.27	14.85	36.91	
	중간층	5.70	1.53	5.62	37.06	11.05	39.05	
	중상층(상층)	2.92	2.35	8.87	33.52	12.47	39.8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90	2.19	7.32	35.86	12.67	30.06	140.367***
	200만 원대	6.19	1.27	4.84	39.81	13.44	34.45	
	300만 원대	4.19	0.87	7.48	33.60	13.06	40.81	
	400만 원대	2.48	1.12	2.65	31.39	10.36	52.01	
	500만 원 이상	3.21	1.51	0.00	33.29	7.01	54.98	
학력	중졸 이하	16.36	0.75	10.40	30.72	12.82	28.95	203.502***
	고졸	7.67	1.53	6.69	44.05	13.34	26.71	
	대졸 이상	4.23	1.28	4.22	31.90	12.24	46.1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0	1.39	2.84	30.51	13.11	49.45	535.812***
	임시/일용직 근로자	10.25	0.00	5.42	33.92	17.08	33.34	
	고용주/자영자	11.34	2.12	11.76	50.93	9.27	14.57	
	무급가족종사자	20.42	1.47	4.93	58.54	4.81	9.8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3	1.70	5.21	37.70	11.60	40.16	167.039***
	비정규직	13.92	0.35	6.61	33.56	15.78	29.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6.21	1.19	6.34	41.22	11.13	33.91	25.558**
	중도적	6.11	1.38	5.76	37.30	12.59	36.85	
	진보적	6.84	1.40	4.76	32.04	14.10	40.87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3〉 [경제활동 참여자] 일자리를 그만두었을 때 비슷한 급여나 소득의 일자리로의 재취업 가능성

(단위: %)

구분		매우 가능성이 높다	약간 가능성이 높다	반반이다	약간 가능성이 낮다	매우 가능성이 낮다	χ^2
전체		2.39	18.71	41.02	29.73	8.15	
성별	남성	1.97	18.00	41.53	29.15	9.35	15.565**
	여성	2.99	19.74	40.29	30.58	6.41	
연령대	20대 이하	5.81	27.34	40.41	24.23	2.22	502.685***
	30대	1.98	27.35	45.44	22.83	2.39	
	40대	1.83	17.50	42.35	32.83	5.50	
	50대	1.82	13.55	42.54	33.92	8.17	
	60대	0.65	10.91	34.89	34.95	18.61	
	70대	2.28	4.57	27.38	26.14	39.63	
지역	수도권	1.65	19.18	41.99	28.54	8.64	12.794*
	비수도권	3.12	18.24	40.06	30.91	7.66	
	대도시	1.28	20.69	41.79	27.80	8.44	61.015***
	중소도시	3.06	15.74	41.40	32.47	7.34	
	농어촌	4.48	27.35	33.70	22.40	12.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4	17.88	37.60	27.77	15.51	87.324***
	중하층	1.20	16.19	41.81	32.72	8.07	
	중간층	3.10	19.70	42.65	27.96	6.60	
	중상층(상층)	5.88	27.71	29.58	26.64	10.1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94	14.91	39.08	31.57	12.49	87.852***
	200만 원대	1.94	18.14	43.23	29.66	7.02	
	300만 원대	2.90	20.47	41.96	28.35	6.31	
	400만 원대	1.17	23.02	36.68	31.61	7.52	
	500만 원 이상	9.93	23.72	27.72	25.44	13.19	
학력	중졸 이하	2.37	9.11	31.20	27.23	30.09	214.605***
	고졸	1.56	15.87	41.13	32.63	8.81	
	대졸 이상	2.99	21.91	42.11	27.93	5.0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1	23.20	41.97	27.37	4.75	141.017***
	임시/일용직 근로자	1.43	15.53	37.05	33.87	12.12	
	고용주/자영자	2.34	11.45	41.26	32.14	12.81	
	무급가족종사자	1.63	4.59	48.59	31.49	13.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5	20.25	42.53	28.46	6.32	66.402***
	비정규직	2.21	14.45	36.87	33.25	13.2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6	13.76	36.42	34.29	13.97	100.026***
	중도적	2.63	18.77	45.45	26.60	6.54	
	진보적	2.67	22.45	38.39	30.59	5.8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그만두었을 때, 비슷한 급여나 소득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4〉 지난 5년(2015년~현재) 동안 원치 않은 일자리를 잃은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모름	χ^2
전체		9.28	89.75	0.97	
성별	남성	9.26	89.85	0.89	0.272
	여성	9.30	89.65	1.06	
연령대	20대 이하	8.37	90.37	1.26	44.736***
	30대	5.52	94.05	0.43	
	40대	9.68	89.23	1.09	
	50대	10.08	89.58	0.34	
	60대	13.09	85.55	1.36	
	70대	9.01	88.97	2.02	
지역	수도권	10.92	88.10	0.98	16.606***
	비수도권	7.59	91.44	0.97	
	대도시	7.40	91.83	0.77	32.906***
	중소도시	11.44	87.44	1.12	
	농어촌	5.00	93.81	1.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69	76.41	1.90	152.550***
	중하층	11.17	87.90	0.93	
	중간층	6.02	93.17	0.81	
	중상층(상층)	2.40	96.64	0.9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24	83.46	1.30	97.709***
	200만 원대	8.32	90.81	0.87	
	300만 원대	6.75	92.07	1.18	
	400만 원대	4.01	95.92	0.07	
	500만 원 이상	1.99	97.53	0.48	
학력	중졸 이하	12.24	85.34	2.42	46.353***
	고졸	11.13	87.99	0.88	
	대졸 이상	6.96	92.33	0.7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61	95.11	0.28	803.005***
	임시/일용직 근로자	32.97	65.36	1.67	
	고용주/자영자	4.33	93.89	1.78	
	무급가족종사자	6.59	93.41	0.00	
	실업자	48.94	50.56	0.49	
	비경제활동인구	4.78	93.95	1.2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78	95.88	0.34	415.876***
	비정규직	24.65	72.92	2.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65	87.54	0.81	14.470**
	중도적	7.96	90.91	1.13	
	진보적	9.05	90.06	0.8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은 지난 5년(2015년~현재) 동안 원치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5〉 삶의 만족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4	0.12	0.37	1.19	3.05	11.85	16.88	31.61	28.97	5.56	0.37	
성별	남성	0.07	0.14	0.40	1.29	3.15	12.82	16.73	32.03	27.59	5.43	0.35	11.400
	여성	0.02	0.09	0.34	1.08	2.95	10.86	17.03	31.17	30.38	5.70	0.39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2	0.35	0.83	3.40	10.08	14.22	33.76	30.77	6.22	0.33	193.091***
	30대	0.03	0.00	0.18	0.55	2.13	6.89	14.48	35.32	33.92	6.26	0.24	
	40대	0.00	0.08	0.43	1.52	2.74	10.91	18.08	29.11	30.67	5.99	0.46	
	50대	0.04	0.38	0.19	1.25	3.14	10.14	18.50	31.32	28.35	6.24	0.46	
	60대	0.18	0.03	0.60	1.36	2.97	15.89	17.96	30.28	26.18	4.29	0.26	
	70대	0.00	0.15	0.69	1.98	4.75	24.51	18.74	28.45	17.80	2.47	0.47	
지역	수도권	0.00	0.03	0.33	1.18	3.56	11.72	18.84	33.33	25.64	5.24	0.13	55.225***
	비수도권	0.08	0.21	0.41	1.20	2.52	11.98	14.87	29.84	32.38	5.89	0.61	
	대도시	0.07	0.07	0.58	1.62	3.18	10.45	16.93	33.03	28.37	5.34	0.36	42.243**
	중소도시	0.03	0.15	0.14	0.92	2.79	12.62	17.33	30.32	29.31	6.09	0.32	
	농어촌	0.00	0.20	0.76	0.45	4.20	15.18	13.00	32.12	30.29	2.95	0.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4	0.49	2.51	5.42	7.52	23.07	22.52	26.13	10.80	0.95	0.25	709.775***
	중하층	0.00	0.18	0.29	1.16	3.97	14.36	20.69	32.31	24.08	2.66	0.30	
	중간층	0.02	0.00	0.04	0.48	1.50	8.37	14.04	33.14	34.98	6.93	0.50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1.60	4.65	6.14	25.49	42.77	19.29	0.0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1	0.19	0.92	2.47	4.40	18.05	20.75	29.37	19.52	3.62	0.61	291.407***
	200만 원대	0.02	0.16	0.18	1.05	3.47	10.97	16.83	30.88	30.41	5.75	0.29	
	300만 원대	0.00	0.00	0.15	0.27	1.10	9.21	15.40	36.49	31.48	5.71	0.20	
	400만 원대	0.06	0.00	0.00	0.00	2.74	5.16	10.08	32.28	40.81	8.53	0.33	
	500만 원 이상	0.00	0.00	0.81	1.38	0.00	5.82	11.60	25.65	43.00	11.11	0.62	
학력	중졸 이하	0.25	0.25	1.18	3.06	4.51	25.78	20.92	24.30	17.48	1.92	0.35	272.614***
	고졸	0.02	0.13	0.53	1.32	3.34	12.19	18.51	30.77	27.87	4.84	0.47	
	대졸 이상	0.01	0.07	0.04	0.63	2.45	8.24	14.50	34.07	32.65	7.06	0.2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1	0.00	0.13	0.48	1.70	6.64	16.03	33.22	34.96	6.68	0.15	611.421***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7	0.81	3.13	6.47	16.23	26.72	28.25	15.73	2.40	0.20	
	고용주/자영자	0.04	0.27	0.24	0.94	3.77	14.95	14.35	31.90	29.60	3.52	0.42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0.00	17.08	12.71	39.61	18.82	4.72	7.07	
	실업자	1.08	1.64	1.00	7.42	13.84	33.85	16.17	15.89	8.12	1.00	0.00	
	비경제활동인구	0.00	0.05	0.60	0.96	1.96	13.60	15.49	31.80	27.52	7.39	0.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2	0.07	0.16	0.56	1.92	8.91	14.58	33.64	33.96	5.94	0.25	210.378***
	비정규직	0.00	0.11	0.60	2.37	6.06	14.85	25.05	27.88	19.79	2.88	0.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7	0.48	1.75	3.49	15.92	17.36	29.66	25.50	5.48	0.30	68.991***
	중도적	0.01	0.15	0.31	0.74	2.63	11.51	17.63	32.21	29.45	4.86	0.48	
	진보적	0.12	0.11	0.37	1.33	3.25	8.67	15.36	32.48	31.40	6.65	0.27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요즘 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6〉 어제 행복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0	0.20	0.37	1.33	2.86	15.21	18.27	31.09	24.34	5.85	0.47	
성별	남성	0.01	0.17	0.44	1.44	2.97	16.42	18.25	30.58	24.16	5.13	0.44	12.205
	여성	0.00	0.23	0.29	1.21	2.76	13.98	18.30	31.62	24.52	6.59	0.50	
연령대	20대 이하	0.00	0.10	0.30	1.25	3.11	12.96	19.05	27.72	27.32	7.85	0.33	161.913***
	30대	0.03	0.00	0.29	0.50	1.82	10.23	15.24	37.14	28.00	6.63	0.13	
	40대	0.00	0.35	0.30	1.15	1.74	14.93	18.00	33.47	22.88	6.38	0.82	
	50대	0.00	0.31	0.62	1.29	3.08	15.29	17.58	31.79	23.84	5.50	0.70	
	60대	0.00	0.21	0.22	1.55	3.85	18.46	21.19	27.34	23.13	3.70	0.35	
	70대	0.00	0.15	0.48	3.25	4.75	24.58	19.73	25.71	17.44	3.60	0.32	
지역	수도권	0.00	0.10	0.25	0.84	3.06	15.20	19.79	32.94	22.21	5.42	0.20	45.017***
	비수도권	0.01	0.29	0.50	1.82	2.67	15.23	16.72	29.20	26.51	6.30	0.75	
	대도시	0.00	0.31	0.43	1.50	3.68	14.29	17.98	29.97	25.60	5.89	0.35	44.362**
	중소도시	0.01	0.10	0.34	0.96	2.31	15.15	18.95	32.35	23.23	6.08	0.52	
	농어촌	0.00	0.20	0.21	3.06	1.74	21.78	14.93	28.86	24.54	3.83	0.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5	0.72	1.60	5.41	9.76	27.84	17.52	27.30	7.89	1.66	0.25	669.575***
	중하층	0.00	0.26	0.47	1.47	2.69	18.72	22.53	31.90	18.50	3.16	0.30	
	중간층	0.00	0.06	0.07	0.52	1.57	10.61	16.38	32.60	30.14	7.35	0.68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2.47	7.72	7.87	22.27	42.29	16.96	0.4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30	0.64	2.59	5.00	21.71	20.25	28.29	16.97	3.54	0.71	273.165***
	200만 원대	0.00	0.28	0.45	1.09	1.89	15.25	20.38	29.86	24.64	5.90	0.27	
	300만 원대	0.00	0.00	0.06	0.59	2.44	11.24	13.98	35.61	28.43	6.91	0.75	
	400만 원대	0.06	0.00	0.00	0.17	2.55	5.86	15.59	36.16	32.13	7.34	0.13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1.81	1.70	9.81	8.93	28.40	35.36	13.86	0.13	
학력	중졸 이하	0.00	0.51	0.58	4.10	8.43	23.85	22.52	21.28	16.31	2.10	0.35	263.379***
	고졸	0.00	0.24	0.42	1.23	2.35	17.35	19.36	31.06	22.56	4.91	0.52	
	대졸 이상	0.01	0.08	0.28	0.75	2.00	11.30	16.31	33.46	27.79	7.57	0.4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1	0.19	0.13	0.58	1.77	10.32	17.10	33.68	28.56	7.38	0.28	409.480***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18	0.78	2.51	4.09	23.55	22.42	28.07	15.09	3.20	0.11	
	고용주/자영자	0.00	0.07	0.67	2.21	2.47	17.49	16.94	32.02	23.61	3.96	0.55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0.00	25.14	15.17	29.45	20.05	3.13	7.07	
	실업자	0.00	2.71	0.13	2.09	13.00	35.61	23.39	15.38	6.69	1.00	0.00	
	비경제활동인구	0.00	0.05	0.36	1.28	3.40	15.05	18.74	29.23	24.43	6.67	0.7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1	0.15	0.28	0.84	1.78	11.66	16.23	34.58	27.43	6.64	0.39	163.638***
	비정규직	0.00	0.18	0.65	2.62	3.83	22.47	22.63	25.89	18.05	3.32	0.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10	0.18	1.90	3.81	20.14	16.19	29.58	22.08	5.43	0.59	77.677***
	중도적	0.01	0.33	0.39	0.93	2.23	14.01	19.06	32.83	24.75	4.95	0.52	
	진보적	0.00	0.10	0.51	1.38	2.94	12.51	19.00	29.95	25.78	7.55	0.2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7〉 어제 우울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매우 우울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4.47	10.74	17.91	16.65	12.33	13.33	8.65	8.75	6.35	0.74	0.07	
성별	남성	4.68	10.56	18.01	17.39	12.99	13.10	7.81	9.23	5.46	0.69	0.09	16.714
	여성	4.27	10.94	17.80	15.90	11.64	13.58	9.51	8.26	7.26	0.79	0.06	
연령대	20대 이하	5.85	10.07	17.70	16.58	15.03	11.46	8.28	6.45	7.60	0.97	0.00	115.006***
	30대	5.06	10.47	19.12	17.41	14.06	11.72	5.78	9.05	6.77	0.57	0.00	
	40대	4.43	13.04	17.37	17.24	11.25	10.94	8.73	10.10	6.14	0.67	0.08	
	50대	3.96	11.86	17.93	17.72	8.38	15.17	9.44	9.74	5.18	0.63	0.00	
	60대	3.67	8.94	18.55	14.64	13.38	14.93	9.61	9.07	5.81	1.04	0.36	
	70대	3.15	8.01	15.99	14.99	13.16	18.78	11.37	6.96	7.15	0.44	0.00	
지역	수도권	2.45	9.21	16.28	16.25	13.87	13.66	10.24	10.26	7.26	0.47	0.05	117.824***
	비수도권	6.55	12.32	19.58	17.06	10.74	13.00	7.02	7.20	5.43	1.01	0.09	
	대도시	3.29	9.25	16.84	17.19	13.26	14.64	9.08	8.37	7.17	0.74	0.17	67.223***
	중소도시	5.05	11.77	18.53	16.80	11.90	11.63	8.71	9.08	5.86	0.67	0.00	
	농어촌	7.85	12.71	20.20	11.92	9.48	17.87	5.25	8.68	4.77	1.26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65	6.78	17.20	15.44	15.19	14.66	10.06	10.66	4.96	0.82	0.57	111.592***
	중하층	5.35	9.42	17.17	17.13	13.44	13.32	10.61	7.69	5.36	0.51	0.00	
	중간층	3.84	12.40	18.77	16.85	11.31	13.55	6.86	8.89	6.64	0.86	0.04	
	중상층(상층)	4.82	12.98	17.46	14.47	8.68	10.17	7.32	11.05	11.94	1.10	0.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43	7.00	18.41	14.83	11.78	15.66	10.65	10.43	6.83	0.76	0.21	97.884***
	200만 원대	5.35	11.96	18.23	17.17	11.48	13.21	8.03	8.14	5.62	0.76	0.04	
	300만 원대	4.56	12.20	17.03	16.20	13.63	11.18	9.07	8.73	6.55	0.84	0.00	
	400만 원대	2.03	11.69	16.26	19.93	14.97	11.95	6.91	7.24	8.49	0.53	0.00	
	500만 원 이상	6.75	13.56	19.28	20.02	12.98	13.36	1.53	6.74	5.77	0.00	0.00	
학력	중졸 이하	2.30	5.87	13.04	13.18	12.52	20.15	14.74	8.88	8.17	0.65	0.49	117.849***
	고졸	4.29	11.28	18.46	16.44	11.81	12.50	9.09	9.52	5.78	0.78	0.04	
	대졸 이상	5.14	11.43	18.58	17.66	12.73	12.45	6.82	8.05	6.42	0.72	0.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3	12.87	18.55	16.08	13.78	10.51	7.50	8.01	7.30	0.67	0.00	210.167***
	임시/일용직 근로자	1.49	5.15	13.90	19.26	11.15	16.15	14.34	12.03	5.56	0.75	0.22	
	고용주/자영자	3.75	10.91	19.61	17.22	11.54	14.58	7.37	8.94	5.38	0.60	0.08	
	무급가족종사자	14.00	5.80	20.46	20.90	11.14	7.89	10.37	7.80	1.65	0.00	0.00	
	실업자	2.59	2.75	7.35	7.52	19.48	23.71	12.97	13.65	5.82	3.08	1.08	
	비경제활동인구	6.05	10.84	18.60	16.73	10.29	14.81	8.18	7.69	6.09	0.71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59	12.58	18.62	16.26	12.98	11.52	7.45	8.55	6.90	0.53	0.03	69.753***
	비정규직	2.46	6.64	16.52	18.87	12.07	15.13	11.95	9.96	5.26	1.02	0.14	
이념적 성향	보수적	5.09	11.13	18.75	16.31	12.28	15.00	8.78	8.09	3.86	0.60	0.10	46.774**
	중도적	4.62	10.44	17.63	16.59	10.89	13.93	8.37	9.53	7.03	0.94	0.04	
	진보적	3.70	10.84	17.56	17.05	14.46	10.97	8.92	8.21	7.63	0.58	0.1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우울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8〉 삶의 가치 : 에우다이모니아

(단위: %)

구분		전혀 가치있지 않다										매우 가치 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5	0.32	0.70	1.73	2.93	15.35	18.52	31.22	23.22	5.25	0.70	
성별	남성	0.06	0.24	0.70	1.99	2.99	13.83	17.61	31.57	24.33	5.86	0.80	20.735*
	여성	0.04	0.40	0.69	1.46	2.87	16.91	19.45	30.86	22.09	4.62	0.60	
연령대	20대 이하	0.07	0.57	0.30	1.64	1.89	12.40	19.25	31.27	25.53	6.66	0.42	284.644***
	30대	0.00	0.11	0.51	1.02	1.69	11.28	14.09	36.16	27.59	7.07	0.49	
	40대	0.11	0.38	0.61	1.90	2.97	13.17	18.53	31.58	24.73	4.42	1.60	
	50대	0.00	0.28	1.66	1.12	2.50	14.85	19.17	31.36	22.09	6.25	0.71	
	60대	0.12	0.26	0.30	2.95	3.31	18.03	20.85	28.67	21.58	3.60	0.33	
	70대	0.00	0.28	0.56	2.21	7.86	31.18	20.04	24.68	11.81	1.11	0.26	
지역	수도권	0.00	0.11	0.42	1.57	3.10	13.95	19.29	33.24	22.92	4.96	0.44	37.906***
	비수도권	0.11	0.53	0.98	1.89	2.76	16.80	17.72	29.15	23.54	5.55	0.97	
	대도시	0.03	0.32	0.79	1.93	2.87	12.70	19.28	30.79	25.24	5.63	0.43	47.777***
	중소도시	0.04	0.31	0.57	1.61	2.91	16.73	17.94	32.05	21.95	4.95	0.93	
	농어촌	0.28	0.41	1.13	1.30	3.54	22.30	17.93	27.72	19.70	5.01	0.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9	0.68	0.49	3.66	9.98	27.76	23.17	20.75	11.86	1.11	0.37	482.948***
	중하층	0.09	0.34	1.07	2.43	3.48	15.18	22.09	33.13	19.03	2.91	0.25	
	중간층	0.00	0.25	0.54	0.89	1.19	14.18	14.80	32.88	27.52	6.79	0.98	
	중상층(상층)	0.00	0.16	0.00	0.55	1.20	6.58	16.15	24.68	34.74	14.08	1.8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7	0.38	0.59	3.01	5.81	22.84	20.82	27.05	15.62	2.65	1.16	358.625***
	200만 원대	0.05	0.33	0.91	1.80	2.24	13.94	19.53	31.79	24.11	4.99	0.31	
	300만 원대	0.06	0.32	0.77	0.88	1.02	11.27	16.61	35.76	26.88	5.52	0.91	
	400만 원대	0.00	0.18	0.00	0.00	1.95	9.36	14.44	33.66	31.54	8.70	0.18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00	3.35	13.67	8.52	22.22	30.22	20.14	1.88	
학력	중졸 이하	0.16	0.87	0.56	3.38	6.07	31.73	22.26	22.25	10.88	1.65	0.19	308.560***
	고졸	0.05	0.24	1.14	1.70	3.45	14.79	20.00	31.76	22.55	3.74	0.57	
	대졸 이상	0.03	0.26	0.35	1.36	1.73	11.96	16.34	32.89	26.74	7.41	0.9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3	0.41	0.85	0.89	1.74	9.88	16.33	32.95	29.32	7.25	0.35	441.953***
	임시/일용직 근로자	0.18	0.00	0.95	3.87	5.09	21.71	23.83	28.09	14.37	1.73	0.18	
	고용주/자영자	0.00	0.08	0.25	1.39	2.05	12.36	18.64	34.26	24.03	5.57	1.39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1.01	17.87	15.24	26.84	25.64	13.39	0.00	
	실업자	0.00	1.08	1.04	6.10	12.75	38.16	16.48	16.94	7.45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0.07	0.45	0.64	1.92	3.55	21.31	19.79	29.17	18.30	3.68	1.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2	0.32	0.54	0.91	1.40	9.67	16.96	33.48	28.92	7.14	0.63	225.541***
	비정규직	0.11	0.07	1.16	3.18	5.07	20.62	21.51	29.46	15.71	2.66	0.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3	0.30	0.83	1.96	3.08	18.71	20.06	28.84	21.73	3.88	0.57	53.397***
	중도적	0.05	0.31	0.95	1.75	3.30	14.89	17.91	31.42	23.19	5.21	1.03	
	진보적	0.08	0.36	0.22	1.50	2.27	12.99	18.00	33.09	24.62	6.53	0.34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_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9〉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선택 가능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2	0.26	0.90	2.52	4.02	13.57	16.51	29.65	24.01	7.19	1.25	
성별	남성	0.04	0.32	1.08	2.52	4.45	13.04	16.31	29.63	23.83	7.48	1.29	9.771
	여성	0.20	0.19	0.71	2.52	3.58	14.12	16.72	29.67	24.19	6.89	1.22	
연령대	20대 이하	0.13	0.22	0.42	1.60	3.53	10.66	14.93	30.64	28.13	8.21	1.53	86.337**
	30대	0.10	0.22	1.40	2.74	3.01	11.26	16.08	30.30	25.77	8.33	0.80	
	40대	0.21	0.26	1.02	2.95	3.87	16.34	15.71	30.13	21.62	6.85	1.04	
	50대	0.19	0.25	1.25	2.73	4.03	13.20	17.55	27.79	24.90	7.16	0.96	
	60대	0.00	0.32	0.43	2.87	4.79	14.30	16.02	30.69	22.64	6.08	1.86	
	70대	0.00	0.28	0.64	1.90	6.08	17.49	20.98	27.67	17.64	5.61	1.71	
지역	수도권	0.00	0.10	0.62	3.34	4.16	11.40	16.81	31.52	25.42	6.32	0.30	99.568***
	비수도권	0.25	0.41	1.18	1.67	3.88	15.80	16.20	27.73	22.57	8.08	2.23	
	대도시	0.22	0.21	0.98	2.46	4.24	12.55	14.61	29.52	26.55	7.90	0.77	95.664***
	중소도시	0.05	0.28	0.70	2.81	4.02	13.12	18.06	29.83	23.02	6.77	1.33	
	농어촌	0.00	0.35	1.92	0.66	2.63	23.79	17.11	29.09	14.82	5.72	3.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6	0.65	2.55	4.71	8.82	21.69	16.25	25.28	13.29	5.70	1.01	258.435***
	중하층	0.05	0.27	0.70	2.89	4.30	13.16	20.86	30.26	21.95	4.65	0.91	
	중간층	0.16	0.20	0.71	2.07	3.13	12.93	13.95	30.21	26.23	8.98	1.43	
	중상층(상층)	0.35	0.00	0.86	0.33	1.55	8.57	9.23	28.77	36.13	11.85	2.3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0	0.43	1.31	2.79	5.45	15.49	19.39	29.29	19.18	4.93	1.63	124.343***
	200만 원대	0.11	0.15	0.71	2.90	3.26	14.25	16.76	29.46	23.24	7.87	1.29	
	300만 원대	0.24	0.00	1.10	2.06	3.77	10.15	14.06	30.74	29.56	7.44	0.88	
	400만 원대	0.00	0.36	0.00	1.80	3.89	13.86	13.80	29.64	26.63	9.70	0.31	
	500만 원 이상	0.00	1.55	0.75	0.00	4.37	10.79	12.24	27.78	30.87	9.26	2.38	
학력	중졸 이하	0.00	0.56	1.67	3.15	7.29	19.91	19.91	27.67	14.06	5.11	0.68	100.322***
	고졸	0.07	0.28	1.01	2.67	3.71	13.18	17.68	28.52	23.78	7.46	1.65	
	대졸 이상	0.19	0.16	0.62	2.24	3.52	12.41	14.68	31.10	26.57	7.45	1.0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4	0.25	1.08	2.26	3.23	12.23	15.61	30.21	26.45	7.85	0.70	242.536***
	임시/일용직 근로자	0.05	0.00	0.82	3.39	7.49	21.05	20.75	29.82	12.41	3.30	0.93	
	고용주/자영자	0.31	0.32	0.77	2.93	4.02	12.99	14.51	30.15	24.38	7.98	1.6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1.01	2.65	17.83	19.77	15.04	33.67	10.04	0.00	
	실업자	0.00	3.03	0.13	5.78	12.88	10.56	19.27	22.12	16.85	8.64	0.75	
	비경제활동인구	0.00	0.04	0.84	1.89	2.69	12.68	17.05	29.47	25.96	7.19	2.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2	0.14	0.96	2.43	3.12	12.41	15.14	30.28	26.31	8.06	0.94	102.850***
	비정규직	0.03	0.46	0.91	3.10	6.96	18.28	19.28	29.13	16.22	4.61	1.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5	0.09	0.71	2.51	4.45	12.58	16.97	29.30	22.50	8.62	2.21	60.679***
	중도적	0.06	0.32	0.79	2.23	3.40	15.38	16.65	31.26	23.45	5.62	0.83	
	진보적	0.28	0.31	1.23	2.94	4.54	11.83	15.90	27.61	26.18	8.18	1.00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는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0〉 신체적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다										매우 건강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4	0.20	0.25	0.83	2.85	9.26	12.51	24.58	33.21	14.31	1.95	
성별	남성	0.06	0.18	0.25	0.70	2.88	9.14	11.65	23.73	32.63	16.21	2.57	30.443**
	여성	0.03	0.23	0.26	0.96	2.81	9.39	13.39	25.45	33.81	12.36	1.30	
연령대	20대 이하	0.00	0.13	0.26	0.00	1.37	4.35	9.28	16.80	35.49	26.97	5.34	864.828***
	30대	0.00	0.00	0.00	0.27	0.62	5.24	6.45	24.45	39.87	20.41	2.67	
	40대	0.08	0.23	0.08	0.75	1.94	8.25	10.54	26.87	37.10	13.05	1.10	
	50대	0.00	0.14	0.08	0.77	2.74	8.18	14.61	27.03	35.24	10.46	0.75	
	60대	0.18	0.27	0.60	0.87	3.75	15.00	17.90	28.89	25.74	6.05	0.74	
	70대	0.00	0.73	0.97	3.94	11.12	22.25	21.27	22.34	14.74	2.35	0.30	
지역	수도권	0.00	0.11	0.17	0.52	2.81	8.57	12.78	25.58	34.43	14.00	1.02	42.819***
	비수도권	0.09	0.30	0.34	1.14	2.88	9.97	12.23	23.55	31.96	14.62	2.90	
	대도시	0.10	0.21	0.13	0.74	2.52	8.13	12.79	25.62	33.28	14.61	1.87	28.757
	중소도시	0.00	0.17	0.34	0.85	3.01	9.60	12.19	23.79	34.01	14.14	1.91	
	농어촌	0.00	0.45	0.38	1.26	3.74	14.22	13.14	23.89	26.61	13.58	2.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5	1.10	0.99	3.39	8.07	14.53	17.04	22.11	23.88	6.84	1.61	271.439***
	중하층	0.00	0.13	0.25	0.80	2.57	10.04	14.90	25.32	31.75	12.75	1.48	
	중간층	0.00	0.10	0.08	0.38	2.11	7.89	9.83	25.08	35.60	16.53	2.38	
	중상층(상층)	0.00	0.00	0.37	0.29	1.79	6.44	10.15	20.75	39.00	19.04	2.1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7	0.57	0.70	2.08	6.00	16.08	16.90	23.74	25.11	7.02	1.63	452.727***
	200만 원대	0.00	0.06	0.09	0.49	2.23	6.63	12.43	24.97	36.83	14.66	1.61	
	300만 원대	0.00	0.08	0.15	0.20	1.27	7.51	8.86	26.46	35.83	17.15	2.48	
	400만 원대	0.00	0.00	0.00	0.36	0.73	5.57	8.55	21.24	40.26	21.92	1.37	
	500만 원 이상	0.00	0.39	0.00	0.35	0.47	8.30	11.07	21.81	18.08	32.80	6.72	
학력	중졸 이하	0.39	1.15	1.26	4.03	10.53	21.46	23.50	19.49	14.63	3.14	0.41	712.931***
	고졸	0.00	0.09	0.09	0.50	2.94	9.86	14.09	25.94	33.59	11.07	1.83	
	대졸 이상	0.00	0.08	0.16	0.36	0.95	5.85	8.52	24.60	37.30	19.78	2.4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6	0.15	0.30	1.03	5.96	8.29	24.35	37.81	20.06	2.00	512.278***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9	0.05	1.76	3.63	14.87	19.23	24.78	26.68	8.46	0.45	
	고용주/자영자	0.00	0.07	0.18	0.52	2.59	11.04	14.55	25.78	34.07	9.63	1.58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1.18	0.58	3.66	16.06	12.16	25.57	31.84	8.06	0.89	
	실업자	1.68	0.91	2.65	0.76	14.31	8.18	18.45	14.70	20.16	12.34	5.86	
	비경제활동인구	0.00	0.55	0.31	1.52	4.50	10.60	14.10	25.00	29.45	11.46	2.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7	0.11	0.31	1.42	7.29	9.71	24.79	36.84	17.49	1.97	145.086***
	비정규직	0.00	0.06	0.26	1.42	3.19	13.20	17.48	24.84	29.62	9.29	0.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18	0.47	1.10	4.66	14.41	15.72	24.55	28.33	9.00	1.58	186.464***
	중도적	0.04	0.20	0.22	0.93	2.37	8.52	11.96	24.89	35.40	13.60	1.88	
	진보적	0.10	0.23	0.11	0.45	1.90	5.70	10.40	24.16	34.45	20.13	2.3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1〉 정신적 건강 상태

(단위: %)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다										매우 건강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2	0.05	0.29	0.84	1.87	8.00	11.78	26.14	34.65	14.48	1.89	
성별	남성	0.02	0.08	0.19	0.90	1.88	7.70	11.48	25.42	35.31	14.80	2.22	10.986
	여성	0.03	0.02	0.38	0.78	1.85	8.32	12.09	26.87	33.97	14.15	1.55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33	0.33	1.76	4.99	9.05	19.83	37.08	23.35	3.27	406.388***
	30대	0.10	0.00	0.15	0.68	1.08	5.53	7.89	21.92	41.42	18.95	2.27	
	40대	0.00	0.06	0.13	0.56	1.29	8.41	9.60	27.89	36.47	13.81	1.77	
	50대	0.00	0.00	0.25	0.52	1.03	7.30	14.22	27.75	36.18	11.38	1.36	
	60대	0.00	0.18	0.53	1.37	2.38	10.34	15.35	31.25	27.96	9.34	1.29	
	70대	0.06	0.10	0.48	2.70	6.07	15.82	18.06	30.77	20.11	5.02	0.82	
지역	수도권	0.00	0.00	0.15	0.62	1.62	6.96	12.30	26.52	37.26	13.88	0.69	70.541***
	비수도권	0.05	0.10	0.43	1.07	2.12	9.07	11.24	25.75	31.96	15.10	3.12	
	대도시	0.04	0.07	0.29	0.45	1.67	6.82	11.85	25.28	38.32	13.38	1.83	76.351***
	중소도시	0.01	0.04	0.16	1.14	1.88	8.07	11.56	26.89	32.45	15.93	1.87	
	농어촌	0.00	0.00	1.24	1.14	3.08	15.34	12.94	26.00	27.29	10.57	2.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5	0.29	1.08	4.58	6.62	14.95	14.40	29.07	20.21	6.86	1.88	321.824***
	중하층	0.00	0.02	0.23	0.46	1.82	7.66	12.96	27.04	36.02	12.33	1.45	
	중간층	0.01	0.03	0.20	0.40	1.00	7.14	10.78	24.74	36.38	17.32	2.00	
	중상층(상층)	0.19	0.00	0.00	0.60	1.03	5.75	7.97	25.97	36.06	18.79	3.6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2	0.14	0.60	2.40	4.84	13.02	15.14	28.60	26.22	7.33	1.69	432.489***
	200만 원대	0.00	0.00	0.19	0.28	1.17	7.18	11.35	26.03	36.39	15.80	1.62	
	300만 원대	0.00	0.00	0.11	0.45	0.35	5.50	10.20	26.49	36.59	17.71	2.60	
	400만 원대	0.24	0.00	0.00	0.00	0.06	3.01	6.62	20.27	50.91	18.72	0.16	
	500만 원 이상	0.00	0.39	0.80	0.00	0.99	6.03	12.41	18.76	29.55	24.52	6.53	
학력	중졸 이하	0.00	0.33	0.51	3.99	6.15	18.28	19.77	28.55	18.26	3.46	0.70	458.036***
	고졸	0.01	0.00	0.32	0.56	1.76	7.64	13.29	28.55	32.89	13.16	1.81	
	대졸 이상	0.04	0.03	0.20	0.34	0.94	5.88	8.56	23.46	40.07	18.25	2.2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4	0.00	0.24	0.37	0.91	5.24	9.82	23.11	39.54	18.86	1.88	331.890***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0.39	1.55	2.37	13.69	16.83	29.43	28.24	7.08	0.41	
	고용주/자영자	0.00	0.07	0.32	0.21	1.92	7.32	12.52	29.87	33.96	11.78	2.0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58	7.54	8.77	10.08	34.97	29.13	8.93	0.00	
	실업자	0.00	1.08	1.55	7.02	1.92	16.97	15.27	23.91	22.39	8.15	1.75	
	비경제활동인구	0.02	0.03	0.15	1.12	3.04	9.38	11.65	26.72	31.54	13.70	2.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3	0.02	0.13	0.23	1.12	5.27	10.49	23.92	39.12	17.69	1.99	205.022***
	비정규직	0.00	0.00	0.73	1.37	2.48	12.64	15.03	31.85	27.77	7.43	0.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3	0.06	1.29	2.24	9.24	14.13	30.54	28.74	10.98	2.75	118.011***
	중도적	0.05	0.03	0.46	0.80	1.84	8.52	12.21	25.15	35.75	13.49	1.69	
	진보적	0.00	0.10	0.24	0.49	1.57	6.14	9.02	23.60	38.38	19.07	1.3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2〉 생활비 조달에 대한 걱정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항상 걱정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51	4.26	8.65	10.21	8.48	20.02	15.03	15.01	12.18	3.12	0.52	
성별	남성	2.39	3.94	8.93	10.12	7.42	19.68	15.00	15.55	12.99	3.26	0.73	17.442
	여성	2.63	4.59	8.36	10.31	9.58	20.38	15.05	14.47	11.35	2.98	0.30	
연령대	20대 이하	4.77	6.44	9.72	12.25	5.92	19.46	11.10	12.42	12.45	5.11	0.36	151.901***
	30대	2.86	4.09	10.33	11.38	9.16	20.95	14.20	13.88	10.11	2.80	0.23	
	40대	1.98	4.44	7.21	9.45	10.02	18.68	17.39	15.24	13.18	1.67	0.75	
	50대	1.50	4.20	9.54	8.74	9.11	18.04	14.05	16.66	13.92	3.38	0.85	
	60대	1.95	2.78	7.89	9.82	8.50	22.07	15.93	16.47	11.40	3.07	0.11	
	70대	1.72	2.42	5.53	9.54	7.47	23.50	20.21	15.66	10.70	2.41	0.83	
지역	수도권	2.29	2.64	7.59	10.12	9.95	20.91	16.54	14.32	12.48	2.79	0.36	69.977***
	비수도권	2.74	5.93	9.73	10.30	6.98	19.11	13.47	15.72	11.88	3.47	0.68	
	대도시	3.17	3.34	7.12	10.25	9.08	18.94	15.10	16.50	12.20	3.80	0.51	51.638***
	중소도시	1.99	5.02	9.86	10.49	8.31	20.68	14.90	13.32	12.12	2.76	0.55	
	농어촌	2.16	4.55	9.39	7.76	5.89	22.15	15.51	18.31	12.57	1.42	0.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1	2.03	3.84	6.07	10.24	20.32	18.09	19.82	11.55	5.93	1.48	250.035***
	중하층	0.75	2.82	7.06	10.59	8.17	22.08	17.90	14.92	11.97	3.06	0.68	
	중간층	3.78	5.01	10.47	10.68	9.01	18.98	12.84	14.06	12.30	2.65	0.23	
	중상층(상층)	6.74	10.55	12.45	10.88	4.41	14.94	8.93	14.98	13.44	2.57	0.1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63	2.10	4.84	7.10	8.50	22.46	18.13	18.91	11.24	3.89	1.20	294.641***
	200만 원대	2.39	4.85	7.04	10.63	8.64	20.76	15.72	13.82	13.12	2.79	0.23	
	300만 원대	3.00	4.27	12.23	12.00	9.66	17.33	12.38	12.45	12.82	3.51	0.33	
	400만 원대	2.98	4.51	14.26	14.22	7.41	17.15	11.28	16.62	9.18	1.95	0.44	
	500만 원 이상	7.04	13.67	24.12	8.85	0.90	14.90	6.75	11.90	10.45	1.41	0.00	
학력	중졸 이하	1.10	1.44	5.15	7.74	7.93	22.48	18.92	19.92	11.13	3.53	0.67	63.111***
	고졸	2.43	4.40	8.30	9.96	8.34	20.50	15.18	15.34	12.22	2.75	0.58	
	대졸 이상	2.92	4.81	9.78	11.02	8.75	19.02	13.97	13.56	12.40	3.35	0.4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6	5.80	10.96	10.70	8.23	17.75	13.87	14.65	12.30	3.17	0.23	232.977***
	임시/일용직 근로자	0.77	2.55	4.55	8.19	8.97	18.89	20.23	17.53	14.20	3.31	0.81	
	고용주/자영자	2.60	2.50	7.22	10.95	9.27	19.50	14.98	15.53	14.23	2.40	0.82	
	무급가족종사자	3.76	0.00	13.46	14.96	4.76	12.27	15.74	23.51	11.53	0.00	0.00	
	실업자	1.32	1.14	1.14	4.67	7.63	24.85	18.01	11.94	12.10	16.80	0.40	
	비경제활동인구	3.70	4.35	8.55	10.30	8.26	24.64	14.04	14.03	9.37	2.11	0.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7	5.05	10.24	10.85	8.10	17.26	14.32	14.92	13.17	3.09	0.42	58.737***
	비정규직	1.05	2.39	5.37	9.09	9.92	21.32	17.79	16.89	12.92	2.61	0.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5	4.03	9.66	10.94	9.22	19.99	15.87	13.00	11.58	2.41	0.56	52.071***
	중도적	2.17	3.59	7.58	11.33	8.44	20.22	15.29	16.13	11.86	2.70	0.69	
	진보적	2.79	5.45	9.28	7.93	7.88	19.78	13.88	15.22	13.19	4.38	0.23	

주 1) "(조사표 질문) 당신은 얼마나 자주 월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 걱정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3〉 안전과 식생활 주거에 대한 걱정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항상 걱정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29	4.95	10.25	11.69	10.84	21.94	12.65	14.25	8.85	1.86	0.43	
성별	남성	2.18	4.81	10.44	11.49	10.68	21.61	13.54	13.94	9.07	1.81	0.43	5.112
	여성	2.40	5.10	10.06	11.89	10.99	22.28	11.74	14.57	8.62	1.92	0.43	
연령대	20대 이하	4.66	6.99	11.99	12.34	13.02	20.68	6.75	11.73	9.50	2.23	0.11	160.291***
	30대	2.68	4.82	10.20	10.61	10.76	23.30	13.43	13.04	9.25	1.56	0.35	
	40대	1.57	4.65	9.21	10.91	10.86	18.72	15.30	17.89	7.82	2.14	0.93	
	50대	1.37	5.34	10.13	12.73	9.94	22.68	11.12	15.96	8.96	1.27	0.49	
	60대	1.72	3.72	11.90	11.91	10.48	23.14	13.44	12.61	8.90	2.01	0.17	
	70대	1.36	2.93	6.42	11.38	9.11	25.39	19.65	12.47	8.62	2.23	0.43	
지역	수도권	1.80	3.10	10.29	10.47	12.55	22.93	12.70	15.96	8.64	1.36	0.18	89.084***
	비수도권	2.79	6.85	10.22	12.93	9.07	20.93	12.60	12.49	9.06	2.38	0.68	
	대도시	2.70	4.09	9.35	12.59	11.47	20.37	12.64	14.89	9.48	1.98	0.44	38.289**
	중소도시	1.92	5.50	11.37	10.96	10.69	23.07	12.64	13.54	8.38	1.58	0.35	
	농어촌	2.44	6.50	7.59	11.32	7.72	23.59	12.81	15.50	8.29	3.31	0.9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1	1.32	2.66	7.89	10.81	25.28	18.91	16.51	11.36	3.62	1.22	314.188***
	중하층	0.94	2.87	8.98	10.22	11.02	25.87	14.36	15.21	8.29	1.68	0.56	
	중간층	3.31	6.31	12.31	14.34	10.62	19.14	10.69	12.85	8.57	1.67	0.19	
	중상층(상층)	5.79	12.86	14.68	8.04	11.26	13.50	7.07	14.82	10.20	1.67	0.1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9	2.52	5.91	9.22	8.74	24.23	17.04	16.63	10.25	2.73	1.14	301.105***
	200만 원대	2.35	4.80	9.73	12.45	10.20	23.95	12.41	14.30	8.21	1.37	0.23	
	300만 원대	2.43	6.13	13.17	12.27	12.07	18.80	10.82	13.13	9.24	1.95	0.00	
	400만 원대	2.28	6.87	16.12	12.84	20.33	14.50	6.10	9.34	9.04	2.14	0.44	
	500만 원 이상	6.37	14.69	19.77	15.31	5.80	14.99	7.42	13.12	2.54	0.00	0.00	
학력	중졸 이하	1.33	1.85	5.50	9.14	8.63	23.74	19.64	16.30	10.70	2.84	0.33	82.661***
	고졸	2.20	5.26	10.68	11.59	10.76	22.72	12.13	12.82	9.27	2.10	0.48	
	대졸 이상	2.59	5.43	11.01	12.38	11.43	20.83	11.45	15.01	8.03	1.43	0.4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0	6.24	11.63	12.20	10.78	20.07	11.91	13.83	9.10	1.78	0.26	125.395***
	임시/일용직 근로자	1.05	2.71	7.83	8.69	10.31	20.31	16.73	18.57	10.72	2.27	0.78	
	고용주/자영자	1.92	5.20	8.92	12.43	11.46	23.10	12.55	13.30	8.46	2.28	0.37	
	무급가족종사자	2.17	1.58	4.26	22.51	13.07	18.70	12.48	24.26	0.96	0.00	0.00	
	실업자	1.32	1.14	4.87	5.61	10.72	34.18	15.61	8.88	15.36	2.32	0.00	
	비경제활동인구	3.47	4.20	10.93	12.09	10.67	23.85	11.60	13.79	7.27	1.47	0.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4	5.94	11.29	12.33	10.44	20.85	11.91	13.86	8.94	1.98	0.31	38.431***
	비정규직	1.36	3.66	7.28	10.23	12.16	20.93	15.61	16.62	9.64	1.96	0.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0	4.26	12.60	11.80	11.64	22.35	13.30	12.58	7.34	1.59	0.45	60.337***
	중도적	2.26	3.86	9.16	12.10	9.60	22.82	13.32	15.01	9.77	1.60	0.50	
	진보적	2.49	7.17	9.72	10.98	11.91	20.29	11.10	14.65	8.87	2.50	0.31	

주 1) "(조사표 질문)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안전과 식생활, 주거에 관해 걱정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4〉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0	0.03	0.11	0.60	2.12	8.20	16.71	35.73	29.75	6.27	0.50	
성별	남성	0.00	0.06	0.11	0.81	2.46	8.25	16.09	33.84	30.98	6.96	0.44	21.968**
	여성	0.00	0.00	0.11	0.38	1.77	8.14	17.35	37.66	28.49	5.55	0.55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13	0.79	2.42	4.96	16.09	34.73	32.25	8.29	0.35	229.480***
	30대	0.00	0.00	0.10	0.03	1.16	5.53	13.82	37.52	34.14	7.23	0.46	
	40대	0.00	0.07	0.20	0.39	1.54	8.45	15.43	34.37	32.52	6.06	0.97	
	50대	0.00	0.07	0.00	0.23	1.83	7.13	16.18	36.87	30.36	6.96	0.36	
	60대	0.00	0.00	0.00	0.91	2.77	10.58	19.37	36.92	24.45	4.45	0.55	
	70대	0.00	0.00	0.36	2.11	4.27	18.00	23.27	32.46	17.35	2.18	0.00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65	2.24	7.17	16.10	38.22	28.95	6.54	0.14	38.255***
	비수도권	0.00	0.06	0.23	0.54	2.00	9.25	17.34	33.17	30.57	5.99	0.86	
	대도시	0.00	0.00	0.10	0.79	1.96	7.27	15.03	34.53	33.27	6.72	0.33	49.480***
	중소도시	0.00	0.06	0.11	0.46	2.30	8.31	17.87	36.80	27.33	6.16	0.62	
	농어촌	0.00	0.00	0.20	0.40	1.82	13.50	18.90	35.37	25.10	4.05	0.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15	0.50	2.48	7.37	15.44	21.54	38.82	11.05	2.08	0.56	494.961***
	중하층	0.00	0.04	0.00	0.72	1.98	9.36	20.15	39.01	25.84	2.79	0.12	
	중간층	0.00	0.00	0.03	0.18	1.27	6.23	13.40	34.20	35.22	8.71	0.76	
	중상층(상층)	0.00	0.00	0.73	0.00	1.01	4.26	12.19	23.00	42.38	15.65	0.7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11	0.22	1.47	3.80	12.61	21.63	36.87	19.90	2.52	0.87	333.796***
	200만 원대	0.00	0.00	0.04	0.33	1.54	7.48	17.63	35.32	30.72	6.61	0.31	
	300만 원대	0.00	0.00	0.11	0.23	1.64	5.36	12.33	35.36	38.03	6.64	0.31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1.77	4.87	8.76	39.34	34.25	10.68	0.34	
	500만 원 이상	0.00	0.00	0.39	0.81	0.00	7.95	11.93	25.34	32.35	19.73	1.48	
학력	중졸 이하	0.00	0.13	0.28	2.56	5.66	19.33	25.03	31.93	13.85	1.13	0.10	403.896***
	고졸	0.00	0.03	0.11	0.49	2.10	8.48	16.90	38.59	29.31	3.71	0.28	
	대졸 이상	0.00	0.00	0.08	0.22	1.30	5.30	14.58	34.12	33.90	9.72	0.7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3	0.12	0.07	1.00	4.43	14.20	35.79	35.89	8.04	0.42	340.229***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12	0.14	1.00	3.97	13.83	20.71	38.82	20.37	0.74	0.30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7	0.22	1.44	8.79	16.15	34.68	31.76	6.37	0.52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2.17	7.58	20.79	42.35	23.10	1.84	2.17	
	실업자	0.00	0.00	0.00	4.23	8.82	16.22	22.46	29.83	11.01	7.42	0.00	
	비경제활동인구	0.00	0.00	0.13	1.22	2.90	10.45	18.67	35.29	24.65	5.97	0.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3	0.12	0.08	0.99	5.66	14.24	35.35	35.30	7.82	0.43	161.138***
	비정규직	0.00	0.08	0.09	0.78	3.39	11.33	20.34	38.10	23.24	2.18	0.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0	0.17	1.10	2.50	10.08	19.29	34.42	27.39	4.67	0.38	55.395***
	중도적	0.00	0.07	0.10	0.35	2.08	8.54	15.84	37.08	29.36	6.16	0.42	
	진보적	0.00	0.00	0.08	0.50	1.84	5.99	15.65	34.93	32.44	7.85	0.71	

주 1) "(조사표 질문)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이해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5〉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의 노력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0	0.04	0.14	1.13	2.35	10.06	18.05	34.71	26.12	6.79	0.63	
성별	남성	0.00	0.03	0.14	1.20	2.39	9.80	18.38	33.90	25.85	7.68	0.63	8.268
	여성	0.00	0.04	0.15	1.06	2.30	10.32	17.70	35.53	26.41	5.87	0.62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21	0.87	2.00	9.30	14.89	31.89	29.52	10.98	0.33	286.030***
	30대	0.00	0.00	0.03	0.49	1.35	7.45	12.63	40.85	29.61	6.70	0.88	
	40대	0.00	0.18	0.29	0.76	1.42	8.53	17.90	35.13	27.86	7.28	0.66	
	50대	0.00	0.00	0.02	1.38	1.61	9.14	18.83	35.38	26.63	5.90	1.11	
	60대	0.00	0.00	0.09	1.29	4.71	13.76	19.42	32.24	24.00	4.15	0.35	
	70대	0.00	0.00	0.25	2.95	4.69	15.95	31.55	30.18	10.58	3.85	0.00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98	1.98	8.22	19.83	37.02	25.55	5.84	0.57	55.587***
	비수도권	0.00	0.07	0.29	1.29	2.72	11.95	16.22	32.33	26.71	7.76	0.68	
	대도시	0.00	0.00	0.09	1.23	2.50	9.29	17.41	35.01	26.75	7.25	0.47	37.439**
	중소도시	0.00	0.07	0.11	1.11	2.39	9.90	18.61	34.09	26.43	6.52	0.75	
	농어촌	0.00	0.00	0.72	0.60	0.98	16.38	17.92	37.43	19.56	5.75	0.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00	0.29	3.68	6.29	18.21	24.57	28.36	15.78	2.34	0.47	269.786***
	중하층	0.00	0.04	0.11	1.14	2.49	9.89	20.83	35.80	25.03	4.58	0.09	
	중간층	0.00	0.05	0.16	0.74	1.57	8.80	14.95	35.27	28.91	8.59	0.96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1.01	7.69	13.37	33.87	28.73	13.63	1.6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05	0.20	2.02	4.21	15.32	20.79	33.56	20.08	3.23	0.54	286.715***
	200만 원대	0.00	0.05	0.06	0.96	2.03	8.41	18.37	34.16	27.45	8.23	0.30	
	300만 원대	0.00	0.00	0.13	0.94	1.12	7.30	14.15	37.19	30.31	8.22	0.64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1.67	8.98	18.03	34.52	29.89	6.59	0.34	
	500만 원 이상	0.00	0.00	1.20	0.00	0.90	9.45	17.12	35.33	21.67	7.98	6.34	
학력	중졸 이하	0.00	0.00	0.19	3.07	5.91	22.32	26.19	28.52	11.87	1.83	0.10	329.794***
	고졸	0.00	0.03	0.16	1.11	2.83	10.52	18.86	34.39	25.78	6.07	0.25	
	대졸 이상	0.00	0.05	0.12	0.69	1.08	6.75	15.40	36.45	29.80	8.59	1.0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9	0.06	0.76	1.27	7.49	15.36	35.05	30.63	8.72	0.57	213.467***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0.11	1.70	3.18	15.21	22.68	33.99	19.77	3.26	0.09	
	고용주/자영자	0.00	0.00	0.20	1.12	1.74	9.11	18.96	36.71	24.79	6.34	1.0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4.82	11.01	9.53	44.34	19.45	10.84	0.00	
	실업자	0.00	0.00	0.13	5.24	7.93	18.36	25.44	21.93	17.33	3.64	0.00	
	비경제활동인구	0.00	0.00	0.26	1.07	3.56	11.65	19.03	34.02	23.81	5.84	0.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7	0.13	0.81	1.33	7.69	15.87	35.76	29.55	8.02	0.77	92.763***
	비정규직	0.00	0.00	0.02	1.53	2.89	13.53	21.85	34.37	20.69	4.98	0.1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0	0.15	1.53	3.81	12.13	20.80	31.68	24.43	5.06	0.42	87.712***
	중도적	0.00	0.08	0.16	1.30	1.60	10.59	17.31	36.62	25.61	6.02	0.69	
	진보적	0.00	0.00	0.11	0.52	2.10	7.41	16.62	34.67	28.41	9.46	0.71	

주 1) "(조사표 질문)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모든 상황을 개선하려고 행동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6〉 향후 더 큰 행복을 위한 현재의 행복 포기 가능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0	0.58	2.33	6.42	8.69	18.34	17.65	23.89	17.09	4.02	0.69	
성별	남성	0.29	0.68	2.06	6.72	8.47	19.19	17.27	23.21	17.08	4.42	0.61	9.181
	여성	0.31	0.47	2.61	6.11	8.91	17.48	18.04	24.59	17.11	3.61	0.77	
연령대	20대 이하	0.14	0.25	1.55	5.99	6.70	19.49	14.81	24.09	21.07	4.83	1.09	142.019***
	30대	0.00	0.72	2.74	5.94	8.97	15.56	17.09	24.08	18.87	5.18	0.84	
	40대	0.11	0.39	2.76	6.85	7.78	15.79	18.82	25.21	17.31	4.34	0.63	
	50대	0.53	0.64	2.47	5.07	7.90	18.41	17.02	26.28	16.35	4.81	0.52	
	60대	0.56	0.76	1.95	7.70	11.68	21.13	17.02	21.88	14.54	2.07	0.71	
	70대	0.63	0.93	2.52	8.25	10.89	22.21	24.70	17.94	11.02	0.92	0.00	
지역	수도권	0.43	0.33	1.02	4.83	9.33	18.56	18.80	25.79	16.76	3.95	0.20	100.174***
	비수도권	0.16	0.83	3.67	8.06	8.02	18.13	16.47	21.94	17.44	4.10	1.18	
	대도시	0.25	0.38	2.24	5.59	8.57	16.42	17.15	26.21	18.57	4.17	0.44	56.629***
	중소도시	0.34	0.76	2.12	7.12	9.30	20.34	18.00	21.36	15.91	3.86	0.89	
	농어촌	0.31	0.50	4.54	6.53	4.73	15.65	18.19	28.14	16.40	4.28	0.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8	1.03	2.59	6.21	12.23	22.94	21.00	21.47	8.61	3.01	0.82	114.717***
	중하층	0.25	0.76	2.33	6.56	9.35	19.09	18.50	24.28	15.50	3.12	0.25	
	중간층	0.31	0.30	2.36	6.80	7.54	16.67	16.45	24.26	19.78	4.42	1.10	
	중상층(상층)	0.80	0.68	1.80	3.48	7.42	18.48	15.98	22.72	20.52	7.92	0.1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4	0.49	2.58	5.69	10.20	21.87	20.31	22.18	13.74	2.17	0.63	118.876***
	200만 원대	0.24	0.81	2.55	7.07	7.89	16.47	17.49	24.41	18.33	4.04	0.70	
	300만 원대	0.70	0.52	2.28	6.28	7.30	15.63	16.94	25.29	19.54	5.00	0.52	
	400만 원대	0.09	0.00	0.98	6.33	9.29	22.99	11.93	25.47	16.04	5.88	1.01	
	500만 원 이상	0.13	0.00	0.90	5.03	14.61	21.03	16.09	18.05	14.61	8.20	1.35	
학력	중졸 이하	0.11	0.53	2.28	6.52	14.80	24.08	20.53	18.69	11.26	0.86	0.34	108.995***
	고졸	0.21	0.66	2.64	6.90	8.30	18.36	19.20	23.02	16.22	3.97	0.53	
	대졸 이상	0.42	0.52	2.07	5.98	7.58	16.97	15.61	25.89	19.24	4.82	0.9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8	0.64	2.47	5.96	8.47	16.22	16.05	25.28	19.29	4.58	0.86	88.663**
	임시/일용직 근로자	0.10	0.38	1.69	7.02	8.46	19.61	23.52	23.46	13.57	1.94	0.25	
	고용주/자영자	0.48	0.40	2.11	7.45	7.95	19.82	17.02	24.82	15.83	3.44	0.69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1.56	3.96	6.33	17.27	18.59	22.50	21.02	7.25	1.51	
	실업자	0.00	1.75	1.94	11.21	11.22	22.50	20.40	16.80	9.35	4.83	0.00	
	비경제활동인구	0.50	0.61	2.65	5.65	9.56	19.78	17.55	21.81	16.83	4.40	0.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8	0.63	2.25	6.43	8.16	16.92	15.93	25.27	18.94	4.41	0.79	45.744***
	비정규직	0.12	0.24	2.23	6.70	8.73	19.94	22.15	23.62	13.37	2.37	0.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9	0.97	2.06	6.38	10.25	21.95	16.64	21.93	15.08	3.40	0.77	62.279***
	중도적	0.30	0.39	2.52	6.37	8.18	17.20	17.65	26.29	17.14	3.30	0.67	
	진보적	0.04	0.50	2.31	6.54	8.01	16.75	18.55	22.18	18.86	5.64	0.63	

주 1) "(조사표 질문) 나는 향후의 더 큰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다소 포기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7〉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0	0.07	0.15	1.53	4.22	13.77	19.92	31.32	24.71	4.00	0.32	
성별	남성	0.29	0.11	0.16	1.62	4.48	14.29	19.52	29.80	25.17	4.52	0.33	11.463
	여성	0.31	0.03	0.14	1.44	3.95	13.24	20.32	32.87	24.24	3.48	0.30	
연령대	20대 이하	0.14	0.00	0.10	1.34	3.73	12.95	16.57	31.06	27.86	5.75	0.65	172.029***
	30대	0.00	0.00	0.18	0.85	3.25	9.50	17.03	37.32	27.05	4.44	0.39	
	40대	0.11	0.00	0.29	0.52	4.73	13.20	20.06	31.19	25.63	4.18	0.20	
	50대	0.53	0.20	0.02	2.60	3.07	12.33	22.66	29.72	26.74	2.61	0.05	
	60대	0.56	0.18	0.10	1.88	5.59	17.68	21.33	28.29	20.63	3.88	0.45	
	70대	0.63	0.00	0.27	2.46	6.26	21.80	23.33	29.39	13.74	2.60	0.15	
지역	수도권	0.43	0.00	0.00	1.51	4.16	13.16	21.03	33.27	24.22	2.65	0.00	63.012***
	비수도권	0.16	0.14	0.30	1.55	4.27	14.39	18.78	29.31	25.21	5.40	0.64	
	대도시	0.25	0.07	0.13	1.15	4.95	11.89	19.75	32.42	25.30	4.13	0.22	40.858**
	중소도시	0.34	0.05	0.14	1.76	3.61	14.43	19.96	30.95	24.86	3.88	0.35	
	농어촌	0.31	0.21	0.36	2.27	4.04	21.13	20.65	26.89	19.65	4.11	0.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8	0.43	0.54	5.46	10.11	20.78	24.35	26.12	10.28	1.75	0.17	345.633***
	중하층	0.25	0.07	0.16	1.53	5.43	15.61	21.74	30.85	22.37	2.08	0.16	
	중간층	0.31	0.00	0.08	0.89	2.17	11.11	18.33	33.20	28.40	5.46	0.37	
	중상층(상층)	0.80	0.00	0.00	0.17	2.46	10.81	13.84	29.11	34.06	8.46	1.0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4	0.16	0.27	2.97	7.54	17.55	22.48	29.09	16.52	2.91	0.52	211.325***
	200만 원대	0.24	0.06	0.13	1.61	3.68	13.16	20.25	30.21	26.56	4.16	0.19	
	300만 원대	0.70	0.00	0.00	0.31	2.50	11.96	17.34	34.04	28.68	4.98	0.20	
	400만 원대	0.09	0.00	0.00	0.15	1.39	8.08	18.06	37.00	31.63	3.17	0.51	
	500만 원 이상	0.13	0.00	0.77	0.00	2.07	16.23	15.87	32.83	25.00	6.61	0.62	
학력	중졸 이하	0.11	0.25	0.48	3.37	8.02	22.12	25.41	27.68	10.36	2.19	0.11	216.891***
	고졸	0.21	0.10	0.16	1.92	5.31	14.19	20.74	29.94	23.78	3.49	0.37	
	대졸 이상	0.42	0.00	0.06	0.76	2.36	11.42	17.89	33.39	28.92	4.88	0.3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8	0.00	0.11	0.65	2.47	9.74	18.64	32.88	30.72	4.49	0.29	421.529***
	임시/일용직 근로자	0.10	0.11	0.20	4.17	9.05	19.77	23.74	27.98	13.34	1.55	0.09	
	고용주/자영자	0.48	0.00	0.13	0.64	3.26	15.59	20.84	32.20	22.53	4.28	0.54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7.77	21.47	14.49	26.41	23.81	3.87	2.17	
	실업자	0.00	2.11	0.60	8.43	9.90	28.58	20.43	16.65	12.18	1.11	0.00	
	비경제활동인구	0.50	0.00	0.15	1.68	4.76	14.35	19.55	31.40	23.28	4.53	0.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8	0.00	0.08	0.64	2.42	11.30	18.70	33.08	29.01	4.44	0.34	176.689***
	비정규직	0.12	0.07	0.27	2.86	7.75	17.86	23.67	28.34	16.29	2.56	0.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9	0.00	0.03	2.57	4.93	15.91	20.65	30.16	22.96	2.56	0.23	55.903***
	중도적	0.30	0.09	0.20	1.42	4.01	13.82	19.98	32.22	24.01	4.01	0.23	
	진보적	0.04	0.10	0.17	0.75	3.88	11.76	19.16	31.05	27.30	5.30	0.53	

주 1) "(조사표 질문) 나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바라는 만큼 만족스럽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8〉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월평균 최소 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만원]	F
전체		347.85	
성별	남성	353.95	1.003
	여성	341.60	
연령대	20대 이하	371.77	123.457***
	30대	352.67	
	40대	384.28	
	50대	392.42	
	60대	286.40	
	70대	207.97	
지역	수도권	349.56	22.098***
	비수도권	346.10	
	대도시	371.25	38.011***
	중소도시	330.32	
	농어촌	328.5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0.01	60.333***
	중하층	343.53	
	중간층	365.82	
	중상층(상층)	379.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55.08	193.770***
	200만 원대	356.87	
	300만 원대	401.73	
	400만 원대	446.53	
	500만 원 이상	401.41	
학력	중졸 이하	213.05	254.417***
	고졸	346.59	
	대졸 이상	380.9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9.08	27.640***
	임시/일용직 근로자	311.78	
	고용주/자영자	369.00	
	무급가족종사자	384.80	
	실업자	284.47	
	비경제활동인구	319.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72.50	3.199*
	비정규직	323.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2.15	22.290***
	중도적	356.08	
	진보적	359.14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_____님 가족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소득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9〉 생활영역 만족 : 생활수준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0	0.23	1.08	2.95	5.13	18.16	19.21	24.22	19.90	8.25	0.77	
성별	남성	0.09	0.29	1.12	2.92	5.32	17.81	19.60	25.18	18.41	8.39	0.87	10.532
	여성	0.10	0.17	1.05	2.99	4.95	18.52	18.80	23.23	21.43	8.10	0.66	
연령대	20대 이하	0.02	0.13	0.91	1.82	2.85	16.64	17.56	28.62	21.99	8.54	0.92	173.208***
	30대	0.06	0.03	0.76	1.71	4.14	18.00	21.34	23.28	21.03	8.93	0.71	
	40대	0.07	0.18	0.75	2.98	5.40	18.34	18.61	23.76	20.40	8.51	1.00	
	50대	0.14	0.02	0.40	2.31	4.53	17.48	19.35	26.26	19.21	9.46	0.84	
	60대	0.18	0.84	2.22	4.30	6.63	17.96	19.26	22.28	18.73	7.26	0.33	
	70대	0.15	0.34	2.48	6.85	10.08	23.31	19.31	16.47	15.89	4.50	0.63	
지역	수도권	0.00	0.15	1.02	2.82	5.68	18.96	22.08	22.43	17.67	8.55	0.63	56.067***
	비수도권	0.20	0.31	1.15	3.09	4.57	17.34	16.25	26.05	22.19	7.94	0.91	
	대도시	0.07	0.18	1.09	2.81	4.80	18.52	21.06	24.30	18.07	8.57	0.54	34.905*
	중소도시	0.08	0.30	1.06	2.89	5.38	17.56	17.91	24.43	21.29	8.30	0.78	
	농어촌	0.40	0.00	1.23	4.32	5.41	20.49	16.94	21.97	21.36	5.73	2.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5	1.60	6.28	13.60	12.40	26.49	12.61	12.12	10.17	3.26	0.52	1247.849***
	중하층	0.01	0.02	0.97	3.76	7.56	24.05	24.63	22.60	12.12	3.77	0.52	
	중간층	0.00	0.15	0.22	0.25	2.00	13.14	18.04	28.67	26.14	10.48	0.90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96	1.73	6.16	5.82	21.48	36.54	25.69	1.6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5	0.88	3.02	6.92	9.70	23.39	17.02	17.75	16.35	4.38	0.24	544.554***
	200만 원대	0.00	0.00	0.66	2.09	4.86	19.69	20.19	25.64	18.26	7.56	1.04	
	300만 원대	0.00	0.00	0.07	0.94	2.26	13.33	19.97	29.60	22.08	10.97	0.80	
	400만 원대	0.06	0.00	0.00	0.52	0.86	8.94	21.10	25.13	29.82	13.41	0.15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81	0.33	8.94	14.59	20.77	32.91	18.93	2.70	
학력	중졸 이하	0.50	1.59	4.59	9.07	10.19	25.21	16.85	16.00	12.67	3.17	0.17	396.555***
	고졸	0.09	0.05	0.79	3.83	5.52	18.81	20.50	23.25	18.58	7.69	0.90	
	대졸 이상	0.01	0.06	0.51	0.73	3.60	15.93	18.64	27.02	22.77	9.94	0.7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1	0.05	0.31	1.43	3.19	15.03	17.68	27.39	23.99	10.07	0.84	423.197***
	임시/일용직 근로자	0.41	0.54	1.93	5.99	9.47	27.61	19.21	19.44	11.09	4.04	0.27	
	고용주/자영자	0.00	0.00	0.59	1.39	4.81	18.04	22.97	23.10	19.61	8.19	1.30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7.92	19.42	11.20	32.04	25.22	4.18	0.00	
	실업자	1.08	0.44	7.13	13.43	13.45	27.29	13.39	13.29	7.59	2.92	0.00	
	비경제활동인구	0.05	0.55	1.74	4.18	5.51	17.77	19.77	23.04	18.80	8.01	0.5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1	0.01	0.32	1.08	3.34	15.77	18.68	26.62	23.44	9.83	0.90	230.731***
	비정규직	0.26	0.41	1.57	5.21	8.51	24.02	20.73	20.51	13.15	4.90	0.7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42	2.02	4.94	6.52	18.97	20.21	19.74	16.94	10.07	0.17	109.769***
	중도적	0.14	0.03	0.54	2.23	4.56	18.78	19.50	25.85	20.79	6.62	0.96	
	진보적	0.11	0.35	1.02	2.21	4.71	16.55	17.87	25.90	21.29	8.96	1.03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의 생활수준(소득과 소비수준)"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0〉 생활영역 만족 : 건강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2	0.21	0.56	1.11	3.00	7.57	11.50	24.03	30.41	17.55	3.94	
성별	남성	0.15	0.19	0.73	0.73	2.78	7.81	10.60	23.36	30.41	18.74	4.49	23.682**
	여성	0.09	0.22	0.40	1.50	3.23	7.33	12.41	24.71	30.41	16.33	3.37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7	0.00	0.06	2.08	4.59	5.03	17.79	32.80	27.78	9.80	837.841***
	30대	0.03	0.00	0.02	0.08	1.59	3.08	7.05	23.18	37.17	23.16	4.64	
	40대	0.25	0.06	0.04	0.89	1.56	5.99	10.03	25.19	34.74	18.07	3.18	
	50대	0.12	0.02	0.46	0.85	2.71	7.33	14.73	27.60	30.21	14.08	1.90	
	60대	0.18	0.87	1.68	1.43	4.85	12.26	18.07	25.70	23.20	10.07	1.67	
	70대	0.16	0.50	2.28	5.96	8.45	18.68	17.84	24.64	15.32	5.31	0.88	
지역	수도권	0.03	0.14	0.53	0.75	3.18	6.78	12.01	25.83	31.57	15.92	3.26	40.215***
	비수도권	0.22	0.28	0.59	1.48	2.82	8.39	10.96	22.18	29.22	19.22	4.63	
	대도시	0.21	0.04	0.24	0.68	2.88	6.39	12.25	25.64	30.30	17.79	3.57	63.192***
	중소도시	0.03	0.34	0.86	1.28	3.02	8.00	10.72	22.45	31.51	17.72	4.08	
	농어촌	0.21	0.28	0.39	2.70	3.64	12.17	12.45	25.58	22.71	14.66	5.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4	0.65	3.76	3.77	9.06	13.26	14.45	23.76	19.04	9.03	1.99	437.344***
	중하층	0.00	0.30	0.23	1.26	3.18	8.31	13.60	26.14	29.04	15.03	2.92	
	중간층	0.00	0.06	0.24	0.45	1.54	6.02	9.77	22.76	33.71	20.55	4.89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82	2.97	5.58	6.82	20.80	32.70	24.14	6.1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44	0.74	2.03	2.91	6.24	14.06	13.13	24.76	22.72	10.58	2.40	487.111***
	200만 원대	0.00	0.00	0.06	0.44	2.01	5.90	12.21	24.41	32.98	17.66	4.34	
	300만 원대	0.00	0.00	0.02	0.69	1.34	4.31	9.98	24.08	32.72	22.23	4.63	
	400만 원대	0.06	0.00	0.00	0.14	1.34	4.85	8.27	21.30	35.40	26.33	2.32	
	500만 원 이상	0.00	0.39	0.00	0.34	4.41	4.47	6.35	19.00	32.81	21.63	10.60	
학력	중졸 이하	0.81	1.44	3.45	6.07	9.74	18.30	19.25	19.97	14.81	5.44	0.71	760.250***
	고졸	0.06	0.00	0.37	0.74	3.32	7.96	12.57	25.57	29.83	15.99	3.59	
	대졸 이상	0.01	0.09	0.05	0.26	1.13	4.69	8.71	23.65	34.63	21.78	5.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1	0.01	0.06	0.07	1.11	4.62	8.08	24.10	34.03	22.61	5.30	521.723***
	임시/일용직 근로자	0.20	0.10	0.81	2.32	6.04	11.28	17.47	22.56	27.38	10.18	1.66	
	고용주/자영자	0.00	0.15	0.18	0.91	3.23	8.89	13.26	26.15	31.02	13.74	2.48	
	무급가족종사자	0.00	1.18	0.58	0.00	2.17	10.76	21.99	20.26	26.50	13.36	3.18	
	실업자	1.68	0.00	6.63	2.91	8.85	24.02	9.84	16.52	11.59	15.27	2.70	
	비경제활동인구	0.20	0.64	0.94	2.28	3.92	7.84	12.79	23.94	27.44	15.96	4.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1	0.05	0.10	0.12	1.68	5.20	9.66	24.45	33.55	20.57	4.60	197.169***
	비정규직	0.13	0.13	0.57	2.17	4.73	11.57	15.17	24.00	27.95	11.46	2.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4	0.45	1.32	1.63	4.73	11.25	14.87	24.77	25.77	12.91	2.27	185.349***
	중도적	0.11	0.09	0.33	1.19	2.65	6.78	10.45	25.82	31.19	16.94	4.44	
	진보적	0.21	0.16	0.21	0.54	1.95	5.40	9.96	20.76	33.49	22.62	4.7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의 건강"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1〉 생활영역 만족 : 삶에서 성취한 것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8	0.18	0.39	1.68	4.84	11.68	18.76	24.72	23.23	13.09	1.35	
성별	남성	0.00	0.21	0.46	2.04	5.09	11.49	18.18	25.66	21.71	13.78	1.38	19.319*
	여성	0.17	0.15	0.32	1.32	4.59	11.87	19.35	23.75	24.78	12.38	1.33	
연령대	20대 이하	0.31	0.13	0.07	1.40	4.03	9.69	16.80	23.15	27.33	15.78	1.32	213.804***
	30대	0.00	0.00	0.15	0.64	3.35	10.81	17.76	28.42	20.75	16.34	1.78	
	40대	0.00	0.07	0.57	1.83	4.48	10.59	17.15	25.27	24.66	13.66	1.72	
	50대	0.06	0.09	0.15	0.82	3.94	10.47	20.27	25.39	25.61	11.61	1.58	
	60대	0.00	0.20	0.64	2.89	6.51	15.02	20.30	24.05	20.06	9.78	0.55	
	70대	0.15	1.08	1.31	3.91	9.57	16.99	22.22	18.91	16.24	9.03	0.60	
지역	수도권	0.11	0.13	0.28	1.59	5.33	11.55	20.95	25.54	21.41	11.93	1.16	35.628***
	비수도권	0.05	0.23	0.51	1.77	4.35	11.81	16.50	23.87	25.09	14.27	1.55	
	대도시	0.13	0.16	0.30	1.48	5.27	11.77	20.15	23.43	23.67	12.43	1.22	50.794***
	중소도시	0.00	0.22	0.44	1.95	4.28	10.53	17.84	26.25	23.28	13.81	1.41	
	농어촌	0.40	0.08	0.65	1.00	6.39	19.99	16.64	21.37	19.90	11.82	1.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7	0.98	2.50	8.19	13.42	19.51	17.81	17.58	12.83	6.06	0.85	780.693***
	중하층	0.00	0.19	0.31	1.97	5.75	15.18	23.55	25.80	18.94	7.45	0.86	
	중간층	0.13	0.03	0.07	0.25	2.72	8.00	16.89	26.11	27.38	17.06	1.36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20	1.53	4.96	5.50	19.74	34.81	28.55	4.7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0	0.57	1.14	4.45	9.12	15.28	21.43	20.57	17.03	9.43	0.89	399.274***
	200만 원대	0.14	0.05	0.20	1.08	4.01	12.14	19.65	26.11	23.28	12.35	1.01	
	300만 원대	0.00	0.00	0.00	0.31	3.15	8.56	17.01	27.08	27.20	15.06	1.64	
	400만 원대	0.00	0.00	0.17	0.00	1.05	7.57	11.24	26.25	32.26	19.45	2.02	
	500만 원 이상	0.00	0.39	0.00	0.00	0.99	6.39	14.43	21.18	25.72	24.79	6.11	
학력	중졸 이하	0.11	1.23	2.10	5.65	13.03	19.41	21.07	17.58	13.30	6.23	0.28	393.560***
	고졸	0.03	0.01	0.27	1.84	4.52	12.37	20.47	22.85	23.54	12.53	1.56	
	대졸 이상	0.12	0.08	0.09	0.60	3.18	9.24	16.71	28.05	25.30	15.19	1.4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2	0.13	0.42	3.12	8.84	16.59	26.28	26.17	16.80	1.63	483.365***
	임시/일용직 근로자	0.11	0.37	1.04	2.73	9.01	16.51	23.49	23.03	15.25	8.44	0.02	
	고용주/자영자	0.00	0.07	0.14	1.07	3.00	11.55	19.55	26.88	24.89	11.63	1.24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1.18	5.52	26.95	6.74	23.21	30.65	5.75	0.00	
	실업자	2.17	1.08	1.09	10.78	20.48	19.05	23.36	14.66	3.16	4.18	0.00	
	비경제활동인구	0.05	0.35	0.66	2.82	5.39	12.93	19.29	22.35	22.92	11.41	1.8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3	0.11	0.37	2.67	9.48	16.91	26.61	26.58	15.82	1.41	198.868***
	비정규직	0.07	0.26	0.78	2.67	8.07	15.20	22.56	23.77	17.04	8.82	0.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34	0.35	2.51	7.03	14.88	18.06	23.27	21.24	11.85	0.48	81.877***
	중도적	0.06	0.12	0.34	1.46	4.05	11.25	20.44	24.99	22.96	12.62	1.72	
	진보적	0.19	0.13	0.52	1.26	4.03	9.41	16.95	25.63	25.41	14.88	1.6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께서 삶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2〉 생활영역 만족 : 가족 관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0	0.15	0.40	1.05	2.14	7.43	13.58	26.36	27.65	17.59	3.54	
성별	남성	0.11	0.25	0.46	1.20	1.91	7.38	13.76	25.48	28.78	17.16	3.51	11.088
	여성	0.09	0.05	0.35	0.90	2.38	7.47	13.39	27.26	26.49	18.04	3.58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5	0.81	1.56	5.96	10.74	27.30	30.17	18.92	4.48	227.101***
	30대	0.00	0.00	0.41	0.49	1.04	6.29	9.39	25.30	33.16	20.18	3.73	
	40대	0.00	0.17	0.34	0.78	2.36	5.71	14.29	24.40	29.02	18.96	3.98	
	50대	0.06	0.07	0.53	0.92	1.89	6.63	13.91	29.04	24.36	19.71	2.87	
	60대	0.37	0.67	0.17	2.16	2.79	9.88	17.18	26.73	23.69	13.36	2.99	
	70대	0.37	0.00	1.40	1.68	4.50	14.24	18.99	23.91	23.07	9.02	2.82	
지역	수도권	0.04	0.05	0.15	1.12	1.67	6.36	15.63	29.93	25.26	16.85	2.95	86.478***
	비수도권	0.17	0.26	0.67	0.98	2.63	8.53	11.47	22.69	30.09	18.36	4.16	
	대도시	0.11	0.14	0.41	1.16	1.73	6.46	13.22	27.88	27.97	17.52	3.39	76.076***
	중소도시	0.03	0.18	0.35	1.07	2.50	7.05	13.85	25.15	27.59	18.62	3.62	
	농어촌	0.66	0.00	0.78	0.26	2.10	16.79	13.79	25.55	25.95	10.17	3.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2	1.02	2.99	5.21	6.12	17.53	16.87	24.06	14.38	8.55	2.35	618.302***
	중하층	0.03	0.14	0.15	1.22	2.69	8.39	15.62	28.90	27.55	12.58	2.74	
	중간층	0.00	0.00	0.10	0.11	0.86	5.05	11.86	26.32	29.58	22.34	3.78	
	중상층(상층)	0.00	0.00	0.15	0.46	1.81	3.28	8.66	15.68	34.24	27.54	8.1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4	0.48	1.04	2.54	3.99	13.01	15.34	25.41	23.32	12.34	2.19	286.667***
	200만 원대	0.00	0.00	0.17	0.54	1.74	6.24	14.55	27.21	27.54	18.04	3.97	
	300만 원대	0.00	0.12	0.08	0.61	1.25	4.11	11.36	25.09	31.75	21.54	4.09	
	400만 원대	0.17	0.00	0.40	0.43	0.00	4.62	9.45	30.92	29.52	21.69	2.81	
	500만 원 이상	0.00	0.00	0.39	0.00	3.21	5.82	10.76	20.37	33.03	19.07	7.35	
학력	중졸 이하	0.43	0.88	1.57	4.00	6.23	16.36	17.98	23.62	17.70	9.13	2.10	372.541***
	고졸	0.10	0.12	0.21	1.03	2.61	8.52	14.53	27.61	25.35	16.20	3.72	
	대졸 이상	0.03	0.01	0.30	0.38	0.76	4.35	11.70	25.91	32.01	20.82	3.7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3	0.04	0.10	0.56	1.08	4.93	11.75	25.18	32.16	20.20	3.97	361.464***
	임시/일용직 근로자	0.40	0.39	1.10	2.78	4.52	12.64	17.50	29.22	20.05	8.68	2.71	
	고용주/자영자	0.15	0.14	0.41	0.42	1.66	6.36	15.92	29.34	26.83	15.02	3.76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2.19	6.61	17.55	24.75	18.05	30.85	0.00	
	실업자	0.00	1.08	1.55	3.63	9.93	26.12	17.06	13.62	13.12	11.95	1.95	
	비경제활동인구	0.05	0.14	0.45	1.28	2.29	7.87	12.38	26.01	26.28	19.91	3.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7	0.05	0.16	0.49	1.16	4.88	12.65	26.34	31.18	19.30	3.71	172.058***
	비정규직	0.25	0.33	0.86	2.00	3.61	11.37	17.15	28.55	21.52	10.79	3.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2	0.06	0.58	1.75	2.84	8.91	17.77	26.04	23.98	15.48	2.46	94.523***
	중도적	0.12	0.09	0.39	1.03	2.19	7.81	12.88	27.11	27.11	17.39	3.89	
	진보적	0.06	0.33	0.26	0.47	1.44	5.53	10.80	25.55	31.73	19.80	4.03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의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3〉 생활영역 만족 : 사회적 친분 관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0	0.09	0.49	0.85	2.16	8.48	16.53	28.54	28.68	12.54	1.64	
성별	남성	0.00	0.13	0.66	0.74	1.94	8.52	16.69	28.01	29.11	12.40	1.80	7.440
	여성	0.00	0.04	0.30	0.97	2.38	8.44	16.38	29.09	28.24	12.68	1.48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76	0.35	1.23	8.64	13.08	26.41	32.04	15.92	1.58	218.127***
	30대	0.00	0.00	0.10	0.32	0.86	6.39	14.48	30.43	32.99	12.77	1.66	
	40대	0.00	0.17	0.22	0.34	1.53	7.81	15.88	28.61	29.64	13.83	1.97	
	50대	0.00	0.02	0.07	0.40	2.36	7.60	17.25	29.31	28.06	13.45	1.48	
	60대	0.00	0.18	1.00	2.05	3.86	10.30	18.73	28.10	25.38	8.66	1.76	
	70대	0.00	0.25	1.37	3.07	4.58	12.75	23.79	28.06	18.22	6.80	1.11	
지역	수도권	0.00	0.00	0.57	0.78	1.63	7.41	18.92	31.54	27.11	10.57	1.47	74.273***
	비수도권	0.00	0.18	0.40	0.93	2.69	9.58	14.09	25.47	30.30	14.56	1.81	
	대도시	0.00	0.14	0.23	0.54	1.85	8.11	18.45	29.62	27.81	11.91	1.33	49.694***
	중소도시	0.00	0.02	0.71	1.03	2.29	8.27	14.64	27.81	30.13	13.35	1.75	
	농어촌	0.00	0.20	0.42	1.53	3.11	12.65	18.53	27.08	23.26	10.42	2.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85	2.07	5.14	7.44	14.56	23.40	24.05	16.06	5.75	0.69	614.700***
	중하층	0.00	0.01	0.74	0.71	1.79	10.76	20.45	30.35	25.67	8.51	1.01	
	중간층	0.00	0.00	0.00	0.18	1.45	5.68	13.36	29.87	32.05	15.37	2.04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1.35	5.39	5.69	16.23	41.37	26.14	3.8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33	1.74	2.49	4.73	13.07	20.03	26.94	20.55	8.23	1.89	411.766***
	200만 원대	0.00	0.00	0.04	0.36	1.86	8.73	17.96	27.39	30.33	12.08	1.25	
	300만 원대	0.00	0.00	0.00	0.18	0.44	3.96	12.66	32.20	32.23	16.75	1.58	
	400만 원대	0.00	0.00	0.17	0.12	0.57	3.53	11.95	28.79	38.26	14.78	1.83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00	0.00	9.23	5.40	32.06	27.74	20.93	4.65	
학력	중졸 이하	0.00	0.74	2.44	5.10	6.61	14.24	23.45	24.73	16.08	5.21	1.39	464.673***
	고졸	0.00	0.00	0.44	0.31	2.52	9.84	17.40	29.47	27.15	11.48	1.38	
	대졸 이상	0.00	0.01	0.06	0.32	0.78	5.94	14.14	28.63	33.01	15.20	1.9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1	0.19	0.24	0.60	5.52	13.83	29.46	33.34	15.16	1.66	381.835***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1.36	1.69	5.19	15.59	22.42	22.89	21.84	7.90	1.12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7	0.39	1.96	8.68	16.52	28.78	28.81	12.89	1.90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3.73	10.31	14.54	32.99	32.15	5.39	0.89	
	실업자	0.00	1.08	3.62	3.47	8.63	13.60	34.63	19.14	10.84	4.85	0.15	
	비경제활동인구	0.00	0.23	0.55	1.58	2.68	9.18	16.26	30.56	25.93	11.19	1.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15	0.25	0.74	5.84	14.11	29.55	32.86	14.82	1.68	220.178***
	비정규직	0.00	0.02	0.93	1.26	4.54	14.23	21.13	24.52	22.97	8.94	1.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5	0.65	1.26	2.93	10.53	19.78	29.89	24.16	9.24	1.52	73.784***
	중도적	0.00	0.03	0.56	0.78	1.97	8.17	15.96	27.98	29.42	13.75	1.38	
	진보적	0.00	0.21	0.22	0.59	1.73	7.09	14.43	28.14	31.70	13.77	2.13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의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4〉 생활영역 만족 : 안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5	0.03	0.40	1.20	2.67	8.26	16.00	27.89	28.46	13.70	1.34	
성별	남성	0.10	0.06	0.52	1.01	2.96	8.24	14.93	27.64	28.94	14.05	1.53	16.076
	여성	0.00	0.01	0.27	1.38	2.38	8.27	17.10	28.13	27.97	13.34	1.14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6	0.17	2.47	6.24	12.96	27.62	33.00	15.16	2.32	299.324***
	30대	0.03	0.00	0.10	0.41	1.08	5.17	13.92	31.41	31.61	15.55	0.71	
	40대	0.00	0.07	0.24	0.28	2.68	7.79	15.67	27.66	26.35	17.08	2.17	
	50대	0.00	0.09	0.28	1.60	1.62	7.31	16.78	28.77	30.37	12.32	0.86	
	60대	0.29	0.00	0.84	2.11	5.23	12.03	17.32	25.63	24.85	10.79	0.93	
	70대	0.00	0.00	1.58	4.46	4.16	15.22	23.11	23.86	19.44	7.69	0.49	
지역	수도권	0.00	0.00	0.14	1.18	2.28	7.88	18.45	28.17	28.42	12.13	1.35	46.649***
	비수도권	0.10	0.07	0.66	1.21	3.08	8.64	13.50	27.60	28.51	15.31	1.33	
	대도시	0.07	0.00	0.41	0.59	2.12	8.30	17.79	27.24	29.66	12.81	1.01	71.337***
	중소도시	0.01	0.07	0.38	1.67	3.05	7.46	14.83	27.77	28.38	14.88	1.51	
	농어촌	0.26	0.00	0.52	1.56	3.43	14.19	13.24	33.10	21.15	10.42	2.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2	0.15	2.62	5.68	7.44	15.90	20.50	24.39	14.18	8.28	0.35	569.880***
	중하층	0.00	0.02	0.35	0.95	3.19	9.73	19.71	30.45	26.10	8.22	1.28	
	중간층	0.00	0.03	0.02	0.60	1.43	6.04	13.12	27.48	31.93	18.06	1.29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12	1.13	3.61	7.69	21.19	39.27	23.63	3.3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9	0.08	1.15	3.36	6.00	13.04	17.27	24.72	23.23	10.00	0.94	375.168***
	200만 원대	0.00	0.00	0.14	0.50	1.81	8.11	17.26	28.73	28.55	13.24	1.65	
	300만 원대	0.00	0.00	0.00	0.47	1.31	4.76	13.42	31.70	30.28	16.76	1.29	
	400만 원대	0.00	0.00	0.52	0.09	0.24	2.65	14.93	27.41	38.62	15.17	0.36	
	500만 원 이상	0.00	0.39	0.00	0.00	1.41	7.21	8.55	18.60	34.25	26.51	3.07	
학력	중졸 이하	0.40	0.13	2.27	5.50	7.74	17.69	19.93	23.41	17.84	4.60	0.47	455.669***
	고졸	0.01	0.00	0.29	0.98	3.01	9.62	16.77	27.47	27.64	12.95	1.25	
	대졸 이상	0.00	0.04	0.05	0.36	1.18	4.82	14.40	29.31	31.71	16.52	1.6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1	0.01	0.06	0.38	1.50	5.44	13.56	26.93	34.58	15.91	1.61	420.024***
	임시/일용직 근로자	0.14	0.14	0.93	2.01	4.91	12.98	26.32	24.82	17.84	9.69	0.22	
	고용주/자영자	0.00	0.07	0.47	0.62	2.11	8.03	15.62	30.30	28.61	13.11	1.06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4.84	13.34	15.92	36.98	18.09	10.83	0.00	
	실업자	1.08	0.00	1.30	5.38	14.98	11.64	25.76	16.04	21.86	1.81	0.15	
	비경제활동인구	0.00	0.00	0.57	2.22	2.57	10.33	14.15	30.24	24.29	13.80	1.8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1	0.02	0.15	0.43	1.63	5.71	13.50	27.81	33.47	15.97	1.30	196.536***
	비정규직	0.09	0.11	0.75	1.48	4.02	12.28	23.89	26.80	20.69	8.91	0.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1	0.52	2.04	3.56	12.34	17.93	24.72	25.35	12.68	0.85	104.655***
	중도적	0.00	0.06	0.38	0.83	2.77	7.36	16.27	29.03	29.30	12.66	1.34	
	진보적	0.17	0.01	0.32	0.96	1.73	5.87	13.88	29.08	30.07	16.14	1.77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의 안전"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5〉 생활영역 만족 : 안정성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1	0.48	1.09	2.67	4.57	12.31	17.22	24.24	24.79	11.40	1.11	
성별	남성	0.13	0.64	1.07	2.40	5.19	12.40	16.97	24.16	24.57	11.38	1.09	8.920
	여성	0.09	0.32	1.12	2.94	3.94	12.22	17.48	24.32	25.01	11.43	1.13	
연령대	20대 이하	0.15	0.19	1.20	1.20	4.07	9.32	16.43	23.56	28.42	13.08	2.37	259.911***
	30대	0.03	0.12	0.59	1.07	1.85	12.35	15.70	25.14	29.65	12.52	0.99	
	40대	0.14	0.18	0.65	2.59	4.43	13.01	16.53	22.73	27.36	11.36	1.02	
	50대	0.00	0.51	0.93	2.69	4.41	8.87	20.25	26.00	23.15	12.51	0.68	
	60대	0.26	0.99	1.36	4.82	5.87	14.57	16.80	26.06	19.09	9.56	0.62	
	70대	0.15	1.50	2.83	5.25	9.45	21.07	17.07	19.86	15.64	6.39	0.82	
지역	수도권	0.00	0.42	0.84	2.58	4.79	12.98	18.42	25.94	24.17	9.12	0.74	53.612***
	비수도권	0.23	0.54	1.36	2.77	4.35	11.62	15.99	22.49	25.43	13.74	1.49	
	대도시	0.13	0.47	0.99	2.48	4.71	11.93	18.61	25.05	22.99	11.59	1.04	38.100**
	중소도시	0.09	0.42	1.13	2.78	4.22	12.10	16.38	24.01	26.67	11.28	0.93	
	농어촌	0.20	0.98	1.53	3.03	6.36	16.46	14.53	20.62	22.17	11.13	3.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9	1.62	5.89	10.94	9.91	18.39	17.18	15.68	14.37	4.54	0.59	786.724***
	중하층	0.04	0.76	1.03	2.31	6.42	16.28	21.42	25.58	18.69	6.38	1.11	
	중간층	0.00	0.07	0.24	1.40	2.31	9.06	14.67	25.57	30.66	14.95	1.07	
	중상층(상층)	0.16	0.00	0.23	1.28	1.43	2.70	10.43	20.20	35.45	25.97	2.1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3	1.46	2.74	5.68	7.71	16.52	18.39	20.59	18.02	7.56	1.02	395.862***
	200만 원대	0.07	0.16	0.70	2.00	4.45	12.81	18.55	25.82	23.06	11.24	1.15	
	300만 원대	0.00	0.00	0.18	1.41	2.19	8.24	16.79	25.21	30.35	14.13	1.51	
	400만 원대	0.00	0.36	0.26	0.43	2.16	8.79	9.97	25.13	38.15	14.23	0.51	
	500만 원 이상	0.00	0.00	0.81	0.39	1.96	6.40	10.07	24.94	34.90	20.40	0.13	
학력	중졸 이하	0.36	2.46	3.35	8.69	9.10	18.90	18.35	19.55	13.75	4.41	1.08	387.120***
	고졸	0.11	0.33	1.35	2.60	5.54	12.55	19.23	24.79	21.58	10.70	1.23	
	대졸 이상	0.06	0.14	0.34	1.30	2.65	10.53	15.20	24.87	30.22	13.67	1.0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4	0.09	0.44	1.12	1.93	9.10	14.96	27.09	29.82	14.58	0.83	456.790***
	임시/일용직 근로자	0.26	0.42	2.49	6.54	8.53	21.16	20.28	19.57	14.46	5.50	0.79	
	고용주/자영자	0.06	0.63	0.88	2.25	5.28	10.89	17.91	24.94	24.25	11.42	1.48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2.67	12.62	11.54	16.44	18.18	31.44	5.78	1.34	
	실업자	1.08	0.54	4.78	5.89	18.76	19.95	14.49	17.07	14.86	2.58	0.00	
	비경제활동인구	0.11	1.07	1.31	3.32	4.75	13.59	19.32	22.14	22.74	10.06	1.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5	0.14	0.44	1.29	2.67	9.21	15.29	27.06	29.21	13.81	0.82	274.674***
	비정규직	0.17	0.66	2.13	5.22	7.68	18.25	20.34	20.01	16.47	7.58	1.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5	1.08	1.32	4.39	7.06	14.32	17.36	22.43	20.64	10.63	0.73	121.161***
	중도적	0.06	0.23	1.18	2.09	3.44	12.49	17.50	27.00	24.28	10.68	1.05	
	진보적	0.26	0.31	0.77	1.96	3.97	10.22	16.69	21.86	29.28	13.15	1.55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의 미래 안정성"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6〉 생활영역 만족 :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2	0.59	1.25	1.68	5.23	10.45	17.04	26.47	24.72	11.21	1.24	
성별	남성	0.14	0.40	1.55	1.58	4.81	11.38	16.84	26.32	24.81	10.87	1.30	14.355
	여성	0.10	0.79	0.94	1.78	5.66	9.49	17.25	26.62	24.63	11.56	1.18	
연령대	20대 이하	0.06	0.40	0.46	0.22	3.40	10.94	14.48	27.73	25.95	14.57	1.78	148.315***
	30대	0.03	0.42	0.68	1.36	4.21	8.11	16.88	29.76	25.05	12.25	1.27	
	40대	0.02	0.69	1.03	1.91	5.51	10.09	17.24	27.15	24.16	10.63	1.55	
	50대	0.15	0.85	1.56	1.76	4.75	9.46	18.61	23.39	26.83	11.87	0.77	
	60대	0.44	0.66	1.84	2.07	6.45	12.32	16.89	26.99	22.52	9.00	0.82	
	70대	0.00	0.36	2.79	3.94	9.42	13.90	18.83	22.04	21.72	5.79	1.20	
지역	수도권	0.06	0.46	1.46	1.59	5.77	9.59	19.36	29.44	22.56	8.75	0.95	86.213***
	비수도권	0.18	0.72	1.04	1.77	4.67	11.32	14.66	23.41	26.94	13.74	1.54	
	대도시	0.16	0.54	1.52	1.95	5.04	8.95	20.04	26.49	23.18	11.21	0.91	68.229***
	중소도시	0.10	0.63	1.16	1.24	5.57	10.90	14.77	26.95	26.20	11.14	1.33	
	농어촌	0.00	0.60	0.20	3.29	3.80	16.88	14.72	22.54	23.44	11.78	2.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6	2.08	5.80	4.47	11.44	13.51	17.64	23.46	14.46	5.76	0.63	511.684***
	중하층	0.00	0.30	1.10	2.15	7.12	12.57	21.41	28.03	19.55	6.86	0.90	
	중간층	0.08	0.61	0.59	0.82	2.71	8.58	14.31	25.92	30.08	14.93	1.36	
	중상층(상층)	0.16	0.00	0.00	0.73	2.23	6.43	9.53	25.46	33.27	18.99	3.2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28	1.25	2.28	3.18	9.27	11.57	20.27	23.74	18.77	8.04	1.34	243.593***
	200만 원대	0.10	0.61	0.54	1.49	3.71	11.24	16.62	27.78	25.89	10.75	1.26	
	300만 원대	0.00	0.00	1.19	0.80	4.92	8.65	15.63	27.05	26.65	14.03	1.09	
	400만 원대	0.06	0.12	2.30	0.35	1.36	8.38	15.26	26.37	31.28	14.30	0.20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82	3.13	7.56	9.66	27.84	30.06	17.32	3.61	
학력	중졸 이하	0.49	1.92	3.57	5.27	10.58	12.51	18.22	24.48	16.04	6.23	0.69	214.999***
	고졸	0.04	0.28	1.08	1.51	5.65	11.90	17.34	26.12	23.43	11.47	1.19	
	대졸 이상	0.10	0.55	0.85	0.98	3.59	8.69	16.50	27.24	27.91	12.17	1.4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1	0.27	0.55	0.87	3.17	9.02	15.33	28.37	28.96	12.17	1.27	269.728***
	임시/일용직 근로자	0.27	0.87	2.75	2.06	10.62	15.33	21.98	21.42	16.12	7.69	0.89	
	고용주/자영자	0.22	0.55	1.66	2.21	5.11	10.88	16.85	25.79	25.89	10.07	0.77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1.56	4.08	18.87	17.39	27.81	11.21	15.94	3.13	
	실업자	1.08	2.90	3.99	3.40	14.15	11.67	26.43	17.59	10.71	7.60	0.47	
	비경제활동인구	0.05	0.81	1.11	2.27	5.16	9.68	16.57	27.23	22.85	12.51	1.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9	0.36	0.89	1.15	3.64	9.00	15.26	27.59	29.09	11.92	1.01	147.997***
	비정규직	0.17	0.65	2.05	2.17	8.50	15.22	21.26	23.63	16.87	8.13	1.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8	0.83	1.68	2.04	5.57	11.99	17.78	25.29	23.68	9.97	0.99	32.783*
	중도적	0.09	0.36	1.03	1.20	5.25	9.97	17.66	27.68	24.22	11.54	1.01	
	진보적	0.11	0.72	1.19	2.05	4.88	9.75	15.48	25.77	26.40	11.85	1.8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7〉 생활영역 만족 : 지역사회 환경 질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8	0.28	0.63	1.29	3.65	11.95	19.23	27.26	25.75	9.16	0.72	
성별	남성	0.14	0.26	0.77	1.20	3.34	11.57	19.88	27.14	25.66	9.44	0.60	7.873
	여성	0.02	0.30	0.49	1.38	3.97	12.33	18.56	27.39	25.83	8.88	0.85	
연령대	20대 이하	0.00	0.46	0.45	0.60	2.83	9.65	16.92	27.83	27.84	12.58	0.83	203.937***
	30대	0.00	0.10	0.50	0.76	1.74	9.64	18.02	28.81	28.98	10.98	0.48	
	40대	0.01	0.32	0.43	0.86	4.27	12.58	16.73	27.57	27.23	8.86	1.13	
	50대	0.00	0.02	0.73	1.34	2.29	12.19	20.78	26.93	26.76	8.52	0.45	
	60대	0.50	0.19	0.61	2.35	6.35	12.95	21.47	25.65	22.11	6.90	0.92	
	70대	0.00	0.91	1.55	2.80	6.19	17.52	24.53	25.93	15.61	4.61	0.34	
지역	수도권	0.00	0.20	0.44	0.99	3.33	11.85	21.28	29.85	23.47	7.92	0.68	57.278***
	비수도권	0.16	0.35	0.83	1.60	3.98	12.05	17.13	24.61	28.08	10.44	0.77	
	대도시	0.18	0.40	0.86	1.22	3.06	11.13	20.67	27.03	25.33	9.28	0.84	67.493***
	중소도시	0.00	0.16	0.36	1.26	4.20	11.27	18.55	28.05	26.30	9.30	0.57	
	농어촌	0.00	0.40	1.23	2.01	3.37	22.65	14.94	22.68	24.28	7.33	1.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0	1.74	3.13	5.54	9.96	17.03	24.68	18.42	14.57	4.12	0.09	654.908***
	중하층	0.03	0.28	0.69	1.29	4.77	14.73	22.81	29.25	20.69	4.76	0.70	
	중간층	0.00	0.00	0.14	0.52	1.68	9.15	16.83	28.60	29.91	12.53	0.65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35	1.33	7.42	7.18	19.96	42.65	18.92	2.1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1	0.61	1.34	2.70	7.62	16.69	21.68	23.09	19.21	6.11	0.63	321.379***
	200만 원대	0.00	0.21	0.42	0.89	2.60	11.67	20.21	28.93	25.49	8.74	0.84	
	300만 원대	0.00	0.00	0.46	0.57	1.77	8.13	17.64	30.81	28.40	11.60	0.64	
	400만 원대	0.00	0.00	0.12	0.87	1.66	9.44	11.55	24.42	39.61	12.02	0.31	
	500만 원 이상	0.00	0.81	0.00	0.78	2.05	7.69	14.97	22.74	32.53	16.99	1.45	
학력	중졸 이하	0.58	1.40	2.41	4.31	10.11	17.47	22.98	24.06	12.82	3.46	0.40	348.660***
	고졸	0.03	0.14	0.47	1.38	4.05	13.07	20.99	25.35	24.91	8.96	0.66	
	대졸 이상	0.01	0.13	0.35	0.50	1.77	9.66	16.80	29.69	29.55	10.69	0.8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8	0.46	0.71	2.32	7.88	17.24	29.72	29.55	11.29	0.74	308.578***
	임시/일용직 근로자	0.32	0.38	1.59	2.17	6.16	20.25	23.96	20.50	19.48	4.77	0.42	
	고용주/자영자	0.00	0.00	0.35	1.62	2.83	11.45	20.26	27.91	25.43	9.10	1.07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5.52	19.40	17.23	33.82	17.22	5.94	0.89	
	실업자	1.08	0.60	1.06	0.75	12.26	27.17	28.36	15.75	8.97	4.00	0.00	
	비경제활동인구	0.05	0.75	0.63	1.68	4.31	13.19	18.49	27.04	24.75	8.45	0.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6	0.43	0.75	2.22	8.56	17.54	29.47	29.41	10.95	0.62	187.737***
	비정규직	0.20	0.26	1.14	2.38	5.63	17.71	23.58	22.97	19.14	5.78	1.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8	0.42	0.56	1.50	5.01	15.38	19.22	26.45	23.69	7.19	0.51	63.592***
	중도적	0.06	0.17	0.47	1.13	3.36	11.62	20.20	27.29	26.27	8.82	0.60	
	진보적	0.10	0.30	0.93	1.34	2.85	9.31	17.84	27.96	26.84	11.43	1.1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의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8〉 생활영역 만족 : 하는 일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20	0.48	0.70	1.56	3.37	12.86	18.07	25.55	26.54	10.08	0.59	
성별	남성	0.33	0.41	0.80	1.63	3.30	11.28	18.34	26.35	26.40	10.66	0.50	0.309
	여성	0.07	0.56	0.59	1.50	3.44	14.48	17.79	24.73	26.68	9.49	0.67	
연령대	20대 이하	0.14	0.59	0.15	1.34	3.03	11.17	14.51	24.29	32.13	11.52	1.14	2.608
	30대	0.00	0.00	0.45	0.73	1.57	10.92	16.45	26.35	32.14	10.81	0.59	
	40대	0.01	0.40	0.19	0.92	3.22	12.37	18.68	27.69	25.08	11.15	0.29	
	50대	0.49	0.00	0.62	0.55	2.36	12.23	19.37	27.69	25.79	10.46	0.44	
	60대	0.26	1.46	1.35	2.51	5.04	14.04	20.20	23.23	23.02	8.35	0.53	
	70대	0.35	0.79	2.53	5.87	7.48	20.82	20.46	20.75	15.05	5.34	0.55	
지역	수도권	0.14	0.59	0.43	1.77	3.28	11.89	20.32	28.03	24.92	8.33	0.30	3.081
	비수도권	0.27	0.37	0.98	1.35	3.47	13.85	15.75	23.01	28.20	11.88	0.87	
	대도시	0.15	0.33	0.82	1.46	2.72	11.85	19.63	26.65	25.64	10.23	0.52	3.568
	중소도시	0.20	0.64	0.68	1.52	3.78	12.77	17.08	25.29	27.65	9.81	0.59	
	농어촌	0.60	0.20	0.00	2.55	4.55	20.30	15.42	20.30	23.92	11.16	1.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4	1.44	3.86	6.56	10.93	22.50	16.93	17.08	15.09	4.35	0.31	11.584**
	중하층	0.08	0.70	0.69	1.41	4.21	16.30	22.46	27.01	20.88	5.77	0.47	
	중간층	0.18	0.16	0.13	0.81	1.27	8.92	15.94	26.89	32.17	12.98	0.54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21	1.67	5.60	8.96	20.70	37.72	23.28	1.8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41	1.59	2.09	4.00	7.23	18.87	19.97	20.33	18.34	6.74	0.44	2.885
	200만 원대	0.00	0.15	0.23	0.54	2.67	12.65	18.79	28.76	25.57	9.90	0.73	
	300만 원대	0.33	0.00	0.07	0.75	1.48	9.21	16.16	27.14	32.05	12.32	0.51	
	400만 원대	0.00	0.00	0.52	1.72	0.22	5.56	13.38	24.36	42.72	10.96	0.56	
	500만 원 이상	0.81	0.00	0.00	0.00	0.87	7.70	16.66	18.46	31.95	23.07	0.47	
학력	중졸 이하	0.58	2.95	3.39	5.74	9.21	21.28	20.06	19.28	13.82	3.37	0.33	1.474
	고졸	0.15	0.24	0.44	1.25	3.70	14.65	19.43	25.40	23.87	10.14	0.74	
	대졸 이상	0.16	0.11	0.29	0.84	1.70	9.30	16.41	27.17	31.89	11.62	0.5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1	0.14	0.03	0.52	1.66	7.63	16.53	27.14	32.88	13.04	0.42	20.555**
	임시/일용직 근로자	0.25	0.52	2.17	1.74	8.37	21.28	23.72	19.48	18.30	3.82	0.35	
	고용주/자영자	0.37	0.00	0.51	0.93	2.09	10.47	18.27	30.37	25.30	10.99	0.68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8.70	12.62	27.51	21.41	25.74	0.96	3.06	
	실업자	1.44	3.56	2.94	10.19	12.46	36.96	16.51	9.54	5.06	1.34	0.00	
	비경제활동인구	0.25	1.10	1.01	2.87	3.61	16.79	17.54	24.03	23.19	8.71	0.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3	0.09	0.16	0.46	1.50	7.88	16.46	28.06	32.06	12.75	0.44	5.522*
	비정규직	0.18	0.40	1.49	1.83	7.02	18.52	23.36	22.65	18.32	5.57	0.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8	0.81	1.29	1.79	5.26	15.71	18.38	23.75	21.72	10.68	0.43	1.200
	중도적	0.23	0.32	0.59	1.42	2.84	12.22	17.92	28.18	26.68	9.09	0.52	
	진보적	0.19	0.41	0.32	1.56	2.45	11.22	18.01	23.37	30.68	10.98	0.82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_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9〉 생활영역 중요도 : 1순위

(단위: %)

구분		건강	생활 수준	삶에서 성취하는 것	가족 관계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	안전	사회적 친분 관계	하시는 일	지역 사회 환경의 질	χ^2
전체		40.35	25.22	10.44	7.27	7.03	3.62	2.31	1.71	1.42	0.64	
성별	남성	39.96	26.41	11.80	6.26	6.86	2.95	2.03	1.38	1.77	0.58	35.873***
	여성	40.75	24.00	9.05	8.31	7.21	4.30	2.58	2.04	1.06	0.70	
연령대	20대 이하	25.29	25.89	19.09	4.94	11.44	5.62	2.51	1.75	2.67	0.80	541.758***
	30대	30.54	26.43	10.45	13.00	8.94	5.32	1.77	1.87	1.29	0.39	
	40대	34.29	31.75	9.25	7.73	6.94	3.88	1.97	2.07	1.47	0.65	
	50대	44.48	24.90	10.73	7.06	5.89	1.91	2.14	1.53	0.97	0.38	
	60대	56.93	21.20	5.26	4.83	3.27	2.13	3.60	1.22	1.20	0.36	
	70대	65.98	14.34	3.62	4.56	3.63	2.11	1.77	1.76	0.36	1.87	
지역	수도권	39.18	24.80	11.38	8.28	7.38	3.30	1.97	1.72	1.29	0.70	19.603*
	비수도권	41.55	25.65	9.48	6.24	6.68	3.94	2.65	1.69	1.54	0.57	
	대도시	39.91	26.11	10.02	7.31	6.86	3.17	2.90	1.84	1.17	0.69	40.398**
	중소도시	39.40	24.77	10.93	7.51	7.63	4.15	1.67	1.74	1.61	0.59	
	농어촌	50.61	22.75	9.45	5.19	3.47	2.41	3.34	0.57	1.56	0.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42	31.92	7.15	3.55	7.71	2.64	0.72	1.47	1.42	0.00	88.954***
	중하층	42.66	26.34	9.50	6.22	6.64	3.49	1.63	1.73	1.32	0.48	
	중간층	38.49	23.01	11.90	8.43	7.34	3.89	2.85	1.70	1.44	0.94	
	중상층(상층)	35.17	23.85	10.89	10.91	6.27	3.90	4.77	1.98	1.79	0.4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8.05	24.76	6.62	5.97	6.41	2.69	1.83	1.79	1.12	0.76	123.808***
	200만 원대	37.58	26.43	11.63	6.92	7.86	3.44	2.58	1.70	1.46	0.42	
	300만 원대	34.87	25.11	12.44	7.97	6.84	5.09	2.81	2.06	1.92	0.88	
	400만 원대	45.98	20.76	11.60	7.66	6.48	3.14	1.18	0.76	1.40	1.04	
	500만 원 이상	36.51	24.31	10.30	17.19	3.74	4.95	1.94	1.07	0.00	0.00	
학력	중졸 이하	59.83	15.87	4.24	6.16	5.07	2.90	2.64	1.50	0.92	0.87	165.565***
	고졸	42.61	25.98	9.51	5.88	6.71	3.22	2.49	1.56	1.43	0.61	
	대졸 이상	33.75	26.77	12.73	8.75	7.78	4.13	2.07	1.89	1.52	0.6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64	25.30	12.42	7.64	8.16	4.83	2.23	2.27	1.71	0.81	152.850***
	임시/일용직 근로자	38.03	31.00	10.10	5.93	8.03	2.34	1.68	0.84	1.98	0.06	
	고용주/자영자	48.58	24.37	8.25	6.86	3.60	2.43	3.19	1.08	1.03	0.62	
	무급가족종사자	60.55	13.69	3.67	10.84	5.28	1.84	3.03	0.00	1.11	0.00	
	실업자	37.27	25.78	16.28	4.69	6.80	2.38	1.80	1.85	3.15	0.00	
	비경제활동인구	44.67	23.07	8.48	7.84	7.33	3.30	2.11	1.72	0.75	0.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8.88	24.87	11.13	7.64	6.87	4.24	2.43	1.78	1.39	0.77	20.233*
	비정규직	39.49	28.76	10.19	5.91	7.13	2.46	2.27	1.49	2.08	0.22	
이념적 성향	보수적	53.03	19.91	8.12	6.65	4.16	2.73	2.29	1.24	1.39	0.49	141.333***
	중도적	36.30	27.39	10.81	7.44	7.68	3.96	2.56	1.70	1.36	0.80	
	진보적	34.78	26.87	12.01	7.60	8.68	3.92	1.96	2.14	1.52	0.53	

주 1) "(조사표 질문)___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3순위까지 제시해주세요. "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0〉 생활영역 중요도 : 2순위

(단위: %)

구분		건강	생활 수준	가족 관계	삶에서 성취하는 것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	안전	사회적 친분 관계	하시는 일	지역 사회 환경의 질	χ^2
전체		21.05	20.92	13.37	13.27	10.94	7.41	5.57	3.73	3.00	0.73	
성별	남성	20.96	20.92	12.95	12.22	11.56	7.53	5.46	3.93	3.96	0.53	25.293**
	여성	21.15	20.91	13.81	14.34	10.31	7.29	5.69	3.53	2.03	0.93	
연령대	20대 이하	17.49	19.37	7.34	17.34	14.07	11.24	3.85	3.86	4.71	0.72	187.129***
	30대	19.33	19.82	13.51	14.27	11.57	8.03	5.47	4.03	2.76	1.22	
	40대	25.93	20.40	16.13	10.95	10.50	5.63	4.63	2.81	2.95	0.06	
	50대	23.38	19.50	13.77	12.94	11.00	6.49	5.34	3.87	2.62	1.08	
	60대	19.47	23.38	13.33	13.57	9.25	5.93	7.88	4.28	2.13	0.78	
	70대	18.05	26.49	18.58	8.26	7.05	7.08	7.98	3.65	2.51	0.36	
지역	수도권	22.31	19.73	14.15	14.22	9.94	7.06	5.12	4.03	2.85	0.60	23.803**
	비수도권	19.76	22.14	12.58	12.29	11.97	7.78	6.03	3.43	3.17	0.85	
	대도시	22.97	22.70	12.27	12.32	10.46	6.58	5.40	3.57	3.28	0.45	37.265**
	중소도시	19.72	19.36	14.27	14.01	11.38	8.30	5.40	3.73	2.90	0.93	
	농어촌	18.66	21.14	13.77	13.82	10.73	6.06	8.08	4.80	1.94	0.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69	24.88	11.56	9.51	10.13	4.15	6.25	3.44	3.93	0.46	81.409***
	중하층	21.38	22.57	13.98	12.99	11.85	6.30	4.91	2.59	3.01	0.42	
	중간층	19.20	18.99	13.78	14.15	10.58	8.93	5.73	4.62	2.97	1.03	
	중상층(상층)	24.62	18.56	9.99	14.39	9.37	8.32	7.25	4.78	1.84	0.8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2.95	21.62	15.01	10.82	9.81	6.74	7.18	2.95	2.39	0.53	94.827***
	200만 원대	20.91	21.04	13.05	12.90	12.41	7.94	5.32	3.20	2.49	0.75	
	300만 원대	20.30	19.20	11.80	16.05	10.66	6.96	4.79	5.76	3.74	0.75	
	400만 원대	15.15	23.00	13.86	15.79	8.07	7.27	5.35	3.86	6.30	1.36	
	500만 원 이상	26.39	19.91	13.50	13.90	9.57	9.29	1.44	3.40	2.11	0.49	
학력	중졸 이하	18.65	24.99	17.03	10.04	8.34	6.18	9.73	2.59	1.90	0.55	81.159***
	고졸	23.59	21.17	12.48	12.67	10.85	6.54	5.60	3.81	2.36	0.94	
	대졸 이상	19.41	19.72	13.29	14.56	11.65	8.46	4.56	3.93	3.83	0.5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69	19.66	12.28	14.56	12.24	8.47	6.11	3.73	3.44	0.84	74.621**
	임시/일용직 근로자	26.06	20.24	13.07	11.03	9.88	7.16	5.44	4.04	2.63	0.46	
	고용주/자영자	22.30	23.46	13.16	14.49	9.39	5.54	4.68	3.10	3.28	0.60	
	무급가족종사자	16.54	33.69	7.56	16.90	9.62	8.05	2.22	2.52	2.91	0.00	
	실업자	18.44	25.40	9.36	12.08	10.72	9.04	4.92	4.02	5.28	0.74	
	비경제활동인구	22.00	20.55	16.21	11.26	10.53	6.99	5.60	4.07	1.98	0.8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42	21.02	13.12	14.15	11.15	7.77	5.75	3.43	3.42	0.77	16.281
	비정규직	24.74	20.46	11.13	13.47	10.92	6.73	5.13	4.09	2.82	0.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28	24.52	16.39	10.52	8.88	6.30	6.46	3.80	2.03	0.83	77.175***
	중도적	21.52	19.90	12.72	13.71	10.90	7.10	6.41	3.50	3.55	0.68	
	진보적	21.07	19.13	11.59	15.11	12.87	8.87	3.56	4.00	3.10	0.70	

주 1) "(조사표 질문)___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3순위까지 제시해주세요. "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1〉 생활영역 중요도 : 3순위

(단위: %)

구분		미래 안정성	생활 수준	가족 관계	시간적 여유	삶에서 성취하는 것	건강	안전	사회적 친분 관계	하시는 일	지역 사회 환경의 질	χ^2
전체		18.07	14.86	13.95	11.98	11.54	10.30	7.32	5.25	5.02	1.71	
성별	남성	18.17	13.88	13.07	13.15	11.58	10.88	6.82	5.33	5.62	1.50	20.908*
	여성	17.96	15.87	14.84	10.79	11.49	9.70	7.84	5.16	4.42	1.92	
연령대	20대 이하	18.16	16.50	7.30	15.96	12.49	8.97	5.85	6.73	6.11	1.92	141.031***
	30대	17.98	16.54	13.14	10.51	12.09	12.40	6.93	3.36	5.25	1.81	
	40대	16.55	14.74	14.47	12.39	10.90	12.54	7.21	6.17	3.63	1.41	
	50대	18.65	14.70	16.25	10.04	11.71	10.52	6.33	4.45	5.45	1.90	
	60대	20.75	11.84	15.82	10.99	11.33	9.31	8.62	5.38	4.53	1.43	
	70대	15.34	14.15	19.48	12.05	9.85	4.99	11.50	5.45	5.38	1.81	
지역	수도권	18.69	15.01	14.15	10.83	12.02	10.72	8.28	5.24	4.12	0.94	41.812***
	비수도권	17.44	14.71	13.74	13.17	11.04	9.87	6.34	5.25	5.95	2.50	
	대도시	16.83	14.58	14.08	12.35	12.14	10.11	9.07	4.68	4.10	2.06	64.649***
	중소도시	18.16	15.39	13.42	11.56	10.83	11.10	6.32	5.92	5.92	1.38	
	농어촌	25.60	12.64	17.09	12.85	13.06	5.35	3.52	3.76	4.22	1.9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15	12.00	15.81	15.13	9.09	8.97	7.19	5.42	5.48	0.78	81.045***
	중하층	19.13	15.79	14.72	11.54	12.57	8.60	6.88	4.66	5.10	1.00	
	중간층	17.18	15.51	13.20	11.98	10.42	11.75	7.70	5.52	4.63	2.11	
	중상층(상층)	14.98	9.55	11.87	10.07	16.39	12.27	7.52	6.49	6.50	4.3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64	13.03	17.45	12.00	9.77	9.34	6.63	5.32	4.38	1.42	90.906***
	200만 원대	16.76	16.45	12.22	12.10	12.00	11.48	6.59	5.17	5.45	1.78	
	300만 원대	16.98	14.50	12.46	11.82	12.23	9.60	10.22	4.94	4.78	2.48	
	400만 원대	16.34	14.34	18.11	12.31	10.99	8.92	7.16	5.29	5.89	0.65	
	500만 원 이상	25.49	12.74	7.89	10.58	16.73	10.50	3.79	7.48	4.27	0.52	
학력	중졸 이하	17.04	15.38	16.98	10.54	9.55	9.20	9.86	5.07	4.98	1.40	56.879***
	고졸	19.38	13.72	15.49	11.94	12.25	8.24	7.53	5.26	4.89	1.30	
	대졸 이상	17.17	15.74	11.88	12.37	11.38	12.36	6.54	5.27	5.15	2.1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21	15.27	11.23	11.81	11.16	11.78	7.53	5.21	6.57	2.22	133.087***
	임시/일용직 근로자	22.24	14.35	10.94	12.46	9.88	10.21	6.26	7.52	4.96	1.20	
	고용주/자영자	18.92	13.50	15.43	11.38	12.49	9.14	7.68	4.45	5.78	1.23	
	무급가족종사자	17.21	11.42	33.99	10.47	8.71	4.96	8.04	1.56	3.64	0.00	
	실업자	13.79	13.50	23.48	11.69	7.53	14.12	3.00	6.16	4.62	2.10	
	비경제활동인구	17.24	15.74	17.35	12.59	12.81	8.45	7.69	4.78	1.89	1.4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48	14.78	12.78	11.57	11.59	10.92	7.79	4.64	6.53	1.92	25.783**
	비정규직	21.30	14.19	11.67	12.43	10.36	10.34	6.17	7.38	4.79	1.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79	13.69	17.52	11.21	10.81	10.23	7.10	5.24	5.04	1.38	31.842*
	중도적	17.87	14.66	13.18	11.68	11.74	11.28	7.55	5.29	4.82	1.93	
	진보적	18.60	16.21	11.82	13.13	11.90	8.95	7.19	5.19	5.31	1.68	

주 1) "(조사표 질문)___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3순위까지 제시해주세요. "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2〉 생활영역 중요 : 생활수준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0	0.05	0.02	0.37	0.89	3.57	6.58	12.93	26.95	30.57	18.07	
성별	남성	0.00	0.07	0.03	0.33	1.05	3.06	6.42	13.28	27.20	29.66	18.89	0.309
	여성	0.00	0.04	0.00	0.42	0.71	4.10	6.75	12.56	26.68	31.50	17.23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0	0.21	0.56	2.68	5.15	11.95	27.76	33.29	18.40	2.608
	30대	0.00	0.00	0.10	0.27	0.58	2.13	5.72	12.75	26.72	32.85	18.88	
	40대	0.00	0.17	0.00	0.37	0.67	3.28	6.03	11.30	26.43	30.27	21.46	
	50대	0.00	0.00	0.00	0.19	0.77	3.26	7.41	14.49	29.55	29.08	15.27	
	60대	0.00	0.12	0.00	0.69	0.88	5.98	7.49	13.42	23.75	28.74	18.93	
	70대	0.00	0.00	0.00	0.80	2.97	5.42	9.03	14.46	26.41	27.85	13.06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00	0.41	2.64	6.10	10.91	24.98	34.02	20.94	3.081
	비수도권	0.00	0.10	0.04	0.76	1.37	4.53	7.09	15.00	28.96	27.03	15.12	
	대도시	0.00	0.12	0.04	0.16	0.34	3.13	5.57	12.25	27.80	33.82	16.78	3.568
	중소도시	0.00	0.00	0.00	0.35	1.32	3.59	6.93	12.89	25.50	29.64	19.80	
	농어촌	0.00	0.00	0.00	1.95	1.19	6.42	10.71	17.75	32.49	16.28	13.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53	0.18	1.05	2.01	3.65	6.38	14.58	23.13	25.75	22.75	11.584**
	중하층	0.00	0.00	0.00	0.32	0.92	3.89	6.47	12.78	23.74	30.22	21.66	
	중간층	0.00	0.00	0.00	0.15	0.73	3.54	7.03	12.76	29.85	31.53	14.42	
	중상층(상층)	0.00	0.00	0.00	1.12	0.15	1.93	4.66	12.51	31.40	33.12	15.1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20	0.00	0.92	2.13	4.69	7.68	15.09	23.57	26.06	19.66	2.885
	200만 원대	0.00	0.00	0.04	0.14	0.49	3.41	6.60	13.46	29.76	29.25	16.84	
	300만 원대	0.00	0.00	0.00	0.35	0.44	2.83	6.65	10.00	26.90	35.74	17.09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0.00	2.84	3.96	11.55	24.48	40.56	16.61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00	0.87	3.16	3.06	10.80	23.73	27.14	31.23	
학력	중졸 이하	0.00	0.46	0.00	1.09	2.15	7.37	8.54	16.54	20.58	27.09	16.17	1.474
	고졸	0.00	0.00	0.04	0.47	1.22	3.80	6.84	12.99	27.02	28.97	18.66	
	대졸 이상	0.00	0.00	0.00	0.12	0.30	2.48	5.90	12.01	28.39	32.80	18.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0.00	0.13	0.27	2.51	6.02	12.81	28.38	32.29	17.59	20.555**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0.14	0.47	2.09	6.05	10.04	13.36	24.75	24.53	18.57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0	0.64	0.83	3.29	7.09	11.85	26.97	30.78	18.55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3.75	4.01	10.04	6.06	21.05	34.22	20.86	
	실업자	0.00	0.00	0.00	0.37	4.29	8.79	3.10	14.50	28.83	27.91	12.21	
	비경제활동인구	0.00	0.22	0.00	0.55	0.91	3.77	5.67	13.78	25.55	30.73	18.8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00	0.22	0.36	2.89	6.11	12.51	27.61	31.81	18.49	5.522*
	비정규직	0.00	0.00	0.09	0.58	1.84	4.52	9.50	12.81	26.59	27.30	16.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0	0.00	0.41	1.16	3.85	7.39	12.90	26.87	28.20	19.23	1.200
	중도적	0.00	0.00	0.04	0.41	1.09	4.12	5.94	13.44	28.89	29.30	16.76	
	진보적	0.00	0.17	0.00	0.29	0.34	2.52	6.79	12.21	24.19	34.56	18.92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수준(소득과 소비수준)"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3〉 생활영역 중요 : 건강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3	0.02	0.03	0.33	1.08	1.75	3.58	11.19	18.20	30.31	33.48	
성별	남성	0.07	0.00	0.00	0.25	1.16	1.45	2.99	11.55	18.02	30.49	34.02	14.296
	여성	0.00	0.03	0.06	0.40	0.99	2.06	4.17	10.82	18.39	30.13	32.93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0	0.36	0.56	0.60	3.91	11.81	17.25	34.07	31.44	155.594***
	30대	0.00	0.00	0.00	0.03	0.67	1.52	2.34	9.11	21.04	33.18	32.11	
	40대	0.17	0.00	0.00	0.47	0.54	1.22	3.76	10.73	17.41	30.33	35.37	
	50대	0.00	0.00	0.00	0.06	0.62	3.29	2.86	13.16	18.09	29.67	32.24	
	60대	0.00	0.00	0.12	0.62	1.73	1.61	5.10	9.92	17.46	26.42	37.03	
	70대	0.00	0.19	0.12	0.62	4.20	2.45	3.90	12.68	17.97	25.14	32.74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07	0.80	1.29	2.31	10.04	15.61	31.54	38.34	111.439***
	비수도권	0.07	0.03	0.06	0.59	1.36	2.22	4.87	12.37	20.87	29.06	28.49	
	대도시	0.08	0.00	0.04	0.21	0.66	1.20	3.36	11.16	18.23	32.14	32.92	80.915***
	중소도시	0.00	0.02	0.02	0.30	1.33	2.07	3.07	10.57	18.18	29.09	35.34	
	농어촌	0.00	0.12	0.00	1.25	1.94	2.91	8.92	16.20	18.24	27.63	22.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4	0.00	0.19	0.86	2.02	1.65	3.28	10.72	19.13	29.96	31.86	59.347***
	중하층	0.00	0.02	0.03	0.26	0.75	1.59	4.54	10.71	17.16	29.83	35.12	
	중간층	0.00	0.02	0.00	0.28	0.97	2.00	2.97	11.70	18.82	31.39	31.86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27	2.30	1.22	2.48	11.26	18.78	26.59	37.1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3	0.06	0.11	0.62	2.27	2.56	4.27	12.21	17.92	27.74	32.10	114.487***
	200만 원대	0.00	0.00	0.00	0.23	0.63	1.49	4.64	11.27	18.56	31.86	31.31	
	300만 원대	0.00	0.00	0.00	0.19	0.96	1.49	2.15	11.05	18.37	30.90	34.87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0.00	1.61	0.48	8.65	18.49	31.48	39.29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87	0.57	0.56	0.55	8.61	13.99	24.28	50.57	
학력	중졸 이하	0.30	0.15	0.25	1.05	3.48	3.11	5.97	10.26	17.57	25.57	32.30	117.076***
	고졸	0.00	0.00	0.00	0.37	1.16	1.55	3.97	11.91	17.50	30.49	33.04	
	대졸 이상	0.00	0.00	0.00	0.11	0.44	1.61	2.66	10.78	18.97	31.28	34.1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0.00	0.19	0.54	1.36	3.02	11.51	18.84	33.60	30.94	169.490***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0.00	0.59	1.15	3.77	4.69	10.91	20.46	27.34	31.09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5	0.18	0.77	1.46	3.16	12.72	17.83	27.51	36.32	
	무급가족종사자	0.00	1.18	0.00	1.56	0.00	4.70	8.14	8.77	16.04	29.03	30.57	
	실업자	0.00	0.00	0.00	0.00	8.67	1.79	3.42	10.78	13.86	25.70	35.79	
	비경제활동인구	0.14	0.03	0.08	0.54	1.42	1.52	4.17	9.70	16.78	28.90	36.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00	0.24	0.62	1.27	2.89	11.76	18.53	32.50	32.19	36.643***
	비정규직	0.00	0.04	0.05	0.35	0.91	3.36	4.75	11.52	19.65	26.63	32.7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0	0.00	0.37	0.98	1.97	3.68	10.79	15.66	31.83	34.73	56.379***
	중도적	0.00	0.04	0.02	0.45	1.29	1.61	4.49	12.98	18.91	29.27	30.93	
	진보적	0.11	0.00	0.06	0.10	0.86	1.76	2.16	8.95	19.48	30.45	36.07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4〉 생활영역 중요 : 삶에서 성취한 것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06	0.12	0.20	0.75	3.67	5.57	13.55	24.60	32.22	19.23	
성별	남성	0.00	0.12	0.11	0.20	0.76	3.19	5.89	12.87	24.16	32.70	20.01	12.439
	여성	0.03	0.00	0.13	0.20	0.75	4.16	5.24	14.25	25.06	31.74	18.44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0	0.12	0.61	2.71	4.14	12.01	21.98	36.05	22.39	136.057***
	30대	0.00	0.10	0.00	0.00	0.55	2.83	4.42	12.18	25.29	32.91	21.71	
	40대	0.00	0.17	0.24	0.25	0.85	3.97	4.83	11.91	24.28	32.34	21.16	
	50대	0.00	0.00	0.00	0.30	0.55	3.03	5.59	15.12	25.66	33.91	15.83	
	60대	0.00	0.00	0.44	0.14	1.00	4.30	6.86	15.67	24.13	29.45	18.00	
	70대	0.14	0.10	0.09	0.53	1.26	7.02	10.22	15.80	27.82	23.50	13.52	
지역	수도권	0.00	0.00	0.07	0.00	0.23	2.35	4.99	13.79	22.63	33.01	22.93	107.570***
	비수도권	0.03	0.12	0.18	0.41	1.29	5.01	6.17	13.31	26.63	31.41	15.44	
	대도시	0.03	0.14	0.18	0.09	0.54	3.28	4.71	13.89	25.27	33.76	18.10	120.655***
	중소도시	0.00	0.00	0.08	0.19	0.71	3.03	6.12	12.90	23.74	32.22	21.01	
	농어촌	0.00	0.00	0.00	0.98	2.48	11.19	7.02	16.40	26.87	22.08	12.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3	0.52	0.70	0.59	1.82	4.29	5.34	16.60	25.21	26.11	18.70	92.986***
	중하층	0.00	0.02	0.05	0.20	0.65	3.60	6.05	14.70	23.06	31.61	20.06	
	중간층	0.00	0.00	0.08	0.10	0.61	3.77	5.56	12.37	25.83	33.26	18.43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27	0.77	2.52	3.32	10.56	24.43	37.53	20.5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5	0.16	0.29	0.51	1.93	5.27	7.31	15.38	24.74	25.12	19.25	147.750***
	200만 원대	0.00	0.04	0.08	0.13	0.40	3.58	5.32	13.60	25.84	33.44	17.57	
	300만 원대	0.00	0.00	0.06	0.06	0.25	2.58	4.71	12.48	23.09	36.18	20.59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0.00	1.25	4.99	11.99	24.95	37.82	19.00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00	0.87	4.53	1.70	8.73	16.32	35.17	32.68	
학력	중졸 이하	0.11	0.37	0.67	0.37	1.75	8.93	10.08	14.67	24.42	23.42	15.20	155.658***
	고졸	0.00	0.04	0.08	0.33	0.83	3.29	5.74	14.61	24.46	31.59	19.02	
	대졸 이상	0.00	0.00	0.03	0.05	0.44	2.75	4.36	12.36	24.77	34.86	20.3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0.11	0.09	0.44	2.82	4.18	11.44	25.34	35.34	20.23	119.404***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14	0.26	0.24	1.98	6.87	8.10	14.86	21.77	28.26	17.53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0	0.38	0.73	2.27	6.08	14.74	24.07	31.66	20.06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1.11	8.27	5.25	18.71	20.41	29.71	16.54	
	실업자	0.00	0.00	0.00	0.00	0.92	6.73	9.91	15.50	26.57	20.43	19.95	
	비경제활동인구	0.05	0.18	0.18	0.25	0.65	4.10	5.81	15.23	25.11	30.70	17.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09	0.10	0.55	2.55	4.77	11.96	24.97	34.25	20.77	61.754***
	비정규직	0.00	0.09	0.16	0.46	1.41	5.80	6.91	15.62	22.70	30.11	16.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5	0.03	0.14	0.09	0.74	4.74	6.17	15.19	26.25	27.93	18.67	68.922***
	중도적	0.00	0.04	0.09	0.32	1.09	3.77	6.39	13.49	24.70	32.55	17.56	
	진보적	0.00	0.11	0.15	0.13	0.28	2.55	3.84	12.17	22.96	35.63	22.18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에서 성취하는 것"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5〉 생활영역 중요 : 가족 관계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0	0.05	0.02	0.29	0.86	2.69	5.56	11.68	24.22	33.26	21.37	
성별	남성	0.00	0.09	0.03	0.33	0.99	2.25	5.84	12.45	22.65	33.82	21.55	16.631
	여성	0.00	0.00	0.00	0.24	0.74	3.13	5.28	10.90	25.84	32.69	21.18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0	0.03	0.67	2.21	5.92	8.25	26.69	37.11	19.13	116.899***
	30대	0.00	0.00	0.10	0.32	0.35	1.61	3.76	13.16	23.66	31.89	25.15	
	40대	0.00	0.17	0.00	0.31	1.06	2.44	4.83	11.97	21.99	33.39	23.84	
	50대	0.00	0.00	0.00	0.15	0.71	2.92	7.15	11.02	25.14	34.21	18.70	
	60대	0.00	0.08	0.00	0.46	0.45	3.78	4.93	12.50	24.45	32.21	21.14	
	70대	0.00	0.00	0.00	0.77	2.98	3.88	7.44	15.39	22.70	27.26	19.58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11	0.43	1.77	5.03	10.55	21.88	35.75	24.47	89.614***
	비수도권	0.00	0.09	0.04	0.47	1.31	3.63	6.11	12.84	26.62	30.71	18.18	
	대도시	0.00	0.08	0.04	0.16	0.49	1.43	5.97	11.48	24.83	32.89	22.64	123.148***
	중소도시	0.00	0.03	0.00	0.37	0.95	3.02	4.60	11.51	23.38	34.75	21.39	
	농어촌	0.00	0.00	0.00	0.50	2.70	8.43	10.35	14.37	26.71	24.23	12.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34	0.18	1.53	1.65	2.00	6.60	12.40	27.47	27.20	20.63	115.752***
	중하층	0.00	0.03	0.00	0.16	1.02	3.00	5.27	12.08	21.81	31.73	24.90	
	중간층	0.00	0.00	0.00	0.17	0.50	2.73	5.75	11.44	25.27	36.23	17.89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1.20	1.64	4.50	10.04	26.30	31.20	25.1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18	0.00	0.71	1.86	3.57	7.37	12.69	23.00	28.74	21.89	128.463***
	200만 원대	0.00	0.00	0.04	0.17	0.25	2.42	5.13	12.69	26.24	34.30	18.76	
	300만 원대	0.00	0.00	0.00	0.14	0.81	2.18	4.96	11.02	23.29	34.89	22.71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1.00	1.79	3.61	6.86	21.72	40.67	24.35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00	0.87	4.32	5.00	5.93	19.81	28.50	35.56	
학력	중졸 이하	0.00	0.30	0.00	1.14	1.80	5.78	6.35	14.94	23.27	28.53	17.89	88.646***
	고졸	0.00	0.03	0.04	0.31	1.08	2.46	6.30	11.46	24.83	31.73	21.74	
	대졸 이상	0.00	0.00	0.00	0.06	0.45	2.15	4.73	11.10	23.92	35.73	21.8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3	0.00	0.19	0.38	1.77	5.53	11.06	24.76	36.14	20.14	125.274***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0.14	0.49	1.56	5.64	6.96	14.53	22.48	28.54	19.66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0	0.15	0.96	2.98	5.07	11.87	21.78	35.97	21.22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3.75	5.63	7.90	9.94	10.68	31.40	30.70	
	실업자	0.00	0.00	0.00	0.92	2.17	8.07	3.30	14.54	18.78	29.03	23.20	
	비경제활동인구	0.00	0.14	0.00	0.40	1.03	1.84	5.46	10.89	27.10	29.14	23.9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00	0.18	0.60	2.08	5.25	11.00	23.34	36.82	20.75	49.791***
	비정규직	0.00	0.07	0.09	0.37	1.22	4.68	6.85	14.17	23.86	29.12	19.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5	0.00	0.35	0.70	2.18	5.40	13.12	24.17	33.77	20.28	43.735**
	중도적	0.00	0.00	0.04	0.30	1.27	3.42	5.69	12.15	25.43	30.88	20.82	
	진보적	0.00	0.11	0.00	0.21	0.43	2.09	5.53	9.70	22.52	36.27	23.14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6〉 생활영역 중요 : 사회적 친분 관계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04	0.07	0.29	0.83	3.74	7.60	17.53	28.98	28.82	12.09	
성별	남성	0.00	0.08	0.09	0.28	0.87	3.59	7.78	16.97	27.86	29.53	12.94	11.192
	여성	0.03	0.00	0.04	0.31	0.78	3.90	7.42	18.11	30.12	28.09	11.22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0	0.00	0.86	2.38	4.83	17.19	31.23	31.51	11.99	138.859***
	30대	0.00	0.00	0.10	0.20	0.41	2.63	5.75	17.79	30.13	28.48	14.50	
	40대	0.00	0.17	0.00	0.54	0.46	4.22	6.93	16.97	28.19	29.15	13.37	
	50대	0.00	0.00	0.00	0.21	0.54	3.76	10.10	16.45	31.53	28.22	9.19	
	60대	0.00	0.00	0.31	0.18	1.45	4.30	8.88	17.40	25.24	28.92	13.30	
	70대	0.14	0.10	0.00	0.91	1.97	6.68	10.41	21.85	24.37	24.32	9.26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00	0.37	2.54	7.31	16.17	28.84	31.30	13.47	80.482***
	비수도권	0.03	0.09	0.13	0.59	1.29	4.98	7.90	18.93	29.13	26.27	10.66	
	대도시	0.03	0.10	0.11	0.12	0.45	2.99	7.03	19.25	28.75	30.24	10.93	143.347***
	중소도시	0.00	0.00	0.03	0.34	1.14	3.31	7.56	15.38	29.28	29.40	13.55	
	농어촌	0.00	0.00	0.00	1.04	0.82	12.12	11.70	22.85	28.21	14.89	8.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3	0.34	0.55	1.22	2.61	3.09	8.83	26.09	22.75	20.77	13.63	154.644***
	중하층	0.00	0.02	0.03	0.21	0.70	3.80	7.75	17.14	29.72	27.82	12.80	
	중간층	0.00	0.00	0.00	0.09	0.68	3.79	7.38	16.81	29.83	30.03	11.39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74	0.00	4.00	6.50	12.37	28.12	37.84	10.4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5	0.16	0.19	0.78	1.98	5.62	8.58	20.21	23.72	24.78	13.93	168.426***
	200만 원대	0.00	0.00	0.04	0.06	0.40	3.46	7.53	18.38	30.64	27.59	11.89	
	300만 원대	0.00	0.00	0.00	0.29	0.51	2.47	6.75	14.85	31.48	33.00	10.66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0.41	1.29	7.78	13.30	32.78	36.97	7.47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00	0.00	6.29	5.66	12.14	24.66	31.26	19.99	
학력	중졸 이하	0.11	0.37	0.32	0.79	2.74	6.47	9.70	22.84	22.35	22.19	12.12	131.157***
	고졸	0.00	0.00	0.07	0.42	0.80	3.71	7.75	17.96	29.07	27.77	12.44	
	대졸 이상	0.00	0.00	0.00	0.06	0.39	3.12	6.98	15.90	30.47	31.31	11.7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0.00	0.10	0.45	2.50	6.49	16.14	32.35	29.34	12.64	121.421***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0.25	0.77	1.32	6.23	10.09	18.99	26.61	25.47	10.28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0	0.31	0.95	3.92	8.47	16.81	25.99	31.00	12.55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0.00	9.38	6.25	16.19	31.86	19.36	16.96	
	실업자	0.00	0.00	0.00	0.00	4.69	4.83	8.71	23.58	21.34	27.55	9.30	
	비경제활동인구	0.05	0.18	0.15	0.41	0.72	4.19	7.48	19.14	27.48	28.36	11.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00	0.16	0.63	2.60	6.58	16.43	30.58	30.52	12.51	62.198***
	비정규직	0.00	0.00	0.16	0.54	0.96	6.21	10.44	17.79	27.44	24.87	11.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5	0.03	0.05	0.21	0.90	4.72	8.62	18.94	28.19	27.54	10.76	43.411**
	중도적	0.00	0.00	0.04	0.38	0.96	4.26	7.55	18.05	28.36	28.00	12.39	
	진보적	0.00	0.11	0.12	0.24	0.57	2.10	6.75	15.51	30.59	31.16	12.84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7〉 생활영역 중요 : 안전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0	0.05	0.04	0.33	1.16	2.90	5.88	14.74	26.74	33.27	14.89	
성별	남성	0.00	0.10	0.00	0.44	0.98	2.23	5.74	14.83	27.68	32.60	15.40	19.461*
	여성	0.00	0.00	0.09	0.22	1.34	3.59	6.01	14.65	25.78	33.97	14.36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0	0.43	1.07	2.61	4.68	14.01	27.03	33.14	17.03	80.589**
	30대	0.00	0.10	0.00	0.24	0.80	2.05	5.51	15.43	26.61	33.69	15.57	
	40대	0.00	0.17	0.11	0.06	1.20	2.80	5.39	12.60	26.03	34.17	17.47	
	50대	0.00	0.00	0.00	0.44	0.71	3.03	5.82	16.84	27.23	34.45	11.48	
	60대	0.00	0.00	0.00	0.46	1.24	3.65	6.56	13.88	26.18	32.42	15.62	
	70대	0.00	0.00	0.24	0.47	2.87	3.83	9.13	16.35	27.86	29.38	9.87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05	0.37	2.38	4.96	13.96	25.58	36.25	16.45	86.811***
	비수도권	0.00	0.10	0.09	0.62	1.96	3.44	6.82	15.53	27.94	30.22	13.28	
	대도시	0.00	0.12	0.00	0.18	0.61	2.42	5.54	13.31	26.59	36.41	14.83	109.376***
	중소도시	0.00	0.00	0.04	0.49	1.49	2.79	5.47	14.98	27.05	32.57	15.12	
	농어촌	0.00	0.00	0.35	0.18	2.23	6.98	11.26	22.31	25.34	17.96	13.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52	0.00	1.15	1.79	2.45	5.92	17.90	26.21	28.77	15.29	78.640***
	중하층	0.00	0.00	0.05	0.19	1.47	2.73	6.53	14.94	24.16	34.11	15.82	
	중간층	0.00	0.00	0.05	0.29	0.68	3.28	5.40	14.37	28.42	33.09	14.42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30	1.56	2.08	5.24	11.64	30.95	36.12	12.1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13	0.08	0.86	1.98	3.93	7.58	14.76	26.36	28.22	16.11	91.964***
	200만 원대	0.00	0.04	0.05	0.22	0.81	2.65	6.14	15.54	27.55	33.78	13.22	
	300만 원대	0.00	0.00	0.00	0.07	1.19	2.20	4.56	13.93	26.03	35.73	16.29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0.25	2.53	3.17	12.31	28.76	39.97	13.01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00	0.87	3.41	3.52	15.11	19.13	36.01	21.95	
학력	중졸 이하	0.00	0.30	0.18	0.82	2.78	5.66	7.92	15.02	26.97	28.84	11.52	79.264***
	고졸	0.00	0.04	0.05	0.40	1.21	2.52	6.68	15.05	25.17	33.77	15.10	
	대졸 이상	0.00	0.00	0.00	0.16	0.72	2.59	4.69	14.40	28.06	33.89	15.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0.00	0.21	0.39	2.24	4.70	15.05	26.80	36.70	13.91	112.494***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14	0.00	0.58	2.56	4.68	9.00	17.62	21.63	29.63	14.16	
	고용주/자영자	0.00	0.00	0.17	0.33	1.05	3.04	5.90	12.73	28.54	33.47	14.77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3.75	1.76	7.60	9.06	25.61	40.01	12.20	
	실업자	0.00	0.00	0.00	0.00	1.60	2.78	10.79	16.92	30.18	24.03	13.71	
	비경제활동인구	0.00	0.14	0.04	0.47	1.71	3.09	5.68	14.22	27.52	29.90	17.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00	0.29	0.46	2.32	4.73	14.22	27.92	36.06	13.99	80.191***
	비정규직	0.00	0.09	0.17	0.33	2.33	4.29	8.60	16.51	22.07	30.99	14.6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0	0.04	0.32	1.32	2.93	6.61	15.74	27.73	32.58	12.72	43.266**
	중도적	0.00	0.04	0.08	0.35	1.34	3.38	6.58	15.61	26.00	31.87	14.76	
	진보적	0.00	0.11	0.00	0.32	0.74	2.19	4.19	12.57	26.92	35.93	17.03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8〉 생활영역 중요 : 안정성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0	0.05	0.13	0.57	1.09	3.30	5.89	11.90	25.96	34.31	16.79	
성별	남성	0.00	0.10	0.07	0.68	1.25	2.83	4.96	12.59	24.87	34.40	18.24	28.224**
	여성	0.00	0.00	0.19	0.46	0.91	3.79	6.85	11.19	27.08	34.22	15.31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5	0.28	0.73	2.68	4.55	10.35	24.46	38.75	18.13	106.797***
	30대	0.00	0.10	0.11	0.44	0.27	1.81	5.87	11.71	27.75	34.11	17.82	
	40대	0.00	0.17	0.16	0.46	1.26	3.21	5.36	11.34	24.11	36.11	17.82	
	50대	0.00	0.00	0.00	0.57	1.27	2.89	6.70	12.84	26.29	35.06	14.38	
	60대	0.00	0.00	0.22	0.70	1.52	4.83	5.71	10.53	27.24	30.84	18.42	
	70대	0.00	0.00	0.43	1.48	1.84	6.09	8.38	17.06	26.69	25.66	12.38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11	0.54	2.93	5.66	11.19	25.18	35.85	18.55	62.122***
	비수도권	0.00	0.10	0.27	1.04	1.65	3.69	6.13	12.63	26.76	32.73	14.99	
	대도시	0.00	0.12	0.09	0.36	0.65	3.05	6.02	11.78	26.13	35.71	16.07	77.716***
	중소도시	0.00	0.00	0.16	0.65	1.52	2.90	5.29	11.39	25.76	34.54	17.78	
	농어촌	0.00	0.00	0.12	1.35	0.62	8.13	9.70	16.68	26.30	23.20	13.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0.52	0.54	0.85	3.71	2.43	5.13	10.28	31.52	26.93	18.08	121.997***
	중하층	0.00	0.00	0.13	0.79	0.69	3.30	5.70	12.62	25.14	32.84	18.78	
	중간층	0.00	0.00	0.07	0.27	0.88	3.49	6.46	11.75	25.73	37.03	14.33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89	0.97	3.38	4.37	11.13	24.17	35.31	19.7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0	0.13	0.42	1.39	2.22	4.39	6.13	15.06	25.20	26.93	18.15	175.323***
	200만 원대	0.00	0.04	0.05	0.18	0.80	3.18	7.18	11.21	25.26	36.75	15.34	
	300만 원대	0.00	0.00	0.00	0.56	0.71	3.01	4.70	9.10	29.11	36.80	16.02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0.28	0.76	3.30	13.36	24.69	41.49	16.12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38	0.00	3.96	0.99	10.08	23.50	29.44	31.65	
학력	중졸 이하	0.00	0.30	0.63	1.04	2.87	7.26	7.71	12.72	25.30	26.48	15.69	115.748***
	고졸	0.00	0.04	0.15	0.76	1.21	3.48	5.62	13.02	25.22	33.81	16.68	
	대졸 이상	0.00	0.00	0.00	0.29	0.56	2.21	5.70	10.72	26.76	36.61	17.1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0.00	0.19	0.68	2.22	5.55	10.97	26.52	37.41	16.47	112.594***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14	0.36	1.43	2.37	5.92	7.46	11.31	26.28	30.45	14.27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5	0.84	0.87	2.75	5.76	12.93	22.88	34.86	19.07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1.56	6.20	7.87	12.20	24.10	20.55	27.52	
	실업자	0.00	0.00	0.00	0.37	0.92	8.22	4.86	14.67	29.69	26.27	15.00	
	비경제활동인구	0.00	0.14	0.32	0.62	1.30	3.63	5.84	12.70	26.89	31.83	16.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00	0.28	0.75	2.29	5.68	11.48	25.21	37.43	16.88	63.747***
	비정규직	0.00	0.09	0.28	1.33	1.78	5.05	6.70	11.71	26.37	29.85	16.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00	0.17	0.48	1.18	3.72	6.53	13.84	26.40	31.57	16.10	44.568***
	중도적	0.00	0.04	0.16	0.64	1.22	3.50	6.39	12.23	26.50	34.23	15.09	
	진보적	0.00	0.11	0.06	0.55	0.80	2.65	4.60	9.66	24.77	36.91	19.89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안정성"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9〉 생활영역 중요 :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05	0.10	0.31	1.09	3.89	6.01	15.33	29.30	30.73	13.18	
성별	남성	0.00	0.09	0.15	0.30	0.88	4.11	6.05	14.94	29.92	30.14	13.41	9.483
	여성	0.03	0.00	0.05	0.32	1.30	3.66	5.97	15.72	28.67	31.33	12.95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0	0.14	0.66	3.15	4.64	12.79	26.86	34.62	17.14	138.920***
	30대	0.00	0.00	0.14	0.13	0.85	3.44	3.74	15.52	29.95	31.05	15.18	
	40대	0.00	0.17	0.00	0.31	1.24	3.93	6.41	12.24	30.26	33.67	11.77	
	50대	0.00	0.00	0.13	0.21	1.10	3.32	6.87	16.55	31.55	28.83	11.44	
	60대	0.00	0.08	0.26	0.26	1.43	4.61	7.69	17.61	26.96	28.03	13.07	
	70대	0.14	0.00	0.10	1.35	1.47	6.33	7.44	20.40	29.81	24.49	8.46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05	0.34	2.94	5.22	14.62	28.80	33.22	14.82	86.036***
	비수도권	0.03	0.09	0.20	0.58	1.85	4.87	6.82	16.06	29.82	28.17	11.50	
	대도시	0.03	0.08	0.08	0.24	0.61	3.44	5.68	15.65	29.91	30.79	13.48	109.739***
	중소도시	0.00	0.03	0.07	0.36	1.23	3.38	5.74	14.26	29.33	32.12	13.49	
	농어촌	0.00	0.00	0.42	0.41	3.13	10.88	10.30	21.48	25.04	19.53	8.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3	0.34	0.40	2.01	1.60	4.36	5.09	21.71	24.52	27.13	12.69	124.996***
	중하층	0.00	0.03	0.09	0.21	1.19	4.04	6.33	15.22	28.48	29.95	14.46	
	중간층	0.00	0.00	0.06	0.08	0.92	4.02	5.56	14.57	31.22	31.61	11.96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0.89	1.57	8.44	11.88	28.21	34.41	14.6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5	0.18	0.28	1.01	1.98	5.29	7.32	17.84	28.13	25.69	12.24	161.274***
	200만 원대	0.00	0.00	0.06	0.04	0.75	4.04	6.12	15.46	30.50	31.04	11.99	
	300만 원대	0.00	0.00	0.00	0.00	1.06	2.10	5.20	13.74	28.16	35.45	14.28	
	400만 원대	0.00	0.00	0.00	0.22	0.00	3.22	4.06	13.60	33.94	31.30	13.67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38	0.87	3.84	3.76	7.58	19.70	35.57	28.30	
학력	중졸 이하	0.11	0.30	0.44	1.52	2.44	7.29	7.97	19.67	24.92	24.17	11.19	134.582***
	고졸	0.00	0.03	0.12	0.32	1.22	3.45	6.66	15.56	30.16	29.04	13.44	
	대졸 이상	0.00	0.00	0.00	0.01	0.65	3.47	4.98	14.10	29.60	33.76	13.4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3	0.00	0.01	0.68	3.44	4.55	13.65	30.99	33.06	13.60	141.216***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0.52	0.62	1.64	8.03	6.84	17.44	24.32	27.63	12.95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0	0.21	1.77	3.26	7.50	14.44	30.48	30.29	12.06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3.75	5.05	6.25	20.31	20.27	29.95	14.43	
	실업자	0.00	0.00	0.00	0.92	0.00	4.93	14.31	16.25	25.82	31.15	6.62	
	비경제활동인구	0.05	0.14	0.15	0.69	1.02	2.90	6.01	17.59	28.69	28.62	14.1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00	0.04	0.91	3.36	5.40	13.83	30.82	32.09	13.55	55.689***
	비정규직	0.00	0.07	0.33	0.50	1.81	6.43	6.57	16.56	26.34	29.53	11.8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5	0.05	0.03	0.33	1.14	4.38	6.92	17.03	29.72	28.69	11.66	56.596***
	중도적	0.00	0.00	0.21	0.31	1.37	4.09	6.35	16.13	29.22	28.70	13.62	
	진보적	0.00	0.11	0.00	0.29	0.63	3.16	4.70	12.63	29.04	35.52	13.93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0〉 생활영역 중요 : 지역사회 환경 질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04	0.07	0.36	0.88	4.73	7.30	17.91	30.75	28.84	9.11	
성별	남성	0.00	0.08	0.03	0.33	0.80	4.22	7.77	18.42	29.98	28.67	9.70	13.026
	여성	0.03	0.00	0.12	0.39	0.96	5.24	6.82	17.38	31.54	29.01	8.52	
연령대	20대 이하	0.00	0.00	0.00	0.20	0.83	3.83	6.31	15.37	31.67	32.57	9.22	125.073***
	30대	0.00	0.00	0.24	0.15	0.33	4.38	5.41	17.85	32.29	27.87	11.47	
	40대	0.00	0.17	0.06	0.27	0.45	4.63	6.43	17.21	30.08	30.52	10.19	
	50대	0.00	0.00	0.10	0.26	1.06	5.09	9.11	16.52	31.32	28.74	7.81	
	60대	0.00	0.00	0.00	1.06	0.86	4.61	7.85	23.01	27.96	25.68	8.98	
	70대	0.14	0.10	0.00	0.33	2.66	6.84	9.88	19.11	30.94	24.98	5.02	
지역	수도권	0.00	0.00	0.00	0.10	0.27	2.93	7.06	18.04	30.68	30.63	10.30	89.267***
	비수도권	0.03	0.09	0.15	0.63	1.50	6.56	7.55	17.77	30.83	27.00	7.90	
	대도시	0.03	0.10	0.09	0.31	0.45	4.58	6.98	16.23	31.90	31.37	7.96	143.129***
	중소도시	0.00	0.00	0.07	0.24	1.15	3.75	6.90	18.95	30.06	28.60	10.28	
	농어촌	0.00	0.00	0.00	1.61	1.62	13.27	12.52	20.99	28.42	13.88	7.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3	0.34	0.18	1.27	2.16	5.98	8.10	21.24	26.41	22.22	11.97	115.305***
	중하층	0.00	0.02	0.10	0.29	0.78	5.20	7.73	18.65	29.32	28.17	9.73	
	중간층	0.00	0.00	0.05	0.16	0.75	4.02	7.66	16.93	32.07	30.71	7.66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74	0.43	4.82	1.53	15.40	36.25	29.83	11.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5	0.16	0.09	0.87	1.83	5.99	8.84	20.56	27.59	24.21	9.83	161.621***
	200만 원대	0.00	0.00	0.09	0.13	0.57	4.72	7.69	18.10	31.41	28.46	8.84	
	300만 원대	0.00	0.00	0.00	0.15	0.58	3.58	5.69	16.05	32.78	32.42	8.76	
	400만 원대	0.00	0.00	0.00	0.28	0.12	4.01	4.71	15.05	35.76	36.50	3.58	
	500만 원 이상	0.00	0.00	0.38	0.81	0.87	3.76	6.32	12.53	22.80	30.10	22.43	
학력	중졸 이하	0.11	0.37	0.00	1.31	1.98	8.96	9.67	19.40	28.47	23.66	6.07	118.337***
	고졸	0.00	0.00	0.16	0.43	0.94	4.31	7.40	19.64	29.64	27.46	10.02	
	대졸 이상	0.00	0.00	0.02	0.07	0.56	4.09	6.65	16.04	32.26	31.28	9.0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0.00	0.00	0.14	0.42	3.24	6.59	17.45	31.92	31.03	9.21	122.265***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0.34	0.42	1.03	8.69	11.31	15.19	29.30	24.09	9.64	
	고용주/자영자	0.00	0.00	0.11	0.23	0.94	5.03	6.76	18.50	28.13	30.55	9.7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1.11	7.45	7.08	19.46	20.63	33.60	10.67	
	실업자	0.00	0.00	0.00	0.00	2.66	7.87	7.34	26.39	30.56	20.23	4.95	
	비경제활동인구	0.05	0.18	0.05	0.85	1.34	4.59	6.88	18.66	31.86	26.96	8.6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0.00	0.02	0.15	0.51	3.64	6.61	17.94	30.90	30.68	9.56	52.012***
	비정규직	0.00	0.00	0.28	0.39	1.10	7.45	9.70	15.76	29.00	27.24	9.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5	0.03	0.04	0.27	0.63	5.74	7.59	22.52	27.42	27.49	8.22	71.795***
	중도적	0.00	0.00	0.13	0.46	1.28	5.13	7.57	16.06	32.53	28.64	8.20	
	진보적	0.00	0.11	0.03	0.29	0.51	3.22	6.65	16.41	31.18	30.34	11.24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1〉 생활영역 중요 : 하는 일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3	0.06	0.15	0.32	0.87	4.10	6.44	14.18	29.31	34.66	9.87	
성별	남성	0.00	0.09	0.25	0.24	0.81	3.73	6.32	14.17	28.12	34.63	11.66	27.028**
	여성	0.06	0.02	0.05	0.41	0.93	4.49	6.57	14.20	30.53	34.70	8.04	
연령대	20대 이하	0.09	0.00	0.00	0.09	0.84	2.10	4.70	11.79	25.30	43.96	11.14	200.844***
	30대	0.00	0.00	0.24	0.13	0.17	2.38	6.60	13.13	30.63	36.15	10.56	
	40대	0.00	0.22	0.07	0.25	0.64	3.17	6.89	15.19	26.71	34.90	11.95	
	50대	0.00	0.00	0.13	0.36	0.50	5.41	6.05	14.03	35.13	29.78	8.62	
	60대	0.00	0.08	0.45	0.67	1.12	6.39	6.18	15.65	27.86	32.45	9.17	
	70대	0.14	0.00	0.00	0.68	3.28	6.70	10.21	16.74	29.78	27.18	5.29	
지역	수도권	0.00	0.00	0.14	0.00	0.54	2.81	5.65	13.27	28.19	38.34	11.05	85.806***
	비수도권	0.06	0.12	0.17	0.66	1.20	5.43	7.26	15.12	30.45	30.88	8.66	
	대도시	0.07	0.10	0.10	0.25	0.32	3.71	5.80	14.20	30.06	35.54	9.86	95.697***
	중소도시	0.00	0.03	0.19	0.30	1.27	3.89	5.99	13.78	28.71	35.75	10.09	
	농어촌	0.00	0.00	0.20	0.98	1.46	8.39	14.20	17.24	28.89	20.36	8.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3	0.34	0.45	1.64	2.17	4.28	4.95	13.74	30.66	30.18	11.46	105.481***
	중하층	0.04	0.03	0.28	0.19	0.71	4.59	7.56	13.14	28.99	33.39	11.06	
	중간층	0.00	0.03	0.00	0.15	0.76	3.91	5.98	16.04	28.89	35.83	8.43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38	0.61	2.43	5.31	8.66	31.85	40.43	10.3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5	0.18	0.41	0.84	2.12	5.65	8.72	16.03	25.73	30.29	9.99	175.784***
	200만 원대	0.04	0.03	0.10	0.19	0.43	3.70	6.32	13.65	32.30	34.70	8.55	
	300만 원대	0.00	0.00	0.00	0.06	0.42	3.79	4.77	13.58	28.30	38.09	10.99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0.22	1.78	6.63	11.83	34.68	35.76	9.11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38	0.87	4.43	0.00	15.62	13.12	44.74	20.84	
학력	중졸 이하	0.11	0.30	0.61	1.57	2.15	8.89	9.38	14.37	29.22	27.42	5.98	150.050***
	고졸	0.00	0.06	0.17	0.31	1.08	3.91	7.15	14.33	29.84	33.69	9.47	
	대졸 이상	0.03	0.00	0.03	0.04	0.38	3.14	5.13	14.01	28.86	37.22	11.1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4	0.03	0.03	0.07	0.31	2.32	6.03	12.54	30.00	38.15	10.49	174.785***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00	0.56	0.20	1.35	8.47	8.42	14.01	27.24	31.75	7.99	
	고용주/자영자	0.00	0.00	0.00	0.31	0.99	3.98	5.30	15.06	28.61	33.61	12.14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0.00	5.51	13.15	3.96	37.44	28.63	11.31	
	실업자	0.00	0.00	0.00	0.00	5.06	5.83	9.40	13.60	28.77	29.08	8.27	
	비경제활동인구	0.05	0.19	0.29	0.88	1.06	4.81	6.51	16.80	29.53	31.76	8.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3	0.00	0.02	0.05	0.48	2.80	5.41	13.90	29.28	37.15	10.86	69.530***
	비정규직	0.00	0.07	0.35	0.43	1.13	6.61	8.81	11.81	29.18	32.10	9.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5	0.09	0.26	0.16	1.38	4.59	6.33	16.02	30.68	31.80	8.65	78.031***
	중도적	0.00	0.00	0.19	0.46	0.93	4.44	7.00	15.42	29.86	32.53	9.17	
	진보적	0.05	0.11	0.00	0.28	0.32	3.18	5.74	10.72	27.26	40.34	12.00	

주 1) "(조사표 질문)__님께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시는 일"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2〉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충분성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17	37.20	57.74	2.89	
성별	남성	2.04	38.16	57.02	2.79	2.461
	여성	2.31	36.22	58.47	3.00	
연령대	20대 이하	0.85	39.16	56.04	3.95	105.983***
	30대	1.35	30.74	64.34	3.58	
	40대	1.62	37.55	57.83	3.00	
	50대	2.27	35.28	59.76	2.69	
	60대	2.64	39.57	55.92	1.87	
	70대	6.79	45.58	46.32	1.30	
지역	수도권	2.25	39.88	55.34	2.54	17.410**
	비수도권	2.09	34.46	60.20	3.25	
	대도시	2.33	37.03	58.30	2.34	31.813***
	중소도시	1.74	36.08	58.81	3.36	
	농어촌	4.41	47.03	45.68	2.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07	67.59	19.84	0.50	1038.522***
	중하층	2.05	47.70	48.96	1.29	
	중간층	0.32	26.00	70.81	2.87	
	중상층(상층)	0.93	8.61	75.28	15.1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03	45.06	47.83	2.08	231.342***
	200만 원대	1.79	38.21	57.33	2.68	
	300만 원대	0.49	31.48	65.30	2.72	
	400만 원대	0.00	25.25	71.46	3.29	
	500만 원 이상	0.00	25.45	61.95	12.59	
학력	중졸 이하	7.77	53.46	38.26	0.51	254.121***
	고졸	2.57	39.38	55.56	2.48	
	대졸 이상	0.49	31.44	64.26	3.8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7	30.52	64.57	3.94	246.839***
	임시/일용직 근로자	4.91	51.55	42.27	1.28	
	고용주/자영자	1.31	37.14	59.85	1.70	
	무급가족종사자	0.00	36.94	61.58	1.49	
	실업자	8.04	66.35	24.59	1.03	
	비경제활동인구	2.94	38.23	55.75	3.0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9	30.92	64.63	3.57	169.316***
	비정규직	3.99	49.36	45.63	1.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4	40.60	52.92	3.53	26.766***
	중도적	2.00	35.49	60.36	2.15	
	진보적	1.72	36.61	58.29	3.38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___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3〉 행복할 수 있는 조건 : 1순위

(단위: %)

구분		건강하게 사는 것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χ^2
전체		23.38	21.54	17.48	17.20	5.99	4.66	4.12	2.88	2.45	0.30	
성별	남성	22.07	21.19	19.00	18.43	6.45	3.43	4.52	3.05	1.72	0.14	51.843***
	여성	24.73	21.89	15.93	15.94	5.51	5.91	3.70	2.72	3.19	0.47	
연령대	20대 이하	11.42	19.90	18.90	27.67	8.37	1.19	7.56	3.91	0.97	0.13	674.504***
	30대	12.61	28.86	18.04	19.50	6.39	6.42	4.90	1.40	1.77	0.11	
	40대	18.68	23.42	18.91	15.60	4.62	10.37	4.15	2.41	1.67	0.18	
	50대	26.29	22.80	17.04	14.68	5.41	3.58	3.07	3.88	2.89	0.35	
	60대	38.78	15.11	16.72	12.30	5.44	2.42	1.84	2.42	4.15	0.81	
	70대	46.38	14.48	12.50	9.11	5.65	1.85	1.84	3.23	4.61	0.35	
지역	수도권	21.12	23.45	16.82	17.83	5.71	4.11	4.60	3.16	2.95	0.25	37.500***
	비수도권	25.71	19.57	18.16	16.55	6.27	5.22	3.62	2.60	1.93	0.36	
	대도시	21.93	20.41	18.74	17.62	6.30	4.02	3.90	4.09	2.55	0.43	58.542***
	중소도시	23.83	22.17	15.97	17.50	5.91	5.33	4.48	1.98	2.58	0.23	
	농어촌	29.59	24.03	20.79	12.05	4.53	3.66	2.78	1.83	0.74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41	17.51	27.52	9.55	5.59	1.62	3.02	1.64	3.50	0.63	154.166***
	중하층	23.87	21.65	19.18	17.32	5.41	4.20	4.34	1.67	2.19	0.16	
	중간층	22.05	21.53	14.39	18.37	7.17	5.85	4.23	3.76	2.29	0.38	
	중상층(상층)	20.87	26.55	13.94	19.73	2.15	3.82	3.66	5.71	3.43	0.1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64	15.08	17.83	14.16	4.56	5.27	3.69	2.62	3.61	0.53	235.147***
	200만 원대	19.44	24.46	19.46	17.99	5.58	5.05	3.39	2.18	2.24	0.19	
	300만 원대	20.15	21.46	14.84	20.51	8.45	4.26	4.97	3.85	1.13	0.37	
	400만 원대	21.86	23.66	11.57	18.14	6.97	2.15	6.50	6.06	3.02	0.07	
	500만 원 이상	24.21	31.58	20.09	7.54	4.34	2.97	5.85	0.31	3.11	0.00	
학력	중졸 이하	42.04	12.35	17.17	12.33	4.50	2.47	1.99	1.91	4.35	0.89	232.857***
	고졸	25.44	20.99	17.88	16.55	5.66	4.08	3.71	2.42	2.95	0.32	
	대졸 이상	17.16	24.19	17.20	18.93	6.62	5.68	4.98	3.52	1.56	0.1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12	23.74	17.59	20.40	6.51	4.86	4.72	3.41	1.61	0.03	194.991***
	임시/일용직 근로자	24.78	18.63	23.10	16.49	4.61	3.01	3.43	2.53	3.42	0.00	
	고용주/자영자	29.70	20.00	16.69	12.16	7.69	3.97	3.73	2.83	2.78	0.45	
	무급가족종사자	38.81	20.44	18.19	11.85	3.33	2.17	0.00	3.03	2.17	0.00	
	실업자	20.63	24.09	17.38	20.23	4.77	3.94	3.18	2.76	0.69	2.34	
	비경제활동인구	28.36	20.17	15.01	15.83	4.67	5.85	3.97	2.21	3.34	0.6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39	22.78	16.84	18.45	7.10	4.67	4.32	3.26	2.07	0.12	43.364***
	비정규직	25.89	19.45	22.32	15.05	4.68	3.26	3.86	2.69	2.63	0.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39	18.42	15.34	13.36	5.63	4.66	2.69	2.81	3.12	0.59	142.250***
	중도적	20.90	21.87	18.69	18.98	5.77	4.81	4.00	2.63	2.08	0.28	
	진보적	17.95	23.86	17.66	18.09	6.62	4.44	5.59	3.32	2.38	0.08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게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4〉 행복할 수 있는 조건 : 2순위

(단위: %)

구분		건강하게 사는 것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χ^2
전체		17.77	16.02	14.59	13.99	12.10	8.77	6.70	4.38	4.33	1.36	
성별	남성	19.21	14.95	14.91	14.51	13.76	7.62	6.51	4.24	3.09	1.19	51.081***
	여성	16.29	17.11	14.26	13.46	10.39	9.94	6.91	4.51	5.60	1.53	
연령대	20대 이하	13.29	14.85	20.92	12.98	14.55	3.35	11.66	5.18	2.95	0.26	400.197***
	30대	15.10	13.21	16.51	14.20	13.09	12.72	6.48	4.56	3.49	0.64	
	40대	17.97	13.22	12.33	14.89	11.25	15.73	5.81	4.82	3.01	0.96	
	50대	20.19	14.96	13.60	13.09	11.66	10.18	5.93	4.20	4.77	1.43	
	60대	21.28	21.01	11.65	14.40	11.94	2.77	4.86	3.60	6.67	1.81	
	70대	19.96	24.11	10.32	15.03	8.21	3.61	3.93	3.12	6.69	5.02	
지역	수도권	16.39	15.19	14.70	13.49	10.74	10.10	7.00	4.91	6.04	1.45	66.705***
	비수도권	19.18	16.87	14.49	14.51	13.49	7.40	6.40	3.83	2.57	1.26	
	대도시	16.43	15.25	15.41	15.01	12.67	7.05	7.21	5.05	5.12	0.82	58.243***
	중소도시	18.71	16.73	13.50	13.06	11.60	10.48	6.10	3.96	4.06	1.80	
	농어촌	19.38	15.61	17.62	14.41	12.15	6.89	8.03	3.21	1.19	1.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47	20.04	11.94	13.77	12.30	8.35	4.96	3.85	2.69	1.64	108.320***
	중하층	18.19	16.10	15.13	13.19	14.91	8.96	5.51	3.42	3.29	1.30	
	중간층	17.86	15.12	14.82	14.16	10.17	9.13	7.83	4.85	5.00	1.06	
	중상층(상층)	11.10	15.76	13.87	17.65	8.56	5.91	8.54	7.38	8.07	3.1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7.78	19.16	12.05	13.72	12.37	8.60	4.93	3.64	5.50	2.25	99.510***
	200만 원대	17.55	13.87	15.91	14.27	12.69	10.27	7.10	4.18	3.22	0.95	
	300만 원대	16.41	16.19	14.72	14.72	12.49	7.03	7.22	5.19	4.69	1.34	
	400만 원대	21.59	14.47	15.85	11.58	8.23	6.20	8.38	6.78	5.82	1.11	
	500만 원 이상	20.55	21.07	14.39	13.37	8.49	7.96	8.57	2.01	3.46	0.13	
학력	중졸 이하	21.05	22.00	8.93	15.97	12.31	4.35	4.76	3.36	4.55	2.72	80.762***
	고졸	17.87	15.79	14.88	12.67	13.06	8.86	6.04	4.60	4.65	1.58	
	대졸 이상	16.90	14.80	15.68	14.68	11.20	9.73	7.74	4.42	4.00	0.8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20	13.99	15.39	15.25	12.02	8.81	8.64	4.95	3.15	0.60	119.651***
	임시/일용직 근로자	16.55	18.52	13.75	12.55	11.98	10.17	3.75	4.71	5.79	2.22	
	고용주/자영자	21.75	16.05	14.20	13.66	13.35	6.80	5.23	3.47	4.17	1.32	
	무급가족종사자	10.85	17.27	9.81	15.47	17.02	17.67	2.07	5.96	1.19	2.70	
	실업자	16.64	22.56	17.56	12.15	14.76	6.09	2.15	0.00	6.87	1.24	
	비경제활동인구	16.59	17.46	13.77	12.97	10.87	9.54	6.67	4.37	5.55	2.2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46	14.28	14.66	15.23	12.47	8.35	7.75	4.41	3.63	0.75	37.714***
	비정규직	17.46	18.16	15.03	12.06	12.21	9.32	4.47	4.88	4.42	1.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93	19.89	10.73	14.02	11.52	6.21	5.37	3.89	4.25	2.18	103.823***
	중도적	15.60	13.75	15.27	14.21	12.42	9.99	7.94	4.95	4.99	0.88	
	진보적	17.16	15.82	17.10	13.65	12.14	9.30	6.11	3.99	3.44	1.3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게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5〉 행복 저해 요소 : 1순위

(단위: %)

구분		적은 소득	일자리	불안한 노후	건강	가족 간의 불화	자녀 교육	자녀 육아	기타	χ^2
전체		25.41	23.68	17.86	17.51	6.38	5.81	2.95	0.42	
성별	남성	26.39	26.08	18.42	15.16	6.35	4.89	2.36	0.36	45.888***
	여성	24.40	21.21	17.29	19.92	6.40	6.75	3.55	0.48	
연령대	20대 이하	27.88	45.94	9.87	7.73	4.30	2.48	1.45	0.36	934.157***
	30대	28.21	25.38	13.42	9.42	6.66	8.25	8.06	0.58	
	40대	27.64	19.80	15.18	14.44	5.98	12.41	4.56	0.00	
	50대	23.26	20.05	22.32	18.91	7.68	5.95	1.30	0.53	
	60대	22.12	14.37	24.02	29.88	7.75	0.60	0.55	0.72	
	70대	20.49	7.70	28.04	35.78	5.53	1.73	0.39	0.34	
지역	수도권	26.48	24.26	16.63	15.16	7.59	5.66	3.60	0.62	48.529***
	비수도권	24.31	23.08	19.12	19.92	5.13	5.95	2.28	0.21	
	대도시	24.68	25.11	17.82	15.97	7.28	5.69	2.73	0.73	27.013*
	중소도시	25.96	22.77	17.61	18.43	5.89	5.97	3.18	0.18	
	농어촌	25.95	21.18	20.09	20.58	4.13	5.29	2.60	0.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48	18.14	18.72	19.94	5.16	2.11	1.38	0.08	181.083***
	중하층	31.46	21.99	17.81	16.39	4.66	5.15	2.48	0.06	
	중간층	19.34	26.25	18.01	17.16	8.20	6.55	3.75	0.73	
	중상층(상층)	18.11	24.16	16.02	22.58	5.90	9.78	2.58	0.8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9.20	15.88	18.27	23.13	5.50	5.14	2.78	0.11	225.697***
	200만 원대	26.88	24.55	17.34	15.07	6.29	6.73	2.97	0.17	
	300만 원대	21.30	29.25	19.05	14.27	6.96	5.40	3.41	0.37	
	400만 원대	16.30	29.82	19.84	18.38	6.41	3.63	2.53	3.10	
	500만 원 이상	23.56	24.73	8.76	23.00	10.89	6.96	1.96	0.13	
학력	중졸 이하	25.11	8.29	26.94	31.50	6.00	1.29	0.62	0.26	327.456***
	고졸	25.78	23.34	18.57	20.06	5.85	4.51	1.50	0.39	
	대졸 이상	25.15	27.62	15.09	11.96	6.93	8.01	4.76	0.4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34	27.18	16.10	11.73	5.88	6.63	3.78	0.36	297.791***
	임시/일용직 근로자	31.61	27.47	17.94	15.39	4.04	2.86	0.68	0.00	
	고용주/자영자	21.67	18.61	23.19	21.29	8.55	4.75	1.90	0.04	
	무급가족종사자	18.52	14.43	24.65	22.80	5.54	10.25	3.81	0.00	
	실업자	19.13	42.33	16.45	16.75	3.37	1.66	0.31	0.00	
	비경제활동인구	20.99	17.88	16.63	25.54	7.10	7.04	3.75	1.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62	24.99	17.81	14.13	6.83	6.13	3.21	0.27	25.270**
	비정규직	28.33	24.67	19.70	17.04	4.65	3.94	1.59	0.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70	17.04	20.41	24.30	9.43	3.94	1.37	0.81	167.880***
	중도적	26.75	24.72	16.35	15.66	5.75	6.82	3.56	0.39	
	진보적	25.91	28.15	17.76	14.06	4.54	6.02	3.48	0.0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____님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6〉 행복 저해 요소 : 2순위

(단위: %)

구분		불안한 노후	적은 소득	건강	일자리	가족 간의 불화	자녀 교육	자녀 육아	기타	χ^2
전체		22.89	20.52	19.10	18.74	9.51	5.68	2.89	0.66	
성별	남성	23.06	21.81	18.72	19.88	8.56	4.77	2.27	0.92	32.425***
	여성	22.72	19.19	19.50	17.58	10.49	6.61	3.52	0.40	
연령대	20대 이하	11.66	28.85	17.94	26.81	9.59	2.32	1.95	0.87	515.350***
	30대	15.42	23.20	15.38	22.13	9.13	7.34	6.83	0.58	
	40대	24.69	16.82	14.21	17.40	9.12	12.83	4.55	0.37	
	50대	27.92	18.08	21.56	15.35	9.93	5.01	1.43	0.72	
	60대	32.50	16.83	23.22	15.66	9.26	1.36	0.53	0.63	
	70대	28.07	18.55	27.03	11.71	10.47	2.33	0.88	0.97	
지역	수도권	21.88	19.70	17.81	19.83	10.53	6.34	3.26	0.66	23.336**
	비수도권	23.93	21.35	20.43	17.63	8.47	5.01	2.51	0.67	
	대도시	23.04	20.25	20.22	18.81	10.13	4.99	1.91	0.64	40.055***
	중소도시	21.97	20.30	18.27	19.09	9.42	6.62	3.64	0.70	
	농어촌	29.02	23.99	18.14	15.56	6.11	3.05	3.58	0.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91	21.38	16.54	19.16	7.06	2.32	1.63	0.00	130.603***
	중하층	22.82	23.96	16.87	20.81	7.29	5.39	2.58	0.29	
	중간층	21.19	18.14	21.45	17.05	11.01	6.71	3.43	1.02	
	중상층(상층)	21.61	15.48	19.99	17.61	15.57	5.43	2.96	1.3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83	20.05	18.47	16.48	9.72	4.99	3.14	0.34	69.413***
	200만 원대	21.19	21.21	18.65	19.41	9.39	6.54	3.08	0.53	
	300만 원대	21.51	19.84	21.05	20.68	8.74	5.43	2.01	0.74	
	400만 원대	22.31	18.24	20.11	18.93	10.76	4.82	3.93	0.90	
	500만 원 이상	23.51	25.14	15.00	15.24	11.62	3.74	1.75	3.99	
학력	중졸 이하	31.07	17.61	24.47	13.05	11.16	1.58	0.93	0.13	125.798***
	고졸	25.58	20.28	18.99	17.85	9.16	5.48	2.02	0.65	
	대졸 이상	18.61	21.42	17.93	20.87	9.42	6.84	4.12	0.7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81	20.80	18.21	23.20	8.37	6.43	3.65	0.53	199.574***
	임시/일용직 근로자	24.94	23.37	16.98	21.93	7.27	3.58	1.84	0.09	
	고용주/자영자	25.78	17.16	22.74	17.78	9.40	4.82	1.18	1.14	
	무급가족종사자	19.36	27.17	22.21	13.63	4.34	10.77	2.52	0.00	
	실업자	22.03	35.46	15.54	15.55	7.13	0.68	2.39	1.22	
	비경제활동인구	26.81	19.35	19.17	10.69	13.14	6.55	3.52	0.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03	19.89	19.94	20.93	8.65	5.86	2.97	0.72	14.629*
	비정규직	23.32	21.66	17.20	23.06	7.72	4.79	1.96	0.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11	18.19	22.39	15.78	9.90	3.85	1.82	0.96	69.887***
	중도적	21.10	21.09	18.17	18.77	10.34	6.59	3.33	0.61	
	진보적	21.67	21.79	17.49	21.38	7.96	6.02	3.22	0.47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____님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7〉 우리 사회 행복 수준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27	0.17	0.38	2.51	5.74	16.87	21.02	29.86	20.17	2.97	0.03	
성별	남성	0.28	0.17	0.43	2.79	6.31	17.06	21.08	29.18	19.33	3.30	0.06	11.438
	여성	0.26	0.18	0.33	2.22	5.15	16.68	20.96	30.55	21.02	2.64	0.00	
연령대	20대 이하	0.12	0.18	0.29	1.68	5.20	18.09	18.38	30.07	21.90	4.10	0.00	74.585*
	30대	0.18	0.15	0.19	2.12	5.46	12.57	21.02	31.92	22.82	3.48	0.09	
	40대	0.30	0.12	0.32	2.53	5.15	17.89	19.28	30.47	20.82	3.03	0.08	
	50대	0.35	0.24	0.30	2.97	5.98	16.26	21.57	28.87	20.63	2.84	0.00	
	60대	0.43	0.14	0.55	3.05	6.52	17.61	23.04	30.36	16.31	1.99	0.00	
	70대	0.24	0.25	0.98	2.88	6.79	20.72	25.67	25.39	15.54	1.54	0.00	
지역	수도권	0.00	0.05	0.22	2.38	6.48	16.83	21.89	30.80	19.00	2.35	0.00	43.653***
	비수도권	0.55	0.30	0.55	2.64	4.97	16.92	20.13	28.89	21.37	3.61	0.06	
	대도시	0.45	0.35	0.44	2.41	5.55	14.56	21.73	27.78	22.79	3.87	0.07	81.532***
	중소도시	0.08	0.02	0.22	2.22	5.80	18.75	20.73	31.40	18.40	2.36	0.00	
	농어촌	0.57	0.18	1.31	5.35	6.47	17.67	18.56	31.74	16.42	1.74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5	0.65	0.81	6.41	10.48	22.53	28.25	22.90	7.08	0.35	0.00	373.282***
	중하층	0.15	0.07	0.54	3.32	7.02	19.62	22.33	29.99	15.73	1.23	0.00	
	중간층	0.23	0.19	0.17	1.27	3.96	14.22	19.26	31.54	24.83	4.28	0.07	
	중상층(상층)	0.84	0.00	0.27	0.50	3.44	10.87	15.03	28.06	33.06	7.91	0.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44	0.30	0.69	4.23	8.35	18.01	22.94	29.22	14.71	1.12	0.00	182.797***
	200만 원대	0.13	0.20	0.36	2.33	5.25	16.66	19.74	30.84	21.27	3.17	0.04	
	300만 원대	0.22	0.06	0.16	0.71	4.94	13.86	21.89	31.03	22.41	4.72	0.00	
	400만 원대	0.70	0.00	0.06	1.19	2.39	18.44	19.06	26.78	27.69	3.69	0.00	
	500만 원 이상	0.00	0.00	0.33	5.78	3.83	26.77	20.99	21.66	17.76	2.39	0.49	
학력	중졸 이하	0.66	0.28	0.52	4.98	7.78	20.85	25.36	26.67	11.93	0.97	0.00	103.979***
	고졸	0.11	0.18	0.51	2.32	6.97	16.79	21.26	30.08	19.19	2.55	0.04	
	대졸 이상	0.32	0.14	0.24	2.09	4.18	16.01	19.79	30.43	22.97	3.81	0.0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3	0.11	0.17	1.25	4.16	15.33	19.25	31.42	24.74	3.42	0.04	222.562***
	임시/일용직 근로자	0.53	0.27	0.45	3.68	8.52	19.90	22.12	30.19	12.13	2.21	0.00	
	고용주/자영자	0.55	0.13	0.83	3.18	6.62	16.78	23.29	27.00	18.81	2.72	0.08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3.18	6.44	16.55	18.75	37.95	13.32	3.81	0.00	
	실업자	0.00	0.00	0.33	4.14	19.12	34.68	23.68	12.51	5.13	0.42	0.00	
	비경제활동인구	0.21	0.29	0.39	3.34	4.86	16.13	21.52	30.90	19.32	3.05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7	0.09	0.26	1.75	4.90	15.38	20.06	30.42	23.47	3.34	0.06	67.819***
	비정규직	0.38	0.29	0.71	3.37	7.32	19.51	22.70	29.38	14.12	2.21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2	0.22	0.76	3.51	7.14	19.72	19.91	29.28	17.17	1.97	0.00	54.976***
	중도적	0.36	0.24	0.33	2.12	5.01	16.25	21.76	30.49	20.09	3.32	0.04	
	진보적	0.10	0.04	0.11	2.16	5.52	15.21	20.97	29.48	22.99	3.37	0.05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8〉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구분		빈부격차 및 빈곤율	고용률	범죄율	출산율	자살률	1인당 국민총생산(GDP)	기타	χ^2
전체		33.84	27.10	10.44	10.22	9.47	8.87	0.07	
성별	남성	33.66	28.47	9.98	9.41	9.07	9.38	0.03	11.454
	여성	34.03	25.69	10.90	11.05	9.88	8.34	0.10	
연령대	20대 이하	24.22	37.15	10.25	10.58	10.08	7.69	0.03	150.829***
	30대	30.93	26.64	9.13	14.58	9.92	8.72	0.08	
	40대	33.28	27.07	10.43	9.16	9.59	10.28	0.18	
	50대	35.79	24.98	10.40	9.42	9.10	10.31	0.00	
	60대	41.03	23.58	12.22	7.48	7.81	7.88	0.00	
	70대	43.65	18.25	10.34	10.03	10.89	6.73	0.12	
지역	수도권	34.50	28.00	10.19	9.63	9.23	8.37	0.07	6.394
	비수도권	33.17	26.16	10.69	10.82	9.71	9.38	0.06	
	대도시	31.23	25.83	13.04	12.16	8.96	8.78	0.00	80.354***
	중소도시	36.40	28.54	8.49	7.82	10.07	8.54	0.13	
	농어촌	31.36	24.28	8.22	15.98	8.18	11.98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9.11	22.35	9.76	7.28	6.28	5.22	0.00	132.034***
	중하층	36.04	28.54	9.65	9.21	9.62	6.91	0.02	
	중간층	30.00	27.28	11.13	11.10	9.52	10.93	0.05	
	중상층(상층)	25.05	24.56	11.28	14.24	12.79	11.56	0.5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2.81	23.66	9.91	8.45	9.15	5.94	0.09	124.166***
	200만 원대	32.00	27.77	10.46	11.26	9.97	8.44	0.09	
	300만 원대	31.82	26.66	10.41	9.84	9.31	11.94	0.03	
	400만 원대	19.10	33.53	11.50	11.93	10.80	13.13	0.00	
	500만 원 이상	32.70	34.14	12.08	9.58	3.41	8.09	0.00	
학력	중졸 이하	42.43	19.54	12.71	8.20	10.21	6.83	0.09	60.415***
	고졸	35.82	27.65	10.06	9.17	9.15	8.05	0.10	
	대졸 이상	30.08	28.40	10.22	11.62	9.57	10.07	0.0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45	27.54	10.42	11.45	9.23	9.91	0.00	51.335**
	임시/일용직 근로자	34.94	26.74	10.85	8.03	11.76	7.63	0.04	
	고용주/자영자	34.51	26.58	10.58	9.58	9.41	9.34	0.00	
	무급가족종사자	29.51	27.57	14.74	13.43	7.88	6.87	0.00	
	실업자	34.49	40.38	8.79	6.70	3.97	5.66	0.00	
	비경제활동인구	36.94	25.45	10.19	10.01	9.42	7.74	0.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2.16	26.82	10.43	10.91	9.77	9.90	0.00	7.783
	비정규직	34.58	28.09	10.97	9.05	9.46	7.84	0.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38.74	22.80	10.76	9.78	9.34	8.44	0.16	46.247***
	중도적	32.90	26.53	11.16	10.50	9.31	9.59	0.01	
	진보적	30.79	31.80	9.10	10.22	9.82	8.21	0.06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요소가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가지만 골라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9〉 캔트릴 사다리: 삶의 평가(코로나19 이전)

(단위: %)

구분		바닥										꼭대기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4	0.37	1.33	3.81	6.09	14.55	21.43	30.76	18.26	2.68	0.59	
성별	남성	0.16	0.43	1.57	3.52	6.43	14.14	22.25	30.19	17.96	2.76	0.57	8.065
	여성	0.12	0.31	1.07	4.10	5.74	14.96	20.59	31.35	18.55	2.60	0.60	
연령대	20대 이하	0.00	0.70	1.35	3.60	5.45	13.04	19.09	31.09	22.03	3.05	0.60	116.047***
	30대	0.11	0.18	1.28	3.06	6.40	11.81	20.09	34.32	19.09	2.89	0.77	
	40대	0.16	0.25	0.84	3.72	5.08	16.73	20.91	29.89	19.53	2.65	0.24	
	50대	0.30	0.48	0.82	3.66	5.54	12.28	22.50	34.44	16.06	3.37	0.56	
	60대	0.18	0.36	2.43	5.30	7.20	16.33	22.70	26.64	16.02	1.82	1.02	
	70대	0.00	0.15	1.71	3.61	8.48	20.39	25.38	23.62	14.95	1.47	0.24	
지역	수도권	0.18	0.49	1.53	4.48	6.77	14.78	22.59	30.89	16.40	1.62	0.26	58.341***
	비수도권	0.09	0.25	1.11	3.12	5.39	14.30	20.24	30.64	20.16	3.77	0.92	
	대도시	0.32	0.66	2.00	3.90	6.59	13.83	20.49	31.58	17.07	2.83	0.73	54.676***
	중소도시	0.00	0.07	0.89	3.74	5.85	14.72	22.42	29.99	19.51	2.38	0.43	
	농어촌	0.00	0.88	0.23	3.71	4.62	17.92	19.98	31.35	16.36	4.06	0.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9	0.57	3.61	7.15	10.15	25.37	23.12	20.38	6.99	1.48	0.89	355.859***
	중하층	0.15	0.32	1.67	4.02	7.14	17.07	22.98	30.76	13.78	1.55	0.56	
	중간층	0.04	0.25	0.63	3.13	5.01	11.12	20.61	33.01	22.20	3.43	0.57	
	중상층(상층)	0.51	1.25	0.73	2.29	1.57	7.48	15.71	30.82	33.43	5.82	0.4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1	0.30	1.64	5.37	8.36	18.95	23.86	23.17	15.05	2.30	0.89	179.633***
	200만 원대	0.22	0.35	1.74	3.68	5.55	13.74	19.96	34.04	17.12	3.30	0.29	
	300만 원대	0.00	0.59	0.39	3.50	5.46	13.85	21.17	30.85	21.17	2.26	0.77	
	400만 원대	0.00	0.00	0.95	1.22	4.46	7.91	20.79	36.16	26.62	1.46	0.43	
	500만 원 이상	0.58	0.81	0.39	0.73	2.53	9.29	24.11	36.66	20.38	3.46	1.05	
학력	중졸 이하	0.25	0.49	2.81	5.78	8.28	21.33	25.29	22.82	10.69	1.33	0.93	129.921***
	고졸	0.06	0.51	1.42	4.57	5.85	15.69	21.69	30.32	16.81	2.58	0.49	
	대졸 이상	0.18	0.23	0.89	2.67	5.78	11.94	20.28	33.03	21.31	3.10	0.5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6	0.15	0.95	2.91	5.93	11.59	22.34	31.49	21.04	3.00	0.45	127.220***
	임시/일용직 근로자	0.00	0.45	1.68	4.71	7.58	19.80	22.11	28.65	12.37	2.16	0.48	
	고용주/자영자	0.24	0.57	1.73	3.66	6.03	15.94	20.72	31.87	15.76	2.34	1.14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1.34	5.17	1.85	13.27	19.07	42.80	15.62	0.00	0.89	
	실업자	1.08	0.46	1.50	11.41	8.08	20.14	21.42	18.77	12.64	4.52	0.00	
	비경제활동인구	0.00	0.57	1.46	4.14	5.56	15.27	20.14	30.68	19.13	2.56	0.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1	0.31	1.28	3.26	5.87	11.77	21.09	32.52	20.25	2.78	0.66	77.488***
	비정규직	0.00	0.29	1.28	3.88	7.10	20.57	23.95	27.63	12.41	2.33	0.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28	1.65	4.31	6.75	16.14	22.24	28.44	17.05	2.55	0.59	36.267*
	중도적	0.06	0.18	1.01	3.48	5.93	13.55	21.79	31.84	18.80	2.63	0.73	
	진보적	0.38	0.75	1.50	3.81	5.73	14.56	20.17	31.30	18.55	2.88	0.37	

주 1) "(조사표 질문)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이전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0〉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육아휴직급여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06	2.11	9.18	14.83	71.81	
성별	남성	2.23	2.28	9.67	12.88	72.94	17.035**
	여성	1.89	1.94	8.68	16.83	70.65	
연령대	20대 이하	2.44	0.98	7.29	13.97	75.32	369.056***
	30대	0.50	1.79	12.02	32.88	52.81	
	40대	1.57	2.95	10.61	14.57	70.29	
	50대	2.52	2.67	8.25	10.32	76.25	
	60대	2.87	2.42	8.07	7.35	79.28	
	70대	3.01	1.30	8.42	5.33	81.93	
지역	수도권	3.41	1.54	8.39	14.92	71.74	57.125***
	비수도권	0.68	2.69	10.00	14.75	71.88	
	대도시	1.83	2.70	10.18	14.17	71.13	27.419**
	중소도시	2.51	1.58	8.28	15.81	71.81	
	농어촌	0.13	2.33	9.55	11.65	76.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88	2.95	7.33	10.13	75.70	46.929***
	중하층	2.66	1.99	8.11	16.99	70.26	
	중간층	1.39	1.99	10.40	14.01	72.21	
	중상층(상층)	0.59	2.36	9.90	14.71	72.4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49	2.00	9.43	13.87	72.20	70.173***
	200만 원대	1.71	2.57	7.54	15.38	72.81	
	300만 원대	1.07	1.68	11.29	16.00	69.95	
	400만 원대	6.22	1.37	9.74	13.97	68.70	
	500만 원 이상	0.00	1.61	13.55	9.75	75.09	
학력	중졸 이하	2.79	1.96	8.81	4.87	81.57	112.213***
	고졸	1.99	2.42	7.86	12.34	75.38	
	대졸 이상	1.95	1.88	10.42	19.37	66.3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5	2.04	9.49	17.37	68.65	49.096***
	임시/일용직 근로자	2.17	2.16	8.22	15.60	71.85	
	고용주/자영자	1.75	2.37	9.84	8.70	77.33	
	무급가족종사자	0.00	2.81	10.03	13.85	73.31	
	실업자	2.89	1.92	10.57	11.54	73.09	
	비경제활동인구	1.56	2.00	8.45	15.26	72.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0	2.32	9.74	15.63	70.12	9.804*
	비정규직	2.21	1.71	8.36	12.56	75.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5	2.66	8.13	9.48	76.18	79.825***
	중도적	1.73	2.02	10.74	17.42	68.10	
	진보적	1.21	1.75	7.87	15.92	73.25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1〉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아동수당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52	2.37	9.00	16.34	69.77	
성별	남성	2.74	2.29	8.49	15.19	71.30	8.706
	여성	2.29	2.46	9.53	17.51	68.21	
연령대	20대 이하	3.52	1.28	7.80	13.00	74.41	498.141***
	30대	0.50	1.66	13.01	37.54	47.28	
	40대	1.82	3.13	9.84	19.10	66.12	
	50대	3.21	2.60	8.85	9.81	75.53	
	60대	3.11	3.20	6.97	7.18	79.54	
	70대	3.34	2.34	5.58	6.58	82.17	
지역	수도권	3.93	2.04	8.25	16.10	69.68	46.162***
	비수도권	1.07	2.71	9.77	16.58	69.87	
	대도시	2.49	3.31	9.67	14.95	69.57	35.556***
	중소도시	2.77	1.48	8.34	18.02	69.39	
	농어촌	0.75	3.05	9.67	12.46	74.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8	2.59	5.75	12.03	75.54	72.300***
	중하층	2.99	2.00	7.65	20.26	67.10	
	중간층	2.04	2.36	10.63	14.15	70.81	
	중상층(상층)	0.79	4.17	10.53	14.63	69.8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0	2.34	8.49	17.43	69.14	58.029***
	200만 원대	2.56	2.39	8.30	16.62	70.13	
	300만 원대	1.39	2.07	9.59	17.45	69.49	
	400만 원대	6.22	3.14	10.09	10.19	70.36	
	500만 원 이상	0.00	2.60	15.99	10.76	70.65	
학력	중졸 이하	3.00	2.12	5.76	7.40	81.71	136.548***
	고졸	2.69	2.69	7.77	12.82	74.03	
	대졸 이상	2.25	2.16	10.85	21.53	63.2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1	2.25	9.45	17.79	67.60	35.847*
	임시/일용직 근로자	2.86	2.06	8.22	15.88	70.98	
	고용주/자영자	1.91	2.67	8.56	11.33	75.53	
	무급가족종사자	0.00	1.65	11.50	18.57	68.28	
	실업자	3.64	2.80	7.62	13.29	72.65	
	비경제활동인구	2.09	2.49	9.06	18.25	68.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8	2.41	9.68	16.31	69.02	9.061
	비정규직	2.71	2.08	7.26	14.45	73.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93	2.36	7.11	11.56	75.03	74.863***
	중도적	2.16	2.87	11.00	17.80	66.18	
	진보적	1.76	1.67	7.81	18.53	70.23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아동돌봄 및 교육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35	2.39	8.87	16.26	70.13	
성별	남성	2.41	2.41	8.57	15.23	71.38	5.182
	여성	2.30	2.36	9.18	17.32	68.84	
연령대	20대 이하	2.50	2.07	7.71	11.55	76.17	548.803***
	30대	0.65	1.02	13.84	38.67	45.82	
	40대	1.87	3.19	9.60	18.90	66.45	
	50대	3.14	2.88	7.94	9.81	76.23	
	60대	3.17	3.24	6.25	7.35	79.99	
	70대	3.20	1.21	6.66	6.66	82.26	
지역	수도권	3.91	1.65	7.94	15.84	70.66	70.699***
	비수도권	0.75	3.14	9.84	16.69	69.58	
	대도시	2.32	3.53	8.63	14.96	70.57	54.080***
	중소도시	2.69	1.37	8.58	18.15	69.22	
	농어촌	0.00	2.69	12.81	10.27	74.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6	1.67	6.78	12.53	74.37	57.059***
	중하층	2.74	2.07	8.29	19.08	67.83	
	중간층	1.82	2.42	9.95	14.86	70.96	
	중상층(상층)	0.47	4.93	8.15	14.85	71.6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0	2.15	8.33	18.54	68.37	75.139***
	200만 원대	1.91	2.93	8.24	16.32	70.59	
	300만 원대	1.60	1.62	9.96	15.36	71.46	
	400만 원대	7.02	1.70	8.38	12.80	70.10	
	500만 원 이상	0.00	3.80	15.69	10.85	69.67	
학력	중졸 이하	2.89	2.16	7.15	5.91	81.88	135.425***
	고졸	2.40	2.80	7.67	13.01	74.12	
	대졸 이상	2.18	2.07	10.33	21.55	63.8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6	2.10	9.17	18.47	67.50	50.149***
	임시/일용직 근로자	2.69	3.44	9.31	12.62	71.95	
	고용주/자영자	2.16	2.56	7.97	11.19	76.12	
	무급가족종사자	0.00	1.65	9.02	19.27	70.07	
	실업자	3.64	1.16	8.02	14.28	72.90	
	비경제활동인구	1.56	2.35	8.94	18.43	68.7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1	2.47	9.17	16.57	69.29	9.034
	비정규직	2.74	2.36	8.10	13.01	73.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9	2.83	7.25	10.21	76.03	100.274***
	중도적	2.06	2.97	10.86	18.02	66.10	
	진보적	1.57	1.14	7.47	19.18	70.64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3〉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아동보육서비스 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1.88	2.59	9.32	16.50	69.72	
성별	남성	1.95	2.52	9.22	15.53	70.78	4.034
	여성	1.80	2.66	9.42	17.49	68.63	
연령대	20대 이하	2.54	1.59	6.49	13.84	75.54	542.570***
	30대	0.65	0.87	13.11	38.52	46.84	
	40대	1.32	3.39	11.56	19.28	64.45	
	50대	1.92	3.97	8.66	9.39	76.05	
	60대	2.72	2.85	6.99	7.71	79.74	
	70대	2.61	2.48	8.30	4.34	82.27	
지역	수도권	3.03	2.04	8.51	16.94	69.47	47.731***
	비수도권	0.69	3.15	10.16	16.04	69.97	
	대도시	1.59	3.71	9.46	15.61	69.63	49.929***
	중소도시	2.37	1.53	8.85	18.09	69.17	
	농어촌	0.00	3.37	12.03	10.06	74.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82	2.90	5.56	13.65	74.08	53.039***
	중하층	2.27	1.80	9.35	18.98	67.60	
	중간층	1.33	3.04	10.15	14.83	70.64	
	중상층(상층)	0.47	3.58	9.10	17.45	69.4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76	2.98	8.65	18.02	68.59	61.232***
	200만 원대	1.74	2.20	8.67	17.37	70.02	
	300만 원대	1.17	2.21	10.92	15.11	70.59	
	400만 원대	5.83	3.49	9.43	11.77	69.49	
	500만 원 이상	0.00	4.79	12.64	12.90	69.67	
학력	중졸 이하	2.66	2.70	7.28	5.32	82.05	149.767***
	고졸	1.87	2.72	7.83	13.39	74.19	
	대졸 이상	1.69	2.45	11.11	21.87	62.8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0	2.28	10.01	18.90	66.62	51.945***
	임시/일용직 근로자	2.17	3.39	8.45	14.93	71.06	
	고용주/자영자	1.59	2.62	8.64	10.70	76.44	
	무급가족종사자	0.00	2.23	11.95	16.81	69.01	
	실업자	3.64	1.16	7.30	15.24	72.65	
	비경제활동인구	1.27	2.84	9.25	17.84	68.8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7	2.55	9.93	17.02	68.63	11.539*
	비정규직	2.41	2.55	8.01	13.58	73.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4	2.97	7.88	10.56	75.64	97.017***
	중도적	1.64	3.19	11.46	18.39	65.31	
	진보적	1.25	1.36	7.52	19.11	70.76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4〉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12	2.14	11.19	19.58	64.97	
성별	남성	2.20	1.74	11.28	18.69	66.08	7.409
	여성	2.05	2.56	11.09	20.49	63.82	
연령대	20대 이하	2.74	1.66	8.79	12.40	74.41	654.603***
	30대	0.68	1.36	14.02	26.33	57.61	
	40대	1.29	2.74	16.40	41.13	38.43	
	50대	2.60	2.01	11.11	14.05	70.23	
	60대	2.97	2.72	7.22	7.39	79.69	
	70대	3.00	2.61	5.86	6.61	81.92	
지역	수도권	3.42	1.36	10.06	19.30	65.85	62.299***
	비수도권	0.79	2.94	12.35	19.86	64.05	
	대도시	2.05	3.49	11.54	17.54	65.37	55.741***
	중소도시	2.42	0.98	10.63	21.73	64.24	
	농어촌	0.32	2.19	13.17	16.41	67.9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8	2.34	6.86	16.16	70.55	61.996***
	중하층	2.39	1.40	11.18	22.47	62.55	
	중간층	1.69	2.31	12.35	18.16	65.50	
	중상층(상층)	0.72	4.87	9.85	17.43	67.1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5	2.37	10.05	17.94	67.29	100.929***
	200만 원대	1.70	1.62	11.13	23.91	61.65	
	300만 원대	1.40	2.61	12.11	17.64	66.23	
	400만 원대	6.23	2.30	12.97	9.71	68.79	
	500만 원 이상	0.99	3.67	11.09	12.10	72.15	
학력	중졸 이하	2.97	2.43	6.78	6.82	81.00	126.627***
	고졸	1.95	2.02	9.81	18.91	67.31	
	대졸 이상	2.08	2.18	13.44	23.19	59.1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6	2.01	11.72	21.90	61.90	37.438*
	임시/일용직 근로자	2.39	1.81	10.67	20.77	64.35	
	고용주/자영자	1.89	2.19	11.23	14.73	69.96	
	무급가족종사자	0.00	1.65	16.04	16.59	65.73	
	실업자	3.64	1.31	7.26	18.96	68.84	
	비경제활동인구	1.49	2.60	10.78	18.92	66.2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1	2.22	12.16	20.00	63.52	8.832
	비정규직	2.75	1.49	9.54	19.32	66.9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6	2.82	9.25	15.41	69.66	65.703***
	중도적	2.13	2.39	13.33	22.09	60.06	
	진보적	1.46	1.18	9.84	19.69	67.83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5〉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대학생등록금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1.86	2.57	10.71	22.56	62.30	
성별	남성	1.90	2.43	10.88	21.52	63.26	3.741
	여성	1.83	2.70	10.54	23.62	61.32	
연령대	20대 이하	2.45	1.94	10.82	23.54	61.25	374.161***
	30대	0.91	2.12	10.64	19.95	66.39	
	40대	1.21	2.92	13.54	35.31	47.02	
	50대	1.48	2.98	12.62	28.89	54.02	
	60대	3.09	2.89	6.87	8.77	78.38	
	70대	2.75	2.40	6.50	6.00	82.35	
지역	수도권	3.10	3.18	8.56	20.49	64.68	86.416***
	비수도권	0.60	1.94	12.92	24.68	59.86	
	대도시	1.95	3.35	12.14	20.81	61.74	28.459***
	중소도시	1.96	1.95	9.37	24.32	62.40	
	농어촌	0.50	2.13	11.72	20.47	65.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69	0.86	8.41	17.60	69.43	54.980***
	중하층	2.25	2.49	10.57	21.18	63.51	
	중간층	1.35	2.76	10.68	24.75	60.46	
	중상층(상층)	0.47	4.14	14.91	23.06	57.4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0	2.11	8.67	18.43	68.49	127.023***
	200만 원대	1.41	1.74	11.72	25.83	59.29	
	300만 원대	1.15	2.98	11.48	24.28	60.10	
	400만 원대	5.64	6.12	8.14	17.48	62.63	
	500만 원 이상	0.00	6.14	15.27	13.83	64.76	
학력	중졸 이하	2.77	1.95	7.38	8.78	79.12	105.619***
	고졸	1.84	1.90	10.65	25.63	59.98	
	대졸 이상	1.67	3.29	11.56	23.14	60.3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6	2.21	10.22	23.68	61.64	36.795*
	임시/일용직 근로자	2.13	1.82	11.48	18.81	65.75	
	고용주/자영자	1.65	2.38	10.74	20.88	64.35	
	무급가족종사자	0.00	2.23	9.30	18.93	69.54	
	실업자	3.64	3.57	5.41	20.51	66.87	
	비경제활동인구	1.08	3.61	11.78	24.19	59.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4	2.47	10.25	23.77	61.58	22.026***
	비정규직	2.39	1.43	11.41	17.46	67.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1	2.45	9.55	18.51	66.79	42.270***
	중도적	1.77	2.84	12.17	24.82	58.41	
	진보적	1.25	2.28	9.66	22.93	63.88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6〉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60	4.60	16.47	27.64	48.69	
성별	남성	2.93	4.28	16.44	26.81	49.54	5.613
	여성	2.25	4.93	16.50	28.50	47.82	
연령대	20대 이하	2.76	4.21	15.31	30.78	46.94	94.530***
	30대	1.98	3.43	20.02	34.08	40.49	
	40대	1.70	5.91	19.26	27.58	45.55	
	50대	3.02	4.66	14.86	25.24	52.21	
	60대	2.75	4.70	14.38	23.35	54.82	
	70대	4.30	4.42	12.91	21.75	56.62	
지역	수도권	4.07	4.39	16.15	32.11	43.29	112.507***
	비수도권	1.09	4.82	16.79	23.07	54.24	
	대도시	2.02	5.51	17.56	26.27	48.64	44.376***
	중소도시	2.94	4.04	15.38	30.14	47.49	
	농어촌	3.74	2.88	17.60	17.40	58.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2	1.51	12.88	52.44	30.64	285.696***
	중하층	1.82	3.61	16.35	32.44	45.78	
	중간층	3.29	5.84	17.73	19.54	53.60	
	중상층(상층)	2.53	6.43	14.00	18.52	58.5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75	3.70	15.47	33.91	45.18	179.818***
	200만 원대	1.80	3.81	16.75	27.44	50.20	
	300만 원대	2.88	4.74	17.99	24.49	49.91	
	400만 원대	9.50	11.79	16.00	19.00	43.71	
	500만 원 이상	1.78	4.60	11.88	20.24	61.49	
학력	중졸 이하	2.69	3.60	12.16	29.14	52.40	37.946***
	고졸	1.70	3.74	16.07	28.39	50.10	
	대졸 이상	3.36	5.59	17.83	26.64	46.5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4	4.61	16.78	29.61	46.77	168.210***
	임시/일용직 근로자	1.23	3.33	13.11	41.14	41.20	
	고용주/자영자	3.14	5.24	15.68	18.17	57.77	
	무급가족종사자	4.97	5.62	11.14	11.11	67.16	
	실업자	7.42	1.91	12.36	44.06	34.25	
	비경제활동인구	2.89	5.00	18.88	23.45	49.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4	5.11	16.72	26.77	48.66	29.010***
	비정규직	1.18	3.07	13.35	33.01	49.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7	5.16	13.78	26.62	50.88	31.070***
	중도적	2.33	4.45	19.13	26.99	47.10	
	진보적	2.10	4.31	15.03	29.52	49.04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7〉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주택 등을 위한 각종 공공대출, 융자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10	6.23	19.50	27.10	45.06	
성별	남성	2.28	5.94	19.34	26.81	45.63	1.988
	여성	1.91	6.54	19.66	27.40	44.49	
연령대	20대 이하	1.57	7.29	18.82	25.26	47.06	73.209***
	30대	1.45	6.16	19.91	34.18	38.30	
	40대	1.85	4.87	21.54	29.22	42.52	
	50대	2.25	6.76	19.13	27.51	44.35	
	60대	2.81	5.98	19.09	21.58	50.55	
	70대	3.47	6.53	16.99	20.89	52.13	
지역	수도권	3.02	6.86	18.93	29.24	41.96	44.560***
	비수도권	1.16	5.59	20.09	24.91	48.25	
	대도시	1.64	7.00	21.26	26.33	43.77	26.372**
	중소도시	2.20	5.58	18.16	28.39	45.66	
	농어촌	4.40	6.19	18.14	22.23	49.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9	2.82	19.32	42.27	34.20	120.680***
	중하층	1.67	5.29	20.37	29.50	43.16	
	중간층	2.50	7.76	19.60	22.17	47.98	
	중상층(상층)	2.92	6.45	14.27	24.29	52.0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3	4.73	20.05	29.36	44.53	129.635***
	200만 원대	1.64	5.68	18.82	27.46	46.40	
	300만 원대	2.38	6.08	19.24	28.01	44.29	
	400만 원대	6.62	15.43	19.18	19.77	39.00	
	500만 원 이상	1.95	5.09	26.43	15.09	51.45	
학력	중졸 이하	1.82	5.46	19.31	22.61	50.81	25.454**
	고졸	1.95	5.15	18.46	28.34	46.10	
	대졸 이상	2.30	7.36	20.45	27.08	42.8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2	5.79	19.34	28.07	44.88	58.289***
	임시/일용직 근로자	0.88	5.20	20.35	30.91	42.66	
	고용주/자영자	2.43	7.74	19.42	24.39	46.03	
	무급가족종사자	4.97	4.62	14.70	18.32	57.39	
	실업자	2.89	7.45	20.27	44.71	24.69	
	비경제활동인구	2.61	6.27	19.46	23.94	47.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9	6.81	19.19	27.29	44.53	11.622*
	비정규직	1.12	4.45	20.30	28.10	46.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1	6.77	19.05	25.71	45.55	32.207***
	중도적	2.02	5.79	21.92	25.62	44.65	
	진보적	1.48	6.39	16.39	30.51	45.22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8〉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85	6.47	19.06	25.06	46.56	
성별	남성	3.13	7.15	17.83	24.60	47.29	10.273*
	여성	2.56	5.77	20.32	25.53	45.82	
연령대	20대 이하	2.30	6.65	18.55	32.74	39.76	116.399***
	30대	1.49	7.14	22.63	25.97	42.77	
	40대	2.23	6.28	21.06	24.88	45.55	
	50대	3.36	6.95	18.10	25.27	46.32	
	60대	3.86	6.01	16.43	20.32	53.38	
	70대	5.13	4.86	15.42	15.47	59.12	
지역	수도권	3.96	6.83	18.11	26.44	44.66	33.388***
	비수도권	1.72	6.10	20.04	23.64	48.51	
	대도시	2.37	7.79	19.44	24.60	45.81	34.015***
	중소도시	3.01	5.50	19.09	26.39	46.01	
	농어촌	4.84	5.25	16.34	17.69	55.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3	2.73	21.39	32.63	41.22	71.229***
	중하층	2.34	5.09	19.80	27.09	45.68	
	중간층	3.42	8.38	18.09	22.67	47.45	
	중상층(상층)	3.22	7.09	17.96	18.55	53.1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8	4.56	18.25	25.53	49.28	122.974***
	200만 원대	1.95	6.12	19.55	23.82	48.56	
	300만 원대	2.91	6.87	18.59	28.93	42.70	
	400만 원대	8.82	13.35	19.97	21.85	36.01	
	500만 원 이상	4.03	7.79	20.24	19.41	48.54	
학력	중졸 이하	3.27	4.33	16.91	17.04	58.45	80.015***
	고졸	2.40	4.52	18.95	26.73	47.40	
	대졸 이상	3.15	8.68	19.67	25.50	43.0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4	7.01	18.94	25.55	46.05	162.273***
	임시/일용직 근로자	1.33	3.34	22.85	35.27	37.21	
	고용주/자영자	4.09	8.52	16.10	19.17	52.12	
	무급가족종사자	4.97	5.81	17.90	20.49	50.84	
	실업자	4.10	4.54	15.03	51.23	25.09	
	비경제활동인구	3.18	5.77	20.11	20.83	50.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3	7.86	18.01	24.27	46.73	35.735***
	비정규직	1.52	3.75	21.22	28.90	44.61	
이념적 성향	보수적	4.42	6.77	17.91	22.33	48.58	29.808***
	중도적	2.32	6.46	20.64	25.40	45.18	
	진보적	2.21	6.21	17.81	27.02	46.74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9〉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실업급여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14	5.23	15.60	27.24	49.79	
성별	남성	1.77	5.58	15.56	26.88	50.21	5.233
	여성	2.52	4.87	15.65	27.62	49.35	
연령대	20대 이하	2.72	4.44	14.68	33.22	44.94	149.007***
	30대	1.41	5.21	16.74	30.82	45.82	
	40대	1.10	4.48	15.88	32.20	46.35	
	50대	2.73	6.18	15.22	26.96	48.90	
	60대	1.97	5.47	17.12	19.12	56.32	
	70대	3.67	5.93	12.83	11.33	66.24	
지역	수도권	3.22	5.95	14.83	28.68	47.32	45.102***
	비수도권	1.03	4.49	16.40	25.76	52.33	
	대도시	1.83	7.45	15.65	26.22	48.85	61.854***
	중소도시	2.57	3.46	15.63	29.15	49.20	
	농어촌	0.89	4.17	15.13	19.18	60.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3	2.55	13.98	32.45	49.30	77.225***
	중하층	1.22	3.43	15.55	30.04	49.76	
	중간층	2.98	6.66	16.24	24.03	50.08	
	중상층(상층)	2.42	9.69	14.04	25.10	48.7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61	4.21	14.81	23.19	56.18	123.477***
	200만 원대	1.66	4.23	14.43	30.26	49.42	
	300만 원대	2.24	6.00	17.20	28.35	46.20	
	400만 원대	6.74	10.39	18.61	23.05	41.21	
	500만 원 이상	1.22	9.46	19.87	23.34	46.11	
학력	중졸 이하	2.79	4.23	12.39	14.32	66.27	104.703***
	고졸	1.63	4.20	15.75	27.60	50.82	
	대졸 이상	2.44	6.36	16.24	29.99	44.9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7	4.96	14.82	32.89	45.46	205.441***
	임시/일용직 근로자	1.37	2.98	19.82	35.23	40.60	
	고용주/자영자	1.80	7.04	16.13	19.44	55.58	
	무급가족종사자	0.00	5.00	12.74	17.56	64.70	
	실업자	7.42	1.64	13.97	40.93	36.05	
	비경제활동인구	2.75	5.82	14.65	18.30	58.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9	5.91	14.95	29.94	47.21	21.782***
	비정규직	1.11	3.09	18.81	28.97	48.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8	6.15	14.48	22.49	53.90	54.847***
	중도적	1.72	5.40	17.94	27.15	47.79	
	진보적	2.00	4.14	13.22	31.67	48.98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0〉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15	5.35	19.56	23.37	49.58	
성별	남성	2.17	5.38	19.16	23.00	50.30	1.260
	여성	2.13	5.31	19.97	23.75	48.84	
연령대	20대 이하	2.59	5.70	19.61	24.00	48.09	157.695***
	30대	1.08	4.55	25.56	25.23	43.58	
	40대	1.55	4.97	19.55	29.89	44.05	
	50대	2.35	5.47	20.05	24.21	47.92	
	60대	2.05	5.71	15.93	18.00	58.32	
	70대	4.42	6.13	12.79	10.97	65.69	
지역	수도권	2.98	6.04	17.74	24.77	48.47	35.971***
	비수도권	1.29	4.63	21.42	21.94	50.72	
	대도시	1.85	6.24	20.24	20.75	50.92	31.762***
	중소도시	2.33	4.54	19.40	26.07	47.66	
	농어촌	2.74	5.64	16.22	19.80	55.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4	2.60	16.43	27.19	51.73	55.685***
	중하층	1.55	3.81	20.58	25.73	48.33	
	중간층	2.48	7.09	19.50	20.75	50.19	
	중상층(상층)	3.44	6.53	18.65	21.78	49.6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65	3.92	16.89	21.34	56.20	137.410***
	200만 원대	1.98	4.19	19.57	24.79	49.46	
	300만 원대	1.71	5.87	21.40	25.47	45.55	
	400만 원대	6.08	13.29	21.01	19.24	40.39	
	500만 원 이상	1.94	10.04	25.68	17.21	45.13	
학력	중졸 이하	2.65	5.13	13.66	13.23	65.32	112.750***
	고졸	1.82	3.83	18.43	24.07	51.85	
	대졸 이상	2.31	6.72	21.94	25.16	43.8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1	5.01	21.19	25.59	46.19	73.798***
	임시/일용직 근로자	1.53	3.72	21.10	27.24	46.41	
	고용주/자영자	1.79	6.68	19.27	20.38	51.89	
	무급가족종사자	1.79	3.43	19.66	20.11	55.01	
	실업자	5.87	4.66	14.72	31.93	42.81	
	비경제활동인구	2.59	5.84	16.70	19.06	55.8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7	5.98	20.61	24.40	46.95	15.474**
	비정규직	1.30	3.09	20.83	24.70	50.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9	5.48	17.72	20.27	52.84	39.491***
	중도적	1.63	5.59	21.07	24.36	47.35	
	진보적	1.49	4.87	19.03	24.74	49.86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1〉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생계비/의료비 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2.17	6.31	19.74	28.25	43.52	
성별	남성	2.45	6.45	20.34	27.18	43.59	5.145
	여성	1.89	6.17	19.14	29.35	43.45	
연령대	20대 이하	3.04	6.49	16.63	23.93	49.91	82.149***
	30대	1.89	6.47	24.30	24.29	43.05	
	40대	0.96	6.31	20.58	28.76	43.39	
	50대	2.69	6.31	19.43	27.97	43.60	
	60대	1.57	6.83	20.61	32.69	38.30	
	70대	3.59	4.71	14.42	36.78	40.50	
지역	수도권	2.76	7.77	20.20	25.38	43.89	41.828***
	비수도권	1.57	4.81	19.28	31.19	43.15	
	대도시	1.43	7.58	20.89	24.85	45.25	50.518***
	중소도시	2.45	5.24	19.16	30.65	42.51	
	농어촌	4.97	6.21	16.73	32.21	39.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6	2.51	17.00	47.79	31.84	142.586***
	중하층	1.56	5.22	21.58	27.86	43.78	
	중간층	2.99	7.97	18.84	24.78	45.41	
	중상층(상층)	2.20	7.03	19.18	25.35	46.2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98	4.09	19.97	34.62	40.34	148.407***
	200만 원대	2.20	5.74	18.67	27.33	46.06	
	300만 원대	2.34	6.88	20.30	25.99	44.48	
	400만 원대	6.10	15.46	19.19	20.76	38.49	
	500만 원 이상	1.22	6.79	29.70	20.55	41.74	
학력	중졸 이하	1.64	4.60	16.60	39.91	37.25	96.999***
	고졸	2.03	4.12	19.76	30.10	43.99	
	대졸 이상	2.43	8.63	20.48	23.86	44.6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0	6.70	19.97	25.32	45.91	76.793***
	임시/일용직 근로자	1.33	3.11	20.39	36.90	38.26	
	고용주/자영자	2.48	7.49	21.17	26.29	42.57	
	무급가족종사자	4.97	8.28	24.51	29.03	33.21	
	실업자	4.28	5.01	12.31	45.38	33.01	
	비경제활동인구	2.18	6.45	18.57	28.49	44.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5	7.32	20.81	25.33	44.09	42.139***
	비정규직	1.12	3.53	19.26	33.70	42.4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0	7.02	19.35	31.04	39.79	19.370*
	중도적	1.87	6.19	19.76	28.20	43.98	
	진보적	2.05	5.85	20.08	25.79	46.23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국민연금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1.32	2.54	17.21	40.70	38.24	
성별	남성	1.53	2.82	16.66	40.59	38.41	4.460
	여성	1.10	2.25	17.77	40.81	38.07	
연령대	20대 이하	1.67	2.97	14.67	31.74	48.95	193.262***
	30대	1.20	3.09	18.16	33.97	43.58	
	40대	1.09	3.18	16.62	37.12	41.98	
	50대	1.76	2.38	18.21	43.09	34.55	
	60대	0.99	1.73	20.56	52.10	24.62	
	70대	0.86	0.85	13.54	55.02	29.73	
지역	수도권	2.41	3.05	17.19	40.07	37.27	54.239***
	비수도권	0.19	2.01	17.22	41.34	39.24	
	대도시	0.83	2.67	19.20	40.40	36.89	29.103***
	중소도시	1.90	2.28	15.56	41.26	39.00	
	농어촌	0.00	3.60	16.74	38.27	41.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5	1.11	13.29	48.75	36.20	53.264***
	중하층	1.24	2.45	14.83	43.14	38.34	
	중간층	1.70	2.73	19.46	37.41	38.69	
	중상층(상층)	0.22	3.75	21.33	37.03	37.6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54	1.89	15.64	46.23	35.70	127.928***
	200만 원대	1.09	2.57	16.53	37.78	42.03	
	300만 원대	2.14	1.15	17.86	42.27	36.58	
	400만 원대	3.34	7.76	22.46	35.93	30.51	
	500만 원 이상	0.47	4.19	22.15	34.50	38.69	
학력	중졸 이하	0.66	1.38	14.16	52.27	31.53	67.923***
	고졸	1.12	1.59	18.34	41.59	37.35	
	대졸 이상	1.64	3.64	16.93	37.17	40.6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1	2.72	15.46	38.01	42.40	64.439***
	임시/일용직 근로자	1.06	1.35	16.25	45.57	35.76	
	고용주/자영자	1.56	3.04	20.81	41.90	32.68	
	무급가족종사자	0.00	2.23	28.91	45.71	23.15	
	실업자	3.16	2.00	11.13	53.07	30.64	
	비경제활동인구	0.93	2.49	18.20	40.38	38.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7	2.99	17.50	38.97	39.17	13.696**
	비정규직	1.39	1.40	15.98	44.20	37.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	2.64	17.98	47.04	31.29	54.276***
	중도적	1.47	2.69	18.46	37.45	39.94	
	진보적	1.34	2.22	14.69	39.67	42.07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3〉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기초연금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1.38	4.12	14.35	30.43	49.71	
성별	남성	1.32	4.39	14.52	29.78	49.99	1.915
	여성	1.45	3.85	14.18	31.10	49.42	
연령대	20대 이하	2.04	4.40	11.03	18.44	64.09	535.873***
	30대	1.01	4.40	13.13	21.60	59.86	
	40대	0.90	5.41	13.40	24.62	55.66	
	50대	1.65	4.02	15.83	28.58	49.92	
	60대	1.43	2.85	19.88	46.22	29.62	
	70대	1.14	2.56	12.54	62.78	20.98	
지역	수도권	2.57	5.65	14.63	26.62	50.53	108.358***
	비수도권	0.17	2.55	14.07	34.35	48.86	
	대도시	1.15	4.50	15.12	28.86	50.37	22.962**
	중소도시	1.76	3.95	14.28	30.91	49.10	
	농어촌	0.00	2.91	9.90	37.16	50.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6	1.34	10.59	55.54	31.37	211.342***
	중하층	1.47	3.30	13.18	31.96	50.10	
	중간층	1.52	5.12	15.61	24.24	53.52	
	중상층(상층)	0.38	6.19	18.07	26.70	48.6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53	2.13	13.53	45.74	38.06	336.383***
	200만 원대	1.34	3.85	13.19	24.73	56.89	
	300만 원대	2.03	3.52	14.70	27.29	52.46	
	400만 원대	3.32	12.76	19.20	22.81	41.92	
	500만 원 이상	0.13	7.69	22.71	18.48	50.99	
학력	중졸 이하	0.88	1.49	11.38	64.12	22.14	432.673***
	고졸	1.33	2.34	15.60	30.79	49.95	
	대졸 이상	1.55	6.31	13.98	22.13	56.0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4	4.16	13.07	23.51	57.83	181.840***
	임시/일용직 근로자	1.28	1.58	15.18	38.89	43.06	
	고용주/자영자	1.68	5.13	17.60	28.86	46.7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12.96	50.68	36.36	
	실업자	2.45	1.73	10.24	56.32	29.27	
	비경제활동인구	1.04	4.97	14.10	35.81	44.0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6	4.89	14.42	25.33	54.00	51.512***
	비정규직	1.73	1.30	15.02	34.40	47.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7	4.57	16.27	37.67	39.51	100.962***
	중도적	1.26	3.60	14.63	29.67	50.84	
	진보적	1.03	4.48	12.22	24.99	57.27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4〉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1.48	3.55	15.87	24.92	54.18	
성별	남성	1.67	3.32	15.96	24.31	54.74	3.158
	여성	1.29	3.79	15.78	25.55	53.59	
연령대	20대 이하	1.92	4.20	12.18	14.52	67.18	555.865***
	30대	1.87	2.25	15.60	15.10	65.18	
	40대	1.26	4.93	15.10	17.49	61.22	
	50대	1.55	3.85	15.91	25.36	53.33	
	60대	1.41	2.40	21.51	39.63	35.04	
	70대	0.30	2.96	15.69	56.09	24.96	
지역	수도권	2.70	4.53	16.42	23.15	53.20	73.988***
	비수도권	0.23	2.54	15.31	26.73	55.18	
	대도시	0.98	4.32	17.16	23.52	54.02	31.776***
	중소도시	2.07	3.03	15.35	25.65	53.91	
	농어촌	0.31	2.50	11.39	28.58	57.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5	1.18	16.20	39.02	42.96	87.144***
	중하층	1.80	3.43	16.08	25.09	53.59	
	중간층	1.59	3.80	15.49	21.64	57.48	
	중상층(상층)	0.18	5.92	16.72	25.34	51.8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6	1.88	15.95	36.99	44.53	270.441***
	200만 원대	1.10	3.50	15.22	19.89	60.28	
	300만 원대	1.63	3.35	15.85	21.52	57.66	
	400만 원대	5.71	10.11	19.30	20.39	44.49	
	500만 원 이상	2.34	3.76	15.88	25.15	52.87	
학력	중졸 이하	0.15	2.69	14.89	51.47	30.80	307.795***
	고졸	1.27	2.74	16.68	25.86	53.45	
	대졸 이상	1.99	4.46	15.40	17.80	60.3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4	3.36	14.00	19.35	61.65	135.046***
	임시/일용직 근로자	1.13	2.03	17.19	27.89	51.77	
	고용주/자영자	1.61	4.71	18.74	25.11	49.82	
	무급가족종사자	0.00	2.04	15.34	38.11	44.51	
	실업자	3.07	1.80	8.93	44.64	41.57	
	비경제활동인구	1.17	4.00	16.94	30.29	47.6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5	3.84	15.57	21.21	57.83	13.377*
	비정규직	1.49	2.45	16.31	25.87	53.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2	5.51	18.12	31.29	43.95	114.375***
	중도적	1.83	2.72	16.37	23.98	55.10	
	진보적	1.31	2.98	13.11	20.52	62.08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5〉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필요성 : 장애인 활동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비해당	χ^2
전체		1.88	3.79	12.09	14.58	67.66	
성별	남성	1.88	3.86	11.86	14.19	68.21	1.009
	여성	1.89	3.72	12.33	14.97	67.10	
연령대	20대 이하	2.56	3.87	10.22	11.89	71.46	42.185**
	30대	1.68	2.99	12.09	12.64	70.60	
	40대	1.62	5.53	12.49	14.28	66.08	
	50대	2.05	3.72	13.67	15.37	65.19	
	60대	1.48	3.38	12.33	17.78	65.02	
	70대	1.80	2.14	10.91	17.13	68.03	
지역	수도권	3.30	4.20	11.84	14.92	65.74	59.940***
	비수도권	0.43	3.37	12.35	14.22	69.63	
	대도시	1.50	4.29	12.88	14.89	66.45	18.736*
	중소도시	2.39	3.36	11.78	14.67	67.79	
	농어촌	0.50	3.79	9.25	11.74	74.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5	2.16	9.87	19.82	67.51	39.714***
	중하층	2.29	3.93	12.27	14.11	67.41	
	중간층	1.87	3.90	12.85	12.90	68.49	
	중상층(상층)	1.48	4.59	9.33	20.64	63.9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8	2.38	12.43	16.39	67.72	126.639***
	200만 원대	1.54	4.02	10.80	12.23	71.42	
	300만 원대	1.97	3.17	12.18	17.68	65.00	
	400만 원대	6.22	8.89	15.17	14.16	55.55	
	500만 원 이상	2.21	4.48	18.54	10.82	63.95	
학력	중졸 이하	0.87	2.51	12.19	19.10	65.33	30.067***
	고졸	1.87	2.98	11.28	14.70	69.18	
	대졸 이상	2.14	4.80	12.77	13.39	66.8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4	4.04	11.68	12.90	69.34	51.292***
	임시/일용직 근로자	1.06	3.10	12.00	19.20	64.64	
	고용주/자영자	1.48	4.34	13.09	12.32	68.77	
	무급가족종사자	0.00	1.65	16.19	14.94	67.22	
	실업자	5.95	2.55	13.61	23.12	54.76	
	비경제활동인구	1.97	3.49	11.77	15.91	66.8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7	4.27	12.52	12.85	68.59	11.489*
	비정규직	1.55	3.01	11.10	16.54	67.8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4	4.68	12.13	15.46	66.08	25.117**
	중도적	1.92	3.44	13.50	15.38	65.75	
	진보적	2.04	3.49	10.00	12.61	71.86	

주 1) "(조사표 질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___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지, 정책이 ___님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6〉 우리 사회 믿음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0	0.38	1.53	2.87	5.95	17.81	20.77	29.52	19.63	1.24	0.02	
성별	남성	0.30	0.50	1.70	2.89	6.39	17.34	20.44	28.54	20.71	1.14	0.03	11.858
	여성	0.30	0.25	1.35	2.85	5.49	18.30	21.10	30.51	18.52	1.33	0.00	
연령대	20대 이하	0.31	0.18	1.68	2.06	7.10	17.48	19.68	27.69	21.93	1.90	0.00	95.407***
	30대	0.21	0.46	1.01	3.49	5.45	15.31	20.70	30.82	21.48	1.06	0.00	
	40대	0.06	0.72	0.64	3.04	6.17	17.32	19.03	30.54	21.45	0.96	0.08	
	50대	0.55	0.20	2.09	3.30	6.42	17.70	19.42	28.05	20.75	1.51	0.00	
	60대	0.40	0.35	2.19	2.50	3.97	19.22	23.56	32.72	14.01	1.09	0.00	
	70대	0.23	0.34	1.73	2.60	6.44	22.40	25.43	26.12	14.26	0.44	0.00	
지역	수도권	0.00	0.12	1.79	3.47	7.13	18.90	22.71	28.03	17.33	0.53	0.00	98.049***
	비수도권	0.60	0.64	1.26	2.26	4.73	16.70	18.78	31.04	21.99	1.96	0.03	
	대도시	0.54	0.46	2.13	3.75	6.56	16.37	20.40	29.50	19.10	1.15	0.04	47.999***
	중소도시	0.08	0.32	1.01	1.99	5.44	19.18	21.63	29.18	19.92	1.26	0.00	
	농어촌	0.39	0.29	1.54	3.89	5.84	16.79	16.60	32.23	20.85	1.59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7	1.57	4.72	4.86	6.66	23.40	21.14	26.59	9.60	0.40	0.00	305.978***
	중하층	0.12	0.42	1.52	3.05	7.45	19.43	23.58	29.81	14.17	0.44	0.00	
	중간층	0.33	0.15	0.65	2.26	4.70	16.23	18.65	30.92	24.40	1.68	0.04	
	중상층(상층)	0.00	0.00	2.67	3.03	4.65	11.25	18.28	22.96	33.17	3.98	0.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42	0.79	1.92	3.49	5.39	19.58	22.86	29.09	15.72	0.73	0.00	109.357***
	200만 원대	0.28	0.25	1.26	2.41	6.62	16.07	19.63	31.28	21.15	1.02	0.04	
	300만 원대	0.34	0.11	1.14	2.89	4.43	16.96	19.99	29.45	22.42	2.26	0.00	
	400만 원대	0.00	0.57	1.69	2.31	9.27	20.50	19.52	25.10	20.21	0.83	0.00	
	500만 원 이상	0.00	0.00	3.93	5.08	3.85	25.57	26.70	20.68	11.73	2.45	0.00	
학력	중졸 이하	0.62	0.52	1.58	2.95	5.46	18.52	28.36	27.36	14.04	0.60	0.00	51.747***
	고졸	0.23	0.54	1.63	2.78	5.63	17.11	21.34	29.65	20.12	0.93	0.04	
	대졸 이상	0.28	0.20	1.42	2.93	6.34	18.26	18.47	29.91	20.52	1.65	0.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7	0.24	1.04	2.36	5.27	15.78	18.79	30.94	23.83	1.58	0.00	156.012***
	임시/일용직 근로자	0.64	0.30	1.16	3.31	7.08	15.36	26.84	27.76	16.89	0.65	0.00	
	고용주/자영자	0.45	0.13	2.88	2.95	4.70	21.85	20.58	27.95	17.51	0.91	0.08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2.37	3.18	13.24	27.93	36.26	15.18	1.84	0.00	
	실업자	0.00	1.21	1.14	3.58	16.10	25.36	13.15	29.08	10.38	0.00	0.00	
	비경제활동인구	0.27	0.78	1.58	3.39	6.49	18.72	21.83	29.04	16.58	1.32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5	0.18	1.50	2.53	5.08	17.56	19.12	30.02	22.45	1.30	0.03	29.304**
	비정규직	0.52	0.32	1.58	3.08	6.32	16.36	25.06	28.78	16.84	1.12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3	0.60	3.09	4.07	5.99	19.84	23.18	27.60	14.72	0.60	0.00	95.810***
	중도적	0.41	0.41	1.01	2.17	6.03	18.02	18.86	30.55	21.05	1.45	0.04	
	진보적	0.12	0.14	0.87	2.81	5.78	15.68	21.37	29.75	21.99	1.50	0.0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7〉 우리 사회 부패 수준 : 정치영역

(단위: %)

구분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						부패가 매우 심하다	χ^2
		0	1	2	3	4	5	6	
전체		0.25	1.34	5.33	20.11	34.39	27.64	10.94	
성별	남성	0.26	1.62	5.37	18.62	34.76	27.44	11.94	13.866*
	여성	0.25	1.05	5.28	21.65	34.01	27.85	9.92	
연령대	20대 이하	0.12	0.81	4.25	17.69	34.01	31.22	11.90	46.550*
	30대	0.19	1.40	5.26	18.21	36.92	28.27	9.75	
	40대	0.28	1.64	5.11	19.71	33.68	27.24	12.34	
	50대	0.30	1.18	5.78	20.97	32.17	28.52	11.08	
	60대	0.47	1.16	5.79	21.69	35.46	24.49	10.92	
	70대	0.11	2.27	6.33	25.05	35.09	23.34	7.80	
지역	수도권	0.00	1.39	5.31	20.28	34.44	29.69	8.90	41.008***
	비수도권	0.52	1.29	5.35	19.94	34.33	25.54	13.04	
	대도시	0.59	1.85	6.31	18.59	31.63	28.93	12.10	68.752***
	중소도시	0.00	0.88	4.76	20.40	36.28	27.55	10.13	
	농어촌	0.00	1.48	3.23	28.03	38.01	19.76	9.5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2	3.22	5.31	19.09	32.92	27.30	11.35	66.488***
	중하층	0.08	0.84	5.66	18.20	33.71	28.43	13.08	
	중간층	0.19	1.42	5.52	22.05	34.55	26.76	9.51	
	중상층(상층)	0.84	0.93	2.27	19.67	39.16	29.42	7.7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8	1.47	7.74	22.01	32.55	25.71	10.14	70.289***
	200만 원대	0.22	0.98	4.42	19.96	34.30	28.49	11.64	
	300만 원대	0.10	1.03	5.07	18.28	36.29	28.94	10.29	
	400만 원대	0.55	3.56	4.65	21.80	33.03	27.20	9.20	
	500만 원 이상	0.00	1.70	0.80	14.58	41.33	24.74	16.85	
학력	중졸 이하	0.65	1.33	7.50	25.74	33.21	23.30	8.27	40.912***
	고졸	0.18	1.60	4.75	20.81	33.68	27.01	11.97	
	대졸 이상	0.23	1.11	5.32	18.17	35.28	29.22	10.6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1	1.51	4.93	18.65	36.76	28.31	9.73	80.156***
	임시/일용직 근로자	0.64	0.38	6.15	24.75	34.28	22.00	11.81	
	고용주/자영자	0.23	1.67	4.71	20.62	31.38	27.05	14.3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2.43	24.22	53.26	13.64	6.46	
	실업자	0.00	1.14	6.24	22.17	29.15	22.78	18.53	
	비경제활동인구	0.36	1.33	6.07	19.51	32.70	30.81	9.2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6	1.57	5.04	18.94	35.63	28.25	10.40	30.056***
	비정규직	0.41	0.72	5.09	23.83	33.73	22.71	13.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2	2.14	4.35	21.39	32.35	24.60	14.95	72.138***
	중도적	0.45	0.83	5.94	21.27	33.83	27.77	9.93	
	진보적	0.00	1.35	5.33	17.29	37.04	30.20	8.79	

주 1) "(조사표 질문)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영역"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8〉 우리 사회 부패 수준 : 경제영역

(단위: %)

구분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					부패가 매우 심하다		χ^2
		0	1	2	3	4	5	6	
전체		0.23	1.18	7.32	29.47	35.58	19.46	6.76	
성별	남성	0.16	1.34	7.36	29.24	35.19	19.50	7.21	4.489
	여성	0.30	1.02	7.27	29.70	35.99	19.42	6.29	
연령대	20대 이하	0.12	0.97	6.59	26.89	37.00	20.60	7.83	55.585**
	30대	0.19	1.13	7.63	29.33	36.05	20.98	4.69	
	40대	0.06	0.68	8.02	29.19	33.67	20.27	8.12	
	50대	0.38	0.80	7.35	28.45	35.14	20.88	7.00	
	60대	0.23	1.85	7.27	32.40	34.80	16.54	6.90	
	70대	0.60	2.59	6.63	32.95	38.55	14.01	4.66	
지역	수도권	0.13	1.10	7.35	28.21	38.37	20.81	4.02	78.417***
	비수도권	0.33	1.26	7.29	30.75	32.72	18.07	9.57	
	대도시	0.42	1.58	8.03	26.20	35.19	21.59	6.99	49.671***
	중소도시	0.10	0.92	6.99	31.02	36.31	18.34	6.31	
	농어촌	0.00	0.55	5.12	39.06	32.62	14.01	8.6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4	3.32	10.31	32.93	29.97	16.40	6.54	81.142***
	중하층	0.09	0.86	7.15	27.67	36.20	20.30	7.73	
	중간층	0.17	0.97	6.89	31.47	36.11	18.09	6.30	
	중상층(상층)	0.99	1.33	6.84	21.78	36.60	27.86	4.5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1	1.31	8.96	30.69	34.91	16.91	6.92	46.609**
	200만 원대	0.17	0.98	6.69	29.93	35.12	19.95	7.16	
	300만 원대	0.26	1.01	6.92	28.19	36.54	20.72	6.35	
	400만 원대	0.00	2.37	7.85	29.20	38.60	18.49	3.48	
	500만 원 이상	0.80	1.10	3.44	22.34	33.76	27.91	10.66	
학력	중졸 이하	0.70	2.09	7.66	33.49	36.67	13.83	5.56	39.426***
	고졸	0.26	1.19	7.59	30.85	33.61	19.29	7.21	
	대졸 이상	0.09	0.96	7.00	27.31	37.05	20.95	6.6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4	0.96	7.36	30.05	36.06	19.63	5.80	55.860**
	임시/일용직 근로자	0.42	1.49	7.87	33.29	30.47	19.06	7.39	
	고용주/자영자	0.23	1.34	7.23	28.48	33.94	20.26	8.52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3.48	32.69	48.36	11.15	4.33	
	실업자	0.00	1.14	2.78	33.15	23.66	28.37	10.91	
	비경제활동인구	0.31	1.33	7.65	26.78	39.59	18.01	6.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4	1.09	7.09	29.78	35.64	19.96	6.29	10.422
	비정규직	0.40	1.27	8.16	31.43	32.09	18.65	8.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1	2.07	7.41	28.53	34.25	18.84	8.50	36.538***
	중도적	0.28	0.77	7.18	31.10	35.57	18.60	6.50	
	진보적	0.00	0.97	7.44	27.94	36.81	21.27	5.55	

주 1) "(조사표 질문)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영역"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9〉 우리 사회 인식 :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9.21	38.83	28.32	20.54	3.10	
성별	남성	10.06	39.56	27.10	20.18	3.11	7.715
	여성	8.35	38.08	29.56	20.91	3.10	
연령대	20대 이하	10.67	38.32	24.72	23.82	2.47	23.448
	30대	9.29	37.53	29.22	20.79	3.17	
	40대	8.36	40.23	29.54	19.10	2.77	
	50대	9.35	37.96	29.39	19.35	3.94	
	60대	9.39	38.51	28.43	20.85	2.83	
	70대	7.31	41.94	28.51	18.71	3.53	
지역	수도권	8.11	40.01	27.08	21.09	3.71	18.497**
	비수도권	10.35	37.62	29.58	19.97	2.48	
	대도시	7.49	38.67	27.96	22.53	3.35	35.627***
	중소도시	11.25	38.38	28.38	19.06	2.93	
	농어촌	4.82	43.41	30.17	18.83	2.7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5	38.81	28.93	20.73	2.58	50.423***
	중하층	10.56	40.71	24.88	20.54	3.30	
	중간층	8.36	37.62	31.64	19.92	2.46	
	중상층(상층)	7.52	36.19	25.23	24.21	6.8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33	36.44	33.00	18.36	2.85	73.782***
	200만 원대	10.14	42.00	24.93	20.04	2.88	
	300만 원대	7.44	36.85	29.19	23.44	3.08	
	400만 원대	7.03	34.28	30.54	25.24	2.91	
	500만 원 이상	12.95	40.52	23.27	14.55	8.70	
학력	중졸 이하	7.22	42.87	29.26	17.64	3.01	10.061
	고졸	9.24	37.98	29.06	20.56	3.16	
	대졸 이상	9.66	38.61	27.45	21.21	3.0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12	38.27	28.04	21.54	3.03	28.577
	임시/일용직 근로자	10.28	41.41	28.47	18.72	1.12	
	고용주/자영자	9.50	38.50	29.57	18.15	4.28	
	무급가족종사자	9.45	38.53	29.61	16.23	6.18	
	실업자	9.18	37.17	25.16	27.54	0.95	
	비경제활동인구	8.59	38.92	28.05	20.98	3.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19	37.77	29.20	20.45	3.39	9.542*
	비정규직	10.05	41.86	26.63	19.29	2.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9.74	41.94	24.71	19.07	4.54	32.893***
	중도적	8.92	36.63	30.01	22.00	2.44	
	진보적	9.16	39.22	29.12	19.75	2.7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0〉 우리 사회 인식 :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28.61	36.73	20.57	12.61	1.48	
성별	남성	29.81	37.39	19.50	11.99	1.32	8.438
	여성	27.39	36.06	21.66	13.25	1.64	
연령대	20대 이하	31.08	36.12	19.51	11.71	1.58	16.375
	30대	28.12	37.54	19.83	12.50	2.01	
	40대	27.81	36.36	21.04	13.15	1.65	
	50대	29.14	35.56	20.29	13.79	1.21	
	60대	28.07	37.63	22.05	10.77	1.48	
	70대	25.97	38.45	21.19	13.98	0.42	
지역	수도권	29.68	36.10	19.46	12.95	1.81	10.061*
	비수도권	27.51	37.38	21.71	12.26	1.14	
	대도시	26.34	39.19	19.55	13.33	1.60	27.320**
	중소도시	31.07	34.93	20.63	11.92	1.46	
	농어촌	24.66	34.46	26.89	13.21	0.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15	40.15	17.07	13.03	1.60	165.536***
	중하층	36.15	35.53	16.82	10.64	0.87	
	중간층	23.60	38.16	23.85	12.94	1.45	
	중상층(상층)	19.63	29.53	25.17	20.80	4.8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01	37.74	20.96	14.45	0.84	57.517***
	200만 원대	31.52	34.51	20.79	11.43	1.75	
	300만 원대	27.84	39.05	19.03	12.59	1.49	
	400만 원대	21.50	37.55	24.84	15.09	1.01	
	500만 원 이상	33.57	40.56	14.51	7.16	4.20	
학력	중졸 이하	26.54	36.22	23.32	13.36	0.57	13.059
	고졸	28.99	36.13	20.59	13.08	1.21	
	대졸 이상	28.77	37.39	19.90	12.02	1.9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45	36.38	21.08	13.13	1.96	33.992*
	임시/일용직 근로자	31.51	34.74	20.65	12.18	0.92	
	고용주/자영자	29.80	37.53	19.94	12.17	0.57	
	무급가족종사자	24.06	27.83	26.37	21.74	0.00	
	실업자	32.47	31.88	16.33	14.56	4.76	
	비경제활동인구	27.90	38.54	20.45	11.79	1.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16	36.32	20.72	13.17	1.64	5.722
	비정규직	30.21	36.32	20.89	11.81	0.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4.16	35.84	19.47	9.71	0.82	52.093***
	중도적	25.52	35.91	22.51	14.41	1.65	
	진보적	28.08	38.74	18.74	12.62	1.8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1〉 우리 사회 인식 :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22.15	39.46	25.60	11.74	1.06	
성별	남성	22.71	39.54	25.73	11.08	0.93	3.399
	여성	21.57	39.37	25.47	12.41	1.18	
연령대	20대 이하	23.09	38.42	26.14	11.40	0.95	20.508
	30대	22.70	41.43	23.72	10.91	1.23	
	40대	21.39	38.74	25.57	13.51	0.78	
	50대	23.46	38.72	25.16	11.00	1.66	
	60대	20.51	40.94	25.29	12.61	0.65	
	70대	20.60	38.39	29.94	10.20	0.86	
지역	수도권	21.91	41.58	23.76	11.26	1.49	23.239***
	비수도권	22.39	37.28	27.49	12.22	0.61	
	대도시	18.28	41.76	25.49	13.00	1.47	65.118***
	중소도시	26.17	37.91	24.96	10.19	0.78	
	농어촌	16.63	36.17	31.37	15.33	0.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64	40.35	29.71	9.26	1.04	136.870***
	중하층	23.36	44.42	22.96	8.55	0.71	
	중간층	22.11	37.07	26.89	12.72	1.21	
	중상층(상층)	19.18	26.04	26.23	26.54	2.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83	38.68	28.27	11.25	0.96	64.215***
	200만 원대	23.11	40.97	24.23	11.17	0.52	
	300만 원대	20.34	39.43	25.23	12.91	2.08	
	400만 원대	21.79	38.60	27.27	12.17	0.16	
	500만 원 이상	33.20	27.99	20.12	14.39	4.30	
학력	중졸 이하	20.97	38.00	27.01	12.74	1.27	37.776***
	고졸	20.34	39.01	28.34	11.92	0.40	
	대졸 이상	24.01	40.19	22.88	11.34	1.5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89	37.25	26.12	13.32	1.41	48.736***
	임시/일용직 근로자	22.91	38.86	26.79	10.91	0.52	
	고용주/자영자	24.69	41.06	23.12	10.44	0.70	
	무급가족종사자	4.20	56.94	25.58	13.28	0.00	
	실업자	19.07	31.80	38.64	8.07	2.42	
	비경제활동인구	21.08	42.62	24.63	10.80	0.8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59	38.24	25.45	12.41	1.30	6.240
	비정규직	22.65	39.94	25.46	11.54	0.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56	42.37	24.16	8.16	0.75	52.610***
	중도적	19.53	37.64	27.19	14.16	1.48	
	진보적	23.77	39.45	24.60	11.46	0.7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2〉 우리 사회 인식 :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2.32	39.73	32.61	14.03	1.31	
성별	남성	12.77	40.01	32.38	13.60	1.24	1.767
	여성	11.86	39.45	32.84	14.48	1.37	
연령대	20대 이하	11.62	40.26	32.87	13.86	1.40	35.087*
	30대	15.09	39.14	30.92	13.81	1.03	
	40대	13.20	38.52	31.46	15.81	1.00	
	50대	10.75	41.04	30.68	15.57	1.95	
	60대	12.32	39.94	35.10	11.22	1.42	
	70대	9.97	39.12	38.16	12.14	0.61	
지역	수도권	13.78	40.68	30.67	13.93	0.93	21.286***
	비수도권	10.83	38.76	34.59	14.14	1.69	
	대도시	9.97	38.84	32.74	17.21	1.24	58.812***
	중소도시	14.82	40.46	32.12	11.34	1.25	
	농어촌	8.57	40.00	35.48	13.81	2.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14	39.56	34.32	13.91	1.07	41.092***
	중하층	13.30	41.75	32.16	11.80	0.98	
	중간층	12.26	39.38	31.80	15.10	1.47	
	중상층(상층)	8.92	31.10	37.83	19.70	2.4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95	39.23	33.64	13.42	1.76	29.402*
	200만 원대	12.92	41.40	31.58	13.08	1.02	
	300만 원대	10.76	37.21	33.65	16.93	1.45	
	400만 원대	11.66	39.59	32.11	15.41	1.23	
	500만 원 이상	19.48	38.96	31.85	9.14	0.56	
학력	중졸 이하	12.44	35.36	38.20	12.91	1.09	20.898**
	고졸	10.82	41.62	32.61	13.80	1.14	
	대졸 이상	13.60	39.13	31.28	14.50	1.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23	36.18	32.88	16.51	1.21	51.750***
	임시/일용직 근로자	12.85	39.03	35.26	11.08	1.78	
	고용주/자영자	11.63	44.10	29.36	14.06	0.85	
	무급가족종사자	16.96	44.83	25.30	6.73	6.18	
	실업자	9.62	42.30	33.49	13.19	1.40	
	비경제활동인구	11.18	42.38	33.43	11.58	1.4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23	38.24	31.81	15.70	1.02	12.409*
	비정규직	11.58	40.25	33.67	12.56	1.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02	46.14	30.60	10.47	0.77	64.930***
	중도적	11.95	34.98	35.35	15.83	1.89	
	진보적	13.13	40.84	30.44	14.66	0.94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3〉 우리 사회 인식 :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27.31	36.15	23.87	11.57	1.10	
성별	남성	28.17	36.22	23.66	11.00	0.94	4.041
	여성	26.43	36.07	24.09	12.15	1.26	
연령대	20대 이하	30.17	35.10	21.59	12.21	0.93	30.824
	30대	27.09	38.38	21.13	12.68	0.72	
	40대	28.56	36.51	23.28	10.48	1.16	
	50대	26.61	34.69	26.13	11.13	1.43	
	60대	27.23	35.90	25.33	10.46	1.08	
	70대	20.66	36.98	27.51	13.55	1.30	
지역	수도권	28.52	37.85	21.19	11.33	1.12	22.900***
	비수도권	26.07	34.41	26.63	11.82	1.07	
	대도시	28.23	35.21	24.12	11.51	0.93	12.776
	중소도시	27.26	36.97	22.98	11.62	1.16	
	농어촌	21.60	36.03	29.11	11.57	1.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38	36.71	18.19	13.97	1.75	151.928***
	중하층	33.23	36.20	20.32	9.64	0.61	
	중간층	23.31	36.41	27.88	11.52	0.88	
	중상층(상층)	17.34	33.45	25.76	19.18	4.2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4.06	36.95	25.37	12.84	0.78	35.562**
	200만 원대	29.29	36.05	22.44	11.05	1.16	
	300만 원대	27.32	34.95	25.14	11.43	1.17	
	400만 원대	25.14	35.42	27.18	11.50	0.76	
	500만 원 이상	33.10	40.58	14.15	8.97	3.19	
학력	중졸 이하	21.32	37.40	26.86	13.02	1.41	17.758*
	고졸	26.95	36.21	23.95	12.03	0.87	
	대졸 이상	29.05	35.80	23.10	10.82	1.2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70	35.01	23.74	12.33	1.24	30.343
	임시/일용직 근로자	29.14	38.98	21.02	9.52	1.34	
	고용주/자영자	29.24	35.05	23.48	11.63	0.61	
	무급가족종사자	12.47	35.43	35.96	16.13	0.00	
	실업자	25.35	28.88	29.70	15.61	0.46	
	비경제활동인구	24.87	38.34	24.88	10.69	1.2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58	34.26	24.09	11.94	1.13	9.753*
	비정규직	27.08	39.65	21.25	11.08	0.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44	36.85	22.04	10.14	1.54	23.709**
	중도적	24.91	35.58	26.11	12.41	0.99	
	진보적	28.88	36.35	22.29	11.64	0.85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4〉 우리 사회 인식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4.01	37.67	35.22	12.42	0.68	
성별	남성	14.41	38.00	34.02	12.87	0.69	3.686
	여성	13.59	37.34	36.45	11.95	0.67	
연령대	20대 이하	18.41	33.16	35.76	11.82	0.86	55.028***
	30대	11.35	41.16	33.31	13.15	1.03	
	40대	14.15	39.16	32.35	14.06	0.27	
	50대	11.31	39.70	35.28	12.92	0.79	
	60대	16.01	34.78	38.16	10.48	0.57	
	70대	12.59	37.13	39.10	10.72	0.46	
지역	수도권	13.22	39.36	34.57	12.05	0.79	8.306
	비수도권	14.82	35.94	35.88	12.80	0.56	
	대도시	11.35	38.36	35.13	14.28	0.87	34.425***
	중소도시	16.21	37.32	35.02	10.91	0.55	
	농어촌	14.63	35.85	37.37	11.79	0.3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03	40.71	31.26	14.30	0.70	72.592***
	중하층	16.16	41.07	31.87	10.58	0.33	
	중간층	12.92	35.00	38.69	12.50	0.89	
	중상층(상층)	10.44	31.77	37.04	19.47	1.2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79	36.18	36.84	11.60	0.59	60.719***
	200만 원대	15.07	38.37	33.97	11.90	0.69	
	300만 원대	11.52	40.66	32.58	14.73	0.51	
	400만 원대	8.52	33.93	44.74	11.11	1.70	
	500만 원 이상	23.15	29.72	33.31	13.82	0.00	
학력	중졸 이하	14.36	35.61	38.80	10.64	0.59	10.668
	고졸	14.67	37.29	35.70	11.73	0.61	
	대졸 이상	13.35	38.49	33.95	13.44	0.7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20	36.30	34.80	14.96	0.74	52.901***
	임시/일용직 근로자	16.95	39.70	34.35	8.83	0.18	
	고용주/자영자	14.38	37.62	35.72	11.60	0.69	
	무급가족종사자	6.76	45.98	31.30	15.97	0.00	
	실업자	15.78	27.56	40.16	13.35	3.15	
	비경제활동인구	13.63	39.89	35.59	10.31	0.5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67	36.00	35.26	14.27	0.79	21.168***
	비정규직	15.16	40.91	33.98	9.77	0.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80	38.92	33.75	9.04	0.49	48.121***
	중도적	12.81	35.50	36.71	14.04	0.95	
	진보적	12.33	39.70	34.39	13.12	0.4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5〉 우리 사회 인식 :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6.75	36.08	41.73	14.08	1.36	
성별	남성	7.03	35.68	41.37	14.46	1.47	2.059
	여성	6.47	36.48	42.10	13.70	1.25	
연령대	20대 이하	7.55	35.54	42.96	13.15	0.80	36.121*
	30대	5.90	36.10	43.14	13.00	1.86	
	40대	6.91	36.35	41.86	14.50	0.39	
	50대	5.31	35.67	40.24	16.53	2.25	
	60대	8.39	37.86	39.73	12.79	1.22	
	70대	6.90	34.30	43.19	13.73	1.88	
지역	수도권	6.16	38.09	40.12	14.27	1.36	12.000*
	비수도권	7.36	34.02	43.38	13.89	1.36	
	대도시	5.96	33.23	42.00	17.13	1.68	53.402***
	중소도시	7.52	39.13	40.79	11.36	1.20	
	농어촌	6.05	31.33	47.22	14.96	0.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97	39.97	38.96	12.64	0.47	62.587***
	중하층	7.42	38.18	39.36	13.92	1.12	
	중간층	6.04	34.83	44.27	13.56	1.29	
	중상층(상층)	5.94	27.02	42.37	20.31	4.3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8.14	34.82	42.73	13.38	0.94	52.109***
	200만 원대	6.57	38.26	40.54	13.66	0.97	
	300만 원대	5.73	36.35	41.72	14.50	1.70	
	400만 원대	3.80	28.51	47.36	17.14	3.18	
	500만 원 이상	11.52	33.79	35.82	15.46	3.41	
학력	중졸 이하	9.54	33.20	44.75	11.51	0.99	17.727*
	고졸	6.15	37.44	40.03	14.92	1.47	
	대졸 이상	6.62	35.57	42.50	13.96	1.3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22	35.05	42.50	14.64	1.58	27.373
	임시/일용직 근로자	9.69	37.29	41.51	10.40	1.11	
	고용주/자영자	5.63	35.59	41.92	15.15	1.70	
	무급가족종사자	9.00	32.37	46.74	11.89	0.00	
	실업자	6.37	41.31	36.54	15.78	0.00	
	비경제활동인구	7.01	37.13	40.77	14.06	1.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58	34.81	43.03	14.97	1.61	28.850***
	비정규직	9.71	37.56	40.02	11.44	1.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8.46	37.42	39.55	12.44	2.13	30.322***
	중도적	6.36	33.82	43.43	15.22	1.17	
	진보적	5.78	38.14	41.23	13.92	0.9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6〉 주관적 소득계층

(단위: %)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χ^2
전체		9.72	38.59	44.72	6.93	0.04	
성별	남성	8.74	40.54	44.67	5.99	0.06	18.959**
	여성	10.73	36.59	44.77	7.89	0.02	
연령대	20대 이하	6.34	39.06	46.84	7.76	0.00	177.642***
	30대	7.73	41.54	45.89	4.83	0.00	
	40대	7.62	38.90	47.12	6.36	0.00	
	50대	7.31	33.30	50.36	8.87	0.16	
	60대	15.31	40.42	37.70	6.51	0.06	
	70대	21.35	40.29	31.52	6.84	0.00	
지역	수도권	8.92	41.20	42.02	7.79	0.06	28.357***
	비수도권	10.54	35.91	47.48	6.05	0.02	
	대도시	8.61	36.56	47.21	7.52	0.10	24.595**
	중소도시	10.21	40.15	42.87	6.76	0.00	
	농어촌	13.27	39.92	42.50	4.31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00	0.00	0.00	0.00	0.00	15150.000***
	중하층	0.00	100.00	0.00	0.00	0.00	
	중간층	0.00	0.00	100.00	0.00	0.00	
	중상층(상층)	0.00	0.00	0.00	99.40	0.6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80	45.20	27.63	3.37	0.00	952.735***
	200만 원대	6.45	44.26	43.70	5.59	0.00	
	300만 원대	3.59	28.08	60.65	7.68	0.00	
	400만 원대	0.28	24.31	62.10	13.31	0.00	
	500만 원 이상	0.00	12.81	51.94	33.93	1.33	
학력	중졸 이하	31.19	41.20	23.51	4.10	0.00	507.176***
	고졸	11.00	42.28	40.77	5.92	0.02	
	대졸 이상	3.51	34.75	53.19	8.48	0.0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41	37.52	49.76	7.24	0.08	280.126***
	임시/일용직 근로자	20.29	47.80	29.36	2.55	0.00	
	고용주/자영자	6.33	37.84	47.49	8.34	0.00	
	무급가족종사자	6.01	48.68	39.97	5.34	0.00	
	실업자	29.59	34.00	31.56	4.86	0.00	
	비경제활동인구	12.31	36.49	43.33	7.82	0.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11	36.43	50.47	7.92	0.06	214.995***
	비정규직	16.57	47.75	32.32	3.37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67	40.27	39.10	6.84	0.12	64.366***
	중도적	7.16	37.71	48.77	6.33	0.02	
	진보적	9.86	38.34	43.91	7.89	0.00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___님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7〉 사회 이동 : 15세 무렵에 비해 계층 변화

(단위: %)

구분		매우 낮아졌다	약간 낮아졌다	떨어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았다	약간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χ^2
전체		1.45	14.78	51.10	30.70	1.97	
성별	남성	1.46	14.16	51.46	30.90	2.02	1.573
	여성	1.45	15.41	50.72	30.49	1.93	
연령대	20대 이하	1.00	12.43	59.05	27.06	0.46	117.088***
	30대	1.13	14.53	57.12	26.14	1.08	
	40대	0.85	14.40	50.87	32.30	1.59	
	50대	1.17	13.92	46.61	35.29	3.00	
	60대	2.38	17.47	43.55	33.07	3.52	
	70대	3.45	18.30	47.09	28.55	2.61	
지역	수도권	1.12	16.74	49.92	30.61	1.61	22.534***
	비수도권	1.79	12.76	52.31	30.79	2.35	
	대도시	1.00	13.64	50.78	32.85	1.73	22.927**
	중소도시	1.65	15.77	50.87	29.46	2.26	
	농어촌	2.94	14.63	54.96	26.05	1.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68	32.42	37.98	16.24	0.68	966.148***
	중하층	0.55	21.03	50.99	25.74	1.69	
	중간층	0.02	7.57	56.65	33.70	2.06	
	중상층(상층)	0.00	1.78	34.35	59.07	4.8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50	22.35	48.75	23.56	1.83	236.208***
	200만 원대	0.92	15.19	53.20	29.16	1.54	
	300만 원대	0.65	9.19	51.80	35.87	2.50	
	400만 원대	0.19	6.72	47.45	43.32	2.33	
	500만 원 이상	0.00	3.12	46.55	45.70	4.63	
학력	중졸 이하	4.92	23.24	45.34	23.14	3.37	150.527***
	고졸	1.34	16.89	48.31	31.15	2.32	
	대졸 이상	0.73	10.93	54.90	32.10	1.3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2	12.44	54.48	30.84	1.32	198.425***
	임시/일용직 근로자	2.36	29.85	42.24	24.43	1.13	
	고용주/자영자	0.98	12.25	48.85	35.30	2.62	
	무급가족종사자	0.00	22.64	51.81	25.56	0.00	
	실업자	6.32	13.70	55.92	24.06	0.00	
	비경제활동인구	1.79	12.92	51.02	30.96	3.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0	11.47	53.58	32.28	1.77	132.600***
	비정규직	1.92	26.35	43.67	26.90	1.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8	17.32	42.12	35.96	3.02	86.880***
	중도적	1.22	13.41	57.45	26.31	1.62	
	진보적	1.69	14.47	49.98	32.32	1.54	

주 1) "(조사표 질문) __님은 15세 무렵에 비해 현재 계층이 낮아졌다고 또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8〉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χ^2
전체		0.54	29.92	55.98	12.80	0.76	
성별	남성	0.71	29.90	55.30	13.33	0.76	4.347
	여성	0.37	29.93	56.68	12.26	0.76	
연령대	20대 이하	0.28	32.12	58.92	8.36	0.32	126.632***
	30대	0.38	33.01	56.67	9.41	0.52	
	40대	0.54	32.29	54.89	11.83	0.45	
	50대	0.79	31.58	53.84	12.70	1.08	
	60대	0.95	25.51	54.08	18.67	0.79	
	70대	0.11	17.55	59.46	20.88	2.01	
지역	수도권	0.32	30.20	55.61	13.15	0.72	5.710
	비수도권	0.77	29.62	56.37	12.44	0.79	
	대도시	0.64	28.69	56.31	13.86	0.50	23.611**
	중소도시	0.42	31.84	55.00	11.92	0.82	
	농어촌	0.87	23.14	61.40	12.65	1.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3	15.85	46.66	31.22	5.34	455.161***
	중하층	0.12	26.19	59.14	14.07	0.49	
	중간층	0.52	34.65	57.29	7.51	0.03	
	중상층(상층)	2.52	39.77	43.12	14.07	0.5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9	18.04	60.03	19.50	2.04	242.468***
	200만 원대	0.54	30.68	57.21	11.31	0.25	
	300만 원대	0.64	36.90	51.74	10.34	0.37	
	400만 원대	0.15	39.50	51.40	8.77	0.19	
	500만 원 이상	2.05	48.59	45.34	3.22	0.80	
학력	중졸 이하	0.38	16.56	57.52	22.53	3.01	163.014***
	고졸	0.75	28.86	55.63	14.08	0.68	
	대졸 이상	0.40	34.01	55.93	9.38	0.2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6	33.71	56.06	9.41	0.47	135.606***
	임시/일용직 근로자	0.46	25.16	53.80	18.49	2.08	
	고용주/자영자	0.90	28.99	55.23	14.56	0.32	
	무급가족종사자	0.00	23.55	73.47	2.98	0.00	
	실업자	0.94	17.16	48.89	29.55	3.47	
	비경제활동인구	0.60	28.13	57.81	12.82	0.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5	33.08	55.38	10.69	0.30	58.407***
	비정규직	0.39	25.10	56.36	16.35	1.8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3	30.00	52.47	15.51	1.29	52.190***
	중도적	0.35	28.12	60.61	10.22	0.69	
	진보적	0.65	32.44	52.44	14.10	0.37	

주 1) "(조사표 질문)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9〉 향후 10년 이내 생활수준 변화 기대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χ^2
전체		0.85	33.81	51.92	12.84	0.58	
성별	남성	1.10	34.34	51.52	12.61	0.42	6.288
	여성	0.60	33.26	52.32	13.07	0.74	
연령대	20대 이하	2.13	47.17	42.85	7.84	0.00	504.044***
	30대	0.99	47.83	44.79	6.01	0.38	
	40대	1.06	37.64	50.92	10.00	0.37	
	50대	0.32	28.36	57.11	13.70	0.51	
	60대	0.07	17.52	60.02	21.26	1.12	
	70대	0.09	11.04	60.62	26.37	1.88	
지역	수도권	0.66	35.12	50.03	13.57	0.62	10.679*
	비수도권	1.06	32.47	53.85	12.09	0.54	
	대도시	0.43	31.06	53.47	14.45	0.59	49.178***
	중소도시	1.24	37.12	49.35	11.80	0.48	
	농어촌	0.71	26.37	61.50	10.21	1.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9	19.13	47.55	30.28	2.74	264.400***
	중하층	0.80	34.00	50.77	13.72	0.71	
	중간층	0.77	36.20	54.74	8.25	0.04	
	중상층(상층)	2.51	37.91	46.22	13.10	0.2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8	21.78	57.78	18.41	1.35	204.323***
	200만 원대	0.83	35.62	51.38	12.01	0.17	
	300만 원대	0.64	41.24	48.10	9.28	0.73	
	400만 원대	0.74	40.56	46.17	12.53	0.00	
	500만 원 이상	4.38	43.66	49.70	2.26	0.00	
학력	중졸 이하	0.07	11.19	61.68	24.72	2.33	306.091***
	고졸	0.56	30.59	53.89	14.58	0.38	
	대졸 이상	1.30	41.98	47.88	8.50	0.3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4	42.20	47.95	8.42	0.20	188.077***
	임시/일용직 근로자	0.44	28.77	51.49	17.98	1.32	
	고용주/자영자	0.59	27.29	56.60	14.99	0.53	
	무급가족종사자	0.58	26.72	57.71	14.99	0.00	
	실업자	0.00	16.76	54.79	26.54	1.91	
	비경제활동인구	0.72	29.12	54.82	14.58	0.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0	38.52	49.84	10.27	0.26	52.435***
	비정규직	0.46	28.88	53.68	15.93	1.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0	26.08	53.48	18.98	0.86	109.554***
	중도적	1.10	34.79	53.58	9.86	0.67	
	진보적	0.74	39.37	48.10	11.61	0.19	

주 1) "(조사표 질문)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생활수준은 얼마만큼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0〉 우리 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단위: %)

구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χ^2
전체		0.65	36.07	44.83	15.25	3.20	
성별	남성	0.92	35.93	44.22	15.15	3.77	12.176*
	여성	0.38	36.22	45.44	15.36	2.61	
연령대	20대 이하	1.16	40.00	45.65	11.47	1.71	123.398***
	30대	0.95	42.94	41.42	11.68	3.01	
	40대	0.30	38.65	43.29	13.80	3.95	
	50대	0.34	35.23	45.04	15.55	3.84	
	60대	0.78	28.31	46.89	21.24	2.78	
	70대	0.31	24.05	49.24	22.23	4.17	
지역	수도권	0.33	37.20	44.60	15.54	2.33	22.062***
	비수도권	0.98	34.91	45.06	14.96	4.09	
	대도시	0.51	33.07	45.05	17.42	3.95	69.403***
	중소도시	0.76	39.62	43.78	13.82	2.02	
	농어촌	0.71	28.53	51.46	12.01	7.2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19.48	45.28	30.81	4.43	225.020***
	중하층	0.56	31.48	48.07	16.93	2.97	
	중간층	0.91	41.75	43.84	10.63	2.87	
	중상층(상층)	0.46	48.23	32.58	13.92	4.8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44	26.98	48.00	21.21	3.38	162.286***
	200만 원대	0.95	35.42	46.66	14.38	2.59	
	300만 원대	0.52	40.39	42.09	12.76	4.23	
	400만 원대	0.15	48.53	37.53	10.76	3.03	
	500만 원 이상	0.49	61.52	29.91	4.91	3.17	
학력	중졸 이하	0.49	19.29	51.99	24.09	4.14	128.172***
	고졸	0.65	34.05	45.49	16.56	3.24	
	대졸 이상	0.70	41.81	42.54	12.01	2.9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9	40.45	42.38	13.50	2.88	62.343***
	임시/일용직 근로자	0.51	30.46	45.10	20.03	3.89	
	고용주/자영자	0.51	33.46	48.30	13.66	4.07	
	무급가족종사자	0.00	30.16	60.73	9.11	0.00	
	실업자	0.47	24.24	48.57	23.50	3.21	
	비경제활동인구	0.63	34.93	45.29	16.35	2.7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1	40.20	42.90	12.94	3.27	56.489***
	비정규직	0.55	27.69	49.08	19.18	3.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7	32.95	44.16	18.88	3.33	59.606***
	중도적	0.45	33.98	48.82	13.30	3.45	
	진보적	0.92	41.93	39.63	14.82	2.7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1〉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단위: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1.66	48.39	34.80	9.18	5.96	
성별	남성	1.35	48.34	34.91	8.83	6.56	6.639
	여성	1.97	48.44	34.69	9.54	5.35	
연령대	20대 이하	1.72	51.26	31.63	8.78	6.61	52.520***
	30대	1.91	53.13	31.61	7.63	5.71	
	40대	1.23	48.55	34.52	9.09	6.61	
	50대	1.57	47.37	35.65	9.93	5.48	
	60대	2.19	45.74	39.86	7.99	4.22	
	70대	1.25	39.67	37.39	13.75	7.94	
지역	수도권	1.52	51.24	32.32	9.36	5.56	20.172***
	비수도권	1.80	45.46	37.35	9.00	6.38	
	대도시	1.66	44.29	36.86	10.66	6.53	82.449***
	중소도시	1.66	53.81	31.61	7.93	4.98	
	농어촌	1.65	33.51	45.94	9.11	9.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0	36.12	36.83	17.41	9.43	183.650***
	중하층	1.31	47.07	35.55	9.48	6.60	
	중간층	1.43	52.72	34.60	6.32	4.93	
	중상층(상층)	7.06	45.04	29.13	14.48	4.2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67	41.11	40.60	10.39	6.24	81.745***
	200만 원대	1.16	49.99	32.91	10.45	5.50	
	300만 원대	1.65	50.61	33.95	7.07	6.72	
	400만 원대	3.14	54.80	30.77	5.96	5.32	
	500만 원 이상	4.77	57.23	27.30	4.28	6.42	
학력	중졸 이하	0.61	35.98	43.37	13.19	6.85	64.175***
	고졸	2.00	47.36	35.82	9.22	5.59	
	대졸 이상	1.61	52.22	31.88	8.20	6.0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4	51.05	33.53	8.10	6.19	57.844***
	임시/일용직 근로자	1.09	42.98	35.35	13.44	7.13	
	고용주/자영자	1.50	46.54	36.93	9.15	5.88	
	무급가족종사자	0.00	41.20	55.59	2.01	1.19	
	실업자	1.44	43.27	38.86	11.04	5.39	
	비경제활동인구	3.04	48.80	33.99	8.91	5.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4	51.14	33.48	8.10	5.95	37.501***
	비정규직	0.87	40.98	38.93	12.27	6.9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5	51.84	31.66	8.59	6.06	14.721
	중도적	1.47	46.12	37.03	9.23	6.15	
	진보적	1.76	48.56	34.42	9.65	5.6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2〉 이념적 성향

(단위: %)

구분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χ^2
전체		2.76	24.17	43.27	27.57	2.23	
성별	남성	2.99	25.12	41.24	28.29	2.36	9.111
	여성	2.52	23.20	45.35	26.83	2.10	
연령대	20대 이하	0.73	9.25	46.02	38.90	5.10	822.015***
	30대	0.57	12.17	46.72	38.37	2.17	
	40대	0.31	18.64	50.53	28.98	1.54	
	50대	2.38	29.42	45.33	22.26	0.62	
	60대	7.78	41.98	31.88	16.10	2.27	
	70대	8.94	47.83	29.42	12.15	1.67	
지역	수도권	2.66	25.38	40.83	28.65	2.49	14.292**
	비수도권	2.86	22.94	45.78	26.46	1.96	
	대도시	2.32	23.44	43.19	29.66	1.39	25.510**
	중소도시	3.19	24.45	43.26	26.34	2.76	
	농어촌	2.31	26.93	43.87	23.21	3.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54	29.35	31.88	27.11	3.12	128.899***
	중하층	2.23	25.88	42.29	26.74	2.87	
	중간층	1.75	21.80	47.19	27.99	1.27	
	중상층(상층)	4.12	22.76	39.41	30.02	3.6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13	33.03	39.08	20.54	2.22	177.691***
	200만 원대	1.93	21.83	45.54	28.04	2.66	
	300만 원대	1.76	18.64	46.79	31.50	1.32	
	400만 원대	3.08	23.98	38.64	33.21	1.10	
	500만 원 이상	0.00	19.37	35.40	39.82	5.41	
학력	중졸 이하	8.81	44.46	32.30	12.29	2.14	395.598***
	고졸	2.66	28.79	41.54	25.41	1.60	
	대졸 이상	1.41	15.33	47.38	33.08	2.8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5	16.11	47.37	32.69	2.39	200.112***
	임시/일용직 근로자	3.18	26.05	41.72	27.05	2.01	
	고용주/자영자	2.64	33.50	38.09	24.28	1.49	
	무급가족종사자	3.46	24.38	55.61	13.42	3.13	
	실업자	5.61	29.20	34.40	26.22	4.56	
	비경제활동인구	4.56	29.26	41.65	22.16	2.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2	21.27	44.75	30.07	2.00	9.146
	비정규직	2.47	25.25	42.38	27.53	2.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24	89.76	0.00	0.00	0.00	10100.000***
	중도적	0.00	0.00	100.00	0.00	0.00	
	진보적	0.00	0.00	0.00	92.51	7.4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록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질문지

복지제도 경험과 행복

□ 지금 귀하의 행복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까지의 범위에서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또한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의 일과 여가, 자산, 건강, 정신건강, 가족, 사회적 관계, 교육, 주거, 일상생활,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선택) 현재 귀하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주십시오.

□ 지금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까지의 범위에서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 지금 귀하의 삶에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혹은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 귀하가 지금 국가(여기서는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일반적으로, 국가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는 귀하의 행복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생곡선을 같이 그리면서 대화)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중요한 위기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였고,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 과정에서 귀하와 가족, 사회적 관계망, 공공과 민간 사회서비스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위 질문과 관련하여,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우리는 인생의 주요 단계들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급여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각 단계에서 귀하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거나 결정된 일들, 그 상황, 귀하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정부는 재난긴급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귀하의 생각과 결정은 어떠하였는지 묻는 것입니다.)

□ 이번에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 귀하와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미래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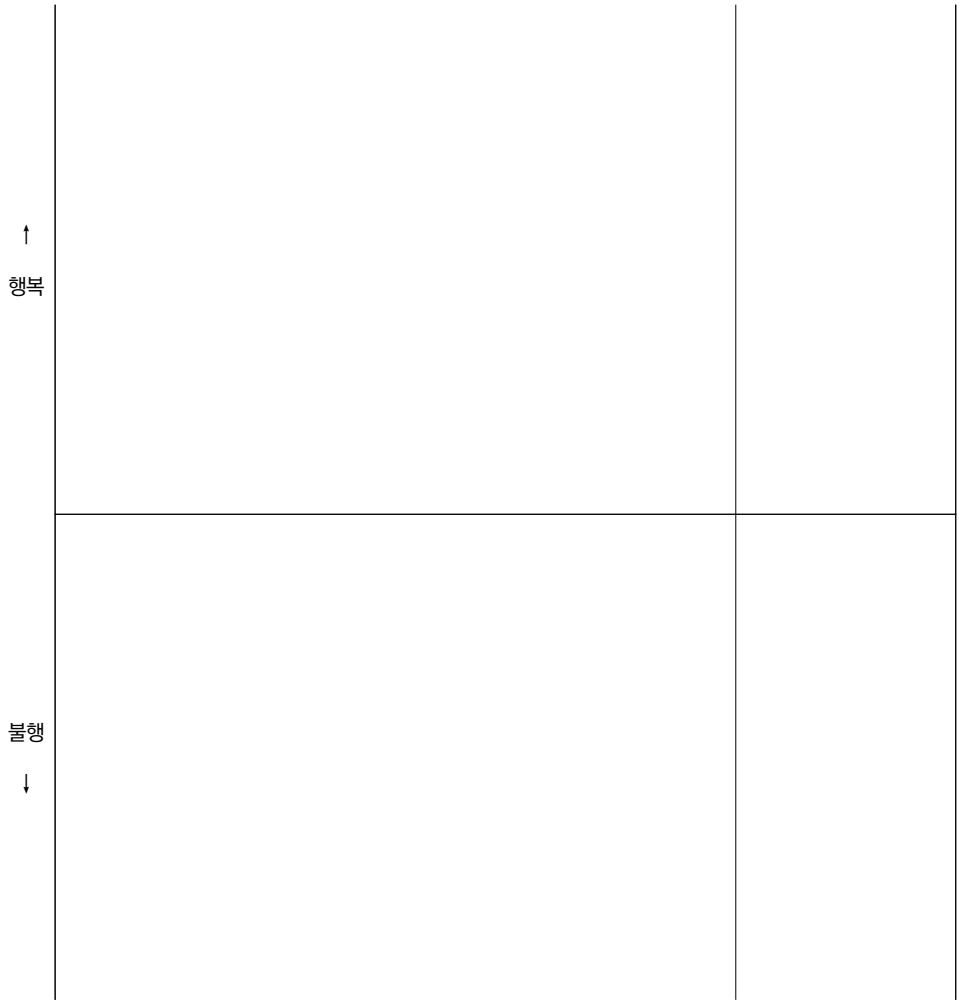
○ 귀하와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러한 불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귀하와 가족, 지역사회,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택)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경제적 수준, 정치적 위상, 사회문화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생 곡선



부록5.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동의서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면접참여자용

□ 연구과제명 :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Ⅱ

연구진		연락처
연구 책임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044-287-8304 hsjung2013@kihasa.re.kr
공동 연구자	권지성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42-828-3324 antier@kbtus.ac.kr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2-901-8504 swjeong@duksung.ac.kr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044-287-8304 kseonga@kihasa.re.kr

연구참여자 여러분,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행복과 복지제도 경험의 의미와 맥락,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됩니다. 연구결과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 개발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정해식 연구책임자, 권지성·정선욱·김성아 공동 연구자가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지인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여러분이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은 여러분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진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세운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은 후발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고성장의 이면에 짙은 그림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수년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율, 직장인 스트레스, 40대 과로사 등에 있어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72점으로 156개국 중에서 61위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인 사회발전의 지표로 사용되는 1인당 GDP로 측정되는 경제발전 수준이 세계 29위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행복수준은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행복도는 지난 5년간 조사된 23개 OECD 국가 중 연속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안을 파악하고 사회정책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실무자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낀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고견은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역동의 한국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주요 연령대 집단(20대, 30대, 55~65세, 70~75세)을 성별에 따라 모시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수행하는 전문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의 추천을 받아 무작위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3. 연구 방법

연구 참여는 연구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시간은 약 2시간 안팎이 될 것입니다. 면접장소는 귀하께서 만족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면접에서는 행복과 현재 상황, 제도 경험, 과거 회상과 미래 전망 등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게 될 예정이고,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니 편안히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담 내용을 녹음·녹화할 것이나, 해당 자료 및 녹음·녹화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일절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면접은 1회

가 실시될 것이며 정확한 자료 해석을 위해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절차로 수집된 자료는 연구종료 후 3년간의 보관기간을 거친 후 완전히 폐기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분에게는 면접을 마친 후 감사의 의미로 5만원의 사례비를 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례비 지급을 위해 수집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사례비가 정상 지급된 후 폐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면접은 7~8월 중에 이루어질 것이며, 1회(2시간 안팎)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본 연구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 없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고, 동의 철회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 중간에 동의를 철회하고 싶으실 경우, 면접 중 언제든 연구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면접이 종료된 이후 동의를 철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구진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연구진 연락처는 설명문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겪을 특별한 위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접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이 떠오를 수 있고 그래서 심리적 불편감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성명 및 전화번호를, 그리고 사례비 지급을 위해 신분증 및 통장사본과 같은 일부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할 것이나, 자료수집 직후 모두 익명화하여 다룰 것이며,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일절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하심에 따라 도출된 연구결과는 추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여러분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수집되는 모든 개인식별정보는 자료 수집 직후,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익명화 작업을 거쳐 다뤄질 것이며, 따라서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일절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연구진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될 것이며,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례비 지급을 위해 수집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은 사례비가 정상 지급된 후 폐기될 것이고, 연구절차로 수집된 나머지 모든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의 보관기간을 거친 후 완전히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중도 탈락하거나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녹음된 자료를 비롯하여 참여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 및 데이터는 모두 폐기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연락처(전화번호)를 수집하나, 연구 관련 중요 사항이 새로이 생기는 경우나, 연구 결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여러분의 응답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보고하지 않도록 해석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만 수집합니다. 또한 연구 자료에는 대상자의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하여 그 번호만 나타나게 함으로써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통해 개인의 신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절 알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및 개인연락처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될 것이며, 연구자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연구 문의

여러분이 연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설명서에 기재된 연구책임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을 시 본 연구진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연구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한 조사나 감독 등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가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에 동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료 열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질문이 있는 경우 설명서 앞에 있는 연구진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에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에 연락하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제2020-27호 전화번호: 044-287-8000

동 의 서
- 면접참여자용 -

연구제목: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1. 본인은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에 제공된 개인의 정보를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연구 관리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생명윤리위원회의 검증과정에서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열람기관의 예 : 보건당국, 연구기관 및 보건복지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4. 본인은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연구 참여에 스스로 동의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서명일:

.....

[다음 사항은 필요시 서명합니다.]

법정대리인 (필요시)	성명:	서명: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서명일:
입회인 (필요시)	성명:	서명:	서명일:

부록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연령집단별 면접 결과 귀납적 주제 분석 결과표

영역	하위 영역	청년-20대	장년-30대	중년-60대	노년-70대
행복	의미	관계 지인들이 잘 사는 것 여유 재미 발전 상대적 타인의 시선에 좌우됨	걱정 없음 마음이 편함 안정적임 부족함이 없음 가족과 저녁을 같이 먹는 것	행복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느낌. 전과 비교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원했던 것을 해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포함 잘 먹고 잘 사는 것, 손자들 보는 것이 행복 본인과 부인 건강/자녀 결혼 및 취업/손자녀 있음 ==〉 "나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함 - 첫째, 건강: 나와 부인 - 둘째,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사회생활(취업)이 중요함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할 나이가 되었음. 그러면서 내려놓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조그만 행복감"을 알게 됨 행복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짐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신체적으로 잘 먹고 잠 잘 자고 또 소화 잘 시키고 취미생활하는 지금 이순간이 행복이다라고 생각 그때그때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음/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함
	행복 점수와 그 의미	0점 1명: 지금이 가장 불행. 취업 준비로 막막함. 3-4점 3명: 평균 미달,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듦(취업 관련 최하), 소속감을 느낄 곳이 없음. 취업 안 됨. 의욕 없음. 재정 상태. 7-8점 2명: 큰 걱정 없고 순탄함. 행복점수가 낮아질 상황에서 벗어남. 스트레스를 잘 풀고 있음. 관계, 돈, 평범하게 사는 삶.	3-4점: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 체력도 동이 남 6점: 평균 이상, 미래 불안 7점: 가족관계 행복, 미래 불확실한 재정 감점 8점: 원래 9점, 코로나로 감점. 긍정적 성격. 순간을 소중히 여김. 가족과 함께 할 때 상승, 재정여유가 없을 때 하락. /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스트레스 상황. 소소한 행복.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짐. 시댁과 관계,	6-7점(여): 은퇴후 행복 점수 떨어짐/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직의 드문드문 일 밖에 없음/코로나로 운동, 취미생활을 못하고 집에 있으니 위축됨 7점(남): 여전히 충분히 성취하지 못한 부분, 전혀 만족스러운 부분과 2) 전보다 나아진 부분을 비교할 때 7점 정도/가정적 상황, 건강상태, 성취정도, 정신적 만족도, 다른 사람과 비교 등을	7점(남): 과거에 비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복지혜택 등 모든 것이 나아졌고 그런 혜택을 받고 있어 7점 정도는 됨/안정감/이전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안정되고 순탄한 노후생활이라 만족함/어느 정도의 자산이 기본이 되어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없어, 수치심, 자격지심, 자존감 문제가 생기지 않음/경제력이 심리(수치심, 자격지심, 자존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나이가 드니, 돈/권력보다

			친정어머니 건강 문제로 감점 9점: 행복하게 잘 지냄. 집을 산다면 10점이 될 것임.	고려할 때 7점은 되는 듯함//강남에 집이 있고 자식들 도움받지 않고 살며 건강해서 7점/부자 강남 할아버지보다 왜소함 7점(여): 걱정 근심이 없음. 신경쓰게 하는 스트레스가 없음 <= 나이에 비해 아프지 않고, 속 썩이는 사람 없음. 혼자만 즐거우면 즐거울 수 있음/행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 건강, 2) 자녀의 성공, 자녀가 잘함 (효도) 8점(남): 더 행복할 여지는 있지만 8점 정도도 문제는 없음 8-9점(여): 개인적으로 시끄러운 게 없어서 8~9점 - 경제적: 퇴직 후 연금. 경제적 안정 - 자녀: 딸의 결혼, 아들은 직장생활 중 ==> 아이들 미래와 관련하여 마음이 시끄러운게 많았는데, 이제는 안정되고 (돈 달라는 자녀가 없어) 여유가 생겼음.	가정적인 화목, 자신의 건강이 행복의 필수조건이 되었음/주변에 죽는 친구들을 보니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함/주변인들의 사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침/원하는 목표/가치에 도달해서 느끼는 성취감이 행복이라고 생각함 8.5점(여): 건강과 미혼 자녀로 1.5점을 뺌 10점(남/여): 열심히 살아서 삶에 자부심이 있음/매일 봉사하면서 살아옴/하루하루가 즐거움/시간이 아까움//5년간 손녀(딸의 자녀) 돌봄에서 "해방"되어 현재 행복 수준이 만점 70점(여): 자녀의 행복한 삶/본인의 건강/경제적 여유(자가) 등이 행복에 중요함
	돈과 행복	돈은 중요함			
	현재와 미래	현재가 더 중요함 시기에 맞는 행복을 누리고 싶음	미래 행복 미래를 위해 현재 포기		
	사회 경제적 지위와	최하 1명. 무직, 소속이 없어 약자. 중하 4명. 현재 생활이 마지노선.	중상: 경제력 중상, 생활력은 중간 / 재산이 평균 이상, 대기업 재직, 사업하는 친구에는 못 미침 /	중간 정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점은 없지만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이 많지 않고	중간: 안정되고 건강도 스스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중이라고 생각//완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미	본인은 중하. 중간 1명.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음.	경제적 안정, 집과 차 소유, 취업 어려움 없음, 만족하며 돈 벌이 중간: 적당히 즐기고 있음 / 사회적 지위-중간, 경제적 지위-비교해 본적 없음(비교 자체가 속상하고 불편함) / 집값이 너무 올라 부자라고 말할 수 없음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 등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함 하에서 상이지만 행복함. 걱정 근심없고 생계 위협은 없고 내가 하고 싶은거 하기 때문에 하: 은퇴한 현재 입장에서는 하/은퇴후 삶에서 사회적 영역이 사라짐 중산층도 아님, 그냥 시민, 서민	부족한 것도 아닌 상태 하류는 아니고 중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음/딸에게 아쉬운 소리 안함/건강이 제약/아쉽지 않은 경제력 상위: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음/다들 나를 부러워함/연금, 임대세 있다보니 아무런 지장이 없음 중하: 집만 있어서 중하
맥락	현재 상황 전반	취업 준비: 주로 공부, 서류 작성, 공모전 등 구직 활동 아르바이트 운동	일-가정 양립의 균형 맞추기 가정에 충실하려 노력 주말 가족동반 캠핑 개인: 운동, 동호회 활동 시어머니 양육부담감 증가 돌봄 공백 메우기	코로나로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패턴/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집사람하고 친구(얘기하고 같이 등산하고 서로 건강 생각하는 등)처럼 지내고 있음 전역 이후 전업 주식 투자 중 특별한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갑갑함(남) 명예퇴직 후 1년은 아무 것도 안하고 느긋하게 지내는 삶을 즐김/1년 이후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등산/가정일 도우면서 하루를 보냄 매일 평일 오전 자원봉사/타이트하게 열심히 바쁘게 생활함/최선을 다해서 살다보니 늘 행복하고 생동감이 넘침/탁구 동호회 회장/아파트 총회장/00동 자치위원장 등 활동함 장애인복지관의 급식봉사를 하면서 만난 장애인의 장애를 보면서 불평불만이 사라짐. 철이 들었다고 생각함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음/사람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TV를 종일 틀어놓음
	일	하지 않음 단기 알바로 다양한 경험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전공과 다른 분야에 취업 원함 취업 스트레스가 있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음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감, 걱정	NGO: 워라밸을 위해 선택 행정직 공무원: 가족에 집중 대기업: 이전 직장에 비해 실망, 이직 고려 프리랜서 예술강사: 코로나로 일 중단, 집에서 아이들 돌봄 공부한 것이 아까워 계속 일하고 싶음. 출산 후 경력이 중요하지	페인트 회사 기술 계통 3년 전 퇴사. 맞벌이였던 부인도 학교 행정직 공무원으로 퇴사 정년 7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함/남편이 반대하지 않았음/"남편은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남편의 경우 퇴직 때	시장성이 있을 것 같아 묵혀둔 일(생수, 미네럴워터, 온천개발)을 다시 시작함 교장으로 정년퇴임 손녀 육아로 '이야기 할머니' 일을 그만 둠/나이를 먹으니 소소한 활동(좌담회 참석, 보건소의 명예보건행정관, 소비자 활동

			않아짐. 경력단절로 가족 원망. 프리랜서 시간강사: 임신 후 직장 그만두고 교원자격증 활용해 일함. 코로나로 인해 일이 줄어듦.	술을 많이 마시는 등 고민을 했음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앞날이 창창한 딸의 자녀(손녀)를 보기 위해 일을 그만 둠 계속 구직을 시도하지만, 나이도 있고 코로나에, 젊은 사람도 어려운 판이라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	등)에서 행복을 느낌. 교통비 같은 약간의 수입이 발생함.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할 수 있음/재능기부, 자원봉사(병원), 노인상담 등을 찾아서 함 살기 위해 안해 본 일이 없음/부동산 및 땅 구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됨
	일에 대한 만족도		7점. 근무시간, 워라밸, 근무환경 만족. 하고 싶지 않은 업무 때문에 불만족. 출산, 육아에 대한 직장의 부정적 관행. 육아와 직장 중에서 고민 중. 공감대가 있는 곳 필요, 맞벌이가 많은 곳을 선택. 보육서비스 이용, 죄책감이 들어 근무할 때만 맡김. 커피 한잔의 여유-소소한 행복. 남편의 협력과 분담. 일-양육 병행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큼.		
	여가	스포츠 동호회 해외여행 친구 만남 집에서 영상 컨텐츠 시청	골프 친구 모임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냄 자기 전 유튜브	건강, 여행 관련 책읽기 좋아함 코로나로 취미생활(탁구, 골프, 열대어키우기, 프로그램 쪽 공부) 중단	교보문고 가서 책을 읽음/철학 강의를 들음/심취함/인문학 철학 강의를 들으면 목적이 생기는 것 같아 너무 좋음)/자아실현에 철학 강의가 도움이 됨/마음은 아닌데 인지력, 순발력이 많이 떨어져 서 그걸 채우려고 책 읽음 운동, 등산, 탁구/평상시 열심히 살고 보상으로 해외여행을 다님/해외여행 60번 나가는게 목표/자식들한테 기본은 해줬으니 여생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다님

					신문, 뉴스를 꼭 챙겨 봄/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함/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정보를 알아서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음
	자산 -재산	없음 현금, 유가증권 소규모 형제와 공동명의 부동산	대출 낀 자가 아파트 3명 예금, 주식, 펀드 등 재테크	분당이 33평 7억 정도 나가는 집 소유 경기도 광주 소재 아파트(대출있음) 23억 강남 아파트(반전세를 줌)+7억 전세살고 있음	자가(12억)/집을 정리하면 또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으니, 옛날 부모 세대와 다른 안정감이 있음 19평 전세(1억5천)/집을 팔아서 아들 집 사주고 딸 결혼시키고 했음/애들이 와서 자고 갈 때는 불편하지만 둘이 살기에는 괜찮음/사후의 재산처리방법을 자식들에게 알려주었음 아파트 2채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음/아파트 전세주고 빌라 거주 작은 평수지만 자가 소유
	자산 -소득	고정수입 없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명 필요할 때 알바로 용돈 충당 부모 용돈 받음 돈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음	연봉 세전 9천 연봉 세전 8,500(세후 7,000) 월 1,000(맞벌이)	부인-공무원연금(270만원 ~ 300만원)/ 아들 취직, 소득(250만원): 수입은 그다지 큰 문제 없음 군인연금/주식 수익(월200만원) 공무원 연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퇴직 이후의 삶이 여유로움/돈을 달라는 자녀가 없음 국민연금이 조금 나오고 지방에 사는 남편이 보태줌. 최대한 아껴쓰고 저축하려고 함/어려움은 없음	부인 연금, 저축, 주식 등의 소득/부인이 11년째 주식 관리를 하고 있음 연금/자식등 용돈으로 생활/350만원 정도 필요한데 현재 수입으로 부족함/지출을 줄여 생활함 임대세: 월 1천만원/연금소득(본인(공무원 연금)+부인) 자녀로부터 용돈+봉사활동 수입/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살 방법을 찾고 있음

				부부 모두 국민연금/공무원들과는 비교가 안됨	남편이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 정기적인 연금 수입이 없음
	건강	건강함 아픈 곳 없음 보통 만성 질환 어릴 때 질병, 완치 안 됨. 허약한 편	양호 계절 감기, 아내 출산 후 안 좋음 여유가 없어 못 하고 있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씀.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검사를 통해 확인함. 치아 임플란트 많이 함 치아가 식사, 사람 만나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게 할 때가 있음 건강관리에 약을 잘 못 먹고(예, 혈압), 운동이 중요함. 등산도 하면서 노력하는 중 건강 좋음 은퇴하면서 금연함. 주관적 건강 좋음 좋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매우 건강한 상태/건강관리(5대 영양소, 소식 등)/건강을 잃으면 사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음 [죽음 대비] 유서작성하였음/생명연장의향서 등도 준비해두었음	당뇨(가족력 있음)/보건소에서 2개월마다 관리해줌 양호함/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고 불편한 곳이 없는 상태/약을 잘 챙겨먹음 5년 주기로 먹는 약이 늘어남 2년마다 동네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관리함/동네병원에 만족해서 굳이 3차병원에 갈 필요없음/건강보험으로 보장안되는 것은 실손보험(예, 도수치료)로 해결. 보훈대상자 남편으로 보훈병원 이용 가능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함/별도의 건강관련 보험은 없고 병원비 조금 모아두었음/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건강관리 열심히 함/열심히 관리하지만 나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자주 넘어짐 약 복용중/통제할 수 없는 몸
	정신건강	취업준비로 우울, 스트레스, 잔잔한 압박, 불안감 의욕 없음. 우울, 감정기복, 약물 복용 대처: 철학책 읽기,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함, 본인에게 더 집중. 음악 듣기, 운동, 나쁜 상황이나 어려운 것들을 잊으려 노력함	맞벌이 전 경제적 부담 일반적인 직장인 스트레스 수준 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감정싸움에 쉽게 휘말리지 않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보니 우울에 신경 쓸 길이 없음(괜찮음)(현재) 오히려 10년 전에, 남과 비교하여 덜 성취했다, 뒤 떨어졌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음(과거) 나이가 들고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됨	책을 계속 읽음/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노력함 반려견 죽은 후 부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검진을 받아볼까 생각까지 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부러운 것 없음. 작은 데서 행복을 느낌. 차선을 생각하면 실망을 덜하게 됨 코로나 이후, 이전에 비해

				갱년기를 겪음/우울과 불면증이 있었음/현재는 나쁘지 않음 나이가 들면서 다른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정하게 됨. 너그러워짐 실망이나 고민은 하지만, 낙담하지 않음/긍정 마인드/복잡하게 생각하면 힘이 드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함	행복점수가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 조금 우울감을 느낌/우울감에 대해 따로 대비하는 것은 없음. TV에서 코로나 상담받으라는 말이 귀에 들어옴
가족 -구조	부모 부모+형제남매 한부모와 거주	부부+자녀2, 4명 부부+자녀1, 2명			
가족 -관계	원만한 편/애증/가족과 분리되어 있음 부모: 다양성. 취업에 대한 압박은 없음 형제 관계: 남성-가깝지 않음. 여성-언니들과 친함. 친척: 친하지 않음 반려동물: 가족 관계에 영향	부부관계: 대체로 잘 지냄 부모세대와 관계: 함께 일함, 자신을 믿어주고 자랑스러워함, 원만한 관계, 양가 부모 모두지지, 친정엄마는 결혼 반대. 시댁/처가: 화목하고 자주 만남,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출산 뒤 해결, 아이 돌보면서 전우애. 시어머니 질투로 마음고생, 출산 뒤 편해짐, 시댁에 갈 때마다 상처. 양육방식이 달라 불편함.	[부부관계] 성격적으로 달라 다툼이 있었지만 살다보니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됨 부인과 같이 있는 시간이 갑갑함/하나님이 최우선인 아내/공통분모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함/부인과의 데면데면한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신앙심을 더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경제적으로 재지 않는(돈 쓰는게 아깝지 않은) 제일 좋은 친구 친구/(남편가 사이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술 먹고 때리는 남편 때문에 결혼 후 자살 생각을 했음 취미 성향들이 다름. 스트레스를 받지만 잊으려고 하고 나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함/착실한 남편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술 담배 안하고 못되지	[부부관계]권위적 남편에서 많이 양보하고 집안일을 하는 남편으로 바뀜/젊은 시절의 권위적 태도를 유지했으면 집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임/부인이 아프면서 집안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음/바깥일은 남편, 집안일은 부인이 분업이 확실했는데, 부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집안 일을 하게 되었음 -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함(남_다)/가족 중에서 부인이 가장 중요함(남_다) - 반성하는 마음으로 부인을 대함 - 손녀를 키울 때 의견이 달라 싸움. 손녀를 돌보지 않는 지금은 싸울 일이 없음 [자녀관계] - 42세 독신 아들 하나 있음/결혼 안했다고 걱정하지 않음/아들은 부인과 매일 전화함(남)

				않았고 여자관계 없는 사람) [자녀] 부인이 아들 하나라고 너무 받들어키워서 어른 대하는데 부족함이 있음. 작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여 취업. 거기에 만족함 자녀 결혼 후 관계가 달라짐. 매일 보는 자녀(딸), 이민 갔다고 생각하는 자녀/손님 같은 사람(예, 사위) 등으로 관계가 변화함 아들보다 딸과 대화가 많은 편/자식을 노후라고 생각하지 않음 (남편과 달리) 자식들이 다 잘돼서 감사함 결혼 안한 자녀(혼자 살겠다는 아들) 걱정이 많이 됨.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많음	- 아들은 결혼 후 자주 만나지 않음/가까이 사는 딸, 손녀를 자주 만남(남) -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다 만나기 어려움/자식이 바빠서 만나기 쉽지 않음/만나면 외식하고 얼굴 봤으니 집에 가고 그럼(남) - (위층, 아래층 살다가 이사 가서) 안보니까 좋음.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살면 된다(이혼하지 않고 애 키우고 사는 것)고 생각함 - 남편은 포기. 애들한테 올인하면서 살아옴/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전혀 없이 홀로 딸 셋을 키워냄/사춘기도 없이 잘 자라준 딸이 고마움/“자녀에게 신세 안 진다는 철칙”을 갖고 있음/엄마 병원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자녀들에게 일러두었음 - (자녀결혼) 혼자 살기도 힘들어 결혼할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자녀. 결혼을 강요할 생각없음
	사회관계망 -구조	중고교 친구 대학 친구 동네 친구 이성 친구	가족 친척 초, 중, 고, 대학 친구들 동호회 맘카페	[원가정] 학창 시절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큼(공부하고 싶었으나 동생들 가르쳐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대학 진학을 못함). 현재도 원망스러움 - 원가정 스트레스 없었음/“가장”이라는 부담, ~를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	[손녀] - 손녀(딸의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보는 동안 너무 힘들었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도 많이 아팠음/출산은 해야 한다고 생각함.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일임 [형제관계]서로 부담을 안주려고 노력함/의견충돌 없음/부모

				- 올케, 며느리들 모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서로 잘 지내는 것이 너무 감사함/다행이라고 생각함 [친정부모/시부모] 건강에 감사함/딸 둘 중에 자신을 더 사랑해주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크게 상심했음	재산이 없어서 갈등 없었음/각자 먹고 사는 형태 [친정] 친정도움을 전혀 받지 못함/힘들 때 전혀 도움받지 못함/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옴 [이혼에 대한 생각] 자녀는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라 생각. 자녀가 있으면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혼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오래 미침(이후 자녀의 결혼생활에도)/(이혼가정의 자녀 성격에 허점이 있음. 이후 결혼해서도 결혼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함)/부모와 아빠들 대상 교육이 중요함/남자들의 변화가 필요함(가족 중심의 생활) 친척/고등학교 동창 다수(20-20)/대학 동창 소수 [친척] 4촌, 6촌까지 자주 만남/비용 부담을 하는 4촌이 있어서 모임에 부담이 없음/친척들 간의 큰 모임을 친구들이 부러워함 활발한 사회적 활동/사회적 활동에는 돈이 필요함/탁구회장/아파트 총회장
	사회적 관계	가까운 데 살고, 마음이 가까운 친구들과 자주 접촉함 친구의 범위가 제한됨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도움 받음 대학 친구, 교수들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못함 이성친구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음	중/고 친구들과 가까움/멀어짐 대학친구들과 가까움/멀어짐 아이 있는 친구와 함께 만남 직장 동료와는 안 만나려고 함 맘카페-정보 공유, 도움 받음, 공감과 위로	[종교]주변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을 보니 바른 사람이 많음/신앙심을 키울 생각을 갖고 있음/신앙심이 갑자기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음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종교가 도움이	ROTC 동기 모임이 끈끈함/대학교 친구들 정기적으로 만남 [종교] 마음을 어떻게 먹는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초월”)하여 과거보다 절에 잘 나가지 않음 - 내 마음먹는게 중요하다고

				됨/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교회나 성당에 열심히 나가는 것)보다 자기 믿음, 자기 구원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나이를 들면서 생각이 바뀜/마음에 종교를 갖는 것도 의미 있음 남편이 종교생활을 반대해서 하지 않음. 마음의 신은 있음 [복지관] 인근 노인복지관을 찾아감.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다양하고 유용한 강의(예, 스마트폰 강의)도 들었음. 맘이 맞는 사람과는 꽤 가깝게 지냄 ROTC, 산악회 직장 관련된 사람들과 교류/지역 연고 동창들 모임 있음 퇴직 후 친구모임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의미)이 컸음/ 코로나 이후 모임 횟수가 많이 줄었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사회적 활동]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성취욕도 느낌	생각했는데, 한참 힘들었을 때(딸의 대부업 문제로), 종교가 마음을 추스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위로가 됨.
	교육	모두 대학 학부 졸업 전공-진로 연결의 다양성 중등교육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음	대졸 2명 미국 로스쿨 석사 1명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세상에 대한 안목이 넓어짐	힘들게 자녀를 가르친 보람을 느낌
	주거	부모와 거주 자가, 월세 등	아파트 3명	33평 분당 아파트 자식들 결혼 후, 평수를 줄여 온 것에 만족함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부인과 자식들 의견은 달라서 마음대로 안됨

				임대아파트 거주	생활편리한 곳이 최고의 주거환경(지하철 5분거리 역세권, 병원, 시장/마트 접근성 높음)/남편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구입 어려움/집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함(그렇지 않으면 자주 이사를 가야함).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음. 의식주 해결되면 행복
	일상생활				
	사회 서비스	공공기관 무료교육 정부 직업훈련 가능한 한 많이 이용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소득, 재난지원금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건강보험	보건소를 1년에 한 번씩 이용/서초문화회관 금요음악회/서초구청의 명사와의 대화	
	영향력 우선순위	서로 다른 우선순위 가족, 일, 건강, 여가, 친구, 자산, 일상생활 등	거의 모두 가족이 1순위 2순위: 자산, 건강, 경제적 여유, 일 후순위: 관계, 일상, 여가, 주거 등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함 마음가짐이 중요/부정적인 상황(환경)을 회피하면서 만족, 행복을 관리함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편안한 친구	가족〉건강〉돈〉인간관계 첫째는 가족/다음은 부족하지 않은 경제적 여유/마음의 여유,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않음 등이 행복에 중요함 건강과 재력(경제력)
만족	삶의 만족과 그 의미	0점 1명. 취업 불안 4점 2명. 대부분이 힘듦. 상대적. 다이어트 성공, 여행 등은 만족-삶의 의욕을 얻음 5.5점 1명. 경제활동이 없어 행복보다 점수가 떨어짐. 행복과 만족은 같거나 유사하지만 대체로 만족도가 행복점수보다 낮음	6점: 가족 만족,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음 / 친구에 비해 수입이 괜찮음, 야근이 많이 없음 7점: 전반적으로 괜찮음. 8점: 충분히 만족. 행복과 같이 가는 것. 9점: 행복과 동일	8점: 만족이 행복에 비해 주관적인 면이 강함. 행복은 비교하는 면이 좀 더 있음/젊을 때와 다름: 젊을 때는 내 필요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할 때 만족감을 느낌//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짐 7점: 스스로 지지고 볶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크게 보면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만족함	4점(남): 자신에 대한 욕구불만이 있음/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어 뭔가 남아있는 듯함/나의 발전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데 마음과 다른, 여러 제약(인지능력, 순발력 저하 등)으로 못하고 있음/성격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여유를 즐기는 것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음 5점(남):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데 그게 잘 안됨/가족들에게도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아 더 사랑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뿐, 그게 잘 안됨/삶의 질은 나이가 듦에 따라 느끼는게 달라짐/젊을 때는 돈 권력을 쫓았음 9점(남):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할 때 아파트(강남 소재) 다 사주고 자녀들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만들었음/자식들로부터 존경(인정)받음/그래서 9점 10점(여): 불편한 게 없음/불편하게 없어서 행복함/남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음/싸워도 오래 안감 70%(여): 욕심을 내면 끝도 없지만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함
	불만족 사항	주변 친구들과 비교(취업, 생활수준) 자신에 대한 불만족 끝을 알 수 없는 취업준비 재정 가족관계 인간관계(친구)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함 과거에 대한 후회 소속감 부재	들인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음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녀에게 제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 자녀의 미래에 대한 우려 미래의 불확실성 계층 간 이동이 힘들어짐 더 노력해야 유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 코로나로 아이와 여행을 다니지 못함 보장되지 않은 직장의 불안 부동산에 대한 국가 제재 불만-노후를 준비할 방향을 막음 황혼 육아에 지친 어르신들을	[부인]서로 다름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초기에는 충돌이 많았음	장학재단을 만들지 못한 것/머지않아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음(소망/희망사항)/그림과 글씨 쪽으로 소질이 있는데 더 노력하지 못한 점, “자아실현”을 못 한 것이 아쉬움(9점 남)

			위한 프로그램들이 탄탄하게 짜여있으면 좋겠음		
	불만족 대처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함 시골 부모님 댁에서 휴가를 보냄 도전하기 쉽지 않아 부러워함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기면 살아가려고 노력함	
국가-국민 행복 영향	국가로부터 받는 것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소득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청년지원서비스 재난지원금 사회서비스: 치안, 안전 없음: 본인의 조건이 맞지 않음	보육 관련 급여와 서비스: 보육비 지원, 가족돌봄휴가비, 육아정책, 임신시 수당, 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재난지원금 지자체 교통지원금 국민연금 사회서비스(시설, 장비, 서비스) 급여, 육아시간 주변 인프라		연금, 건강보험 국가로부터 혜택((교육(공무원이라 수업료 반액, 장학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았음(다)/건강유지를 잘해서 정년을 마친 것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 고마움을 느낌 보훈대상자로 받는 연금으로 생활함/노령연금 대상자인지를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알아봄 기초연금/공공 일자리/건강보험 등을 받고 있음/의료비가 보탬이 많이 됨.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함
	국가 지원에 대한 생각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평등. 지원에 긍정적. 구직활동지원금: 취업률에 대한 정책. 국가 혜택은 다 받아야 함 기본소득 제공 바람 청년기본소득 긍정 평가, 타이트하게 운영하길 바람 특정 집단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음 신혼세대 지원 효과가 있음, 출산율이 중요 현재는 지원범위가 넓어졌음 제공되는 돈이 나중에 짐으로	재난지원금: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지원.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함. / 지원 전후가 다르지 않음. 차등 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음. 지역 상권이 활발해짐. / 정부 혜택보다는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느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했다고 생각-죄책감 / 경기 부양을 위해 잘한 정책, 모두에게 제공해야 함,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제일 좋았음 / 받은 것보다 뺏기는 게 더 많은 느낌 코로나 사태: 정부 대처가 나쁘지	[재난지원금] 국가 재정을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들 줄 필요가 있나, 퍼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음/절약해서 (어려움을) 극복을 햇으면 좋겠는데 꽁돈이라고 막씀(낭비) - 인기 영합주의/절실한 사람을 지원해야 맞음/선택과 집중이 필요한건데. /정권 연장의 수단 - “이게 좋은 제도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음/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복잡함이 있었음/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다 나라 빚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재난지원금] 주니까 받자/이것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음 [재난지원금][복지]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가를 위해 잘한 일/재난지원금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준 돈/고마움 느낌/소중히 사용함/꼭 필요한 곳에 지출함 -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어야 함/나는 남한테 얻어먹는거 굉장히 싫어함/무상급식 논란 때도 같은 생각이었음 - (지원이 필요한 사람 OR NOT) 그것을 나누기가 참 애매할 것

		돌아올 것 같음 실용적 정책이 실시되길 바람 전달방식을 달리하길 바람 정부지원서비스의 질이 낮음 조건이 안 맞아 지원하지 못할 때 본인의 형편이 나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재난지원금: 보편급여는 잘 한 것임 국가장학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바람 청년 정책은 들어본 적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관심 있게 보지 않음 주변 사람들도 안 하고 있고, 잘 모름 일자리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않음, 국민들이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음. 선진국들과 비교, 더 우수함. 확실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돌봄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음.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음. 공공영역 서비스 질에 대한 의문. 보육시설 교사도 최저임금-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려움. 보육교사의 질이 중요. 복지: 소외계층이 우선시되어야 함.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섬세한 지원 필요. / 확실히 많이 개선됨. 세금을 많이 내도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함.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면 좋음. 과잉복지, 과다세금은 부적절. 사회 체계: 모두 동일한 목표를 지향. 경력단절의 한계. 부정적 직장문화(성희롱,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 여전. 다양성 결여. 국민 수준은 높지만 어느 세대도 행복하지 않음. 다양한 직군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은 처벌 강화 필요. 부동산 정책은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이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 교육 정책: 너무 자주 바뀌어 아이들이 시험대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듦.	들었음/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서 판단이 어려움 -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원한 것은 잘한 일임. 투명한 지급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잘한 일 - 모든 사람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은 잘못.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자리] 현금보다 일자리 지원이 낫다고 생각함 - 좋은 일자리 만들기/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정부 발표 고용지표 믿을 수 없음/젊은이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필요함//실업률 낮추려는 단기대책은 도움이 안됨 [복지] 복지지출이 과하다고 생각함/다른 쪽이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됨/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복지를 너무 하는 것 같음/복지 말고 학생, 어린애들, 젊은이들 일자리 등에 신경써야/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 - 보편적 복지를 오래 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에 찬성/그러나, 선별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사람 있음.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함 [일을 못하게 하는 복지제도	같음/나는 의료비로 잘 사용함/재난지원금의 의미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름 -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싸움과 갈등이 생김. - 주는 것은 좋은데 국가 부도가 걱정됨./국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금 모으기 운동할 때 금을 냈는데 정치인들 하는거 보면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함 [복지]옛날에는 굶어죽는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 -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함/복지는 늘어나야 함(남_나) - 너무 퍼주는 식의 복지 반대. 국가 빚이 많은 것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됨. 복지로 망한 유럽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어려움 사람에게 세금이 쓰이는 것에는 찬성.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원망스러울 때가 있음/진짜 필요한 곳을 찾아 써야 세금 낭비 없음. 국가 부채에 관한 뉴스에 걱정이됨. 국가 지도자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국가 부채 = 국가부도 = IMF -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함. 삶에 도움이 많이 됨. 노인들을 위한 제도에 만족함/노인들은 대부분

			청년에만 너무 집중됨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	변화필요] [청년정책- 주거, 일자리정책] 청년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의료정책] 외국도 부러워하는 체계인데, 여기저기 다 퍼주다보면 지속될 수 있을까 걱정됨/무차별 지원에 반대함 [탁생행정이 아닌 현장의 필요한 정책이 좋은 정책] [부동산정책] 나쁜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임/강남에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치졸한 정책이라고 생각함/“있는 새끼 없는 새끼” 가르는 것 같음/“강남에 나 같은 집 한 채 있는게 무슨 죄인이야” - 서민들도 부동산 정책에 반감 가짐 - [옳지 않은 정책, 전문가가 빠진 정책] [국가부채걱정] 무분별한 복지지출(예,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에 걱정이 많음/우리 아들,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 걱정됨 [북한관계]큰아버지가 왕왕 짖는 어린 애를 보듬는 꼴임 [외교정책] 돈을 많이 썼는데 여전히 북한관계 걱정되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과의 단절이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세금] 세금이 많아졌음/“생활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에 만족함/나라도 살림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 더 바라면 안된다고 생각함/도움을 바라지 말고 뭐든 찾아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노숙인 등은 본인이 문제임/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내 노동으로 일하라“ [건강보험]코로나19를 겪으면서,(전에는 몰랐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위해 잘 만든 제도라는 것을 확실히 느낌 - 나이 들면 돈 벌이가 없어 돈 나가는 것이 신경씀임. 옛날에는 수술하면 집을 팔아야했음. 지금은 본인 부담이 많이 줄었음/실손보험이 있어 안심이 됨/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높음 - 건강보험,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음 [청년정책]청년실업수당 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교육에 힘들 쓰는 게 바람직함/돈으로 주는 것은 잘못 쓰일 수 있음/돈보다는 직업학교를 세우고 수업을 시켜 취업을 돕는게 나음 - 일 안하는 젊은이들에게 대한 현금 지원에 반대함 [남녀차별/여성존중] 최근 박원순 시장 성폭행 사건을 보면서, 끝까지 다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음. 여성을 소유물로 보고 있음. 본인 시대

				직접적으로 닿는 건 없는거 같은데 세금이 많아지던데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 공무원수가 너무 많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많다고 생각함. 세금만 축낸다고 생각 [자세히는 모름] “그 자세히 모르니까 잘 뭐라고 확 말은 못하겠는데 ~~~”/“자세히는 안 알아도 지금 하는게 옳은 건가 싶어요. 국채 발행이나 이런게 [낙인을 줄이는 정책] 임대아파트 이름을 행복, 보람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때는 여성들이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 지금보다 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본인은 남녀평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 자녀를 낳고서(딸 세 명) 남편이 칠거지악에 대해 언뜻 이야기하는 것을 들음. 화가 많이 났음. 싸운 뒤 남편에게 사과받음 [부동산정책]경제는 시장에 맡겨야하고 국가가 관여하면 더 망가짐/부정부패가 심한 상위, 고위층, 지식인들이 관여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렸음/수요와 공급을 다시 잡기 위해 제대로 해결(“수술을 해야”)해야함 제대로 못 하고 있음. 세금 걷는다고 해서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봄. 공급을 늘리는 쪽이 낫다고 생각함(하남시 주변 야산 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등) 두더지 게임 하는 듯함(오르는 곳을 툭툭 치는 듯함)/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일자리] 코로나 방역 등의 일자리가 늘었다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증가는 아님 =〉 보여주기식 정책 [세금] 부동산정책만 봐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인가 생각이 듦/세금은 일반 국민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침/잘 쓰이면 세금 많이

					걷어도 좋음 -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어려움 사람에게 세금이 쓰이는 것에는 찬성.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원망스러울 때가 있음 [치안], [사회적 안전망], [교통] 자랑스러움(다)/국민 화합만 잘 되면 더 좋겠음
국가- 국민 영향	영향을 많이 미침(전부) 최소한 삶의 질에는 영향 개인의 삶에 절반 정도 영향 가능 고용: 일자리, 공정성, 면접비 교통 등 실생활에 영향 양극화(국민들이 분열되는 느낌) 정책에 따라 생활방식 바뀜 긍정과 부정 공존 전에 비해 안정감을 느낌 연령에 맞는 정책이 많아진 것에 만족 국가는 불안감을 주지 않아야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함 사회적 분위기가 주는 영향이 큼(발달과업, 취업, 결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영향(괜찮을 때는 영향이 적음) 직접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큼 국가 업무는 큰 영향, 큰 영향을 미침, 영향을 많이 받음(부동산 정책), 국민의 삶을 흔듦.	국가 지원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국가 영향이 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음 국가가 잘돼야 모두가 잘됨 “이게 국가냐”고 생각함/국민을 보듬지 못한다고 생각함 무료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음 국가가 국민 삶의 가까이에 존재함 복지, 부동산, 청년 일자리 정책을 보면 국가의 영향이 매우 중요함	국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지도자의 의식수준이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줌/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함 국가가 없으면 행복의 의미 없음/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교통, 의료,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음) 국가는 질서를 만듦./국가가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음
국민- 국가 영향		영향이 큼. 부분마다 영향력 정도가 다름.			
국가- 본인 영향	40% 정도의 영향/본인의 행복과는 거리가 있음 실생활 도움(교통비 할인 등) 안정적인 삶 약간의 기회 누리고 있음에도 당연시되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국가 정책에 불만족 없으면 행복 점수 8점 본인 인생에 큰 영향, 작은 부분까지 국가 정책이 밀접하다고 느낌, 대학 재학 중 많이 느낌. 행복을 깎고 있음,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걸림돌	국가의 지원은 필요 없고 정치를 잘해서 근심을 없애는게 중요/국가 도움이 대상이 아님 [연금: 내돈내받: 연금도 내 돈 내가 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국가와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함	국가는 절대적인 존재/국가가 부도나면 개인 소득이 아무 의미 없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은 다가가기 어려움 성범죄 사건은 국가가 강력히 처벌해야 함(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 처벌 수위가 낮음) 잘못된 정책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애정이 높지 않아 국가 탓도 하지 않음	국민 청원 직접 작성, 보건복지부에 전화, 동사무소에서 해결. 피해(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도 도움(국가지원사업 혜택)도 많이 받았음.	국가, 정부기관, 장관, 국회의원들 국민을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음/대통령만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게 보여서 참고 있음 국가는 스트레스만 주고 있음 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해짐. 내 자식 뿐 아니라 내 자식 친구도 잘돼야 서로가 잘된다고 생각함 직접 체험해서 나쁘다고 생각한 것은 없음 생각해보니 국가의 영향이 있음. 군인연금 지급에 감사함 국가는 내 행복에 해 준 것이 없음	
	알고 있는 국가지원 청년정책	교통비, 면접비 지원 심리상담지원은 부가적으로 비용이 들까봐 보류중임 청년수당은 알고 있으나 신청이 복잡하고 이중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신청 안함.			
	국가의 역할		국민 삶의 행복에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 경제/시장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나서는 것. 기초수급, 기초노령연금 등 정책 실시	유연하고 일관된 정책 필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애쓴 사람(예, 노인)들에 대한 생계보장 필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국가가 어려운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함. 그것이 국가가 할 일 [자유민주주의국가] 자유경제가 기본임. 자유경제를 통제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김
과거 패턴	과거 경험		학창시절 보통 수준의 가정 대인관계 좋았음	평탄하게 굴곡없이 살아온 보통사람의 삶/이것도 복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유급함/군 제대 후

			학창시절 즐거웠음 가족이 힘들었음 아버지와 거리감 단순한 삶,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음. 굴곡이 많지 않은 삶. 안전한 선택. 인간관계가 좁은 편 여행도 잘 안 다님	복이라고 생각함	취업이 어려웠음/ 해외로 눈을 돌렸고 기회가 닿아 미국, 일본 등에서 일을 함 집안 형편이 어려워 먹을 것이 없었음/“먹는 걸 제대로 못 먹는데”/도시락을 제대로 못 싸서 학교 다님/아버지는 장사로 돈을 다 말아먹고 엄마가 죽도록 고생해서 자식들 키웠음 ==〉 대학 교육 받음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아(지하방 생활)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음 결혼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결혼에 대한 생각 없이 결혼함/술문제가 많은 남편과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옴/이혼을 하려 법원에 간 적도 있지만 애들도 있고 그냥 사는 건줄 알고 살아냄/애들을 생각하면,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음/(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너무 힘들게 했음.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음/우울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오래 다녔음
	위기 사건	없음 2명 출생 후 수술, 부친 사망, 학업 스트레스, 따돌림, 군복무 중 트러블, 집안의 어려움, 학생이 아니라는 스트레스, 불확실성, 통금 시간	사춘기 교통사고 유산 경험 부모 은퇴 후 경제력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셔 학창시절 불행하다고 느낌 고1때 아버지한테 억울하게 맞고 자실 시도 경험 있음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음/30대 중반 사업 부도/고등학교 때 공과금을 못낼 정도로 어려웠음/고등학교 시절을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을 정도	위기 없었음/결혼하고 나서 부도도 없었고/큰 리스크없어 엄한 아버지- 모두 제사에 참여해야 했음/그렇지 않으면 맞음/운영하던 여행사 파산 어렸을 적,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것저것 하고싶은 것이 많음에도 할 수 없었음/중학교 졸업을 못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에

				죽고 싶다=불행, 이런 적이 없었음 한차례 자살 시도(김정숙)(엄마가 하고 싶은 공부, 대학 진학을 막았을 때), 술 마시고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음 딸 자녀(손녀) 양육, 5년째 한계에 부딪침.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했음. 결국 8년 동안 손녀를 돌봄	입학함 시댁, 친정 등 제3자 관계로 부부 싸움이 생김/잘못된 주식 투자 정보로 손해를 봄/부동산의 희비(아파트를 일찍 팔아서 손해, 상가건물을 잘못 구매해서 손해 등
	위기 경험	학업 스트레스(열심히 해도 안됨) 친구들의 괴롭힘 고교시절 학업, 대학진학 스트레스 가족 내 갈등: 물리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갈등상황을 보지 않게 됨 대학: 인간관계 어려움. 의견 차이로 불편한 상황이 되어 많이 힘들었음, 아무 것도 못 한다는 걸 느끼고 속상함 군대생활 중 인간관계 복학 후 전과하고 인간관계 어려움 졸업 후 현재까지 취업으로 인해 불행 가족관계 문제 따돌림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형제 관계 라이벌 대학원 내 경쟁, 스트레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다양한 결핍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 이단에 빠질 뻔한 경험 전역 후 미래에 대한 고민 중학교 때 집단따돌림 당함-같은 처지 친구가 옆에 있어줘서 의지가 되고 회복됨. 사춘기에 아버지와 단둘이 해외 거주-적응 힘듦, 인종차별, 감정적 어려움 결혼 후 초기가 가장 불행-고부관계. 남편의 대처. 이혼 생각.		
	위기경험 대처	버팀 친구와 함께 다님 친구에게 이야기함	유산: 부부 서로 위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노력함,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위로를 얻음	스스로 변화에 대비함 가장 어려울 때 천운 같은 사람을 만남/어머니의 말씀과 사랑,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남

		SNS에 이야기를 씀		눈물으로 버텨낼 수 있었음 “나 정도의 삶이면 괜찮았어”라고 생각함/스스로 만족하는 성향이 있음) 생긴 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행복함 경제력, 가장을 잘 따름 등으로 굴곡없는 삶이 가능했다고 생각함.	혼자서 버텨냄/다른 방법이 없음
	행복했던 시기	아버지 건강이 괜찮았을 때			
	도움 받은 경험	정신건강증진센터 SNS에 본인 이야기를 쓰거나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은 동네 형편이 비슷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눔 친구들의 위로 오빠가 메워줌 지켜봐 준 아버지 주변인들이 도와줌	시집가기 전까지 누나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음	
	받지 못한 것들	자산이 있어서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함 부모, 교사의 위로나 지지 타인의 위로	어릴 때 부모와 시간을 보내지 못함 엄마의 관심	당시에는 나라가 어려워 지원이 별로 없었음 생활비 지원이 있었다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음	
미래 전망	미래를 위한 준비	전공과 다른 분야로 취업 준비 수도권 취업 희망 공공기관 교육 수강 운동 주택청약 사보험 크게 하는 것이 없음 재테크 고민 비혼주의라서 큰 고민이 없음	큰 준비 없음 자녀: 자녀 명의 저축, 자녀보험, 직업 안정성에 초점, 진학 계획, 자녀에게 유망한 분야를 찾아 설계해 주고 싶음, 본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끌어 줄 생각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없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함. 공부보다 바르게 자라기를 바람.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서 스스로 깨닫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음.	[자녀의 미래 준비] 자녀의 결혼 후, 집 장만해줄 생각을 함/할 수 있는한 최대한 해주려고 함 자식을 노후라고 생각하지 않음. “내 노후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함 [부모세대] 낀 세대로 불만 있음. 부양만 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 연금이 죽을 때 까지 나오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있어서, 사치스럽게 살지 않기 때문에,	[도전]재활승마 쪽 일을 해보려고 함 [죽음 준비, 대비] 사후 재산처분 계획을 자녀들에게 알림/[이른 준비] 항상 먼 미래를 준비해왔음 [건강관리 열심히 함]

			부부: 의료보험, 실비보험. 배우자 연금. 경제적 준비는 생각만큼 하지 못함. 퇴직 후 하게 될 제2의 직업을 고려중. 가족: 정기예금. 현재 집에서 나오는 것(임대료). 저축연금, 주식계좌	노후 준비를 크게 안함	
	미래에 대한 생각	비혼주의 자유롭게 살고 싶음 향후 10년은 재미있을 것 같음 불안함 자신은 더 성숙해지고 초연해 질 수 있을 것 같음. 결국 남는 것은 자신. 국가 자체는 건재할 것 같음 취업은 막막하고 불확실함	해외 파견 준비 이직 고려 변두리 전원주택에서 노후생활 미래의 손주 생각 자녀 초등학교 즈음 유학 생각 아내 명퇴 예정 직장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고민 현재가 완벽하고 행복하지만 미래는 행복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함. 자녀의 미래에 대한 우려 삶은 아이에게 맞춰질 것 같음 국가의 복지는 현재 수준 유지될 듯.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세금 인상, 인구 감소, 주택공급 증가 등 예상.	향후 5-10년 여행에 투자하려고 함 10년만 잘 버티면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줄기 때문에 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함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삶의 가치인데, 이게 현재 공허함/신앙적인 부분으로 채울까 생각함/부인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들의 미래가 걱정됨. 국민연금 고갈되면 우리 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됨	[국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함부로 못함/다툼은 있겠지만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미래는 굉장히 밝을것임 - 이번 정부가 잘했으면 바람. 한번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고 다음에도 정권을 잡기를 바람 - 국민들이 머리가 좋고 해서 잘 될거라고 생각. 통일이 되면 괜찮을거라 생각. 국운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함. 코로나 19로 국격이 높아졌음 - 경제, 남북관계 등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걱정 안하려고 함 [신뢰] 기다림이 필요함/변화에는 시간이 필요/신뢰 필요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이 좀 마음 고생 안하고 편하게 삶을 살았으면 그 생각은 있어요” 건강이 (행복) 변수. 한 해 한해가 다름

					[자녀 결혼] 본인과 남편이 죽기 전에 짝을 만나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람
	미래에 대한 전망	일을 통해 재정 문제 해결 코로나 이후 여행 인간의 존엄성, 인간미가 사라질 것 같음 삭막해진, 개인화된 지역사회 양극화 심화 자신과 가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국가는 성장 가능	낙관적-인터넷, 휴대전화 인프라가 좋음 유지될 것 같음 비관적-개인의 계층 이동 기회가 적어짐	건강이 변수가 될 것임 [국가] 우리나라 미래는 밝은 것임/이번 정부 때 적폐가 많이 밝혀졌고 밝혀졌으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함/남북관계도 잘 될거라 믿고 싶고/트럼프 임기 중 종전선언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함 - 미래가 밝지는 않지만, 국민 의식이 좋으니 희망은 있다고 생각	다음에 정권을 한 번 더 잡으면 세계에서 부러워할 나라가 되지 않을까 확신함
	미래 불안	취업 불안 불확실함 막막함 부모와 자신의 노후 걱정 결혼 더 힘들어질까봐 불안 형제가 없고 혼자라는 불안 재정 취업하면 개인 시간(여행)을 갖지 못한다는 부담감 감염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늘어날 것 같음	좁아지는 통로, 기회가 적어짐, 아이에게 제공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음 부모님 건강, 재정 걱정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유지만 해도 감사 본인과 배우자 건강 행복할 일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함 배우자 해외발령 가능성-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음. 본인 재취업의 어려움	건강이 크게 염려됨: 여동생이 작년에 사망 자녀의 미래/어찌 살아갈지 걱정됨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고 생각함 [높은 국가 부채비율] 불안함/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함 변화가 적은 삶을 바람/정치 등이 너무 시끄러움 [국가] 현 정부의 경제 무능력(국가 부채가 너무 많음,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될 것임)으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음/선심성, 보여주기식 정책 많음/전문가를 등용하지 않음/도덕적으로 무능함	[개인]전혀 없음/“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건강] 한 해 한 해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낌 - 건강이 가장 염려됨/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없다면 건강만 문제가 되는 상황/건강에만 문제가 없으면 좋겠음
	불안을	기본소득 필요	운동	부자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상황에 닥치면 견뎌내고, 뚫고

	줄이려면	증세가 나음 개인별 맞춤형 진단 정보 제공 본인과 가족은 열심히 해야 함 / 본인은 절약, 부모는 간섭 없애고 용돈 지급 / 자격증 공부, 어학 공부, 취업 아카데미. 부모는 스트레스 주지 않기 교육: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필요, 수능에서 인문학으로 초점 이동,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 미디어: 수준 향상, 타인 존중 국가는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야 함 지역사회는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야 함	섭식 조절 자격증 공부 노후 대비-안정적 직장에서 꾸준히 일함.	부자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함/사회 환원이 필요함/증간은 낼 수 있으면 냄	나갈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함. 닥치지 않은 걱정과 불안을 미리 하고 싶진 않음 [국가]경제적, 국방 등 자력으로 튼튼해져야 함
	미래를 위한 국가의 역할	걱정거리를 덜어줌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 국방 지원 중소기업 살리기 K-pop 지원 원만한 국제관계, 외교적 독립 확장 아닌 수정 새로운 패러다임 전반적으로 유연한 조정역할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 사회적 인식 변화 국민이 안정감을 갖게 해야 함 삶의 평균 수준 향상 다양한 정책발전 취업, 복지제도를 실용적으로 지원 범죄 강력처벌	적극적 개입-유럽을 모델로 생각함 보육의 질 향상 돌봄 지원 강화 교육 개혁, 진로적성 탐색 기간 제공, 미래 세대에 많은 투자 공정한 경쟁, 능력에 맞는 기회 제공 양성평등-남성 배려 청년: 청년 실업 해결, 학자금 대출, 공부하기 좋은 여건 노인복지 확대 갑질 문화 없애기 합리적 규제 확실한 비전 설정 주거 정책 예술 관련 사업 지원	여기저기 적폐를 끊어야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국가/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를 바람 박정희 시대에 대한 로망이 있음/국가에 어른이 없어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건강 보장, 기본적인 생활 보장(생활소득 보장), 주거 보장이 중요	[철학이 있는 지도자] [인문학 수준 향상 필요] [청년지원] [남녀평등-여성지원] [남북통일] [정치]-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정치

		기본소득 보장 국가 지원-소외계층 중심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함 외교적 독립 예측 가능성 상향-안정된 환경 마련		
국제 비교	국제 비교	전반 정치: 높음 / 중 경제: 높음 / 상 문화: 높음 / 상 사회: 중하 코로나 사태 계기로 지위 향상, 경제 수준은 꾸준히 향상, 평균적으로 높은 나라, 사회문화적 수준은 부족,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균형이 중요함, 문화 산업이 중요-성장 중인 컨텐츠 사업들을 더 신경 써야 함	사회문화: 높음, 많이 올라옴. 경제: 높음, 좋게 평가하지 않음 정치: 경제 수준에 못 미침. 견제와 균형 필요 국제: 경제 수준에 못 미침, 코로나 계기로 높아짐. 한국의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코로나 이전 5-6점, 현재 8-9점. 자랑스러움.	[건강보호정책]세계적으로 잘하는 제도	코로나 뿐 아니라 우니나라의 모든 면에서 G7에 들어갈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음/야당의 행태는 바뀌어야 함 선진국 턱 밑에 있다고 생각함. 국민의식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함/중진국은 벗어났다고 봄 경제대국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북 놈들이 망치면 안됨/외교에서도 전문가 필요/낙하산 박대/북한에 끌려다니면 안됨. 무조건 퍼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 할 말은 해야 함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함/중간 위라고 생각
정치적 관점	선거에 대한 생각	투표는 꼭 하는 편 (전부) 선거 팜플렛을 봄, 무효표로 만들지 말자는 생각, 주어진 권력 행사, 선거를 해야 떳떳해짐, 투표율이 높아야 20대를 위한 정책이 나옴,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함	늘 투표함 2020년 총선만 예외-본인이 투표하지 않아도 결과가 예상되고,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없었음 투료를 하는 쪽이 정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쪽이 의석이 적어 투표함 권리 주장-원하는 사람이 안 되더라도 국민으로서 주권이라 생각함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거에 참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음/광주에서 찍은 비디오를 본 후, 광주 사람들의 “한”을 이해하게 되었음 100% 국민의 의무.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음
	동기				

	정치적 성향	진보 중도: 상황에 따라 판단함	좌편향 진보 중도-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름 보수-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정하는 편	보수쪽에 관심이 있음	보수보다는 진보 완전한 진보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보수 쪽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 의식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함/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벌써 선진국이 됐을거라고 생각함/[적폐] 청산 중요
추가 질문	n번방 사건에 대한 관점	강력한 법 집행 필요 젠더 문제보다는 핵심 문제를 제재해야 함 적절한 개입 수준임	국가가 개입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정책 필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함, 본보기식의 강력한 처벌 필요. 딸을 둔 입장에서 걱정, 스트레스는 아님	안전한 삶이 가장 중요함/ N번방 사건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함/“인권도 인간답게 사는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것”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개입		적정하며 더 해야 한다고 생각 정부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함 걸림돌-무언가 하려고 하면 정책이 막는 느낌		
	복지에 대한 생각	나쁘지는 않지만 부족함, 더 잘 할 수 있음		가난한 사람, 노인, 장애인을 보살펴주는 것이 복지가난한 사람, 노인, 장애인을 보살펴주는 것이 복지	

부록7.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질문지

1. 개인적 수준 팀

인터뷰 질문 (한국어)

□ 어떤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어떤 종류의 것들이 당신을 화나게하거나 좌절시킵니까?

□ 당신이 말해준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행복에 있어서 당신의 삶에서 ____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에서 얼마나 ____ 를 가지고(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가지고(누리고) 있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상 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느낍니까? 건강, 가족, 사회적 지위, 직업, 혹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 당신의 직업, 일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소득, 사회적 지위 또는 다른 어떤 금액 때문입니까? 당신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스스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의 일과 삶이 얼마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력, 가족 및 이동성 측면에서 특정한 삶의 모습을 선택할 때,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끼십니까? 만약 그러한 삶의 선택에 있어 자유가 제약된다고 느껴진다면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삶의 선택에 있어 당신이

결정을 내릴 자유가 꽤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에 관하여 당신의 경험에 기초한 사례를 들어 줄 수 있습니까?

□ 당신의 생각 혹은 의견이 타인, 지역 사회 혹은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대중에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웃, 지역 사회, 주 또는 국가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연결성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이웃, 지역 사회, 주 또는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무엇으로부터 받습니까? 소셜 미디어, 지역 사회 참여, 또는 친구 및 가족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혹은 그 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입니까?

□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지지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정부가 그러한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은 이곳의 사회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아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국가를 고려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를 고민해본 적이 없다면, 이곳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당신 세대의 행복을 다른 세대의 행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의 판단, 평가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다면 왜,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 년 후에 당신의 삶과 사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열린 가능성을 두고 도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성취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까?

Interview Questions (English)

□ What sort of things in your life make you happy? What sort of things make you angry or frustrated?

□ After all you've told me, it seems that ____ is most important in your life in terms of happiness. Can you elaborate it? How much ____ do you think you have in your life? If it is much, can you think of anything that made it possible? If it is not much, why not?

□ What kinds of stress do you get in daily lives? Is it about your health, family, social position, career, or what?

□ Are you happy with your career? If so, is it because of amount of your income, social position or what else? Where do you position yourself in terms of your standard of living? Do you think it is well enough to support your life?

□ How balanced do you think your work and life are?

□ How free do you think you are to choose to a particular kind of life over another in terms of career, family, and mobilities? If such freedom is constrained in your life, what do you think makes the limit? If you think that you are quite free to make decisions, what you do think makes it possible? Can you take examples of your experiences in both cases?

□ How much do you think your thoughts/opinions could affect other people, your community or country? Do you feel eligible to address your opinion in public?

□ How much do you feel connected to your neighborhood, community, state or your country? How much do you think the connectivity matters to your life? What makes you feel connected, social media, community involvement, or face-to-face meetings with friends and family, or what else?

□ How much do you feel secure, protected or supported? How do you think the government influences such security, or do you count personal efforts more important? What could make it different?

□ Have you ever considered moving to another country because you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ocial system here? If so, to which country and why? If you have not thought about moving, what do you like about the social system here?

□ How would you compare your generation's happiness with other ones? What would make the differences if any?

□ How much do you care about other people's judgements? Do you they affect your happiness? If so, how much, and why? If not, why not?

□ Can you picture your life or your society after ten years? How do they look? How much do you think they're predictable? Would you be happy because they are predictable? or would you be happy even if they are not predictable but you can challenge and achieve more in open possibilities?

Preguntas de la entrevista (Español)

□ ¿Cuáles son las cosas en su vida que le hacen feliz?. ¿Cuáles son las cosas en su vida que le hacen enojar o frustrarse?

□ Según lo que dijo Ud., parece que ___ es lo más importante para la felicidad en su vida . ¿Cuál es lo más importante para su felicidad? ¿Podría explicarnos más detalladamente por qué piensa eso? ¿Cuánto cree que Ud. tiene ____ en su vida?

□ ¿Qué tipo de estrés tiene en su vida cotidiana? ¿De qué se trata? ¿Es de su salud, familia, posición social, carrera u otros?

□ ¿Está contento(a) con su carrera / trabajo? ¿Es por su ingreso, posición social o qué más? Considerando su nivel de vida, ¿en qué posición económica está? ¿Cree que es suficiente para apoyar su vida?

□ ¿Cree que usted mantiene el equilibrio entre el trabajo y su vida personal?

□ ¿Qué tanto cree que Ud. tiene la libertad para tomar diferentes decisiones en su vida en general? ¿Cuánta libertad tiene para tomar decisiones con respecto a su carrera o trabajo, su familia y la movilidad? Si Ud. se siente la limitación en tomar decisiones, ¿qué tipo de limitación hay? ¿Qué cree que hace posible que Ud. tenga tanta libertad en su vida? Si usted se siente que tiene tanta libertad en su vida, y eso ¿por qué? ¿Puede contarnos su experiencia sobre los dos casos?

□ ¿Qué tanto cree que sus pensamientos / opiniones pueden afectar a otras personas, su comunidad o su país? ¿Se siente libre para expresar

su opinión en público?

□ ¿Qué tanto se siente conectado con su familia, amigos, vecinos, comunidad, y su país? ¿Qué tanto cree que cada institución es importante para su vida? ¿Cuándo se siente conectado con cada institución? ¿Cómo se comunica o conecta con ellos? ¿Redes sociales, participación comunitaria o reuniones cara a cara con amigos y familiares, ¿o qué más?

□ ¿Cuánto se siente Ud. seguro, protegido o apoyado? ¿Piensa que el gobierno influye en dicha seguridad, o los esfuerzos personales son más importantes? ¿Cuál es la diferencia entre ellos?

□ ¿Alguna vez ha considerado mudarse a otro país porque no estaba satisfecho con el sistema social de ahí? Si es así, ¿a qué país y por qué? Si no ha pensado en mudarse, ¿qué le gusta del sistema social de ahí?

□ ¿Cómo compararía la felicidad de su generación con otras? ¿Qué haría las diferencias si hay alguna?

□ ¿Qué tanto le importan los juicios de otros? ¿Ellos afectan su felicidad? Si es así, ¿cuánto y por qué? ¿Si no, por qué no?

□ ¿Puede imaginar su vida en diez años? ¿Cómo se ve? ¿Qué tanto cree que es predecible? Entre una situación en donde el futuro pudiera ser predecible o impredecible, ¿cuál opción le parecería más feliz y por qué?

2. 사회문화적 수준 팀

인터뷰 질문 (한국어)

□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 무엇이 당신을 화나거나 좌절시킵니까?

□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_____은(는)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나요?

□ 일상 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느낍니까? 건강, 가족, 사회적 지위, 직업, 혹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 당신의 직업, 일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소득의 액수 혹은 사회적 때문인가요? 혹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당신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계층)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의 일과 삶이 얼마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당신은 일과 당신의 사생활에 균형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합니까?

□ 삶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가족을 구성하고 혹은 가족 구성에 변화를 주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예컨대 배우자를 고르거나, 아이를 입양하거나, 혹은 이혼을 결정할 때 자유

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스스로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자유가 가능한가요? 만약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이 자유를 제한하는지 설명해주세요.

□ 당신의 생각 혹은 의견이 타인, 지역 사회 혹은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대중에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은 당신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사회, 혹은 국가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당신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사회, 또는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무엇으로부터 받습니까? 소셜 미디어, 지역 사회 참여, 또는 친구 및 가족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혹은 그 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 입니까?

□ 경제적 위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당신은 가족, 친구, 이웃, 정부관료 중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당신은 가족, 친구, 이웃, 정부관료 중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당신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가족, 친구, 이웃, 정부관료 중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당신은 이곳의 사회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아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국가를 고려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를 고민해본 적이 없다면, 이곳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당신 세대의 행복을 다른 세대의 행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의 판단, 평가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다면 왜,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 년 후에 당신의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이 가능한 상황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중 어느 상황이 더 행복할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Interview Questions (English)

□ What sort of things in your life make you happy?

□ What sort of things make you angry or frustrated?

□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r happiness? Could you please tell us more about why you think so? How much do you think you have ____ in your life?

□ What kinds of stress do you get in daily lives? Is it about your health, family, social position, career, or what?

□ Are you happy with your career/job? Could you tell us the reason for your answer? Is it because of amount of your income, social position or what else?

□ Where do you evaluate your economic status in terms of your standard of living? Do you think it is well enough to support your life?

□ How balanced do you think your work and life are? In other words, do you think you spend balanced time both for work as well as your personal life? If so, how could it be possible? If not, why do you think so?

□ How much do you think you have freedom make choices in your life in general? More specifically, how much freedom do you have to make choices regarding your career/job? How much freedom do you have in creating/changing your family such as in choosing a partner or in adopting a child or in having a divorce? What do you think makes it

possible for you to have such freedom in your life? If you feel that you do not have such freedom in your life, why?

□ How much do you think your thoughts/opinions could affect other people, your community or country? Do you feel eligible to address your opinion in public?

□ How much do you feel connected to your family, friends, neighborhood, community, state or your country? How much do you think each institution matters to your life? When do you feel connected to each institution? How do you communicate/connect with them? Social media, community involvement, or face-to-face meetings with friends and family, or what else?

□ In case of having an economic crisis or trouble, to whom would you like to ask support? Family members, friends, neighbors or government officials? How do you think they could help you?

□ In case of becoming a victim of crime, who would you like to rely on? Family members, friends, neighbors, or police/government? How do you think they could help you?

□ In case of personal crisis/emotional crisis such as feeling depressed, to whom would you like to ask for help? Family members, friends, neighbors or government officials? How do you think they could help you?

□ Have you ever considered moving to another country because you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ocial system here? If so, to which country and why? If you have not thought about moving, what do you like about the social system here?

□ How would you compare your generation's happiness with other ones? What would make the differences if any?

□ How much do you care about other people's judgements? Do they affect your happiness? If so, how much, and why? If not, why not?

□ Can you picture your life in ten years? How do they look? How much do you think they're predictable? Would you be happy because they are predictable? or would you be happy even if they are not predictable? Why do you think so?

Preguntas de la entrevista (Español)

☐ ¿Cuáles son las cosas en su vida que le hacen feliz?

☐ ¿Cuáles son las cosas en su vida que le hacen enojar o frustrarse?

☐ ¿Cuál es lo más importante para su felicidad? ¿Podría explicarnos más detalladamente por qué piensa eso? ¿Cuánto cree que Ud. tiene ____ en su vida?

☐ ¿Qué tipo de estrés tiene en su vida cotidiana? ¿De qué se trata? ¿Es de su salud, familia, posición social, carrera o otros?

☐ ¿Está contento(a) con su carrera / trabajo? ¿Podría decirnos la razón de su respuesta? ¿Es por su ingreso, posición social o qué más?

☐ Considerando su nivel de vida, ¿en qué posición económica está? ¿Cree que es suficiente para apoyar su vida?

☐ ¿Cree que usted mantiene el equilibrio entre el trabajo y su vida personal? En otras palabras, ¿cree que Ud. usa su tiempo tanto para el trabajo como para su vida personal? Si es así, ¿cómo podría hacerlo? Si no, ¿por qué es imposible para Ud.?

☐ ¿Qué tanto cree que Ud. tiene la libertad para tomar diferentes decisiones en su vida en general? Más específicamente, ¿cuánta libertad tiene para tomar decisiones con respecto a su carrera o trabajo? ¿Cuánta libertad tiene para crear o cambiar su familia, por ejemplo, Ud. puede elegir una pareja, adoptar un hijo o divorciarse? ¿Qué cree que hace posible que Ud. tenga tanta libertad en su vida? Si usted se siente

que no tiene tanta libertad en su vida, y eso ¿por qué?

□ ¿Qué tanto cree que sus pensamientos / opiniónes pueden afectar a otras personas, su comunidad o su país? ¿Se siente libre para expresar su opinión en público?

□ ¿Qué tanto se siente conectado con su familia, amigos, vecinos, comunidad, y su país? ¿Qué tanto cree que cada institución es importante para su vida? ¿Cuándo se siente conectado con cada institución? ¿Cómo se comunica o conecta con ellos? ¿Redes sociales, participación comunitaria o reuniones cara a cara con amigos y familiares, ¿o qué más?

□ Cuando tiene una crisis o problema económico, ¿a quién le gustaría pedir ayuda? ¿Sus familiares, amigos, vecinos o funcionarios del gobierno? ¿Cómo piensa que ellos podrían ayudarle?

□ Si usted llegara a convertirse en víctima de algún crimen, ¿a quién le pediría ayuda? ¿A su familia, amigos, vecinos o a funcionarios del gobierno? ¿Cómo cree que ellos podrían ayudarle?

□ En caso de una crisis personal o de una crisis emocional, como sentirse deprimido(a), ¿a quién le gustaría pedir ayuda? ¿Familiares, amigos, vecinos o funcionarios del gobierno? ¿De qué manera cree que ellos podrían ayudarle?

□ ¿Alguna vez ha considerado mudarse a otro país porque no estaba satisfecho con el sistema social de ahí? Si es así, ¿a qué país y por qué? Si no ha pensado en mudarse, ¿qué le gusta del sistema social de ahí?

□ ¿Cómo compararía la felicidad de su generación con otras? ¿Qué haría

las diferencias si hay alguna?

□ ¿Qué tanto le importan los juicios de otros? ¿Ellos afectan su felicidad? Si es así, ¿cuánto y por qué? ¿Si no, por qué no?

□ ¿Puede imaginar su vida en diez años? ¿Cómo se ve? ¿Qué tanto cree que es predecible? Entre una situación en donde el futuro pudiera ser predecible o impredecible, ¿cuál opción le parecería más feliz y por qué?

부록8.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동의서

IRB No. 2009/001-001 유효기간: 2021년 08월 30일

Instructions and Agreement for Research Participants

Title of Research : Qualitative Research 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Latin American Countries
Research Administrator : Prof. Youngsub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Economics)

This study is a study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You are ask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because you are a young person or an elderly person living in Mexico and Costa Rica who is scheduled to be interviewed in this study. A researcher, named Youngsub Chun(+82-(0)2-880-6382)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who performs this research will explain the study to you. This study will be conducted only for those who voluntarily participate, and it is important for you to understand why this study is carried out before deciding to participate and what the research is related to. Please read the following carefully and let him know if you would participate, and if necessary, discuss it with your family or friends. If you have any questions, the researcher will explain in detail.

1. Why is this study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find out what aspects of life are critical in one's happiness and (2) to draw out implications why people in Korea despite economic prosperity feel unhappiness.

2. How many people participate?
Approximately 32 people from 2 countries (Mexico and Costa Rica) will participate.

3. What happens if I participate in the study?
In this study, individual interviews will be held one to one for 2 hours per meeting. One interview per participant are scheduled to be conducted. The conversation will be in Spanish or English. In case if you feel uncomfortable having conversation, an interpreter who can translate your words may be existent during the interview. If additional interviews are required, they will proceed with proper procedures under your agreement.

If you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e following process will proceed.
You will be asked questions about what in your life makes you happy or unhappy which are prepared in advance. You will be asked questions such as about your career, family and personal relationship, important life choices and your achievements or your involvement in local community and et cetera. You may be asked additional follow-up questions if there are more that could contribute to this research. The interview will be conducted at the location you want.

4. How long is the interview?
It will take about 2 hour per interview.

5. Can I stop the interview?
Yes, you can leave at any time without any disadvantages during your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If you want to stop participating in the study, please tell the researcher or research administrator immediately. In this case, the collected data will be used as research material with consent. However, if you do not agree with it, it will be discarded immediately.

6. Are there any side effects or risks?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no physical or material side effects because it i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reflected in anonymously, so there is no psychological risk factor. However, if the researcher's question causes unpleasant emotions, please contact the researcher immediately.

7. Do participants benefit from participating in this study?
There is no direct benefit for the participants. Though,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contribute to more deepened understanding of diverse aspects of life happiness.

8. If I do not participate in this study, is it disadvantageous?
You are f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re is no disadvantage to you if you do not participate in this study.

9. Is the confidentiality of all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d?
Professor Youngsub Chun(+82-(0)2-880-6382)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ill be in charge of confidentiality. Personal information that this research collects is: your name, age, sex, and the district you are currently living. Such information will only be reached by involved researchers (Youngsub Chun, Seok Man Kwon, Seokho Kim, Yunjoo Park, Haeran Shin, Bong Joo Lee, Suhong Chae, Sok Chul Hong, Seojeong Gu, Minji Son, Cassandra Alexandrina Gutierrez Rosales, Seungwoo Yu, Sujin Lee), and stored and locked in the research administrator(Youngsub Chun)'s computer. If you agree to participate and sign the consent form, it will be stored for 3 years abide by the relevant legislations and then be discarded permanently. Research data without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stored as long as possible abide by the guidelines regarding research ethics provi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all researchers,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all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is study. When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s study is disclosed to the society or the society, your name and other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However, if the law requires it, your personal information may be provided. In addition, the monitoring staff will check the research results to verify the confidentiality, without violating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By signing this instruction form, you acknowledge that you have been aware of this beforehand.

10. Will I be pai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Yes. You will be paid 70,000KRW(applying the exchange rate on the payment day) for your time. If the participant expresses that she/he wants to stop the interview halfway, you will be paid in proportion to the time you have spent.

* In case that researcher is required to discontinue the interview, - such as dropout or unexpected situations - you will also be paid in proportion to the time you have spent.



IRB No. 2009/001-001 유효기간: 2021년 08월 30일

11. What should I do if I have a question about research?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study or if you have problems in the middle of your study, please contact the research administrator.

Name : Youngsub Chun Phone Number: +82-(0)2-880-6382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your rights as a research participant at any time, please contact the following SNU Institutional Review Board.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 IRB)

Phone Number: +82 (0)2-880-5153 E-Mail: irb@snu.ac.kr

IRB No. 2009/001-001 유효기간: 2021년 08월 30일

Agreement (For participant)

Title of Research : Qualitative Research 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Latin American Countries
Research Administrator : Prof. Youngsub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Economics)

1. I read this instruction and discussed it with researcher.
2. I have heard about the risks and benefits and have received answers to my questions.
3. I voluntarily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4. I agree to collect and process information about myself obtained in this study to the extent permitted by current legislation and bioethics review rules.
5. I agree that the related Researchers and SNU 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can check the information that I will give during conducting surveys.
6. I can cancer m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at any time and I know that this decision will not affect me in any way.
7. I agree that the information collected for this research may be used for other possible research of the research administrator and other researchers.

I agree ☐ I disagree ☐

8. My signature means that I have received this agreement form and I will keep the agreement with the signature of the researcher in charge who has been agreed with me.
9. I agree with video recording(or audio recording) the interview if necessary.

I agree ☐ I disagree ☐

Research Participant	Sign	Date(Year/Month/Date)
Researcher in Charge	Sign	Date(Year/Month/Date)

IRB No. 2009/001-001 유효기간: 2021년 08월 30일

Agreement (For researchers)

Title of Research : Qualitative Research 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Latin American Countries
Research Administrator : Prof. Youngsub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Economics)

1. I read this instruction and discussed it with researcher.
2. I have heard about the risks and benefits and have received answers to my questions.
3. I voluntarily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4. I agree to collect and process information about myself obtained in this study to the extent permitted by current legislation and bioethics review rules.
5. I agree that the related Researchers and SNU 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can check the information that I will give during conducting surveys.
6. I can cancer m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at any time and I know that this decision will not affect me in any way.
7. I agree that the information collected for this research may be used for other possible research of the research administrator and other researchers.

I agree ☐ I disagree ☐

8. My signature means that I have received this agreement form and I will keep the agreement with the signature of the researcher in charge who has been agreed with me.
9. I agree with video recording(or audio recording) the interview if necessary.

I agree ☐ I disagree ☐

Research Participant	Sign	Date(Year/Month/Date)
Researcher in Charge	Sign	Date(Year/Month/Date)
Research Administrator	Sign	Date(Year/Month/Date)

IRB No. 2009/001-001 유효기간: 2021년 08월 30일

Instrucciones para los Participantes de Investigación

Título de la Investigación: Investigación Cualitativa sobre la Felicidad y la Calidad de Vida en l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Administrador de investigación: Prof. Youngsub Chun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Facultad de Ciencias Sociales, Departamento de Economía)

Este estudio trata sobre la felicidad y la calidad de vida. Usted ha sido invitado o invitada a participar en este estudio porque actualmente radica en México o Costa Rica, o radica en Corea pero presenta la nacionalidad de uno de los dos países anteriormente mencionados, y aceptó ser entrevistado en este estudio. El investigador, Youngsub Chun (+82-(0)2-880-6382)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SNU), quien dirige esta investigación, le explicará más acerca de este estudio. Este estudio se llevará a cabo solo para aquellos quienes eligen participar voluntariamente. Es importante que usted comprenda por qué se conduce y con qué está relacionada la presente investigación antes de que usted decida participar en la entrevista. Lea atentamente el siguiente texto antes de decidir, y si es necesario, puede consultarlo con su familia o personas cercanas. Si tiene alguna pregunta, el investigador le explicará detalladamente.

1. ¿Por qué se conduce este estudio?
El propósito de este estudio es (1) descubrir qué aspectos de la vida son críticos para la felicidad y (2), inferir las implicaciones del por qué los coreanos se sienten infeliz a pesar de la prosperidad económica de Corea.

2. ¿Cuántas personas participan?
Participarán aproximadamente 32 personas de dos países (México y Costa Rica).

3. ¿Qué proceso proceguirá si participo en la investigación?
En esta investigación, los entrevistas individuales se realizarán uno a uno durante 2 horas por cada entrevista. Se programa una entrevista por participante. La conversación será en español o inglés. En caso de que usted prefiere hablar en su lengua materna, estará un intérprete quien pueda traducir



durante la entrevista. Si se requieren entrevistas adicionales, se procederán con los procedimientos adecuados según su acuerdo.

Si está dispuesto a participar, continuará a la siguiente etapa. Se le harán preguntas, preparadas de antemano, sobre qué le hace feliz o infeliz en su vida. Por ejemplo, se le harán preguntas acerca de su carrera, relación familiar y personal, opciones importantesde vida y sus logros o su participación en su comunidad local, etc. Es posible que se le hagan preguntas de seguimiento adicionales si si cree que hay más que pueda usted contribuir a esta investigación. La entrevista se realizará en línea.

4. ¿Cuánto dura la entrevista?

Se tarda alrededor de 2 horas por cada entrevista.

5. ¿Puedo renunciar mi participación en la entrevista?

Sí, puede parar o cancelar la entrevista en cualquier momento sin inconvenientes durante su participación. Si desea dejar de participar en el estudio, informe de inmediato al investigador o al administrador de la investigación. En este caso, los datos recopilados se utilizarán como material de investigación con consentimiento. Sin embargo, si no está de acuerdo con él, se descartará de inmediato.

6. ¿Hay algún efecto secundario o ries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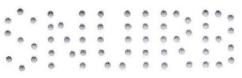
Se espera que este estudio no tenga efectos secundarios físicos o materiales porque se realiza a través de entrevistas en profundidad, y los resultados de la investigación se reflejan de forma anónima, por lo que no existe un factor de riesgo psicológico. Sin embargo, si alguna pregunta del investigador le causa emociones desagradables, avísele al investigador inmediatamente.

7. ¿Los participantes obtienen algún beneficio no económico por participar en este estudio?

No hay beneficio directo para los participantes. Sin embargo, la información que proporcione contribuirá a la comprensión más profunda de diversos aspectos de la felicidad de la vida.

8. Si no participo en este estudio, ¿hay desventajas?

Es usted libre de elegir si participa en este estudio. No hay ninguna desventaja para usted si no participa.



9. ¿Se garantiza la confidencialidad de toda la información personal?

El profesor Youngsub Chun (+82-(0)2-880-6382)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está a cargo de la confidencialidad. La información personal que recopila esta investigación es: su nombre, edad, sexo y el lugar residencia actual. Dicha información soloserá alcanzada por investigadores involucrados (Youngsub Chun, Seok Man Kwon, Seokho Kim, Yunjoo Park, Haeran Shin, Bong Joo Lee, Suhong Chae, Sok Chul Hong, Seojeong Gu, Minji Son, Cassandra Gutiérrez Rosales, Seungwoo Yu, Sujin Lee), y también estará almacenado y bloqueado en la computadora del administrador de investigación (Youngsub Chun). Si acepta participar y firmar el formulario de consentimiento, la información se almacenará durante 3 años de acuerdo con las legislaciones pertinentes. Posteriromente, se descartará de forma permanente. Los datos de investigación sin información personal se almacenarán el mayor tiempo posible de acuerdo con las pautas sobre ética de investigación proporcionadas por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Nosotros, todos los investigadores, haremos todo lo posible para garantizar la confidencialidad de toda la información personal obtenida a través de este estudio. Cuando la información personal obtenida de este estudio se divulgue a la sociedad, su nombre y otra información personal no se utilizarán. Sin embargo, si la ley lo requiere, se puede proporcionar su información personal. Además, el personal de monitoreo verificará los resultados de la investigación para verificar la confidencialidad, sin violar la confidencialidad de la información personal de los participantes de la investigación. Al firmar este formulario de instrucciones, usted reconoce que ha sido consciente de esto de antemano.

10. ¿Recibiré agluna remuneración por participar en este estudio?

Sí. Se le pagará 70,000 KRW por participación aplicándose utilizar el tipo de cambio al momento del pago. Si el entrevistado quiere detener durante la

entrevista, se le pagará según la proporción al tiempo que haya realizado.
* En caso de que se necesita suspender la entrevista de acuerdo con el investigador (por abandono o una situación inesperada), también se le pagará según la proporción al tiempo que haya realizado.

11. ¿Qué debo hacer si tengo una pregunta sobre la investigación?
Si tiene alguna pregunta sobre este estudio o si tiene algún problema durante el transcurso, puede contactar con el administrador de la investigación.

Nombre: Youngsub Chun Número de teléfono: +82-(0)2-880-6382

Si tiene alguna pregunta sobre sus derechos como participante de la investigación en cualquier momento, contacte con la siguiente Junta de Revisión Institucional de SNU.

Junta de Revisión Institucional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SNU IRB)
Número de teléfono: +82 (0)2-880-5153 Correo electrónico: irb@snu.ac.kr



IRB No. 2009/001-001 유효기간: 2021년 08월 30일

Acuerdo (para participante)

Título de la Investigación: Investigación Cualitativa sobre la Felicidad y la Calidad de Vida en l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Administrador de investigación: Prof. Youngsub Chun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Facultad de Ciencias Sociales, Departamento de Economía)

1. I read this instruction and discussed it with researcher.
1. Leí y comprendí las instrucciones. Discutí mis dudas con el investigador.
2. He leído y escuchado sobre los riesgos y beneficios y he recibido respuestas a mis preguntas.
3. Acepto, voluntariamente, participar en este estudio.
4. Estoy de acuerdo con la recopilación y el procesamiento de mi información personal obtenida en este estudio en la medida permitida por la legislación vigente y las reglas de revisión de bioética.
5. Estoy de acuerdo en que los investigadores relacionados y el Comité de Revisión Institucional de SNU pueden verificar la información que daré durante la realización de las encuestas.
6. Comprendo que puedo cancelar mi participación en este estudio en cualquier momento y sé que esta decisión no me afectará de ninguna manera.
7. Estoy de acuerdo en que la información recopilada para esta investigación puede ser utilizada para otra posible investigación del administrador de la investigación y otros investigadores.

Estoy de acuerdo ☐ No estoy de acuerdo ☐

8. Mi firma significa que recibí este formulario de acuerdo, y lo guardaré con mi firma y la firma del investigador.
9. Estoy de acuerdo con la grabación de la entrevista (video o audio) si es necesario.

Estoy de acuerdo ☐ No estoy de acuerdo ☐

Participante de investigación	Firma	Fecha (Año/Mes/Día)
Investigador a cargo	Firma	Fecha (Año/Mes/Día)

Version 1.1(2020.08.31.) - 5 -

IRB No. 2009/001-001 유효기간: 2021년 08월 30일

Acuerdo (para investigador)

Título de la Investigación: Investigación Cualitativa sobre la Felicidad y la Calidad de Vida en l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Administrador de investigación: Prof. Youngsub Chun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Facultad de Ciencias Sociales, Departamento de Economía)

1. Leí las instrucciónes y lo discutí con el investigador a cargo.
2. He leído y escuchado sobre los riesgos y beneficios y he recibido respuestas a mis preguntas.
3. Acepto voluntariamente participar en este estudio.
4. Estoy de acuerdo con la recopilación y el procesameinto de mi información personal obtenida en este estudio en la medida permitida por la legislación vigente y las reglas de revisión de bioética.
5. Estoy de acuerdo en que los investigadores relacionados y el Comité de Revisión Institucional de SNU pueden verificar la información que daré durante la realización de las encuestas.
6. Puedo cancelar mi participación en este estudio en cualquier momento y sé que esta decisión no me afectará de ninguna manera.
7. Estoy de acuerdo en que la información recopilada para esta investigación puede ser utilizada para otra posible investigación del administrador de la investigación y otros investigadores.

Estoy de acuerdo ☐ No estoy de acuerdo ☐

8. Mi firma significa que recibí este formulario de acuerdo, y lo guardaré con mi firma y la firma del investigador.
9. Estoy de acuerdo con la grabación de la entrevista (video o audio) si es necesario.

Estoy de acuerdo ☐ No estoy de acuerdo ☐

Participante de investigación	Firma	Fecha (Año/Mes/Día)
Investigador a cargo	Firma	Fecha (Año/Mes/Día)
Administrador de investigación	Firma	Fecha (Año/Mes/Día)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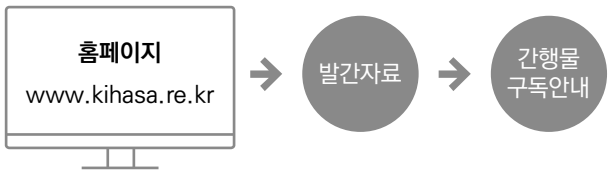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